조선에서의 미국침략자들의 만행에 관한

문 헌 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4

조선에서의 미국침략자들의 만 행 에 관 한 문 헌 집

목　　차

(1)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 도당이 조선 인민에 대하여 감행한 만행

1. 미국 무력 간섭자들과 리승만 도배들의 만행에 관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 위원회의 보도 제1호

1950년 7월 14일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에서 허헌 의장을 수반으로 하여 창설된 본 위원회는 충분히 조사된 사실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론박할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미국 무력 간섭자들은 무력으로써 우리 나라를 자기들의 식민지로 전환시키며 우리 인민들을 노예화 하려는 의도 밑에서 국제 법의 규범과 인도주의 원칙을 란포하게 위반하면서 전쟁을 진행하는 흉악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미국 항공기와 함대들은 로인과 부녀자들을 포함한 평화적 주민들을 살해하면서 조선의 무방비 도시들과 농촌들을 야만적으로 폭격하며 학교, 병원 및 기타 문화 시설들을 파괴하고 있으며 조선의 경제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확증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조사한 일부 사실들을 다음에 렬거한다.

1. 도시와 농촌들의 주택 구역에 대한 폭격

미군의 폭격기와 전투기들은 비 무장 도시들을 무차별 폭격하며 군사적 시설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도시의 주택 지구와 평화적 농촌에 폭탄과 소이탄들을 투하하여 일반 주민들의 주택들과 재산, 가구들을 무수히 파괴 혹은 소각하고있다.

7월 2일부터 동27일까지 전후 12회에 걸쳐 원산에 래습한 128대의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는 50키로 내지 1톤 폭탄 712발을 투하하는 맹폭을 원산 주택지구에 가하였으며 그 결과 평화적 인민들의 주택 4,028호가 파괴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되였다.

7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 전후 8차에 걸쳐 미군 폭격기 및 전투기 약 200대가 함남 흥남지구 일대에 약 2,000발의 폭탄을 무차별적으로 투하하는 맹폭격을 가한 결과 1,811호의 평화적 주민의 가옥이 완전히 파괴 또는 소각되였다.

7월 3, 4, 6, 8일의 4차에 걸쳐 남포시에 래습한 수10대의 미군 폭격기 및 전투기는 남포 주택 지구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였으며 특히 6일과 8일은 비가 퍼붓는 악천기를 리용하여 맹폭을 가한 결과 남포시 주택 지구 14개리중 11개리에 200여

발의 폭탄을 퍼부었으며 그 결과 558호의 주택이 파괴 또는 소각되였다.

주택들의 불붙는 화염과 연기는 1주일 이상 계속되였다.

7월 3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들은 남구 평천리 주택 지구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여 주민의 가옥 45호를 파괴하였다.

7월 4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는 서평양 상흥리 주택 지구에 30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가하여 전체 40호중 완전파괴 또는 일부 파괴되여 거의 전가옥에 피해를 주었다.

7월 4일 미군 폭격기는 강원도 련천군 련천읍에 래습하여 무차별 폭격을 가한 결과 23호의 주택을 파괴하였다.

7월 5일 미군 폭격기 비29 12대는 함흥시에 래습하여 고도 2,000메터의 상공에서 맹폭격을 가한 결과 주민의 주택 80호를 파괴하였다.

7월 5일 미군 폭격기 3대가 평양 근교 양각리 농촌에 래습하여 100키로 내지 500키로 폭탄 70여개를 투하하였다.

그 결과 전 호수 145호중 약 100호가 완전 파괴되였으며 혹은 피해를 받았다.

7월5일 함흥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13대는 철도 종업원 사택 지구에 50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철도 종업원 사택 80호는 완전 파괴되였다.

7월 8일 경기도 개풍군 서면 전포리에 래습한 비29 2대는 대부분 초가집으로 되여있는 이 조그마한 농촌에 대형 폭탄 10여발을 투하하여 18호의 농가를 전소시키고 23호의 농가는 사용 불가능하게 파괴되였다.

7월 9일부터 19일까지 9차에 걸쳐 강원도의 소도시 원주읍에 래습한 24대의 미군 항공기는 50키로 내지 500키로 폭탄 및 소이탄 110여개를 투하하였다. 이와같은 맹폭격의 결과 원주읍의 총 호수 4,771호중 2,813호가 파괴 혹은 전소되여 시가의 대부분이 폐허로 화하였으며 주변의 농촌들을 습격하여 13호의 농가를 소각 또는 파괴하였다.

7월 11일 경기도 수원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는 주택 지구인 오산지구에 맹폭을 가하여 주택 60호를 파괴하였다.

7월 12일 황해도 백령도 해상에 미군 함선 1척이 침입하여 함포 사격을 한결과 부근 농가 5호가 파괴되고 약 2정보의 농작물이 피해를 받았다.

7월 12, 14, 15일의 3회에 걸쳐 강원도 녕월군 농촌에 래습한 16대의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는 농촌들에 대하여 무차별 폭격과 기관총 사격을 가하여 농민 주택30호를 파괴 혹은 소각하였다.

7월 14일과 21일 량일에 걸쳐 비29 4대가 강원도 홍천에 래습하여 폭탄과 소이탄 112개를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가한 결과 58호의 농가가 파괴 또는 소각되였다.

7월 15일, 16, 19일의 3회에 걸쳐 미군 폭격기 6대는 경기도 평택을 맹폭격하였다. 그 결과 평화적 주민의 주택 806호가 파괴되였으며 시가지의 80%가 잿더미로 되였다.

7월 16일 서울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약 한시간에 걸쳐 서울시내 주택 지대를

맹폭하였다. 그 결과 룡산구에서만 민가 1,520호가 완전히 파괴 또는 소각되였다.

경기도 파주군 일대의 농촌에서는 6월 27일 이래 매일 래습하는 미군 항공기의 무차별 폭격으로 말미암아 7월 19일 현재 293호의 평화스러운 농가들이 전소되였다. 이것을 면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림진면 108호, 월롱면28호, 국리면58호, 주내면19호, 피처면 40호, 적성면40호

7월 18일부터 20, 21, 28, 29일, 8월 5일의 6차에 걸쳐 연13척의 미군 함선이 강원도 양양 해상에 침입하여 514발의 함포사격을 감행한 결과 주택 7호가 완전파괴되였고 수많은 농지가 피해를 받았다.

7월 19일 함경남도 지방에 래습하였던 미군 항공기 28대는 함주군 흥성리 농촌에 폭탄 2개를 투하하여 농가 4호를 파괴하였다.

7월 20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6대는 시내 주택지구에 약 70발의 폭탄을 투하하여 83호의 일반 주민의 주택을 파괴하였다.

7월 20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들은 주변 농촌인 서구 청암리 미산리 농촌에 폭탄 11개를 투하하여 농민 가옥 11호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외에 30여호의 농가와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받았다.

7월 20일 폭격기 6대는 평안남도 룡강군 해운면 연곡리 농촌에 500키로 폭탄 96발을 투하하여 농가 20호를 파괴하였다.

7월 21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10여대는 500키로 내지 1톤 폭탄 28개를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주택지구에 가한 결과 181호의 주택이 파괴되였다.

7월 21일 경기도 청평읍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 16대는 평화적 농촌과 도시들에 50여개의 500키로 폭탄을 무차별적으로 투하한 결과 농가 19호가 파괴 혹은 전소하였다.

7월 22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인구 조밀한 주택 지구에 70여발의 폭탄을 투하하여 일반 주민의 주택100여호를 파괴하였다. 이날 이미 수차의 폭격으로 거의 전 농촌이 파괴된 평양 남부 양각리 농촌에 또다시 500키로 내지 1톤의 폭탄 27개를 투하하여 이 농촌을 완전히 페허로 만들었다.

7월 22일 미군 폭격기 10여대가 함경북도 라남시에 래습하여 폭탄 304개를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주택 지구에 가한 결과 506세대가 사는 166호가 완전히 파괴되였다.

7월 23일 때마침 비가 나리는 악천기를 리용하여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수10대는 전후 6시간에 걸쳐 평양시내 주택 지구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여500키로 내지 1톤의 폭탄 600여발을 투하하였다. 그 결과 165호의 주택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수천호의 가옥이 피해를 당하였다.

7월 22일 미군 폭격기 6대는 평안남도 대동군 남형제산면 서남리 및 남교리 농촌에 래습하여 약 20발의 폭탄을 투하하여 농가 12호를 파괴하였다.

7월 26일 미군 폭격기 2대는 황해도 사리원에 래습하여 폭탄 37발을 투하하여 일반 주민의 주택 27호를 파괴하였다.

동일 미군 폭격기 2대는 강원도 철원에 래습하여 사택지구에 24발의 폭탄을 투하하여 로동자 사택18호를 파괴하였다.

7월 26일 사리원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4대는 사리원 역과 그 부근 주택지구에 30여개의 폭탄을 투하한 결과 20호의 주택이 완전히 파괴되고 40여호의 주택이 일부분 파괴되였다.

7월 28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7대는 구름낀 천기를 리용하여 시내 주택지구에 500키로 폭탄 75개를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여 229호의 주민 가옥을 파괴하였으며 많은 가재 가구 및 개인 상점의 상품이 파손 소각되였다. 또 그 주변 주민 가옥 200여호가 피해를 받았다.

7월 28일 평안남도 양덕읍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주택지구에 20여발의 폭탄을 투하하여 주민 가옥 10여호를 파괴하였다

8월 3일 함경남도 본궁 지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53대는 582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감행한 결과 130호의 가옥이 파괴되였다.

2. 문화 시설 및 기타 시설에 대한 폭격

미국 공군은 무차별적 맹폭으로 혹은 의식적인 조준 폭격으로써 학교, 병원, 극장, 휴계소, 구락부 등 문화 시설과 기타 비 군사적 시설들을 무수히 폭파 혹은 소각하는 야만적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7월 3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곡산 공장 병원을 폭격하고 로켓트포를 다수 사격한 결과 동 병원을 완전 파괴 소각하였다.

7월 3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교통성 병원을 폭격하여 병원 일대는 파괴되고 입원환자 47명중 사망자 10명 중상자 34명 경상자 3명을 내였다.

7월 4일 경기도 련천군 련천읍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4대는 초급 남자 중학교, 고급 남자 중학교, 잠업 기술학교를 기관총으로 사격하고 소이탄을 투하하여 소각시켰다.

7월 6일 남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4대는 남포 인민 병원을 폭격하여 병원 내부 시설 전부와 부속 건물 일체를 파괴하였다. 그 결과 환자 약 20명이 살상되였다.

7월 8일 남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6대는 남포 로동자 주택 지대를 폭격하여 영화관과 문화회관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원산지구에 래습한 폭격기 및 전투기들은 원산 일대를 맹목적으로 폭격하고 기관총을 란사하여 다수의 국가 기관, 정당, 사회단체 기관과 교육, 문화 기관들을 파괴하였다. 즉 7월 7일에는 강원도 재판소, 민주 청년동맹 강원도 위원회, 민주 녀성동맹 강원도 위원회와 제13인민학교, 도 교육 간부학교, 적십자 병원의 일부들을 파괴하였고 13일에는 로동당 강원도당부, 역전 우편국, 철도 우편국을 비롯하여 사범 전문학교, 전기 기술전문학교, 녀자고급 중학교, 제3 인민 학교, 중앙병원, 레뿌라 병원, 교통병원, 검역소, 사회보험 휴계소, 야외극장, 회관, 구락부, 합숙등을 파괴하였으며 동 27일에 교원대학, 남자 고급중학교, 제1녀자 중학

교, 도립극장, 제2 우편국 등을 파괴하였다.

7월 8일 남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남포 제4 인민학교에 500키로 폭탄을 3발을 투하하여 교사내부 시설 일체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7월 13일 원산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원산 기독교 교회당 주위에 폭탄 4개를 투하하여 목사의 집을 비롯한 주위의 민가는 전부 파괴되고 교회당의 일부도 파괴되였다.

7월 15, 16, 19일 3일간에 걸쳐 경기도 평택시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맹폭을 가한 결과 소학교 1교와 4개의 병원이 파괴되였다.

7월 16일 서울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의 맹폭으로 말미암아 룡산구에서만 병원 14개소와 교육기관 2개소와 1개의 카도릭교회 및 고아원이 파괴되였다.

7월 16일에 경기도 평택시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의 무차별 폭격으로 말미암아 평택 인민학교가 파괴되였다.

7월 23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공업대학에 5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동대학의 강당, 실습실, 기숙사, 직원합숙등을 완전히 파괴하였으며 교사의 일부를 파괴하였다. 또 동일 서평양 제1인민병원에도 역시 5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천정과 내부시설이 파괴되여 사용 불가능하게 되였다.

또 련화리 교회, 박구리 교회, 류성리 교회등이 파괴 또는 피해를 받았으며 10여명의 교인들이 살상되였다.

7월2일부터 8월 3일까지 흥남지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및 전투기들의 무차별적 폭격과 기관총 란사로 말미암아 흥남 화학전문학교, 제3 인민학교, 제7 인민학교를 비롯한 다수의 학교와 해방극장, 흥남도서관, 문학 예술총동맹, 조쏘문화협회, 종합병원, 결핵병원, 전염병 병원등 다수의 문화기관을 파괴하였다. 그외에 시 인민위원회, 로동당 시당부, 조국전선위원회, 민주 청년동맹 시 위원회, 민주녀성동맹 시위원회, 기독교련맹등 다수의 국가기관과 정당, 사회단체 기관들도 파괴 되였다.

3. 평화적 군중 살해

미국 공군은 군사적 시설과는 하등의 관련성도 없는 일반 주민의 주택지구 문화시설 및 기타 평화시설들에 대하여 폭격 로켓트포 발사 또는 기관총등을 발사함으로써 녀자 아동들을 포함한 다수의 평화적 군중들을 살상하였다. 특히 천인 공노할 사실은 폭격을 피하여 산으로 피신하는 군중 혹은 강까에서 세탁하는 부인들과 들에서 농사하는 농민들에게 대하여서 까지도 기관총 소사를 감행하고 있다.

6월 29일에 미군 폭격기 27대, 7월 3일에 연 60여대가 평양에 래습하여 무차별적 폭격, 로켓트포 발사, 기관총 소사를 감행한 결과 48명의 평화적 주민이 피살되였으며 특히 점심 시간에 독보회를 하고 있는 평양역 건설 사업소를 폭격한 결과 로동사 14명이 즉사하였다.

7월 2일 함경남도 련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11대는 52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가한 결과 평화적 주민 37명이 살상되였다.

7월 2일부터 27일까지 전 후 12회에 걸쳐 원산지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는 맹목적인 폭격과 무차별적인 기관총 소사로써 평화적인 주민 1, 647명을 살해하였는바 그 중에는 739명의 녀자와 325명의 아동이 포함되여있다.

그 외에 2, 267명이 부상당하였다.

특히 7월 13일에는 원산에 있는 사회보험 휴계소를 폭격하여 2동의 사회보험 휴계소를 파괴하고 거기에 류숙하고있던 170명의 모범 로동자와 수10명의 직원을 살해하였다.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전 후 8회에 걸쳐 함흥, 흥남 지구에 래습한 약 200대의 미군 폭격기 및 전투기는 두 지구 일대의 주택지구에 무차별 폭격과 기관총 소사를 가하여 평화적 주민 297명을 살해하였으며 446명이 중상을 입었다.

7월 3일 2회에 걸쳐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가 시내 각처의 주택지구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한 결과 평화적 주민 52명이 살상되였다.

7월 2일 황해도 장연군 장연역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들은 때마침 장연역에 도착한 려객차를 향하여 기관총 사격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려객 1명이 (녀자)즉사하였고 17명이 부상당하였는바 그 중 10명의 녀자가 포함되여있다.

7월 3일 미군 항공기 4대는 황해도 봉산군에서 밭에서 농사짓고있는 농민들에게 기관총으로 소사하여 10명의 농민을 즉사케 하였으며 8명을 부상시켰다.

7월 3일 미군 항공기는 평양발 라진행 급행렬차가 서포역에 정거하고있을때 이 려객차에 기관총 소사를 가하여 조역 정창렴씨와 수명의 려객이 중상을 입었다.

7월 3, 4, 6, 8일의 4차에 걸쳐 남포시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및 전투기 수10대는 주택 지구에 무차별 폭격과 기관총 소사를 감행한 결과 평화적 주민 400여명이 무참히 살상되였다.

7월 4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36대는 전차거리, 시 인민 위원회 앞 대로 및 체신성 앞 거리를 수차 왕복하면서 시민들에게 기관총 소사를 가하였으며 그 결과 30여명의 시민이 살해되였다.

역시 동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모란봉 산경 흥부에 있는 국수집을 폭격하여 때마침 점심 국수를 먹고 있던 10수명을 즉사시켰다.

역시 동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들은 서평양 상흥리 주택지구에 무차별 폭격과 기관총 사격을 가한 결과 녀자 5명, 아동 6명을 포함한 15명의 평화적 주민이 살해되였으며 35명이 부상당하였다.

7월 4일 남포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6대는 남포근교 문애리 농촌을 급습하여 중경 제초를 하고있던 농민들에게 4차나 기관총 사격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논뚜렁에서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던 김모라는 녀성농민을 비롯하여 15명의 농민을 살상하였다. 또 동일 남포를 출발하여 황해도로 건녀가던 려객선에 5차나 기총 사격을 가하여 33명의 승객을 살상하였다.

7월 4일 미군 폭격기 4대가 황해도 벽성군 소송면 농촌에 래습하여 밭에서 ㅈ

초중인 농민을 향하여 폭탄 8개를 투하하여 제초중이던 농민 9명을 살상하였다.

동일 강원도 련천군 련천읍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의 폭격으로 말미암아 주민 19명이 살상되였다.

7월 5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양각리 농촌을 무차별 폭격하여 28명의 남녀 농민을 살상하였다. 특히 밭에서 일하는 농민 김상일 (62세) 과 도마도 밭에서 도마도를 따던 인민학교 학생 함복식 (12세) 을 발견한 미군 폭격기는 이에 폭탄을 투하하여 즉사케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7월 5일 함흥에 래습한 12대의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는 156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맹폭을 가한 결과 111명이 중상을 입었다.

역시 동일 성천강에서 빨래하는 부인들과 목욕하는 아이들에게 기관총 소사를 가하여 12명의 사망자와 13명의 중상자를 내였다.

7월 5일 함흥시에 래습한 비29 12대는 고도 2,000메터의 상공에서 주택지구에 무차별 폭격을 가한 결과 평화적 주민 159명이 살상되었다.

7월 5일 미군 폭격기 4대는 강원도 신탄에 래습하여 고도 1,500메터의 상공에서 맹폭격을 가한 결과 평화적 농촌 주민 10여명이 살해되였다.

7월 5일 미군 폭격기 1기는 평안남도 룡강군 귀성면 제염소에 폭탄 16발을 투하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 11명이 살상되였다.

7월 7일 강원도 속초 해상에 미군 함선 4척이 침입하여 30발의 함포 사격을 가한 결과 평화적 농민 3명을 살상하였다.

7월 8일 경기도 개풍군 서면 전포리에 래습한 비29 2대는 전부 농토에 나가고 로인과 어린아이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소 농촌에 10여발의 폭탄을 투하하여 35명을 살해하고 6명을 부상시켰다.

그중 21명은 유아와 소년이며 나머지는 전부 로인과 부녀자들이였다.

7월 8일 미군 폭격기 비29 1대는 황해도 금천군 좌희면 래맘리 농촌에 래습하여 밭에서 일하고있는 농민들을 향하여 폭탄 10발을 투하한 결과 10명의 농민이 살해되였다.

7월 8일 황해도 서흥군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4대는 부근 농촌 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대하여 12개의 폭탄을 투하하고 기관총 사격을 감행한 결과 농민 2명이 살해되고 2명이 부상당하였다.

7월 9일부터 동 19일까지 전후 9회에 걸쳐 원산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의 맹폭과 또 폭격을 피하여 산으로 피신하는 인민들에 내한 무차별적 기관총 소사로 말미암아 약 200명의 인민들이 무참히 피살되였다.

7월 11일 수원지구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의 주택지구에 대한 맹폭으로 말미암아 평화적 주민 15명이 피살되였다.

7월 12일, 14일, 15일의 3회에 걸쳐 강원도 녕월군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및 전투기 16대의 녕월군 일대의 농촌에 대한 무차별 폭격과 농민들에 대한 기관총사격으로 말미암아 33명의 평화적 농민이 살상되었다.

7월 14일과 21일 량차에 걸쳐 강원도 통천읍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4대는 116개의 폭탄과 소이탄을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가한 결과 44명의 농민이 살해되였다. 특히 14일에 래습한 미 항공기는 농민 동맹 회의에 참가하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남 녀 농민들을 향하여 12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그 결과 24명의 농민이 즉사하였는바 그 중에는 7, 8명의 녀자 농민도 있었다.

7월 14일 경기도 룡성군 구성면 보종리 농촌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4대는 때마침 학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던 구성 인민학교 3학년생 문원기 (10세)외 8명의 학생에 대하여 기관총으로 사격한 결과 상기 문원기외 3명에게 중상을 입히였다.

7월 15일, 16일, 19일 3회에 걸쳐 경기도 평택시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의 무차별 폭격으로 말미암아 77명의 평화적 주민이 살상되였다.

7월 15일 인천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는 평화 산업공장인 동양 방직을 폭격파괴 하는 동시에 밭에서 제초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기관총 소사를 가하여 8명의 농민을 살해하였다.

7월 16일 서울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의 맹폭으로 말미암아 평화적주민 1, 096명이 살해되였으며 74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458명이 경상을 당하였다. 또 집과 가재를 잃은 리재민은 7,000명에 달한다.

7월 18일 미군 폭격기 22대가 강원도 안변부근 농촌에 래습하여 수10발의 폭탄을 투탄한 결과 밭에서 제초중이던 14명의 농민이 살해되였다.

7월 19일 함경남도 지방에 래습하였던 미군 항공기 28대는 오로리역 (적은 농촌 정거장) 상공을 통과하면서 폭탄 수발을 투탄하고 기관총 사격을 하여 역 근무원 4명을 살상하였다.

동일 오후에 함경남도 지방에 재차 래습한 미군 항공기 16대는 퇴조항(조그마한 어항)을 폭격하고 기관총 사격을 가한 결과 어선 수척을 파괴하고 어부 12명을 살상하였다.

7월 19일 함경남도 신북청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는 동시에 폭탄 5발을 투하하고 기관총으로 소사한 결과 7명이 살상되였다.

7월 19일 미군 폭격기 및 추격기 8대가 강원도 통천 지방에 래습하여 기관총으로 소사한 결과 평화적 주민 13명이 살상되였다.

동일 강원도 문천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5대는 28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17명의 평화적 주민을 살상하였다.

7월 20일 미군 폭격기 6대는 평양에 래습하여 주택지구에 약70발의 폭탄을 투하한 결과 65명의 평화적 주민들이 살상되였다. 또 시외 농촌 지구에 무차별 폭격을 가한 결과 녀자 10명 아동12명을 포함한 28명의 평화적 농촌주민들이 살상되었다.

7월 20일 비29 수대가 평안남도 강동군 시종면 신곡리 농촌에 래습하여 폭탄 20여발을 투하한 결과 부근 농촌에서 농사중이던 농민 5명이 살상되였다.

7월 20일 평안남도 룡강군 해운면 연곡리 농촌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6기는 촌

락과 부근 농지에 폭탄 96발을 투하한 결과 농작 중이던 농민 15명이 살상되였다.

7월 21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의 주택 지구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말미암아 31명이 살상되고 75명이 중상을 받았다.

7월 21일 미군 폭격기 및 전투기 6대가 경기도 청평읍에 래습하여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며 기관총을 란사한 결과 48명의 평화적 농민들이 살해되였다.

7월 22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주택 지구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여 평화적 주민 23명을 살해하고 30여명을 부상시켰다.

7월 22일 함경북도 라남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의 주택 지구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말미암아 남자 95명, 녀자 39명 유아 15명 계 149명이 폭사하였으며 177명이 부상 당하였는바 그 중에는 녀자 60명 유아 24명이 포함되여 있다.

7월 23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수10대는 주택 지구에 폭탄 162개를 투하한 결과 평화적 주민 439명이 살상되였다.

7월 23일 미군 폭격기 6대는 평안남도 대동군 남형제산면 시남리 및 남교리 농촌과 부근 농지에 약 20발의 폭탄을 투하한 결과 밭에서 제초하고 있던 농민 20명이 살상되였다.

7월 26일 황해도 사리원시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2대는 주택지구에 무차별 폭격을 가한 결과 78명의 평화적 주민들이 살상되였다.

동일 강원도 철원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2대는 사택지대를 무차별 폭격한 결과 29명의 주민들이 살상되였다.

7월 26일 사리원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는 다수의 폭탄을 투하하였으며 또 폭격을 피하여 강안산으로 피신하여 나무 밑에 은폐한 군중들에게 야수적인 기관총사격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54명의 평화적 주민이 살상되였는바 그중에는 35명의 녀자와 5명의 아동이 포함되였다. 또 92명의 녀자를 포함한 163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7월 27일 이래 파주군 일대에 련일 래습하던 미군 폭격기의 맹폭으로 말미암아 동군에서의 인명의 피해는 7월 19일 현재 확실히 판명된것만으로 사망자 63명 부상자 572명에 달한다.

7월 28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이 악천기를 리용한 무차별 폭격으로 말미암아 22명의 평화적 주민들이 살상되였다.

7월 28일 평안남도 양덕읍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의 무차별 폭격으로 20명의 평화적 주민들이 살상되였다.

8월 3일 함경남도 본궁지구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53대가 맹폭을 감행한 결과 25명의 평화적 주민이 살해되였다.

4. 공장 제조소들의 파괴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경제를 파괴하고 조선 인민을 빈궁에 몰아 넣기 위하여 수많은 평화 산업의 공장 제조소들을 파괴하고 있다.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후 5차에 걸쳐 평양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들의 폭격으로 말미암아 평양 철도공장을 비롯하여 평양 방직공장, 산소 공장, 인조견 공장, 맥주 공장, 기구제작소, 외성백화점등의 공장 기업소들이 파괴되였다.

7월 3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50키로 내지 500키로 폭탄과 소이탄등 약 40발을 평양 곡산공장에 투하하여 전분공장, 당화공장, 제품창고, 원료창고, 자료창고, 포장공장등 동공장의 대부분을 파괴하였다.

7월 3일 남포시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남포 제련소를 폭격하여 그 일부를 파괴하였다.

7월 6일과 8일에 미군 폭격기는 동 공장을 또다시 폭격하여 그를 완전히 폭파하였다.

7월 4일, 13일 량차에 걸쳐 사리원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는 사리원 방직공장을 폭격하여 그 일부분을 파괴하였다.

7월 5일 미군 폭격기는 평안남도 룡강군 귀성면에 래습하여 제염소에 폭탄 16발을 투하하여 그 일 부분을 파괴하였다.

7월 6일 남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6대는 현물세 창고를 폭격하여 8개를 소각하고 7개를 파괴하였으며 조선상사회사 창고 2개를 소진하고 1개를 파괴하였다.

7월 6일과 8일에 남포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는 남포 조선소에 폭탄 12발을 투탄하여 목조선공장, 목형공장, 주물공장 등 기본 공장들을 전부 파괴하였다.

7월 7일 원산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무연탄 공장을 폭격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7월 8일 남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100여발의 폭탄 소이탄을 투하하여 남포 조선소와, 전극공장, 조선상사회사 창고 2동을 파괴 혹은 소각하였다.

7월 13일 원산 지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3대는 강원도 문천 아연공장 주위에 39발의 폭탄을 투하하여 동 공장의 일부분을 파괴하였다.

7월 13일 미군 폭격기는 원산시에 래습하여 폭탄 500여발을 투하하여 식량창고 1개와 피혁공장 전부를 파괴하였다.

7월 13일과 27일 량일에 걸쳐 원산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는 원산 조선소에 폭격을 가하여 동 조선소를 파괴하였다.

7월 15일 리천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는 동양 방직공장을 폭격하여 공장 건물 2동과 27대의 중요기계를 완전히 파괴하였으며 기타 시설들도 사용 불가능하게 파괴하였다.

7월 19일 흥남 지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및 추격기 28대는 본궁 카바이트 공장에 1톤 폭탄 6발을 투하하여 동 공장의 절반을 파괴하였다.

7월 22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는 평양 장유공장에 투탄하여 동 공장 일부를 파괴하였다.

7월 22일 해주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해주 평화산업 시설에 폭격을 가하여 창고 3동과 해주 세멘트 공장의 일부분을 파괴하였다.

동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평양 장유 공장을 또다시 폭격하여 그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7월 23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직물공장을 폭격하여 동 공장과 창고 일부를 파괴하였으며 또 평양 제1 양말공장을 폭격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7월 23일과 8월 7일 량차에 걸쳐 평양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는 평양 전차 사업소를 폭격하여 전차 창고와 기타 건물 및 레루시설들을 대부분 파괴하였다.

7월 28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평양 철도공장을 또다시 폭격하여 동 공장을 소각하였다.

7월 30일 룡성 지구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들은 룡성 기계 제작소를 폭격하여 동 창고를 파괴하였다.

7월 30일, 8월 1일, 3일 3차에 걸쳐 흥남 지구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115대는 동지구에 약 1,500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맹 폭격을 가한 결과 많은 주택들과 아울러 흥남 비료 공장, 제약공장, 본궁공장, 서본궁공장, 카바이트 공장, 흥남 제련소 등 중요 공장들을 대부분 파괴하였으며 특히 조선 농업 발전에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흥남 비료 공장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8월 5일 해주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4대는 해주 세멘트 공장을 폭격하여 동 공장 부속 창고 3동을 파괴하였다.

동일 남포시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8대는 판초자 공장을 폭격하고 로켓트포를 발사하여 동 공장을 파괴하였다. 총칼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간섭자들은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옹호하기 위하여 궐기한 전체 조선 인민들의 결정적 저항을 받고있다.

조선에서의 미국 간섭자들의 사업이 악화되면 될수록 그들은 더욱 흉악하게 조선 인민을 반대하는 전쟁을 진행하며 투쟁과 승리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신념을 간악하게 꺾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유•엔헌장을 위반하면서 미국의 지시에 의하여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승인하는 결의에 도장을 찍은 안전보장 리사회의 친미 다수파의 방조로써 앞으로 미국 군대의 조선에서의 비인간적 만행을 정당화하는 결정을 통과시킬 수 있으리라고 미국 식민지 략탈자들은 타산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조선 령토에서 그들이 감행한 류혈적 만행을 절대로 용허하지 않으며 조선 인민의 권리에 대한 파렴치한 침해와 우리의 아들딸들과 어머니들 아버지들을 살해한것은 결코 용허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미국 식민지 략탈자들은 알아야 할것이다.

조선 사람들의 심장에서는 조선 인민들에게 전대 미문의 재난을 가져온 침략자들에게 대한 신성한 증오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것이다.

우리들은 미국 간섭자들의 야만적 행동에 대한 조선 인민들의 격분은 전세계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의 동감을 받으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미국 간섭자들과 그들의 방조자들은 그들이 감행한 류혈적 만행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하지 못할것이다.

1950년 8월 18일

미국 무력 간섭자들과 리승만 도배들의 만행에
관한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위원회

2. 미국 무력 간섭자들과 리승만 도배들의 만행에 관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 위원회 보도 제 2호

본 조사 위원회는 1950년 8월 18일 보도 제1호를 발표한 후 조사를 계속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충분히 확증된 제 사실은 본 위원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론박할 수 없는 근거를 주었다.

즉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 하고 우리 인민들을 노예화 할 목적으로 국제법의 제 원칙과 유•엔 헌장을 란포하게 유린하면서 조선 인민들을 반대하는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무력 간섭자들은 조선에서 국제법과 인도주의를 무시하는 비 인간적 만행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하고있다.

미군 항공기들은 대 편대로 무방비의 주요 도시들에 래습하여 대상 여하를 가리지 않고 폭격하여 이들을 잿더미로 만들며 지방, 도시, 농촌, 어촌 등 적어도 조선 인민의 가옥이 있는 곳은 어디를 물론하고 이를 습격하여 폭격과 기총 소사로써 또는 함선의 함포 사격으로써 주민의 가옥들을 파괴 소각하며 병원, 학교, 극장 등 문화 시설들과 공장, 광산, 제조소 기타 산업 시설들을 모조리 파멸시키며 광대한 면적의 농지를 황폐화하는 더욱 야만적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

평화적 주민들에 대하여서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 곳은 어디를 물론하고 폭탄을 퍼붓고 기관총을 란사하며 남녀 로소를 가리지 않고 더욱 대중적으로 살상하며 애국자들을 고문 총살하며 부녀자들을 강간하는 등 온갖 비 인간적 만행을 다하고있다.

이를 확증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는 보도 제 1호 이후 본 위원회가 계속 조사 심의한 제 사실의 일부를 다음에 렬거한다 (남 조선의 일부 지역에 관하여서는 인민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이후의 사실들 중에서 본 위원회가 조사 확인한 사실들의 일부를 렬거한다).

1. 도시와 농촌들의 주택 구역에 대한 폭격

미군 항공기들은 군사 시설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도시들과 농촌들의 주택들을 더욱 야만적으로 폭격하여 다수의 도시들과 농촌들을 폐허로 만들고 있다.

7월 2일부터 미국 함선과 항공기들은 남 강원도 주문진 동편 해안 어촌에 대하여 수천발의 포탄과 기총 소사를 감행하였다.

7월 3일 미군 순양함 2척은 해상 4키로 지점에서 구축함 1척은 해상 500 메터 지점에서 각각 45미리 내지 80미리 함포로 수백발의 포탄을 사격하였다.

그 결과 주문진 일대에서 주민 가옥 164호가 전소되여 1,000여세대 4,122명의

리재민을 내였다.

7월 9일 미군 폭격기 4대는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면 일대에 래습하여 70개의 폭탄과 소이탄을 투하하는 맹폭을 감행한 결과 99호의 농가가 전소되였으며 114호가 사용 불가능하게 되였다.

7월 16일 비 29 8대가 2차에 결쳐 경기도 안성군 안성면에 래습하여 폭탄 20여발과 소이탄 6발을 투하하여 평화적 주민 가옥 789호를 파괴 소각하였다.

7월 10일 경기도 려주군 려주읍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3대는 수다한 폭탄을 무차별적으로 투하하여 384호의 가옥을 파괴하였다.

7월 12일, 7월 13일 량일간에 결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면 상발리에 연 60여대의 미군 폭격기의 맹폭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농가인 187호의 주민 가옥이 완전 파괴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되였다.

7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2대는 충주 남주동 일대와 북무로 2가에 휘발유를 뿌리고 수개의 소이탄을 투하하여 주민 가옥 155호를 전소시켰다.

7월 13일 전라남도 광상군 산을면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수대의 무차별적 맹폭으로 말미암아 193호의 농가가 완전 파괴되였다.

동일 충청북도 단양군 래강면 장림리에 미군 폭격기 6대가 래습하여 15개의 대형 폭탄을 투하하여 60여호의 주민 가옥을 파괴하였다.

7월 14일 미군 폭격기 5대는 경기도 안성군에 래습하여 주택지구에 다수의 폭탄과 소이탄을 투하하는 만행을 감행한 결과 주민 가옥 420호를 파괴하였다.

7월 20일 미군 항공기 14대가 전라북도 금제시에 래습하여 연 7차에 결쳐 폭격하여 주택 375호를 완전 파괴하였다.

7월 25일 전라남도 광상군 마로면 적암리에 미군 폭격기 4대가 래습하여 전 호수 70호밖에 안되는 이 소 농촌부락에 소이탄 10여개를 투하하여 20호를 전소케 하였다.

7월 27일 충청북도 괴산군 심극면 림곡리, 신양리, 극곡리에 래습하여 2시간에 결친 맹폭으로 말미암아 111호의 주민 가옥이 파괴되였다.

7월 28일 경상북도 영주군 용산면 구촌리에 미군 폭격기 비29 3대가 래습하여 70여개의 폭탄과 소이탄을 투하한 결과 농가 120호가 완전 파괴되였다.

7월 29일 미군 폭격기 2대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의 평화적 농촌에 래습하여 소이탄 7개를 투하하여 농가 29호를 전소시켰다.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5회에 결친 연 30여대의 미군 폭격기들은 충청북도 옥천군 이흥면에 래습하여 대부분 초가집으로 되여있는 동면의 조그마한 농촌들에 무차별적 폭격을 가하였다. 그 결과 192호가 파괴되였는바 이를 리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신흥리 29호, 이원리 43호, 원동리 40호, 대흥리 35호, 숙항리 45호.

8월 5일 미군 폭격기들은 전라북도 전주시 만성동, 신북동, 정석동에 대형 폭탄 다수를 투하하여 상기 3개동을 전소 파괴시켰다.

8월 7일 평양에 래습한 비 29 33대는 주택지구에 450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감행한 결과 528호의 일반 주민의 주택이 완전히 파괴되였다.

동일 미군 항공기 2대의 엄호하에 함경남도 단천군에 침입한 미군 순양함 6척은 동지구에 무차별적 함포사격을 감행한 결과 일반 주민의 주택 26호가 파괴되였다.

동일 남강원도 녕월군 녕월면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4대의 맹폭과 기총사격으로 말미암아 40호의 주민 가옥이 전소되였다.

동일 미군 폭격기 6대가 전라북도 전주시 남계동, 화산동, 진북동, 고상동 일대에 래습하여 무차별 폭격하고 또 소이탄을 투하한 결과 273호의 주택이 완전히 파괴 소각되였으며 326호의 주택이 사용 불가능하게 되였다.

8월 8일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에 폭격기 2대가 래습하여 28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91호의 주민 가옥을 완전 파괴하였다.

8월 9일 함흥시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9대는 주택지구에 폭탄 135발을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여 개인주택 253호를 파괴하였다.

수차에 걸친 무차별 폭격으로 시가지의 대부분이 파괴된 원산시에 미군 항공기 9대는 8월 9일 또다시 래습하여 폭탄 77발을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감행한 결과 일부 남아있는 주택중에서 26호가 또다시 파괴되였다.

동일 미군 폭격기 5대가 전라북도 전주시에 래습하여 무차별 맹폭을 가한 결과 전주시 고사동과 화산동 일대의 주택 58호가 완전파괴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되였다.

8월 10일 미군 폭격기 31대는 또다시 원산에 래습하여 120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로동자 주택 67호가 파괴되였다.

동일 평안남도 대동군 일대의 농촌들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5대는 각 농촌에 22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여 20호의 농가를 파괴하였으며 농지와 과수원에 다대한 피해를 주었다.

동일 미군 폭격기 2대는 전라북도 익산군 웅포면 맹잔리 3구 농촌에 래습하여 소이탄 2개를 투하하여 동리 농가 13동을 전소시켰다.

8월 11일 강원도 평강군 복계면 일대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4대는 50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여 67호의 주택을 파괴하였다.

8월 11일 12일 량일간에 걸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면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는 수10발의 로켓트포 소사를 감행하여 안동리에서 13호, 매포리에서 45호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8월 12일 함흥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7대는 주택 지구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여 개인주택 56호를 파괴하였다.

동일 평안북도 구성군에 미군 폭격기 3대가 래습하여 동군 일대 농촌에 153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감행한 결과 일반 농민주택 13호를 파괴하고 15,000여평의 농지에 피해를 주었다.

8월 12일, 13일 량일간에 걸쳐 미군 폭격기 5대는 함경남도 함흥시에 래습하여 주택지구에 500키로 내지 1톤의 폭탄 100여개를 투하하는 맹폭의 결과 평화적 주민가옥 309호가 파괴 또는 사용 불가능케 되였다.

8월 12일, 13일 량일에걸쳐 미군 항공기 19대는 충청북도 괴산에 래습하여 50여개의 폭탄 및 소이탄을 투하하는 맹폭으로 말미암아 150여호의 주택들이 완전파괴 또는 소실되였다.

8월 13일 평안남도 대동군 룡악면의 소 농촌역인 매산점역 부근을 무차별 폭격하여 평화적 주민의 주택 11호를 파괴하였다.

동일 강원도 평강군 북계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주택지구를 무차별 폭격한 결과 14호의 일반 주택을 파괴하였다.

동일 미군 함선 3척이 함경남도 리원군 쌍암리 농촌 및 남대천 부근에 100발의 함포사격을 가한 결과 농민 가옥 11호가 파괴되였으며 10,000여평의 농지가 수확 불가능하게 되였다.

8월 16일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일대 농촌에 미군 폭격기 4대가 래습하여 다수의 폭탄과 소이탄을 투하하는 맹폭을 감행한 결과 424호의 농가가 파괴되였다.

동일 강원도 통천군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6대는 동군 일대의 농촌을 습격하여 폭격 및 기관총 소사를 감행한 결과 16호의 농민가옥이 파괴되였다.

동일 강원도 평강군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4대는 30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감행한 결과 일반 주민의 주택 10호를 파괴하였다.

동일 함경남도 고원군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10대는 주택지구에 무차별적 폭격 및 기관총 소사를 감행한 결과 일반 주택 38호가 파괴되였다.

동일 함경남도 고원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및 전투기 11대의 고원 주변 농촌에 대한 무차별적 맹폭으로 말미암아 39호의 농민 가옥이 완전히 파괴되였다.

7월 5일부터 8월 17일까지 6회에 걸쳐 충청북도 충주군 어정면 내정리 및 목계리에 미군 폭격기 30대가 래습하여 95개의 폭탄과 소이탄을 투하하는 맹폭을 가하여 농민 가옥 60호를 전소시켰다.

7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6회에 걸쳐 충청북도 괴산군 상모면 수회리 및 수안보에 래습한 연 10대의 미군 폭격기들은 수10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그 결과에 213호의 농가가 완전파괴 또는 사용 불가능케 되였다.

8월 17일 19일 량일에 걸쳐 미군 폭격기들은 흥남지구에 래습하여 운성리 로동자 주택에 63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2개의 합숙과 264세대의 로동자 주택을 완전히 파괴하였으며 74세대의 주택을 사용 불가능케 하였다.

8월 19일 함흥 흥남지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36대는 동지구 일대에 233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감행한 결과 평화적 주민들의 주택 233호가 파괴되였다.

동일 청진시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30여대는 주택지구에 1,012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맹폭을 감행한 결과 2,626호의 주택이 완전 파괴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되였다.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들은 매일 수차씩 해방된 인천시에 래습하여 주택 지구에 야만적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고 있다.

미군 항공기들의 이와 같은 야만적 폭격으로 말미암아 8월 5일부터 19일까지의 사이에만도 1,670호의 주택이 완전 파괴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되였다.

특히 8월 12일에는 수10대의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래습하여 해안선 주택지구 신생동 사동 십포동 등 주택 지구에 야만적 맹폭을 가하여 하룻 동안에 실로 1,260여호의 주택을 파괴하였다.

8월 20일 황해도 재령군 일대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22대는 각 농촌을 무차별 폭격하고 기관총으로 소사하여 농민 주택 39호를 파괴하였다.

동일 장연군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4대의 무차별 폭격으로 말미암아 농민주택 19호가 파괴되였다.

동일 평안북도 정주군, 박천군, 선천군 지대에 미군 항공기 15대가 래습하여 농촌지대에 51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감행한 결과 농민의 주택 30호를 파괴하였다.

동일 흥남시 운중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24대가 로동자 사택지구에 63개의 대형 폭탄을 투하하는 맹폭으로 말미암아 로동자 사택 34호가 완전히 파괴되였다.

동일 황해도 해주시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31대가 주택지구에 무차별 폭격을 가한 결과 45호의 주택이 완전 파괴되였다.

동일 황해도 장연군 락도면 지경리에 미군 폭격기 및 전투기 6대가 래습하여 농민 주택에 대하여 폭탄 10여발을 투하한 결과 15호가 파괴되였다.

8월 21일 성진 지구에 침습한 미군 함선 2척은 동지구에 대하여 야만적 함포사격을 감행한 결과 45호의 주택이 파괴되였다.

8월 21일 평양시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7대는 문수리와 류성리의 주택지구에 폭탄 21발을 투하하여 36호의 주택을 완전 파괴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하였다.

동일 함경남도 함주군 오로리역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역 부근 주택지구에 맹폭을 가하여 개인 주택 21호를 파괴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하였다.

8월 23일 미군 폭격기 비29 2대는 함경남도 함주군 상기천면 오상리 농촌에 래습하여 500키로 폭탄 10여발을 투하하여 농가 32호를 파괴하였다.

동일 미군 폭격기 5대가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행주동 농촌에 래습하여 다수의 폭탄을 투하하여 농민 가옥 23호를 파괴 또는 사용 불가능케 하였다.

8월24일 함흥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주택 지구에 110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감행한 결과 179호의 수택이 파괴되였다.

8월 25일 본궁 지대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38 대는 본궁제약 공장과 그 주변 로동자 사택 지대에 181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감행한 결과 로동자들의 사택 175호가 완전 파괴되였다.

동일 흥남 지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비29 10대는 평화스러운 룡흥리 주택 지

구에 100여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맹폭을 감행한 결과 125호의 주택이 파괴되였다.

동일 미군 폭격기들은 흥남 지구에 래습하여 운성리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여 57호의 주택을 파괴하였다.

동일 미군 폭격기 비29 8대가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수색리에 래습하여 대형 폭탄10여개를 투하하여 주택 86호를 파괴 또는 소각하였다.

동일 미군 폭격기 비29 9대는 충청북도 충주시에 래습하여 이미 수차의 폭격으로 시가의 대부분이 파괴된 동시에 또다시 250여개의 대형 폭탄과 소이탄을 투하한 결과 충주시는 완전히 파괴 소각되여 폐허로 화하였다.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미군 항공기들은 충청북도 괴산군 승평면 일대 농촌에 래습하여 100여개의 폭탄과 소이탄을 투하하여 558호의 농가를 파괴시켜 많은 농촌을 폐허로 만들었다.

이를 리 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장동리 45호, 고동리 157호, 중동리 255호, 신동리 75호, 창동리 26호.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련일 서울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들은 룡산구 영등포구 등 주택 지구에 무차별적 폭격과 기총 사격을 가하여 주택 500여호를 파괴 또는 소각하였다.

충청남도의 각 군이 인민군에 의하여 해방된 이후 8월 25일까지에 미군 항공기의 맹폭과 기총 사격으로 인하여 많은 주택들이 파괴되였다. 즉 론산군에서는 4 230호의 주택이 파괴되였으며 공주군에서는 450호의 주택이 파괴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되였으며 보령군에서는 미군 항공기의 맹폭과 함포 사격으로 인하여 741호의 주택이 파괴되였으며 천안군에서는 450호의 주택이 잿더미로 화하였다. 또 연기군에서는 1,573호, 아산군에서는 230호, 대덕군에서는 885호, 예산군에서는 35호, 서천군에서는 58호의 주택이 각각 파괴되였다.

8월 26일 강원도 통천군 지방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8대는 동군 일대에 무차별폭격을 감행한 결과 77호의 주택이 파괴 또는 피해를 받았다. 동일 미군 항공기 2대는 함경남도 함주군 지주면 흥상리에 래습하여 대부분 농가인 동 부락에 대하여 30여개의 폭탄과 소이탄을 투하하는 맹폭을 가하여 농민 주택 72호를 파괴 혹은 소각하였다.

동일 전라북도 전주시에 미군 전투기 1대가 래습하여 소이탄 10여개를 투하하여 주택 22동을 전소하였다.

8월 3일부터 동 26일까지 미군 폭격기들은 전라북도 군산시를 련일 폭격하여 주택 지구를 무차별 폭격한 결과 700여호의 주택이 파괴 또는 전소되였다.

이미 수차의 대 폭격으로 시가지의 대부분이 파괴된 남포시에 미군 항공기들은 8월 27일 30일, 31일, 9월 4일에 약 160대가 또다시 래습하여 폭탄 1,500여발을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일부 남아 있는 주택 중에서 481호가 또다시 파괴되였다.

8월 29일 청진시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23대는 거의 폐허로 화한 도시에 또 다

시 337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맹폭을 감행하여 주택 141호를 또다시 파괴하였다.

8월 30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13대는 평화 산업 지대와 아울러 일반 주택 지구에 또다시 무차별 폭격을 가하여 118호의 주택을 파괴하였다.

8월 31일 함경남도 함주군 퇴조면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들은 각 농촌들을 폭격하여 농가 17호를 파괴하였다.

9월 4일 평안북도 녕변읍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이 농촌 소 도시에 폭탄 14발을 투하하여 주택 70호를 파괴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박천군에 래습한 폭격기 4대와 전투기 14대는 역시 이 소 도시를 맹폭하여 주택 44호를 파괴하였다.

9월 4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30대는 서평양의 인구 조밀한 주택 지구에 144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가한 결과 250호의 주택이 파괴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되였다.

동일 평안남도 강동군 일대 농촌에 미군 전투기 38대가 래습하여 농민가옥을 폭격 또는 기총 사격하여 20여호를 파괴하였다.

9월 5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비내리는 악천기를 리용하여 신양리 룡흥리 등 주택 지구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여 주택 362호를 파괴하였다.

동일 평안남도 대동군 림원면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이 농촌 소읍을 맹폭하여 주택 11호를 파괴하였다.

2, 문화 시설 및 기타 시설에 대한 폭격

미군 항공기들은 도시와 농촌들을 더욱 야만적으로 무차별 폭격함으로써 학교 병원 등의 문화 시설들과 기타 시설들을 더욱 대량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7월 15일 미군 폭격기 비29 4대는 경기도 금포군 서면 송정리에 래습하여 송정리 인민 학교를 파괴하였다.

7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시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수대는 대전 공업 중학교에 맹폭을 가하여 동교의 본관 14교실, 신관 8교실 및 그 안에 있던 일체 교수 용품을 전소시켰다.

동일 전라북도 금제시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2대는 금제시 중학교를 폭격하여 동 중학교를 전소시켰다.

7월 23일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신흥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4대는 10여개의 폭탄과 소이탄을 투하하여 신흥리 인민 학교와 농업 중학교를 파괴시키고 동군 동면 지정리 대신 인민 학교도 전소시켰다.

7월 30일 충청남도 대덕군 구즉면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수대는 구즉 인민 학교를 목표로 기총 소사를 감행하여 전 교사를 벌둥지와 같이 파괴하였다.

8월 4일 미군 전투기 4대가 경기도 부천군 소사면 오루리에 래습하여 오루리 인민 학교에 기총 소사를 하여 학교의 일부를 파괴하였다.

동일 미군 전투기 3대는 경기도 양주군 로해면 공덕리 공과 대학을 폭격하여 그 대부분을 파괴하였다.

8월 5일 남강원도 강릉시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4대는 약 20차에 걸쳐 저공 비행으로 무차별 폭격과 기총 소사를 감행하였다. 그 결과 강릉 인민 학교와 강릉 상업 중학교, 강릉 옥적 인민 학교에 수백발의 기총 사격을 감행하였으며 강릉 인민 학교에는 소이탄 2개를 투탄하여 14개 교실을 전소시켰으며 기타 학교들에는 심대한 피해를 주었다.

8월 7일 평양에 래습한 비29 33대는 일반 주택 지구와 또 군사 시설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건물들을 무차별 폭격하여 수다한 문화시설, 국가 기관들을 파괴하였다.

이날 미군 항공기의 야만적 폭격으로 말미암아 농림성, 평안남도 인민 위원회, 남평양 내무서, 평양 남구 인민 위원회, 남구 검찰소, 역전리 인민 위원회, 동흥리 인민 위원회, 철도 우편국 등의 국가 기관과 공업 대학, 두개의 신문사, 평양 제10 인민 학교, 국립 교육 도서 출판소, 교통성 중앙 병원, 중앙결핵 진료소 등의 학교, 병원들을 파괴하였다.

8월 8일 충청북도 제천읍에 미군 폭격기 2대가 래습하여 28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제천 인민 학교와 제천 병원을 파괴하였다.

8월 9일 함경남도 고원 지방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고원 철도 병원을 폭격하여 그 일부를 파괴하였다.

8월 10일 미군 폭격기들은 서울시 룡산구 룡산 중학교에 래습하여 25개의 폭탄을 투하하고 수백발의 기총 사격을 가하여 이 학교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8월 12일 인천시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의 폭격으로 말미암아 인천 자림 극장이 전소되였다.

동일 미군 전투기 1대는 서울시 중구 세부란스 병원의 상공에 래습하여 적십자 표식이 걸려 있는 동 병원을 야만적으로 폭격하여 동 병원 일부와 간호원 기숙사 1동을 파괴하였다.

8월 13일 서울시 대방동에 래습한 비29 4대와 전투기 12대는 맹목적인 폭격과 기총 소사를 감행하여 병원 1개, 제약소 1개, 학교 2개소를 파괴하였다.

8월 14일 미군 폭격기 4대가 전라북도 익산군 룡안면 흥왕 인민 학교에 래습하여 폭탄 2개를 투하하고 수차에 걸쳐 기관포 사격을 가하여 동 교사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8월 15일 함경남도 리원군에 침입한 미군 함선 1척은 곡구 인민 학교를 목표로 함포 사격을 가하여 동 인민 학교를 파괴하였다.

동일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보룡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의 무차별 폭격으로 말미암아 인민 학교 1교가 파괴되였다.

8월 16일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면 한산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의 무차별적 폭격으로 말미암아 한산리 인민 학교가 전소되였다.

동일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에 래습한 4대의 미군 전투기들은 서성리 인민 학교와 내추리 인민 학교에 수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동일 강원도 고성군 초구 지방에 미군 함선 2척이 침입하여 무차별적 함포사격

을 감행하여 대강 인민 학교를 파괴하였다.

8월 17일 고성군에 또 다시 침입한 미군 함선 1척은 고성 휴양소에 야만적인 함포 사격을 감행하여 동 휴양소 건물 23동을 파괴하였다.

동일 함경북도 경성군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들은 어랑면 고급 중학교를 폭격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동일 함경남도 정평군 정평면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12대는 정평 제3 인민 학교에 대하여 3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동교를 파괴하였으며 역시 동일 고원군 상사면에 미군 폭격기 2대가 래습하여 고원 상산 초급 중학교와 고원 녀자 중학교에 20여발의 폭탄을 투하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8월 19일 청진시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60여대의 무차별 폭격으로 말미암아 공업 전문, 녀자 고급 중학교 등의 학교와 인민 극장, 조쏘 극장 및 다수의 병원 등 문화 기관들이 파괴되였으며 로동당 도당부, 민주당 도당부, 도 민청, 도 직맹 등 대다수의 정당, 사회 단체 기관들이 파괴되였다.

8월 20일 평안남도 평원군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들은 인민 학교를 폭격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동일 평안북도 박천군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들은 영미 인민 병원을 폭격하여 입원실을 완전 파괴하였다.

동일 평안남도 대동군 순천군 지방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의 무차별 폭격과 기관총 사격으로 말미암아 대동군 결핵 병원 부속창고와 민주선전실을 파괴하였다. 8월 21일에 2척, 25일에 5척의 미군 함선이 청진 지구에 침습하여 대차 인민 학교와 제1 인민학교를 함포 사격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8월 24일 흥남시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24대가 91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무차별적 맹폭을 감행한 결과 흥남 제련 공장 구락부, 직장 기술 학교, 기술자 양성소, 탁아소 등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8월 25일 강원도 평강군 지대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10대는 평강군 관측소에 기총 사격을 감행하여 내부 기계 장치 다수를 파괴하였다.

충청남도 일대에서는 공화국 인민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후 8월 25일까지에 미군 항공기들의 야만적 폭격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문화 기관 및 기타 기관들이 파괴되였고 아산군에서는 7개의 병원이 파괴되였으며 예덕군에서는 2개의 병원, 13개의 학교 기타 3개의 문화 시설이 파괴되였으며 연기군에서는 6개의 병원 16개의 학교 15개소의 국가 기관 천안군에서는 4개의 병원 1개의 학교 보령군에서는 4개의 병원 14개의 국가 기관, 공주군에서는 2개의 학교 18개의 기타 문화 기관 6개소의 국가 기관, 론산군에서는 14개의 병원이 파괴되였다.

7월 상순부터 8월 25일까지의 사이에 남강원도 삼척군 근덕면 일대에 대한 12차에 걸친 함포 사격으로 말미암아 군초리 인민 학교와 근덕 인민 학교 및 기타 문화 시설들이 파괴되였다.

8월 26일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 미군 폭격기 4대가 래습하여 하진포 휴양소를

폭격하여 동 휴양소 건물 3동을 전소시켰으며 3동을 파괴하였다.

8월 27일. 함경남도 북청군 속후면 속후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들은 속후 인민 학교와 남자 중학교를 폭격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8월 27일, 30일, 31일에 또다시 남포시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들은 시가지를 무차별 폭격하여 공업 전문 학교, 제2 인민 학교, 제3 인민 학교 등의 교육 기관들과 중대리 교회 탁아소 등까지도 파괴하였다.

또 남포시 인민 위원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 기관들과 심지어 화교 련합회 같은 재류 외국인 기관까지도 파괴하였다.

8월 27일 미군 폭격기들은 강원도 평강 지구에서 적십자 표식을 붙인 병원 기차에 대하여 폭격과 기총 소사를 감행하여 많은 부상자들을 살해하고 또는 새 중상을 입혔으며 두대의 환자용 차량을 소각하였다.

8월 29일 중화군 소재지에 있는 적십자 표식을 붙인 병원에 대하여 6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비인도적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3명이 살해되였으며 건물 하나가 파괴되고 기타 병원 건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8월 30일 충청북도 청주군 강외면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및 전투기 3대는 강외 인민 학교에 대하여 수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그 결과에 강외 인민 학교는 완전히 파괴되였다.

9월 1일 함경남도 신북청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3대는 북청 고급 중학교를 폭격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동일 강원도 련천군 전곡면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10대는 전곡 인민 학교를 폭격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9월 5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투사신문사, 교육출판사, 신암 교회들을 파괴하였다.

3. 평화적 군중 살해

미군 항공기들은 도시와 농촌의 주택 지구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또는 도시 주민들과 농촌 농민들에 대한 기총 사격으로 평화적 주민들과 남녀 로소를 가리지 않고 더욱 대중적으로 학살하고 있다.

7월 5일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면 황산리에 미군 폭격기 및 전투기 4대가 래습하여 산으로 피신하는 부락민에 대하여 20여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한편 기총 사격을 감행하여 25명을 살해하였으며 30여명을 부상시켰다. 사망자 25명 중에는 13명의 녀자와 5명의 유아가 포함되였다.

7월 9일 전라북도 금제군 용지면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4대의 무차별 폭격으로 말미암아 용지면 철도국원 김재근 황영규 기타 170명의 주민들이 살상당하였다.

동일 충청북도 영동군 산익리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2대는 산으로 피신하는 농민들에 대하여 4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9명을 살해하고 15명을 부상시켰다.

7월 10일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2대는 대장리 부근 나무 밑에서 젖먹이는 부인을 보고 이에 대하여 기총으로 란사하여 즉사케 하였다.

동일 경기도 려주군 려주읍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3대는 수많은 폭탄을 무차별적으로 투하하여 녀자 38명, 유아 48명, 로인 11명을 포함한 151명의 평화적 주민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7월 12일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조심동에 래습한 5대의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들은 뒷산에 피신 중인 310명의 평화적 주민에 대하여 대형 폭탄 10여개를 투하하는 야수적 폭격과 기총소사를 감행한 결과 6명이 사망당하였으며 2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7월 13일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6대는 방공호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기총으로 사격하여 16명을 살해하였다.

7월 20일 미군 항공기 26대가 전라북도 금제군 죽산면 죽산리 농촌에 래습하여 수다한 폭탄과 기총 사격을 가한 결과 농민 200여명의 살상자를 내였다. 이날 뜰에서 유아에게 젖먹이던 김씨에게 기총사격을 가한 결과 어머니 김씨는 즉사하고 4발의 총탄을 맞은 유아는 수일 후에 사망하였다.

7월 25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미군 항공기 수대가 래습하여 청주시 부근 농촌에서 제초 작업하는 농민과 길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 학생들에 대하여 기총 사격을 가하였다.

그 결과 5명이 피살되였으며 8명이 부상당하였다.

동일 미군 폭격기 2대는 전라북도 익산군 왕궁면 구덕리에 래습하여 동리에 있는 라병 환자 수용소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기총 사격을 가한 결과 동 수용소에서 신음하는 환자 6명이 피살되였으며 4명이 중상당하였다.

7월 26일 대전시 인동 삼방사 앞 정미소에서 방아를 찧던 인부 5명이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래습한 미 항공기 3대는 그들에게 기총 소사를 감행하여 3명을 즉사 하게 하고 2명을 중상하게 하였다.

7월 27일 미군 폭격기 3대와 전투기 2대 합 5대가 남강원도 춘천시에 래습하여 때마침 제초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농민들에게 기총 사격을 가하여 농민 리수영외 3명을 살해하였으며 그 부근을 지나가던 로동자 김학환의 처 증매자 (24세) 와 그의 아들도 학살당하였다.

이날 강가에서 빨래하던 김성숙 (16세)과 목욕하던 그의 동생 김영숙 (11세) 인민 학교 아동 리기훈 (8세)도 미군 항공기의 기총 소사로 무참히 학살당하였다.

7월 27일 충청북도 괴산군 신극면 림곡리, 신양리, 극공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3대의 2시간에 걸친 폭격으로 말미암아 49명이 살해당하였으며 121명이 부상당하였다.

7월 29일 전라북도 익산군 춘포면 용연리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2대는 동리에 있는 춘포 인민 학교에 대하여 기총 사격을 가하여 수업 중이던 3명의 학생과 2명의 교원을 살해하였으며 11명을 중상시켰다.

7월 30일 충청북도 청주군 강외면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및 전투기 3대는 강외 인민 학교에 수개의 폭탄을 투하한 후 교실에서 뛰여 나오는 아동들에게 기총 사격을 가하는 귀축과 같은 만행을 감행하여 아동 5명을 살해하였으며 19명을 부상시켰다.

8월 초에 흥남 지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흥남 중앙 병원에 대하여 급강하 비행을 하면서 28개의 명중탄을 퍼붓는 비 인간적 맹폭을 감행하여 진찰 중이던 의사 최우형을 비롯하여 의사, 간호원 18명과 해산 중이던 한제순을 비롯하여 117명의 환자들을 살해하였고 106명의 환자들을 부상시켰다.

또한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들은 생후 6개월 내지 4세의 유아들을 수용하고 있는 흥남 탁아소에 대형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 사격을 가하였다.

그 결과 흥남 탁아소는 완전히 파괴되고 유아 3명을 끼여 안고 기총에 맞아 쓰러진 보모 최영순이와 장난감 공을 안고 폭사한 김춘희 (1세) 오순돌 (2세) 외 52명의 유아들이 살해되였다.

동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들은 주변 농촌 상공을 저공 비행하면서 산으로 대피하는 농민들에게 기총 사격을 가하여 12명을 살해하였으며 11명을 부상시켰다.

동일 충청북도 영동군 심청면 금정리 농촌에 미군 폭격기 4대가 래습하여 소이탄을 투하하고 기총 사격을 가하여 30여명의 농민들을 살상하였다.

8월 2일 미 전투기 26대가 전라북도 금제군 광활면 옥진리에 래습하여 논발에서 제초를 하고 있는 농민들을 기총 사격한 결과 2명의 농민과 1명의 가정 부인이 살해 당하였으며 1명의 처녀가 중상당하였다.

동일 미군 항공기 2대가 인천시 부평구에 래습하여 수다한 소이탄을 투하하여 주택 지구에 불질렀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곧 진화에 착수하였다. 이 때 미군 전투기 2대가 불의에 래습하여 진화에 동원된 군중들에게 기총 소사를 가하여 11명을 살해하고 15명을 부상시켰다.

8월 3일 인천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2대는 때마침 인천시 농현동 선창에서 충청도로 떠나려는 려객선을 발견하고 수차에 걸쳐 기총소사를 가하였다. 그 결과 녀자 4명을 포함한 14명의 려객을 살상하였다.

동일 대구 방면으로부터 침입하여온 미군 항공기 2대는 대전시 신안동 거리를 걷고 있던 시민 7명에게 기총 소사를 가하여 3명을 즉사시키고 4명을 중상시켰다.

8월 4일 미군 전투기 3대는 인천 석남동에 래습하여 미군 항공기들의 야수적 폭격으로 집을 잃어버리고 다리 밑에서 살고있는 리재민들에게 기총 사격을 감행하여 20명을 살해하고 13명을 중상시켰으며 또 역시 미군 항공기들의 폭격으로 집과 자재를 잃은 리재민들이 모여사는 석남동 오막사리 지대에 야수적 기총 사격을 가하여 리재민 32명을 살해하였다.

동일 미군 전투기 4대는 서울시 룡산구 서빙고에 래습하여 한강 나룻배를 타려는 주민들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26명의 사망자와 27명의 중상자를 내였는바 그중에는 25명의 녀자와 5명의 로인이 포함되여 있었다.

동일 미군 전투기 2대는 경기도 고양군 뚝도에 래습하여 거리에서 참외를 파는 상인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소사를 가하여 3명을 살해하고 44명을 부상시켰다.

동일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봉산리에 미군 폭격기 4대가 래습하여 수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15명의 평화적 주민을 살상하였다.

8월 5일 미군 구축함 2척이 인천항에 침입하여 시가지에 무차별적 함포사격을 가하여 주민68명을 살해하였다.

동일 미군 폭격기 8대는 전주시 선복동, 망성동, 청석동에 래습하여 무차별적 폭격을 감행한 결과 동 3개동이 전소 파괴되였는바 이 폭격에서 153명의 시민들이 살상되였다.

동일 미군 폭격기 10대가 전라북도 익산군 오산면 남전 1구 농촌에 래습하여 논김매는 농민들에 대하여 약 30분에 걸쳐 기총소사한 결과 농민 11명이 살상되였으며 2명이 부상당하였다.

8월 6일 황해도 평산지방 농촌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들은 농민들에게 대하여 기총 소사를 감행한 결과 6명의 농민이 살해되였고 7명이 부상 당하였다.

미군 항공기들의 야수적 폭격으로 집과 재산을 잃은 다수의 전주 시민들은 전주시 부근 한명당 철도굴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었다.

살인귀 미 제국주의자들의 항공기는 8월 6일 이 철도굴에 폭탄을 던지고 기총사격을 가하여 20명의 집잃은 인민들을 살해하였다.

동일 전라남도 광산군 구헌면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2대는 동면 광진교 옆 도선장 나룻배에 집합한 군중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기총소사를 감행하여 10명을 즉사케하고 5명을 중상시켰다.

8월 7일 평양에 래습한 비29 33대의 무차별 폭격으로 말미암아 평화적 주민 72명이 살상되였는바 그 중에는 21명의 녀자가 포함되여 있었다.

동일 함경남도 단천에 침입한 미군 순양함 6척은 동지구에 맹목적인 함포사격을 감행한 결과 47명의 평화적 주민이 살상되였다.

동일 황해도 금천군 동하면 매남리 즉동부락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이 부락 근방 농토에서 농사중인 농민들에게 대형폭탄 14개를 투하하여 6명 (그중 3명은 녀자이고 2명은 아동이다)을 즉사케 하고 7명 (전부 녀자와 아동이다)을 부상시켰다.

동일 함경남도 단천군 단천면 해안지대에 침입한 미군 함선 1척은 오봉리 두어태리 용암리 일대에 205미리포 80여발을 발사하였으며 함포 사격의 뒤를 이어 미군 전투기 4대가 래습하여 산으로 피신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기총 사격을 가하여 9명을 살해하였으며 12명을 부상시켰다.

동일 미군 전투기 2대가 경기도 룡인군 기흥면 상갈리에 래습하여 길가는 행인에게 기총사격을 감행하여 3명의 피살자와 6명의 부상자를 내였다.

동일 남강원도 녕월군 녕월면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4대의 맹폭과 기총사격의 결과 어린이 8명 가정부인 6명 기타 많은 주민들이 살상당하였다.

동일 미군 전투기 2대가 전라북도 전주시내 하천 일대에 저공 래습하여 강가에서 빨래하는 가정부인과 목욕하는 어린아이들을 기총으로 란사하였다. 그 결과 가정부인 6명과 어린아이 11명이 살상당하였다.

동일 미군 폭격기 6대가 전라북도 전주시 남계동, 화산동, 진북동, 고사동 일대에 래습하여 무차별 폭격을 가한 결과 247명의 주민이 살상 당하였다.

8월 8일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면 신흥동에 거주하는 김종록(정미업)은 자기 일터로 나가다가 미군 전투기의 기총 소사를 당하여 팔을 부상당하였다.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부근 주택에 뛰여들어 갔다. 이를 발견한 미군 전투기는 그집에 폭탄을 퍼부어 그집을 완전 파괴함으로써 김종록과 그 집안에 있던 4명을 살해하는 귀축 행위를 감행하였다.

8월 9일 함흥시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9대는 주택지구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말미암아 평화적 주민 169명이 살상되였는바 그 중에는 78명의 녀자와 아동이 포함되여 있다.

동일 집요하게도 원산시에 또다시 래습한 미군 항공기 9대는 이미 수차에 걸친 폭격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시가지와 자기 주택들을 정리 복구하고 있는 평화적 원산시민을 향하여 또다시 77발의 폭탄을 투하하고 기관총 사격을 가하여 42명을 살해 하였다.

동일 평안북도 정주군 고안면 문례리에 래습한 비29 2대는 산나물을 하는 농촌 부녀자들을 향하여 폭탄 9발을 투하하였다. 그 결과 그 중 3명이 살상되였으며 2 000여평의 림야가 황페화 하였다.

동일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 연 20대는 서울시 서대문구 연초공장 상공에 래습하여 작업중인 로동자들에게 기총 소사를 감행하여 11명을 사살하고 39명을 부상시켰다.

동일 미군 전투기 6대는 서울시 룡산구 도원동 상공에 래습하여 거리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기총소사을 가하여 부인 상인 4명이 사살되였는바 그 중에는 젖먹이는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가 살해되여 철모르는 어린이는 쓰러진 어머니의 젖을 찾는 비참한 사실까지 있었다.

동일 미군 전투기 3대가 경기도 금포군 하성면 전류리에 래습하여 지방 주민들이 탄 나룻배에 기총소사를 가하여 11명의 사망자와 18명의 중상자를 내였다.

8월 9일, 10일 량일간에 걸쳐 함경남도 고원군 고원면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농촌 주민 지구에 대한 무차별적 맹폭으로 말미암아 평화적 농민 39명이 살상되였다.

8월 10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4대는 인조견 공장과 그 부근 주택들에 40발의 폭탄을 투하한 결과 동 공장 로동자들과 그 주변 주민 77명을 살해하고 60명을 중상시켰다.

동일 미군 폭격기 31대는 또다시 원산에 래습하여 로동자 주택 지구에 120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감행한 결과 로동자들과 그의 가족들 121명이 살상되였다.

동일 강원도 안변군 안도면 농촌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8대는 이 평화적 농촌에 무차별적 폭격을 가하고 농민들에게 기관총을 란사하여 평화적 농민 9명을 살해하고 4명을 중상시켰는바 그 중에는 7명의 녀자가 포함되여 있다.

동일 인천시 신흥동에서는 그 전날 폭격에 의하여 연소중인 주택들을 진화코자 많은 주민들이 작업하고 있었다. 돌연히 미군 전투기 8대가 래습하여 작업중인 주민들에게 기총 소사를 감행하여 주민 13명을 살해하였으며 17명을 부상시켰다.

동일 미군 전투기는 경기도 룡인군 룡인면 남리에 래습하여 길가는 행인에게 수백발의 기총사격을 가하여 12명을 살해하였으며 동군 이동면 천리(무내미고개)에서 7명을 살상하였다.

동일 충청북도 충주군 충주면 하담리에 미군 전투기 4대가 래습하여 인민학교 교사에 대하여 기총 소사를 가하였다.

그 결과에 때마침 수업중이던 교원 변윤수 아동 김경환외 수명이 살상되였다.

동일 미군 폭격기들은 이미 미군 폭격기들의 야만적 폭격으로 집과 가재를 잃어버린 많은 리재민들을 림시 수용하고 있는 룡산 중학교를 폭격하여 리재민 204명을 살해하고 240명을 부상시켰다.

8월 10일과 12일에 미군 전투기들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세부란스 병원을 폭격하여 10일에는 환자 3명을 살해하였으며 12일에는 입원중인 환자 2명을 살해하였고 그들을 간호하던 간호원과 기타 환자 5명을 중상시켰다.

8월 11일, 12일 평안북도 구성군 일대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9대는 각 농촌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기총 사격을 가하여 농민 49명을 살상하였다.

8월 12일 미군 폭격기 8대가 인천시 답동 주택지구에 래습하여 무고한 주민에게 무차별적 기총 사격을 가하여 17명의 주민들을 살해하였다.

동일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의 맹폭으로 말미암아 28명의 농민이 살상당하였다.

8월 12일,13일 량일간에 걸쳐 미군 항공기 19대가 충청북도 괴산에 래습하여 50여개의 소이탄과 폭탄을 투하하는 무차별적인 포격과 폭격을 피하여 산으로 피신하는 주민들과 혹은 화재 현장에서 아우성치는 부녀자들에게 기총 소사를 가하였다. 그 결과 121명이 피살되였으며 376명이 부상당하였다.

8월 13일 평안남도 개천군 실정면 일대 농촌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11대는 농촌가옥들과 농민들에게 폭탄을 투하하고 기관총 사격을 가하여 평화적 농민 10명을 살상하였으며 강서군 동진면 및 초리면에 래습한 4대의 미군 항공기는 기관총 사격으로써 농민 11명을 살상하였다.

역시 동일 평안남도 룡강군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18대는 동군 일대의 농촌에

무찰별 폭격과 기관총 사격을 가하여 밭에서 농사중인 평화적 농민 8명 (2명은 녀자)을 살해하고 13명을 부상시켰다.

동일 평안남도 남포시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남포시와 황해도간을 왕래하는 려객선을 폭격하여 이를 침몰시켰으며 승객 44명을 살해하고 8명을 부상시켰다.

동일 황해도 장연군 용연면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5대는 때마침 농촌길을 통행하던 농민의 우차 5대를 기관총으로 사격하여 우차를 몰고 가던 농부 3명과 그 우차를 타고 가던 70세의 로파 1명을 즉사케 하고 나머지 2명을 중상시켰다.

동일 황해도 금천군 금천면 금천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9대는 수십개의 소이탄과 3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건물과 주택들을 파괴 연소 시킨 후 소화 작업에 동원한 주민들에게 기총 사격을 감행하였다. 결과 30명이 살상되였다.

동일 황해도 장연군 락도면 지경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및 전투기 6대는 시장에 가는 부녀자들을 기관총으로 사격하여 량재신 (54세) 리천서 (52세) 2명의 로파를 살해하였다.

동일 황해도 지방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3대는 조그마한 몽금포 어항을 폭격하고 기관총 사격을 가한 결과 어선 수척이 파괴되고 어부 7명이 살상되였다.

동일 황해도 지방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5대는 장연군 장연면 강가에서 빨래하는 부녀자들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6명을 살상하였다.

이중에는 어머니를 따라갔던 2명의 어린아이가 포함되여 있다.

8월 14일 전라북도 익산군 용안면 홍왕 인민학교에 8•15 해방 기념 준비를 위하여 전교 생도들이 집합하고 있을 때에 미군 전투기 4대가 불의에 래습하여 인민학교 아동들에게 폭탄 2개를 투하한 후 연이어 기총 사격을 가하였다. 이 결과 아동 13명이 즉사하였으며 19명이 중상을 당하였다.

8월 16일 평안북도 정주군 서해안 장도, 애도등, 어촌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어촌과 어민들에게 무차별적 기총 사격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평화적 인민 13명이 살상되였는바 그 중에는 5명의 녀자가 포함되여 있다.

동일 평안북도 철산군 백만면 심대리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2대는 때마침 고기잡이 떠나는 어선 8척(1척은 소발동기선 기타는 목선)을 습격하였다. 이에 놀란 어부 28명은 바다속으로 뛰여 들어갔다. 이를발견한 미군 폭격기는 급강하하여 해중의 어부들에게 기총 사격을 하여 3명을 살상하였으며 어선에는 폭탄을 투하하여 발동선과 목선 3척을 파괴하였다.

동일 충청북도 청주군 북이면 석성리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4대는 때마침 학교마당에서 놀던 어린이들이 무서워서 교실에 뛰여감을 발견하고 그 학교에 폭탄을 투하하는 한편 기총 사격을 감행하여 학교는 파괴당하고 수명의 어린이들이 살상당하였다.

동일 진천군 덕산면 용봉리 우물에서 3명의 부녀자들이 물 길는것을 본 미군 전투기들은 이에 대하여 기총 소사를 가하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부상시켰다.

동일 미 전투기 1대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일신교리 농촌에 래습하여 발

에서 몰아오는 농민들에게 기관총을 란사한 결과 농민 6명을 살상하였다.

동일 미군 전투기 3대가 경기도 양평군 청우면 삼승리에 래습하여 참외 밭에서 참외 따는 농민들에게 기총소사를 가하여 3명이 살해당하였다.

8월 17일 강원도 문천군에 래습한 미 항공기들은 동군 일대의 농촌들을 습격하여 기관총으로 농민들을 사격한 결과 14명의 농민과 2명의 아동을 즉사시키고 7명을 부상시켰다.

동일 강원도 통천군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6대는 고조면, 죽장면, 적국면, 하길면, 임남면, 송경면등 각면의 농촌을 습격하여 폭격 또는 기관총 소사를 감행한 결과 13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부상시켰다.

동일 강원도 안변군 일대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17대는 동군 일대에 무차별 폭격과 기관총 소사를 감행하여 평화적 주민19명을 살해하였다.

동일 함경남도 고원군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10대는 동군 일대 농촌을 습격하여 무차별적 폭격과 기관총 사격을 감행한 결과 평화적 농민 62명이 피살되였으며 41명이 부상당하였다.

동일 미군 전투기3대는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면 해안지대에 래습하여 저공 비행을 하면서 고기잡이 하는 어선 2척에 기총소사를 가한결과 어선2척은 침몰되였으며 어부 9명이 살상당하였다. 살상자 9명중에는 로인 7명이 포함되여있다.

동일 함경남도 함주군 주북면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9대는 장흥역 지점을 통과하는 려객 렬차에 대하여 기총사격을 가한 결과 승객 5명이 살해되였으며 6명이 부상당하였다.

동일 함경남도 지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3대는 정평군 신상면 포덕리 해안에서 고기잡이 하는 어선과 평화적 어촌에 대하여 15개의 폭탄을 투하하고 기관포사격을 가하여 어선 4척을 파괴하였으며 10명을 살상하였다.

동일 미군 전투기 12대는 함경남도 정평군 문봉역 근방에서 함흥행 려객렬차에 대하여 기관총 사격을 가하여 승객 13명을 살해하였으며 16명을 부상시켰다. 살상자 29명중 24명은 부녀와 로인들이다.

동일 함경남도 고원에 미군 폭격기 11대가 래습하여 고원 주변 농촌에 대하여 100여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무차별적 맹폭을 감행한 결과 농토 114, 940평 (답 56, 400평, 전58.540평)이 수확 불가능케 되였으며 농민 41명이 살해당하였으며 56명이 부상당하였다.

8월 18일 충청남도 대전시 관암동 335번지에 거주하는 대전중학 1학년에 재학중인 리경무 (15) 와 여섯살되는 그의 동생은 미군의 만행으로 중상당한 아버지의 약을 구하려 가다가 때마침 래습한 수대의 미군 전투기를 보고 풀밭에 피신 하였다. 이것을 발견한 미군 전투기는 두 어린이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리경무를 즉사케하고 그의 동생은 중상을 입었다.

8월19일 청진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청진시의 90%를 폐허로 만드는 야만적 맹폭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청진시민 1.034명 (그중 393명은 녀자) 이 즉사하

였으며 2,347명이 부상당하였다.

동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안 어촌 지대에 래습하여 어장들을 무차별 폭격한 결과 어부 16명이 살상당하였다.

8월 17일, 19일 량일에 걸쳐 흥남지구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들은 운성리 로동자 주택에 대하여 무차별적 맹폭을 가하여 35명의 로동자를 살상하였다.

8월 20일과 22일 량일에 걸쳐 황해도 해주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들의 무차별적 폭격과 기관총 소사로 말미암아 일반주민 31명 (그중 녀자 14명) 이 피살되였고 31명이 부상당하였다.

동일 황해도 재령 지방에 미군 전투기 22대가 3차에 걸쳐 래습하여 농촌들에 폭탄을 투하하고 농민들을 기관총으로 소사하여 농민 23명 (그중 15명이 녀자) 을 즉사시키고 31명 (그중 17명이 녀자) 을 중상시켰다.

동일 장연군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4대의 무차별 폭격과 기관총 소사로 말미암아 일반 주민 14명이 살해되고 17명이 부상 당하였다.

동일 평안남도 대동군 순천군, 지방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들은 농촌과 논밭에 폭탄을 투하하며 기관총 사격을 감행한 결과 농민 10명이 즉사하고 12명이 중상을 당하였다

동일 평안남도 관내 대동, 순천, 중화, 강서, 룡강, 성천, 강동등지에 미군 전투기 68대가 래습하여 기관총을 란사하고 로켓트포를 발사하여 밭에서 농사짓는 농민과 시장에 모였던 농민 33명을 즉사케하였으며 54명을 부상시켰다.

동일 황해도 장연시에 미군 전투기 15대가 래습하여 동시 상공을 수차 비행하면서 피신하는 주민들을 따라다니며 무차별적 기관총 사격을 가하여 16명을 살상하였다.

동일 황해도 은률군 남부면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5대는 농촌에 15개의 소이탄을 투하하고 농지에서 일하는 농민에게 기관총 사격을 가하였다.

그 결과에 27명의 농민이 살상되였다.

동일 황해도 해주시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31대의 주택 지구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말미암아 33명의 주민이 살해되였으며 그 가운데는 10명의 어린아이 들이 포함되여 있다.

동일 미군 전투기 6대는 장연으로 향하는 려객렬차를 기관총으로 소사한 결과 6명의 려객이 피살 당하였으며이 중에는 어린아이 2명이 포함 되여있다.

8월21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8대는 서평양지구에 72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무차별 폭격을 감행한 결과 평화적 주민 30명 (그중 13명이 녀자) 이 즉사하였으며 48명 (그중 22명이 녀자) 이 부상당하였다.

동일 비29. 12대와 전투기 8대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래습하여 다수의 폭탄과 소이탄을 투하하고 5차에 걸친 저공비행으로 기총소사를 감행하여 평화적 주민33명을 살해하고 52명을 중상시켰으며 동부동 에서는 어린이 28명을 포함한 676명을 살해하였으며 많은 부상자를 내였다.

동일 대전시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9대는 용운동 과수원에서 포도를 따고 있는 15세되는 어린 소년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참살시켰다.

8월 22일 대전시에 거주하는 가정부인 김현숙은 수도산 뒤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고 있었다. 때마침 래습하여 온 미군 전투기는 김현숙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즉사케하였다.

동일 미군 폭격기 수대는 충청남도 대덕군 구즉면 송강리에 래습하여 논에서 제초중이던 최인기와 그의 아들 최승은을 목표로 폭탄 5개를 투하하였다.

그 결과 상기 2명은 즉사하고 200여평의 논을 수확 불가능케 하였다.

8월 23일 9대의 미군 전투기가 황해도 금천군 금천면 금천리에 래습하여 길에서 놀고 있는 아동들에게 기총 사격을 가하여 아동 5명을 살상케 하였다.

동일 미군 폭격기 5대가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향주동 농촌에 래습하여 무차별 폭격을 한 결과 20명의 농민이 피살당했는바 그 중에는 5명의 로인과 6명의 아동이 포함되여 있다.

동일 미군 폭격기 2대는 전라북도 군산시 망상동 농촌을 야습하여 밤중에 모기불을 피우고 잠든 농가를 발견하고 이에 폭탄 2개를 투하하여 잠자던 농민 가족 7명을 살해하였다.

8월 24일 함흥 흥남지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8대는 주택 지구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말미암아 평화적 주민 102명이 살상되였다.

동일 평안남도 대동군 중화군 일대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8대는 농촌을 폭격하고 농민들을 기관총으로 사격하여 농사중이던 농민 12명 (그중 7명은 녀자) 을 즉사케하고 9명 (그중 4명은 녀자) 을 부상시켰다.

동일 미군 전투기 1대는 황해도 재령 주변 농촌에 래습하여 밭에서 일하고 있는 농촌 부녀들에 대하여 기총 사격을 감행하여 가정 부인 서우야 (45세) 외 1명의 임신부가 살해되였으며 청용리와 금산리 사이에서 볏짚을 싣고가는 농민에 대하여 기총사격을 가하여 1명의 농민과 1두의 농우를 살해하였다.

동일 황해도 황주군 흑교면 흑교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밭에서 제초 작업을 하는 농민에 대하여 10여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그 결과 2명의 농민이 살해되였으며 800여평의 전답이 황폐화 되였다.

동일 미군 폭격기 2대는 황해도 안악군 문산면 유성리 앞 강가에서 고기잡이하는 인민 학교 학생들에게 500킬로 폭탄 3개를 투하하여 신촌 인민학교 4 학년생 변정연을 즉사케 하였으며 그외 1명을 부상케 하였다.

동일 미군 전투기 2대가 서울시 룡산구에 래습하여 거리에 물건을 놓고 파는 상인들에게 기총사격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13명의 사망자와 11명의 중상자를 내였다.

동일 흥남지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50여명이 수용되여 있는 흥남 제련공장 탁아소에 대형 폭탄 10여개를 투하하는 야만적 맹폭을 하여 보모 김옥순, 리경희와 유아 리영희 (1세) 김창수 (3세) 를 비롯하여 10여명의 유아가 살상되였다.

동일 흥남 제련공장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및 전투기들의 무차별적 폭격과 기총사격으로 말미암아 16명이 살해되고 20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역시 동일 흥남 운정리에 래습하여 로동자 주택에 63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평화적 주민 75명을 살해하고 40명을 부상시켰다. 이 중에는 71명의 로인 부녀자 아동들이 포함되였다.

8월 25일 평안남도 강동군 지방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20여대는 길가는 행인들과 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기관총 사격을 감행하여 농민과 행인 9명 (그중 7명은 녀자)을 즉사케 하였으며 7명 (그중 녀자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동일 미군 폭격기 비29 8대가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수색리에 래습하여 1톤폭탄 10여개를 투하하여 평화적인 주민 34명을 살해하고 48명을 부상케 하였다.

동일 충청북도 충주읍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9대는 150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맹폭으로 말미암아 평화적 주민 89명이 살해되였으며 20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수회에 걸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면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들은 100여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그 결과에 농민 68명이 살해되였으며 124명이 부상당하였다. 사망자 중에는 부녀자 39명과 유아 13명이 포함되여 있다.

8월 26일 함경남도 함주군 주지면 흥상리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2대는 흥상리 뒷산에서 소를 먹이는 아동 2명을 기총으로 란사하여 아동 2명과 농우 3두를 살해하였다.

8월 27일 평안남도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들은 평양—안주간의 평안남도의 가도에서 자동차를 사격하여 9대의 승용차를 파괴하고 기총사격으로 3명의 려객을 살해하였으며 10개의 농민들의 우마차를 파괴하고 이 우마차를 타고가던 20명 이상의 녀자와 아이들을 사살하였다.

동일 황해도 송림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8대의 무차별적 폭격으로 말미암아 일반 주민 100여명이 살상당하였다.

동일 함경남도 일대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들은 중요도시들의 상공을 비행하면서 행인들을 기관총으로 사격하며 또는 승용자동차들을 습격하고 그 승객들이 피신하는것을 사격하여 이를 살상하였다.

그 결과 이날 21명 (그중 녀자 6명) 이 피살되였으며 25명 (그중 녀자 10명) 이 부상당하였다.

동일 미군 전투기 10대는 함경남도 정평군 귀림면 해안에서 고기잡이하는 3척의 어선에 대하여 기총사격을 가하여 어선 3척을 침몰케하고 어부 3명을 살해하였으며 2명을 부상시켰다. 희생자 5명은 모두 로인들이다.

동일 미군 전투기는 서울시 룡산구 이촌동에 래습하여 어린아이 4명을 데리고 부근 공지에 심은 호박을 따러간 가정부인과 어린아이들에게 기총소사를 감행하여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중상시켰다.

동일 충청북도 청주시 주변 농토에서 김을 매다가 미군 전투기를 보고 농촌 부녀 4명이 아이 6명을 데리고 수풀 속에 대피하는것을 본 미군 전투기 4대는 이에 대하여 기총소사를 감행하였다. 그 결과 부인 2명과 아이 4명이 피살되였으며 아동

2명이 부상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 전투기들은 부근 강가에서 빨래하는 5명의 녀인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3명을 즉사 시키고 2명을 중상시켰다.

8월 27일, 30일, 31일, 9월 4일에 남포시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이미 수차에 걸친 무차별 폭격으로 시가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일부밖에 남지 않은 동시를 또 다시 맹폭격하고 기총소사한 결과 304명의 주민이 또 다시 살상되였다.

특히 8월 31일에는 30일의 맹폭으로 산산히 파괴된 주택들과 시가를 정리 복구하기 위한 복구 작업에 종사하고있는 주민들에게 미군 항공기들은 폭탄과 기총소사를 퍼붓는 귀축과 같은 만행을 감행한 결과 31일 1일 동안에 197명의 주민이 살상되였다.

8월 28일 평안북도 박천군 박천면 지방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5대는 밭에서일하는 농민들과 행인들을 기관총으로 사격하여 농민 7명 (그중 5명은 녀 자)을 즉사케 하고 4명 (그중 2명은 녀자)을 부상시켰다.

8월 30일 황해도 봉산군에 5차에 걸쳐 래습한 미군 전투기 21대는 농민들과 행인들을 기관총으로 소사하여 남자 9명과 녀자 5명을 살상하였으며 또 동일 장연군에 래습한 11대의 미군 전투기는 5명을 살상하였다.

동일 평안남도 대동군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31대는 기관총 사격으로써 12명을 살상하였다.

동일 충청북도 청주군 북일면 죽경리에 미군 전투기 4대가 래습하여 저공 비행을 하면서 소를 끌고가는 로인 1명과 소년 3명에게 기관총 사격을 가하여 로인 1명과 소년 1명을 살해하고 소년 2명을 부상시켰다.

8월 31일 함경남도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들은 각지 농촌 상공을 저공 비행하면서 농토에서 농사짓는 농민들과 가로를 통행하는 행인들에게 기관총소사를 가하여 다수 농민들과 행인들을 살상하였다.

즉 북청군에서 3명, 단천군에서 4명, 홍원군에서 5명, 영흥군에서 5명, 함주군에서 4명을 각각 살해하였다.

9월 2, 3, 4일에 서울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 12대는 주민들이 집결하고있는 곳에 기관총 소사를 하며 폭탄을 투하하여 79명을 살상하였다.

9월 4일 평안남도 대동군 일대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39대는 도로 상공을 왕복비행하면서 행인들에게 기총을 발사하여 행인 5명 (전부 녀자)을 살상하고 7명을 부상시켰다.

동일 평안남도 맹산군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8대는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행인 4명 (그중 녀자 2명)을 사살하였으며 성천군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자동차로 지방 출장가는 군 인민 위원회 직원들을 습격하여 그 중 2명을 사살하고 5명을 부상시켰으며 그 자동차를 소각시켰다

동일 평안북도 녕변읍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의 무차별 폭격과 기총 소사로 말미암아 29명의 평화적 주민들이 살상 되였으며 박천읍에서는 12명이 살상되였다.

동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들의 무차별적인 주택 지구에 대한 폭격과 주민

들에 대한 기총 소사로 말미암아 평화적 주민 35명이 살상되였는바 그중에는 19명의 녀자가 포함되여 있다.

동일 평안남도 강동군 일대 농촌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38대는 농촌을 폭격하고 밭에서 일하는 농민과 길가는 농민들을 기관총으로 사격하여 14명(그중 녀자10명)을 살상하였다.

9월 5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들의 주택지구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말미암아132명 (그중 녀자54명)이 살상되였다.

동일 평안남도 대동군 림원면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이 이 농촌 소읍을 맹폭하여평화적 주민 55명을 살상하였다.

4. 공장, 제조소, 기타 산업시설들의 파괴

미국 무력 간섭자들은 조선 경제를 파괴할 목적으로 군사적 목적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평화 산업들을 계획적으로 계속 파괴하며 조선 경제의 부흥과 발전에 사활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 인민의 고혈로 이루어진 중요 산업 시설들의 대부분을 파멸시키고 있다.

7월 3일 주문진 해안에 침습한 미군 함선 3척은 함포로 2백여발의 포탄으로 평화스러운 무방비 어촌 주문진을 사격한 결과 이곳 주민들의 생활의 근거인 어선 42척을 파괴하였다.

7월 19일 전라북도 금제시에 래습한 2대는 동시에 수차에 걸쳐 소이탄을 투하한 결과 금제시 요청리 시장 상점 71동 정미소 2동을 전소시켰다.

7월 20일 서울시 노량진동에 래습한 비29 8대는 동양 기계 제작소를 폭격하여 이를 파괴시켰다.

7월 30일 미군 전투기와 폭격기 9대는 전라북도 전주 전매국과 연초 공장에 폭탄과 소이탄 다수를 투하하여 동 전매국과 공장 및 공장창고 3동을 전소시켰다.

8월 2일 전라북도 전주시에 래습한 미군 전투기 2대는 전주시 직물공장에 다수의 소이탄을 투하하여 동 공장을 전소시켰다.

동일 미군 항공기 6대는 대전에 래습하여 충남 양주장, 충남 고무공장, 산업회사, 제1공장 창고등에 다수의 폭탄을 투하하여 상기 제 공장들을 파괴하였다.

8월 6일 미군 전투기 수대가 대전시에 래습하여 대전 연필공장을 폭격하여 동 공장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8월 9일 강원도 철원지방에 미군 항공기 5대가 래습하여 로켓트포와 기관총을 무차별적으로 발사하여 민영 제사 공장과 민영 협동상사를 전소시키고 국영 제사공장을 일부 파괴하였으며 철원 마선 저수지에 심대한 피해를 주었다.

동일 미군 전투기 6대가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에 래습하여 210개의 소이탄을 투하하여 평화 제문공장을 소각 하였다.

동일 미군 전투기 10대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봉래동 제분공장에 수백발의 로켓트 탄을 투하하여 동 제분공장을 파괴하였다.

동일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 연20대는 서울시 서대문구 연초공장에 폭탄과 소이탄을 투하하고 기총소사를 가하여 동 공장창고 3개를 소각하고 공장의 일부를 파괴하였다.

8월 10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4대는 인조 견직 공장을 폭격하여 그 일부를 파괴하였다.

동일 해주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해주 세멘트 공장을 폭격하여 그 일부를 파괴하였다.

동일 원산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간장공장, 고무신 공장등을 폭격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동일 경성 영등포 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4대는 경성 방직 공장을 폭격하여 동 공장 일부와 식당 물품 창고등을 전소시켰다.

8월 12일과 13일 량일에 걸쳐 역시 영등포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연19대는 조선의 대 방직공장의 하나인 고려 방직공장에 다수의 폭탄과 소이탄을 투하하여 동 공장을 파괴하였다.

8월 13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및 전투기 17대는 제면공장 련탄공장등을 폭격하여 그 일부를 파괴하였다.

동일 해주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해주 제지공장을 폭격하여 공장건물 7동을 파괴하였다.

동일 평안남도 안주군에 래습한 16대의 미군 항공기들은 식량 증산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평남관개공사장을 폭격하여 동 공사장의 일부를 파괴하였다.

8월 14일 함경북도 주을지방 해상에 침입한 미군 함선들은 주을 요업공장에 함포 사격을 가하여 그 일부를 파괴하였다.

8월 17일 함경남북도 지방에 래습한 다수의 미군 폭격기들은 동 지대에 있는 중요 산업 시설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여 그 대부분을 파괴하였다. 즉 성진 제강소, 청진 방직공장, 청진 제약공장, 주을 요업공장, 조선 경제의 중요 기간을 이루고 있는 공장들과 평화 산업들을 파괴하였다.

8월 20일과 27일 황해도 지방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조선 최대 제철소를 맹폭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8월 22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는 정창 고무신 공장을 폭격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8월 22일 평안남도 성천군에 미군 폭격기 2대가 래습하여 성천 광산을 폭격하여 동 광산 선광장 기타 시설들과 사무실 창고등을 파괴하였다

동일 미군 전투기 3대가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장동리에 래습하여 대아 방직 공장에 대하여 폭격 및 기관총 사격을 감행하여 동 공장을 파괴하였다.

8월 24일 개성시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들은 개성 양조공장에 소이탄과 로켓트탄을허다히 투하하여 동 공장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8월 20일, 29일의 수차에 걸쳐 사리원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사리원 방직

공장을 폭격하여 그 대부분을 파괴하였다.

8월 30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평양 연초공장과 방직공장을 폭격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8월 30일 31일 남포시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식유 제조공장, 관초자공장, 전구공장, 과실 가공공장, 정미소등을 폭격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파괴하였다.

9월 1일 황해도 신천군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3대는 연초공장을 폭격하여 동 공장 창고 4동을 파괴하였다.

9월 4일 남포시에 또다시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남포 견직공장을 폭격하여 그 일부를 파괴하였다.

미군 항공기들은 조선 인민들을 기아에 몰아넣기 위하여 전 조선 각지의 농지에 다수의 폭탄을 투하하며 또는 농촌을 파괴하고 농민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농촌들을 폭격하며 논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무수히 폭탄을 투하하는 등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가을 곡식이 무성한 광대한 농지를 폐허로 만들고 있다. 미군 항공기들의 이와같은 만행으로 말미암아 황폐화된 농지는 조선 전역을 통하여 막대한 면적에 달하는바 본 조사 위원회가 조사 확인한 8월 25일 현재 몇개도의 피해 면적을 렬거하여 보면 함경남도에서는 401,498평 평안 남도에서는 34,182평 충청 남도 에서는 183,971평의 추수를 앞둔 농지가 폐허로 화하였다.

5. 패주하는 미군들의 만행

영용한 인민군대의 노도와 같은 진격앞에 패배에 패배를 거듭하는 미국 독점 자본가들의 고용병들은 패주하면서 각지에서 살인, 방화, 강간, 략탈등 가진 비인간적인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미군의 이와같은 만행들 중에서 몇개의 실례를 다음에 렬거한다.

7월 초순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회동리에 침입한 미군 5명은 동 부락 가정부인 김심순을 대구로 피난시켜준다고 트럭에 싣고 가다가 산골짜기에서 륜간하고 그를 총살하였다.

또 영동군 영동면 금리에 침입한 미군들은 동 부락민에 대하여 피난하라고 강요하고 부 락민들이 피난간 뒤에 주민들의 재산을 략탈하였으며 동 부락 갈춘자의 집에와서 갈춘자의 조부 (70세) 와 그의 아들 맹인을 보고 피난 안갔다 하여 권총으로 사살하고 그집 가재를 략탈하였다.

7월 2일 충청북도 충주군 충주면 충의동에 퇴각한 미군과 『국군』헌병들은 로동자, 농민, 학생들을 무조건 체포한 후 총뿌리를 돌려대고 놈들이 퇴각하는 곳으로 끌고 가면서 끌려가는 아들 딸들을 따라나온 늙은 부모들을 무참히 찔러 죽였다.

7월 8일 미군은 기관총 5대를 자동차에 싣고 충북 영동군 영동면 매천리에 침입하여 부락민들에게 총뿌리를대고 피난시킨다고 하면서 산으로 끌고가 학살한 다음 부락민의 재산을 략탈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매천리에서만 52명이 학살 당하고 19명이 부상 당하였다.

7월 15일 대전시 목동에 들어온 미국군대 2명은 목동에 거주하는 가정부인 박기숙（가명）집에 침입하여 그를 강간한것을 비롯하여 미국 군대가 대전시에 머물러 있는 동안 놈들은 대전시내 부녀자들은 누구를 불문하고 강간하는 귀축과 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7월 17일 충청북도 독천군 군북면 자보리에 침입한 10여명의 미군들이 침입하여 30분 이내로 피하지 않으면 총살한다고 위협하고 부락민들이 산으로 피한 후 주민의 재산을 략탈하였으며 산끌짜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기관총을 란사한 후 부락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았다

그 결과 51호중 46호가 전소되였으며 기관총 사격으로 인하여 수10명이 살상되였다.

7월 17일 패주하는 미국 군대 수10명은 충청남도 대덕군 동면 농가에 침입하여 총칼로 주민을 위협하면서 동리 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하였다. 또 청년 한사람을 만나자 피난가지 않는다하여 총살하였고 신병으로 누어있는 로인 1명을 태워죽였다.

7월 18일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작곡리에서 미군들은 농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미군부상병들을 목적지까지 운반시킨 후 그농민들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뒤에서 카빙총으로 그들을 사격하여 사살하였다.

동일 충청남도 대덕군 지성면에서 인민군대의 진격에 패주하던 미군 3명은 동면 농촌 가정에 침입하여 남자는 즉시 피난가라고 강요한 후 남아있는 가정부인들을 강간하고 심지어는 가정부인 김한녀를 강간하고 그자리에서 총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동일 충청남도 대전시 유천동에 거주하는 농민의 부인 리갑순은 앞내가에서 세탁을 하고있을때 돌연히 무장한 미군이 쫓아옴을 목격하자 자기집으로 달아 돌아와 대문을 잠겼다 강도와 같은 미군은 대문을 뛰여넘어 그 집에 침입하여 리갑순을 강간한후 국부에 총을 쏘아 즉사케 하였다.

7월 19일 인민군 부대가 대전시 근방에 육박하자 미군과 소위「국방군」장관들은 대전으로부터 패주하기 시작하였다

7월 19일 오전6시경부터 미군들은 대전으로부터 달아나는 일방 주택 상점 및 기타 문화기관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 정동, 원동, 대흥동, 인동등 대전시의 각 지역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그 결과 3,740호의 주택, 35개의 국가기관, 140개소의 평화 산업 시설, 9개의 학교, 12개의 병원들이 잿더미로 화하였다.

동일 대전시 판암동 623번지에 거주하던 여신용(68세)과 그의 아들 여남복(12세)은 미군의 만행을 피하여 판암동 철도선 어느 굴속에 숨어있었다.

이를 목격한 미군은 여신용 부자를 즉시 총살하였다.

동일 인민군대의 진격에 패주하던 미군 10명은 대전시 천동 서모와 아내와 어린아이 3명을 목격하고 남자 서모에게 속히 도망하라고 총뿌리를 겨누면서 공갈하여

축출한 후 서모의 아내 김현숙(가명)을 산속으로 끌고가서 륜간하여 인사불성에 이르게 하였다。

7월 18일 충청북도 영주군 황금면 관리에서 미군들은 동리 47번지에 거주하는 신병으로 기거동작을 하지 못하는 리상호의 부친(67세)을 앞마당 말뚝에 목을매여 죽였다.

또 패주하는 미국 침략군은 직접 또는 리승만 괴뢰군에 지시하여 수다한 애국자들과 평화적 주민들을 대중적으로 학살하였다.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의 사이에 경기도 수원에서는 1,146명의 애국자와 평화적 주민들을 학살하였는바 놈들은 형무소 또는 류치장에 구금하였던 애국자들 또는 시내에 거주하는 무고한 인민들을 현장에서 또는 미리준비하여 놓은 산으로 끌고가서 기관총, 소총, 권총등을 란사하여 학살하였다. 특히 부녀자들에 대하여서는 라체로 만들어 각종 야수적 고문을 가한 후 국부와 유방등을 사격하여 학살하였다.

놈들은 이와 같이 하여 학살한 인민들의 시체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충주에서 미국 군대는 소위 국방군에 명령하여 충주시민 739명을 체포하여 이원국민학교 교사에 가두게 한 후 그 다음날 (7월 5일)학교 뒷산에서 23명을 학살하고 나머지 716명은 손과 발을 결박하여 트럭에 싣고 가다가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 앞산과 남정면 충정리 가내울 고개에서 10명 혹은 15명씩 묶어놓고 기관총으로 학살하였다.

공주에서는 미군과 소위 국방군이 합작하여 600여명의 시민을 체포하여 공주 근방산골 짝이에 몰아 넣고 소위 국방군은 지상에서 사격하고 미군 항공기는 공중에서 기총소사를 하여 학살하였다。

미군과 소위 국방군은 퇴각할 때 마다 상술한바와 류사한 방법들로써 그곳 애국자들과 주민들을 무수히 학살하였다. 즉 몇개의 례를 들어보면 평택에서 600여명 안성에서 500여명 부여에서 2,000여명 조치원에서 158명 대전에서8,644명 청주에서 2,000여명 전주에서 4,000여명 군산에서 400여명 공주에서 600여명 안양에서 400여명 충주군에서 2,060여명등을 학살하였다.

이상에 례거한 조사된 제사실들은 다음과 같은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즉 조선 인민을 반대하는 전쟁에 있어서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 간섭자들은 조선의 도시와 농촌에 대하여 군사적으로는 아무 의의도 없는 잔악한 폭격을 하며 평화적인 조선 주민들을 대중적으로 학살하며 국가의 경제를 파괴하는 방법으로써 조선 인민에게 복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 무장 간섭자들은 자유 애호 조선 인민을 곤난과 곤궁에 처하게 함으로써 조선 인민을 위협하려 하며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항거하는 조선 인민의 의지를 꺾어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피로써 자기 조국을 물들이게 한 야만인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에 가득찬 조선

인민은 미국 식민지 략탈자들을 반대하여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최후의 승리를 획득할때까지 수행할 각오로 충만되여 있다.

1950년 9월 16일

미국 무력 간섭자들과 리승만 도배들의 만행에 관한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위원회

3. 미군과 리승만 군대의 평양에서의 만행에 관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 위원회의 보도 제 3호

미군과 리승만 군대가 평양에서 감행한 만행의 예비적 조사의 결과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평양 강점 약 1개월반 동안에 미국 간섭자들과 리승만 도당은 국제법과 인류 도덕의 초보적 규범들을 란포하게 유린하면서 전대 미문의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강점한 지역에서 중세기적 야만인들과 같은 행위를 자행하였다.

미국인들과 리승만 도배들은 조선 인민에 대한 악마와 같은 증오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고대 도시 이며 조선에서의 민주 운동의 성벽인 평양시를 페허로 만들려고 시도하면서 평화적 주민들을 대중적으로 살해하였으며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인민들의 재산을 략탈하고 산업시설들과 공공 건물들과 문화시설 및 주택들을 파괴하였다.

1. 주민에 대한 테로 부녀자 강간 및 기타의 만행

평양시를 일시 강점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 간섭자들과 리승만 괴뢰군대는 수많은 무고한 평화적 시민들을 살해하였다.

그들은 인민 정권 기관 일꾼을 특히 로동당원들을 투옥, 타살, 총살, 교살하였으며 그리고 또 그들의 가족은 부녀, 아동 로인들을 불문하고 체포, 투옥, 고문 학살하였다.

미군과 리승만 군대가 평양을 강점하고 있는 동안에 감행한 이러한 만행의 결과 평양에서 1만 5천명 이상의 주민이 학살되였다.

미국 간섭자들과 리승만 도당의 군경들은 4천여명의 애국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을 평양 감옥에 체포 투옥하였으며 그중 2천 여명을 이 감옥의 마당에서 총살하였다.

그들의 시체는 21개소의 방공호와 3개소의 우물과 3개소의 저수지에 쓸어 넣었다. 그 밖에도 인민군대들의 평양 입성시에 감옥 마당에서는 미군과 리승만 군대의 교형리가 미처 치우지 못한듯한 86명의 시체가 발견되였다.

12월 4일 평양으로부터 당황 망조하여 패주하면서 미군과 리승만 군대는 총구를 옥창에 대고 허다한 수감자들을 기관총으로 사살하였다.

평양에서 퇴각함에 앞서 미군과 리승만 군대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살 해버리는 중공군이 들어올것이며 평양에는 원자탄이 투하될것이라는 허무 맹랑한 요언을 돌림으로써 주민들을 공포에 휩쓸어 넣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위협과 공갈로써 시민들에게 대동강 남쪽으로 피난 갈것을 강요하였으며

평양으로부터 나가지 않는자는 빨갱이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광포하였다.

공포를 느낀 시민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12월 3일과 4일에 떼를 지어 대동강을 건느기 시작하였는바 그들은 혹은 다리로, 혹은 배, 도람통, 널판지 등을 타고 건느고 있었다.

퇴각하는 미국 인들과 리승만 도당들은 사람들이 다리에 꽉 차서 건너가고 있을 때에 그 다리를 폭파시켰다. 미국 전투기들은 강안에 운집하여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기총소사를 하였다.

12월 3일과 4일에 미국인들과 리승만 도당들은 이와 같이하여 약 4천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였다.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12월 4일에는 대동강은 군중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대동강수는 살해된 사람들의 피로써 붉게물드려 져 있었다한다.

애국자들이 미군과 리승만 군대를 반대하는 활동의 근거지로 방공호를 리용한다는 구실밑에 미국인들과 리승만 도당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방공호를 메우게 하였으며 방공호에있는 사람들을 사살하였다. 평양 서구에 있는 8개의 방공호 속에서는 이와 같이하여 학살된 시민들의 시체 3백 28개가 발견되였다.

『공산주의자들에게 동정』한다는 죄로 시민들은 재판도 조사도 없이 매일 같이 총살당하였다. 이와 같이하여 평양시 설수리 56번지에 사는 림모 평양시 설수리 10구에 사는 성인 학교 교원 최성근, 평양시 서성리에 사는 한호성, 평양 공업대학 교원 문상태와 기타 많은 사람들이 총살당하였다. 평양시를 강점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인과 리승만 도당들은 많은 부인들과 처녀를 강간하였다. 몇개의 실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1월 25일 놈들은 박춘옥(18세 평양시 상수리 거주)을 총살하겠다고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감흥1리에 있던 대한청년단 사무실에서 미국인들은 2명의 가정부인과 1명의 처녀를 강간하였으며 또 동리 3구 4반에 거주하는 박명호의 부인을 강간하였다.

리동임의 부인(32세 평양시 동창리에 거주)는 5명의 미국인에게 강간당하였으며 최홍석의 부인은 2명의 미국인에게 강간당하였으며 리승곤의 부인(54세)도 역시 2명의 미국인에게 강간당하였다.

평양시 상흥리 4구 4반에 사는 최승록이 체포된 후 3일만에 3인의 미국인이 그의 부인을 찾아와서 그를 륜간하였다.

미국인들은 애국자들의 부인들을 체포하여 그들을 원천리와 사동 2리에 모아놓고 밤낮으로 그들에게 야만적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 제국주의자와 리승만 도당들은 포로와 부상자에 대한 제네바 협약의 제 규정을 란포하게 위반하고 조선 인민군의 포로를 살해하였으며 또 그 포로들에게 견딜수 없는 생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즉 례를 들면 미국 군대는 평양시 동구에 있는 칠불리에서 약 72명의 조선 인민

군 포로를 총살하였으며 률리 2리에서는 50명을 총살하였다.

평양 방직공장내에 있던 포로병 수용소에서는 포로병들은 로천에서 11월의 추운 밤을 자게 하였으며 부상병과 병든 군인들에게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부상병과 병든 군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다.

2. 산업시설 건물 및 문화기관의 파괴

일시 평양을 강점하였다가 퇴각할때에 미군 및 리승만 기술병들의 특별 부대는 평양의 산업기업소들과 건물들과 시설들을 폭파 소각하였다.

평양에서 퇴각하기 전에 미국인들과 리승만 도당들은 평양 화학 공장의 일체 시설을 파괴하고 이 공장건물과 합숙을 소각하였다.

평양 방직공장 동평양 기계제작소, 사동 련탄공장, 이 공장의 발전소, 평양 타올공장, 평양 사탕공장, 평양 고무공장, 평양 레코드공장, 메리야스공장, 평양 연초공장, 룡산 화학공장, 평양중앙백화점 등의 폭격을 면하였던 시설들과 건물들이 완전히 파괴되였다. 미국인들과 리승만 도당들은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힘과 손으로 건립된 김일성 종합대학을 파괴하였으며 또 로어대학, 사범대학, 체신전문학교, 공업대학, 로동당 중앙 당학교. 제1, 제2, 제3, 제4, 제5, 제10 초급중학교, 제2녀자고급중학교, 제5 녀자 초급 중학교, 제14, 제19, 제38, 제39 인민학교의 건물을 완전히 파괴하였으며 연구자료와 기구들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각하였거나 혹은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였다.

그들은 또한 중앙병원, 국립 예술극장, 평양 아동궁전, 로동신문사 및 기타 문화 시설의 건물도 파괴하고 소각하였다.

미국인들과 리승만 도당들은 국립 중앙도서관, 김일성 종합대학도서관, 각 기관의 도서관들, 서점들과 개인서재들에 있는 수10만권의 서적들을 소각하였다. 그들은 평양 박물관을 파괴하고 거기에 있던 전람품들을 략탈하였으며 많은 력사적 유물들 그 례를 들면 락랑고분, 조선에서 가장 귀중한 8개의 력사적 유물들중의 하나인 부벽루를 파괴하였으며 영명사의 금부처를 략탈하였다.

미국 간섭 자들은 평양시의 40만 주민들에게 음료수를 공급하던 수도 시설들과 저수지를 폭발 파괴하였으며 시에 전기를 공급하던 배전부를 파괴하였으며 대동강 철교 및 인도교와 시내의 전차 선로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미국인들과 리승만 도당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내각, 내무성, 사법성, 평양시 인민위원회 내무부, 평양 전신전화국, 중앙은행,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북 조선 민주 청년동맹 중앙 위원회의 건물들과 기타 많은 시내의 건물들을 파괴하였다.

3. 인민 재산의 략탈

평양 점령기간에 미국인들과 리승만 괴뢰군대들은 국가기관, 국영기업소, 국영백화점, 소비조합, 백화점늘에 있던 물품을 략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상점, 개

인 기업소 주택에 있던 재물까지도 략탈하였다.

미국인들과 리승만 도당들에게 체포된 인사들의 가족들은 의례히 집에서 쫓겨났으며 그들의 모든 재물은 미국인들과 리승만 도당들에게 략탈당하였다.

술취한 미군들은 주민들의 주택에 빈번히 불법 침입하여 가장 값있는 물품들을 략탈하였다.

평양시 동창리에 있는 김 근용의 집에 침입한 미군은 그의 부인의 손에서 두개의 금 반지를 략탈하였다.

감흥리에 있는 김덕삼의 집에 불법 침입한 다른 미군은 시계를 강탈하였다.

상흥리에 거주하는 심용구의 집에 침입한 미군은 벼 40가마니 돼지 한마리 재봉침 한대 이불 세자리 배추 천여통과 기타 재물들을 략탈하였다.

리승만 괴뢰군인들은 감흥리에 거주하는 장기선, 조시민 김난준, 김현덕; 오룡익, 박기성등의 집에서는 쌀과 벼 합계 1백 58가마니 돼지 10두 소 2두 야채 백평을 략탈하였다.

남구 정평리 정미소 주인 김봉운의 집에 불법 침입한 미군은 주인을 구타하고 7천만원에 해당하는 금과 기타 귀중품들을 략탈하였다.

칠불리 농촌에서는 미군과 리승만 군대들이 소 6두, 돼지 70두, 닭 2백여마리를 략탈하였다.

미군과 리승만 군대의 만행은 간섭자들과 그들의 주구인 리승만 도당들에 대한 조선 인민의 열화같은 증오를 일으키고 있다.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위원회는 상기한 사실들에 관하여 조선 인민과 세계 여론에 제시하면서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은 외국 간섭자들과 조선의 반동들이 유•엔의 간판 밑에서 감행하는 이와 같은 만행들을 규탄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1950년 12월 26일

미국 무력 간섭자들과 리승만 도배들의
만행에 관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위원회

4. 미군과 리승만 군대의 서울 인천 및 그 주변에서의 만행에 관한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 위원회의 보도 제4호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위원회에는 잔인 무도한 미국 무뢰한들과 리승만 도당이 도시와 농촌들을 파괴하며 조선의 평화적 주민을 강탈 학살하고 있는 새로운 허다한 자료들이 계속 입수되고 있다.

매일 매시간 화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폭탄의 폭발에 땅은 진동하고 있다.

아무 리유도 없이 국제법의 초보적인 규범들까지도 위반하면서 미국 공중 비적들은 조선의 평화적 주민을 폭격하여 학살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점령하였던 도시와 농촌들에서는 조선 주민을 반대하는 이와같은 만행들이 바다 저쪽에서 넘어온 방화자와 살인자들의 특별 지휘에 의하여 감행되고 있다. 원자무기를 사용한다고 위협하면서 그들은 평화적 주민을 강제로 몰아가고 퇴각하는 도상에서 총살하고 주택들을 불사르고 있다. 야수와 같은 미국놈들은 방화하며 학살한뿐만 아니라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인민의 주택과 가정 용품들을 략탈하고 있다.

한번 미국 파괴자들이 들어왔던 곳들은 사막을 련상시킨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 위원회는 이전에 1950년 8월 18일부 보도 제1호와 9월 26일부 보도 제2호 및 11월19일부 보도 제3호에서 발표한 전대 미문의 만행들의 특성은 확인할 뿐만 아니라 미국 무뢰한들과 리승만 도당은 조선 인민의 자유와 생명에 대한 자기의 류혈적 범죄적 침해에서 잔악과 도덕적 타락의 극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증하는 본 조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무수한 자료들 중 새로운사실들을 전체 평화 애호 인민과 전 세계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것을 자기의 의무로 간주하는 바이다.

1. 서울과 인천의 평화적 주민에 대한 만행과 폭행

살인귀 맥아더의 직접 명령에 의하여 미군은 남녀 로소를 불문하고 조선의 애국자들을 가혹하게 고문하고 대중적으로 살륙하는 방법으로 평화적 조선 주민에게 전대 미문의 학살을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직업적 범죄자들의 잔악성으로써 자기들의 류혈적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사실들은 특히 늘어가고 있으며 놀랄만한 성질을 띠게 되였으며 이리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과 미국 정부가 인류 도덕의 어떠한 법칙도 무시하는 강도 악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폭로하고 있다.

미국 악당들이 일시 점령하였던 도시들에서의 그들의 만행에 관하여서는 해방된

서울의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가 잘 말하여 주고 있다.

미국인들은 서울을 강점한 후 시내에서 대중적인 학살을 조직하였다. 그들은 부역법이란 악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의하여 미국인들과 리승만 도당들은 인민위원회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 로동당원들, 민주단체들의 맹원들, 인민군대 및 빨찌산의 가족들을 총살하였다. 서울에는 『빨갱이 수색 참모부』가 창설되고 주민들 에게는 특별한 『거주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받으려 아무도 가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매 거리마다 이『거주증』을 가지고있지 않는 사람을 체포하는 검사소들을 만들어 놓았다. 두발가진 짐승들은 체포 또는 학살하기 위하여 선량한 사람을 가르쳐『빨갱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친척들이 의용군에 갔거나 조금이라도 인민군에 방조를 준 사람들은 모조리 검거 투옥하고 혹독하게 고문하고 학살하였다.

위에 지적한 모든 만행들은 이 사람들이『부역자』라는 구실 밑에 감행되였다.

인민군대와 중국 인민 지원부대에 의하여 서울이 해방되던 때에 미국 살인귀들은 72, 390명의 조선 애국자들을 학살 교수 또는 고문하였다.

서울 강점시에 미국인들은 시민 75,000여명을 검거 투옥하였다. 감옥들과 류치장들과 또한 공장 창고들과 교회의 지하실들은 피검자들로 초 만원을 이루었다. 서울 감옥들에서는 그 부모들과 함께 투옥된 나어린 아이들과 영아들이 약 300명가량 있었다.

서울로부터 철거할때에『이감』이라는 구실 밑에 서울 감옥들로부터 30,000여명이 남으로 끌리여 가고 도중에서10,000명 이상이 총살 당하였다.

9월 16일 미국인들은 인천항에 상륙하여 도시를 점령하였다.

도시로부터 떠나가는 피난민의 군중들은 미국놈들에게 무참하게 총살 당하였다. 악당들은 자기들이 만나는 젊은 사람들은 차별 없이 모조리 골라내여 그들 을『공산주의자』라고 락인찍고 총살하였다. 그들에게 살해당한 평화적 주민들의 수는 10,000명을 넘는다.

금곡동에 거주하는 실업가 김종식이 말하는바에 의하면 시내의 이 지구에서만 미국놈들은 1,500명의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2,700명의 피난민을 학살하였다고 한다.

9월 17일 미국놈들은 부근 농촌으로 자기 가족과 함께 피난 가려고한 부인 강혜순을 붙잡아 4세 7세에 나는 그의 두 아들을 학살하고 그를 부상시켰다.

인천항에 상륙한 직후 미국 흡혈귀들은 작년 10월초에 술에 취하여 자동차에 앉아 송혜동 거리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나타난데 놀라서 방공호로 뛰여들어간 아동들에게 기관총 소사를 하였다. 무고한 7명의 아동은 무참하게도 그들에게 학살되였다.

미국 침략자들의 이와 같은 비렬한 행동에 관하여 목격자인 로동자 리현국이 본 조사 위원회에 진술하였다.

1950년 9월 30일 미국인들은 서울 전차 차고 로동자 6백여명을 『부역자』라는 혐의로 체포하여 야수적 고문을 가하고 그중 30명은 즉석에서 학살당하였다.

목격자인 그 차고 종업원 서병연은 말하기를 처음에는 살인귀들이 매 로동자들을 곤봉으로 구타하였다. 곤봉이 다 없어질때까지 계속 구타하고 다음에 그들을 거꾸로 달아매고 끓는물을 퍼붓고 빈사 상태에 있는 그들의 배 가슴 머리 눈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다.

특히 그중 직맹위원장 최금목은 열손가락과 코를 베여내고 창끝으로 그의 가슴과 얼굴을 무수히 찔러 학살하고 그의 시체를 전기회사 전체 종업원들 앞에 내보였다.

전차 녀차장(123호)을 그들은 2층집에서 붙잡아 바로 결박하고 2층에서 아랫층으로 내려가는 층층대에 굴려 중상시키고 창끝으로 그의 가슴을 찔러 죽였다.

1950년 9월 30일 연희동 뒷산에서 수명의 『국방군』은 인민반장 변주석과 3명의 민청원과 인민군대 포로 20명을 총살하였다.

1950년 10월 1일『대한 청년단』이란 반동단체의 맹원들은 리태원동 63번지에 거주하는 신호범 (46세)을 그의 아들 신재화가 민청원이라 하여 체포하여다가 전신 이 피투성이 될때까지 란타하고 낫으로 그의 목을 베여 죽였다.

1950년 10월 1일 테로단은 서울 전기회사를 습격하여 48명의 로동자를 구타하여 학살하였다.

1950년 10월 2일 동대문『경찰서원』들은 피검자 12명을 야수적 고문으로 학살하고 그들의 시체를 한강 강변 서빙고에 내다 버렸다.

목격자인 서울 시민 문달호의 말에 의하면 1950년 10월 3일 종로『경찰 서원』들은 야수적 고문으로 학살된 50여명의 시체를 마포근방 강물 속에 내 버렸다.

1950년 10월 2일『대한 청년단』단원들은 갈월동에 사는 민청원 김수진을 곤봉으로 학살하고 그 시체를 이거리 저거리로 끌고 다녔다.

1950년 10월 6일『청년방위대』라는 단체의 테로들은 백주에 종로거리에서 리성균을 곤봉으로 학살하였다.

1950년 10월 7일 『화랑단』이란 테로단은 공덕동 인민위원회 서기장이였던 신학균과 그의 아우 신성균을 효창 공원에서 타살하였다.

1950년 10월 9일 『치안대』는 16명의 무고한 주민을 체포하여 어떤 사람은 손, 발, 혀, 귀, 코를 잘라내고 두 녀자는 젖가슴을 베여내고 어떤 사람은 눈을 도려내여 학살하였다.

1950년 10월 10일 돈암 인민학교 뒷 산에서 『국방군』은 남 녀 시민 24명을 총살하였는데 그중에는 임신부, 15세 나는 중학생, 유아들도 포함되여있었다.

1950년 10월중순에『국방군』들은 서울 해방시에 국가기관에 복무하였다는 리유로 동교동 59번지에 거주하는 정 완석의 동생 3명을 학살하였다.

1950년 12월 하순에 마포구 인민위원회 직원이였던 아현동 1백 17번지에 거주하는 김용환의 어머니 조씨(56세)와 그의 누의동생 김양자 (19세)를 총살하였다.

1951년 1월 2일 미군들은 피난민들이 살고있던 돈암동 뒷산에 있는 방공호를 기관총으로 란사하였다.

그 결과 12명이 학살되였는바 이들의 대다수는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이였다.

1월 2일 미군 악한들의 한 그루빠는 서울로부터 퇴각할 때에 집잃은 많은 가족들이 살고 있던 토막집을 사격하였다. 12명이 살해되였으며 그 중에는 방금 출생한 영아도 있었다. 바로 이날에 야수적 미국 악당들은 조선 민주청년 동맹 맹원 김수진을 시내에서 체포하여 타살한다음 그 시체의 다리를 매여가지고 서울의 주요 거리로 여러시간 끌고 다녔다.

1951년 1월 13일 종로 『경찰서 부근에 있는 하수도 구멍에서 리승만 도배들이 퇴각시에 그들에게 학살된 9명의 서울 시민의 시체가 발견되였다. 그중 3명은 귀를 베여 낸것이였으며 2명은 입술을 도려 낸 것이였다.

미국인들은 1950년 10월 초순에 인천의 부두 로동자 리상균의 처인 27세의 부인 김부임을 그가 다만 녀맹원이였다는 리유만으로써 체포하여다가 그에게 온갖 방법의 고문과 모욕을 가한다음 그를 발가벗기고 불에 달군 쇠줄로써 가슴과 음부를 지졌던 것이다.

인민군대와 중국 인민 지원부대들이 인천시에 접근하였을 때에 시내로부터 도망할 직전에 이 형리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 실례로 금년 1월 17일 조국전선 조사위원회는 바로 소위 경기도 『경찰부』가 점거하고 있던 창영 인민학교 정문옆에서 48명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미국야만들이 시가로부터 도망하기 직전인 1월 4일에 그들에게 살해된 사람들의 시체였던 것이다.

금각동에 살고 있는 홍승관은 말하기를 미국 살인귀들은 자기들이 체포한 사람들을 4렬로 앉치고 그들을 기관총으로 사살하였다고 하였다.

시쳇더미는 시민들이 그것을 피하려고 다른 길로 돌아 다닌만큼 무서운 광경을 나타 내였던 것이다.

1월 18일 창영동에 있는 장유 공장 건물내에 자리잡고 있었던 소위 동인천「경찰서」창고에서 조사위원회는 122개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그 시체들은 창고의 구석마다 무데기를 이루어 엉켜져있었다. 산채로 화장당한 수감자들은 아마도 담벽을 무너 뜨리고 불타는 건물로부터 살아나려고 애쓴 것 같았다.

본 위원회는 또 다른 창고의 건물에서 30명의 숯덩이로된 시체를 발견하였다. 야만들은 피검자들을 결박하고 가마니짝을 그위에 덮고 휘발유를 뿌리고 그들을 태워 죽였다. 시체들의 윗부분은 완전히 타버렸다. 본 위원회는 이외에 『경찰서』 청사와 그 마당에서 야수적으로 학살당한 약 300명의 시체를 발견 하였다. 1월 18일 본 조사위원회는 인천『경찰서』청사에서 18명의 시체를 발견 하였다. 이외에 또 이 『경찰서』 의 창고에서 민주주의적 활동가들인 청년10명의 시체가 발견되였다.

악당들은 8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아무런 음식물도 전혀 주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아사시켰다. 1월 30일까지 금포군(인천시 부근) 9개면 중 4개면에서

다량의 시체들이 발견되였다.

양동, 양신, 금포, 양촌면들에서는 민주주의적 활동가들의 가족 400명 이상이 학살 되였다. 이 학살된 사람들 중에는 로동당 군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박승안, 군 위원회 위원장 천순학 군당 간부부 지도원 리청권, 군당 조직부 지도원 천순익 등이 있었다.

미국 강도단들은 야만인들의 습성을 재연하여 조선에서 애국자들의 머리가죽을 벗겨 내였다.

서울에서는 미국 살인귀들이 조선애국자들의 머리 가죽을 벗겨 내는 사건들은 열두번이나 있었다. 머리 가죽을 미국인들은「기념품」으로 보관하였다.

2. 부인과 처녀들에 대한 추악한 폭행

미국의 야만인의 무리들은 믿을수 없으리 만치 간악하게 조선 녀성들을 희롱하였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녀성들을 사냥하며 그들을 수용할 창고를 만들고 습기 있는 지하실에 수백명씩 가두고 음식물을 주지 않았다.

전신을 라체로 만들고 그들의 손발을 전주에 맨다음 그들을 사격하고 또는 창집 들격 련습을 하였다.

서울에서 사람의 탈을 쓴 미국 야수들은 875명 이상의 녀성들을 강간한 다음 학살하였는바 이들 중에는 나 많은 녀성들도 있었다.

서울시민 김인수는 말하기를 12월 15일 깊은밤 세명의 미군이 우리들의 집에 침입 하였다.

그들은 옆집에 있는 녀자의 손에서 산후 2주일된 어린아이를 빼앗아 방바닥에 내던지고 그 자리에서 이 불행한 녀자를 강간 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였던지 그들은 다른 집에 가서 어머니가 있는데서 그의 딸을 강간하였다. 그 다음날 이 세놈은 김씨라는 로인이 살고 있는 집의 문을 깨뜨리고 들어가 그 녀자의 어린 소녀 고제원을 강간하려고 하였다.

김씨는 이 악당들을 제지시켰다. 때문에 이 야만적인 악당들은 권총 손잡이로써 로인을 때리고 그 녀자의 얼굴과 목을 칼로 찔렀다.

12월말에 미군 수명은 삼간동 부락에서 처녀를 붙잡아 그 녀자를 산림속으로 끌고 갔다.

그 이튿날 농민들은 이 산림 수풀 속에서 불구자가된 처녀를 발견 하였다. 2월말에 서울에 있는「경찰서」의 뜰에서는 젊은 녀성들의 시체가 발견 되였다.

그들의 머리는 탄환으로 관통되였고 의복은 찢어졌고 로출한 음부의 주위는 피투성이였다.

창문동에 거주하는 부인 오금수는 미국놈들이 도시를 강점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는 그들을 피하여 산속에서 살았다고 말하였다.

9월 18일 그의 이웃집에 사는 은행 직원 권백모의 처는 6명의 미군 손에 붙잡

했다.

이 야만들의 희생으로 된 이 불행한 부인은 3일만에야 집에 돌아왔다.

릉욕을 당한 부인은 그에게 감행한 만행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송림동에 거주하는 로동자 김상결의 말에 의하면 작년 10월말에 우물에서 물긷던 두명의 처녀 즉 그의 이웃집에 사는 최모의 14세 나는 딸과 한모의 15세 나는 딸을『빌리스』를 타고 그 곁으로 지나가던 미국놈들이 랍치하여 갔다.

1주일 후에 어떠한 부두창고에서 이 불행한 처녀들의 시체가 발견 되였다.

그들의 국부는 상처를 받았고 그들의 심한 출혈로 인하여 죽은 것이였다.

10월초에 3명의 미군은 금곡동에 거주하는 40세의 과부 김모의 주택에 침입하였다.

미군인들은 그 녀자의 두 아들(15세,12세,)을 총으로 위협 구타하고 밤새도록 그 녀자를 강간하였다.

성북동과 은진리 에서는 300명 이상의 녀자들이 강간 당하였는데 그들중에는 가정부인, 녀대학생, 그 주변 농촌들에서 랍치당하여온 촌 처녀들이 있었다.

이 외에도 부녀자들의 절개를 모욕, 릉욕한 수다한 사실이 있다.

례를 들면 12월 25일 서울 교외 광장리에서 미군 3명은 무기로 위협 하면서50세의 부인을 성적으로 부패한 방법으로 강간하였다.

이 더러운 방법은 희생자의 불타는 격분을 일으켰으며 강간자들과의 투쟁에서 그 녀자는 한병졸에게 생식기 불구자가 되는 치명상을 주었다.

그 결과 이 미국 악한은 즉사하고 남아 있던 2명의 살인귀들은 강간당한 그 녀자를 총살하였다.

3. 인민 재산의 략탈

서울 인천 및 그 주변들에서의 미국 악당들의 략탈과 만행은 조선의 다른 도시들에서와 같이 주민의 대중적 학살과 부녀자들의 강간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계획적으로 국가 재산들과 개인 재산들을 략탈하였으며 인간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파괴하였다.

1950년 9월 30일 성북구『치안대』원 5명은 안암동 일대에 있는 30여호의 가옥을 가택수색 하고 일체 가구와 기타 재산등을 략탈하여 갔다.

청구동 303번지에 거주하는 팽성칠(63세)로인은 그가 아들이 의용군에 나갔다하여 리승만 도당에게 체포되였으며 그의 가옥과 일체 재산은 몰수당하였다. 리승만 도당들은 동원동 15번지에 거주하는 김사빈을 그가 과거에 농민동맹에서 일하였다 하여 체포 학살한 후 그의 일체 재산을 략탈하였다.

1950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사이에 미군과 리승만 도당들은 리태원 일대에서 각 기관에서 일하던 일꾼들의 가정 21세대와 의용군에 나간 가정 45세대를 습격하여 의류, 침구, 가구, 식량등 일체 재산을 략탈하였다,

1950년 12월중순 미군 3명은 남대문로 3가에서 모 회사원이 은행으로부터 가져 오는 현금 25만원을 백주에 략탈하였다.

1950년 12월 26일 미군 2명은 충무로 3가에서 갈월동에 거주하는 임영동이 소지 하였던 현금 30만원을 략탈 도주 하였다.

1950년 12월 27일 미군 2명은 명동의 대로상에서 백주에 회사원 지인봉을 권총으로 협박하여 현금과 소지품등 40만원을 강탈하였다.

1951년1월 3일 미국놈들은 20여대의 화물자동차를 타고 돈암동에 나타나 부근 일대의 민가에 침입하여 조금이라도 가치있는 물건을 모조리 략탈하여 갔다.

4. 문화 시설의 파괴 및 략탈

미군과 리승만 괴뢰군대들은 서울시내의 대부분의 문화 시설들을 파괴 또는 방화하였다.

놈들은 서울에 있는 학교중 76개를 완전히 파괴 또는 소각하였으며 79교는 내부 시설을 전부 파괴하였다.

또 병원 기타 의료시설 38개소를 완전히 파괴하였으며 방송국 2개소 극장 6개소 박물관 1개소, 신문사 4개소를 각각 파괴 또는 방화 하였다.

또 놈들은 종로의 종각을 소각하였으며 덕수궁 석조전을 방화 파괴하였으며 광화문 네거리의 기념 비각을 파괴하는등 서울 시내의 많은 력사적 고적들과 유물들을 파괴하였다. 그들은 경복궁내 국립 박물관에 보존되였던 신라 시대의 금관을 비롯하여 많은 국보적 진렬 품들을 략탈 하였으며 남산에 있는 민족 박물관, 창경원 박물관 서울대학 박물관등의 귀중한 전람품들을 전부 략취 또는 파괴하였다.

그들은 또한 덕수궁 미술관에 진렬하였던 유명한 고서화들을 전부 도취 하였으며 국립 도서관, 시립 도서관, 서울대학 도서관등에 있던 력사적 고서들과 귀중한 도서들도 전부 략탈 또는 소각하였다.

인천에 있는 문화시설들도 거의 전부 파괴하였다. 극장『문화관』은 완전히 소각되였다. 인천영화관, 동방극장등의 영사기와 기타 기구들을 략탈 또는 파괴하였다.

5. 공장 기업소 국가기관 기타 시설들과 주택의 파괴

미 제국주의의 침략자들은 서울과 인천의 공장, 기업소, 국가기관, 공공기관, 문화 시설 기타시설들의 거의 전부와 시민 주택의 대부분을 파괴하였다.

그들은 방화 또는 맹폭으로 785개소의 공장, 기업소들과 11만 8천 여호의 일반 주택을 완전히 파괴 하였다.

그들의 이와 같은 야만적 만행으로 말미암아 영등포를 비롯하여 종로 서대문통 의주통, 광화문통, 을 지로, 남대 문통, 한강통등의 건물들은 거의 전부 파괴되였으며 서울시내의 건물중 80%가 파괴 또는 소각되였다.

그 결과 조선의 력사적 수도이며 1백 50여만의 인구를 가진 근대적 대도시였던 서울은 그 옛 모습을 알아 볼도리조차 없는 다만 파괴된 벽돌과 타다 남은 기둥들

만이 흩어져 있는 폐허로 화하고 말았다.

인천에서는 모든 인쇄기와 기타의 출판 시설들을 략탈하였으며 일부분을 파괴하였다.

례를들면 축지활판사, 한일인쇄소 대륙인쇄소등의 큰 인쇄소들은 쓰지 못하게 되였다.

모든 자동차 선박 기타 모든 운수 기관들을 가지고 달아났다.

우마차와 손구루마까지도 가지고 달아 났거나 혹은 쓰지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도시들과 농촌들을 범죄 적으로 비열하게 파괴하며 평화적 주민들을 학살하는데서 우리는 미국 강탈자들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근로인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민 정부가 5년동안에 쟁취한 조선 인민의 성과들에 대하여 미친듯이 증오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알 수 있다.

서울 인천 및 그 주변에서의 무수한 만행, 평화적 조선 인민에 대한 박해와 학살 공장. 제조소 국가 기관 및 주택들의 파괴등에서 나타난 미국 침략자들의 범죄는 가히 형언할 수 없으며 또 현재에 있어서는 그피해를 일일히 매거할 수 없다. 이 모든 사실들을 모든 성실한 사람들과 전세계 여론 앞에 내놓으면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 위원회는 미국 강점자들과 그의 협력자 리승만 도당들과 또 제일 첫째로 조선 인민의 형리인 맥아더와 달레스와 같은 조선에 대한 무력 간섭 조직자들과 선동자들은 그들의 전대 미문의 만행과 그들이 조선 인민 사회 단체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국가 기업소들과 기관들에 끼친 물질적 손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는데 대하여 모든 자유 애호 인민들은 공명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1951년 3월 1일

미국 침략자들과 리승만도당이 감행한 만행에
관한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조사 위원회

5. 미국 침략자들과 리승만 도당들의 만행에 관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 위원회 보 도 제 5 호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 위원회는 제4호 보도가 공포된 이후 자기의 조사 사업을 계속하여 왔다. 이 조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조사 위원회는 면밀하게 조사된 부정할 수 없는 입수된 수 많은 사실에 근거하여 자유를 사랑하는 조선 인민을 반대하여 광분하는 미국 침략자들과 반 인민적 리승만 매국 도당이 우리 나라를 잿더미로 만들며 우리 인민을 학살하며 우리의 전체 문화적 유물들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더욱 더 새로운 범죄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미국 침략자들은 자기의 범죄적 만행을 유•엔의 소위 평화적 깃발로써 은폐하면서 침략에 있어서 자기의 선배인 히틀러 략탈자들의 추악무도한 범죄를 릉가하는 만행들을 조선 강토 위에서 감행하고 있다.

미국 항공기들은 매일같이 조선의 평화적 도시와 농촌에 래습하여 야수적인 무차별적 폭격으로써 늙은이들과 부녀자들을 살해하고 있다. 전선에서 당한 패배에 미쳐 날뛰는 미국 침략자들은 이 패배를 평화적 주민에 보복하기 위하여 북반부의 78개 도시들을 말살할 데 대한 흉악한 계획을 실현하면서 비 29를 포함한 각종 미국 항공기들을 동원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주민 지대들에 밤 낮으로 폭격과 사격을 감행하여 평화적 주민들, 주택, 문화 시설들과 수력 발전소 및 조선의 문화적 유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소멸하고 있다.

미국 무력 간섭자들은 국제적 제 법규와 인류 도덕을 란포하게 위반하면서 나팔란, 세균 및 화학 무기와 같은 대량적 인간 학살을 위한 야수적이며 비 인도적 무기를 우리 강토에서 대 규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선 전쟁의 확대를 시도하며 이 전쟁의 불길을 아세아의 다른 나라들에서까지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나팔란과 대 폭발력을 가진 각종 폭탄과 그리고 세균 및 화학 무기를 포함한 무기들을 시험 하는 마당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 무력 간섭자들은 전쟁을 확대할 목적으로 전쟁 포로에 대한 제반 국제 협약을 위반하면서 조선 인민군과 중국 인민 지원군 부대의 전쟁 포로에 대하여 전대 미문의 폭행과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미국 침략자들은 공화국 남반부의 거제도, 봉암도, 제주도, 부산, 대전, 대구 및 기타 지역의 전쟁 포로 수용소들을 전쟁 포로에 대한 고문과 학살의 감옥으로 만들었다.

우리 강토에 침입한 침략자들은 자기들의 범죄적 만행을 날이 갈쑤록 더욱 더

확대하고 있다. 이를 확증하기 위하여 본 조사 위원회는 제4호 보도가 공포된 이후 계속 조사한 기초에서 확인된 제 사실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는 바이다.

1. 공화국 북반부의 도시와 농촌들에 대한 파괴와 평화적 주민에 대한 대량 학살

미국 항공기들은 군사적 시설과는 관계 없는 공화국 북반부의 평화적 주민 지역에 대하여 야만적 폭격과 사격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

폭격기와 전투기들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토굴 및 주택과 학교, 병원, 아동 시설, 진료소 및 각종 문화 시설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이 폭격 시에는 주택 건물 뿐만 아니라 평화적 주민들의 모든 재산들까지도 소진되고 있다.

미국 항공기들이 이러한 야만적 폭격을 감행한 결과 공화국 북반부의 도시와 농촌들은 잿더미로 되였다. 미국 항공기들은 공화국 북반부의 평화적 주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할 목적으로 주야를 불문하고 지뢰탄, 파렬탄, 소이탄, 시한탄 및 휘발유통을 부녀자들과 어린이 및 로인들의 머리 위에 야수적으로 투하하며 시민들과 들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기총 사격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

1951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3천 8백 21대의 미군 항공기들은 함경 남도의 평화적 도시들과 농촌들에 래습하여 6천 7백 73개의 각종 폭탄과 수만개의 소이탄을 투하하였다. 이 결과 도시들에서만 8천 4백 64동의 주택과 3백 39동의 국유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였으며 2천 8백 96호의 농호가 파괴 소각되였다.

195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2천 1백 49대의 미군 항공기들은 함경북도 내 평화적 도시와 농촌에 대하여 6천 9백 47개의 각종 폭탄과 수백발의 소이탄을 투하하였다. 이 결과 농촌에서만 6천 7백여호의 농가가 파괴 소각되였으며 시 군 소재지에서는 3만 8천 2백 69동의 개인 주택이 파괴 소각되였다.

1951년 5월 6일, 미군 비 29 폭격기 12대는 평안남도 남포시에 래습하여 43개의 대형 폭탄과 6천여개의 소이탄을 투하하여 1백 20명의 평화적 주민을 살상하였으며 1천 6백 98동의 주택을 완전히 파괴 소각하였다.

1951년 6월 10일, 황해도 사리원시의 주택 지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13대는 70여개의 대형 폭탄과 3백 80여개의 소이탄을 투하하여 44명의 부녀자들을 포함한 69명의 시민들을 살해하였으며 69동의 가옥들을 소각하였다.

1951년 7월 19일, 황해도 곡산군 오루리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는 전야에서 일하는 24명의 농민들에게 48개의 류산탄을 뿌려 그들 중 23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상시켰다.

1951년 7월 30일, 비 29 폭격기를 포함한 1백 35대의 각종 미군 항공기들은 비 내리는 날씨를 리용하여 평양시 내에 래습하여 전후 4시간에 걸친 폭격과 사격을 감행하였다. 이날 미군 항공기들은 소이탄, 휘발유통 및 시한탄을 포함한 2천여

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그 결과 5백 29명이 즉사하였으며 3백 29명이 부상당하였다. 8백 40동의 주택이 파괴되고 인민 시장은 폐허로 되였다.

1951년 7월 28일, 미군 비 29 폭격기 15대는 비내리는 날을 리용하여 평안남도 남포시의 주택 지구에 래습하여 1백 74개의 각종 폭탄을 투하하여 1백 82동의 주택과 수백개의 토굴집을 파괴하였으며 1백 46명의 시민을 살해하였다. 1951년 7월 30일, 미군 비 29 폭격기 47대는 우천을 리용하여 함경북도 김책시의 주택 지구에 래습하여 3백 50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2백 12동의 시민 주택과 3백 14개의 토굴집들을 파괴하였다. 이 폭격의 결과 55명의 부녀자들을 포함한 85명의 시민이 살해되였다. 1951년 7월부터 동년 8월 10일까지의 우기에 황해도 일대에 대하여서만도 미군 폭격기 7천 8백 8대를 포함한 연 1만 8천 6백 85대의 미군 항공기들이 3천 2백 2회에 걸쳐 폭격 및 기총 사격을 감행하였으며 동 기간 해안 지대에 5백 31회의 함포 사격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4천 4백 58호의 주택들이 파괴 소각되였으며 6천 8백 94명의 평화적 주민이 살해되였는바 이 중에는 6백 25명의 유아들이 포함되여 있었다.

1951년 8월 25일, 함경 북도 라진시의 주택 지구에 래습한 비 29 폭격기 38대는 2백 73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69명의 시민들을 살해하였으며 1백 50개의 토굴집을 파괴하였다.

1951년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사이에 2백 50회 이상에 걸쳐 연 1만대 이상의 미군 항공기들은 평양시에 래습하여 4천여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러한 폭격의 결과 이 시기에 4천여명의 평화적 주민들이 살해되였으며 2천 5백명 이상이 중상되였다.

1951년 7월 30일 밤 9시부터 7월 31일 새벽 4시까지 7시 간에 걸쳐 미군 항공기들은 평양시 서구 주변 농촌을 폭격하였다. 이 결과 53명이 즉사하였으며 1백 20명이 부상 당하였다.

이날 밤, 삼경에 평양 중구 상공에 다시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3백여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 결과 70명의 유아를 포함한 1백 61명이 살해되였다.

영용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조선 인민이 일본 식민지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민족적 명절 8.15 해방 6주년 기념일의 전날인 1951년 8월 14일에 미군 항공기들은 수백의 조선의 도시와 농촌에 야수적인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였다.

이날 6백 50대의 미군 폭격기들과 전투기들은 평양 상공에 래습하여 무차별적으로 폭격한 결과 1천 5백 47명이 살해되였으며 2천 20명이 부상당하였고 9백 80동의 주택들이 파괴 소각당하였다.

8월 한달 동안에 함경북도에 2천 1백 22개의 폭탄을 투하 하였으며 미군 함선들은 함포 사격으로써 평화적 해안 주민 지대에 대하여 6천 98개의 포탄을 발사하였다.

이 결과 2천 8백 57명의 평화적 주민들이 살상되였다.

1951년 10월 9일, 미군 항공기 18대는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면 룡성리, 차강리

에 래습하여 추수를 하는 농민들을 향하여 폭탄 60개를 투하하여 23명의 농민들을 살해하였으며 5천평의 농토를 폐허로 만들었다.

1951년 11월부터 12월에 결쳐 함경남도의 평화적 도시와 농촌들에 연 1천 3백 63대의 미군 항공기들이 래습하여 1천9 백 23개의 대형 폭탄을 투하하였다. 결과 5백 10동의 주택이 완전히 파괴되였으며 1천 9백 32명이 살해되였다.

1952년 1월 24일 및 27일에 결쳐 미군 항공기들은 자강도의 거의 모든 군들의 중심지에 폭격과 기총 소사를 가하였다.

1월 27일만 하여도 폭격 시에 자강도 논발에서는 2백 42명의 농민들이 살륙 또는 부상 당하였는데 그 중에는 1백 38명의 소년들이 들어 있었다.

1952년 2월 18일, 미국 항공기 34대는 함경남도 혜산군 주민 지대에 폭탄 2백 11개를 투하하여 48명의 주민을 살해하였으며 4백여호의 주택을 파괴하였다.

1952년 3월 25일, 비 29 폭격기 24대를 포함한 63대의 미군 항공기들은 연 39회에 결쳐 평양시 남구 류성리, 교구리, 동구 률리, 장진리, 선교리, 칠불리 등 주민 지대들에 폭탄 1천 3백 70개를 투하하였다. 이 결과에 1백 20명 이상의 평화적 주민들이 살해 당하였으며 1백 24동의 토굴집들과 기타 건물들이 파괴 당하였다.

1952년 4월 6일, 미군 해군함선들은 원산시 중청리에 대하여 야수적인 무차별적 사격을 감행하여 14명의 평화적 주민들을 살해하였으며 19명을 중상시켰다. 그의 대부분은 부녀자들과 유아이였다

1952년 4월 11일, 미군 항공기 36대는 평안북도 녕변군 룡산면 룡산리 주민 지대에 폭탄 20개와 소이탄 78개를 투하하여 89명의 평화적 주민을 살해하였으며 59동의 주택을 파괴하였다.

1952년 5월 19일, 적 전투기 8대는 평안남도 강동군 원탄면 상리에서 놀고 있는 아동들에게 폭탄을 투하하여 그 중 9명을 즉사시켰다.

1952년 5월 25일, 미군 항공기 42대는 함경북도 부령군 수성리에 래습하여 19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로 인하여 인민 학교 교사 2동을 포함한 농민 주택 13동이 완전히 파괴되였으며 24명이 살해당하였다. 이날 3백여 대의 미군 항공기들은 청진시 주민 지대에 래습하여 야수적 폭격과 기총 사격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1백 89명이 살해되였으며 3백 52호의 토굴이 파괴되였다.

1952년 6월 23일과 24일에 미군 항공기들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리용되는 수풍 발전소를 비롯하여 기타 많은 발전소들을 야수적으로 폭격하였다.

1952년 7월 11일부터 31일에 이르는 기간에 미군 항공기들은 1천여개의 나팜탄을 포함한 약 6천여개의 폭탄을 자강도의 평화적 농촌에 투하하였다.

이 결과 2백개 이상의 농촌들이 파괴 소각되였다.

다만 7월 중 1개월 간의 희생자수는 1951년도 1년간의 도내 전체 인적 피해에 비하여 3배 반을 초과하였다.

1952년 7월 11일 낮부터 12일 미명에 결쳐 4백 여 대의 미군 항공기들은 평양시

와 주변에 대하여 잔인 무도한 폭격과 기총 사격을 감행하였다. 평양시에서만 하여도 6천여개의 나팜탄, 지뢰탄 및 시한탄을 투하하였다. 그 결과 1천 6백개 이상의 평화적 주민의 토굴집들이 파괴 소각되였고 약 8천여명의 부녀자와 로인들과 아동들이 살상되였다.

1952년 8월 4일, 미군 항공기들은 평양 부근에 있는 소암리 부락에 혹심한 폭격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이 부락의 36호의 농가들이 소각되였으며 이 부락 주민의 3분의 1이 살해당했으며 2세로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들이 27명 살상되였다.

1952년 9월 25일, 평안남도 대동군 재령면 간리에 래습한 18대의 미군 항공기들은 각종 폭탄 2백여개를 투하하였다. 이 결과 57명의 부락민이 살해되였으며 83호의 농가가 파괴 되였다.

1952년 9월 26일부터 10월 23일에 이르는 동안에 미군 항공기들은 함경남도 홍원군 농촌들에 5천 1백 20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 결과 3백 70명이 살상되였으며 2백 79호의 농가들이 파괴되였다.

1952년 9월 28일, 자강도 희천군 북면 우남리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들은 50여개의 각종 폭탄을 투하하여 1백 15명의 부락민들을 살해하였으며 동 부락을 폐허로 만들었다.

미군 비행기들은 강원도의 평화적 주민 지대에 래습하여 1952년 5월에는 1천 6백 1개의 폭탄을 투하하였으며 6월에는 5백 59개의 폭탄을 투하하였으며 동년 8월에는 1만 6백 84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1952년 10월 9일, 1백 60대의 미군 항공기들은 자강도 강계시에 래습하여 1천 1백 16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 결과 6백 8명의 주민이 살해되였으며 2백 42개의 주택 및 토굴들이 파괴 소각 되였다.

1952년 10월 8일, 판문점에서의 정전 담판을 일방적으로 파탄한 미국측은 중폭격기 비 29를 광범히 리용하면서 공화국 북반부의 평화적 주민 지대들에 대한 야간 폭격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1952년 10월 12일 밤, 10여대의 비 29 미군 폭격기들은 평안북도 철산군 참면 농촌 지대에 폭격을 감행하였다. 이 결과 평화적 주민 1백 38명이 살해되였고 30호의 농가들이 파괴 소각되였다.

1952년 10월 15일, 미군 폭격기 비 29는 함경남북도의 거의 모든 군들과 면들의 중심지들에 대하여 폭격을 감행하였다. 바로 이날에 때를 같이하여 함경 남북도의 해안 지대는 미군 함선들로부터 맹렬한 함포 사격을 받았다. 그 결과 3백 67명의 평화적 인민들이 살해되였으며 7천여정보의 농토가 황폐화되였다.

1952년 10월 31일, 비 29 폭격기 16대는 강원도 원산시 주택 지구에 1백 68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 결과 2백 15명의 평화적 주민들이 살해되였으며 3백 93개의 토굴집들이 파괴되였다.

1952년 11월 17일 8시 20분부터 10시 간에 걸쳐 미군 항공기들은 함경북도 청진시에 무차별 폭격 및 기총 소사를 감행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군 순양

함 1척과 10척의 구축함들은 2백 45발의 포탄을 청진시 주택 지구에 발사하였다. 이결과 2백 25개의 토굴집들이 파괴되였으며 1백 89명의 평화적 주민들이 살해되였다.

1952년 11월 23일, 미군 비29 32대는 평양시 동구 및 남구지대들에 4백 28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 결과 남구역에서만 21명의 유아들과 16명의 로인들을 포함한 75명의 평화적 인민의 시체들이 발견되였다.

1952년 11월 28일 밤, 미군 비29 28대는 평안 북도 신의주시에 래습하여 3백 12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 결과 1백 12명의 평화적 주민이 살해되였으며 1백 40개의 토굴집이 파괴되였다. 이날 저녁 비29 미국 폭격기 40대는 평안 북도 의주시내에 2백 65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 결과 1백 25명의 아동을 포함한 3백 48명의 평화적 주민들을 살해하였으며 1백 58동의 주택들이 파괴되였다.

1952년 한해 동안에 미군 폭격기 및 전투기들은 평양과 그 주변에 지뢰탄, 소이탄, 세균탄들을 포함한 각종 폭탄 5만 2천 3백 80개를 투하하였다. 52 평방키로메터를 넘지 못하는 평양시의 면적을 고려한다면 간단한 · 계산에 의하여 보더라도 시내 매 평방키로메터 당 1천개의 폭탄이 투하되였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1953년 1월 2일에만 하여도 평안 남도 대동군, 룡강군, 강서군에 비 29를 포함한 약 50대의 항공기들이 래습하였다. 이날 야수적 폭격에 의하여 남포 교외에 있는 농촌들의 1백 여 호의 농가들이 파괴되였으며 수 많은 농민, 아동, 부녀들이 살상되였다.

1953년 1월 2일부터 3일에 걸친 밤에 미국『공중 요새』는 젯트 전투기를 동반하여 평양에 수차에 걸쳐 래습하여 평양시와 그 교외에 수백개의 지뢰탄과 나팜탄을 투하하였다. 교외, 특히 서구역들은 나팜탄에 의하여 완전히 소각되였다.

1953년 1월 3일 밤 야수적 폭격에 의하여 동평양 률리에서는 150호의 주택이 소진되였으며 수 많은 아동, 녀성들이 살해되였다.

1953년 1월 5일부터 6일에 걸친 밤에 미국 중 폭격기는 동평양 지역에 래습하여 평양 시민들의 토굴집에 수 십개의 대형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 결과 50명 이상이 살상되였으며 많은 주택들이 파괴되였다.

1953년 1월 17일부터 18일 밤에 미군 폭격기들은 또 다시 평양시에 래습하여 2시간에 걸쳐 평양시를 야수적으로 폭격하였다.

이 결과 평화적 주민들의 많은 토굴집과 주택들이 파괴되였으며 녀성들과 아동들이 살해되였다.

제2차 폭격 시에 미군 비29들은 평양에 린접한 중화군에 폭격을 감행하였다.

미군 폭격기들은 이곳 농가들에 폭탄을 투하하여 살상자를 내였다.

1953년 1월 24일 밤 2시부터 미군 폭격기 수십대는 평양을 또 다시 폭격하여 1백 여명 이상을 살해하였는바 이 중에는 36명의 아동들이 있었고 수백명의 평화적 주민들은 집을 잃어버렸다.

24일 아침에 미국 항공기들은 평양 교외에 집중적 폭격을 감행하였다. 1월 17일

밤 12시에 미군 폭격기 3대는 함경 남도 홍원군 홍원면 전야와 농촌들에 2백 20개 이상의 폭탄을 투하하여 2백 70호의 농가를 파괴하였으며 1백명 이상의 주민들을 살해하였다. 이 중 대부분이 아동들과 녀성들이였다.

1953년 1월 1, 5, 22, 23일, 미군 항공기들은 평양 시내 평화적 주택 지 구에 무참한 야간 폭격을 감행하여 1백 48명의 평화적 주민들을 살해하였으며 570여 개의 주택과 토굴집들을 파괴하였다.

1월 6일, 미국 폭격기 비29는 평안 남도 안주시 내의 평화적 주택지구에 1백 90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 결과에 70명의 주민들이 살해되였으며 28명이 부상되였는바 이의 대부분은 녀성들과 아동들이였다.

1월 14일, 미군 폭격기 비29는 함경 남도 고원군 농촌 지대에 폭격을 감행하여 32명의 농민을 살해하였으며 15명을 부상시켰고 28호의 주택들을 파괴하였다.

1953년 1월 19일, 미군 폭격기 비 29는 황해도 사리원시 주택 지구에 75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1953년 1월 20일, 미군 폭격기 비 29는 함경 남도 함흥시 평화적 주택 지구를 폭격하였다. 이 결과 2천 1백 12명의 평화적 주민들이 살상되였는데 이 중 대부분은 부녀와 아동들이다.

2. 대량적 인간 학살 무기의 사용

조선의 평화적 도시들과 농촌들에 대한 야만적인 무차별적 폭격을 감행할 뿐만 아니라 북조선의 평화적 주민을 살해하기 위하여 미국 침략자들은 인류에 대한 가장 야만적이며 비인도적인 대량적 인간 학살의 무기로되는 화학 및 세균 무기를 1951년부터 광범히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51년 5월 6일 오후 5시 5분부터 6시 30분 사이에 미군 항공기들은 남포시에 대하여 4차에 걸친 폭격을 감행하고 그 부근 삽화면 후포리, 축동리, 룡정리 및 룡수리의 일부 지대에 독까스탄을 투하하였다. 그 결과에 1천 3백 79명이 중독되여 그 중 4백 80명은 살해되였다.

1951년 7월 6일 오전 8시에 미군 젯트기 2대가 원산시 상공에 래습하여 풍포리에 까스탄을 투하하였으며 동년 8월 1일, 황해도 연성리와 원천리에도 독까스탄들을 투하하였다.

1952년 1월 9일, 미군 항공기들은 원산 북쪽에 있는 학선리 마을에 까스탄을 투하하여 83명의 평화적 주민들을 중독시켰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년 2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미국 침략군은 33차에 걸쳐 독까스탄을 사용하였다.

미국 간섭자들은 1952년 1월 28일부터 티부스, 페스트, 코레라 및 기타 전염 병균을 전파하는 다량의 각종 독충들을 비행기로부터 공화국 북반부 전 지역에 조직적으로 산포하고 있다.

미군 항공기들은 1952년 1월 30일에 강원도 이천 지구, 2월 11일에는 철원 지

구, 2월 17일에는 강원도 평강 지구, 2월 18일에는 평안 남도 안주군 일대에 전염 병균을 전파하는 파리, 벼룩, 거미, 빈대 등 곤충들을 산포하였다. 결과에 평안 남도 안주군 발람리에서 페스트 환자가 발생하여 36명이 사망하였다. 미군 항공기들은 계속하여 1952년 2월 22일에는 황해도 봉산군 초와면 양동리에, 2월 23일에는 평안 남도 평원군에, 2월 25일에는 강원도 문천군 덕원면과 평안 남도 개천군에, 2월 26일에는 평안 남도 대동군에, 2월 27일에는 평안 남도 강동군 및 순천군과 황해도 일대에, 2월 29일에는 황해도 수안군, 3월 1일에는 평안북도 철산군에, 3월 3일에는 평안남도 순천군에, 3월 4일에는 평안남도 순천군과 안주군에, 3월 5일, 7일에는 평양시 중구 남문리에, 3월 11일에는 평안북도 벽동군에 있는 전쟁포로 수용소 부근에 전염 병균을 보유한 파리, 거미, 벼룩, 모기 등 곤충들을 다수 투하하였다.

1952년 1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4백 여회에 걸쳐 공화국 북반부 전 지역에 세균 무기를 사용하였다. 1952년 11일 22일 오후 3시 미군 항공기들은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에 전염 병균을 보유한 곤충들을 투하하였다.

1952년 12월 21일, 미군 항공기들은 황해도 재령군 서호면 일대의 평화적 주민 지대에 대하여 야수적 폭격과 기총 사격을 감행한 후 동면 내 6개 리에 각종 전염 병균을 보유한 곤충들을 투하하였다.

1952년 12월 29일과 30일 량일간에 걸쳐 놈들은 황해도 재령군, 신천군, 황주군의 28개 리에 대하여 전염 병균을 보유한 다량의 곤충들을 투하하였다.

미국 간섭자들이 북 조선의 인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할 목적으로 세균 무기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북조선의 도시와 농촌들에 세균탄을 투하하기 위하여 직접 참가한 미국 비행사 케네트, 이노크, 존퀸, 호로이드, 오닐, 폴넛쓰와 또한 1952년 여름에 조선과 중국과 동북에 래방하였던 국제 민주 법률가 대표단과 국제 세균 과학자 대표단에 의해서도 확증되였다.

3 문화 사회 기관의 파괴

조선의 평화적 도시와 농촌들에 대한 미군 항공기들의 야수적 폭격의 결과 이미 1951년도 초에 있어서 전전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건설된 학교, 병원, 극장, 휴양소, 구락부 및 기타 문화 시설의 거의 전부가 파괴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항공기들은 이미 잿더미로 된 문화 시설들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소개한 문화 시설까지 공습하고 있다.

1951년 6월 10일, 함경 남도 북청군 덕성면에 래습한 미군 폭격기 4대는 21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 결과 4개의 인민 학교와 1개의 녀자 중학교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1951년 1월부터 6월까지 미군 폭격기들의 무차별적 폭격의 결과 야외 극장인 평양 모란봉 극장을 비롯하여 평안 남도 도립 극장, 평양 국립 극장, 함경 남도 함흥 영화관, 함남도립 극장, 강원도 철원 도서관, 황해도 장연 영화관 등이 파

괴되였다.

1951년 7월 30일, 미군 폭격기들은 평양 교외에 있는 국립 영화 촬영소에 수십 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이를 파괴 소각하였다.

동년 8월 14일, 평양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들은 평양 해방 투쟁관, 평양 레코드 제작 소 및 국립 예술 극장들을 폭격하여 파괴하였다.

1951년 7월부터 8월에 이르는 사이에 평양 시립 극장, 2개의 영화관, 강원도 원산 영화관, 평안남도 강서 영화관들이 미군 폭격기들의 야수적 폭격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였다.

1951년 9월 21일, 미군 항공기들은 강원도 문천군 명구면 풍전리에 래습하여 인민 학교와 2개의 병원들을 파괴 소각하였다. 이 결과 8명의 학생과 17명의 환자들이 사망되였다.

1951년 9월 14일, 미군 폭격기들은 원산시 부근 농촌에 소개한 제1 중학교를 폭격하였다. 이 결과 이 중학교는 파괴되였으며 3명의 학생이 살해되였다.

1951년 11월 7일, 미군 젯트 전투기 8대는 평안 남도 평원군 숙천면에 래습하여 숙천 고급 중학교를 폭격하였다. 이 결과에 35명의 학생들이 살해되였고 학교 건물은 파괴되였다.

1952년 5월 5일에 미군 항공기들은 함경 남도 리원군 청동 인민학교를 폭격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1952년 5월 31일에는 홍원군 보현면 원풍 인민 학교를 폭격하여 이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1952년 5월 8일, 미군 전투기 2대는 함경 북도 길주군 길주면 금송 인민 학교를 폭격하여 이 학교 건물을 파괴 하였으며 3명의 학생을 살해하고 6명을 중상시켰다. 1952년 6월 15일, 27대의 미군 항공기들은 함경 북도 김책시에 래습하여 폭격을 감행한 결과에 도서관과 3개의 구락부들이 소각되였다.

1952년 7월 3일, 함경 북도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들은 고무산 산골짝에 있는 인민 학교를 폭격하여 이를 파괴하였으며 5명의 학생들을 살상하였다.

1952년 9월 16일, 미군 항공기들은 황해도 사리원 부근에 있는 고아원에 대하여 폭격과 기총 사격을 가하여 18명의 고아들을 살해하였으며 이 건물을 파괴하였다.

1952년 9월 23일에는 강원도 안변군 배화면 양로원에 폭격과 사격을 가하여 27명을 즉사시켰다.

1952년 9월 29일, 평안 북도 창성군 동창면에 래습한 미군 항공기 12대는 애육원과 유자녀 학원에 맹폭격과 기총 사격을 감행하여 43명의 어린이들을 살해하고 17명을 부상시켰다.

1952년 10월 16일, 미군 항공기들은 자강도 강계시에 대한 무 차별적 폭격을 감행하였다. 이 결과 적십자병원을 파괴하고 치료 중에 있던 환자 33명과 17명의 아동들을 살해하였다. 또한 3개의 인민 학교와 4개의 애육원들을 파괴하였다.

1952년 10월 17일에 미군 폭격기는 병원들과 아동 공원이 있는 평안 북도 창성군 대유동에 야간 폭격을 가하였다. 이 결과 1백 34명의 소년 소녀들과 26명의 환

자들이 살상되였다.

1952년 10월 13일, 미군 항공기들은 평안 남도 성천군의 휴양소에 폭격과 사격을 가하여 33명을 살해하고 50동의 건물들을 파괴하였다.

4. 조선의 고대 물질 문화 유물에 대한 파괴

조선 인민을 터무니없이 증오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문화의 모든 유물들을 말살시키려고 시도하면서 조선의 물질 문화 유물들을 계획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군사적 목표와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고찰, 고문, 루각 및 2백—3백년 전에 건립된 성문들에 야수적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고 있다.

1951년 5월 6일, 미군 항공기들은 고대 건축 유물인 사찰들이 수 많이 있는 금강산 일대에 대량의 나팜탄과 소이탄을 투하하여 장안사의 건물 7백간의 고찰들을 소각하여 버렸다.

1951년 6월 13일부터 14일 량일간에 걸쳐 미군 항공기들은 강원도 안변군 설봉산 일대에 대한 맹폭을 감행하여 거대한 중세기 사찰 건물의 하나인 15세기에 건립된 석왕사를 파괴 소각하였다.

1951년 6월 25일, 미군 항공기들은 또 다시 금강산 일대에 폭격을 감행하여 거대한 고대 사찰 건축의 유물들인 신계사와 백운사, 유점사를 파괴 소각하였다.

1951년 8월 14일, 미군 폭격기들은 조선의 고대 건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 중에 속하는 평양 모란봉에 있는 영명사와 대동강 부벽루를 완전히 파괴하여 버렸다.

1950년 11월 24일, 25일 량일간에 걸쳐 미군 항공기들은 평안 북도 묘향산에 있는 사찰 건축 유물인 대웅전, 만세루, 보현사, 기타 많은 유물들을 폭격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이 외에도 미군 항공기들의 야수적 무차별 폭격에 의하여 고대 건축 시설인 1401년에 건축된 해주시에 있는 부용당, 안주에 있는 백상루, 성천에 있는 동명관, 자강도 강계 북문과 인풍루, 자강도 희천군에 있는 위성관, 평양에 있는 기자궁과 숭영전, 숭인전들이 파괴되였다.

이상 인용한 사실들은 조선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에서 당한 사기들의 패배에 발광된 미제 침략자들이 조선 인민을 살해하며 조선을 페허로 만들려고 시도하면서 조선에서 천인 공노할 범죄적 만행들을 감행하고 있음을 확증하여 준다. 야수적인 무차별 폭격과 세균 및 화학 무기 사용의 결과 로인, 아동 및 부녀자들을 포함한 수십만의 조선의 평화적 주민들이 살해되였다.

본 보도에는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 위원회가 입수한 자료들 중에서 다만 몇개의 사실만을 인용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실들은 미국 간섭자들이 소위 유•엔의 푸른 깃발 밑에 조선에서 감행하는 비 인도적인 잔인한 범죄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미제의 이모든 범죄적 사실들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성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미국 침략자들과 리승만 도당의 만행에 관한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 위원회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말로써는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그 실은 조선에서의 전쟁을 확대하며 조선의 평화적 주민들을 더욱 대량적으로 살륙하기 위하여 각종 비 인도적 무기를 사용하며 다년간에 걸쳐 조선 인민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모든 귀중한 시설들을 뿌리채없애 버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하여 전 세계의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바이다.

조선에 있어서의 정전 담판과 유•엔 총회 제7차 전반 회의에서 미국 침략자들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치 않고 조선 전쟁을 확대하여 전쟁의 불길을 인민 중국과 기타 아세아 제 국가에까지 전파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평화를 애호하는 조선 인민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인 교활한 음모를 파탄시키고 자기 조국의 영예와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고야 말 굳은 결의에 충만되고 있다.

본 보도에서 인용된 조사의 사실들을 세계 모든 인민들에게 알리면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 위원회는 이 흉악한 범죄적 만행의 조직자들과 집행자들인 미국 침략자들과 리승만 도당들이 이 전대미문의 류혈적 만행과 조선 인민에게 끼친 물질적 손실에 대하여 전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전 세계의 평화 애호 인민들은 완전한 동감을 표시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범죄자들은 인민의 심판을 받아야할 것이다. 이는 조선 인민의 정당한 요구이다. 우리는 조선 인민의 이 법적 요구가 전 세계 선량한 모든 사람들의 전적 지지를 받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미국 침략자들과 리승만 도당들의 만행에
관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 위원회

1953년 2월 19일 평 양

(2)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조선의 평화적 주민들에 대하여 감행한 학살과 만행

1. 신천 대중 학살 사건

(3) 신천군 대중 학살 사건 공판 기소장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을 노예화하며 조선을 식민지화 하고 중국과 쏘련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전환 시키려는 자기들의 략탈적 계획을 조선에 상륙한 첫날부터 실시하여 왔다.

그들은 리승만 도당과 같은 조선 인민의 반역자들을 규합 추동하여 공화국 남반부에 파쑈 학살 체제를 수립하였으며 드디여는 평화적 방법으로 자기 조국을 통일하려는 조선 인민의 지망을 유린하고 면밀하게 작성된 계획에 따라 1950년 6월 25일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배신적 무력 침공을 개시케 하였고 뒤이여 자기 륙해 공군을 투입하여 공화국에 대한 무장 간섭의 길에 들어 섰다.

미국 간섭자들은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도발 개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 과정에서 국제법의 초보적인 원칙들과 인류 도덕을 란포하게 침범하면서 전률할 범죄적 만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이 조선 전쟁에서 감행한 허다한 범죄적 만행 즉 비방어 도시와 농촌에 대한 무차별 폭격 평화적 주민에 대한 대량적이며 잔인한 학살 고문 폭행 문화 유적과 공공재산 및 개인재산에 대한 략탈 파괴 등등은 그 규모의 광대함과 악독한 성격에 있어서 실로 전대 미문의 것이다.

특히 미제 침략자들이 공화국 북반부 일부 지역을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기간에 그들의 발이 미친 곳곳 마다에서 조선 인민에 대하여 감행한 야수적 만행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잔악하고 악독하다.

적들의 이러한 만행에 관해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상은 1951년 1월 15일부 「미군과 괴뢰군이 일시적 강점 지역에서 감행한 만행에 관련하여」……유。엔에 보낸 항의에서 일찌기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51년 2월 2일 현재에 적발된 평화적 주민들의 강점자들에 의하여 학살된 수는 신천군 전군에서 25,000명 이상이 학살되였다……」

그 이후 새로 발로된 제반 자료와 본사건 예심 과정에서 판명된바에 의하면 신천군 내에서의 희생자수는 전술한 수를 훨씬 초과한다. 즉 황해도 신천군 주둔 사령관 미군 중위 해리손 (HARISON)의 직접 지휘밑에 민간주민 35,000 명이 야수

적으로 학살되였는바 이 범죄는 미제 침략군대의 상술한 범죄 활동의 한개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으나 그 범죄적 특징을 표시하는 전형인 것이다.

미제 침략군대가 1950년 10월 17일 황해도 신천군 지구에 침입하자 즉시로 동 지구 주둔 사령관 미군 중위 해리손은 대중적인 주민 학살을 직접 조직 지도 집행하였다. 미군 장교 해리손도 역시 미제국주의자들이 어디서나 사용하는 상투 수단을 답습 리용하여 자기의 범죄적 계획수행에 조선 인민의 반역자들과 극소수의 일부 락후분자들을 인입하였다.

그리하여 이 무뢰한들로써 소위 경찰대 무장대 치안대 등의 반동 단체를 날조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보조부대로 삼아 인민 학살에 관한 범죄적 계획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정형 밑에서 본건 피심자 허필순은 소위 신천군 '경찰서 무장 학생 대장' 피심자 최한우는 소위 수사계원, 피심자 윤명원은 소위 신천군 대한 청년단 단원, 피심자 리두현은 소위 동 경찰서 직속 무장대원 직위에서 해리손의 직접 지휘를 받고 그와 함께 주민도살에 가담하는 반역적 행동에 들어섰던 것이다.

해리손을 수위로한 신천군에 침입한 미제 침략군대들은 이 지역을 강점한 익일인 1950년 10월 18일에 벌써 주민학살에 착수하였다.

해리손은 동일 회의에서 연설하기를 나의 명령은 신천군내에 있어서 『법』으로 되며 이에 위반하는자는 총살한다고 위협함과 동시에 『공산주의 위협에서 북한을 구원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을 처단할 것이며 일체 그의 동정자들을 공산주의자들과 동일하게 처단한다』고 선포하였다. (증인 김만석의 진술 기록 제1권 156—157정)

또한 피심자 최한우는 이점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미군이 신천군에 침입하자 해리손은 신천시내를 비롯하여 신천군 일대에서 모든 애국 인사들과 인민군대 유가족, 국가 기관, 공공단체에 복무하는 자와 그의 가족들을 체포할 것을 무장대원들에게 명령하였다.

1950년 10월 18일 저녁무렵 해리손은 무장대원들이 체포한 900여명의 국가 기관 복무자 및 그의 가족들을 로동당 신천군당 앞마당 구뎅이에다 학살할데 대한 지령을 내렸다……』(기록 제1권 67—68정)이 지령은 해리손과 미제 침략 군대가 『공산주의 위협에서 북한을 구원』한다는 위선적 병풍으로 가장하면서 미제의 노예가 될것을 원하지 않는 모든 조선 인민을 전멸시키려는 흉악한 의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해리손을 수위로한 신천 지구를 침입한 미군이 이 지역에서 감행한 인민 도살 범죄의 특징은 녀성과 유아까지 포함한 다수의 민간 주민을 대중적으로 살륙하였고 또한 그 살해방법이 가장 악독하고 비렬한데 있다는 것이 본 사건 예심에서 판명되였다.

해리손이 자기 지휘하의 미 군인과 본건 피심자들을 포함한 보조부대와 함께 범행한 만행으로써 본 사건 예심에서 확증된 모든 사실은 이것을 증명해 준다.

1950년 10월 18일 진술한 바와같이 해리손은 900여명의 민간주민을 신천군 당 앞

마당 구뎅이에서 불에 태워 소살하였다. 이 전률할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던 피심자 최한우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우리들은 끝 해리손의 명령대로 강제적으로 그들 900여명의 옷을 벗기고 구뎅이에 몰아 넣었다. 해리손의 지시에 의하여 무장대원들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무서운 죽엄을 당한 900여명 중에는 300여명의 부녀자들과 많은 유아들이 섞여 있었다. 해리손은 학살 현장을 세밀히 검열하고 모두가 구뎅이 속에서 죽은것을 확인한 다음 돌아갔다……』 (기록 제1권 72정 및 76정) 역시 피소자 허필순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디. 『……1950년 10월 18일 나는 군당 앞마당에서 900여명을 학살할때 참가하였으며 불붙는 구뎅이에서 살기 위하여 탈출하여 나오는 애국자 15명을 총살하였다……』 (기록 제1권 4정) 피심자 윤명원 동 리두현도 역시 이 범행에 직접 참가하였다. 1950년 10월 19일밤 1시에는 320 여명의 애국자와 그 가족들을 총살하였다. 이 사실에 관하여 피심자 리두현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950년 10월 19일 밤 1시에 나는 비상소집에 동원되였다. 해리손의 지명을 받은 서장 신상규는 무장대원 20여명을 로동당 군당부 앞에 소집하고……지금부터 군당 2층에 감금되여 있는 자들을 군당 주위 전호에 몰아넣고 총살하겠다……고 하면서 무장대원들에게 사업을 분공하여 주었다. 나는 전호 주변의 경비를 담당하였는바 그날밤 320여명을 5,6명씩 결박하여 전호에 몰아넣고 자동차 헷드라이트를 비치고 총살하였다……』 (기록 제2권 124--125정) 1950년 10월 20일에도 역시 520여명의 애국자와 그의 가족들을 체포하여 방공호에 몰아 넣고 폭파시켜 학살하였다. 해리손의 직접적 지시밑에 집행된 이날의 학살정형에 관하여 피심자 허필순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950년 10월 20일 해리손은 520여명의 애국자들을 처단할데 대하여 여러가지 방법들을 토의한 후……이 빨갱이들을 밤에 비밀적으로 군 내무서 방공호에서 총살하라고 하였다. 이 명령에 대하여 무장 대원들은 방공호에 520여명의 애국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몰아 넣고 방공호 출입구를 소나무 널판과 흙으로써 묻어버리고 이미 준비되였던 다이나마이트 도화선에 불을달고 방공호를 폭파시켰다. 이 520여명 중에는 150명 이상의 녀성들과 많은 아동들이 섞여 있었다. 이 학살이 끝나자 해리손은 무장대원들에게 수고하였다고 하면서 담배를 한대씩 나누워 주었다…… (기록 제1권 47정—48정 및 57정) 피심자 최한우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기록 제1권 73정) 동년 10월 23일 역시 330여명에 대한 학살을 감행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심자 리두현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950년 10월 23일 경찰서장 신상규는 군당부 이층에 감금된 330여명의 애국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총살할데 대한 지시를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동원된 무장대원 20여명은 동 4일 오후 3시 군당부 전호에서 330여명을 총살하였다. 나는 이당시 군당부 50메트르 주변에서 전호로 부터 탈주하여 나오는 자들을 총살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다……』 (기록 제2권 125정)

이상의 제 사실은 미군이 신천지구에 침입한 직후 수일간에 매일처럼 조선의 애

국자들과 그의 무고한 가족들을 대중적으로 학살한 정형을 증시한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민간 주민에 대한 학살은 그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피심자 허필순은 해리손의 지령에 의하여 1950년 10월 하순경부터 11월 말까지의 기간에 신천군 용문면과 남부면에 있는 저수지와 산간 전호에 1,640여명을 호송 총살한 범행에 참가 하였는바 이 점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다. (동 피심자의 진술 기록 제1권 42정 및 43정)

해리손은 신천군내 각지를 순회하면서 민간주민에 대한 학살을 지휘 독려하였다. 피심자 허필순은 역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950년 10월경과 11월에 2차에 걸쳐 해리손과 같이 그의 찌프차로써 여러개의 면을 시찰하는데 참가하였다. 이 여러개의 면들에서 해리손은 1,100여명의 체포자들을 검열하였고 경찰들과 치안대 기타 반동 단체 대원들에게 빨갱이들을 속히 학살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직접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찰 기간에 있어서 나는 해리손의 직접적 명령에 의하여 그와 참가 지휘 밑에 11월 초순에는 궁흥면 삼천 온천 앞 강변에서 15명의 애국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총살하였다』. (기록 제1권 10정 및 100정)

영웅적 조선 인민군대와 중국인민 지원부대의 진격에 의하여 미제 침략군대가 공화국 북반부로부터 패주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을때 그 패주를 앞두고 적들은 더욱 발광하여 가장 비렬한 방법으로 다수의 조선 인민을 학살하였다.

미제 침략군대가 신천군으로부터 패주하기 직전에 해리손은 신천군내의 주민을 강제로 자기네의 점령 구역으로 이송하여 조선 인민의 력량을 약화 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심자 허필순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1950년 12월 3일 경찰서장실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하였다. 이 회의는 해리손이 직접 지도하였다. 이때 해리손은 자기몸에 휴대한 권총을 뽑아 손잡이를 틀어쥐고 서장 책상을 여러차례 울려 치면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들은 신천군에서 후퇴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장구한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한놈의 공산주의자라도 남김없이 죽일것이며 동시에 캡을 쓰고 다니는 자들과 머리를 막깎은 자들은 모주리 체포하여 총살하라』 해리손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만일 이곳에 공산주의 자들이 침입한다면 새로운 공산주의 계승자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 멸망을 위하여 우리들은 이 군에서 한명의 주민도 남기지 말고 남쪽으로 쫓아야 한다. 그들을 남쪽으로 쫓기 위하여서는 미군이 후퇴 후는 신천에 원자탄을 투탄한다는 것을 선포하라……』 고 하였다.

나는 17명의 무장대원들과 함께 전 시내를 날날이 돌아다니면서 상술한 선전 방법으로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시내에서 남으로 내쫓기 위하여 애를 무척 썼다. (기록 제1권 12정—13 및 53정)

해리손은 이렇듯 야비한 수단을 쓰는 한편 그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주민들을 대량적으로 체포한후 910여명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이날의 학살 정형에 관해서 무장대원으로 학살 현장에 참가하였던 증인 오태신

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950년 12월 7일 신천면 원암리 지구에 있는 두개의 창고에서 감행된 학살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은 910여명에 달하는바 그들중에는 어머니를 빼앗긴 200여명의 유아들이 있었다

무장 대원들은 이 감금된 사람들의 머리위에 조 짚을 펴고 휘발유를 뿌린후 불을 질렀다.

불은 창고를 둘러싸고 무상대원들은 불타는 창고내부에 수류탄을 던져 학살하였다.

나는 지금도 아이들이 울면서 고함을 치며 수십명의 애국자들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만세를 부른후 김장군 노래를 부르던 것이 나의 기억에 잊어지지 않는다. (기록 제1권 124—126정 및 134정)

또한 이 죽엄의 창고에 감금 되였다가 구사에 일생을 얻어살아나온 증인 김순모 정신복 정근성 등의 진술도 본 범행의 처참한 모습을 증시해 준다.(기록 제2권 2—3정 및 5—7정)

미제 침략군대가 신천군을 강점하고 있던 2개월 미만 기간에 해리손의 지휘 밑에 이렇게 하여 학살된 민간 주민의 수는 실로 35,383명에 달하는 바 그 중에는 16.234명의 녀성이 포함된 것이 공식적 자료에 의거한 증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기록 제2권 29정)

미제 침략 군대의 평화적 주민에 대한 학살은 대량적인것 뿐만 아니라 수단의 잔인성에 있어서도 특징적임을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다.

이 적들은 가혹한 고문을 가한 후 생매장을 하며 목을 매여 달고 불에 태우며 머리에 못을 박으며 심지어는 녀성의 몸에 형언키 어려운 릉욕적 폭행을 가하여 학살하는등 온갖 야만적 방법을 조선의 애국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적용하였다.

신천군 온천면 운봉리에 거주하는 증인 리독배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950년 11월 중순경 무장대원들은 우리 동리에서 열성농민 유인준의 부친 유홍범 로인을 인두로 달궈 온몸을 지지다가 나중에는 뒷산에 끌고가서 곡괭이로 찔러 죽였다. 역시 그들은 이곳에서 많은 가정 부인들과 유아들을 생매장하였다.

적의 강점전에는 온천면 운봉리에는 878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미국놈들이 이 지방에 강점하였을 때 580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원쑤들의 손에 무참히 학살되였다. 학살된 자들 중에는 80여명의 늙은이와 100명에 가까운 유아 및 310여명의 녀성들이 있었다.

미국놈들과 리승만 역도들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인민군대의 가족 로동당원의 가족이라는 구실하에 학살장에 끌리여 나갔던 것이다, 나는 나의 남편이 인민군대에 복무하고 있다하여 우리가족 10명이 전부 학살 당하였다. 특히 나의 어린것들은 생매장을 당하였으며 나의 동세는 국부에 말뚝을 박아 죽였다……」(기록 제1권 137—140정)

신천면 경지리에 거주하는 증인 박설화는 다음과 같이 진술 하였다.

「……놈들은 우리 리 인민위원회 송인수 위원장을 체포하여 그의 두골에 못을 박

아 죽였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 부인 김인애는 어린애를 업힌채 생매장 되였다」. (기록 제2권 21—22정)

신천군 초리면 월산리에 거주하는 증인 우말제는 그의 남편과 가족들이 미군에 의하여 어떻게 저주할 죽엄을 당하였는가함에 관하여 상세히 증언하였다. 『미군들은 우리 부락에 침입하자 나의 남편이 열성농민이란 리유로 체포되여 손과 귀와 코를 쇠줄로 꿰뚫렸고 방안에 있던 남편의 모범농민으로 수여받은 표창 장을 이마에 못으로 박아 붙치고 악독한 고문을 가하여 학살하였다.

이때 나의 며누리는 시아버지를 고문하는 것을 보고 저지하려고 하였다. 미국 병정들은 아무러한 죄도 없는 나의 며누리의 머리채를 잡아쥐고 옷을 벗낀 다음 그의 몸에 말할 수 없는 갖인 폭행을 가하고 동리 부근 산기슭 밤나무에 사지를결박하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학살하였다. 그래도 시원치 않았는지 젖먹는 나의 자녀들까지 그 즉석에서 모주리 총살하였다……」 (기록 제2권 84—85정)

녀학생인 증인 김현춘은 악독한 학살의 다른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원쑤들은 나의 아버지가 다수확 농민이라하여 13명이나 되는 전 가족을 몰살시켰다. 그중 나의 동생 김재순(13세)은 두눈을 뽑히우고 생매장 당하였다.

특히 옹진면 여촌 초급중학교 소년단장 리명조는 손을 뒤에 묶이우고 땅에 눕힌 후 그 목위에 말장을 가로 놓고 량쪽에서 밟아 압살시켰다…… (기록 제2권 118—119정)

해리손과 그 지휘하에 있는 미군 및 피심자들은 이와같은 학살 만행을 감행하면서 그 무서운 죄악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조선 인민에게 전가하려는 음흉하고 간교한 수단까지 썼다.

피심자 허필순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해리손은 1950년 10월 20일 신천군 내무서 방공호에서 520여명의 애국자들과 로동당원 및 그들의 가족들을 학살하기 위한 준비 회의에서 그는 우리에게 지시하기를……체포 구금된 공산주의자들을 학살하기 전에 그들의 옷을 전부 벗낀 후 군 내무서 방공호에 몰아 넣으라고 하였다. 이는 곧 학살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시체를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 후퇴하는 시기에 감행한 것으로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기록 제1권 47정)

미군은 이와같은 인민학살을 감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비 인간적 만행을 종교적 병풍으로 엄폐하려고 광분한것도 특징적이다. 미군은 자기네의 학살부대 내부에 목사와 신부들로써 조직된 특수부대를 설치하고 그것을 "차프린" 이라고 불렀다 그리하여 이 특수부대는 반공과 숭미 사상을 선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 주민에 대한 학살범죄를 직접 조직 집행하였다. (증인 김한우의 진술 기록 제2권 15정)

해리손과 미군은 민간주민을 신천군내에서 학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 감금한 애국자들 중의 다수를 공화국 남부 지역으로 강제 이송하였다.

피심자 허필순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950년 11월 중순에 우리들은 문화면에서 490여명의 애국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신천군 경찰서에 호송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경찰서장을 통하여 해리손에게 보고한 즉 그는 곧 체포자들을 유•엔군 화물자동차로써 서울에 호송하라고 자기의 병사들에게 지시하였다. 무장대원들은 미군의 호송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동원되였다……」(기록 제1권 99정)

증인 김만석의 다음과 같은 진술도 역시 이 사실을 확인케 한다.

「……1950년 11월 중순경에 미국 사람들은 신천군 경찰서에서 490여명의 애국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수십대에 달하는 유•엔군의 화물자동차로 남쪽에 강제 호송하였다……」(기록 제1권 157정)

미국인들은 식인종적 학살범행외에 부녀자에 대한 강간 기타의 릉욕적 폭행을 수다히 감행하였다. 1950년 12월 3일 미군 병사 두명은 신천시 원암리 지구에 있는 창고에 감금당해 있던 부녀자들중에서 녀자중학교 교원 문예빈외 1명의 젊은 녀성을 끌어 내다 릉욕을 가하고 즉석에서 총살하였다. (피심자 허필순의 진술 기록 제1권 36정)

그뿐만 아니라 미군은 온천면 온천리에 부녀자들을 강제로 랍치하여 노예 유곽을 설치하였다. 이 곳에서 미국인들은 수다한 녀성들을 릉욕하고 야수적으로 총살하였다. (증인 오수복 김만석의 진술 기록 제1권 105정 및 153정)

해리손과 그의 지휘하에 있는 미군 및 본건 피심자들은 또한 조선 공민들의 재산을 강도적으로 략탈하였다.

피심자 최한 우는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 하였다.

「……미군들은 평화적 주민들의 재산을 략탈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바의 모든 힘을 다하였다. 1950년 11월 초에 3명의 미군 병사들은 신천면 무정리에 있는 조일 시계 방에 침입하여 위협 공갈로 30여개의 시계를 략탈 하였다. 1950년 11월초순에 5명의 미군 병사들은 무정리에 거주하는 리지백의 상점에 침입하여 많은 상품을 략탈 하였다. 1950년 11월 18일에는 미군 병사들의 지시에 의하여 우리들은 신천면 척서리에 거주하는 김창섭과 상인 장치수의 집에 침입하여 술 10도람과 쌀 6가마니를 략탈 하여 미군에게 제공 하였다」……(기록 제 1권 25정 및 36정)

이렇게 하여 미군이 그의 일시적 강점 기간중에 신천군 내에서 략탈한 가축만 하여도소 1,320여두 말28필 도야지 2,610두 및 닭5,630여 마리에 달한다는 것이 공식적 조사에 의거한 증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 된다. (기록 제2권 31정)

미군은 그들이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서 패주 당한 이후에 있어서도 파괴와 정탐 활동에 전날의 자기네의 보조자들을 리용하고 있다. 피심자 허필순 동 최한우 동 윤명원은 미제 침략자들을 따라 신천군 지역에서 패주하였다가 다시 그들로부터 간첩 활동의 수행을 위임받고 1951년 1월 하순경에 동군내에 잠입하여 공화국의 군사적 국가적 비밀을 탐지 수집하던중 체포 되였다.

(기록 제1권 101정 및 31—32정 제2권 101정)

이와 같이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가장 엄중한 책임을

기필코 모면할 수 없을 비인간적 야만적 범죄를 수다하게 범하였는바 해리손과 본건 피심자들을 포함한 그의 범죄적 도당들의 범행은 미군이 조선에서 범한 전반적 범죄의 일부분 이라는 점이 판명 되였다.

이제 본사건의 피심자들 각자의 죄명을 개별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허필순은 고급중학교 2년을 중퇴한후 무직으로 있던중 미군이 신천군을 일시적으로 강점 하였을 때 미군장교 해리손이 조직한 인민 학살을 주되는 목적으로한 경찰대에 가담하여 학생 대장으로 공작하면서

ㄱ. 1950년 10월 18일 신천군 로동당부 앞 구뎅이에서 900여명의 평화적 주민을 학살함에 있어서 그의 직접적 집행자로 되였으며(기록 제1권 49정)

ㄴ. 동년 10월 20일 신천군 내무서 방공호에서 520여명의 애국자를 학살함에 직접 참가 하였으며 (기록 제1권 49정)

ㄷ. 1950년 10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사이에 신천군 남부면과 용문면에서 1,640여명의 애국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학살함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기록 제1권 42정—43정)

ㄹ. 동년 12월 7일 신천군 신천면 원암리 소재 두개의 창고에서 910여명의 평화적 주민학살을 직접 집행하였으며 (기록 제1권 54—55정)

ㅁ. 동년 12월 초순 인민군대의 진격후 도주하여 해주시 부근 백연도에서 미군으로부터 인민군 군사 비밀 탐지를 위임받고 신천군에 잠입하여 정보를 수집 중이였다. (기록 제1권 16정)

2. 최한우는 행상을 업으로 하여 생활하여 오던 자로서 미군이 신천군에 침입하자 미군 장교 해리손이 조직한 인민 학살을 주되는 목적으로한 경찰대 수사계원으로 취임하여 공작 하던 중

ㄱ. 1950년 10월 18일 로동당 신천군당 앞구뎅이에서 900여명의 민간 주민을 학살함에 직접 참가 하였으며(기록 제1권 69정)

ㄴ. 동년 10월 20일 신천군 내무서 방공호에서 520여명의 애국자들을 학살함에 직접 참가 하였고(기록 제1권 70정)

ㄷ. 동년 12월 7일 신천군 신천면 원암리 소재 창고에서 910여명의 애국자를 학살합에 직접 참가 하였으며
(기록 제1권 70정)

ㄹ. 동년 12월 중순 인민군대 진격후 도주하여 해주시 부근 백연도에서 미군으로부터 인민군 군사기밀 탐지를 위임받고 신천군에 잠입하여 정보를 수집중이였다 (기록 제1권 66정)

3. 리두현은 신천 초급중학교를 2년 중퇴한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나오던 자로서 미군이 신천군에 침입하자 미군 장교 해리손이 조직한 인민 학살을 주되는 목적으로 한 무장대에 참가하여 공작하면서

ㄱ. 1950년 10월 18일 로동당 신천군 군당 앞 마당 구뎅이에서 900여명의 평화적 주민을 학살함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기록 제2권 123—124정)

ㄴ. 1950년 10월 19일 로동당 신천군당 앞 마당 구뎅이에서 310여명의 애국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학살함에 직접 참가하였으며(기록 제2권 124정)

ㄷ. 동년 10월 23일 로동당 신천군당 전호에서 330여명의 평화적 주민을 학살함에 직접 참가 하였다. (기록 제2권 125정)

4. 윤명원은 기목교 신자로서 미군이 신천군에 침입하자 미군 장교 해리손이 조직한 인민 학살을 주되는 목적으로 한 경찰대에 가담하여 공작하던 중

ㄱ. 1950년 10월 18일 로동당 신천군당 앞마당 구뎅이에서 평화적 주민 900여명을 학살함에 직접 참가하였으며(기록 제2권 99정—100정)

ㄴ. 동년 12월 7일 신천군 신천면 원암리 소재 창고에서 910여명의 평화적 주민을 학살 함에 직접 참가 하였으며(기록 제2권 100정)

ㄷ. 동년 12월 중순 인민군대 진격 후 도주하여 장연군 순의도에서 미군으로부터 인민군 군사 기밀 탐지를 위임받고 신천군에 잠입하여 정보를 수집 중이였다.

(기록제2권 101정)

본 사건의 피심자 4명은 각각 자기의 죄행을 전부 시인할 뿐만 아니라 다수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상기 전체 사실에 대하여 유죄임이 인정된다.

1952년 5월 11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검찰소 검사총장

(2) 신천군 인민을 대표하여 사회 소추자 신성순의 발언

최고 재판소 판사 참심원 동무들!

오늘 이 사건에 있어서 미제 침략군대의 지휘자들이 직접 참가 하수 하였고 또는 그 자들의 직접 조직 지도 아래에서 감행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으리 만큼 잔악한 범행에 대하여 나는 직접 피해자인 황해도 신천군 인민을 대표하여 그 자들의 악독한 범죄적 만행을 폭로 규탄하려는 바입니다.

미제국주의 자들은 세계 제패의 망상 아래에서 과거 근 1 세기 동안에 걸쳐 우리 조선을 극동에서 그자들의 침략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하여 갖은 흉계를 썼으며 조선을 일제가 강점하는데까지 야비하게 출선 방조하였던 사실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반세기 동안에 걸쳐 신음 하던 일본 제국주의 통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우리 조선은 인위적으로 38도선을 한계로 하여 남반부 지역에 미국 군대가 진주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령도자이신 김일성 수상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제는 최초부터 「우리 조국을 식민지화하며 우리 인민을 노예로 만들며 우리 조국 강토를 극동에서

의 침략의 기지로 전화시킬 데 대한 이미 준비된 자기의 계획을 시종 일관하게 실시」한 때문에 조선 인민의 반역자인 리승만 도당으로 하여금 놈들의 앞잡이로써 괴뢰 정부를 조작하여 우리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 하려고 기도 하였으며 선량한 우리 인민들을 무참하게 탄압 학살하는 중세기적 암흑상을 나타내였습니다.

영명하신 우리의 수령 김일성 장군께서 일찌기 우리에게 교시하신 바와 같이『해방 직후에 전 조선 방방 곡곡에서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 위원회를 공고히 하며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며 직맹 농맹 민청 녀맹등 민주주의 사회 단체들을 조직 강화할 것이 였으며 토지 개혁을 실시하며 일제와 반역자들의 소유이 였던 공장 제조소 철도 광산 은행 등을 국유화 하며 파괴된 공장 기업소를 급속히 복구하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것이 였으며 국가 운영에 필요한 간부들을 양성하며 민주주의 교육제를 수립하고 학교 기관들을 확대 강화 신설하여야 할 것」등에 대하여 우리들이 창조적 로력과 애국적 투쟁을 전개하였던 결과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과 후손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창조적 사업들은 오로지 위대한 쏘베트 군대가 주둔 하였던 북반부 지역에서만 실천되였으며 나아가서는 동족 상잔의 참화를 피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려는 전체 인민들의 절박한지 망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갖은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으나 미제국주의 자들은 리승만 역도들을 몰아 3.8선 접경에서 수다한 무장충돌 사건을 야기시킨 나머지 놈들의 일상 기도하던 면밀한 계획 아래 드디여 조국 강토에 전쟁을 불질러 놓았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 평화를 교란 시키며 약소 국가들과 약소민족들을 민족적 계급적 내지 종교적 알력까지 조성시켜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는 것이 놈들의 상투적 수단인 것입니다.

리승만 도당이 1950년 여름 놈들의 최초 예상과는 엄청나게 미국식 신예 무기로 장비한 강력한 군대라고 호통치던 소위"국방군"은 영웅적 인민군대의 물밀듯한 진격에 의하여 섬멸적 타격을 받고 우리 인민군대가 전쟁이 개시된지 불과 수일에 우리수도 서울을 해방시키고 계속하여 락동강 저쪽으로 적들을 추격하여 조선 전역의 태반을 해방시킴에 당황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국제적 모든 법규와 조약들을 무시하고 놈들의 륙해 공군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에 직접적인 무력 간섭을 감행하였습니다.

놈들은 이 전쟁과정에서 일편의 인간성을 가졌다면 감히 념두에도 못낼 헤아릴 수 없는 갖은 악독한 방법으로써 야수적 만행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로운 농촌에 대한 무차별폭격 비무장도시의 파괴 평화적 주민들의 대량적 학살 고문 릉욕 문화적 유물 학교 교회당 및 공공 재산 개인 재산에 대한 공공연한 파괴 략탈등 행위로써 공화국 전역이 페허로 된 것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그 잔인한 성격에 있어서나 진실로 전대 미문의 것일 것입니다.

이 사실들은 이미 지난해 5월중에 래조하였던 국제 민주 녀성 련맹의 조사단과 금년 3월 중에 국제 민주법률가 협회에서 파견한 조사단에 의하여 미 제국주의

자와 그의 주구들의 야수적 만행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증명되여 백일 하에 폭로되여 전 세계 선량한 인민들의 분격과 굳센 항의에 부닥치게 되였습니다.

이제 놈들이 우리 신천군을 일시 강점하면서 그 자들이 활동한 바를 개괄적으로 본다면.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그의 앞잡이 괴뢰군들이 1950년 10월 17일 우리 신천군에 들어 오자 미군 사령관이였던 해리손 중위는 일부 락후한 무뢰한들인 당 관정에서 심판을 받는 허필순 이하 피소자들과 같은 자들을 규합하여 소위 경찰대 무장대 치안대 등의 반동 단체를 조직하여 놈들의 심부름꾼을 만든 후 다음날인 1950년 10월 18일에는 미군 중위 해리손은 회의를 열고 나의 명령은 한개의『법』이니 이를 위반하는자는 총살 한다고 위협하는 동시에 공산주의 위협에서 북한을 구원하기 위하여 공산주의 자들을 처단할 것이며 일체 그의 동정자들을 공산주의 자들과 동일하게 처단한다고 선포하고 곧 실행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놈들은 신천군내에서 모든 애국자들과 인민군대 후방가족 국가 기관 공공 단체에 복무하는 자와 그의 가족들을 체포할 것을 자기 부하 군인과 무장대원들에게 명령하여 수다한 인민들을 대량학살 하였으며 갖은 잔인한 방법으로써 남녀 로소를 가리지 않고 살륙하였습니다. 이것은 놈들이 우리 조선 인민을 멸족하려는 일관된 계획적인 행동임을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오늘 심판을 받는 미 제국주의 침략군의 중위인 해리손의 종으로보잘것 없는 반역 도배들인 허필순 최한우등의 말에 의하여 확증된 바와 같이 신천군내에서 놈들에게 학살된 애국적 인민들은 남자 1만 9천여명 녀자 1만 6천여명 합계 3만5천 여명에 달하는 엄청난 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더욱 놈들의 잔인성을 여실히 나타낸 것으로서 놈들은 사람을 대량적으로 생매장하였으며 녀자들을 릉욕한 후 형언치못할 야비한 방법으로 죽였고 휘발유로 태워 죽이며 물에 집어 넣으며 사람의 코를 꿰여 끌고 다니다가 죽였으며 나무에 달아 매여 죽이고 오관과 사지를 각을 떠서 죽이고 아이들을 목을 누루고 배를 터쳐서 죽이는 등 실로 형언치 못할 즛을 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식인종과 그 주구들이 우리 조선 인민을 한개의 렬등 동물로써 각양 야만적 방법으로써 죽이는데 한개 시 험체로한 것입니다.

동무들!

우리 애국자들이 최후까지 지킨 그 숭고한 품성과 혁명적 기개를 다시금 련상하면서 나는 이제 몸서리치는 악독한 형상의 몇가지만 말하여 보려 합니다.

신천군을 강점하고 있던 미군 사령관 해리손 중위라는 놈이 눈 앞에 나타나고 있는 저 허필순과 같은 인간 말종들에게 1950년 10월 18일 명령하여 300여명의 아이들과 심지어는 임신부까지 합하여 9백여명을 소위 빨갱이 가족 또는 공화국의 열성 분자라는 구실에서 모두 옷을 벗기어 덮고 로동당 신천군당부 앞마당 구뎅이에 집어 넣고 휘발유를 부어 태워 죽일 때 그들의 아비 규환하는 처참한 광경을 들어 알았을 때 불붙는 비분과 분노를 억제치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불바다 가운데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눈을 뜨고 참아 볼 수 없는 이 참상을 가증한 웃음을 띠우면서 미군 장교놈들은 놈들의 부하와 무뢰한인 괴소자와 같은 놈들에게 명령하여 총으로 쏘아 다시금 불구덩이로 떨어뜨리게 하였습니다.

1950년 10월 21일에는 미군 화물자동차 다섯대로써 사람을 가득 실어 남부 저수지에 집어 넣어 학살 하였으며 그 부근 로동당 면당부 방공호의 전호 등에는 수백명의 남녀로약들을 화장 총살 등으로써 죽이는 등 저 수지에 수십차에 걸쳐 쓸어 넣어 학살한 수를 합하면 실로 2,093명에 달하는 사실이 판명되였습니다.

또 하나의 대량 학살한 사실을 든다면 11월 중순경 신천군내에 있는 9월산에 우리 인민 유격대가 웅거 하고 있다는데서 미군 중위 해리손은 소위 토벌대를 보냈다가 실패하고 돌아 오는 길에 촌락에 들어 미군 장교놈들은 모든 주민을 체포하라고 명령하고 부녀자와 아동들을 포함한 약 5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몰고 오다가 미국 병정들의 기관총에 의하여 학살하고만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1950년 10월 20일에는 520여명의 애국자들을 처단할 방법에 대하여 해리손은 여러가지로 토의한후 밤에 비밀적으로 남녀를 물론하고 모주리 빨가벗긴 후 군 내무서 방공호에 삼때 같이 몰아 넣음으로써 위선 질식 상태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중에서도 공화국 만세와 장엄한 김장군 노래의 합창이 우렁차게 흘러 나오는데에 방공호 출입구를 널판과 흙으로 묻어 버리고 미리 미군에 의하여 장치된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켜 죽였음으로써 지금도 그 방공호에서 악취와 흘러 나오는 물에는 기름이 뜨고 있는 현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놈들이 우리 인민군대와 중국 인민 지원 부대의 진격으로 패주하기 직전인 1950년 12월 3일에 해리손은 경찰서장실에 회의를 소집하고 미군장교와 괴뢰군 장교들에게 연설하기를 이 곳에 있는 주민들은 미군과 같이 남으로 가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는 사실상 적으로 취급될 것이며 그들에게는 원자탄이 사용될것이다. 빨갱이의 모든 추종자들은 섬멸되여야 한다고 명령하였으며 조선 인민군의 모든 가족들과 전체 공무원들의 가족은 빨갱이로 간주하여야한다고 명령하였는바 이는 실지로 미군에 의하여 실행되였으며 놈들에게 속아서 일부 남으로 따라가는 무고한 주민들에게는 비행기로써 기총 소사하여 학살하였습니다.

해리손의 이 발광적인 명령에 따라 미군과 같이 일부 반동 무뢰한들은 무고한 인민들을 모조리 쓸어 잡았는데 즉.

1950년 12월 3일부터 잡기 시작하여 900여명을 신천군 원암리 지구에 있는 두개의 창고에다가 200여명의 유아들을 따로 어머니를 떼여 가두고 굶기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아우성은 귀를 기우려 들을 수 없었고 아이들은 먹기를 찾기에 애를 써서 마루창을 허비여 손끝은 전부 피가 젔고 최후의 악을 써서 문앞으로 기어나온 관계로써 문앞과 창고 안 사방모에는 아이들이 첩첩이 쌓여서 죽은 현상과 12월

7일에는 다른 창고에 감금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조짚을 펴고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렀고 그것도 부족하여 창고 안에 수류탄을 던져서 학살하였는데 그 후 발로된 바에 의하여 처참한 광경은 사람이 뜬 눈으로는 참아 보기 어려운 광경이였습니다.

신천군 내에서 35,000여명이라는 사람을 살륙한 것이 얼마나 미국놈들의 멸족적인 계획인가를 증명하는 한가지 례로서 신천군 구홍면 만궁리 총 인구가 891명 있던 중에서 학살된 수가 773명으로 이는 실로 87%에 해당하는 전멸 상태입니다.

이렇게 대량적으로 학살한 반면 그 잔인성을 발휘한데 있어 고금에 례가 없는 개별적 례를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1950년 10월말경 신천군 산천면 경지리에서 어머니들은 먼저 죽이고 어린아이들만 29명을 그 면 인민위원회 뒷산 전호에다가 정렬하여 들여놓고 산장을 하였는데 후에 발굴하여본 결과삽으로 흙을 묻을적에 우는 아이들의 입에 흙이 들어가고 숨이 막히므로 애닯게 두손으로 제 머리를 뜯다가 죽은 현상이 완연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초리면 월정 인민 학교 교장 선생은 1950년 10월 18일 미국놈들이 잡아서 그 학교 직원실에 앉히워 놓고 군중의 면전에서 톱으로 선생의 이마 복판으로부터 배까지 꼭 절반으로 켜 갈라서 죽임으로써 군중을 위협하였지마는 미국놈들의 식인종적 야만성을 폭로한 것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면 수원리에 사는 양금선동무의 가족 6명을 학살한 후 양금선 동무는 산사람을 나무가지에 거꾸로 달아매고 머리 밑에 불을 놓아 태워 죽였으며 온천면 소비 조합상점 책임자이던 한창세 동무는 창고에 집어넣고 세빠트 개를 넣어 물어뜯어 먹게 하다가 일주일이나 지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총살하였고 동 상점 경리 김창조 동무는 전신 각을 떠서 죽였습니다.

증인심문에 의하여 당 공판정에서 명백히 된 바와 같이1950년 10월 18일 오전 10시경 미국 병정 20여명과 괴뢰군 10여명이 신천면 경지리에 사는 우말제 부인의 남편인 박도세씨를 열성농민이라하여 철사로 그의 코와 귀를 꿰고 량손을 총창으로 뚫고 바로 꿰여맨 다음 이마에는 모 범농민으로 수여받은 표창장을 못으로 박아붙인 다음 잔등에는 빨갱이를 죽이라는 글을 써붙이고 시내로 끓고 다니면서 빨갱이는 탄환이 아까우니 이렇게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돌아다녔으며 그의 며누리는 이 악착한 짓을 보고 저지할 때 미국놈들은 머리채를 잡아 쥐고 강간하려 다가 이에 반항함에 그의 옷을 벗긴후 뒷산으로 끓고가서 나무에 사지를 결박하고 국부에 말뚝을 박고 휘발유를 치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렇듯 그의 자녀를 합하여 가족 7명은 전부 놈들에게 학살 되였고 우말제 부인도 체포당하여 갖은 악형을 당하고 창고에 가치웠다가 11월 중순에 9월산에 있는 우리 빨찌산의 구원으로 탈출되였습니다. 이런 악독한 일은 세계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이루 형언할수 없는 만행인 것입니다.

신천군 가련면 명사리에 살던 신음전 녀사는 열성 농민이라 하여 1950년 11월

5일 오후 5시 경에 잡히여 라체를 만든후 철사로 코를 꿰가지고 인두를 달구어 가지고 머리와 젖가슴을 지지며 량손가락을 칼로 짤라버리는 등 갖은 악독한 고문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동리로 끓고 다니다가 오후 1시경에 명사리 신산 고지로 끓고 가서 무수히 구타한 후 총살하였습니다.

신천군 온천면 진우리에 살던 유금녀는 1950년 10월 28일 치안대장 한종선이라는 자가 대원을 데리고 동일 오후 2시경에 유금녀를 체포하여다가 벌거벗긴 후 아까시야 몽둥이로 무수히 때린후 두 손을 뒤로 결박하고 잔등에다가 무명천에 열성자라고 써서 붙이고 동리로 끌고 다니다가 동리앞 옆산으로 끌고 가서 가시가 있는 아까시야 나무로 죽게 때리고 어느듯 귀를 베고 괴뢰장교놈이 그년이 북한에서만 살아서 미국이나『대한 민국』의 사정을 모르니 두눈을 빼여 높은 나무 가지에다가 달라는 명령을 놈들은 집행하고 죽이는 등 이 잔악한 것은 미국 략탈자들이 례사로 하는 것임을 놈들은 스스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산천면 경지리에 살던 34세난 김정애 녀사는 열성농민이라하여 잡아죽이는데 미국 장교놈은 그 녀자를 죽이는 데 탄환이 아깝다고 손발을 동여매고 그 녀자가 업고 있던 두살난 아이까지 창으로 찔러 죽일 때 김일성 장군 만세! 공화국 만세! 를 웨치므로 혀를 베여 던지고 생매장하였고 간호원 강습소에서 공부하던 20세 되는 김을 장은 미국놈들이 귀를 꿰가지고 등에는 못을 박고 북을 메우고 라체로 거리로 끌고 다니다가 감옥에 넣고-강간까지 하려다가 반항함에 창으로 찔러 학살하였으며 온천면 료양소에 있는 장백산실을 유곽으로 만들고 젊은 녀자와 처녀들은 닥치는대로 잡아다가 그곳에 끌어 넣고 미국놈 영국놈 괴뢰군 놈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갖은 릉욕을 다하다가 겨우 세 녀자만이 살아나오고 그 외에는 전부 화물자동차로 실어다가 남부 저수지에 끌어 넣어 죽였습니다.

우리 한개 군에서만 일어난 이런 만행은 해리손의 버릇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 전쟁 상인들과 그 침략군 내의 일반적인 추악하기 짝이 없는 죄상의 일환이라는 것이 특징적인 점을 강조하여 마지않습니다

최고 재판소 재판원 여러분!

수 없이 많이 실증되는 놈들의 만행을 이 이상 더 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천인공노할 일련의 범죄적 사실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놈들의 비 인간적 만행은 그칠 바를 모르고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놈들의 패배를 만회하려는 흉계에서 더욱 인간백정의 마지막 잔인성까지 발휘하여 전 세계 인민들이 전률과 증오를 느끼고 있는 세균무기까지 우리 강토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범죄적 사실은 오로지 우리를 멸족하려는 놈들의 만행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 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에게 최대의 불행을 가져올 전제임을 서슴치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원쑤의 갖은 고문과 릉욕과 억울하게 사라진 수많은 애국적 우리 인민들의 철천의 원한은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이 악당들의 흉악한 죄악은 결코 그대로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잿더미로된 도시에 아직 살아있는 주민들이 토굴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를 계속 폭격함으로써 우리를 정신적으로 굴복시키여 육체적으로 약화시키고 놈들은 계속적으로 수십만의 평화적 주민들의 늙은이나 젊은이나 고문을 당하고 불에타 죽고 매맞아 죽으며 산장을 당하며 아무 죄도 없이 또는 재판과 관결도 없이 감옥에서 굶주림으로 죽고 있는 대량적 학살은 과거 히틀러 만행보다 더 초월한다고 평가한 국제 민주 녀성 련맹 조사단의 말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신천군 일대에서 적의 강점기에 일어난 일단을 말함에 있어서도 보통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무서운 사실을 간단히 접수하는데 난색을 보일수도 있으리라고까지 생각됩니다마는 오늘 국제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받은 모든 재료와 우리 군 내에 살아 있는 무수한 목격자와 물적 증거들은 내가 말한 이 만행을 더욱 릉가하고 있다는 진실을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원 동무들!

놈들이 여하히 악독한 만행과 대량적 학살의 무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선 인민의 불굴의 투지는 꺾을수 없으며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 애호 인민의 뜨거운 지지와 원조를 받아가면서 종국적 승리를 쟁취하고야 말것입니다.

인도주의적 모든 원칙을 위반하였을뿐 아니라 국제적인 제 원칙을 무시한 재생된 파쑈 히틀러의 후신인 미 제국주의자들은 멀지않은 장래에 세계 인민 앞에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고야 말것이며 우리 조선에서 잔인하고 악독한 살인귀의 직접 모범을 보인 원흉은 미제 침략자라고 하더라도 이에 충실한 노복으로서 미국 놈들의 딸라에 눈이 어두어 자기의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털끝만한 사람의 량심도 없이 사람잡이에 눈이 뒤집힌 악당인 허필순 최한우 리두현 윤명원 등에게 결코 죄가 경하여질바는 아닙니다.

그자들을 역시 오찰을 하여 죽인다고 하여도 놈들이 범한 죄는 벗지 못할것입니다.

미국 무장 간섭자들과 그 주구 반역 도당에게는 우리는 이를 갈아 천추의 원한을 씻고야 말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천군 인민을 대표하여 또는 공화국의 충실한 공민의 한사람으로서 불타 오르는 적개심을 가지고 인민의 원쑤인 저자들 네명에게 우리 공화국 형법상 최고 형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재판소에 엄숙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1952년 5월 29일

(3)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대표하여 사회소추자 주황섭의 발언

최고 재판소 판사 참심원 여러분!

나는 사회 소추자의 한사람으로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대표하여 본건 피

소자들의 잔악무도한 반 인민적 범행과 그 죄책에 대하여 극악한 인민의 원쑤로서 규탄하는 동시에 그 배후에서 그들을 조정하여 조선 사람의 손으로 무고한 조선 사람들을 대량적으로 무참하게 학살한 흉악한 인류의 원쑤 미제 식인종들의 천인 공노할 만행에 대하여 론죄하려 합니다.

여러분!

본건 공판 심리가 개시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술한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부합되는 피소자들의 자백 및 기타 물적 증거에 의하여 본건 기소 사실은 일점의 의혹도 없이 완전히 증명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건 기소 사실의 진상을 상세히 규명하고 옳은 정치적 법률적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한개의 사실인정과 그에 해당하는 법률적 평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반드시 그 배후에서 직접 사수한 본건 범죄의 원흉인 미국 장교 해리손의 행동에 대하여 더욱 심각하고도 예리한 정치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적이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시기와 지역에 있어서 진행된 수많은 반역 사건들은 그 표면에 나타난 범죄의 현상만을 볼 때에는 마치 조선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이 되여 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그 배후에는 미국 식인종들이 숨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건에 있어서도 직접 집행자는 조선 사람인 피소자들이였다고 할찌라도 그 배후에서 주동적 역할을 논 자는 미국의 군적을 가진 현역군인인 미군 륙군 중위 해리손이였으며 그의 직접적 지도 밑에서 본건 범죄가 수행된 이상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표면에 나타난 현상만을 피상적으로 관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배후에 숨어 있는 범죄의 근원을 탐구함으로써만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구하게 설명할 여지도 없이 본건 사건의 정체는 이미 수집되였고 확증된 자료에 의하여 알려져 있는바와 같이 피소자들의 개인이나 미국 장교 해리손 개인에 의하여 우연하게 진행된 개별적 범죄가 아니고 강점되였던 수많은 지역에서 진행된 반역 사건들과 내부적 통일성을 가진 미제의 침략적 행동의 일환으로서 감행되였으며 그의 괴수는 월가 전쟁 방화자들이며 그들의 의도를 조선에서 직접 실천한 것이 맥아더 리치웨이 크라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건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주기 위하여서는 본건 범죄의 정치적 배경과 그들의 목적과 본질을 알아야 하며 또 그 범죄와 류사한 방법으로 진행된 수다한 행동에 대한 정치적 련계성을 보아야 하겠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적 강점 기간에 수행된 많은 반역 사건들의 진상을 똑똑히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미제의 식인종들의 조선 침략의 정체를 정확하게 해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참심원 여러분!

우리들은 그 동안 심리를 통하여 피소자들의 범행이 얼마나 잔인하고도 악착하였

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와 인도를 수호하는 보통 사람으로서 누가 피소자들과 미국 병정들의 이 천인 공노할 만행에 대하여 저주와 분격을 느끼지 않는 자가 있으며 조선 사람으로서 어찌 민족적 치욕과 흥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조선 민족은 옛날부터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노예화하며 그 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것을 자기의 도덕으로 삼아 본 적은 없으며 우리 조국을 침략하려는 외래 침략자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선조 때로부터 시종 일관 용감하게 싸워온 전통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인민들로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풍습과 전통 속에서 자라난 피소자들로서 아무리 조국과 인민을 반역한 극악한 죄인이라고 할찌라도 이와같이 잔인 무도한 비 인간적 행동을 하였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합니까.

이제 나는 피소자들의 자백을 빌어서 피소자들의 행동의 잔인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피소자들은 1950년 10월 18일 해리슨의 지시에 의하여 900여명의 애국자와 그의 가족들 특히 철모르는 어린애들까지 포승과 새끼로써 결박하여 총창으로써 구뎅이에 몰아 넣은 후 그들의 머리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놓았을 때 이 무서운 고통을 못견디여 죽을 힘을 다하여 빠져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피소자들과 미국 병정들은 사격으로 대답하였으며 아직 절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겠다고 아우성치며 소란하게 덤비는 것을 흙더미를 덮어 생매장을 하였습니다.

10월 2일 520명을 학살할 때에는 방공호 속에 몰아 넣은 다음 그 출입구를 흙과 널판으로 밀폐하여 질식케 하였는데 이 광경을 본 미국 식인종 해리슨은 만족하여 미소를 띄우고 "오케"라고 외치면서 사진을 찍은 다음 피소자들에게 담배를 권하였다 합니다.

생각만하여도 몸서리치는 이 전률할 무서운 만행은 극악한 인간 죄악성의 최고 표정으로 되며 우리들 기억에서 영원히 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미국 식인종들과 그 졸도들인 피소자들의 포악한 행동에 의하여 학살된 수많은 애국자들의 유령과 같은 그림자가 이 공판정 주위에 배회하면서 피소자들과 그의 상전 미국놈들을 한놈도 놓치지 말고 그러한 잔악한 방법으로 죽여 달라고 아우성치는듯한 환상을 느낄 때에 모골이 송연해지며 한없는 동정과 비분과 원한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같은 잔악하고 참혹한 방법으로 학살된 애국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적이 강점하였던 방방 곡곡에서 수십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피소자들의 잔인 무도한 성격에 의거한 것도 있겠지만 그 보다도 커다란 원인은 피에 굶주린 미제 식인종들이 자기네들의 침략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잔인한 수단과 방법도 대상도 가리지 않는 악귀같은 잔인하고 더러운 침략성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실증하는 것으로서 미국 식인종들이 남북 조선에서

진행한 야수적 만행을 조사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단의 보고 자료 중에서 그 몇가지만을 들어 보겠습니다.

동 위원회의 보도 3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여 있습니다. 즉 「평양시를 일시적으로 강점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 간섭자들과 리승만 군대들은 수많은 무고한 평화적 시민들을 살해하였다.

그들은 인민 정권 기관 일군들 특히 로동당원들을 투옥 타살 총살 교살하였으며 그리고 또 그들의 가족은 부녀 아동 로인들을 불문하고 체포 투옥 고문 학살하였다.

미군과 리승만 군대가 평양을 강점하고 있는 동안에 감행한 이러한 만행의 결과 평양에서 1만 5천명 이상의 주민이 학살되였다. 그들은 위협과 공갈로써 시민들에게 대동강 남쪽으로 피난갈 것을 강요하였으며 평양으로부터 나가지 않는 자는 빨갱이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광포하였다. 공포를 느낀 시민들은 남녀 로소를 물론하고 12월 3일과 4일에 떼를 지어 대동강을 건너가기 시작하였는바 퇴각하는 미군들과 리승만 도당들은 사람들이 다리에 꽉 차서 건너가고 있을 때에 그 다리를 폭파하였다.

미국 전투기들은 강안에 운집하여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기총 소사를 하였다.

12월 3일과 4일에 미국인들과 리승만 도당들은 이와 같이 하여 약 4천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살해하였다.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12월 4일에는 대동강은 군중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대동강물은 살해된 사람들의 피로써 붉게 물들여 있었다 한다」라고 기재하였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일시 평양을 강점하였다가 퇴각할 때에 미군 및 리승만 기술병들의 특별 부대는 평양의 산업 기업소들과 건물들과 시설들을 폭파 소각하였다. 평양에서 퇴각하기 전에도 미국인과 리승만 도당들은 평양 화학 공장의 일체 시설을 파괴하고 공장 건물과 합숙을 소각하였다.

평양 방직 공장 평양 기계 제작소 사동 련탄 공장 메리야스 공장 평양 연초 공장 평양 사탕 공장 중앙 백화점 등의 폭격을 면하였던 시설 및 건물들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미국인들과 리승만 도당들은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힘과 손으로 건립된 김일성 종합 대학을 파괴하였으며 또 로어 대학 사범 대학 체신 전문 학교 공업 대학 로동당 중앙당 학교 제1 제2 제3 제4 제6 제10 초급 중학교 제2 고급 녀자중학교 제5 초급 녀자 중학교 제14 제19 제38 제39 인민 학교의 건물을 완전히 파괴하였으며 연구 자료와 기구들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각하였거나 혹은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였다.

그들은 또한 중앙 병원 국립 예술 극장 평양 아동 궁전 로동 신문사 및 기타 문화 시설의 건물도 파괴하였다.

미국인과 리승만 도당들은 국립 중앙 도서관 김일성 종합 대학 도서관 각 기관

의 도서관 서점들과 개인 서재들에 있는 수십만권의 서적들을 소각하였다.
그들은 평양 박물관을 파괴하고 거기에 있는 전람품들을 략탈하였으며 많은 력사적 유물을 그 례를 들면 락랑고분 조선에서 가장 귀중한 8개의 력사적 유물중의 하나인 부벽루를 파괴하였으며 영명사의 금부처를 략탈하여 갔다. 미국 간섭자들은 평양시의 40만 주민들에게 음료수를 공급하던 수도 시설들과 저수지를 폭발 파괴하였으며 시내에 전기를 공급하던 배전부를 파괴하였으며 대동강 철교 및 인도교와 시내의 전차 선로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미국인들과 리승만 도당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내각 내무성 사법성 평양시 인민 위원회 내무부 평양 전신 전화국 중앙 은행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북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의 건물들과 기타 많은 시내 건물들을 파괴하였다」라고 그들의 만행을 여지없이 폭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양 지방에 국한된 부분적 자료에 불과합니다.
이외 각 도시와 농촌들에서 진행된 그들의 만행은 이보다 몇배나 참혹하고 악착한 방법으로 충만되여 있으며 남조선에서 진행된 그들의 만행은 더욱 처참합니다. 이미 오래 전에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 위원단이 남조선 미 군정과 그의 허수아비 리승만 도당들의 만행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뚜렷이 기재된 바와 같이 미국놈들은 자기의 앞잡이 경찰 테로 분자들을 사수하여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의 침략 정책을 반대할 때는 용서없이 검거 투옥하였으며 더욱 혹독한 방법으로 학살하였습니다. 즉 부녀자들의 젖통을 찌르고 국부에 말뚝을 박아 인간 이하의 치욕을 주어 죽였으며 애국자들을 창고에 몰아 넣고 굶주린 세빠트로 하여금 애국자들의 살조각을 점점이 뜯어 먹게 하고 이러한 고통에 못이기여 신음하며 애타는 처참한 광경을 보고 악귀와 같은 그들은 만족해 하였습니다.
미국놈들이 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인민들이 이 모양으로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새삼스럽게 론증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사실들과 오늘 조국 전쟁 과정에서 미국놈들이 전쟁 법규와 국제 조약을 무시하고 아무러한 군사적 시설이 없는 도시와 농촌을 무차별 폭격하여 잿데미로 만들며 무서운 세균을 보유한 곤충들을 산포하여 대량적으로 조선 인민을 살륙하려는 야수적 행동을 종합하여 볼 때에 본건에 대한 범죄의 진상과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참심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구한 일제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일체 조선 인민들은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재량을 바치여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산하에 굳게 뭉치여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간섭을 적극 반대하여 싸워 왔습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들의 전 민족적 요망에 대하여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네들은 1945년 9월 인천에 상륙하여 38이남 조선 지역에 웅거한 첫날부터 우리들의 요망을 백방으로 방해하고 많은 애국자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으

며 각종 민주주의적 출판물들의 간행을 금지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여지없이 박탈하였으며 몇개의 반역자 재벌들을 제외하고는 전체 인민들은 기아와 폭탄 속에서 헤매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억압에서 사경에 직면한 남조선 인민들은 "앉아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일어나 싸우자"는 구호 밑에 총 궐기하였을 때에 그들은 총칼로써 이들을 억압하고 잔악한 방법으로 많은 애국자들을 학살함으로써 자기네들의 침략적 야욕을 달성하기에 광분한 사실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인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영원한 자기네들의 행복의 왕국을 몽상하는 월가의 주인들은 아세아 침공의 발판으로서 조선 침략이 선차적으로 필요하였던 까닭에 벌써 근 1세기 전인 1866년 샤만호 사건을 필두로 하여 1871년의 강화도 사건을 거쳐 1882년 소위『한미 수호 조약』을 계기로 하여 조선 내정을 간섭하면서 많은 리권을 쟁취하였으며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자 그들은 종래의 숙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조선을 점령한 후 포츠담 선언 얄타 회담에서 결정된 조선 독립에 관한 조항 등을 헌 신짝과 같이 파기하고 모쓰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근거한 쏘미 공동 위원회 사업을 갖은 구실로 파탄시켰으며 북조선에 주둔하였던 쏘련 군대가 철퇴하면서 동시 철거를 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둔하였을뿐만 아니라 유엔 간판 밑에 총칼로써 실시된 소위 5•10 망국 단독 선거를 통하여 자기네들의 충복 리승만 일파의 매국 역도들을 수반으로 하는 남조선 괴뢰정부를 조작해 낸 후 1948년 8월『한미 잠정 군사 협정』동년 12월『한미 경제 원조 협정』등 일련의 매국 협정들을 체결하고 동년 11월 괴뢰 국회에서 승인된『미군 남한 주둔안』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 군대 경찰의 통수권을 장악하고 그 훈련과 장비를 강화하며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 군사적 지배권을 미군수중에 통틀어 장악한 사실은 우리들이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일제의 통치 하에서 쓰라린 경험을 겪은 조선 인민들은 다시는 식민지 노예의 멍에를 메지 않기 위하여 미국놈들의 이 흉계를 반대하고 조선 문제는 조선 사람의 손으로 해결하자는 자연스러운 구호 밑에 평화적 방책으로 조국 통일을 달성하기를 념원하여 총궐기하였을 때 그들은 상투적 수단인 총칼로써 억압하였을뿐만 아니라 민주와 자유의 기지 북조선을 자기의 수중에 넣음으로써 영원히 조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소위 북벌을 획책한 사실도 우리는 잘 아는 바입니다.

이것을 실증하는 사실 자료로서 미 군정청 경무부가 발표한 축소된 통계 숫자에 의하더라도 1946년 4월부터 1947년 3월까지 1년간의 검거 총국한 건수는 12만 41건에 달하며 1946년 한해 동안에 그들에 의하여 학살된 수는 4천 2백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압은 제2차 쏘미 공동 위원회가 진행되던 1947년 8월 15일을 전후한 20일 동안에 더욱 혹심하여 경향 각지에서 검거된 총인원수는 11,039명에 달하며 테로에 의한 피해자가 서울에서만 하여도 916명에 달하였습니다. 그 후 2•7 구국 투쟁과 5•10 망국 단독 선거 시에는 더욱 혹심하여 5월 10일 하루 동안에만 학살된 애국

자가 500명에 달하고 있으며 1949년 6월 전체 조선 인민의 의사를 반영한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이 제의된 이후에 있어서는 일층 악랄하고 혹심하여 동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에 학살된 숫자는 6만 2천 여명에 달하며 인민 유격대를 토벌한다는 구실밑에 소각된 농가의 호수는 무려 15만호에 달합니다. 이상과 같이 남조선에 미군이 주둔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종 일관한 정책은 피비린내 나는 학살과 잔악한 고문 구타 파괴 등으로 관철되였으며 조선 사람들을 파리보다 더 쉽게 죽였습니다.

그것이 소위 그들의 문명이며 원조이며 도덕입니다. 오늘 피소자들에 의하여 감행된 잔악한 행동이라든지 기타 적 강점 기간에 북반부 각 지역에서 진행된 각종 테로 학살 사건이라든지 기타 남반부에서 이미 실시한 테로 정책의 련관이며 본건 범죄가 진행된 신천군 일대를 지휘하던 미 륙군 중위 해리손의 행동은 그것이 개별적인 잔인한 성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두다 그 원천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사수에 의한 것이며 오랜 미국 침략정책의 일면을 반영하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제의 최후 발악은 오늘 우리 조선 사람들이 당하고 있지만 다음 날은 그 어느 다른 나라 인민이 또 당하지 않겠다고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귀같은 미제 살인 강도배들은 인류 공동의 원쑤로 되였으며 오늘 조선에서 진행되는 우리 해방 전쟁은 분명히 정당하며 전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도덕을 위반하고 모든 인류의 행복을 말살하려는 극악한 그들의 반동적 침략 행동은 멀지않아 반드시 패망되고야 말것이라는 정의의 승리감이 우리들로 하여금 필승의 정신으로 고무하여 주고 있습니다.

최고 재판소 판사 참심원 여러분!

나는 위에서 본건 피소자들의 범행이 피소자들의 단독적 범행이 아니라 흉악 무도한 인류의 원쑤 미제의 사수에 의하여 감행된 사실에 대하여 루루히 장황하리만치 진술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피소자들이 조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반 인민적 범죄를 가장 잔인한 수단으로 감행한 그들의 죄책에 대하여서는 론죄상 추호도 영향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말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조선 인민들이 다시는 식민지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전선에서 후방에서 미제를 반대하여 피투성이가 되여 싸우고 있을 때에 피소자들은 미제의 앞잡이가 되여 배신적으로 자기의 선량한 애국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죄악은 천추에 씻지 못할 누명으로 되었습니다.

원쑤들이 아무리 발광적으로 음모 획책할찌라도 자기 조국의 자유와 영예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곤난도 무서워하지 않는 조선 인민들의 투지는 꺾지 못할 것이며 또 그의 앞잡인 저주로운 피소자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애국자들과 가족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였지마는 그들이 흘린 충직한 선혈들은 결코 값없이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원쑤들의 흉탄에 쓰러진 수많은 애국자들의 동지들과 전우들은 전방과 후방에서

그들의 시체를 넘어 고문대와 총탄 앞에서도 굴치 않고 이 시각에도 적들의 심장에 죽엄의 포탄을 맹렬히 퍼붓고 있습니다.

원쑤들과의 가혹한 전투 행정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조선 인민들의 고상한 애국주의는 전체 조선 인민들의 정치 사상적 통일에서 표현되고 있으며 적을 섬멸함에 있어서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조국을 위하여 바치는 영웅적 조선 인민군 장병들의 고상한 전투 의식과 혁혁한 성과에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들이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생명과 지력과 재력을 흉악한 미제 침략도배 소탕을 위한 정의로운 조국 해방 전쟁에 남김없이 다 바치게 된 것은 그들이 해방후 7년간의 생활 체험에서 인민 민주주의 길로 지향하고 있는 공화국의 사회 정치적 제도의 확고 부동성과 우월성을 명백히 인식하였고 우리의 전쟁이 조국의 자유독립을 위한 정의의 해방 전쟁인 데 있으며 국제 민주 진영의 절대한 성원 속에서 승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억센 인민의 힘은 인민의 원쑤로서 저주로운 락인을 받은 피소자들과 같이 적의 일시적 강점을 공화국의 영원한 패배로 인정하고 무궁 무진한 인민의 힘을 경시하였던 자들까지도 날이 갈쑤록 자기의 착각과 죄과를 뼈아프게 참회하면서 관대한 공화국 품 속으로 자수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소자들이 이미 공화국의 관대한 정책에 근거하여 자수의 길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과를 뉘우치지 않고 종시 미제의 앞잡이로서 최후까지 공화국을 적대하려고 한것은 추호도 동정할 여지가 없는 악독한 인민의 원쑤로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역자의 말로는 오직 저주로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으며 인민들은 그자들의 추악한 시체위에 치욕과 경멸에 가득찬 가시덤불을 던질 것입니다.

오늘은 저주로운 피소자들이 인민의 심판을 받지만 래일은 리승만 매국 역도들과 그의 상전인 미국 전쟁 방화자들이 인민의 앞에서 이와 동일한 심판을 받게될 것을 몰락에 직면한 반역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52년 5월 29일

(4) 국가 검사의 론고

최고 재판소 판사 및 참심원 동무들! 여러분은 나흘동안에 걸쳐서 본 사건의 면밀하고도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피소자들의 진술과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공판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자료들은 본건 피소자들에 대하여 기소된 전률할 일체 비행 사실을 론쟁할 여지없게 명백히 확인시켜 주며 충분한 증명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판의 의의는 결코 지금 이 피소자석에 앉아 있는 수치스럽고 더러운 반역자 몇명의 범죄를 확정하고 그들의 개별적 책임을 단정할 수 있게 한 그런 협소한 범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판은 타국 령토

를 강점하며 그 인민을 노예화하기에 광분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 략탈자들이 자기네의 침략 정책을 감행할 때 그 어떠한 만행도 서슴치 않고 취하는 야수적 본성을 선명하게 폭로해 주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공판 심리의 직접적 대상이 주로 황해도 신천군에서 미제 침략 군대가 그들의 앞잡이와 더불어 조선 인민에 대하여 감행한 죄행들 중의 적은 부분적 사실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본 공판의 의의로 하여금 미제 침략 군대가 한개 국부적 지방에서 감행한 범죄의 특수한 면모를 밝히는 거기에 그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반드시 강조하여야 하겠습니다.

본건 심리 과정에서 확증된 제반 자료들이 다시 한번 표시하는 바와 같이 한개의 적은 지방인 황해도 신천군에서만도 3만 5천여명의 조선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한 이 범죄는 미제 침략자들이 그들의 피묻은 마수가 뻗친 조선의 방방 곡곡 어디서나 저지른 대규모의 전반적 죄악과 불과분적 관계가 있는 일부분을 이루는 것이며 또한 미제 침략자들의 식인종적 만행의 악독한 질과 광범한 규모를 상징하는 전형적 표본인 것입니다. 다른 면에 있어서 전률할 이 범죄는 미제 침략 군대의 그 어떤 개별적 장교나 병사들 례컨대 본 공판정에서 여러번 그 저주스러운 이름이 불리워진 미군 중위 해리손이나 기타 그 졸도들의 특별한 잔인성으로 말미암아 감행된 특수한 사건인 것이 아니라 준비된 계획과 미리 선택된 방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된 미제 침략자들의 조선 인민에 대한 학살 멸족 정책의 유기적 결과임을 역시 본 공판 행정은 뚜렷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이러한 점들에 본 공판이 갖는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본 공판은 오늘날 월가 전쟁 상인들의 리윤을 위하여 인류와 문명을 반대하여 나선 평화의 원쑤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식인종적 야수성을 전 세계 인민 앞에 남김없이 폭로하여 줍니다.

본 공판정에서 밝혀진 모든 자료들에서 여러분은 미제 야수들에 의하여 어굴하고 참혹한 죽음을 당한 조선의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의 원한어린 외침을 들을 것입니다. 그 외침은 바로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자기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궐기한 조선 인민에게 이 저주러운 원쑤들에 대해서 복쑤의 죽음을 더욱 맹렬하게 더욱 철저하게 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은 바로 전 세계의 선량한 보통 사람들에게 오늘 미제 야수가 조선 인민에게 대해서 감행하는 만행이 래일은 세계의 다른 인민들과 그 후손들의 운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인류와 문명의 흉악한 원쑤 미제를 반대하고 평화를 고수하는 초소에서 더욱더 단결하여 미제 범죄자들을 한놈도 빼지 않고 반드시 처벌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공판의 특별히 중요한 의의는 다름 아닌 이 점에 있습니다.

최고 재판소 판사 및 참심원 여러분!

본 공판이 가지는 이러한 의의에 비추어 또한 현재 피소자석에 앉아 있는 매개

괴소자들의 죄행과 그 책임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 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 인민에 대한 침략적 죄악과 비 인간적 만행 일반에 관하여 약간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공판에서는 미제 침략 군대가 황해도 신천군을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그 시기를 리용하여 즉 1950년 10월 17일부터 동년 12월 7일까지에 이르는 약 1개월반 동안에 1만 6천 2백 34명의 녀성을 포함한 3만 5천 3백 83명의 민간주민을 학살한 죄악이 주로 심리의 대상으로 되였습니다.

물론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인민 도살 정책은 그들이 공화국 북반부 지역을 일시적으로 강점한 시기에 비로소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 아닙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관련하여 공화국 남반부에 상륙한 그 첫날부터 벌써 미제는 애국적 조선 인민을 도살하는 파렴치한 형리로서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미제는 여러 국제 협약에 의하여 자기가 부담한 조선에 관련된 국제적 의무를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이미 오랜 력사적 전통을 가진 조선에 대한 침략 정책을 총검으로 관철하려고 시종 일관 광분하여 왔으며 계속 광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미제 간의 력사상 최초의 접촉이 곧 저들 미제 식민지 략탈자들의 침략적 마수를 격퇴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 특징적 사실입니다.

이미 1866년에 미국 식민지 강도들은 무장한 『샤만호』를 이끌고 우리 나라의 령해를 침범하고 평양 부근까지 침입하여 해적적 무법 행위를 감행하다가 당시의 우리 선조들에 의하여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조선과 미제 간의 접촉으로서 력사 상 최초였던바 이렇듯 미제의 조선 인민에 대한 관계는 그 발단부터 침략과 략탈의 죄악으로서 력사에 기입되여 있습니다.

그 후 1871년 5척의 미국 군함이 1천 2백 30명의 고영병을 태우고 우리 나라 강화도에 침습하여 그 일대 지역을 일시적으로 강점까지 하였다가 다시금 격퇴되였습니다.

빈번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제 식민지 략탈자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의 야망을 집요하게 추구하였습니다. 1882년 미제는 당시의 락후하고 부패한 조선의 통치층을 기만 공갈하여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인 소위 『한 미 수호 통상 조약』을 강제 체결한 후부터는 침략의 촉수가 더욱 깊이 뻗어 왔습니다. 봉건 리조의 왕실과 당시의 정치 상층부에는 미국인 『고문』들이 자리를 틀고 미제 세력을 부식 확대함에 광분하는 한편 조선의 중요 지하 부원과 경제 리권을 강탈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미제는 운산 금광과 수안 홀동 광산 기타 수많은 광산의 채굴권을 탈취하였었고 경인 철도의 부설권을 비롯한 서울시 내의 전차 시설권 전기 전화 가설권 등등을 이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략탈하였습니다.

또한 성경과 병원의 간판을 가진 미 제국의 침략의 앞잡이들을 많이 조선에 파송하여 조선 인민을 사상적으로 마비시키며 미국식 문화의 독소를 주입시킴에 맹렬

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리다가 비률빈과 기타 원동에서의 자기 세력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미제는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야합하여 조선을 희생으로 하는 도박 거래를 함으로써 일제의 조선 강점을 적극적으로 방조하여 주는 비렬하고 배신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나섰던 것입니다나.

나는 조선 인민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죄악의 낡은 력사를 이상 더 깊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이상의 간략한 몇개 사실들에 의하여 미제가 자기 자신이 도발한 조선 전쟁에서 감행한 본건 사실도 포함하여 온갖 범죄적 만행이 력사적으로 얼마나 오랜 유래를 갖고 있으며 또한 그럼으로 해서 미제 비적들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가지 가지의 범죄가 결코 우연한 돌발적 결과가 아님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충분합니다.

이렇듯 접촉의 시초부터 일관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노려온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1945년 9월 우리 조국 남반부에 상륙할 수 있게 된 그것은 조선 인민을 노예화하며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년래의 강도적 야망을 충족시킬 다시 없는 기회로 간주되였습니다. 사실에 있어서 미제 침략 군대가 우리 조국 남쪽 절반에 주둔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온갖 위선적 언사에 불구하고 미제가 실지로 취하여온 매개 행동은 례외없이 이점을 증명해 주는 명백한 근거로 됩니다.

우리 조국 남반부에 더러운 발을 올려 놓은 미 제국주의자들은 일본 군국주의자의 자리를 대신 바꾸어 앉힌 상전으로 행세하면서 조선 인민에게 다시금 노예의 멍에를 씌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중한 오산을 하였던 것이니 조선 인민은 벌써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던 그 때와는 달라서 어떠한 형편 밑에서라도 다시금 외래 제국주의자의 노예가 되기를 단연코 거부하고 넉넉히 자유와 독립을 수호할 만큼 정치적으로 장성되고 단련되였다는 사실을 원쑤들은 타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선 인민은 미제가 조선에서 실시하는 실지 행동에서 그들의 음흉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첫 순간부터 똑똑히 간파하였으며 자기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일어섰습니다. 그리하여 미제와 그들이 길러낸 앞잡이들인 리승만 반역 도당의 흉악한 음모는 걸음마다 파탄되여가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직 미제가 우리 조국에 대한 침략적 야망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특히 위대한 해방자 쏘베트 군대의 원조를 받을 수 있었던 북반부에서는 조선 인민 자신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여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서 일제 통치의 악독한 영향을 퇴치하고 급격한 발전을 하여 통일 민주 조선의 튼튼한 기지가 구축됨에 따라 미제의 초조와 발악은 더욱 심하여졌습니다.

이러한 환경 밑에서 미제는 남반부 인민을 정치적 무권리와 경제적 빈궁 및 문화적 퇴폐의 비참한 상태에 몰아 넣으면서 파쑈 경찰 테로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무수한 조선의 애국자들을 체포 고문 감금한 것은 잠간 제쳐 놓고 이 기간에 남

반부에서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에 의하여 학살당한 애국자의 수만 하더라도 1946년에 4,200 여명 1947년에 3,800 여명 1948년에 3,200여명 1949년에 10만 9,000 여명에 달합니다.

미제의 아무리 간악한 탄압도 비렬한 민족의 분렬 정책도 그들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은 조선 인민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이 문명해지자 드디여 이 원쑤들은 공공연한 침략 정책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판사 및 참심원 여러분!

미제가 우리 민족에 대한 분렬과 학살 정책을 어떻게 써 왔으며 조선에서의 내란 도발과 그에 뒤 따른 무장 간섭을 어떻게 준비하고 감행하였는가 함에 관해서는 이미 론쟁할 바 없는 제반 증거가 넉넉히 설명해 주며 또한 상세히 주지되여 있는 바입니다.

나는 새삼스럽게 이 점에 더많은 말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조선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 수상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조선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 매국 역도들이 자기들의 음흉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우리 강토를 피로 물들이려 하는 치욕적인 동족 상쟁의 내란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우리 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종 일관한 평화적 통일 로선을 견지』하여 왔음에 불구하고 가증할 원쑤들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각 계단의 조선 인민의 투쟁에 있어서 무엇으로써 대답하였던가 하는 점입니다.

김일성 수상은 다음과 같이 명쾌한 규정을 내리였습니다.

즉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매국 역도들은 모쓰크와 3국 외상 회의 결정 실천과 쏘미 공위 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소위 『반탁』과 태공으로 대답하였으며 쏘•미 량군 동시 철거에 대한 쏘련 정부의 정당한 제의를 미군 계속 주둔과 남조선 반 인민적 경찰 테로 제도의 강화로써 대답하였으며 1천 200 여만명의 당원들과 맹원들을 망라한 56개의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들의 4월 련석 회의의 남북총선거에 의한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제의를 무력과 테로로 감행된 1948년 5월 10일 망국적 단독 선거로 대답하였으며 2차에 걸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 제의를 1950년 6월 25일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대한 불의의 무력 침공과 동족 상쟁의 내란 도발 개시로써 대답하였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을 정복하고 자기들의 식민지 노예로 만들기 위한 륙해 공군의 무장침범으로 대답 하였습니다』

최고 재판소 판사 및 참심원 동무들!

이리하여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계획되고 준비된 도발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에게는 평화적 창조적 로력의 시기가 중단되지 않을 수 없게 되였으며 우리 조국은 전쟁터로 미 제국주의 자와 그 추종자들의 천인공노할 가지가지 범죄가 수행되는 활무대로 되였습니다.

미 제국주의 야만들은 자기가 도발한 조선 전쟁에서 실로 히틀러 독일도 일본

제국주의가도 그 앞에서는 다 너무나 소박하였음을 부끄러워할 잔인한 범죄를 허다하게 감행하였으며 방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제 야만들은 이 전쟁의 초기부터 조선의 무방어도시와 촌락을 폭격하고 비 군사 목표들에 대하여 무차별 폭격 파괴를 마음 대로 하여 우리 조국을 폐허와 잿더미로 화하게 하였습니다.

미국 공중 비적들의 이 만행에 대해서 아무런 론증도 결코 요구되지 않습니다.

두눈을 가졌고 사물에 대한 객관성을 가진 세계의 누구이든지가 조선의 어떠한 임의의 지역에 잠간발을 들어 놓기만 한다면 그것으로써 이 명명 백백한 사실을 확인함에 충분할 것입니다. 전선과 멀미 떠러져 있고 아무런 군사상 시설과도 관련없는 모든도시 모든 촌락이 어느하나 성한 대로 남아 있습니까? 후방 멀리 궁벽한 지방에 농가 몇채가 놓여있는 평화로운 촌락을 이 공중 비적들은 소이탄으로 소각하고 기총소사를 합니다. 적십자의 표식을 뚜렷이 하여 명료하게 식별될수 있는 민간 병원을 고의로 폭격하여 그 시설을 파괴하고 환자를 살상합니다. 이 공중 비적들은 호상 협의된바에 따라서 지정된 표식을 선명히하였고 그 소재 위치가 통보되여 있는 자기측 포로의 수용소를 폭격 파괴하고 살상합니다.

역시 이 야만들은 들에서 파종하며 제초하는 농촌의 녀성들을 극도의 저공 비행에서 기총으로 사격하여 그 잔등에 업은 유아와 함께 발 머리에 쓸어 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떠한 군사상 필요의 명목으로도 결코 정당화 될수 없음은 누구에게나 명백합니다. 이것은 오직 조선을 완전한 초토로 만들고 조선 인민을 소멸시키고저하는 미제 야만들의 흉악한 계획의 집행으로써만 설명되며 리해될 수 있습니다.

미제의 조선 인민에 대한 소멸 정책은 이 야만들이 조선과 중국 령토에서 세균무기와 독까쓰 기타의 화학 무기를 광범히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서 더욱 더 명백히 증시되고 있습니다.

문명의 탈을 쓴20세기의 미제 야만들은 국제 법의 엄연한 규정들을 란폭하게 위반 하면서 인류 도덕과 인간성의 나머지 한조각까지도 유린하면서 우리 측 전투원과 일반 주민 가운데 죽음과 질병을 만연시킬 목적 밑에 인공적으로 페스트 호렬자 등등의 세균을 감염시킨 파리와 기타의 곤충 및 여러 물체를 대량적으로 산포하고 있습니다. 극히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1952년 1월 28일부터 동년 3월 31일까지에 우리 조국 북반부 지역에만도 전후 8백 4차에 걸쳐 대량의 세균탄을 투하하였으며 이러한 만행은 이 밖에 멀리 중국 령토에까지도 미쳤다는 것이 의심할바 없이 확증되였습니다.

이 악독한 죄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미제 식인종들은 온갖 날조적 요언과 연막을 펼쳐 놓았지만 그것은 이미 랭혹한 사실앞에서 여지없이 파산당하고 말았습니다. 특히종래의 제반 과학적 조사 결과에 첨부하여 최근에는 세균탄을 직접 투하한 미제 고용병 자신의 입을 통하여 간악 무비한 미제 세균만행의 진상이 다시 한번 세계 인민 앞에 똑똑히 폭로되였습니다. 공화국 정부의 민첩 적절한 대책과 아울러 방역 일군들의 활동 및 전체 인민들의 높은 경각성에 의하여 미제 침략자들의 이

수치스러운 만행이 파란되고 있습니다마마는 그러나 이 사정은 저들 인류의 적들의 가장 엄중한 죄악과 그 책임을 조금만큼이라도 가볍게 해주는것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미제 야만이 세균 무기 뿐만아니라 독까스 기타의 화학 무기를 조선전쟁 초기부터 사용한 사실도 널리 세상에 확인된바 입니다.

세계 인민으로부터 엄중한 항의와 규탄을 받고서도 여전히 이 야만들은 자기의 야수적 만행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극히최근에 즉 금년 2월 27일부터 4월 9일 까지만 하더라도 미제침략군대는 우리측 전선과 후방지대에 33차에 걸쳐 대규모적으로 독까스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듯이 미제야만들은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되여야할 과학의 성과를 악용하면서 고귀한 문명과 량심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미제 침략자가 조선에서 감행한 범죄는 그 륜곽만이라도 그것을 여기에 모두 렬거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합니다.

뭇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을 끼치게하는 미제침략자의 악독하고 광범한 만행들은 평화를 사랑하며 도덕과 량심을 가진 세계 수억만 보통사람들의 여론을 자극시키지 않을수 없으며 당연히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이미 1951년 5월에 국제민주녀성련맹 조사단이 1952년 3월에는 국제민주 법률가협회 조사단이 현지에서 친히 미제 야만의 죄상을 조사 확정할 목적으로 조선을 래방 하였던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이들 조사단이 친히 목격하였고 수집한 직접적 증거들에 근거하여 확정한 미제침략자의 범죄적 만행은 그것이 비록 국한된 부분적 사실만이라 할찌라도 그들의 보고서에 명확히 반영되여 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념두에 두면서 나는 미제침략군대가 일시적 강점지역에서 평화적 주민에 대하여 감행한 대중적 학살과 비인간적 만행에 관해서만 조금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본 공판에서 취급되는 사건의 본질을 리해하는데 보다 더 직접적인 련결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미제 야만들의 식인종적 죄행에 대하여 일찌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상은 유•엔에 보내는 항의에서 개별적 사실들을 적지 않게 례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즉 『론박할 수 없는 사실들에 의하면 미국 간섭자들과 그들의 감독 하에 있는 리승만 도당들은 자기들이 강점한 조선의 지역들에서 평화적 주민을 대량적으로 학살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가 강점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하여 가장 추잡한 릉욕 방법으로 중세기 야만적 고문과 부녀자들에 대한 강간과 기타 만행들을 감행하고 있다.

미국 간섭자들은 조선 사람을 눈을 빼며 귀와 코와 손을 베여내며 배를 가르며 산채로 톱이나 칼로 토막을 내며 불에 달군 쇠로 지지며 땅크 밑에 던지거나 또는 산채로 매장하여 죽인 실례들은 무수하다.

이와 같은 전대미문의 잔악무도한 테로는 로동당원들을 비롯하여 기타 민주주의적 사회 단체 맹원들과 지방 민주주의 자치 기관 일꾼들과 애국자들에게 널리감행

되였다.

역시 수만 수천의 조선 녀성과 아동들과 로인들도 미군과 리승만 괴뢰군의 야수적 발광으로 희생되였다』고 그 항의에는 선언되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가지 실례들이 있습니다.

1950년 11월 23일 이 야만들은 함북 학성군 학성면에서 면 인민 위원회 위원장 김동후를 포함한 28명의 열성자들을 체포하여 뒷산으로 끌고 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산채로 태워 죽였습니다.

동년 11월 평북 정주군 림포면에 있는 조그마한 섬 창도에 상륙한 미군은 이 섬에 거주하는 주민 580여명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습니다.

평북 태천군 서면 운용리에서는 군 농민 동맹 위원장 리은준에 대하여 미군은 그의 귀와 코를 짜르고 눈알을 뽑고 그의 피부를 벗겨 학살하였습니다.

동년 11월 중순 함남 함주군 상조양면 봉명리에서 이 야수들은 로동당원의 가족 20여명을 체포하여 도끼로 찍어 죽이고 그 시체들을 불살랐습니다.

인간의 량심을 아프게 하는 이 종류의 만행은 미제 침략 군대가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어떤 지방에서나 보편적이고 전반적인 현상이였습니다.

최고 재판소 판사 및 참심원 여러분! 이 공판 행정에서 판명된 제 사실은 바로 이 야만들이 감행한 이러한 범죄의 규모와 성격을 선명하게 특징 지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심리를 통하여 여지없이 밝혀진 본건 사실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약간의 분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본건 공판에서 심리된 사실의 주되는 내용은 다시 말할것도 없이 미군이 황해도 신천군을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약 45일 기간에 평화적 주민 3만 5천 383명을 무참하게 학살한 점입니다.

적 강점 시기에 신천군에서 감행된 만행 결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직된 신천군 피해 조사 위원회 부위원장인 강형도 증인이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조사에 의거한 결과를 이 공판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적 강점 직전 즉 1950년 10월 10일 현재 총인구 14만 2천 7백 88명을 포용하고 있던 이 한개 군에서 녀성 1만 6천 234명과 남성 1만 9천 148명이 미제 식인종들과 그 앞잡이의 피묻은 손에 의하여 무참한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특히 신천군 온천면 운봉리 같은 곳은 그 주민 878명인 200여호의 적은 촌락이였는데 여기서 310명의 녀성을 포함한 580명 즉 전 주민의 66%가 미제 식인종에 의하여 희생되였습니다. 또한 리운하의 증언에 의하면 신천면 량강리 총 30호 중에서 남자라고는 로유를 막론하고 한사람도 남김 없이 학살당하였는바 그 수는 127명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간단한 숫자들은 미제 야만들의 주민 도살의 규모를 단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량적 방대성은 오직 이 범죄의 여러가지 본질적 특징들 중의 사소한 한 부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모두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수다한 증인들의 일치한 진술과 본건 피소자 자신들이 자인하는 바에 의하여 명확한 바와같이 이들 희생자의 거의 전부가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 사회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 또는 자기의 로력적 성과를 근실히 쌓아 올린 모범 농민 혹은 그들의 가족들과 인민 군대 군무자의 가족들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공판정에서 미제 침략 군대에 의하여 체포되였다가 갖은 고문 학대 끝에 간신히 탈출하여 생명을 보존한 증인들 자신의 입으로 그의 친척중에 로동당원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리인민 위원회 복무원의 가족이였던 까닭에 혹은 소비조합 면 상점의 판매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겪은 사실들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특별한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증인 김만석의 진술입니다.

동 증인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즉 『1950년 10월 17일 미국 군인 6,7십명이 탄 두개의 화물 자동차와 지휘 장교와 통역이 탄 찌프차가 들어오자 미군 중위 해리슨은 즉시로 머리를 빤빤히 깎은 사람과 "도리우찌" 모자를 쓴 사람은 그들이 인민 군대이거나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서 모조리 잡아다 학살하였다. 10월 18일 경의 일인데 신천시내 원암리앞 도로에 미군 화물 자동차가 서 있기에 미국 사람이 좋은 줄 알고 그에 접근하였더니 우리 원암리에 거주하는 김두한과 김종운 오필한 등은 머리를 막깎은 자라하여 체포되였고 방제현은 "도리우찌" 모자를 쓰고 있다 하여 이들을 차에 싣고 간 후 전혀 행방 불명이 되였다』 고 하였습니다

증인 강형도는 진술한 온천면 운봉리에서의 희생자 580명 중에는 5세 미만의 철부지 어린애가 100여명 6세 이상 15세 미만의 소년 소녀가 150여명 50세 이상의 로인 80여명이 포함되여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희생자들 가운데는 일가족 전체가 몰살 당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같은 증인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례컨대 운봉리에 거주하던 한 동훈의 전가족 7명이 미제에 의하여 몰살당하였는데 이 중에는 76세의 조모와 12세, 14세의 두 동생들과 2세 나는 그의 장남이 포함되여 있습니다.

이와 류사한 비통한 사실들이 이 수일동안 공판정에서 허다하게 진술되였습니다

이렇듯 녀성과 어린애와 늙은이에 대하여 특별히 광범한 학살이 진행되였습니다.

이 얼마나 피에 굶주려 날뛰는 미제식인종들의 발광적 만행이며 조선 인민에 대한 소멸 정책을 증시하는 생생한 표본들입니까?

최고 재판소 판사 및 참심원 동무들!

나는 본사건 범죄를 분석하면서 반드시 주민 학살의 방법에 관하여 지적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제 야만들은 평화적 주민들을 그저 단순하게 살해한 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능히 미치지못할 그러한 정도의 특별한 방법에 의하여 인간을 도살함으로써 그들은 식인종다운 흡혈귀다운 야비한 쾌감을 만족 시켰습니다.

미제 야만들이 우리 형제 자매를 학살한 형태의 특징으로 되는것은 공판 과정에

서 두명이 폭로된 바와 같이 두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즉 하나는 학살의 집단성 대량성이며 다른 하나는 극악 무도한 잔인성입니다.

피소자들 자신이 한결같이 고백하며 증인들이 언명하는 바와 같이 미제 야만들과 그의 더러운 충복들은 한자리에서 단꺼번에 수백명씩을 학살하였습니다. 즉 해리손의 지휘밑에 미군 30여명과 같이 본건 피소자 4명이 모두 참가한 1950년 10월 18일 오후 6시경 로동당 신천군당 앞마당 구뎅이에서 미군의 손에 의하여 휘발유에 불을 달아 학살함에 있어서는 주민 900여명이 희생 되였습니다.

피소자 허필순은 이 희생자들의 구성에 관하여 남자가 약 400여명 녀성이 약 300명 및 유아들과 로인이 200명가량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동월 19일 밤 1시경 신천군 주변 전호에서 감행되였고 피소자 리두현이 직접 참가한 학살에 있어서는 320여명이 한자리에서 무리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10월 20일 밤 피소자 허필순 최한우 등이 역시 미군 중위 해리손의 명령에 따라 미군 20여명과 같이 신천군 내무서 방공호에서 미군에 의하여 방공호안에 미리 장치한 다이나마이트를 놈들이 폭발시킴으로써 감행한 학살의 희생자는 520여명이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150여명의 녀성과 유아 로인 100여명이 포함되여 있다고 피소자 허필순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소자 리두현이 참가하였고 동월 23일 오후 3시경 로동당 신천군당 전호에서 감행된 사건에서는 330여명의 주민들이 학살되였습니다. 동년 12월 7일에 있은 학살에서는 200여명의 어린애와 400여명의 녀성을 포함한 주민 910여명이 한꺼번에 무참한 죽음을 당하였는바 미군의 명령을 받들어 피소자 허필순 최한우 리두현 등이 만행에 직접 참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몇개의 실례에 불과하며 그 전부가 아닙니다.

미군 중위 해리손의 지휘밑에 미군 수10명이 언제든지 참가하여 이와 비슷한 집단적 학살이 도처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졌던것을 우리는 이 공판을 통하여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건 범죄가 띠고있는 다른 또하나의 형태상 특징을 고찰하기로 합시다.

나는 그것을 극악 무도한 잔인성이라고 위에서 말하였습니다.

미제 식인종들은 사람을 죽이되 그리 단순하게 생명을 끊는것이 아니라 희생자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참지못할 가장 큰 치욕과 고통을 주는 방법을 쓰며 끔찍스럽게 혹독하고 잔악한 야수적 수단을 써서 무방위의 주민을 참살한 것입니다.

온갖 잔인한 방법이 집단적 학살에 있어서나 개별적인 학살에 있어서나 례외없이 적용되였습니다. 이 공판 과정에서 들어난 모든 사실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가령 10월 18일의 900여명 학살은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되였습니까?

이 학살에 직접 참가한 피소자 허필순 및 기타 피소자들의 일치한 진술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군중위 해리손의 지휘밑에 미군 30여명과 소위 무장대원들이 희생자들의 두손

을 포승 또는 새끼줄로 결박하여 총창으로 구덩이에 밀어 넣은 다음 그들의 머리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소살하였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져 나오려는 사람들을 사격하였으며 아직 절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아우성소리가 소란하여 구덩이주변 흙더미를 파서 이들을 생 매장하였습니다.

악귀같은 해리손은 산사람이 흙으로 덮이우는것을 보고 만족한 듯이 자기방으로 들어갔다가 얼마후에 다시한번 현장을 검열하였습니다.

10월 20일의 520여명 학살에서는 보다더 잔인한 방법이 적용되였습니다. 희생자들의 옷을 벗기고 이들을 방공호 속에 몰아넣고 그 출입구를 널판과 흙으로 밀폐하여 질식을 강요하다가 방공호안에 미리 장치해 두었던 다이나마이트 2개를 미군의 손으로 폭파시켜 몰살 시켰습니다. 이때 현장에서 이 학살을 친히 지휘하던 해리손은 이 학살을 집행한 자기 수하의 인간 백정들에게 담배를 한대씩 권함으로써 만족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7일의 910여명 학살에 있어서는 2개 창고를 리용하여 한 창고에는 소년 소녀만을 다른 창고에는 성년자를 분간하여 감금하고 이들의 머리 위에 조짚을 덮고 역시 휘발유를 뿌려 불을 놓은 한편 100여개의 수류탄을 투하하는 방법으로 학살하였습니다.

신천군이 적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직후 이 주검의 창고를 발굴할때 참가하였던 증인 김민석은 자기가 직접 본 시체의 모양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처음 창고문을 열어 보니 문앞에는 어린애들의 시체가 첩첩히 있었는데 모두 문으로 나오자고 애쓴 흔적이 분명하였습니다.

얼어 죽고 굶어 죽은 시체와 함께 불에 탄 시체도 많았습니다. 그 대부분의 어린애들의 손톱은 전부 빠지고 피투성이로 된채 있었으니 그것은 그들이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벗어져 나려고 온갖 애를 다쓰다가 그만 쓸어진 흔적임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창고에 감금되였다가 탈출할 수 있은 증인 김순모는 자기가 겪은 창고내에서의 형편을 이 자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는증언하기를 희생자들에게는 며칠간이나 밥은 물론이고 물 한목음도 주지 않아 굶주림과 엄동 추위는 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참한 현상은 젖먹이 어린애와 아동들의 춥고 배곯아 우는소리였는데 어머니의 젖은 나오지 않고하여 그의 아우성 소리가 더 높아졌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야만적 학살 방법은 집단 학살에서 뿐만아니라 개별적 도살에 있어서 더욱 악독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증인 우말 치의 진술을 들으셨습니다.

1950년 10월 18일 이 증인의 부락인 신천군 초리면 월산리에 침입한 미군 20여명과 리승만 괴뢰군 10여명은 그날로 이 증인의 가족 7명을 전부 학살하였습니다. 이 증인의 남편 박도세는 모범 농민의 한사람이였는데 다만 그 한가지 리유로 이 농민의 코와 귀를 철사로 꿰뚫고 량손에 총창을 꽂고 이마에는 모범 농민으로 받았던 표창을 못으로 박아붙이고 동리로 끌고 다니면서 『빨갱이는 탄환이 아까워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이 식인종들은 떠들었습니다. 자기 시아버지에 대한 이 야만적 행동을 저지하려고 하던 증인 우말제의 며누리 리옥봉에게 미국 군인들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 쥐고 겁탈을 하려 하였으며 완강한 반항을 받게되자 미제 야수들은 이 녀성을뒷산 기슭 밤나무에 결박하고 그의 국부에 휘발유에 적신 말뚝을 꽂고 불을 놓아 태워 죽였습니다.

증인 리복배가 진술한 다른 사실도 이와 못하지 않습니다. 미군은 신천군 온천면 운봉리에 거주하는 가정부인 오명화를 체포하여 세살먹은 그의 아들을 품에서 때앗아 타살하였으며 임신 7개월중의 동부인에 대해서 태아를 떨구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을 진대 죽이겠다고 야비하고 비인간적 협박을 가하다가 단연한 거절을 당하자 이 부인을 동리 뒷산에서 총살하였습니다.

증인 김현춘 소년이 제공하는 다른 사실에 의하면 증인은 구사 일생으로 살아났으나 자기 식구 부모를 위시한 14명은 전부 미국 식인종 병정들에게 악착하게 학살당하였으며 또한 미군은 초급중학교 학생으로서 소년단 위원장을 하였다 하여 17세의 리병조 소년을 체포하여 새끼로 뒷짐을 지워 결박한채 반듯이 눕혀놓은 다음 그의 연약한 목우에 말장을 가로 질러 놓고 좌우에서 널뛰듯이 하여 눌러 죽였습니다.

이 증인은 이 장소에 같이 끌려나가 자기 죽음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만큼 옆에서 참혹하게 생죽음을 당하는 그 소년의 눈과 코와 귀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최고 재판소 재판원 동무들!

이상의 몇 가지 실례는 물론 그전부가 아니며 또한 특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 더 말할 필요는 없을까합니다. 모든 증인들은 자기의 가까운 가족과 친지가 이처럼 처참한 죽음을 미국 식인종들에게 당한 여러 사실을 말할때 격분과 비통으로 충만된 눈물과 흥분이 그들의 진술을 여러번 중단시키는것을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나는 이 야수같은 만행을 서슴치 않고 감행한 미군 식인종들과 이 순간에도 이 지구위에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계의 보통 사람들은 무한한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에 의한 대량적 주민학살을 미제 침략자들은 실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감행하였다는 사실이 이 공판을 통하여 역시 명백하게 실증되였습니다.

신천군에 미제 침략군대가 침입한것은 1950년 10월 17일이였는데 그 익일인 18일에 벌써 미군 중위 해리손은 소위 유•엔군을 대표한다는 자격으로써 회의를 소집하고 자기의 보조부대로 조직한 무뢰한들의 한무리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은 주민학살 즉 국가 기관 복무자 사회단체 활동가와 그 가족들 및 인민군대 가족들을 전멸하라는 명령을 주었고 피에 굶주린 미군은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피소자들과 증인 오태신 김만석들의 진술은 이 학살명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한바 900여명 320여명 520여명 330명의 집단적 학살 사건이 모두 미 침략군대가 신천군에 침입한 첫 수일간에 감행되였다는 시기

적 특징은 곧 미군의 미리부터의 계획이 집행되였다는 사실을 더욱 확증해 주는 표징으로 됩니다.

이 모든 집단학살에 해리손은 언제든지 수10명의 미국장병과 함께 현장에 나서서 그 도살방법을 지시주고 직접 학살한 뒤에 그 장면을 자기의 사진기계로 촬영해두는 『용의주도성』도 우리는 이 점과 관련하여 옳게 리해할 수 있습니다. 미제 침략군대가 신천군과 그 주변일대를 강점하고 있을 당시 그 한 부대의 통역으로 일하였던 증인 김찬우의 증언은 미제 침략군대가 침입한 지역에서 이렇듯 주민학살을 조직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투적 수단을 밝혀 주었습니다.

이 증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신천과 린접한 재령에 1950년 10월 17일에 침입한 미군은 그익일인 18일에 재령에 거주하는 주민을 전부 집합시키고 그중에서 로인, 녀성, 어린아이들을 추려 약 2리 떨어져 있는 인민학교 교사에 몰아넣고 시내의 모든 집에는 며칠동안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질 반동 약70명을 모두어 놓고 소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라는 명목밑에 경찰서 군청 및 대한청년단들을 조직하라는 명령을하여 그것을 조직한 다음 그 매개기관에 전임통역을 두고 직접 지시 명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피소자석에 앉아있는 저 4명의 반역자 무뢰한들도 바로 이러한 미제의 음흉한 정책의 수치스러운 도구로 떨어졌던 악당들입니다. 미제 침략군대는 이렇듯 무뢰한과 조국에 대한 반역자를 사수하여 조선인민의 소멸정책을 전면적으로 감행하였습니다.

신천군에 침입한 첫 수일동안에 대량적 학살을 련이어 감행하고는 해리손은 수10명의 자기하부 병정들을 데리고 군내 각면 리를 순회하면서 부단히 지방주민을 학살한 정형에 관하여 여러번 그 순회에 동행하였던 피소자 허필순이가 자세히 진술하였고 그 지방에 거주하는 많은 증인이 이에 부합되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신천 시내에서만도 동년 10월 하순부터 11월말일까지에 신천군 용문면과 남부면의 산간 전호 및 저수지에 1, 640명 이상의 주민을 끌어내다 학살한것을 피소자 허필순이가 자인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군 강점기간중 쉴새없이 주민 학살이 계속되였고 따라서 얼마나 체계적인 인간도살이 감행되였는가를 말해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만행도 물론 조선 인민을 소멸시킬수 없었으며 조선인민의 의지를 꺾을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미제 침략군대는 영웅적 조선 인민군대 및 중국 인민지원군부대의 반격에 의하여 패주하지 않을수 없게되자 단말마적으로 더욱 무차별적 대량적 주민학살을 감행하였는바 12월 7일의 910명 학살이 그 한개의 실증입니다.

미제 식인종들은 이렇듯 잔인하고 야비한 인간도살 행위를 제손으로 감행하면서 이 무서운 범죄의 책임을 오히려 조선 인민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교활하고도 더러운 술책까지 쓴 내막이 이 공판정에서 폭로되였습니다.

피소자 허필순과 증인 오태선등의 진술에서 나타난바에 의하건대 이 야만들이 대량학살을 감행할때 희생자들의 옷을 벗기고 태워죽이는 방법을 즐겨 사용한 것은 피해자가 누구임을 모르게 하며 마치 공화국 지방주권 당국이 후퇴할시에 이렇게 한것을 놈들이 발견한것처럼 가장하려는 흉책이였다는 것이며 미제 식인종들이 패주시에 원자탄을 쓴다고 위협하여 인민들을 강제로 남으로 이동시키던 사리원 해주간 통로에서 미제 야만들은 비행기로써 기총소사 함으로써 30, 0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대량도살하여 놓고는 놈들은 조선 인민군과 중국 인민 지원부대들이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오는 것을 살상한것이라고 황당무계한 방송을 하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자애』를 부르고 성경을 든 다른한 손으로 간교하게 주민 도살을 조직 지휘한 목사와 신부의 특수 부대를 리용한 사실도 이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 것이 분명합니다.

최고재판소 재판원 동무들!

미제 야만들과 그 앞잡이들이 감행한 본건 학살사실의 몇가지 특징은 간단히 이러합니다.

이렇듯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감행된 주민학살은 그 자체로 보아서나 미제 침략군대가 강점하였던 모든 지역에 공통적 현상이라는 사정을 고려할때에 있어서나 여사한 범죄가 몇몇 미국 사령관이나 지휘관 또는 전사들의 특수한『과격』행동으로 간주될수 없다는 점은 자명한 바입니다.

이러한 범행은 미제국주의 지배층의 의사와 지시에 의하여 맥아더 릿취웨이 클라—크를 포함한 조선 전쟁의 도발자들과 수행자 및 개별적 집행자 전체를 일관하여 지배하는 계획적 정책의 실행이란 점이 무엇보다도 명백합니다.

나는 주민학살 이외에도 미제침략군대가 신천군 강점기에 감행한 수다한 범죄사실을 여기에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녀성들에 대한 강간과 비인간적 릉욕 행위와 또는 주민들로부터 현금을 강탈하며 몸에 찬 시계를 눈앞에서 떼가는 강도 행위등에 관하여 증인 오수복 김찬우 배면식등의 각 증언과 피소자 최한우의 진술등으로써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미제 야만들이 조직 지휘한 본건 범죄에 조국을 배반하고 미제와 결탁한 피소자들이 어떤 정도로 가담하였는가를 밝히면서 이들이 마땅히 져야할 개별적 책임들에 관하여 말하려합니다.

먼저 지적하여야 할것은 비록 본건 범죄의 조직지휘자이며 직접 실행자의 괴수가 미제 침략군대라 하더라도 이 사정은 그들의 더러운 충복으로 되여 이 범행에 직접 참가한 반역자인 피소자들의 책임이 엄중함을 조금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째로 피소자 허필순이 본건 범죄에서 논 역할입니다. 이 더러운 반역사는 미제 침략군대가 신천군에 침입하던 시초부터 미제 침략자 날강도들의 앞잡이로서 놈들이 조직한 무장『학생대의 대장』으로 가장 악질적인 만행을 계속 실행하였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백정은 1950년 10월 18일의 900명 학살 사건에서 해리손의 명령

밑에 무장대원 10여명을 직접 지휘하여 희생자를 구뎅이에 몰아넣었을 뿐만아니라 소살의 운명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직접 15발의 사격을 가하여 총살하였습니다.

10월 20일의 520명 학살사건에도 해리슨의 지시에 의하여 무장대원 10여명을 동원하여 경비에 배치하였으며 용문면과 남부면의 산간진전호에서 1 640여명을 학살한 범죄에서도 역시 무장대를 인솔 지휘하여 자기가 휴대하였던 엠원 보총으로 수십명을 제손으로 학살하였고 희생자들의 호송과 살해 및 매장에 직접 참가하였습니다.

12월 7일의 910명 학살사건에서는 경비를 지휘함과 함께 자기가 소지하고 있었던 15개의 수류탄을 그 창고안에 직접 던지는 악독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조국에 대하여 반역적이며 인간의 량심을 찾아볼수 없는 죄악을 범한후 이 피소자는 자기가 받아야할 인민의 심판을 모면하려고 패주하는 적들과 함께 도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제 침략군대가 근거하고 있는 서해안 순위도에 미군 정탐 기관의 훈련과 지령을 받고 1951년 1월 하순경 다시 또 신천군에 잠입하여 공화국의 국가적 군사적 비밀을 탐지 수집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 공판에서 명백히 되였습니다.

이 피소자는 어린 시절부터 쟁투와 도적질을 일삼는 무뢰한이고 부랑자이였는바 드디어는 공민의 영예를 미제 침략자에게 팔고 악귀와 같은 식인종의 한 졸개로 화하였던 것입니다.

피소자 최히우도 미제 침략군대가 신천군에 침입한 첫날부터 이 식인종 도당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0월 18일 및 동월 20일과 12월 7일 전기 학살 사건에 있어 해리슨의 지시에 따라 모두 무장을 하고 경비를 섬으로써 이 범행을 직접 공동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이밖에 1950년 11월 21일경 이래 수차에 걸쳐 수십명의 미국 식인종들과 같이 구월산 인민유격대 「토벌」에 참가하여 진정한 애국자인 유격대원 4명을 희생시켰고 적 강점 기간중 3차에 걸쳐 신천군 인민위원회 상공과장을 비롯한 애국인사와 그가족 20여명을 직접 체포하여 학살케 하였습니다.

또한 이 반역자는 적 강점시기에 소위 신천경찰서 수사계원으로 있기전 얼마 동안 소위 신천 군청 관재계원으로 있었는 바 미제 침략군대를 앞세우고 국가기관의 창고 안에 있는 재산을 불법 처분 분배하고 공민들의 개인재산을 대량적으로 위협 강탈하여 자기의 상전 미제 침략군대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역시 패주하는 미제 침략군대를 뒤따라 도주하였던 무뢰한은 황해도 백령도에서 미제 정탐기관에 간첩으로 고용되여 공화국의 국가적 군사적 비밀을 탐지전달할 목적으로 1951년 1월 다시 신천군에 잠입하여 정탐 공작에 광분하였습니다.

피소자 리두현도 역시 미제 침략군대가 신천군에 침입한 시초부터 그들의 강점기간중 일관하여 미제 식인종들의 충실한 노복의 역할을 담당하고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10월 18일의 학살사건에 있어서 해리슨의 명령밑에 무장 경비를 서는 한편

살륙의 구덩이에서 탈출하려는 희생자들에게 대하여 보총 5발을 방사하였으며 10월 19일 320명의 학살 사건에서도 경비를 담당하고 보총 3발을 발사하였습니다.

그후 10월 23일의 330명 학살사건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놀았습니다

끝으로 피소자 윤명원은 미제 침략군대가 신천군에 침입한 이후 놈들이 조작한 소위 무장대의 대원 또는 『대한청년단』의 단원이되여 10일 18일 및 12월 7일의 학살사건에 직접 참가하였습니다. 이 두번의 집단학살에 있어서 피소자 윤명원은 무장 경비를 담당하여 이 범행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그 이후 인민군대의 진격에 따라 도주하였다가 서해안 순위도에서 미제 정탐기관의 고용간첩으로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1951년 1월중순 정탐과 파괴의 임무를 띠고 신천군에 무장 침입하여 광분한 가운데서 동년 2월 초순에는 두라면에 거주하는 로동당원 유가족 2명을 학살하였습니다.

최고재판소 재판원 동무들!

피소자들은 이상의 모든 사실을 이 법정에서 상세하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피소자석에 앉아있는 저 인간의 찌꺼기 식인종의 졸개들에게 아직도 한조각의 량심이라도 남아있어 무서운 자기죄행을 후회하는 징조로써 간주될수 있겠습니까!

물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범죄가 감행된 신천군에 지금도 여전히 조선인민이 살아남아있고 당신들이 친히 심문한 여러 증인들 뿐만 아니라 생생한 목격자 피해자가 허다하게 현존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피할수 없는 증거와 사실앞에 할수 없이 취해진 패배로써 만이 이 피소자들의 태도는 설명됩니다. 이 피소자 4명의 본건 학살 범행은 1951년 4월 17일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조에 해당하며 피소자 허필순 최한우 윤명원의 간첩행위는 형법 제71조에 해당되는바 이 법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가장 엄중한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나는 국가 검사로서 미제 침략자를 반대하여 조국의 자유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조선 인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리고 문명과 도덕과 량심을 귀중한 것으로 알며 평화와 자유를 애호하는 세계 보통사람의 한사람으로서 당신들의 정의로운 판결이 반드시 이 요구를 만족시켜 줄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재판원 동무들!

동시에 나는 당신들의 판결이 다만 저들 피소자의 이미 지나간 범죄에 대한 형벌을 선고하는데만 오직 국한되여서는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피소자석에는 본건 범죄의 진정한 조직자 지휘자들이 앉아있지 않습니다. 해리슨과 그 졸개 뿐만아니라 그를 조종 지휘한 미제 침략자의 여러 두목 원흉이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반대한 그들의 죄악을 세계 인민은 결코 잊을수 없는만큼 멀지 않아 그들의 현재 우리앞에 있는 저 피소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본사건에서 내릴 당신들의 판결로 하여금 그들 조선 전쟁에서의 모든 범죄의 두목들과 새로운 세계전쟁을 방화하려는 일체 원쑤들에게 엄숙한 경고가 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조국을 배반하고 외래 침략자의 노복으로 되는 버러지 같은 무리들로 하여금 자기의 필연적 운명을 이 피소자들에 대한 판결에서 똑똑히 찾아볼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재판원 동무들!

전체 조선 인민과 세계 평화 애호인민들은 당신들의 판결이 일치한 이 요망을 만족시켜 주도록 확신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검찰소 검사 안병진

1952년 5월 29일

평 양 에 서

2. 동서 해안의 공화국 지역 섬들에서 감행한 미제의 극악한 만행

우리 조국에 무력 침공을 감행한 미제 고용병들과 리승만 역도들은 그들이 강점한 모든 곳에서 평화적 주민들에 대한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다.

특히 놈들은 동 서 해안의 공화국 지역의 여러 섬들을 강점하고 이곳에 사는 평화적 주민들에게 잔인하고 포악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각 섬을 강점한 미제 살인귀들은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 생활하고 있는 평화로운 어민들을 아무런 리유도 없이 무참하게 학살하였으며 잔인무도한 고문과 강간과 폭행을 감행하고 그들의 재산과 가옥들을 략탈 파괴하였다. 오늘 미군과 괴뢰군 해적들이 물러간 여러 섬들에는 그들의 강점 기간과 특히 이 섬들에서 물러가면서 감행한 만행의 흔적들이 력연히 남아 있다. 놈들은 더우기 자기들의 이러한 범죄의 흔적을 말살하려고 더욱 포악한 진멸 수단을 썼다. 그러나 그들이 범한 흔적은 부분적으로나마 남아 있으며 요행히 죽음의 마수를 벗어나 살아 남은 인민들의 입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다.

전쟁 전에 인구 293명이 거주하고 있던 강원도 원산시 려도, 영도, 신도에는 지금 한 사람의 주민도 볼수 없다.

정전 직후 이 섬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 섬에서 동물이라고는 다만 고양이 두마리밖에 발견하지 못했으며 한채의 집도 한척의 쪽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려도 비행장 근방에는 놈들이 인민들을 화장한 백골이 두 줄로 무수히 산적하여 있으며 그 옆에는 보기만 하여도 몸서리치는 기름과 불에 끄슬린 쇠말뚝과 휘발유 드람통이 원쑤들이 이곳에서 인민들에게 무엇을 하였는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섬 중앙에서 바닷가로 가는 모래위에는 맨발 벗은 헤아릴 수 없는 발자국 들이 찍혀 있고 그 중에는 어린애들의 발자국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작은 발자취들이 수 많이 섞이여 있었다.

이 흔적들은 원쑤놈들이 이 섬에 살고 있던 선량한 인민들을 학살하고 도망할 때에는 집에 불을 지르고 인민들을 강제로 랍치하여 갔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하고 있었다.

1950년 9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약 3년간 황해도 송화군 석도를 강점한 미제 야수들은 이 섬에서 천인공노할 가지가지의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중 살아 남은 사람들에 의하여 직접 목격된 일부 국한된 사실만 하여도 그 실례는 허다하다.

1951년 1월 초순에 원쑤놈들은 로동당원이라고 지목한 5명을 청룡리와 석도 사이에 있는 수심이 가장 깊은 곳으로 끌고 가서 포승으로 사지를 묶은채 이를 바다

물에 넣어 학살하였으며 1951년 2월 초순에는 석도 해변가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30 여명을 일렬로 세워놓고 보총으로 일제 사격을 하여 학살하였다。 또 이와 동일한 때에 놈들은 애국적 인민 10 여명을 체포하여다가 석도 남쪽에 있는 산 위에서 총살 하였으며 1951년 4월에는 괴뢰군 해병대 선박 3척에 약 6백명의 인민들을 싣고 바다로 나가서 산채로 수장해 버리였다。

놈들은 또한 석도의 농민들로부터 수 많은 량곡들을 수탈하였는바 동도에 주둔하고 있던 미제 고용병 4백 여명이 거의 전부 동도 주민들로 부터 수탈한 량곡으로 생활 했으며 가축을 발견하는 대로 잡아먹은 까닭에 섬에는 놈들의 강점 후 수일이 못지나서 소, 돼지는 물론· 개와 닭에 이르기까지 한마리도 볼 수 없게 되였다。

놈들은 또한 섬에 하나 밖에 없는 인민 학교를 파괴하고 인민 학교의 시설들로써 전호를 장식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심지어는 인민들의 웃장 150 여개까지 강제로 징발하여다가 파괴하여 전호 담벽을 장식하는데 사용하였다。

놈들이 이 섬에서 감행한 부녀자들에대한 폭행과 인민들을 강제 로동에 동원하여 혹사하고 학대한 사실은 일일이 다 렬거할 수 없다。 괴뢰군 해병대 수명은 심지어 자기들의 앞잡이로 리용하는 목사의 딸까지 릉욕하고 륜간하였다。

놈들은 이러한 죄악을 엄폐하며 석도 인민들을 모주리 랍치할 목적으로 1952년 4월 말경에는 군사 기밀이 루설된다는 구실하에 황해도 여러 지방들, 즉 송화군, 은률군, 신천군, 재령군 등에서 랍치해 갔던 사람들을 다시 군산, 인천, 목포 등지로 강제 이송하였다。 인민들을 강제 이송하기 위하여 수척의 미군 군함이 동원되였다。 놈들은 강제 이송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협박하고 고문 학살하였으며 총칼을 가슴에 대고 위협하여 군함에 실어 갔다.

이리하여 1천 7백명의 인구가 살고 있던 석도는 지금 황폐된 무인도로 화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원쑤들의 죄행은 원쑤들에 의하여 랍치되여 1951년 1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석도에 있은 황해도 송화군 덕안리의 리창억과 홍인엽 등에 의하여 알려진 극히 일부분의 사실들이다.

황해도 옹진군 어화도에서 적들은 옹진반도 해안 지대 각지에서 랍치하여 온 인민들을 무수히 학살하였는바 그 중 송룡녀, 김순녀, 최경선 등에 의하여 목격된 사실만 하더라도 어화도 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 최달성을 비롯한 남자 29명, 녀자 10명을 학살하였다. 피에 굶주린 미제 살인마들은 이 무고한 인민들을 랍치하여다가는 중세기적 악형을 다하고 부녀자들을 강간한 후에 학살하였다.

최경선이 말한 바에 의하면 원쑤들은 인민들을 학살할때에 그들 자신은 총을 가지고 가고 인민들에게는 삽과 괭이를 들고 가서 고혈을 파게 한 후 그 위에 총살하여 구덩이에 쓸어넣은 후 파묻지도 않고 버리고 도라오군 하였다. 놈들은 이섬에서 이러한 학살을 30여차에 걸쳐 감행하였으며 학살 당한 사람은 9백 여명에 달한다.

또한 학살 당한 사람들에 대한 고문은 90 여차에 달하였으며 부녀자들에 대한 강간은 8회에 달하였다.

또한 송룡녀가 말한 바에 의하면 원쑤놈들은 『빨갱이』들이 쳐들어 오니까 피난 가라고 주민들을 강제로 『피난』시킨 후 주민들이 집을 비여 놓은 사이에 가축들을 략탈하는 비렬한 도적질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어화도의 한개 부락에서 만도 축우 12두, 돼지 30두, 말 1두가 략탈되였다. 놈들은 심지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봉기 14대까지 강제 징발하여 갔으며 학교 시설을 전부 략탈하고 그 죄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학교에 방화하였다.

어화도에서도 놈들은 주민들을 기만과 공갈 협박으로 남쪽으로 전부 랍치하였는데 전쟁 전에 인구 1천 3백 75명이던 이 섬은 지금 그 10분의 1로 인구가 축소되였다. 놈들은 인민들이 이송을 반대한다 하여 주민들의 가옥과 재산들에 전부 방화하고 말았다. 그러나 전부 불타버린 이 섬에도 적들의 모진 탄압과 만행을 이겨낸 주민들이 아직 살고 있으며 해방된 그들의 머리 위에는 조선 인민의 승리와 희망의 상징인 공화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이번 전쟁의 승리의 결과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옹진 반도 남쪽의 여러 섬들에서도 원쑤들의 극악한 만행은 조금도 서슴없이 감행되였다.

룡호도에서는 적들이 리 위원장과 자위대장을 갖은 악착한 방법을 다하여 고문한 후 학살하였으며 이 섬에서 철퇴할 때에는 자기들을 따라갈것을 거절한 인민들 5명을 학살하였다.

강령군 무도에서도 6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으며 옹진군 순위도에서 살고 있은 조창회를 아무 리유도 없이 체포 구금하고 고문한 끝에 그가 자기들의 말에 순응하지 않는다 하여 1952년 12월 15일 순위도 동바위 앞에 생매장하였다.

이 밖에 적들은 이 섬들에서 도합 량곡 근 40톤, 의류 4천여점, 가축 360여두, 기타 가재 도구 480여점을 략탈하였으며 가옥 2천 9백 여동과 공공 시설과 기타 시설 4천 6백 40 여개소를 파괴 소각하였다.

또한 적들은 이 모든 섬들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을 랍치 혹은 강제 이송하였는바 주민의 수는 전반적으로 20% 이하로 감소되였으며 소수 압도, 무도, 장제도 등에는 한 사람의 주민들도 남아 있지 않다

적들의 만행은 평남도 내의 각 도서들에서도 혹심하게 감행되였다.

특히 인민 군대의 일시적 후퇴 시기에 남조랍도와 북조랍도를 강점한 미제 야수들은 이 섬이 다시 인민 군대에 의하여 해방될 때까지 주민들을 학살하고 파괴와 략탈을 한없이 자행하였다.

북조랍도에서는 16명의 남자와 부녀자 22명을 학살하였다. 미제 야수들은 11명의 유아와 10명의 인민 학교 학생들을 『빨갱이』라는 명목 밑에 생매장하여 학살하는 귀축과 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량곡 20톤과 의류 540점, 가축 26두를 략탈하였으며 주민들 85명을 랍치하여갔다. 미제 해적들은 평북도의 각 섬들을 배회하면서 섬의 주민들을 학살하고

인민들의 재산을 략취 파괴하였다.

선천군 애도에 상륙한 미제 살인귀들은 불과 11일간에 66명의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그 중에는 부녀자 23명과 유아 8명, 인민 학교 학생 5명, 50세 이상의 로인들 12명이 포함되여 있는바 해적들은 이들을 학살함에 있어서 몸에 돌을 달아 산채로 수장하는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놈들은 량곡 12톤과 의류 6천 4백여 점, 가축 47두, 기타 50여 건을 략탈하여 갔으며 가재 45건을 파괴 소각하고 주민들 1천 8백 여명을 랍치하여 갔다.

선천군 신미도에서도 적들은 그들이 강점한 13일간에 43명의 주민들을 학살하였는데 그 중 태반은 로유 부녀자 들이였다.

특히 인간 도덕의 반역자들인 미제 침략군은 신미도에서 170 여명의 부녀자들을 강간하였으며 30 여톤의 량곡과 1만 여점의 의류와 1천 1백 여두의 가축을 략탈하고 기타 현금과 면화 등은 주민들로부터 강탈하였다.

신미도에서도 6백 70 여명의 주민들이 랍치되였다.

이 밖에 내강도에서는 부녀자와 유아 14명을 포함한 18명의 주민들이 학살되였으며 대화도에서는 8명, 우리도에서는 2명, 쌍령도에서는 4명, 덕도에서는 5명의 주민들이 각각 학살되였다.

평북도의 대 소 12개의 섬은 그 어느 하나도 피해를 받지 않은 섬은 하나도 없었다.

더우기 평북의 각 섬들에서는 주민들을 랍치하여 가는 현상들이 현저하였는바 외장도, 쌍령도, 적지도, 능도, 소화도, 대화도, 란도, 대가차도, 소가차도, 가도 등은 완전히 무인도로 되였으며 기타의 대부분의 섬들에서도 적들은 다만 불구자들과 로인들 만을 남기고 전 주민들을 총칼로 공갈하여 몰아 갔다.

함남도 마양도, 화도, 제도, 호도, 모사도, 그리고 함북도의 양도 등에서도 적들은 37명의 주민들을 학살하였으며 수다한 량곡과 가축들을 략탈하고 파괴와 방화를 감행하였다.

이와 같이 원쑤들의 피묻은 발이 미치는 곳은 그 어느곳이나 피비린내가 풍기고 평화로운 주민들의 원한 많은 아우성이 사무치였다. 미제 무력 침공자들은 학살과 악형으로써 조선 인민을 정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어떠한 만행도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궐기한 강의한 조선 인민을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원쑤들이 물러간 모든 도서들에는 검고 우울한 구름이 걷히고 광명한 햇발이 솟아 올랐다. 인민들은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깃발 밑에서 승리의 개가도 드높이 희망에 가득 찬 새 생활을 꾸미기 시작하였다.

3.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제네바 협약과 국제법을 란포하게 위반하고 조선에서 감행한 만행

1,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조선에서 감행한 세균전

미국 정부가 세균전을 진행한 죄행을 더 한층 실증하기 위하여 조 중측은 19명의 미국공군 전쟁 포로들의 세균전에 관한 공술을 발표하기로 결정 하였다. 본래 조 중측이 입수한 각종의 확실한 증거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자들의 조사, 그리고 이 전에 발표된 미국 공군 전쟁 포로들이 공술한 사실들은 이미 미국 정부가 1951년 겨울부터 조선의 평화적 인민들과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 지원군을 대량적으로 살해 할것을 목적으로한 세균 무기를 대 규모적으로 사용하였으며 1952년에 이르러 또 대규모적으로 중국 령공에 침입하여 세균을 산포 함으로써 중국의 평화적 주민들을 살해하려고 시도 하였다.

현재 19명의 미국공군 전쟁 포로들의 공술의 발표는 미국 정부의 이러한 인류 도덕을 위반하며 국제법 원칙과 국제 공약을 파괴하는 가장 횡포하고도 가장 야만적인 행위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임을 더욱 증명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일찌기 1941년에 세균전 방법에 관한 대 규모적인 연구를 시작 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또한 일본의 세균 전범자 이시이 시로 등의 협력 밑에 일본 군벌의 세균전 방법의 연구를 계승함으로써 각종 형태의 세균 무기 제조 방법을 발전시켰다. 미국 정부는 조선 전쟁을 도발한 이후 세균 무기를 연구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 한층 강화 하였다.

미국 최고 군사 당국은 동시에 조선에서 세균 무기로써 세균전을 진행할 것을 착착 준비 하였다. 포로된 미국 공군 대좌 마후린이 공술한 바에 의하면 1950년 가을, 공군 부장 사무처 부주임 티얼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었다. 『합동 참모부 의장 브래들리 장군, 공군 참모장 반덴버그 장군, 륙군 참모장 콜린스장군과 해군 작전부장, 쉘만장군 과 같은 고급 군사 지도자들은 모두 세균 무기가 이미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이러한 무기의 범주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편의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비록 조선 전쟁이 그 당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할찌라도 장래는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 미래의 정세를 판단하기는 곤난한만큼 세균전 계획은 바로 시험적인 발전 계단에 들어가고 있다』. 마우린은 또한 다음 사실을 공술하였다. 즉 그는

1950년 11월에 명령을 받고 매리랜드주 프레데리크에 있는 데트리크 병영에 가서 직접 대단히 규모가 큰 하나의 중심적인 세균탄 연구소를 보았다. 그는 세균탄의 작렬과 세균 이동물에 대하여 치명적효과를 주는 것을 실험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설치한 직경이 약 60피트나 되는 속이 빈 강철로 만든 둥군 용기와 또한 각종 농작물병균의 보온 배양실 과 화학연구 실과 세균을 배양하며 저장하기 위한 실험실이 있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비행기가 투탄 후 각종 생물에게 준 영향을 판단하는 데 사용 하기 위한 몇개의 넓은 광장이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는 또한 직접 한개의 세균탄을 실험 적으로 작렬 시키는 것을 보았다. 포로된 미국 공군 대좌에반스도 그가 공군학교에서 학습할 때에 세균 무기를 발전시킬 데 관한 강연을 들은 바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1951년 9월 중순에 매리랜드주 볼리티모아에 있는"연구 및 발전 지휘부"로부터 온 1명의 연구 분석가는 우리들에게 2차에 걸쳐 각각 한 시간 동안의 강연을 하였다. 이러한 강연은 현재 바로 시험 중에 있는 각종 발병 세균과 이를 산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였다』.포로된 미국 공군 소위 커는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다.

1952년 3월 20일 훈련 중대장 맥킹타이어 소좌는 세균전의 력사적 배경에 관하여 강연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 전쟁 직전에 이르기까지 세균 무기는 아직도 대 규모적으로 사용된 일이 없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일본인들은 비교적 소규모로 중국 인민에 대하여 세균전을 진행 하였다. 전후 미국 정부는 본국의 과학자들을 시켜 전쟁 기간 중 이미 시작된 이러한 종류의 세균전 연구를 강화 했으며 외국과 학자들의 협력 밑에 그들은 종래에 없었던 최대의 규모로써 이것을 발전 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 나라 정부가 우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군대만으로는 도저히 조선에서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는 곧 세균 무기를 사용할 것을 결정 한다』.

이것도 역시 미국이 인류를 살륙할목적을 가진 죄악적인 이러한 세균 무기를 연구 하고 이를 발전시키며 또한 제조 하기 위하여 장기에 걸쳐 계획적 준비를 진행 하여 왔음을 증명하여 준다, 그러므로 미국 정부가 세균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제네바 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거듭거절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조선을 침략한 미군은 세균 무기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조선 인민군 및 중국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에 대하여 천인 공노할 세균 무기 실험을 진행한바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미군 제 1091호 세균전용 살륙정은 1951년 3월 중에 원산 항밖에 정박하여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에-대하여 세균 무기를 실험했다. 얼마 후에 이 살륙정은 또한 거제도에 정박하여 동일한 죄악적인 활동을 진행 하였다. 동년 5월 18일 부 유•피통신이 폭로한 사실에 의하면 그들은 전쟁 포로들의 체내로부터 입과 창자의 병균 배양물을 얻어 매일 동 선박상의 실험실에서 3,000 여회의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그 결과 이 섬에 있던『12만 5천 여명의 북 조선 전쟁 포로 중에서 1천 400명은 중병에 걸리 였으며 그 나머지 가운데서 약

80%는 모종의 질병에 걸리 였다」. 미국 정부는 련속적인 부단한 연구와 죄악적인 실험을 거친후 이 미 세균전을 진행할 데 대한 완전한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 침략군이 조선의 전쟁 마당에서 군사상의 패배를 당하게 되였을 때 미국 합동 참모부는 조선과 중국에 대하여 세균전을 진행할 것을 결정 하였다. 포로된 미군 해군 륙전대 제1공군 련대 참모장 쉬버는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다. 「조선에서 세균전을 진행할 데 대한 전체 계획은 미국 합동 참모부가 1951년 10월에 내린 지시에 의한 것이다」. 포로된 미국 해군 륙전대 제1공군 련대 병기과 장교 플라이, 제4 전투 재격기 대대 대대장 마후린 및 제58 전투 폭격기 련대부 련대장에 반스가 각각 공술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조선에서 세균전을 진행한 것은 1951년 겨울부터인 것이다. 미국이 조 중 인민들에 대하여 감행한 세균전의 목적은 이러한 참혹한 작전 방법으로 조중 인민들을 위혁하고 미 제국주의자들이 당한 군사 상의 실패를 만회해 보려는 데 있는 것이다.

마후린은 다음과 같이 공술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정전 담판이 이 계획(세균전 계획)의 영향을 받으며 이로부터 한개의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기대 하였다」. 미국 공군 전쟁 포로 커는 다음과 같이 공술 하였다. ……그들은 세균전이「전염병을 일으킴으로써 전선 부대와 후방의 인적 자원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인민의 사기를 극도로 저락 시켜 작전의 지반을 포기케 하리라는 것을」망상하였다. 또 하나의 공군 전쟁 포로 프리크는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그들은 세균 전으로써 그 공군의「교살전」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망상 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중국과 북조선 군대는 수량상 절대 우세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들의 군대는 이에 거의 대응할 수 없다 .아울러 그들의 복구 공사의 정형은 극히 량호하며 보통의 폭탄으로써는 그들을 살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살해 할수 있는 일체의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요는 우리들이 세균탄을 효과 있게 사용하는데 있다」.

여기에 있어 1951년 겨울부터 미 국 군대는 조선에서 세균전을 시작 하였다. 1951년 12월에 미국 합동참모부는 더 나아가 압록강 이북에서 세균 무기를 투하하는 임무는 역시 세균전 계획 내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결정하였다. 마후린은 다음과 같이 공술 하였다. ……「1952년 1월 10일부터 우리들은 세균무기를 투하하라는 임무에 대한 정기적인 지령을 제5 항공대 사령부로부터 받기 시작 하였다. 내가 제51련대에 있었을 때 우리들은 매달 평균 10차에 걸쳐 세균 무기를 투하하라는 임무에 대한 지령을 받았으며 그 중2, 3차는 압록강 이북에 가서 이를 집행 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시 받았던 것이다」.

중국의 령공을 침범하여 임무를 집행하는 공군 인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심사 선발이 진행 되였다.

마후린은 다음과 같이 공술 하였다. 「압록강 이북을 비행하는 임무는 그가 가지는 위험성에 비추어 반드시 경험 있는 비행사를 파견하여 임무를 집행케 하였다」.

미국 공군 전쟁 포로 건노와 헴메트는 더욱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자기의 죄행을 엄폐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의 령공을 침범하여 세균전을 진행한 미국 공군 인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당신들이 만주 경내에서 격추 당할 때는 즉시 세균 탄을 투하 하라. 그리고 당신들을 포로한 자에게 대하여는 이것은 당신들이 항로를 잘못잡은 데 기인한다고 말 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세균탄에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미군이 중국에 침입하여 세균전을 진행한 목적은 중국의 평화적 인민을 대량적으로 살해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중국을 침략하며 중국 인민의 안전을 위협하려는데 있다. 프리크는 다음과 같이 공술 하였다.

미군 당국은 공군 인원에 대한 강의 중에서 로골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쟁을 성공적으로, 또한 신속히 종결시키려면 북조선과 중국 동북에서 세균전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의 보급선은 중국 동북과 조선을 관통하고 있다.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보급 물자가 전선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여야 하며 우리들은 그들의 인적 자원을 대량 적으로 살륙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계속 효과적으로 조선에 물자를 수송하지 못하게끔 하여야 하며 우리들은 중국과 조선 인민의 의지를 꺾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전쟁 정지를 요구케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 조선에서 세균전을 개시한 1951년 겨울 이후 규모는 날로 확대 되였다. 제5 항공대 사령관 버커스가 구두로 전달한 세균전을 확대할 데대한 지시에 의하면 그들은 조선 반도 중부를 관통하는 한개의『감염 지대』를 설정하고 이로써 그의 소위『교살전』계획을 배합하여 우리측의 보급선을 파괴하려고 시도 하였던 것이며 이 악독한 계획을 실현 시키기 위하여 미국 공군은 방대한 력량을 동원 하였으며 아울러 세균전의 분공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였다.

즉 해군 륙전대 제1 공군 련대는 이 목표 지구의 좌익, 즉 신안주와 군 우리 지대를 책임 졌으며 공군은 군 우리로부터 동해안에서 30마일 떨어진 지구를 책임지였으며 해군은 우익을 책임 지였다. 1952년 미국공군 제3 경폭격기 련대, 제17 경폭격기 련대 제4 전투재격기 련대, 제51전투 재격기 련대, 제8 전투 폭격기 련대, 제18 전투폭격기 련대, 제49전투 폭격기 련대 제58전투 폭격기 련대 제474 전투 폭격기 련대, 해군 륙전대, 제1 공군 련대 등도 모두 전후하여 세균 전에 참가하였다. 세균전에 참가한 비행기는 비 29형 폭격기, 비 26형 폭격기, 에프 51, 에프 80, 에프 84, 에프86 및 해군 륙전대의 야간전투기 등의 전투 폭격기 및 전투기 들이 였다.

세균을 산포하는 수단도 극히 교활하였다. 즉 세균을 산포하는 임무와 보통 폭탄을 투하하는 임무는 함께 혼합되여 동시에 집행 되였다. 이리하여 조 중 인민에게 쉽사리 발각되지 않도록 하였다. 세균을 산포함에 있어서는 미국 공군은 세균이『효력을 용이하게 나타낼 수 있는』곳에 산포되도록 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었다. 즉 세균은 인구가 조밀한 지방과 군대 집결 지구와 같은 곳에 산포 되였으며 혹은 세균 무기를 교통상의 요충 지, 점공도 및 철로, 교량 가설지에 산포 하였으며 공

도 및 철로가 파괴된 후에 즉시 세균을 산포함으로써 철로 복구로동자들이 질병에 걸리게 하여 공도 및 철로의 수리 회복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이를 저애케 하였다. 다음으로서는 세균을 하천과 음료수에 산포함으로써 수원지에 감염케 하여 직접 조 중 인민과 군대를 대량적으로 살해 하려고 시도 하였다. 1952년 미군은 중국 동북에 대한 세균전 공격을 더욱 강화 하였다.

국제 과학 조사단의 조사 보고서와 미국 전쟁포로들의 공술은 이를 충분히 증명하였다. 다만 1952년 2월 29일 부터 3월 21일에 이르는 기간에만 하여도 중국 령공에 침입한 미국 비행기는 도합 1백 75회, 9백 55대에 달하였다. 침입한 지구는 료동, 료서, 길림, 송강, 흑룡강성등의 70개현구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비행기들은 기총소사와 폭격을 감행하여 주민을 살상하고 민가를 파괴한 이외에 또한 병균과 병독을 가진 곤충과 기치류동물 및 기타 물체들을 산포하였다. 3월 이후 미군은 중화 인민 공화국 주은래 외교부장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중국 령공에 침입하여 죄악적인 세균전을 진행하고 기총 소사와 폭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조선 인민군과 중국 인민 지원군 및 조 중 인민이 세균전 박멸을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세균전 계획은 완전히 실패를 당하였다.

1952년 10월, 미국 공군 사령부 작전부장 화이트는 포로된 안드리에 케이。에반스를 조선에 파견하여 제5 항공대가 진행하는 세균전의 정형과 효과를 관찰케 하였다. 1952년 11월 미국 공군 참모장 반덴버그는 직접 조선에 가서 제5 항공대 사령관 버커스의 동반하에 세균전 집행의 정형을 검열하였다. 반덴버그는 세균전의 효과에 대하여 실망하였다. 그는 제5 항공대에 대하여 전투 폭격기를 극히 잘 사용하여 야간에 세균전을 진행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아울러 버커스에게 야간에 세균 무기를 투하하는 임무의 비중, 무기의 보급량, 목표의 선택 및 훈련을 거친 비행사의 수효등 항목의 문제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작성할 것을 책임지웠다. 에반스는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다. …『3개의 에프 84형 항공 련대와 1개의 에프 80형 항공 련대가 이 계획에 모두 참가하여야 한다』. 매일 밤 2개의 련대를 파송하였으며 매개 련대는 각각 8대의 비행기를 파송하여 일체 야간 작전 행동을 진행케 하였다. 매개 련대의 8대의 비행기 중의 2대는 세균전 부문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1953년 1월 10일 부터 제5 항공대는 워싱톤의 직접적인 획책 하에 신안주에 대한 대규모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공격중에서 매개 전투 폭격기 련대와 해군 륙전대 각 항공 대대가 매일 출동시킨 비행기 중에서 각각 세균 무기를 적재한 4대의 비행기를 포함시켰다. 비29 비행기 중 매일 2대는 반드시 세균 무기를 적재하였다.

이 공격은 련속 5일에 걸쳐 진행되였으며 가장 많은 날은 매일 비행기 480대를 동원시켰으며 이것은 조선전쟁 행정에서 미군이 진행한 일찌기 보지못한 횡포한 죄행의 하나이다.

미군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중국 경내에서 세균을 산포한 방법과 세균

무기의 종류는 극히 많다. 면밀한 조사와 포로된 미국 공군 인원의 공술에 의하면 그 중에는 5백 폰드 폭탄형 세균탄과 1천폰드 폭탄형 세균탄, 락하산형 세균탄 『문』형 세균탄, 기름 상자형 세균 용기등이 포함되였으며 이 밖에 분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미국 공군은 이미 세균전의 계획을 정규적인 비행 훈련중에 포함시켰다.

세균전에 참가한 미국 공군 인원은 자기 본국에서 떠나기 전에, 혹은 일본과 조선에서 모두 세균전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복잡한 정신적 훈련과 비행기 조종 절차에 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다. 그 일반적 내용은 세균전 진행의 목적, 세균전의 력사, 세균 및 세균 무기의 종류, 그리고 세균전 진행에 대한 각종의 가능한 방법 등이다.

미 제국주의 자들은 그 세균전 진행의 죄행을 엄폐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밀 보존 제도를 규정하였다.

세균전에 관한 과정을 강의할 때, 교관들은 항상 공군 인원들에게 훈계하기를 과정의 내용은 『절대 비밀』의 것이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에 관하여 말할 수 없으며』, 『이에관한 여하한 서면 자료도 남겨두어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정황하에서도 "세균"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말하였다.

임무를 집행할때에 호령과 명령 전달 및 회보등에 있어서는 반드시 『특수 선전』 『불발 폭탄』, 『특수 문건』, 『특수 임무』등의 대용 부호와 암호로써 『세균탄』과 『세균전 임무』를 표시하도록 교관들은 지시하였다.

비행사들은 모두 만일 기밀 보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사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미국의 일부 공군 전쟁 포로들은 그들이 포로되여 있는 기간 내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하여, 또한 조중측의 시종 일관한 전쟁 포로 관대 정책에 감동하여 미군이 진행시킨 세균전의 사실을 공술하였으며 미국 정부가 비겁하게도 인류에 대하여 세균을 사용한 악독한 계획을 폭로시켰다.

따라서 조 중 측이 마치 공술을 강박하였다는 듯한 어떠한 공담도 모두 반박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미제 침략자들이 세균전을 진행시킨데 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의 항의 성명과 그리고 1952년 3월 8일부 중화 인민 공화국 중앙 인민 정부 주은래 외교부장의 성명에 근거하여 이러한 전쟁 포로들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였다. 그러나 조 중 측은 그들이 모상관의 명령을 집행하는데 관계되였으며 또한 세균전을 획책하고 발동한 주요 책임자가 아님며 아울러 그들이 범죄를 범한 이후에 있어서 자기들의 죄행을 솔직하게 공술하였으니 만큼 그들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할것을 결정하고 그들 전부를 송환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조 중 측의 인도주의적인 관대한 정신을 다시한번 표시하였다.

상술한 제 사항들은 모두 미국이 조 중 인민에게 감행한 천인 공노할 세균전 만행에 대한 엄연한 사실들이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들은 어떠한 공담 또는 어떠한 비렬한 거부 수단에 의하여서도 전복될 수 없는 것이다.

(1) 미 항공 중위 케네트 이노크의 자백서

1951년 8월 마지막 두주일동안 나는 일본 이와구니에 있었다.

바로 8월중에 제3폭격 련대는 조선 군산으로 이전하는 때였으며 이전한 곳은 지상 학교였다. 이 련대는 9월 초에 군산으로 이전하였다.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지상 학교의 임무는 비행 지도등 과정을 훈련한다고 함)내가 이와구니에 있을때 미국내에서 약 15개의 새로운 항공 전투소조가 지상 학교 학습에 참가하였다.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매 소조 인원수는 4명 계 60명) 그 학교의 학과 내용은 4,400전투 인원 훈련 대대 학교 (4,400씨•씨•티•지)의 학과 내용과 다른것이 없으며 우리들 항법사들이 배우는 것은 항법 비 26 및 조선에 대한 과목과 문제들이 였는데 그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 공작을 더욱 숙련케 하였으며 작전 비행을 더욱 잘 준비케 하였다.

1951년 8월 25일 오후 1시 우리들은 지상학교 항법반 교실에서 비밀 교수에 참가하였다. 지금 내가 기억하는 바는 10명의 조종사와 15명의 항법사들이 청강에 참가하였다. 조종사 중에는 브르톤 중위, 슈밋트 중위와 레매크 대위가 있었으며 항법사 중에는 브라운 중위, 하되 중위, 데코우 중위, 걸린쓰끼 중위, 카빈 중위. 라손 중위와 내가 있었다.

나와 랑글리 비행장에서 같이 공작하던 사람 이외의 기타 조종사와 항법사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였으며 교수를 담임하는 사람은 비군사인원 (보통 평민)이였고 이름은 윌손 선생이라고 하였다.

그 외의 딴 교관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윌손 선생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담임하는 학과는 세균 전쟁에 관계있는 학과이며 비록 당시에 세균전을 사용할 계획은 없었으나 앞으로 사용할 시기가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이 과목은 비밀 정보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이 과목에 대한 내용을 루설하여서는 안되며 또 우리 수강자 중에서도 론의할 것을 허락치 않는다고 하였다.

윌손 선생이 교수하는 주요 부문은 전문적으로 세균전에 소용되는 무기에 대한 강좌였다.

그 자신이 비록 표본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으나 그는 여러가지 세균 산포 방법을 말하였으며 또는 세균 산포와 곤충 및 동물을 투하하여 세균을 전파하는 등에 론급하였다. 윌손 선생의 교수내용은 아래와같다.

세균 자체를 산포하는 방법

(1) 먼지와 세균을 만재한 폭탄을 투하하며 이 폭탄은 공중에서 터져서 바람의 힘을 받아 세균이 섞인 먼지가 산포된다.

(2) 분무기의 장치를 리용하여 비행기에서 직접 먼지를 산포한다. 그러므로 이 먼지를 산포한 곳에는 공기중에 세균이 포함되여 있다.

(3) 또는 세균 먼지를 만재한 용기와 폭탄을 투하한다. 이런 종류의 용기는 수중에서 터질 수 있으며 또 물의 침습으로 터질 수 있는 두터운 종이 곽을 쓸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폭탄과 용기를 저수지 또는 연못에 투하한다. 이런 곳의 물은 사람과 동물들이 모두 음용하며 또 부근 곤충들로 하여금 세균을 전파시킬 수 있다.

곤충을 투하하는 방법

(1) 외형이 보통 폭탄과 같은 세균탄을 투하한다. 이런 폭탄에는 세균을 포함한 곤충을 만재하여 투하한 후 지면에 접촉되면 곧 터져서 곤충들이 기여나오게 된다.

(2) 두터운 종이로 만든 용기에 곤충을 만재하여 투하한다. 이 용기는 지면에 투하되자 곧 터져서 세균을 포함한 곤충은 지면에 흩어진다.

(3) 또는 동물로써 곤충을 산포한다.

동물로써 곤충을 산포시키는 방법

(1) 락하산이 장치된 용기로써 쥐, 토끼, 또는 기타 작은 동물들을 투하하며 이 용기들은 지면에 떨어진 후 곧 이런 동물들을 헤쳐놓게 된다. 이 동물들은 전신에 세균을 보유한 이와 벼룩을 가지고 있다.

(2) 또는 선박을 리용하며 이런 종류의 동물을 적 후방 해안 륙지에 펴쳐 놓을 수도 있다.

기타 세균 산포의 방법도 있다.

(1) 세균이 묻은 삐라, 수지, 봉투 또는 지제품을 투하한다.

(2) 세균을 보유한 비누, 또는 의복 등을 투하한다.

(3) 세균이 있는 잉크가 든 만년필을 투하한다.

(4) 혹은 세균이 있는 식물들을 적군부대 에 투하한다.

또는 류탄포와 박격 포탄 중에 세균을 넣어서 발사할 수도 있으나 이는 전선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와 지므로써 자기 안전에 불리하다.

능히 산포할 수 있는 세균의 종류는 매우 많은데 자주 듣지 못하는 이상한 세균외에 몇가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질병의 세균을, 례들어 말 한다면 발진 티브스, 장질부사, 코레라, 리질, 페스트, 천연두, 말라리아 및 황열병 등의 병균을 모두 쓸수 있다. 동시에 세균을 보유할 수 있는 곤충도 역시 각종 각색이 있다. 가장 보통적인 것으로서 이, 벼룩, 파리와 모기가 있다. 이, 벼룩과 파리는 모두 발진 티브스, 코레라, 천연두, 페스트와 리질 병균을 보유할 수 있으며 모기는 말라리아와 황열 병균을 보유할 수 있다.

세균탄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준비가 있는 것이다. 전체 인원들은 반드시 능히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왁찡』 주사를 맞아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만약 곤충들이 투하 되였을 때 석유 또는 기타 유류를 뿌려 불질러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곤충들이 이미 용기로 부터 기여 나갔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지대에 디 • 디 • 티를 산포함이 가장 좋으며 될 수 있으면 비행기로 뿌리게 되면 더욱 좋

은것이다. 만약 세균이 섞인 먼지가 투하 되였을 때이면 더욱 디·디·티를 산포하여야 하며 로출되였던 모든 음식물은 반드시 깨끗이 없애 버려야하며 또 의복과 물건은 반드시 더운 물과 약용 비누로써 씻어야 한다. 음료수, 또는 용수는 반드시 끓여써야 하며,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하며, 호흡시에 입과 코는 마스크로 보호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끝난후 반드시 목욕하고 의복을 바꿔입어야 한다. 일체 세균이 기생 또는 번식 하기 쉬운 쓰레기와 물 등은 곤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주…(다음의 해석은 종혜란 의학박사 로부터 쓴 것이며 종씨는 원래 런던 황가 열대 의학 및 위생 학원의 회원으로서 독일 함부르그 열대병 학교의 연구원이다. 그는 현재 내과학 교수이며 지금 중국 열대병 및 전염병의 일류 전문가이다)

『발진 티브스의 병원인은 릿켓차병원체이며 말라리아의 발생은 말라리아 원충으로써 발생된다. 천연두와 황열병은 두개의 상이한 로과성 병독으로써 되는 것이다. 미국 포로 자신이 의무 공작자가 아니므로 그는 이 병원과 전염병의 세균을 혼돈시켜 말하였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그는 디·디·티의 용도에 대하여서도 잘못 말한 것이 있다』.

여름철에 전체 창문은 반드시 모기장을 발라야 하며 어떤 형편에서 든지 쥐 등 작은 동물들은 벼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박멸함으로써 페스트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만약 지제품 또는 이와류사한 물품들이 투하되였을 때 곧 소각하여 버려야 한다.

세균 무기를 사용할 때에 산포한 세균을 상해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비행기의 고도와 속도는 더욱 낮고 더욱 뜨게 함이 가장 좋은것이다.

만약 락하산이 장비되여 있는 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어떠한 고도에서도 모두 쓸 수 있으나 너무 높은 고도에서는 적합치 않다.

가장 좋은 고도는 1,000피트의 높이가 가장 적당하다. 이는 투하된 락하산으로 하여금 목표 구역으로 부터 멀리 날아가는것을 방비할 수 있다.

윌손 선생의 교수가 끝날때 벌써 오후 3시였으며 그는 다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람에게도 세균 무기 문제를 말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우쳐 준 후 교실을 떠났다. 이런교수를 우리들은 단지 한번밖에 받지 못하였으며 1951년 9월 1일에 나는 군산으로 갔다.

1951년 10월중 및 12월 중에 군산에서 전후 두번이나 세균전 방어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매차 1시간씩). 교관은 브라우닝 소좌였다.

그의 강의는 경상적으로 실시되며 사람마다 반드시 한시간씩 들어야 한다.

10월중과 12월 중에 강의한 내용은 다 같은 것이였으며 이강의를 경상적으로 실시하는 원인은 항상 교대 계획이 있는 관계로 부단히 새로 오는 부대들이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가 강의하는 내용이 매개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브라우닝 소좌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적들이 우리에게 세균전을 할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리유없는 추측이 아닐것이다 만약 그들이 사용케 되면 그들은 세균 먼지 또는 세균을 보유한 곤충을 사용할 것이다 그는 더욱 강조하기를 우리들은 언제나 경상적으로 또 제때에 방역 주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매 6주간 1차라고 함) 그는 또 내가 이미 이재료의 제3페지 제2단 중에서 말한 것들과 관계되는 기타 여러가지에 언급하였다.

(이노크의 자필 자백서의 제3페지 제2단을 말함——편집자 주)

1952년 1월 1일 대대 작전처의 훈련관은 우리들의 경상적인 훈련 중에서 말하기를 매차 임무 수행 후 반드시 우리가 투하한 일체『폭발하지 않는 폭탄』(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소위『폭발하지 않는 폭탄』의 뜻은 곧 세균탄을 말함이다.『폭발하지 않는 폭탄』이란 이름으로써 세균탄의 이름을 대신한 것은 그 의의가 비밀 보수에 있음)이 투하된 곳을 보고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것들은 원래 보통으로 되는 공작 순서였으나 그 당시에서 본다면 경상적인 깨우침이 였다.

이런『깨우침』은 대대 훈령관 캐리 대위로부터 폭격 출발 임무를 주기전에 주는 훈령시에 전체 인원에게 진술하는 것이다.

이날 저녁에 나는 두통으로써 출발하지 않았으며 다른 항법사가 대신하였다.

나의 제2차 준비된 비행 임무는 1952년 1월 6일이였는데 우리들에게 8호 록색 항선 (평양과 사리원간)을 따라 비행할 것을 규정하였다.

일정표에 근거하여 우리들은 야간 3시에 출발하였다. 임무 수행자들은 조종사 아모스 대위, 항법사인 나 자신과 기총 사수 츠레이시 군조 였는데 보통 때와 같이 아모스 대위와 나는 밤중 2시에. 즉 출발 한시간 전에 대대 훈령부와 대대 작전처 사무관에게 가서 도착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우리들은 항상 여기서 기후의 측정과 임무 집행에 정보를 듣게 된다.

이날 밤에는 내가 모르는 직일관 한사람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은 지금 황주군으로 비행할것이며 동시에 나래 밑에 안치된 2개의 폭탄을 투하한 후 될수 있는 한 속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타 폭탄들을 투하하고 군산으로 도라 올것을 지시하였다.

그는 또 말하기를 황주에서 투탄시 비행 고도는 반드시 500피트로 하고 비행 속도는 최대 속도 매시 200마일로 하여야 된다고 하였다.

우리들은 그에게 이러한 비행 고도가 적합한가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는바 그것은 우리들은 훈령에 의하여 500파운드 폭탄 10개를 적재하게 되였기 때문이였다.

그는 또 다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세균탄이기 때문에 극히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이번 임무는 절대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도 알려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래 밑에 이미 폭탄이 장치되여 있으며 벌써 우리를 대신하여 검사를 마쳤으니 다시 가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갔다 와서는 나래 밑에 장치된 폭탄을『폭발하지 않는 폭탄』으로 보고하면 된다고 말하였

다. 그후 우리들은 중대 작전과에 가서 기총 사수를 찾았으나 지금 내가 알기는 그는 대대에 도착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또 이것이 특수한 임무라는 것을 알지 못 하였다.

우리들이 비행기에 오를 때에 군기처에서 파견된 보초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우리에게 나래 밑에 있는 폭탄이 검사 되였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미 아는 일이며 우리들은 탄창에 있는 6개의 폭탄을 검사 하였다.

이것은 6개의 보통 500파운드의 폭탄이였다.

3시가 된 때에 우리들은 출발하여 황주로 갔다. 황주군 서쪽에 그 2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당시 아무 폭음도 없었으며 또 어떤 특수한 것도 보지 못하였다. 그후 우리들은 계속하여 2분 동안 북으로 비행하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8개의 폭발성 폭탄을 황주 북쪽 5마일되는 대로 상에 투하한 후 곧 군산으로 귀환하였다.

우리들은 3시에 떠나 4시에 폭탄을 투하한후 5시에 군산에 착륙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나의 처음으로 들은 세균탄 투하의 일이였으며 우리들은 이를 비밀로서 보수하였다.

나로서 볼 때에 이런 세균탄들은 완전히 500파운드의 폭탄과 같았으며 낮에는 능히 현저한 특점을 볼 수 있으나 내가 본 세균탄은 밤이였었다.

나 자신으로 이런 폭탄을 장치한 적이 없으며 또 다른 사람이 장치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

나래에는 특수한 설비가 없으므로 세균탄의 적재도 역시 다른 보통 폭탄의 적재와 다름이 없었다.

우리들의 대대 정보처에 이 임무 수행의 정황을 보고할 때 우리들은 보고하기를 황주에서 2개의 500파운드 짜리 폭탄을 투하하였다고 하였다. (실지 세균탄의 무게는 150파운드이다) 동시에 보고에서 이는『폭발하지 않는 폭탄』이라고 불렀다.

그와 함께 우리들이 가진 8개의 좋은 폭탄을 어느 곳에다 투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2개의 폭탄이 보고 중에서『폭발하지 않는 폭탄』이라고 불리워짐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이번 폭격의 목적을 알리우지 않게함이였다. 그러나 더 고급 사령부에서는 능히 이런 보고를 고찰할 수 있으며 또 어느 곳에 세균탄을 투하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1월 10일 우연적인지 또는 계획적인지 알 수 없으나 또 그와 같은 임무를 아모스, 츠레이시, 나와 세사람에게 주었었다. 이때 아코스와 나는 먼저 대대 작전처에 가서 도착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우리에게 나래 밑에 적재한 4개의 폭탄이 모두 세균탄이라는 것을 알려 주었다. 이번에 목표는 8호 록색 황선에 있는 중화였다. 세균탄을 투하한 후 될수 있는한 속히 휴대한 전체 폭탄을 투하하고 기지로 돌아올 것을 알려 주었다. 우리들은 역시 이번 임무에도 비밀을 지켰으며 또 보고 중에서 세균탄을『폭발하지 않는 폭탄』이라고 불렀다. 우리들의 폭탄 투하시

에 최대 항속은 시속 200마일이였으며 우리들의 비행 고도는 500피트이였다.
역시 전과 같이 군기처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래 밑의 폭탄을 검사하였으며 우리들이 중대 작전과에서 츠레이시를 불러 곧 비행장으로 갔다.
나래 밑의 폭탄은 역시 보통 폭탄과 같았었다. 군기처의 사람 하나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래 밑의 폭탄으로 근심할 필요는 없으며 이미 전부 준비되여 있다고 하였다. 나는 탄창 속에서 기타 폭탄들을 검사하였다. 3시 정각에 떠나 중화군으로 향하여 4시 10분에 500피트의 고도 및 시속 190마일의 속도로써 중화군 서쪽에 우리들의 세균탄을 투하한 후 우리들은 계속 남쪽으로 날아 황주 북쪽 대로 위에 기타 보통 폭탄을 투하하였다. 그후 군사기지로 귀환한 착륙시는 5시 10분이였다.
우리들이 돌아와서 임무 집행의 정형을 보고할 때 우리들은 어느 곳에서 좋은 폭탄 6개를 투하하였다는 것과 동시에 중화군에서 4개의 『폭발하지 않는 폭탄』을 투하하였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원인은 비밀 보수를 위하여 상술한 바와 같다.
이노크는 다음에 세균탄의 도형을 기입하였다. (도형에는 길이 48인치 직경 14인치, 탄피의 두터이 8분의 1인치의 세균탄 단면도가 표시되였는데 세균 곤충 용량은 3.000——5.000마리이며 중량 150파운드라고 기입되여 있다)
이상 도형은 우리가 사용한 세균탄 도형이다
우리는 이 세균탄이 방역 와찡을 제조하는 것과 같은 의약 공급처에서 만들어 왔다고 인정된다. 이 공급처는 일본에 있는바 본주에 있지 않으면 구주에 있으리라고 믿는다. 만일 이와같은 우리가 투하한 세균탄이 사용되어 그가 지면에 접촉될 때에는 즉시 터지며 세균과 곤충을 로출시킨다. 외계의 기후가 차면곤충은 곧 움직이지 않고 있거나 혹은 행동이 완만하게 될 것이지만 태양의 열로 말미암아 그들은 활약하게 된다. 삐라는 비 29폭격기로부터 북조선에 던졌다. 이러한 삐라는 곽속에 넣어서 투하한 것이다. 곽은 공중에서 터지며 삐라를 가장 큰 지역에 산포하였다. 이러한 삐라는 세균전 가운데 사용한다.
세균탄을 투하할 때에 조종사가 책임지고 투하하며 항법사가 책임지고 세균탄을 투하한 시간과 지점과 수를 기록한다.
세균탄 투하는 전기 스윗치로 조종하는 것이다.
임무를 완수한 후 비행 인원이 대대 정보처를 향하여 임무 집행 정형을 보고할때에 모든 전체 비행기의 임무 집행 인원은 이 보고에 참가한다. 그러나 다만 조종사와 항법사로부터 발언하는바 이것은 일종의 비공식 보고다.
비행기 전체 인원은 모두 테불 하나에 둘러 앉아 첫보초에서 파견되여 온 한 병사에게 보고를 한다. 그는 보고를 듣고 내용을 종이에 기록하고 이 기록은 그의 상급에게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세균탄을 보고하는 데서 세균탄을 『폭발하지 않는 폭탄』이라고 칭하게 되는 원인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권리를 맡기지 않은 정보 인원과 비행 인원이 이러한 비밀을 모르게 되는 것이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비 26형 비행기는 다만 보통 세균탄만을 투하하는 데 사용한다. 이러한 세균탄은 얼른 보면 보통 폭탄과 같다.

결국 비 26은 기타 종류의 무기를 투하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때라는 비 29형 및 씨 46형과 씨 47형 수송기로 투하하는 바 주요한 것은 비 29로 투하하는 것이다.

수송기는 기타 류형의 세균 무기를 투하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다.

례컨대 두터운 종이곽, 락하산 달린 용기 및 의복, 식물, 비누, 종이와 만년필 등이다. 비 29도 이러한 무기를 투하할 수 있다.

우리가 어느때부터 세균탄을 사용하였는가 하면 대략 년초이다.

즉 대략 1952년 1월 1일인듯 하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폭발하지 않는 폭탄』에 대하여 주의하라는 통지를 받은 날자이기 때문이다. 대개 기타 단위인 제 452 폭격 련대 같은 데서도 동일한 시간에 세균전이 진행되였다.

물론 세균탄을 사용하는 결정은 극히비밀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의 엄중성에 비추어 틀림없이 최고급 사령부에서 결정되였을 것이다 동경 극동 사령부의 결정일수도 있다.

케 네 트 엘 • 이 노 크

1952년 4월 7일

(2) 미 공군 중위 쫀퀸의 진술서

나의 이름은 쫀퀸이다. 미국 공군 중위이며 군호는 17,993에 이, 년령은 29세이다. 나는 1948년 2월 16일 미국 공군에 참가하였는데 그때 내 나이는 26세였다. 우리 집은 칼리포니아의 바싸이나에 있었다.

나는 1949년 2월 25일 비행 학교를 졸업한 후 공군 대학에 파견되여 갔다. 그곳에서 6주일간이나 학습하였는데 과정 명칭은 『학과 교관 과정』이라는, 학과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데 관한 것이다. 학습이 끝난후 나는 그 학교의 학과 교관처에 가서 공작하였다. 나의 공작은 조리관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학과를 가르칠때 어떻게 사진, 도표, 영화, 환등을 잘 사용하는가를 가르쳤다. 내가 극동 공군에 가서 조선에 파견되여 비 26형 비행기의 조종을 기다리라는 통지를 받았을때에는 아직 공군 대학에서 학과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1951년 8월 25일 먼저 랑글리 공군 기지에 가서 도착을 보고하고 비 26형기를 어떻게 조종할 것을 학습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나는 그 곳에 8주일 동안이나 있다가 쓰톤맨 병영에 파견되여 출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쓰톤맨 병영에서 나는 장질부사, 발진티브스, 코레라, 천연두의 예방 주사를 맞고 비행기로 미국을 떠나서 1951년 11월 27일 일본 하네다 비행장에 도착하여 다시 후주의 비 지구에 가서 조선에 파견되기를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11월 29일까지 기다리다가 나는 명령을 받고 기차로 일본 남부의 아시

야 공군 기지에로 갔다. 기차로 하루 밤을 가서 30일에야 목적지에 도달하였다. 이날 우리는 씨 47형 수송기로써 조선 군산 공군 기지에 도달하였다. 나는 제 3 폭격기 련대 제3 대대 제8중대에 파견되였다.

이 제3대대는 제8중대, 제 90중대, 제13중대 등 3개 중대를 포함하고 있었다. 군산에는 이 1개 대대만 있었다. 1951년 12월 17일, 나는 제8중대의 전령실에 가서 도착된 것을 보고하고 게시판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을 보았다. 다음날 9시에 청강을 가라는 것이다.

다음날도 명단에 이름이 있는 항법사 레이슨과 함께 가서 청강하라는 것이다. 이번 상학은지상 학교대 건물에 있는 한간 넓은 방안에서 진행되였다. 그곳에 30명의 자리가 가득 찼다. 실내에 20명이 있는데 모두 조종사와 항법사이다. 나와 레이슨 이외에 또 로벗즈 소위, 슈왓즈 중위, 로저스 중위, 왓슨 중위, 롱 대위, 다피 대위등은 모두 항법사들이다. 호와스 대위, 란드 대위, 슈밋트 중위, 비슨 대위, 로벗슨 대위, 밀리스터 중위들은 모두 조종사다.

레이슨과 나는 커피를 마시고 갔기 때문에 몇분간 늦었다 기타 모든 사람들은 벌써 그곳에 있었다. 말을 하고 있든 대위는 우리가 지각을 하였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듯 하였다. 그는 우리 때문에 또 한번 중복하였다.

이번 과목은 가장 중요하고 기밀에 속한 것이므로 자세히 들어야 하며 하학 후에 토론도 못하고 우리들간에서도 토론을 못한다고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강의할 사람은 일본에서 왔는데 한개 전문가라고 하였다. 뒤이어 강의할 사람을 소개하였다. 그는 군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인데 이름은 아쉬포르크 선생이라고 하였다. 아쉬포르크 선생은 중년인으로 년령은 40세, 여위고 큰 키가 5피트 10인치나 되며 두발의 대부분은 빠졌다.

그는 강의할 때 먼저 우리에게 생물 전쟁을 강의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생물 전쟁은 가장 무서운 일이다. 본래 이런 것을 생각하여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원자탄 시대에 과학의 발전이 빠르므로 우리도 반드시 수시로 이에 응하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장래 사태가 어떻게 변화될는지 항상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자위를 준비하여야 하며 또 반드시 필요한 때에 세균 전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는 세균 전쟁을 다년간 연구하였다고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싶다고 말하였다. 먼저 그는 우리에게 세균을 전파하는 방법이 가장 많다고 말하였다. 세균은 어느 지방에서 어느때든지 산포할 수 있으며 산포할 설비도 벌써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에게 공중에서 세균 자체만을 뿌릴 수는 없다고 말하였다. 햇빛이 직접 내려 쪼이는 밑에서는 세균이 60초 이내에 죽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균은 여러가지 상이한 곤충과 설치류의 동물을 통하여 전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곤충과 설치류 동물은 실험실이 있는 조건 밑에서 여러해 동안 배양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느때 어느 곳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 밑에서도 능히 생

존할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는 몇가지 세균을 전파하는 방법을 들었다. 례를 들면 먼지를 리용하여 연기와 같이 뿌릴수가 있고 선박이 해안에 가까이 하는 것을 리용하여 해풍이 해안을 향하여 불 때도 전파할 수 있으며 저공 비행하는 젯트식 비행기를 리용하여 산포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떠한 종류의 젯트식 비행기든지 사용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또 말하기를 세균은 의복에 붙어 있는 벌레, 벼룩, 파리, 이, 모기등을 리용하여 전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벌레는 여러가지 방법을 리용하여 투하할 수 있으니 곽을 사용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이다. 곽은 햇빛을 받아 변하여 터지기 쉬우며 벌레가 기여나오게 할 수 있으며 또 폭탄을 사용하여 투하할 수도 있다.

기왕 우리가 비 26형 비행기를 조종하는 이상 그는 우리에게 폭탄으로써 세균을 전파하는 방법을 자세히 말해 주겠다고 하였다. 뒤이어 그는 젯트식 비행기 (에프 84)를 그린 도면 한장을 우리에게 뵈여 주었다.

그 비행기는 나래 끝에 달고 있는 휘발유 통에서 세균을 포함한 먼지를 내뿜고 있었다. 그는 벌레가 붙은 낡은 의복을 찍은 사진 한장을 우리에게 뵈여 주었다. 그 벌레들은 얼른 보면 파리와 이가 의복에서 기여 다니는 것 같았다. 이러한 벌레는 의복안에서야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 말하기를 이러한 벌레는 선택하여 배양하여야 추위에 견딜 수 있으며 먹지 않고도 오래 살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후에 그는 세균 폭탄을 던지는 사진을 우리에게 뵈여 주었다. 이런 폭탄은 신관이 없으며 우리가 평시에 휴대하고 다니는 500파운드 폭탄과 극히 비슷한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폭탄의 대소와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장치하여 놓은 물건이다. 폭탄은 격발기를 봉한 것이며 비행기에서 던져야 터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세균을 휴대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뵈여 준 것은 500파운드 폭탄의 사진인데 폭탄껍질은 두터이가 4분지 1인치도 되지 못한다.

이러한 폭탄은 여전히 실험하는 계단에 있으며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 뵈여 준 또 한장의 사진에는 폭탄이 땅에 떨어질 때 두 쪼각으로 갈라진 것이다. 다른 폭탄 한개는 배후에 (탄미부 꼬불어진 곳에 가까이 있음) 구멍이 있는데 땅에 접촉하면 곧 터지는 것이다.

그 구멍은 조그만한 전기 모터로써 터지는 것이며 전기 모터는 전지와 련결되여 있는데 전지는 폭탄이 땅에 떨어질때라야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폭탄이 땅에 닿기 전에 전지의 금속판은 한쪼각 엷은 고무판으로써 액체와 갈라 놓은 것이다. (도표 2를 참고할 것) 폭탄이 땅에 부더치는 힘으로 고무판이 터져 액체가 흘러나와 전지의 금속판에 닿게 되며 이로써 모터는 폭탄 구멍을 터지게 하는 것이다.

그는 또 한장의 폭탄 사진을 우리에게 뵈여주었다. 그것은 땅에 접촉할 때 폭탄의 미부가 폭탄체와 갈라진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뵈여 준 모든 폭탄의 사진은 얼른 보면 모두 보통 500파운드 폭탄과 같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신관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떠한 폭탄은 공중에서 터질수 있으며 곽안에 담은 벌레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면적이 비교적 넓은 땅위에 산포된다고 한다. 이러한 곽들은 햇빛을 받아 변하여 터지기 쉬우며 벌레 (파리, 벼룩, 모기) 가 기여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뵈여 준 3개의 폭탄의 구조는 똑 같은 것인데 모두 500파운드 폭탄 같고 폭탄 껍질은 얇다. 우리에게 뵈여 준 첫째 폭탄은 두 쪼각으로 갈라졌고 (도표 3을 참고할 것) 둘째는 배후탄미 가까이 구멍이 있고 (도표 1을 참고할 것) 세째 폭탄 미부는 벌써 폭탄체를 떠난 것이다 (도표 4를 참고할 것)

공중에서 터지는 폭탄은 보통 강사로써 비행기 나래 밑에 있는 폭탄 걸개에 걸어놓은 것이다. 폭탄 두부에 조그마한 라선 장치가 되여 있는 데 강사에 걸려 있으므로 폭탄을 던지기 전에는 라선 장치가 회전할 수 없다. 폭탄을 한번 던지면 강사는 비행기 위에 남게 되고 라선 장치는 자유로 회전할 수 있게 된다. 라선 장치는 1개의 발전기를 움직이고 있으며 발전기는 조그마한 전기 모터에 전력을 통한다. 내가 이상에서 설명한 모터와 같다. 먼저 배후에 있는 세 구멍 (기타 폭탄에 구멍을 터치는 것과 같음) 을 터치고 다음에 폭탄 앞구멍을 터치게 된다. 폭탄 가운데서 일어나는 바람은 곽을 불어 낼 수 있고 곽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 그는 이러한 폭탄의 그림을 우리에게 뵈여주지도 않았고 해석도 적게 하였다.

그는 세균을 어떻게 산포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어떠한 벌레든지 모두 세균을 산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는 그중 몇가지만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

만일 세균이 남조선에 전파될 때에는 우리가 자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페스트는 쥐로써 전파하나 공중에서 쥐를 던질 필요는 없다. 세균은 어떠한 물건에 넣어서 던지든지 쥐만 만나면 기여 들어갈 수 있는 것이므로 쥐는 곧 세균을 가지게 된다. 벌레는 던지기가 쉬우므로 더 많이 세균을 보균할 수있다.

파리는 발진 티브스 균과 코레라균을 보유하고 있으며 벼룩은 페스트균을 보유하고 있고 모기는 각종 열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병균을 보유하고 있는바 즉 황열병, 장질부사, 말라리아 및 뇌염 (엔세팔리티스) 같은 것이다. 뇌염이란병은 아직도 유효한 치료법이 없다. 뇌염은 일본 뇌염이라고도 하는데 일본 군대내에서 생긴 병으로 일본 군대가 처음 조선으로 가져 온 것이다.

아직도 그와 어떻게 투쟁할는지 모르고 있으며 예방하는방법은 학질을 예방하는 것과 같다. 그는 학질은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말하겠다고 하면서 기타 열병들도 류사한 방법을 통하여 모기가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우리에게 모기를 그린 큰 그림 한장을 뵈여 주었다.

이러한 모기는 본래 해로운 것은 없으나 말라리아 환자를 물었거나 혹은 시험실 안에서 말라리아균에 감염된다면유해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아래에 있는 주석은 종혜란 의학 박사가 가한 것이다.

종씨는 이전 런던 황가 열대의학 위생학회 회원이며 독일 함부르그 열대병 학원의 연구원 및 미국 실험 생물학과 의학회의 회원이다.

그는 현재 내과학 교수이며 중국 열대병 및 전염병에 대한 제일류의 전문가이다——심문자)

『각종 릿켓차 병원체의 전염 매개물은 이, 벼룩, 진두기, 잔진두기이다.

파리는 일반적 정형에 있어서는 릿켓차 병원체를 보유하지 않기 때무에 발진티브스를 전파하지 않는다. 장질부사의 전염은 반드시 곤충으로 매개되는 것은 아니다. 파리는 기계적으로 대변 속에 있는 병균을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으나 모기가 장질부사를 전염시킨다는 것은 아직 보거나 듣지도 못하였다. 이 포로가 말한 각종 질병의 전염 방법에 관하여는 어떤 점은 현대 의학 지식과 부합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 포로가 의무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전염에 대하여 물론 완전히 리해하거나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이 포로는 뇌염을 엔세팔리티스라고 하는 것을 엔시필리티스라고 말한 것도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모기가 사람을 물 때 내관이나 외관을 모두 인체내에 꽂으며 내관으로써 피를 빠는 동시에 외관으로써 일종 타액을 인체내에 주입하는 것이다. 만일 모기가 세균을 보유하였다면 세균은 타액을 따라서 물리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병이 나게 하는 것이다.

식당 벽에 붙인 어떻게 뇌염을 방지하는가를 설명한 선전화는 장식품으로 붙여 놓은 것은 아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반드시 모든 청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우기 앞으로 몇달 동안 우리가 복용할 아스피링을 나누어 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복용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을 내던져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반드시 제때에 방역 주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다 한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 강의는 9시부터 시작하여 11시 가까이 되여서 끝났다. 우리는 모두 세균탄은 폭발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폭발하지 않는 폭탄이라는 것을 알았다.

12월 31일 경상적인 전달회의에서 작전 군관이 우리에게 주의 사항을 알려 주었으며 우리가 돌아와서 정보조에 명령 집행 정형을 보고할 때에 모든 폭발하지 않는 폭탄에 대하여 보고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1월 3일 오후 2시 나는 기타 26명의 조종사와 27명의 항법사, 27명의 무전 폭격수와 27명의 기관사 (어떤 때에 이러한 기관사는 기관총수며 우리 중대 안에는 3대 비행기가 기관총수를 추대할 수 있음) 와 함께 대대부 작전과에 가서 도착하였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우리 일조에는 로저스 중위가 항법사가 되고 쎄이여 군조가 기관사가 되였다.

우리는 일기가 좋기 때문에 무전 폭격수를 가지지 않았다.

나는 우리에게 지시한 행로 (사리원으로부터 평양까지) 와 우리가 새벽 3시에 출발할 그 시간을 게시판에서 보고 베끼였다.

경상적인 명령 전달 회의는 시작되였다. 이 경상적인 전달회의에서 작전 군관은 우리에게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은 일체 비밀이며 또한 반드시 비밀적으로 처

리하여야 할 것이니 우리와 자기들을 제외하고는 말할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뒤이어 정보관은 우리에게 그 전날 밤 관찰한 차량의 통행 정형과 차량이 얼마나 폭격을 당하였으며 파괴되였는가를 알려 주었다.

륙군 련락관은 우리에게 전선 정형을 설명하여 주고 기상관은 우리에게 기후를 보고하여 주었다.

기타의 소식 풍향 및 온도는 모두 항법사가 게시판에서 베꼈다. 여러 방면으로 보아 이것은 일상적인 임무인듯 하다.

로저스, 쎄이여 및 나는 1시 5분에 대대부 작전과에서 만났다. 나는 직일을 담당하는 작전 군관이 있는 작은 방안에 들어갔다.

레이놀 대위가 숙직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나에게 나는 특수한 임무가 있는 것을 알려 주었다.

그는 내가 어떤 일보다 먼저 반드시 비행기 나래밑에 있는 폭탄을 될 수 있는대로 평양 가까운 곳에 도달하여 던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벽에 있는 지도 위의 한 곳을 가리키면서 빨간 바늘 한 개를 꽂아 놓았다. 이 위치는 평양 남쪽 5마일 지점과 주요한 대로의 동쪽 3마일 되는 곳이였다. 이 곳에 가서 우리는 우리의 경상적 임무를 계속하며 또한 될수록 빨리 완수한 후 돌아와서 정보조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내가 반드시 200피드, 또는 가능하다면 더 낮은 곳에서 이 폭탄들을 던져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폭발되고 안되는 것은 관계할 것 없으며 이것은 모두 폭발되지 않는 폭탄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우리가 들었던 세균 폭탄에 대한 강의를 생각하고 이것은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그는 모른다고 하면서 지시대로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반드시 왜 그런가 혹은 어떤 것인가를 관계하지 말라고 하였다. 나는 이것이 세균 폭탄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비행기로 향하여 갔을 때에 보초병 하나가 우리를 맞아 나왔다. 이때 나는 저것들을 세균탄이라고 판단하였다. 보초병은 나에게 비행기 나래 밑에 우리가 모두 잘 장치하였으니 관계하지 말라고 하였다.

내가 비행기를 검사할 때에 그것들을 보았으며 항법사가 말한 「비행기 나래 밑에 있는 폭탄은 모두 아무러한 신관이 없다.」 는 말이 정확한 것임을 알았다.

우리는 서로 한번 본후 명령이니 우리는 그대로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항법사에게 어느 곳에 이러한 폭탄을 던질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니 그는 지도 위에 표식을 하여 놓았다. 우리는 2시 30분에 출발하여 3시 30분에 마침 평양 남쪽에 도달하였다.

내가 길 동쪽으로 향하여 우리가 마침 다리 남쪽으로부터 200피드되는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 로저스는 꼭 이곳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비행기 나래 밑에 있는 폭탄 4개를 빨리 한번에 한개씩 련속적으로 던졌다.

이것은 모두 폭발하지 않는 폭탄이다. 그러므로 우리 두 사람은 이것이 세균 폭탄이라고 확증하였다.

우리가 4시 15분에 임무를 완수하고 5시 10분에 군산에 돌아와서 내려왔다.

우리가 비행기에서 내려 장비를 반환하고 비행기에 이상 없음을 보고한 후 대대부 작전과 정보조에 가서 명령 집행 정형을 보고하였다.

우리는 지시한 지점에서 200피드나 떨어져 있는 공중에서 폭탄 4개를 투하하였는데 모두 폭발되지 않는 폭탄이라고 보고 하였다.

그 군조는 이것을 기록하여 이날 새벽 정보 고문에게 수교하게 하였다.

1월 10일 오후 2시 나는 평상시와 같이 경상적인 명령 전달회의에서 군우리와 강계 간을 비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번 우리 일조에는 슈왓츠 중위가 항법사가 되고 쎄이여 군조가 기관사가 되였다. 우리가 출발할 시간은 이튿날 새벽 2시다.

이 명령 전달회의는 공식적으로 진행되였다.

내가 12시 30분에 작전과에 가 보고할때 나는 평상시와 같이 내 이름 있는 곁에 가서 도착하였다고 싸인하였다.

나는 또한 특수적인 임무가 있는 것을 알았다. 이번도 역시 베이놀 대위가 직일하고 있었다. 내가 벌써 한번 폭발하지 않는 폭탄을 휴대한 특수한 임무를 담임하였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때 일을 언급하면서 이번 임무도 그때와 같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다만 이번에는 폭발하지 않는 폭탄을 2개 휴대했을뿐이다. 또 이것을 군우리 동북에서 던질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벽의 지도에서 그 지점을 가리키는 데 군우리 북쪽 3마일과 철도선 동쪽 5마일되는 지점에 있다.

우리는 전과 같이 비행기 옆에서 보초병 하나를 만났는데 그는 비행기 나래 밑에 폭탄은 벌써 장치되여 있다고 말하였으며 이 비행기에 휴대한 2개 폭탄은 또 신관이 없는데 주의하였다.

나는 슈왓츠에게 우리는 응당 어느 곳에서 이 특수한 투탄을 할 것을 알려 주었다. 우리는 우리가 휴대한 것이 세균탄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2시에 출발하여 3시 25분에 군우리에 도착하였다. 나는 슈왓츠가 가르쳐 준 방향대로 굽이를 돌아서 200피드의 고도까지 내려서 폭탄 2개를 던졌다. 이것은 폭발하지 않는 폭탄이였다. 우리는 될수록 빨리 기타 임무를 완수하고 4시 10분에 출발하여 5시 15분에 군산에 내렸다.

장비를 반환하고 그들에게 비행기에 이상 없음을 보고한 후 우리는 곧 작전과 정보조에 가서 폭발하지 않는 폭탄 2개를 던진 것과 또한 그것들을 어느 곳에 던졌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 군조는 정보관에게 주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하였다.

12월 14일 나는 게시판에서 다음날 오전 9시에 지상 학교에서 청강하는 자들의 명단 가운데 나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9시에 그 곳에 갔다. 그곳은 큰 방이며 따로 25명의 군관 조종사 및 항법사들이 있었다.

비슨 대위, 슈밋트 중위, 롱 대위, 란드 대위, 호와스 대위, 라슨 중위, 슈왓츠

중위, 로벗즈 소위, 왓손 중위들이 모두 거기에 있었다.

기지 작전 군관 알렌 소좌는 그곳에 있는 군관 가운데서 가장 직급이 높은 군관이였다.

그는 강사를 소개하였다. 이 강의는 또 중요하고 비밀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강사 클라크 선생은 원자핵을 연구하는 분야에서의 저명한 물리학자이며 그는 일본으로부터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원자 전쟁에 관한 것을 강의하게 되였다. 강사는 먼저 원자 전쟁의 과학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투하한 이래 벌써 많이 발전되였다고 말하였다.

비 29형 비행기로써만 이 폭탄들을 운반하던 시기는 지나갔다. 그때와 같은 크기의 원자탄은 현재 그의 위력이 과거 그때보다 몇배나 더 커졌다. (그는 몇배란 말을 하지 않았음)

현재 이 폭탄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거의 얼마든지 크게 만들수 있다. 미국은 벌써 그들이 소위 『소형 원자탄』을 실험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그것은 폭탄과 같이 포탄으로써도 사용할 수 있다.

그는 말하기를 원자탄 두를 가진 박격포탄의 실험도 거의 완성되였다.

수소탄 제조에서도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하였다. 수소탄의 위력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탄보다 1,000배나 크다.

이러한 폭탄은 1개만 있으면 뉴욕과 같은 도시를 완전히 평지로 만들수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후에 그는 우리에게 원자탄을 사용하는 각종 상이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 그것들은 지하에서 폭발하며 광범한 지대에서 폭사선 먼지를 산포하게 투하될 수 있다.

이러한 먼지는 그와 접촉한 어떠한 생명 있는 물체에게도 치명적이며 폭사선 작용은 여러 주일 동안 능히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원자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와 같이 락하산으로 투하되여 공중에서 폭발된다.

이리하여 그 열도와 폭발 작용은 더욱 치명적으로 되나 폭사선 작용은 그렇게 지구적은 아니며 대부분은 바람에 불리워서 공중에서 사라진다. 원자탄은 깊은 물 가운데서도 폭발할 수 있으며 이것은 연해 도시에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해항 중 어떠한 해수든지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대대적으로 물을 끌어 올리며 그 물은 폭사선 작용으로 도시에 비처럼 쏟아 내린다.

이 외에 또 폭발 작용이 있으며 조수와 같은 파도가 항구를 채움으로써 커다란 파괴를 가져 온다.

폭사선 작용을 가진 구름은 지금 실험 중에 있는데 오랫동안 폭사선 작용을 유지하며 이 곳에서 내리는 비는 어느 곳에서든지 모두 생명을 진멸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미국 네바다주에서도 조그마한 원자 무기 (폭탄) 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폭격 지구 부근 (대개 2마일 밖에) 에 모두 부대가 있으나 한사람도 부상되지 않았다.

이것은 폭발력이 비교적 적고 적당한 주의를 돌렸기 때문인 것이였다. 그들은 안전한 옷을 입고 개인호 속에 깊이 들어가서 머리는 모두 위로부터 2——3피드 아래 두게 하였다. 이것은 매우 필요한 방위책이며 우리들은 왜 그런가를 리해할 수 있으리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원자탄은 세가지 광선을 발사하는바 폭탄이 폭발될 때에는 먼저 대량적인 열이 발생되며 폭발할때의 그 중심부는 수백만도나 되여 태양과 같이 뜨거우며 이 열파는 밖으로 확대되여 폭발력의 대소에 따라 반 마일 내지 수 마일까지 뻗친다.

이 외에 폭풍이 일어나는데 이 폭풍은 고성능 폭탄의 그것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 또 일종의 폭사선 작용이 일어난다.

만일 폭발 지점으로부터 폭발시 즉사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거리에 있다면 개인호는 열파와 폭발 작용으로부터 손상을 받지 않도록 방어가 될 것이며 폭사선 작용까지도 그것이 먼지와 비로서 내려오지 않는 한 방위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탄에서 발생하는 세가지 광선은 A선, B선 및 C선이다. A선과 B선은 다만 폭격 기간에만 존재하고 만일 폭발에끓어 오르는 열로 부터 안전하게 된다면 심지어 적삼 한벌 특히 연한 빛을 가진 내의 한벌을 입어도 A선과 B선에 의한 화상을 입지않는다. 옷에서 로출되는 부분, 즉 손이나. 목이나 얼굴은 폭발될 때에 폭발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부분은 화상을 입는다. C선은 폭발력의 대소에 따라 비교적 장시간을 지속할 수 있으나 개인호는 비록 옷은 소용 없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좋은 방어로 된다.

다만 연과 두터운 층의 흙만 있으면 C선을 막을 수 있다. 이 C선은 X광선과 같이 능히 모든 물체를 관통하며 골격과 혈액을 파괴한다.

그는 우리에게 사진 한장을 보이여 주면서 어떻게 개인호를 파야 할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반 인치나 두터운 연은 능히 C선을 막을 수 있으나 흙은 적어도 2피드 두터이는 되여야 C선을 막을 수 있다. C선은 거의 2피드의 흙으로 침투할 수 있다. 폭발 지점의 주위는 계속적으로 C선을 방사하고 있는바 그것은 C선의 강렬한 영향을 받은 물체들도 폭사성으로 변하여 이 선을 방사하기 때문이다. 폭발지대의 물체에 접촉하는 것은 특히 폭발 지대에 있는 금속 물체에 접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공중 폭격의 정형 밑에서 대다수의 폭사성 C선은 모두큰 구름의 이동에 따라 이동되며 바람에 부딪치면 점점 사라진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에게 이러한 정형을 표현한 사진을 보여 주었다. 그는 선이 비록 분산된 후에라도 사람을 해하지 않으나 네바다 주에서 수일동안 실험한 후에 뉴욕의 어느 사진 실험실에서 한 보고 가운데는 많은 인화지에C선이 감응된 흔적이 나타났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광선은 구름층 속에서 움직이며 미국을 횡관하여 이러한 인화지에까지 빛

이 감응되였다.

다수의 C선은 폭사선 구름덩어리에 끌려가기 때문에 만일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공중 폭발한 지대에 안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리유로써 절대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훈련된 사람이 기가 계수기를 가지고 먼저 들어갈 수 있을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만일 반드시 들어가려고 한다면 금속 물체에 접촉하지 말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들은 매개인이 모두 로켓트 폭사선 정찰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찰기는 이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준다.

그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정찰기를 보여 주었는데 그의 크기는 담배갑만 하였으며 두터이는 8분지 1인치 밖에 되지 않았다. 이 정찰기 위에는 높이 4분지 1인치나 되며 길이 2인치 되는 구멍이 있으며 얇은 연편으로 덮였다. 이 연편을 옆으로 밀면 구멍이 나타난다. 연편 후면에는 인화지 한장이 있다. 폭사선 작용의 감응을 받을 때는 이 종이는 흑색으로 변한다

정찰기 외면에도 일종의 빛갈이 있는데 이것은 종이의 빛갈과 서로 대조하여 두 빛갈이 서로 일치될 때는 이 지구를 반드시 떠나야 하는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폭사선 작용을 너무 많이 받아 위험하게 되는 것이다. 한번 이 지역에 들어갈 때는 연편 뚜껑을 밀어 열고 그 구멍 안의 빛갈을 주의하며 아울러 정찰기 외면의 빛갈과 비교하여 두 빛갈이 같아질 때에는 곧 떠나야 할것이다.

그 다음 그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로켓트 정찰기는 다만 기가 계수기의 필요한 대용품 뿐인바 후자가 더욱 정확하다고 한다.

기가 계수기의 작용 원칙은 라디오와 비슷하다. 폭사선 작용에 접근될 때에는 기가 계수기에 련접되여 있는 수신기로 부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조그마한 계산기도 있는데 얼른 보면 자동차 속의 전류계와 같아서 폭사선 작용이 얼마나 있는가를 설명하여 준다.

이 조그마한 계산기는 폭사 활동자나 혹은 이와 비슷한 것으로 계산 단위를 삼는다.

그 후에 그는 우리에게 각각 수화기를 가지고 그가 폭사선 작용 물질을 기가 계수기에 가까이 가져오며 들어보게 하였다.

처음은 째깍 째깍하는 소리가 매우 천천히 들렸으나 그 물체가 가까이 옴에 따라 째깍 째깍하는 소리는 하나로 혼합되여 우―하는 소리가 날때까지 빨라졌다.

이 강의는 9시부터 10시 반까지 계속되였다.

나는 이러한 죄악을 감행함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는 세균탄을 휴대하여 무고한 부녀자들과 아동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할곳에 투하함으로써 인민을 반대하는 이러한 비인도적 죄악을 범한 사람이였었다. 이것은 심지어 독일 나치스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인피로써 등잔갓을 만든 일사코흐와 같은 사람들도 사용하지 않은 인민을 반대하는 전률할 죄악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월가의 미제국주의의 전쟁 상인들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였다.

내가 중국 지원군에게 포로되여 무기를 내여 놓은 후부터 더 적은 죄를 범한 사람이 받을것이라고 예상하는 대우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내가 무기를 놓은 후에는 나는 이제는 적이 아니라고 그들은 언제든지 말하였다. 월가 제국주의자들의 허위 선전속에서 자라난 내가 리해하기 대단히 어려웠던 포로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그들은 설명하였다. 그러나 중국 지원군은 매우 인내성이 있었다.

이 모든 사실에 비추어 자본주의 월가의 전쟁 상인들은 그들의 탐욕 때문에 잔인 무도하게도 세균전의 전률할 죄악을 감행함으로써 자기들의 더많은 리윤을 얻으며 이번 전쟁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극히 명백한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비인도적 범죄 기록 위에 원자전을 증가하여 그들이 발동하려는 제3차 세계 대전에까지 도달하려는 야욕을 로골적으로 표시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더많은 금전을 자기의 주머니에 집어 넣기 위해서는 무엇이나 가리지 않으며 전쟁이 많아질 수록 그들은 돈을 더많이 벌게된다. 그들은 세계의 무고한 인민을 돌보지 않는다. 물론 미국의 인민; 로동자들이 만일 이 죄악들을 안다면 반드시 그것은 단죄할 것이다. 미국 로동자들은 돈에 미친 월가 제국주의자들의 지배 하에 있는 신문, 잡지 및 라디오로부터는 진리를 듣지 못한다. 이 전쟁 상인들은 인민들이 진리를 아는것을 원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민들은 세계 인민을 반대하는 전쟁 상인의 비인도적 범죄들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비인도적 범죄들을 감행하고 있는것은 전쟁을 확대하여 리윤을 더많이 얻으려는 것이 매우 명백하다. 나는 강압에 못이겨 전쟁상인의 도구가 되였으며 강압에 못이겨 세균탄을 투하하여 조선 인민과 중국 인민 지원군을 반대하는 엄중한 죄악을 범하였다. 나는 군인이므로 반드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였던 것이며 이 명령은 월가 제국주의자들이 발한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춥지 않도록 따뜻한 옷을 내여주었고 훌륭한 음식과 침구를 주었으며 따뜻한 곳에서 자게 하였다. 나는 그들의 친절한 대우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결국 지원군들의 인내성에 의하여 나는 나의 죄악을 깨닫게 되였다. 나의 량심은 나를 대단히 괴롭게 하며 이 무거운 짐을 벗으며 자백하고 회개하는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나는 인민을 반대하는 나의 무서운 죄악을 깨달았으며 무고한 평화 애호 인민을 반대하여 비인도적인 일을 저즐렀다. 나는 지금 이 죄악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를 알며 나는 인민들에게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나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 죄악은 세계의 모든 평화 애호 인민을 반대하는 것이였으며 전체 평화 애호 인민에 의하여 당연히 단죄되여야할 것이다. 나의 범죄는 모든 인민들을 반대한 것이였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용서를 빈다.

존 퀸

1952년 4월 13일

(3) 미 공군 중위 쫀퀸의 방송 연설

나는 미국 항공 중위 쫀 퀸이며 군호는 17.993 에이, 년령 29세, 칼리포니아주 사람이다. 나는 1948년 2월에 공군에 참가하여 항공학교에 입학하였다.

그 학교를 졸업한 후 공군 대학에 파견되여 훈련을 책임지고 있다가 1951년 12월 1일에 조선 군산에 파견되였다. 그리하여 나는 제3폭격기 련대 제3대대 제8중대에 배속되여 비 26형 비행기를 조종하게 되였다.

나는 1952년 1월 13일에 비행기가 격추되여 순안 서남 10마일 지점에서 중국 인민 지원군에게 포로되였다. 내가 무기를 놓자 그들은 곧 나로 하여금 처음으로 관대정책의 대우를 인식하게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아주 좋은 음식을 주었으며 나를 인자하게 대우하여 주며 따뜻한 의복과 침구를 주었다. 그들의 그 인자한 대우는 나로 하여금 중국 인민 지원군이 참으로 진정하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케 하였다.

지원군은 나에게 여러번 포로에 대한 관대 정책을 해설하여 주었다. 그들은 인내성 있고 인자한바 그들은 내가 이런 정책을 리해하기 어려울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나는 결국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인민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나의 량심과 선의는 나로 하여금 그들과 또 평화를 사랑하는 조선 인민들에 대하여 범한 죄행에 대하여 가책을 받게 하였다. 나는 나의 죄악을 승인하며 이 인민들에게 대하여 범한 죄악을 후회한다. 1951년 12월 18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나는 처음으로 세균전 강의를 받았다. 이때의 과목은 일본에서 온 아쉬포로크 선생이 지상학교 에서 강의한 것이였다. 청강원들은 20명의 조종사와 항법사들이 였다.

레이슨 중위와 데비드 대위, 로벗즈 소위, 로저스 중위, 슈왓즈 중위, 슈밋트 중위, 하와스 대위, 피어슨 대위, 란드 대위, 롱 대위 등이 모두 거기에 있었다.

우리는 이 강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극히 기밀에 속한다는 것을 통지받았다.

강사가 우리에게 강술한 문제는 세균전에 관한 것과 비 26형 폭격기로써 여하히 세균전을 진행하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는 말하기를 해군용 연막 방사와 같은 방법으로써 집행한다고 하였으며 혹은 젯트기의 저공 비행으로써 먼지를 리용하여 진행한다고 말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폭격에 관한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해석할 때에 세균을 보유한 폭탄이 지면에 접촉될 때에 터져서 두 쪼각으로 분렬되는 것과 지면에 접촉될 때에 탄미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또 탄미의 상부에 구멍이 있는데 그것이 지면에 접촉될 때에 벌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 3종의 폭탄 분해도를 우리에게 뵈여 주었다. 또 일종은 공중에서 터져서 세균을 넣은 곽을 산포하는 폭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에게 세균을 보유한 곤충에 대하여 해석하여 주었으며 모기는 어떻게 말라리아를 전파시키며 곤충이 어떻게 기타의 상이한 세균을 전파하는가를 해석하여 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만일 세균이 남조선에 전파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세균으로 부터 자기를 보호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이러한 폭탄들은 폭발될 수 없으며 이

것은 폭발하지 않는 폭탄이라고 알려 주었다.

작년 12월 31일 항례적인 명령 전달 회의에서 작전 군관은 우리에게 모든 폭발되지 않는 폭탄에 주의하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정보조에 보고하라고 말하였다.

1월 3일 비행 직전에 작전과 레노즈 대위는 나에게 평양 동 남방에 폭발하지 않는 폭탄 4개를 투하할 특수 임무를 주었다. 이때에 나의 항법사는 로저스 중위였으며 기관사는 쎄이여 군조였다. 나는 2시 25분에 출발하여 3시 30분에 평양 남쪽 5 마일 대도로에 있는 큰 다리 동쪽 3마일 지점에 이러한 폭탄을 던졌다 우리는 바쁘게 이 임무를 완성하고 돌아와서 곧 정보조에 폭발하지 않는 폭탄(세균탄) 투하 정형을 보고하였다.

1월 10일에 우리들은 또 특수 임무를 집행하라는 명령을 받고 군우리 북쪽 3마일, 철도 동쪽 5마일 지점에 두개의 폭발하지 않는 폭탄 즉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우리는 2시에 출발하여 3시 25분에 이러한 폭탄 2개를 투하하였던 것이다. 이때에 슈왓즈 중위는 항법사이며 쎄이여 군조는 기관사 였다.

우리는 급속히 이 임무를 완성하고 정보조에 우리들이 이러한 폭발하지 않는 폭탄을 투하하였다는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12월 15일에 나는 처음으로 원자 전쟁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 강의는 중요하며 또 기밀에 속한 것이였다.

이것은 일본에서 온 클라크 선생이 지상 학교의 큰 건물내에서 강의한 것이다.

그 강당에서 25명의 비행사와 항법사가 참가하였다. 슈왓즈 중위, 레이슨 중위, 란드 대위, 롱 대위, 슈미트 중위, 로벗즈 소위, 아룬 소좌등이 모두 장내에 있었다.

강의 내용은 각종 대소 원자탄과 그의 상이한 폭발방법 즉 지상에서, 공중에서, 수중에서 폭발되는 방법들에 관한 것이였다. 그는 우리에게 각종 광선 더우기 써선(감마선)과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들을 강의하였다. 그는 우리에게 기가 계수기와 로켓트 폭사 작용 정찰기에 관한것을 알려 주었으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험에 관해서도 알려 주었다. 이 강의는 9시부터 10시 30분 까지 진행되였다.

이러한 사실로 부터 미국 월가가 세균 전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원자전쟁을 준비하여 전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리윤을 획득하려는 것을 명백히 알수 있는 것이다. 미국 월가의 제국주의자들이 범하고 있는 이런 비인도적 죄악은 반드시 전세계 선량한 평화 애호 인민들의 단죄를 받을 것이다.

월가의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은 미국 인민들로 하여금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려 하나 일단 그들이 알게 되면 이러한 세계 인민들을 반대하는 죄악을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심지어 독일 나치스 분자들도 감행하지 못한 무서운 죄악을 현재 미국 월가에서는 벌써 감행하였다.

내가 압박에 못이겨 이러한 일을 한것은 내가 군인이므로 반드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였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러한 죄악을 범한것을 인식하였다. 나는 이러한 반인민적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나의 량심과 선의의 가책을 받고

있다. 나는 단지 월가의 살인광들의 강압에 못이겨 행동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민들에게 나의 이와같은 비인도적 죄악을 용서하여 줄것을 바란다. 나는 지금 내가 가장 무서운 죄악을 범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나는 또한 내가 월가의 도구였다는 것을 인식한다. 나는 인민들에게 나의 이러한 죄악을 용서하여 줄것을 바란다. 나는 전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이 모두 궐기하여 미국 월가의 제국주의자들이 범한 세균탄 사용및 세균 전쟁을 발동한 죄악을 단죄할것을 바란다. 나는 미국 인민들이 이러한 진상을 알고 이런 전쟁 상인들을 반대하여 궐기할것을 바란다.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에게 재난을 가져올 제3차 세계 대전을 월가가 도발함은 결코 용허할 수 없는 것이다.

쫀 퀸

1952년 4월 14일

(4) 미 해군 륙전대 대좌 프랑크 에취 쉬버의 첫 진술 (주요진술)

주 요 진 술

나는 프랑크 에취 쉬버 대좌이며 군호는 04429이다. 1952년 7월 8일 격추되여 포로될 때까지 나는 해군 륙전대 제1 공군 련대의 참모장이였다. 나는 1929년 부터 해군 륙전대에 복무하기 시작하여 1931년에 항공사로 임명되였으며 세계 여러 곳에서 직무를 담당하였다. 나는 조선에 오기 전에는 해군 륙전대 본부 항공처에서 복무하였다.

합동 참모부 지시

나는 1952년 4월 10일에 조선에 도착하여 해군 륙전대 제1 공군 련대 참모장 직무를 담당하였다. 나의 모든 지시와 결정은 부사령관 램슨 스크리브나 장군의 비준을 반드시 받았다. 내가 참모장의 직무를 완전히 담당하기까지는 램슨 스크리브나 장군이 나를 자기 사무실에 불러서 련대의 각종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면담시에 그는 『빈네이가 당신에게 브이•엠•에프—513 특별 임무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하여 주었소?』 라고 물었다. 나는 이에대하여 『특별 선전』(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세균탄을 부르는 암호였다) 말인가 고 물었는바 그렇다고 대답하므로 나는 빈네이 대좌가 그 모든 관련된 것을 이미 나에게 알려주었다고 대답하였다.

내가 그의 참모장 직무를 인계할 때에 아더 에이•빈네이 대좌는 조선에서의 세균전 계획 전체에 대한 륜곽과 해군 륙전대 제1 공군 련대가 그때까지 책임졌던 그중 일부분의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나에게 알려주었다. 이는 그가 자기 직책상 그리해야 했던 것이다.

조선에서의 세균전 계획 전체는 미국 합동 참모부에서 1951년 10월에 지시한 것

이다. 그때 합동 참모부는 극동 사령부 총 사령관(당시 릿치웨이 장군)에게 특히 사람을 파견하여 그에게 조선에서 세균전을 시작하되 처음에는 적게 시험적 계단으로 하고 다음에 점점 확대할 것을 명령하는 지시를 주었다.

이 지시는 도꾜에 있는 극동 공군 사령관 웨이란드 장군에게 전달되였다. 그리하여 웨이란드 장군은 조선에 있는 제5 공군 사령관 에베레스트 장군 및 극동 공군의 직접 지휘하에 작전하는 오끼나와도에 있는 제19 폭격기 련대 사령관을 직접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다.

그 계획(나는 이를 다음에 곧 대략 말할것이다)은 토의를 거쳐 문제의 큰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에 도달되였다. 그리고 다음에 말하려는 정보는 에베레스트 장군이 직접 구두로 받아서 조선에 가져가기로 되였다. 그것은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조선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서면도 로획 당할 가능성이 있을 수 없도록 하려하였기 때문이다.

목 표

당시의 기본 목표는 현지에서 세균전의 각종 요소들을 실험하고 그 후에는 얻은 결과와 조선 정세에 따라 현지 실험을 정규적 작전 행동의 일부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그것이다.

각종 리용할 수 있는 질병들의 효과를 실험한다. 특히 그 질병들이 각이한 정형하에서 가지는 만연성과 전염성을 실험한다. 또한 매개 질병이 적들의 행동과 인민의 일상적 사업을 과연 엄중히 파괴하는가 또는 다만 대수롭지않은 불편만을 초래하지는 않는가, 또는 완전히 그 만연이 억제당하여 곤난을 일으키지 않게 되지는 않는가 하는 것도 실험한다. 현지 정형에 따라 각이한 종류의 무기와 용기를 실험하며 각이한 형의 비행기를 사용하여 그것이 세균탄을 운반하는 도구로서 적합한가를 실험한다.

실험을 진행하는 지형에는 고원, 해안 지대, 벌판, 산간 지대, 고립 지대, 각이한 지대, 련결된 지대, 대 소 부락, 밀집 도시 및 어느정도 분산된 도시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밖에 있을 수있는 각종 지대 또는 지대들의 있을 수 있는 각종 련결 지대에 대하여도 실험한다.

이 실험을 언제까지 지속하느냐에 대하여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조선에서 가장 추운때와 가장 더운때의 기온을 모두 포함할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투탄 방법을 실험할 뿐만 아니라 전술을 발전시킬 것인바 여기에는 시초에 있어서 다만 야간 습격을 하는것으로 부터 그 후에 해당 부분의 비행기 중대로 주간 습격을 하는것 까지 포함한다. 온갖 방식의 폭격을 모두 실험한다. 온갖 폭격, 즉 1대의 비행기로써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부터 편대로 구성된 비행기로써 진행하는 폭격을 모두 실험하며 늘 사용하던 폭탄과 함께 세균탄을 사용하는 것을 실험한다.

특히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하여 적의 방향을 실험하며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대책이 무엇이며 그들이 어떠한 선전 방책을 쓰며 이러한 전쟁이 그들의 군사 행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를 탐지한다.

비밀 유지 방책을 우리 벗들에 대하여서와 적에 대하여 철저히 시험한다. 우리의 벗들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방책을 다하여 이러한 무기의 사용에 관한 소식을 제한하며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통제한다. 적에 대하여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적을 기만하며 이 무기가 방금 사용되고 있다는것을 증명 못하도록 저지한다. 끝으로 만약 형편이 그것을 요구한다면 합동 참모부의 지시에 의하여 실험 계단에 있는 세균전을 조선에서의 군사 또는 전술적 행동의 일부분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최초 계단

오끼나와 도에서 떠나는 비29형 비행기는 1951년 11월부터 세균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바 북 조선의 모든 목표에 대하여 무질서한 폭격 방법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였다. 첫날 야간 목표는 조선 동북부 였으며 이튿날 야간 목표는 조선 서북부 였을것이다. 이 세균탄 투하 행동은 정상적 야간 무장 정찰과 배합하여 진행되였다.

이것은 일종의 경제적이며 비밀을 지키는 방법이였다.

1952년 1월 초에 당시 해군 륙전대 제1공군 련대 사령관이였던 쉴트 장군은 서울에 있는 제5 공군 본부에 불리여간 일이 있는데 그때 에베레스트 장군은 그에게 합동 참모부에서 준 지시를 알려주었으며 해군 륙전대 제1공군 련대 제33공군 대대 제513 야간 전투기 중대 브이•엠•에프—513을 세균전 계획에 참가시킬 것을 그에게 명령하였다.

브이•엠•에프—513은 케—8을 기지로 하고 있었다.

이것은 제3 폭격기 련대의 군산에 있는 공군 기지이다.

동 련대의 비 26형 비행기는 이미 세균전 행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브이•엠•에프—513에 대하여 제3 폭격기 련대는 지상 근무에 복무하라고 하였다.

조선 륙지를 기지로 하는 해군 륙전대의 모든 비행기들은(작전)모두 제5 공군에 소속되여 작전하는 동시에 그들의 행동을 해군 륙전대 제1 공군 련대에 보고하게 되여 있으나 순서를 밟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계획이나 또는 진행중에 있는 계획이 개시될 때에는 제5 공군이 정상적으로 련대에 먼저 통지한다.

1952년 1월 말, 513중대의 해군 륙전대에 속하는 야간 전투기는 단독 비행으로써 야간의 무장 정찰을 하였으며 세균탄을 휴대하고서는 비26형 비행기와 같이 북 조선 북부의 목표물, 특히 서쪽의 일부를 중요하게 담당하였다.

이러한 임무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513중대는 제3 폭격기 련대와 배합하여 에프 7 에프 형 비행기 (타이거 캣츠)를 사용하였는바 이 비행기들은 쌍발기이므로 펵

안전하기 때문이다.

발동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 케—8기지(군산)가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은 직접 해면으로 날아갈 수 있으며 그것은 또한 수면을 지나 적구에 날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도 비밀을 유지하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비밀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세균 종류에 관한 정보는 해군 륙전대 제1 공군련대에 제공하지 않는다.

1952년 3월 쉬르트 장군은 또한 제5 공군 본부에 불리여 갔다. 거기서 에베레스트 장군은 해군 륙전대 제1 공군 련대 제 33 공군 대대 제1 촬영 중대 (브이•엠•제이—1)가 계획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키라고 구두로써 그에게 지시하였다.

브이•엠•제이—1은 해군 륙전대 제33 공군 대대의 소속으로 조선 포항의 케—3을 기지로 하고 있으며 에프 2 에취—2 피 형(밴쉬즈)의 촬영 정찰기를 사용한다.

임무는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촬영 임무와 배합시킨다. 또한 제5 공군의 개별적인 절대 비밀 명령으로써 움직이게 되며 계획 진행시에는 에프 2 에취—2 피 형의 촬영 정찰기를 사용한다. 그것은 그들의 전문적인 활동과 기자재 설비, 그리고 케—3 기지에 있어서의 활동 지구가 떨어져 있는 등등의 리유 때문이다. 적측의 방어 행동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러한 비행기들은 북 조선에 더욱 깊이 들어갈수 있다. 그들은 비행기 2대를 한조로 하여 활동을 진행하는데 그것은 다만 최소의 탑승 인원이 필요하며 정상적 임무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지장을 적게 준다. 그들은 또한 촬영 비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면에 평행하여 비행할 때에는 고공으로부터 투탄을 시험한다.

1952년 3월에 해군 륙전대 제1 촬영 중대의 에프 2 에취—2 피형 (밴쉬즈)의 촬영 정찰기는 세균 무기 사용을 시작하였으며 북조선의 도시, 농촌에 세균탄을 계속 투하하였으며 또한 그런 행동을 확대하였다. 그럴때에는 이러한 행동과 정상적인 촬영 임무를 결합시켰다. 그때마다 다만 최저한도의 폭탄 공급만을 유지함으로써 저장 문제가 적게 제기되도록 하였다. 제5공군은 2명의 장교와 약간명의 병사를 포함한 인원들을 케—3 (포항)에 파견함으로써 해군 륙전대의 전문 인원들이 폭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 가를 배워 주었다. 해군이 이 계획에서 책임진 부분은 에프 9 에프형 (팬서즈), 에이•디형(스카이레이더즈), 그리고 전형적 에프 2 에취 형(밴쉬즈)등 비행기를 사용 하는 것이 였으며 조선 동해 해상의 항공 모함을 리용하였다. 공군도 또한 몇개의 각이한 종류의 비행기 중대를 사용하며 동시에 각이한 방법과 전술로써 세균전을 진행하는 그러한 행동을 확대하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조선에 오기 전의 정형이다. 그 후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발생하였다.

작 전 계 단

1952년 5월 하순에 해군 륙전대 제1공군 련대의 새 사령관 제롬 장군은 제5공군 본부에 불리여 갔다. 거기서 그는 세균전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지

시는 제5 공군의 새 사령관인 배커스 장군이 직접 구두로써 그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튿날 5월 25일에 제름 장군은 그의 사무실에서 한 어느 회의 석상에서 련대 참모부에 대하여 세균전의 신계단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바 나는 참모장의 신분으로서 이회의에 출석하였다.

해군 륙전대 제1공군 련대 참모 인원으로서 출석한 다른 사람들로서는 부사령관 래므슨 스클리브나 장군, 정보관(지—2) 스테이지 대좌, 작전관(지—3) 원트 대좌, 그리고 후방 근무관 (지—4) 클라크 대좌 등이 있었다.

그날 아침 우리에게 전달되였으며 그리고 우리들이 토론한 배커스 장군의 지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격 계획의 성과를 얻기 위하여 조선을 횡단하는 오염 지대를 만듦으로써 적들의 공급이 전선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제지한다. 해군 륙전대는 이 지대의 좌익을 책임지는바 그것은 신안주와 군우리의 량 지점, 그리고 이 량 지점의 중간과 그 주변 지대를 포함한다. 이 지대의 기타 부분은 공군이 중부를, 해군이 동부를 책임지는바 이것이 즉 우익이다.

해군 륙전대 제513 중대는 아무데나 폭격하던 목표로부터 이 집중적인 목표로 이동한다. 여기에 제3 폭격기 련대가 동원되며 케—8 (군산)로부터 출발하되 에프 7 에프형 (타이거캐스츠) 비행기를 사용한다. 그것은 쌍발기이므로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 중대에는 이런 종류의 비행기들이 부족하였으나 이미 그 수량은 증가하겠다는 허락은 받았다.

좌익을 오염시키며 동시에 그 오염을 유지할 책임은 513 중대의 지휘관들이 졌다.

행동의 시간은 중대가 결정할 것이고 아래에 열거한 범위 내에 국한한다.

최초의 오염은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완성할 것이나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매 10일마다 이 지구는 반복하여 한번 더 오염하거나 또는 한번 더 보충할 것이다.

이러한 임무에 종사하는 비행기들에게는 전형적 야간 무장 정찰 임무가 부여되였다.

그러나 목표를 향하여 비행하는 도중에 이 비행기들은 바로 신안주나 또는 군우리에비행하여 그들의 세균탄을 투하할 것이며 그러한 후에 다시 그들의 정상적인 임무를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비밀 유지도 강화할 수 있으며 또한 정상적인 임무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지장을 준다.

오염 지대의 유지에 관한 보고는 직접 제5공군에 전달되는바 제○○회의 정상적 임무 완수「도중 신안주 경과」또는「도중 군우리 경과」등을 보고할 것이며 동시에「특별 선전」란 몇개 투하하라고 설명할 것이다.

513중대는 지시를 받은 후 평상시 보다 더욱 정확히 야간에「화물 자동차들의 수량을 점검」함으로써 그활동 지구의 차량 교통이 어떤 중요한 변경이나 있는가 없는 가를 판단 또는 탐사할 것이다.

배커스 장군도 해군 륙전대 제1 공군 련대 제12 공군 대대는 세균전 계획에 참가할 것을 준비하여야 하며 처음에는 에이•디 형 (스카이레이더즈) 비행기를, 다음에는 에프 4 유 형 (코르세어즈) 비행기를 모두 확대된 계획에 참가시켜야 하되 최초에는 그것들이 다만 에프 7 에프 형 (타이거캐스츠) 비행기를 대신할 것을 지시하였다. 임무를 받았을 때, 이 비행기들은 그들의 조선 평택의 케—6 기지를 출발하여 케—8 (군산에 있는 공군 기지)에서 폭탄을 적재한다. 그 후 만약 편대로 구성된 비행기들을 리용할 때에 폭격기는 목표로 비행함에 있어서 편대 내의 다른 비행기와 합류한다. 이것은 케—6 기지에서 세균탄 공급 기지를 설정할 필요성을 가급적으로 적게하기 때문이다.

제롬 장군은 또한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였다. 제5 공군은 해군 륙전대 제1 촬영 중대로 하여금 그들의 당면한 세균전 작전을 하게 하며 케—3 (포항)에서 출발하게 한다.

동시에 엘•케—3에 있는 해군 륙전대 제33 공군 대대는 어느 때나 명령에 응할 수 있는『만일』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출 것이다.

왜냐 하면 엘•케—3은 목표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해군륙전대 제33 공군 대대가 대 규모적으로 이 계획에 참가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에프 9 에프 형 (팬서즈) 비행기는 다만 긴급할 때만 사용된다.

그러므로 촬영 정찰 비행기의 수요를 초월하는 폭탄 공급을 할 필요가 없다. 만약 필요하다면 폭탄을 몇시간 내에 울산으로부터 운반하여 올수 있다.

이 계획과 그의 파생적 문제에 대하여는 제롬 장군의 사무실에서 한 회의에서 모두 토의되였으며 이에 대한 조직을 하였으며 이 새 계획의 집행에 관련을 가진 장교들에게 이 지시를 전달하였다.

그 때, 원트 대좌로부터 먼저 이 정보를 관계 지휘관에게 전달할것과 일단 자세한 부분에 대한 것이 제정된 후에는 이 내막을 아는 참모부 장교들의 토의를 가질 것을 결정하였다.

해군 륙전대 제1공군 련대의 작전

해군 륙전대 제 513 야간 전투기 중대

다음날 5월 26일 원트 대좌는 513중대의 지휘관과 더불어, 그리고 내가 기억 하기는 또한 엘•케—8 공군 기지의 지휘관과 제3 폭격기 련대의 사령관도 포함한 회의를 열고여러 가지 자세한 부분에 대한 것을 토의하였다.

제5공군의 인원들은 이미 제5공군 본부로부터 통지 받았기 때문에 이 계획들을 알고 있었다.

이 계획은 513중대에 대하여 말한다면 다만 목표들만이 변경되였고 그 밖에 담당 지구 오염 기일을 유지할 책임을 졌을뿐이기 때문에 해결 해야 할 문제는 별로 없었다.

6월의 첫 주일에 513중대는 코레라탄으로써 집중적으로 오염 지대에서 행동을

개시하였다 (제롬 장군이 입수한 계획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어느시기에는——획득한 효과를 보아 또는 효과가 조금도 없는 것을 보아——오염 지대에서 점차적으로 황열병과 발진 티브스를 사용할 수 있다).

6월 한달과 우리들이 련대에 있던 7월의 제1 첫 주일에 513중대는 곧 이렇게 행동하였고 또 별로 특별한 사건은 없었다. 통례로 매일 저녁 평균 5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청천강의 주요 보급선에까지 이르는 조선 서해안 1대에 출동하였다. 그러나 평양 이북 지구에, 특히 중점을 두었었다.

10일에 1차씩 반복하여 보충하는 주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신안주와 군우리, 그리고 량 지점 간의 지구로 향하군 하였다.

만일 비행기 한대가 두개의 세균탄을 휴대 한다면 이틀 밤이면 넉넉히 신안주와 군우리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제 3일째의 야간에는 량개 지점의 주위와 그 중간 지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들은 타산하였다.

나의 기억에 의하면 아마 6월 중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중대는 제3 폭격기 편대를 거쳐서 제5 공군으로부터 계획을 일부 수정할 데 관한 지시를 받았다. 이 새 지시에는 두개의 주요 도시 주위 약 10마일의 지구를 중대의 일정표 중에 포함시키며 보급선에서 또는 어느 지선 도로상의 도시와 농촌에 특히 치중할 것이 지적되였다.

해군 륙전대 제 12 공군 대대

그 후 윈트 대좌는 케—6 (평택)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는 해군 륙전대 제12공군 대대의 지휘관 게일러 대좌, 행정관 및 작전관들이 참석하였다. 윈트 대좌는 세균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비밀을 지킬데 대한 문제를 연구할 것을 그들에게 통지 하였다.

그것은 만약 그들이 주간 행동에 참가하며 그들의 케—6 기지에서 폭탄을 적재한다면 비밀을 지키는 문제가 엄중하게 나서기 때문이다. 그들은 관계 중대들에게 통지하여 주기로 되였다. 그러나 이밖에 사람들에게는 다만 최소한의 사람들에게 통지하여 주기로 되였으며 일정한 선발된 항공사들의 명단을 작성함으로써 어느 때 든지 동원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로 되였다. 윈트 대좌는 그들에게 머지않아 공군 1개 대대를 보내 주어 후방 근무 부문에 대한 협조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었다. 이 1개대대는 실지로 6월의 마지막 주일에 보내여 왔다.

7월 8일 내가 포로되기 전에 해군 륙전대 제12 공군 대대의 에이·디형(스카이레이더즈), 피 및 에프 4 유형(코르세어즈) 비행기는 극히 적은 수의 대수로써 주간 세균전 작전에 1회 또는 2회 참가하였다.

정규적인 것은 일정표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다. 정상적 주간 임무의 일부로 말한다면 케—8 (군산)에서 폭탄을 적재하여 목표를 향하여 비행하는 도중에 다른 편대 비행기들과 합치는 것이다. 이 임무는 조선 서부군 우리로부터 남쪽으로의 주요 도로를 따라 존재하는 작은 도시들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인바 이는 정상적 공격 계획 중의 일부이기도 하다.

해군 륙전대 제33 공군 대대

5월 27일과 28일 경에 윈트 대좌는 세균전 작전 참가에 대한 계획을 해군 륙전대 제33 공군 대대 지휘관 콘든 대좌에게 전달하였다.

이 대대는 포항 기지의 팬서즈에 (에프 9 에프) 비행기인 만큼 천만 부득이한 때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콘든 대좌가 이 정보를 어떤 자들에게 알려 주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범위는 절대로 소수로 국한되여야 한다.

내가 련대에 있을 때까지 동대대부 이•엠•제이—1중대의 촬영 정찰기들이 이 기지를 출발하여 계속 그 임무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들에게는 어느 한대에도 세균전 임무를 주지 않았다.

일정표의 조직과 비밀 유지

세균전 작전 행동과 기타 작전 행동은 모두 제5 공군이 장악한다. 그러므로 해군 륙전대 제1공군 련대에 관련된 가장 긴절한 문제는 곧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절대로 서면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세균』이라는 글자는『특별 선전』, 또는 『특선』을 알아 채리기까지의 기간만 쓸 수 있고 그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조선에서 언급하지 못한다.

513중대의 일상적인 보충적 행동에 대하여서만 일정표를 조직할 필요가 없고 그 외에는 세균전 임무를 개별적 절대 비밀의 명령으로써 그 일정표를 조직한다. (이 명령들도 『프래그 오더』이라고 부른다). 이 명령들에서는 다만그날 진행할 관례적 비밀 명령 『프래그 오더』 내에서 언급하는 제00회 임무 중 『특별 선전』, 또는『특선』만을 포함시킨다. 임무에 관한 보고는 같은 방법으로써 전달해 보낸다.

즉 개별적이며 절대 비밀 문건으로써 00 임무에서 투하한『특별 선전』탄의 수량 등을 설명한다.

이 외에 513중대에서의 세균전 임무에 대한 보고 방법은 통례적인 임무인 보고에다『도중 군우리 경과』, 또는 『도중 신안주 경과』 등을 첨부한다.

모든 방법을 다하여 적들을 기만하며 또한 이러한 행동에 관한 소식을 우리 측 인원들이 알지 못하게 한다.

우리 측 인원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련대 중에서 매월 300—400명이 교대되여 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세균탄은 다만 보통 폭탄이나 또는 응결 까솔린탄과 같이 투하함으로써 폭격이 보급선에 대한 보통적인 폭격처럼 뚜렷하게 보이게끔 하며 그리고 적구 상공에 있을 때의 특별한 비밀 유지를 위하여 세균탄을 다 투하하기 전에 비행기는 응결 까솔린탄 한개를 남김으로써 비행기가 추락될 경우에 증거들을 반드시 소각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이 이미 내렸다. 모든 장교들은 이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금지된다. 반드시 정식으로나 또는 문을 잠그고서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매차 명령을 내릴 때마다 이것은 다 군사 비밀이며 동시에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나 개인은 언제든지 사무실 밖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심지어는 건드린 일도 없었다. 나는 하루 3차의 식사도 다 사령관의 식당에서 먹었으며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비밀이라고 인정되는 문제들을 토론하였다.

효과에 대한 측정

련대에서의 우리들의 일치한 의견은 이러한 세균전의 효과가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그것이다.

보통 측정할 수 있는 방법(추측에 의한)은 간첩을 사용하며 포로들을 심문하며 화물 자동차의 수량을 매일 밤 극히 면밀히 주의함으로써 보통시의 수량과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관찰하며 또한 조 중 당국의 공개적 발표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개적 발표에 대해서는 커다란 신임을 할 수 있다. 그것은 큰 류행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외부에 알려 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조 중 당국은 그것을 자신이 발표하게 될것이라고 나는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원인들에 의하여 입수한 정보들에 관하여는 도꾜의 미 극동군 총사령부에서 련계를 가지며 연구를 진행한다. 그러나 효과에 대한 전체적인 측정은 련대에 전달해 오지 않는다. 때문에 련대에서는 효과에 관하여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빈네이 대좌를 대신하여 들어설 때 그에게 그때까지 이미 판명된 효과 또는 반영은 어떤가고 물어 보았던바 그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명확히 대답하였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어느 한 사람도 우리의 노력, 모험 및 기만이 조금이라도 이렇다고 할 효과를 획득하였다 고 말하는 자는 없었다.

조 중 당국이 우리가 세균탄을 사용한 행동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공개적 발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기에는 전반적인 효과라는 것은 락망과 좋지 않은 느낌을 준 것뿐이다.

개인 반영

나는 어떤 사람——그 중에는 나 자신도 포함하여——을 변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아니다. 절대적인 직접적 관찰에 의하여, 오직 사실에 의거하여 나는 매개 장교들이 미국이 조선에서 세균전을 방금 진행 한다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모두크게 놀랐으며 또 창피스러워 하였다고 말한다. 나는 우리들이 장교로서 조선에 와서 모두가 다 우리의 인민과 정부에 충성을 바치고 있다고 믿었다. 세균전에 관하여서도 우리들은 언제나 세균전은 다만 제3차 세계 대전에서의 보복을 위하여 발전시키고 있다는 말을 들어 왔다.

이 장교들은 조선에 온 후 정부가 그들을 철저히 기만하여 의연히 그들이 세균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세계에 선포하고 있는 사실을 그들 자신 발견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일반적으로는 전쟁에 관하여 말한 모든 기타의 사실; 특수적으로는 조선 전쟁에 관하여 사상적으로 정부를 의심하게끔 되였다.

우리들 중에는 전쟁에서 세균전이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라고는 한사람도 믿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만들어진 모든 무기들 중에서도 세균탄만은 인민 대중을 살상하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매 사람마다 철저히 나쁘다는 것을 모두 량심적으로 알고 있다.

질병의 만연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충분히 전파된 류행병은 한량없이 만연될 수 있다. 이 외에 나는 사전에 경고도 받지 못한 적수공권의 인민에 대하여 일종의 무기로써 암암리에 대하는 것 등의 사실은 일종의 무서운 흉계이며 불 공정한 일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나는 윈트 대좌에게 게일러 대좌가 첫 통지를 받았을 때의 반영이 어떻 하였는가를 물어 본 바 있는데 그는 게일러 대좌가 대경 실색하여 『제복을 바칠』 생각이라는 것을 말하였었다고 대답하였다. 누구나 처음에는 모두 이러한 느낌을 가졌다. 그들의 반영도 바로 정직하고 자존심 있는 국민에게 있을 수 있는 반영인 것이다.

전술상으로 볼 때 이러한 무기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며 더우기 해군 륙전대의 어떤 무기도 아니다. 도의상으로 볼 때 그것은 영원히 씻어 버릴 수 없는 죄악이며, 행정 및 후방 사업의 견지에서 볼 때 현 계획에 의한 사용 방법으로써는 조금도 가망성 없는 것이며, 자존심과 충성심의 관점에서 말할 때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프랑크 에취• 쉐버(서명)
군호 04429
미국 해군 륙 전대 대좌
1952년 12월 6일
북 조 선

(5). 미 해군 륙전대 대좌 프랑크 에취• 쉐버의 둘째 진술

제롬 장군이 소집한 회의

1952년 5월 25일, 해군 륙전대 제1 공군 련대 사령관 제롬 장군은 제1 련대 참모부 인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제5 공군 사령관 배커스 장군이 해군 륙전대 제1 공군 련대로 하여금 세균전을 작전 계단에까지 확대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제롬 장군에게 준 다음 날 진행된 것이다.

이 회의는 련대 본부 사령관 사무실에서 문을 닫고 진행하였다. 기록을 하지 않았으며 서면으로 되는 자료를 석상에 내여 놓지도 않았다. 토론들은 목소리를 낮추어 진행하였다.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제롬 장군 이외에 부사령관 램 손 스쿨리브나 준장과 나 자신과 정보관 스테이지 대좌와 작전관 윈트 대좌와 후방 근무관 클라크 대좌가 들어 있었다.

회의는 극히 비 공식적인 것이였다. 위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회의는 기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아래에 말하려는 것은 내가 나의 기억에 의하여 상기한 것으로써 7개월 이전인 당시의 정형에 대한 대체로 정확한 말이다.

제롬 장군은 처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즉『어제 나는 배커스 장군과 오랫동안 담화하였다. 이 담화 석상에는 매슨 대좌 (제5 공군 작전관) 만이 동석하였다. 당신들에게 내가 말하려는 그것은 바로 내가 크게 놀랬던 것처럼 또한 당신들도 크게 놀래게 될 그러한 말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조선 륙지를 기지로 하고 있는 한, 우리들은 제5 공군의 명령을 반드시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이때 그는 석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의로 선정하는 목표에『특별 선전』탄을 투하하는 그러한 세균전 계획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타진하여 보았다. 모든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또는『네! 장관』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에프 7 에프형 (타이거캣츠) 비행기는 금년초부터 이미 특별 선전 계획을 집행하였으며 우리의 에프 2 에취형 (밴쉬즈) 비행기도 그때부터 이 계획에 참가하였다. 이 밖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공군 중대들도 이 계획에 참가하였다. 이 계획은 지금에 와서는 임의의 투하 방법을 쓰게 되였으며 그 범위도 온갖 지형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 이 행동을 크게 전변시키게 될 지시가 내려 왔다! 배커스 장군은 북조선 중부를 횡단하는 오염 지대를 만들라고 말하였다.

해군 륙전대 제1 공군 련대는 그 좌익을 책임지는바 여기에는 신안주와 군우리 및 그 주변과 그 지점들의 중간 지구가 포함된다.

공군은 중부의 비교적 큰 지구, 즉 군우리로 부터 동해안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지점까지를 책임졌으며 해군은 우익을 책임졌다.

여러분! 이리하여 이 재수없는 전쟁에서 우리들은 작전 행동의 계단에 들어서게 되였다!』. 장군은 잠시 동안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참석자들도 침묵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세밀한 문제들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 계획에서 해군 륙전대가 책임지는 일부 임무는 시초에는 브이•엠•에프 513이 수행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목표를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즉 무질서한 투탄으로부터 집중적으로 한 지구에 투탄하는 것으로 전변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해당 지구를 재 오염시킬 책임도 지는바 매번 재 오염시키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브이•엠•에프 513은 이 주기적 재 오염을 책임진다. "프래그 오더"에서는 구체적인 임무에 언급하지 않는다. (『프래그오더』는 전반적 작전 명령의 일부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별적인 작전 단위의 세밀한 부분의 임무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브이•엠•에프 513은 일상적 비행 임무에 대한 보고에서 다만 그들의 관례적

야간 무장 정찰만을 보고하면 된다. 만약 임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특수 무기를 휴대하였다면 "도중 신안주 경과" 또는 "도중 군 우리 경과" 라고 첨가하면 된다.

브이•엠•에프 513은 가급적으로 속히 이 행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케—8 (군산에 있는 공군 기지) 의 모든 정상적 설비를 리용하며 동시에 필요에 따라 제3 폭격기 련대와 배합할 것이다. 여기에는 에프 7 에프형 (타이거캣츠) 비행기가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이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비밀 유지 방책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

례를 들면 될 수 있는 한 해상을 비행하며 다른 폭탄들과 동시에 특별 선전탄을 투하하는 것 등이다』.

제롬 장군은 또한 계속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계획의 이 부문에서 어떤 특수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목표를 옮기는 데 불과하다. 에프 2 에취형 (밴쉬즈) 비행기에 대하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계획에 의한 비 정상적 임무들을 "프래그오더" 로써 부여할 것이다.

실지 문제는 아직 눈 앞에 닥치지 않았으나 엄중한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한을 받았던 이 계획이 이제는 약간의 대대들과 그들의 공군 기지들과 많은 해당 인원들까지 포함 되였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장교들은 이에 놀랬다. 왜냐 하면 세균전의 확대를 의미하는 이 소식이 청천 벽력같이 돌연히 전달되였기 때문이다.

제롬 장군은 이어서 더 세밀한 방책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 방책들은 세균전 확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임무들을 련대에 부여하는데 필요한 것이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해군 륙전대 공군 제12 대대는 일정한 수의 에이•디형 (스카이레이더즈) 비행기와 에프 4 유형 (코르세어) 비행기로써 이에 참가할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 다른 어떤 명령을 받기 전까지 이 비행기들은 림시로 에프 7 에프형 비행기를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해군 륙전대 제33 공군 대대는 명령을 대기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을 것인바 긴급한 정형에 처한 부득이한 경우에 동원된다.

제롬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재에 있어서 우리들은 야간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주간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도 머지 않은 장래일 것이다. 우리들은 장차 "특별 선전" 탄을 주간 활동에 포함시키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배커스 장군은 일찌기 나에게 명백히 말하였다.

"만일 정부가 세균탄 사용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된다면 그것은 장차 모든 주요 공격 무기 중의 일부분으로 될 것이다.

동시에 또한 이로 인하여 로동자들이 오염 지구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 하도록 함으로써 폭격에 의하여 입은 파괴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당신들 자신은 이러한 활동과 거기에 필요한 준비 사업에서 있을 수 있는 광범한 진행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롬 장군은 계속하여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우리는 이러한 대 규모적인 활동으로 인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미 개괄적으로 말한 것은 곧 새 계획의 주요 내용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윈트 대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브이•엠•에프 513의 활동은 장차 정상적인 것으로 될 것이며 중대 지휘관은 사업 집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제5 공군은 벌써 또는 앞으로 이 새 계획을 그들에게 직접 통지할 것이며 또한 "프래그오더" 에는 이 계획에 대하여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 지휘관을 찾아서 내가 이미 통지를 받았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 주기 바란다. 나는 이런 계획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반드시 지시에 의하여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염지구에 대한 10일에 한번씩의 주기적으로 되는 재 오염을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과 만일 곤난이나 또는 원조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가 련대에 련락하도록 그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그는 또한 윈트 대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당신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게일러와 컨든에게 말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그들이 일단 "프래그오더"를 접수하고 "특별 선전" 이 제기될 때에 당황망조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게일러와 컨든의 두 대좌는 당시 해군 륙전대의 제12 공군 대대와 제33 공군 대대의 지휘관들이였다.

이것이 바로 제롬 장군이 새 계획을 말할 때에 언급한 주요 내용인 것이며 다음으로는 곧 일장의 공개 토론이 벌어졌다. 램슨 스클리브나 장군은 오염 상태에 있을 때 이 구역의 계획이 매우 중요한 513 중대의 정상적인 사업인 야간 무장 정찰의 임무를 방해하지 않는가 고 질문하였다. 윈트 대좌는 이 활동이 장차 513의 사업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하였는데 그것은 종전에 513에 계속하여 북조선 남부 각지에서 세균탄 투하 임무를 집행하여 왔으며 때로는 해주 반도 일대의 순찰 활동을 적극 보장하는 동시에 계속 동해안 일대를 비행하였기 때문이더라고 말하였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특수 폭탄이 들게 된다 하더라도 513의 모든 력량이 장차 북조선의 서남부에 집중될 것이므로 앞으로는 더욱 효과적인 결과들을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윈트 대좌는 513 중대가 초보적인 오염을 실시한 후 만일 다섯대의 비행기가 매일 밤 두개의 세균탄을 휴대한다면 10일 중에서 대략 사흘밤이나 나흘밤이면 이 구역에 대한 보충 세균을 능히 유지할 것이며 그 나머지의 며칠밤에는 특별 선전의 번잡을 다시 받지 않아도 좋게 될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동시에그는 특별 선전의 밤에 있어서 비행기가 다만 잠간 동안만 그들이 책임진 주요 코스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여기서 제롬 장군은 일찌기 배커스 장군이 말한 것을 회상시켜 북조선을 횡단하는 오염 지대를 만들고 『공격 계획의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이

말의 의의를 해설한다면 세균 작전은 무장 정찰 비행을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의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한 전체 로력에 효력을 더 증대시킬 것이라는 그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배커스 장군의 공격 계획에서 세균 무기를 사용할 데 관한 담화는 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광범한 토론을 일으키게 하였다. 만일 내 기억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토론은 우선 나로부터 시작되였다. 나는 만일에 공군의 특수 무기에 의거하여 그들의 공격 계획에 효력을 발생케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공군의 형편이 매우 곤난해 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또한 솔직하게 나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충분히 결심이 되여 있는 적들은 오염 지대에 대한 대책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전략적인 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더러운 일이다. 제지할 수 없는 세균과 질병을 대 규모적인 전쟁에서 광대한 공업 지구에 사용하는 것을 벌써 무서운 사실로 되며 만일에 트럭 수송을 중단시키려는 빈약하고 믿을수 없는 희망밑에 전 국가를 포괄하는 지구에 질병을 산포한다는 것은 더우기 잔인하고 횡포한 것이다.

최후로 나는 만일에 우리가 효과적인 질병 지구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적들은 할수 있는 각종의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이며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의연히 그들의 보급은 이 지구를 돌파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을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결과 질병을 전선에 묻쳐 올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 이쪽에도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전염병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염시키기 때문이다.

윈트 대좌는 만일에 우리의 전투기들이 날개에 실은 두개의 특별 선전탄을 두개의 큰 보통 폭탄과 바꾸며 그것이 교량 1개소를 직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체 중대가 조선에서 질병을 산포한 노력보다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것이라고 부언하였다.

클라크 대좌는 어느 지구에 특별 선전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그 어떠한 사실도 미국이 세균전을 감행하지 않았다는 신화를 장차 완전히 폭로시킬 수 있으며 이리하여우리는 장차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것이며 또한 그로 인하여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각기 모두 서둘러 말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해군 륙전대의 공군은 세균전 진행을 위하여 훈련을 받으며 장비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균전이 결코 수륙 량용 작전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잠시동안 작전 상에서 공군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리유로 우리들에게 조선에서 세균무기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의 옳은 일이 아닌것이다.

끝으로 제롬 장군이 발언하였다. 그는 공군의 공격 계획에서 이미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였음을 감촉한다 고 말하였다. 몇명의 장교는 뒤이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우리들이 여기서 반드시 이러한 물건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정부는 응당 이 일을 승인하여야 한다. 그것은 포로 인원을 통하여 적이 매우 속한 기일 내에 그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인민과 도시들을 세균 물체 실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극히 악독한 일이다. 조선 전쟁과 같은 이러한 규모를 가진 전쟁에서 세균전을 실험적 단계로 부터 작전 행동의 단계에까지 추진시킨다는 것은 실로 란포한 일이다. 그것은 세균전이 일종의 전략적 무기이며 이는 즉 밀집한 인구, 다시말하면 대부분이 일반 인민인 목표에 대하여 전시 생산을 정지시킬 목적 밑에 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를 조선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바로 이때 제롬 장군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의를 환기시켰다.

…우리들은 조선에서 세균전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은 가를 토의하기 위하여 이 곳에 온것이 아니다——이 결정은 이미 일찌기 『상부』에서 채택한 것이다——우리들은 계획 자체와 아울러 련대가 이 계획을 실천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다.

클라크 대좌는 여기서 에이•더형 (스카이레이더즈) 비행기가 폭탄의 공급 및 장비를 준비하는 기지는 어디 있는가 라고 질문하였다.

제롬 장군은 극력 케—6 기지 (해군륙전대 제12 공군 대대가 평택에 가지고 있는 기지) 에서 폭탄을 대 규모로 적재하는 것을 회피하겠다고 배커스 장군에게 말하였으며 또한 『프래그오더』를 작성할 때 배커스 장군이 그 점을 기억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 고 하였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는 또한 배커스 장군에게 공군 가운데서 일대의 훈련 받은 인원을 파견시켜서 케—6 기지로부터 적재하는 폭탄들을 관리하게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는 해군 륙전대 제33 공군 대대가 울산에 있는 기본 폭탄 공급 기지로부터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 대대가 부득이 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들의 케—3 기지 (포항) 에서 에프 2 에취2 피 (밴쉬즈) 가 사용하는 수량 이상의 어떠한 폭탄 공급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음에 윈트 대좌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만일 개별적으로 비행하는 에이•더 (스카이레이더즈) 가 에프 7 에프 (타이거캣츠) 와 야간에 교체할 경우에는 그들은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반드시 케—8 기지까지 비행하여 가서 작전 명령을 받아야 하며 거기에서 폭탄을 적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즉 소수 비행기가 주간에 공격을 진행할 때 그들을 케—8 기지까지 파송하여 특별 폭탄을 적재하게 한 다음,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도중 기타 비행기들과 합치게 하더라도 하등의 난관도 없게할 것이다.

제롬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해군 륙전대 제12 공군 대대 중에서 극소수의 일부 참모 인원은 에이•더형 (스카이레이더즈) 비행기가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응당 알아야 하며 아울러 특별 심사에서 합격된, 엄선된, 또한 충실한 소수의 항공기 조종원으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함으로써 그들이 즉시 소집을 당하여 작전에 참가할 때에 당황 망조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해군 륙전대 제33공군 대대에 대하여는 어면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하는 것을 컨든 대좌가 결정할 것이며 그 사람 수효는 반드시 극히 적어야 하며 또 반드시 특별히 합격된 항공기 조종원 명단을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한다.

윈트 대좌는 우리들 자신의 공작 인원 중에서 어면 사람들이 이를 알아야 할 것인 가를 질문하였으며 또한 특히 의무관에 언급되였다.

나는 의무관에게 알게 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였다. 반대의 근거는 계획을 적절히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의무관은『알 필요가』없다는 점에 있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다. 나와 또한 사령관의 특별한, 그리고 개별적 비준이 없이 당일 그 장소에 없었던 사람에게 이것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전 인원과 후방 근무 인원 (정보 인원 제외) 은 우리들의 부문에서 권한을 가지고 임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극소수의 일부 장교들에게 이를 알릴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장교가 반드시 소좌 및 소좌 이상이라야만 하며 될 수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정규군 소속이여야 하며 후비군 소속이 아니여야 하며 아울러 조선에서 약간 시일 복무한 장교라야만 한다.

이리하여 일반적인 비밀 유지 사항이 제출되였다. 우리들은 모두 이것이 중요 문제의 하나이라는 것을 승인하였다.

제롬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상부로부터 하부에 이르기까지 배커스와 현재 나도 포함하는 모든 관계 인원들에게 이것은 국가 정책이며 다만 군사 비밀 유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 말하는 것이다』. 그는 배커스 장군이 다음과 같이 말한 일이 있다 고 말하였다. 이 계획에 관하여는 성문화된 문헌이 있을 수 없으며 이 계획을 식별하기 위하여 최초에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세균전』또는 이와 류사한 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비밀을 유지할 데 관한 토의는 길고 상세한 것이였으며 토의가 끝날때 제롬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매 개인은 모두 책임져야 하며 매 개인은 모두 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치 많은 고리를 가진 체인과 같이 한 고리가 끊어지면 체인 전체가 파괴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장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중국인은 이미 미국이 세균전을 사용하고 있다 고 성명하였으며 또한 비 29형 비행기가 일찍부터 세균전을 진행한 이래 많은 항공기 조종원은 이미 포로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적은 이미 우리가 세균전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모두 이 진상을 알게 되였다. 그러나 제롬 장군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만약 정부가 그것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로 한다면 우리 군인들은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 허위 날조를 유지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수 밖에 없다.

제롬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련대 내에서 매월 이미 300명 내지 400명이

교대로 미국에 귀환되고 있다. 그러면 이 진상이 폭로되는 것은 다만 시간적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은 선전적인 허위 날조를 될수록 현실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밀 유지에 있어서 흔히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체 내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며 적에 대하여는 사실을 엄폐하는 것이라는 점에 모두 견해를 같이 하였다.

제롬 장군은 자기의 지시를 총결한 다음, 그 회의를 끝마치였다. 내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그의 결론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는 원트 대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명일 브이•엠•에프 513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배커스는 이미 나도 그 성원의 한 사람으로 넣어 당신들이 조기에 이 계획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라. 비밀 유지를 강조하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0일간의 오염 주기를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책임이 바로 그들에게 직접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 후 될수록 속히 게일러와 컨든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게일러에게 극히 명백히 말하여야 할 것은 그가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취하여야 할 일이 소규모의 행동이라는 점이다』. 그는 클라크 대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은 게일러와 함께 한개의 소 규모의 폭탄 공급 설비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떠한 협조가 필요한 가를 알아 보라』. 그는 끝으로 스테이지 대좌에게 다음과 같이 몇마디 하였다. 『당신은 똑바로 정신 차려라. 비밀유지는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프랑크 에취•쉐버 (수표)

군호 04429 미국 해군 륙전대 대좌

1952년 12월 19일

북 조 선

(6) 미 해군 륙전대 대좌 프랑크 에취•쉐버의 세째 진술

비 밀 유 지

세균전 계획이 확대되였을 때 제롬 장군의 5월 25일 회의에서는 모든 비밀 유지 문제가 검토되였다.

세균전의 매개 단계에서 강조된 단 하나의 문제는 비밀 유지에 관한 것이였으며 이는 제1해병 항공대가 직면한 중요 문제들의 하나이였다.

우리는 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비밀 유지는 우리가 제5 공군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행정 문제 이였다.

적들을 그릇 인도하며 이러한 작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체의 인원에게 알리지 않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들이 취해졌다.

우리 자체의 인원들 사이에서 만일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한개의 고도로 전문화된 선전 형태이며 그것은 만일 사전에 폭로되는 경우에 그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출처를 비밀히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였다.

적측에 대해서는 공격의 특별한 성격을 탐지할 수 없게 하거나, 또는 탐지되여도 증명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세균탄을 보통 폭탄에 혼합해서만 투하하여야 한다.

우리 측은 지상에서 발견된 어떠한 증거에 대하여는 이를 합법적인 선전 재료, 또는 조명탄, 파라슈트 및 그 상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1952년 5월 25일 회의에서 제롬 장군은 램스 스클리브나 장군의 원조를 받아 특별한 변경이 없는한 실시될 비밀 유지 조치들을 검토 하였다.

이 계획의 진상에 관하여는 절대로 문서 상에 나타내서는 안되였다. 『박테리야』, 『저엄』 등은 우리가 사용 금지를 당한 문구들이며 또한 계획 시초에 이를 구별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는 질병의 형태와 명칭에 대해서도 그러 하였다. 공식 담화에서는 『특별 선전』, 『특선』 특별 무기, 특별탄. 특별 출격 등등의 문구가 대용되였다.

출격 보고는 두 가지로 제출된다.

오염 지대에 대한 집중 공격이 시작된 이후 실시된 513중대의 출격은 중대의 보통 및 비밀 보고에서——무전으로——재시되며 목표물을 보고하고 출격수 시간 및 피해 추산을 보고한다. 그리고 『도중 신안주 경과』, 『도중 군우리 경과』 등의 해당한 문구를 첨가한다. 이는 513중대가 접촉하는 관계 당국에 전달될 것이다. 담당 지역에서 세균전 오염을 유지하기 위하여 10일을 일기로 정상적인 출격이 되풀이된다.

이따금 출격하는 다른 부대들은 례컨대 출격 수 등등에 대하여 『특선』 이라고 표시하는 극비의 명령에 의하여 준비되며 그들의 보고에는 『특선』 이라는 암호가 사용된다.

그들은 그들의 표준적인 비밀 무전을 보낼 것이며 출격 수, 항공기 형태, 목표물, 목표 상공의 시간, 폭탄 투하 (보통탄), 또는 사진 촬영, 대공 포화 및 기타 정보를 전달한다.

그 직후에 부대들은 제5 공군에 비밀 무전을 발송할 것이며 이 무전에서 출격수 등 및 많은 『특선』 을 보고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암호에 의하여 보통 출격에서 투하한 특별탄의 수를 보고한다.

세균전 계획에 관련된 항공 출격 전술 등에 관한 보고는 구두로 작전 장교(지—3) 에게 보고될 것이며 폭탄 사고는 후방 근무 장교 (지—4) 에 보고될 것인바 이 장교들은 구두로 사령관에 보고하며 사령관은 그것을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적당한 참모 장교가 제5 공군에 보고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어 계획의 효과적인 실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계획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자들만이 정보를 받는다.

대개 참모 장교와 그의 부관이 자기 부대 내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다.

따라서 한 장교가 없을 때는 다른 장교가 해당 문제들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계획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다. 만일 알고 있는 장교가 부재시에 긴급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는 참모장, 부참모장, 사령관, 또는 기타 고급 참모부 장교에게 제시된다.

항공 대대 군의 장교에게 알리는 것을 반대하는 리유는 이 계획이 그가 알지 않아도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체 문제는 토의가 필요하게된 공적 석상에서만 언급되며 반드시 비밀 회의에서 경계하는 어조, 또는 문구가 사용된다. 장군의 매일의 작전 지시에는「특선」출격이라는 말에 언급된 일이 없다. 이 문제에 있어서의 비밀 유지 위반은 이와 동일하게 중요한 여하한 규칙들의 비밀유지 위반들과 같이 고급 군법 회의에서 취급되기로 되여 있었다.

제5 공군이 에이·더 형 (스카이레이더즈) 비행기를 사용하게 될 때까지는 쌍발기들이 사용될 것이였다.

에이·더들이 주간 출격 명령을 받기까지에는 다만 야간 작전과 고공 촬영 정찰들로 특별 무기를 사용하게 되였었다.

그리고 비행은 우군이 있는 지대를 피하여 해상에서 최대한도로 행하여 질 것이며 고장이 생겨서 폭탄을 던져 버려야 할 경우에는 오직 폭탄들은 바다의 깊은 부분에만 투하하기로 되여 있었다.

폭탄 적재는 극 소수의 기지들에서만 하도록 국한되였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 규모적 작전들이 케—6 (평택) 으로부터 명령될 때까지는 케—8 (군산) 과 케—3 (포항) 들에서만 실시되였다.

비행기가 추락될 때 그 비행기가 불에 타버리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기에는 나팜탄이 적재되였으며 세균 폭탄들을 투하할 때까지 이것을 보유하기로 되여 있었다.

제롬 장군은 또한 이 작전 부대에는 극 소수의 비행사들만을 참가시켜야 하며 그들은 보다 고급이며 능숙하며, 또한 책임성있는 비행사들이여야 하며, 그리고 그들은 정규군 장교들이라야 하며, 특히 그의 충성에 의심없는 사람들이 아니면 안된다 고 지시하였다.

그에 또한 이 작전에 참가하는 장병들은 비밀 유지 문제의 중요성과 국가적 위신에 대한 그 영향 및 적들의 최근 행동에 대한 영향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실력과 믿음성으로 보아 선발된 부대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비행사들에게 인식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되도록 이것을 조선에서 잊어 버리고——본국으로 돌아가서도 이것을 상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였다.

감염을 념려하는 테로부터 비밀이 루설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들의 영향을 그들 자신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비행사들에 확인시켜야 하였다.

이와 동일한 리유로써 그들이 비 정상적 형태의 전쟁을 처음으로 감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에 지길찌도 모르는 비밀 루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까지의 전반적 작전들에 관한 간단한 해석을 비행사들에게 주어야 한다.

『특선탄』이 그릇된 목표에 투하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 비행사들에게 처벌 조치는 취하여 지지는 않으나 어떤 지역들이 오염되였는 가에 관한 정확한 기록을 가지기 위하여 그들이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비행사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비밀이 루설될 경우에는 즉시 구두로써 보고하여야 한다.

이 선전 계획들을 몹시 알고 싶어하는 것같이 보이는 장병들은 극도로 세심하게 감시하여야 하며 그들을 직접 제롬 장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하한 형태로든지 『루설』하고 있다고 보이는 비행사, 즉 전투 권태, 또는 기타 여하한 리유로 인하여 부주의하며 반역적이며 또는 공포를 느끼거나 주저하고 있다고 보이는 비행사들은 즉시 이 출격 임무에서 해임시켜야 하며 제롬 장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심스럽게, 또는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은 누구나 역시 장군에게 즉시 보고되여야 한다.

프랑크 에취•쉐버 (서명)

군호 04429 미국 해군 륙전대 대좌

1952년 12월 19일

북 조 선

(7) 미 해군 륙전대 소좌 로이 에취•브레이의 진술

나는 로이 에취. 브레이로서 미국 해군 륙전대 소좌이며 군호는 010450이다. 년령은 39세이며 기혼으로 두 자식이 있다. 나의 집은 미국 칼리포니야 주 싼타아나 시오렌지에이브 1333번지에 있다.

1952년 7월 8일에 북조선에서 격추될 때까지 약 5주일 동안 나는 조선 주둔 미국 해군륙전대 제1공군 련대 병기과 장교로 있었다. 내가 세균전에 관하여 언급하는 사실들은 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쓴 것이다.

나는 1952년 5월 28일에 조선 케—3에 도착하였으며 그 다음날, 즉 29일에 미국 해군 륙전대 제1공군 련대 병기과 장교로 임명되였다. 이전의 련대 병기과 장교는 1952년 5월 초에 미국으로 떠났는데 그는 병기과 하사관 맥가리 조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였다. 맥가리 조장은 병기과에서 수개월 동안 사무를 본 사람이다. 6월

2일 밤에 맥가리와 나는 지—4 (후방)부 병기과에서 단 둘이 일하였는데 우리들은 평범한 병기과에 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으며 그는 내가 할 사무의 내용 문제 절차들에 대하여 나에게 간단히 말하여 주었다. 그날 밤, 그는 나에게 련대가 그 당시 진행한 세균전에 관한 주요한 사실들에 대하여 말하여 주었다. 그는 케—8에 위치하고 있는 브이•엠•에프—513 (해군 륙전대 제513야간 전투기 중대) 가 거기에 있는 제3폭격기 련대의 명령으로 세균탄들을 투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브이•엠•에프—513은 1952년도 초에 세균탄을 투하하기 시작하였다. 브이•엠•에프—513의 병기과 인원들은 제3 폭격기 련대의 특수 병기과 인원들에 의하여 세균탄 사용에 대한 훈련을 받고 이에 대한 무기들의 방조를 받았으며 중대에 대한 무기들의 공급은 공군 인원들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케—8 폭탄 저장소로부터 직접 행하여졌다. 그 후 1952년 3월에 브이•엠•제이—1 (해군 륙전대 제33공군 대대의 해군 륙전대 제1 촬영 정찰 중대) 도 또한 세균탄을 투하하기 시작하였다.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대대로부터 중대에 병기과 인원들이 배치되였는데 그들은 특별 무기 반을 형성하고 중대가 제1차로 폭탄을 사용하기 전에 공군 특별 무기반에 의하여 2주일 동안 훈련을 받고 케—8로부터 그들의 기지로 파견되였다.

장교 2명과 전사 6명으로 구성된 이 반은 병기과 인원들에게 절차, 저장 및 비밀 유지 방법들에 익숙하도록 지시를 주었다. 이 반은 중대가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2—3주일 중대와 같이 남아서 그들의 지시를 검열하며 계속 지시를 주기 까지 하였다.

브이•엠•제이—1중대에 대한 세균탄들의 제1차 공급은 대구에 있는 제6405 공군 보급 련대로부터 명령되였으며 그들의 울산 군수품 보급 중대 (제543) 저장소에서 공군 특별 련대반 성원들을 동반한 브이•엠•제이—1의 병기과 인원들에 의하여 인수되였다.

특히 조선 포항에 있는 케—3 (해군 륙전대 제1 공군 련대 제33 공군 대대 기지)에서 사용의 제1단계에 있어서의 비밀 유지 방법은 대단히 엄격하였다.

이것의 사용을 아는 사람들은 다만 련대참모부의 몇몇 사람들, 대대와 중대의 지휘관들, 출격하는 비행사들, 특별 무기반을 조직하고 실제로 모든 수송을 취급하고 비행기에 적재하는 대대 폭탄 저장 담당 장교 및 병기과 인원들인 것이다.

세균탄의 공급은 사전의 비밀 보도를 가지고 직접 6405 공군 보급 련대에 간 브이•엠•제이—1 특별 무기반에서 취급하였다. 1952년 6월 5일 아침에 해군 륙전대 제1 공군 련대 후방 장교 클라크 대좌는 나를 자기의 사무실에 불렀다. 사무실에는 클라크 대좌 혼자만이 있었는데 그는 내가 병기과 사업에 익숙해가는 정형에 대하여 물었다. 몇개의 평범한 병기과 문제를 토의한 후 그는 잠시간 주저하였다가 그의 책상위에 몇매의 서류를 내놓고 잠간 자기 책상 주위를 걸어 다니다가 다음에 『자, 브레이, 나는 주요한 리유로써 당신을 여기에 불렀다. 그것은 련대 특별 무기 계획 즉 세균탄 사용을 토의하는 것이다』. 그는 다시 자기 책상에 앉은 후에 『맥가리는 그것을 당신과 토의하였는가?』라고 물었다. 나는 그가 간단히 말하

였다고 대답하였다. 다음에 그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지금까지 사용한 데 대하여 여기서 당신에게 알려 주기 위하여 이전에 사용한 데 대한 간단한 경위를 말하겠다. 공군은 워싱톤에 있는 그들의 사령부로부터 명령을받고 1951년 첫겨울에 최초에는 오끼나와에 기지를 둔 비29형 비행기 들로써 다음에는 케—8 (조선 군산) 에 있는 제3 폭격기 련대의 비26형 비행기들에 의하여 폭탄 투하를 개시하였다.

다음에 전투기들도 이 폭탄을 사용하게 되였으며 케—8에 역시 기지를 둔 해군 륙전대 제513 야간 전투기 중대도 이 폭탄을 사용하게 되였다.

에프 7 에프형 (타이거캣츠) 비행기를 사용하는 해군 륙전대 제1공군 련대 제33 공군 대대에 소속된 이 중대는 다음과 같은 리유로써 공군에 의하여 이 계획에 포함되였다. 이 중대는 야간 전투 중대로서 대단히 안전하게 이 폭탄들을 투하할 수 있었다.

이 중대는 폭탄 공급이 보장될 수 있었던 케—8에 기지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공군 사령부는 이 세균탄이 증대되는 범위에서 사용된다면 중대가 실험하는 것과 익숙히 되는 사업은 해군 륙전대 항공기와 그들 자신에게 대단히 도움을 주게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실험하는 것과 익숙히 되는 사업은 비행사들에게 경험을 줄 뿐만 아니라 세부 문제와 절차를 취급하는 공군 특별 무기반 인원들에게 도움을 주게될 병기과원들에게도 경험을 줄 것이였다. 513중대는 1952년 정초부터 세균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음에 브이•엠•제이—1중대도 또한 3월 1일에공군에의하여 이 계획에 추가되였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첫째로 이 중대가 대부분 촬영 정찰 사업을 하는 중대였으며 의심을 받지 않고 이 폭탄들을 투하할 수있었기 때문이였다.

둘째로 이러한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그들은 북조선의 전역을 비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째로 특별 무기반 인원들은 소요되는 인원들을 취급하는 핵심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들의 케—3에 있었기 때문어였다. 그리고 그는 잠시 후에 『당신은 세균탄 사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나는 『이것은 나 자신의 주의에 반대될 뿐만 아니라 해군 륙전대의 위신에도 분명히 오점을 찍는 것으로 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대좌는 그가 세균 폭탄의 사용을 찬성하지 않았으며 련대 내의 모든 사람들도 다 그것을 찬성하지 않았으나 우리들은 상급 기관으로부터 이것을 사용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그 명령들에 복종하는 외에만 도리가 없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클라크 대좌는 나에게 말하기를 해군 륙전대 제 1 공군 련대 사령관 제롬 장군은 5월 하순에 제5 공군 사령부에서 진행된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해군 륙전대 제1 공군 련대를 더욱 전면적으로 세균 무기 사용에 참가시킬 데 대한 계획을 지시 받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제롬 장군은 케—3에 도라온 후 참모회의를 소집하였는바 이에는 부사령관 램슨 스클티브나, 참모장 쉬버 대좌 및 정보장교 스테이지 대좌가 참가했다는 것이 나의 기억에 가장 뚜렷하게 남아 있으며

이밖에 작전 장교 원트대좌와 제롬 자신이 참가하였다. 제롬 장군은 그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각 부서들의 과업들과 사명들을 설명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3일 후에 도착할 예정이였던 련대병기과 장교로서의 내가 후방부를 위하여 많은 계획 세목들을 취급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하여 통고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결정되였다. 클라크 대좌는 다음으로 그 회의에서 목표 구역이 또한 토의되였다고 지적하였다.

「합동 작전 본부」는 적 전선 배후 깊이 조선 반도를 횡단하는 그리고 적의 주요 수송 루트들을 휩싸는 오염 지대를 설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해군 륙전대 제1 공군 련대 제33 공군 대대와 동 제12대대는 둘 다 이 계획에 포함되였으며 제33 공군 대대 소속인 브이•엠•제이—1중대 및 브이•엠•에프—513 중대는 더욱 큰 규모로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되였으며 제33 공군 대대의 에프 9에프(펜서즈)중대들은 세균탄을 사용할 준비를 갖추고 대기 태세를 취하며 또한「합동 작전 본부」로부터 명령이 있으면 세균탄들을 투하할수 있도록 준비되여 있어야하였다. 제12공군 대대의 에이•디 형 (스카이레이더스) 비행기들은 케—8로 날아가서 세균탄의 공급을 받고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폭발 장치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서즉 시 소규모의 작전을 개시하며 그 다음 자기들의 기지인 평택의 케—6의폭탄저장소로부터 세균탄들의 공급을 받을수 있게되면 그때에는 대규모의 작전을 개시하도록 되여있었다. 클라크 대좌는 다음에 내가 되도록 빨리 수행하여야 할 몇몇 문제들을 설명하였다. 대구에 있는 제6405공군 보급 련대와 련계를 지을 것, 그리하여 케—3에서 폭탄 보급을 받아야 할 경우와 관련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그들과의 회의를 진행하며 케—6에도 공급해야할 경우를 고려하여 그 준비를 수행하게 할것, 케—3에서와 케—6에서의 저장 시설을 검열할 것. 나는 또한 세균탄들이 저장되고 있는 제33공군 대대 폭탄 저장소에서 실시되고 있는비밀 유지 방법도 검열해야하였으며 제12공군 대대 폭탄저장소 장교가 폭탄공급을 시작하였을때 그들로 하여금 비밀을 더욱 엄격히 유지하도록 준비시켜야 하였다. 클라크 대좌는 비밀을 유지 하기위하여 극도의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후방부나 병기부로부터 아무런 문서도 발행되여서는 안된다는 것과 심문을 받았을경우나 보고를 할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지시들과 감독들은 구두로하게 되여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내가 그의 사무실을 떠나기 전 클라크 대좌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브레이, 나는 이것이 불유쾌한 과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최대의 능력을 다하여 이 계획중 당신에게 맡겨 진 과업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6월 9일, 맥가리와 나는 제33 공군 대대 폭탄 저장소 장교를 만나 세균폭탄을 위하여 그가 설비한 시설들을 조사하였는데 그것은 만족스럽게 되여 있었다. 그는 나에게 공군 직속 특별 무기반으로부터 폭탄 청구를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나는 그에게 저장소를 더욱 많이 만들 것을 명령했는데 그것은 그의 사용률이 증가될 것이며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폭탄보다 두배 내지 세배나 되는 폭탄들을

우리들이 취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6월 13일, 나는 제12 공군 대대 폭탄 저장소를 검열하며 또한 동 대대 병기과 장교와 그곳에서 세균탄을 저장할데 대한 그의 계획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케—6으로 갔다. 나는 동 병기과 장교에게 제12 공군 대대가 특수 무기——즉 세균탄을 사용하는 데 관하여 알고 있는 가를 물어 보았다.

그는 이것을 약 10일 전 자기 공군 대대 지휘관 게일러 대좌한테서 들었다고 대답하였다. 게일러 대좌는 그에게 폭탄 공급은 수주일 동안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케—6에서 세균탄 공급을 실하시기전 제12 공군 대대는 특수 무기 사용을 위하여 약간의 인원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게일러 대좌는 또한 그에게 믿음성있고 그가 비밀 유지 심사를 통과할수 있다 고 생각하는 인원을 그의 폭탄 저장소 인원들로부터 약10명을 선발하되 그들은 정규적인 폭탄 취급 인원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여서는 안되며 그들을 제3 폭격기 련대가 훈련 주어 실지 견습을 할 수 있도록 케—8에로 파견할 것을 명령하였던 것이다. 이 10명의 인원은 6월 11일 약 4주일의 기한으로 케—8로 파견되였다. 나는 폭탄 저장 조치와 정보의 비밀 유지 상태를 검열하였다.

나는 브이•엠•제이—1 중대가 어떠한 방법으로 세균탄들을 받았는 가를 알렸으나 클라크 대좌와 내가 며칠 이내로 대구에서 공군 보급 련대 인원들과 회합한 후 거기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정보를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끝으로 나는 그에게 케—3으로 가서 동 기지의 시설들을 보고 또한 저장 방법들을 볼여가가 있다면 케—8에도 가보도록 지시하였다. 6월 16일 나는 해군 륙전대 제1 공군 련대에 대한 세균탄 공급의 증가에 관하여 제6405 공군 보급 련대와 협의하기 위하여 공로로 대구로 향하였다. 클라크 대좌는 나와 같이 가지 못하였다. 회의는 제6405공군.보급 련대 사령관실에서 진행되였는바 나는 여기서 동 련대의 병기과 장교를 만났다. 나는 제6405 공군 보급 련대가 1951년 12월 이래 케—8에 있는 제3 폭격 련대에 대하여 시초에는 적은 수량으로, 다음에는 더 대량적으로 세균탄을 보급하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케—3에 대한 공급은 1952년 3월에 시작되였다. 제6405공군 보급 련대 지휘관은 나에게 극동 물자 보급 지휘부가 6월 1일 경 해군 륙전대 제1공군 련대가 케—3에서의 세균탄 사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며 또한 케—6에도 세균탄 공급을 실시하여야 할 것을 그에게 통고하였다고 말하였다. 나는 신청, 교부, 암호 및 보고들에 대한 모든 상세한 것을 토의하였다.

우리는 케—6에 세균탄 저장소가 설치될 때까지 브이•엠•제이—1중대가 계속 세균탄 청구서를 보낼것과 다음에는 두 대대의 대한 모든 청구는 해군 륙전대 제1공군 련대 사령부를 통하여 내가 행할것이라는 데 합의를 보았다. 그 시기는 8월 경으로 될것이였다. 나는 이 모든 결정들을 클라크 대좌와 기타 관계 장교들에게 구두로 전달하였다. 7월 7일 클라크 대좌는 나에게 세균탄 사용의 증가에 의하여 제기된 제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7월 10일에 제12 공군 대대와 제33 공군 대대

의 후방 장교들과 병기과 장교들, 그리고 브이•엠•제이—1중대 소속 특별 무기반의 일부 장교들의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통고하였다. 다음날, 나는 해군 륙전대 제1 공군 련대 참모장 쉐버 대좌와 함께 케—6으로 향하였으며 제12 공군 대대 병기과 장교와 예비적 회담을 하였다.

그는 나에게 세균탄을 취급한 인원이 케—8에서 훈련을 완료하는 즉시로 케—6에 세균탄 저장 시설을 설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시일은 7월 12일 경으로 될 것이였다. 바로 이날, 즉 1952년 7월 8일, 케—6으로부터 케—3에로 쉐버 대좌와 함께 도라가는 도중 우리는 코스를 잘못 잡아 전선 후방인 북조선에서 대공포 사격을 받아 격추 당하였다.

로이 에취•브레이 (서명)

군호 010450

미국 해군 륙전대 소좌

1953년 1월 21일

북조선

2, 19명의 미국 공군 전쟁 포로들의 세균전에 관한 공술

(1) 미 공군 중위 죠지 프란시스 브루크스의 증언

나는 미공군 중위 죠지 프란시스 브루크스이며 년령은 27세 군번호 에이•오—1911075이다. 나의 집은 펜실바니아주 섬밋트 힐이다. 나는 1944년에 해군에 입대하였다.

나는 1946년 7월에 제대되였다 나는 1949년 7월 8일에 공군에 입대하였다. 나는 1952년 9월 11일에 조선에 도착하였다. 나는 에프—51 비행사로 제18 전투 폭격기 련대 제 18전투 폭격기 대대 제12전투 폭격기 중대에 배속되였다. 나는 해주시 부근에서 1952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격추당하였다. 나는 중국 인민 지원군에 의하여 포로되였다.

나는 1952년 9월 11일 제18전투 폭격기 련대 케이—10련대 본부에 도착하였다. 나는 1952년 9월13일에 제 18전투 폭격기 대대에 배속되여 케이—46대대 본부에 파견되였다. 나는 훈련반에 배속되여 1952년 9월 15일 오전8시에 지상 훈련대에 보고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나는 1952년 9월 15일 오전8시에 훈련대에 보고하였다. 거기에는 그날 훈련을 시작하려던 9명의 새로 도착한 비행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더블 소위, 맥클레인

소위였으며 기타 7명은 기억나지 않는다. 우리는 지상 훈련대에서 로버트 테일러 중좌에게 소개되였다.

그는 그날 오전 8시 10분에 지상 훈련대 강의실에서 세균전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강의 하기 시작하였다. 전투 훈련을 위하여 훈련 반에 배속된 상술한 새 비행사들도 나와 함께 세균전에 관한 이 강의에 참가하였다.

테일러 중좌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분 당신들은 세균전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며 우리들이 세균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중국의 비난을 들었을 것이다.

나는 우리가 이와같은 세균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과 어떻게! 세균전을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말하려 한다』

우리는 모두 라디오와 신문을 통하여 중국의 비난을 들은바 있었으나 우리는 그것을 선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놀랬다.

테일러 중좌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제18중대가 사용하고 있는 세균들의 형태들은 발진티프스, 티프스. 말라리아. 천연두. 황저병 및 콜레라이다』

테일러 중좌는 그 당시 제 18중대가 사용하고 있던 세균전을 진행하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말하였다.

이 두가지 방법은 세균액체를 산포하는 방법과 투하하는 방법이였다.

세균 액체는 탕크에 담아졌다. 매개 비행기는 두개의 탕크를 실을수 있었다. 이 탕크들은 산포 또는 투하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었다. 산포를 위하여 사용되는 탕크들은 기압에 의하여 열어 진다. 기압은 엔징으로 조정되는 펌프에 의하여 공급된다. 이 펌프는 기익에 있는 기압선을 통하여 세균탕크에 기압을 공급한다.

탕크에 있는 이 기압은 액체를 분무선에 보낸다. 산포를 위하여 탕크들은 전기 스윗치로 조정된다. 탕크가 비이게된 후 그것은 세균을 기지에 도루 가져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투하되지 않으면 안된다.

투하를 위하여 사용 되는 경우에 탕크는 기압선이나 분무선을 가지지 않는다. 그외에는 투하 또는 산포를 위하여 사용되는 탕크들은 동일하다.

탕크를 투하하기 위하여서는 조정대 위에 있는 폭탄 투하 보단을 누르면 된다. 테일러 중좌는 세균 액체 탕크들이 산포될때 사용되는 그러한 비행기가 고안되였다고 말하였다.

제12중대는 산포식 세균 탕크를 사용할 것인바 이것은 제 18대대 전체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였을 것이다.

그는 또한 우리들이 모두 훈련 출격을 할것인바 여기서 우리는 물을 가득담은 탕크들을 산포하며 다음에 투하할 것이 예견되였다.

끝으로 테일러 중좌는 세균전 강의에서 말한 모든 것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출격에 대하여 말해서는 안된다고 청강생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족들이나 동무들에게 세균전에 관한 어떤 것에 대하여서도 편지를 보

내여서는 안되였다

이로써 강의는 끝났다.

내가 1952년 9월 26일 아침 훈련반에서 지상 훈련대에 보고하였을 때에 나는 세균전 출격 연습으로 나아가게될 것이 예정된 것을 알았다.

나는 로버트 테일러 중좌가 출격에 대하여 간단한 주의를 하는데 참가하였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물을 가득담은 탕크들을 산포하며 다음에 투하하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수원 포진지로 갔다.

우리는 포진지에 가는 도중 산포하며 우리의 탕크들을 투하하여야 하였다. 테일러 중좌가 이 출격을 지휘하였다. 우리들은 포진지 상공에 가는 도중에 탕크들에서 물을 산포하였다.

그 다음 우리는 빈탕크들을 투하하고 케이—46기지에 돌아왔다.

이 편대는 4대의 에프—51비행기들로 구성되였다.

1952년 10월 7일오전 8시 30분에 우리의 편대는 세균전을 위한 출격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대대 명령 전달실에서 진행되였다. 이 출격 명령은 대대 정보담당 장교가 행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출격 번호 1805 세균전, 4대의 비행기, 당신들은 산포하여야 한다. 각 비행기는 두개의 세균 액체탕크를 적재한다 목표지는 해주 서방 20마일이다.

출격 시간은 오전 9시 산포가 끝난후에 탕크들을 투하하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들은 천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목표 지구는 서북방으로 부터 미풍이 있을뿐 청명하였다. 우리는 그날의 전투 회피 신호와 아군의 암호 및 기타 신호들을 받았다. 이것은 4대의 비행기로 편대되였다. 켄프톤 중위가 편대를 지휘하였다.

명령 전달이 끝난후 우리들은 중대 장비실에 가서 비행 도구들과 비행기 번호들을 받았다. 그다음 우리들은 비행기 있는 곳으로 가서 비행기를 검열하고 발동시키고 출발 준비를 하였다. 오전 9시에 비행기는 떠났다. 우리는 전투 편대를 지어 목표 지구로 향하였다. 우리는 서울을 지나 해주반도 해안선을 따라 목표지구로 향하였다.

우리는 목표 지구에 가까이 갔을때 하강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 지구에 도달하였을 때 내륙으로 돌았다. 해안선을 지난 직후 우리는 산포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일련의 계곡을 따라 북행하였다.

우리는 탕크들이 비여졌을때 우리는 그것을 투하하고 좌측으로 돌아 해안선으로 향하였다. 해안선에 도달한 후 우리는 케이—46으로 기수를 돌리였다. 우리 비행기가 도착한 후 우리는 비행 도구들을 벗고 대대 정보부에 가서 보고하였다.

편대 지휘관인 켄프톤중위가 정보 장교에게 보고 하였다.

출격 번호1805, 세균전, 비행기 4대 우리는 성공적으로 산포하였으며 모두 8개의 탕크들을 투하하였다.

나의 두번째 세균전 출격은 1952년 10월 12일에 행하여졌다. 4대의 비행기로된

우리 편대는 초도로부터 내륙으로 들어가 동쪽으로 비행을 계속하여 평양과 사리원 사이의 철로까지 다달은 후 방향 을 바꾸어 사리원으로 향하였다.

우리는 사리원으로부터 약 5마일 떨어진곳에서 산포를 멈추었다. 이 산포 출격에 지휘자는 것터슨 소위이였다.

나의 세번째 세균전 출격은 1952년 10월 19일에 행하여 졌다. 목표 지구는 해주 서방 5마일 지점이였다. 4대의 비행기로 되는 우리 편대는 이 지점에서 산포하면 서 북행하였다.

엔세니아스대위가 편대 지휘관이였다. 켐프톤 중위도 이 출격에 참가하였다.

나의 네번째 세균전 출격은 1952년 10월 26일에 행하여졌다. 4대의 비행기로 되는 우리 편대는 초도 남방 30마일 지점에서 산포하였다. 해주 반도 서남방 구석에서 우리는 해안선으로부터 동북방으로 가면서 내륙에 산포하였다. 엔세니아스 대위가 이 출격을 지휘하였다. 쉬펠대위도 이 출격에 참가하였다.

우리 편대가 제2,제3,제4 세균전 출격을 위하여 받은 명령 복명 및 절차들은 제1차 세균전 출격과 같으므로 나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나는 이상 3차의 세균전 출격에서 매번 2개의 탕크를 산포하였으며우리 편대는 매번 출격에 8개의 탕크를 산포하였다.

나의 다섯번째 세균전 출격은 1952년 11월15일에 행하여졌다. 24명의 비행사들이 대대 정보 장교로부터 일반적 주의 사항을 받았다.

대대 지휘관 브린슨 대좌가 이 출격을 지휘하였다. 우리는 일반적 주의 사항을 받은 후 비행기 8대씩을 가진 3개의 그루빠로 나누어졌다. 부린슨 대좌 페레고 대좌 (련대 지휘관) 프로인드 중좌 (제 12대대 지휘관) 것터슨 소위 (나의 편대 지휘관) 그리고 나자신 등이 제12중대 명령 전달실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우리그루빠는 브린슨 대좌로부터 주의 사항을 들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각각 2개의 액체탕크를 적재할 것을 통고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투하하여야 되겠다. 우리는 일반적 주의 사항에서 대대 정보 장교로부터 전반적 목표 지구를 통고받았다. 브린슨 대좌는 우리에게 우리의 특별 목표지구를 지시하였다. 목표 지구는 평양 동방 20마일 지점 즉 동서로 달리는 주요 보급선과 병행하는 일련의 강 줄기들이였다.

우리는 오전 10시 15분에 리륙하여 목표 지구로 북향하였다.

우리가 목표 지구에 도착하였을때 우리는 하강하기 시작하였다. 브린슨 대좌는 탕크들을 맨 먼저 투하하고 이전의 고도로 올라가서 그 지구를 선회하면서 기타 비행기들이 투하하는 것을 감시하였다.

나는 두개의 세균 액체 탕크들을 투하하였으며 브린슨 그루빠는 도합 16개의 세균액체 탕크들을 투하하였다. 마지막 비행기가 그의 탕크들을 투하하였을때 우리는 9,000 피트의 고도로 올라가 케이—46을 향하여갔다.

모두 대대 정보 복명실에 모이였으며 브린슨 대좌가 그의 출격 보고를 하였다.

나는 제18대대와 더불어 5회의 세균 출격을 하였다.

나는 세균전이 비인도적이며 사용되여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비 법화하여야 하며 세균전을 사용하는 어떤 나라도 그것을 사용하는데 대하여는 징벌을 받아야 한다. 나는 세균전에 내가 참가한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한다. 나는 부끄러운 나머지 내가 한일에 대하여 회상하고 싶지않다.

미 공군 중위 죠지 프란시스 브루크스

군번호 에이. 오—1911075

1952년 1월 12일

(2) 미 공군 중위 보비 이•햄메트의 증언

나는 미 공군 중위 보비 이•햄메트이며 군번호는 에이•오—2222293, 제17 폭격기 련대 제17폭격기 대대 제37 폭격기 중대 비—26경폭격기 항법 폭격사이다.

나는 1952년 2월 2일부터 1952년 6월 7일까지 내가 북조선에서 격추될때까지 부산 케이—9에 주둔하고 있었다.

나는 1950년 9월 28일에 공군에 입대하였으며 항법사로서 텍사스주 하우스톤의 엘링톤 미 공군 항공기지에서 사관학교 학생으로 훈련을 받았다. 나는 1951년 10월 8일에 소위의 칭호를 받았다. 나는 전투 승무원 훈련을 받기위하여 랭글레이 미공군 항공기지에 림시근무로 파견되였다. 나는 1952년 1월 29일에 일본에 도착하였다.

나는 조선에 파견되였다.

나는 1952년 2월 2일에 케이—9에 도착하였으며 1952년 3월부터 전투 임무의 출격을 시작하였다.

나는1952년 5월 15일에 중위로 승급하였다.

나는 1952년 2월 15일부터 내가 격추당할때까지 중대 정보 장교로 있었다.

련방 조사국에 의하여 나의 신분이 명백히 된후 정보장교로 배치되였다는 것은 극비에 부쳐졌다.

나는 1929년 6월 6일 미시싶피주 뉴 오우거스트리아에서 출생하였으며 나의 주소는 미시싶피주 결포트겔리가 2717이다.

내가 처음으로 세균전과 관련된것은 1952년 4월 2일이였다. 그때 나는 특별제이•오•씨 (제5공군 공동작전 본부) 출격을 위임받았다. 나의 비행기 승무원들은 오후 2시경 작전 본부에 보고하였는데 대대 작전 장교는 서울근방 김포기지 케이—14로 비행할것을 지시하였다. 이 케이—14에서 우리는 기지로부터 출격할데 대한 명령을 받았다.

우리는 장비를 갖춘후 비행기 있는 곳으로 갔다.

우리는 오후5시에 김포에 도착하였는데 설명을 들을때까지 2시간 더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동안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였다.

오후 7시에 제5공군 대표인 한 소좌가 인사를 하고 우리에게 설명하였다. 우리

들만이 이 설명을 들었다. 소좌는 처음에 우리의 출격은 비밀 출격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다음에 우리가 세균전 출격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다음 그는 싣고갈 폭탄이 4개의 500폰드 세균탄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비행사들에게 8,500피트의 고도로 서쪽 바다로 비행한후 북행하여 안동에 세균폭탄들을 투하하도록 지시하였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모두 놀랬다.

나는 폭격수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표 지구를 알기 위하여 50,000분지 1 지도를 받았다. 나는 안동 동북 구석에 폭탄들을 투하할것을 지시받았다.

우리는 될수있는대로 속히 국제경계선을 넘어 돌아오라는 경고를 받았다.

소좌는 만약 우리가 적 항공기를 만나게 되면 우선 경계선을 넘도록 로력하며그다음 격추당하지 않도록 로력하며 만약 우리가 중국 상공에서 포탄에 맞았을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압록강을 건느라고 말하였다.

만약 우리가 포로로된다면 나는 중국 상공에 있은데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될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항법사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항로를 잃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여야 하며 특히 세균폭탄들에 대하여는 침묵을 지켜야 되였다.

소좌는 만약 우리가 주요 목표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남조선에 어떠한 폭탄도 가져와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는 제2의 목표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비행에 대한 지시들을 주었으며 우리가 중국 본토에 세균폭격을 한 것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다시금 경고하였다. 우리는케 이—14에 돌아와 복명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명령 전달이 끝난후 우리는 우리의 비행기 있는 곳으로 갔다. 비행기에는 벌써 세균 폭탄들이 실려있었다. 우리가 출격 준비를 하고 있을때 경비원이 서 있었으며 내가 목격한 또 하나의 것은 우리가 비행기에 도착하였을때 문형 폭탄이 달려있는 것이였다. 우리는 출발하여 8,500피트의 고도를 유지하면서 바다쪽으로 향하였다.

우리는 개성을 우회하여 사리원과 평양에서 잠시 포화를 만났다. 평양을 지나니은 로란 (장거리 항행)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항공술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압록강 남방 약 10마일 지점에서 우리는 오후 10시 16분경에 폭탄 투하 준비를 하였다. 나는 비행사에게 지시하였다. 내가 찾고 있던것은 강들이 였으며 도로들이 어떻게 뻗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였다.

나는 목표로부터 약 3마일에서 폭격 묘준으로서 코스를 시정한 다음 비행사로 하여금 폭탄 투하문을 열게하고150피트의 간격으로 기차에 인터배로 메터를 맞추었다.

폭탄 투하 지점에서 내가 한 모든 것은 폭탄 투하 스윗치를 눌러 폭탄들이 모두 150피트 떨어져 있는 기차에 투하되게하는 것이였다.

나는 어떤 종류의 폭발을 보았으나 폭발하는 섬광은 보지못하였다.

폭탄이 투하된 직후 우리는 돌아서서 목표 지구를 떠나 케이—14로 돌아와 복명하였다. 전과같은 소좌에게 우리는 복명하였는데 나는 그에게 명령한대로 집행하여 안동 동북방 구석으로부터 1마일 지점에 4개의 세균폭탄을 투하하였다는 것과 폭발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출격이 성공하였다고 말하고 누구에게나 이 출격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다짐하였다. 그는 『당신네들은 모두 장교들이니까 비밀 정보를 루설하면 어떠한 벌을 받을 것인가를 알고 있을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를 돌려보냈으며 우리는 그날 아침 우리의 기지로 돌아왔다.

이러한 출격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제이•오•씨 특별 임무에서 무엇이 행하여 졌는지 아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제이•오•씨 특별 임무가 내가 출격하기 시작한때부터 1952년 7월 7일 내가 격추당하였을 때까지 부단히 계속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이 출격이 케이—14에서 행하여진것은 이곳이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리유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기지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대대가 중국을 폭격하고 있다는 뉴스가 루설되는 것을 곤난케 하려는 것이다.

이 출격들의 대부분에 종사한 사람들은 대대 비행사였다. 대대들에게 위임된 제이•오•씨 특별 출격을 위하여 선출된 사람들은 대대 작전장교에 의하여 선출되였다.

제이•오•씨 특별 출격 인원들은 장교들이 아니면 안되였다.

그후 나는 케이—9 (부산) 에서 여러번 세균전 출격을 하였다.

첫번째는 1952년 4월 25일이였는데 그때 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비행하였다. 즉 비행사 건느 중위, 항법사 나 자신, 단거리 항법사 파지오 중위, 에이—2씨 핼스테드, 기관사 그러나 그때 나는 그것이 세균폭격 출격이라는 것을 몰랐다.

설명에 의하면 그것은 정규적인 폭격 출격이였다. 그러나 오후 6시경에 나는 나의 비행실에 불리여 갔는데 그는 나에게준 일부 좌표들에 사전 비행을 할것을 계획하라고 말하였다. 좌표는 신계 서방 약 1마일 지점이였다. 그는 나에게 우리가 폭탄들을 이곳에 투하할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였는데 누가 지시하였는 가에 대하여는 말하지않았다. 오후 10시 직후에 출발한후 우리는 폭탄들을 투하하기 위하여 신계로 직행하였다. 나는 두 차례의 폭발과 두 차례의 불발을 보았다. 우리는 정상적인 폭격 및 공격을 한후 평시와 같이 복명하였다.

4월 30일에 나는 케이—9로부터 또다시 이와같은 출격을 하였다. 이번에는 나와 나의 비행사 건느중위가 순안동방 2마일 지점에 4개의 폭탄들을 투하하라는 목표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이번에도 나는 두 차례의 폭발과 두차례의 불발을 목격하였으며 기타의 출격도 지정된 루트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그후 제3 폭격기 련대가 그들의 활주로를 수선하는 동안 5월 2일부터 우리 기지

에와서 전투출격을 하게 되였다. 나의 몇몇 친구들은 그들이 한 세균 출격에 대하여 나에게 말하여 주었는데 이 중에는 케이—14로 부터의 제 5공군 제이•오• 씨 특별 출격도 포함되여 있었는바 이것은 내가 한 출격과 같은 것이였다.

세균전을 진행하는 제3 폭격기 련대에 관하여 그들의 기지들에 대한 것이 토의되였는데 이동안 나는 이러한 형의 세균전을 우리 공군이 어느정도로 진행하고 있는가를 알기 시작하게 되였다.

나는 처음으로 세균폭탄이 1952년 5월 5일 대대 명령 전달 장교 프리슨 소좌가 강의를 한후 케이—9로 부터 진행되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나는 점심 식사를 끝낸 직후 그날 오후 회의를 위하여 대대 명령 전달실에 호출되였다.

이것은 4월 25일경에 행하여진 이전의 강의에 결석한 항법 폭격 사수들 몇몇을 위한 보충 강의였다.

나는 강의실에 나의 대대 소속인 기타 3명의 폭격수가 있는 것을 보았다. 문에는 경비원이 서있었으며 문도 잠겨 있었다. 프리슨 소좌는 우리에게 대대가 세균전 출격을 할 것이라는 것과 우리는 폭격수이기 때문에 폭탄들을 투하할 사람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가 전투 지구에 있는 전투 비행사 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없다고 말하였다.

프리슨 소좌는 세균 폭탄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폭탄들은 발진티브스와 코레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특별 인원들이 이 폭탄들을 기익들에 장치 할것이며 우리는 500폰드 폭탄을 투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만약 우리가 폭탄 신관에 결함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야간 작전 장교를 불러 특별 인원들로 하여금 그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비밀 보장을 위하여 케이—9로부터의 세균전 출격은『중대 계획 출격』이라고 부를것을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것은 극비에 속하며 이를 루설하는 경우에는 군법에 의하여 사형에 처한다고 경고한 다음 우리를 돌려 보냈다. 나는 2회에 걸쳐『중대 계획 출격』을 하였는데 나는 내가 이전에 2회의 출격에서 투하한『불발탄』들도 역시 서로 류사한 점으로 보아 이것이 세균전 임무를 띤 것이였다는 결론을 얻었다.

나의 첫번째『중대 계획 출격』은 1952년 5월 5일에 진행되였다. 나와 나의 비행사인 건느 중위는 강동 동남방 5마일 지점에 있는 목표에 세균탄을 투하하였는데 4개의 폭탄이 투하된 후 2회의 폭발과 2회의 불발을 보았다.

나의 마지막『중대 계획 출격』은 5월 24일 수안 부근에서 진행되였다. 승무원들은 비행사 건느 중위 항법사인 나 자신, 단거리 항법사 페니중위 그리고 에이—2씨 핼스테드 기관사였다. 다만 다른것은 4개의 폭탄이 전부 세균 폭탄이였다는 것과 내가 4개의 불발탄을 보았다는 것이였다. 나는 1952년 7월 7일에 격추 되였기 때문에 더는 출격을 하지 않았다.

그의 대대에 속하는 전체 3개 중대 즉 제34, 37 및 제95 폭격기 중대들이『중대 계획 출격』을 진행하였다.『중대 계획 출격』은 언제나 2중의 목적 즉 첫째로

세균탄 투하 둘째로 항공중 도로 차단을 수행하는 목적을 가졌다.

비행기는 처음에 지정된 목표에 비행하고 4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그후 비행기는 차량에 대한 정상적인 폭격과 기총 소사를 가하였다.

미 공군 중위 보비 이 햄메트

군 번호 에이•오—2222293

1952년 7월 12일

북 조 선

(3) 미공군 소좌 챨스 이•스탈의 증언

미공군이 진행한 세균전에의 나의 참가

나의 이름은 챨스 이•스탈이며 1928년 9월 28일에 출생하였다. 나는 미공군 소좌 이다.

나의 가족은 오하이오주에 있는 폴딩이라고 부르는 소 농촌의 큰 거리 끝에서 살고 있다.

나는 1949년 8월 15일에 텍사스주 퍼린 공군 기지에 있는 항공 사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950년 10월 28일에 아리조나주 윌리암 공군기지에서 소좌로서 졸업하였다. 졸업하자 나는 오헤어 공군 기지에 있는 제142 전투 요격기 련대 제62 전투 요격기 대대에 배치되였다.

나는 여기에서 에프—86 비행사로 근무하였다. 나는 1951년 10월 28일 조선에 있는 제51 전투 요격기 련대에 파견될 대까지 여기에서 근무하였다. 나는 1951년 11월 20일에 제51 전투 요격기 련대가 주둔하고 있던 수원에 도착하였다. 나는 1952년 1월 7일 북조선 순천에서 미크들에 의하여 격추되였다.

나는 1951년 12월 24일 부터 1952년 1월 7일에 이르는 기간에 조선에서 6차에 걸쳐 출격하였다. 이중 1회는 세균전의 첫 실험의 일부였다. 나는 이 세균전 출격과 이에 관한 강의들에 대하여 다음으로 말하겠다. 이것은 미 공군의 조선에서의 발광적인 세균전 감행에 내가 가담한데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나와 기타 19명이 그날 출발하기로 되여있던 출격명령을 받은 것은 1951년 12월 27일 경이였다. 대대의 명령 전달이 있은후 항공대의 명령 전달이 있었는데 항공대 지휘관은 이 출격이 『실험 탕크』를 싣고 출동하는 특별 출격이라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우리가 연료탕크에 여분의 연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료 소비에 관하여 강조 하였다.

그는 또한 자기의 명령이 있을때만 탕크들을 투하하라고 말하였다. 그날 우리가 비행할 항로는 수원으로 부터 바다로 나가 신안주까지 북행하고 해안 상공에서 항로를 돌려 청천강 상공에 도달하는 것이였다. 돌아 오는 항로는 이 항로의 반대이였다. 분명히 항공대 지휘관은 우리가 신안주 근방 군우리의 보급기지 상공에서

실험 탕크들을 투하하기로 되여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특별 출격이였지만 실험 탕크들을 투하한다는것 외에는 별다른점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출발전에 항공기를 충분히 검사하는 것이 관례이였지만 이날 오후 나는 늦게 나왔기 때문에 항공기 주의를 뛰여 다니며 간단히 검사하였다. 간단한 검사가 끝난 다음 나는 조종실에 올라가 이상이 없는가고 지휘관에게 물었다. 그는 이상이 없다고 대답 하였기 때문에 나는 항공기에 대하여 책임지는 용지에다 수표 하였다.

우리는 13시경에 출발하였으며 명령 받은 항로를 따라 상승하였다.

우리가 해안 상공을 지나 신안주 상공에 도달하였을 때 미크들이 나타났다.

항공대 지휘관은 매 항공기마다 2개씩 싣고 있던 탕크들을 전부 투하하라고 명령 하였다. 이 탕크들은 전부 신안주 부근에 투하되였다. 항공대 지휘관은 미크들을 통과하여 미크들과 떨어졌다. 그후 미크들은 다시 나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50가론의 연료를 남기고 귀환하였다. 저녁 식사 바로 전에 나는 구락부에서 비루를 마신다음 저녁식사를 하려 식당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때 나는 마후린이 누구에겐가 대하여 그날밤에 탕크에 세균들을 넣을데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당시 나는 이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나의 중대장인 윤수 소좌를 만났을때 나는 그날밤 무엇때문에 실험땅크들을 싣고 출격하였는가고 그에게 물었다. 그것은 우리의 땅크들을 실험하기 위한 것이였다고 대답하였다. 크리스마스경에 소좌로부터 대좌에 이르는 지위에 있는 몇명의 장교들이 제51전투 요격기 련대에 도착하였다.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조용히 련대에 왔으며 따라서 아무도 그들이 무엇때문에 왔는지 모르는 것으로 보였다. 크리스마스 당시까지 우리는 「실험 땅크」 출격을 한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장교들의 도착에 대한 반향은 일종의 분노를 일으킨데 불과하였다.

왜냐 하면 만일 그들이 출동하기로 되여 있다면 그들은 일부 중위들을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들이 100회의 출격을 달성하는 데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였다.

이것들은 련대에 위임된 사업이 아니였으며 나는 그후 이 사람들 중의 적어도 한사람 그리고 아마도 전부가 세균전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사람들 중의 두명의 이름만을 나는 알고 있는데 그들은 샤퍼 소좌와 마후린 대좌이였다. 그들은 비행기로 미국으로부터 일본을 경유하여 조선에 도착한 것이였다. 1952년 1월 2일 제 51전투 요격기 련대 련대장 가브레스키 대좌가 당시 수원에 있던 제51 전투 요격기 련대 전체 대원들에게 군사 규률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이 강의는 아침에 시작하여 실험 땅크 속에 세균을 운반할데 관한 강의로써 끝날 예정이였다. 그다음 련대 부관 쿠크대위가 군대 복무 조례 제104조를 읽었다. 가브레스키 대좌는 자기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명령은 당신들이 리해할 수 없거나 심지어는 찬성할수 없더라도 절대 복종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 하면 이 명령은 당신들 보다도 문제를 더 잘 리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군대 규률을 실증하여 준다. 그러나 나는 성과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고 전달된 어떤 명령이든지 맹목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이러한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 1952년 1월 3일 점심후 마후린 대좌는 대대 명령 전달실에서 제51 전투 요격기 련대 전체 조종사들에게 연설하였다.

이 연설을 40—50분간 계속되였다. 나는 다른 조종사들이 참석하기 5분전에 명령 전달실에 도착하였다. 나는 명령 전달실에 들어가 앉아 강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였다.

13시 우리들은 좌석을 정돈하였으며 마후린 대좌는 자기 소개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마후린 대좌이다 크리스마스때 부임한 신인중의 한사람이다. 나는 본국으로 가지고 가야 할 약간의 전투 경험을 얻기 위하여 수개월간 이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는 1952년 1월 3일과 4일에 진행한 강의에서도 이와 같이 자기 소개를 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비상수단」 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특징적이였다.

그는 주로 이와같은 「비상수단」을 사용하고 선택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였다. 마후린 대좌는 이 강의에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30분 이상이나 소비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정전을 실현시키려는 30일에 걸친 맹렬한 노력이 아무런 성과 없이 지난데 비추어 전쟁은 우리들이 일을 종식시키기 위한 모종의 「비상 수단」을 취하지 않는한 무한정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 「비상수단」은 중국 군과 북조선군이 현재 준비중에 있는 「춘기 공세를 저지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발표가 있자 명령 전달실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으며 의견상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으나 매개인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표정으로 동료들을 서로 바라보았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이에 대하여 나에게 말한 사람은 없었으며 모두 자기들의 대화에서 이에 대한 것은 의식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발표를 한 후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세균 무기의 실험은 내가 앞서 말한 것처럼 공산군이 춘기 공세를 준비하기 위하여 보급로와 군대 집결처 등을 건설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진행되였다. 다음으로 그는 또 다시「비상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에 관한 그의 주장을 되풀이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 「비상수단」이 미국인의 인명 손실을 크게 방지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동 대좌는 자기의 주장을 자기 자신 믿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들은 「이곳에서 보고 듣고 말한 모든것은 극비로 부쳐두라」는 말

을 듣고 해산하였다.

1952년 1월 4일 제51전투 요격기 련대 비행사들과 지상군 승무원들이 기지 극장에 소집되였다. 이곳에서 한 소좌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겠다) 세균 땅크의 구조와 사용법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마후린 대좌는 그의 『비상 수단』에 관하여 거듭 설명하였다.

마후린 대좌는 조선에 있는 거타 련대들도 세균전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출격시 사용한 세균들 중에는 발진 티브스, 장 질브사, 코레라 및 페스트균들이 들어 있었다고 말하였다.

이 강의는 아침에 진행되였으며 약 60내지 70명의 비행사들과 약 130명의 지상군 승무원들이 참가하였다.

마후린 대좌는 키가 크고 훌쭉하였으며 년세는 약 30세 가량이였는데 대좌로서는 극히 년세가 적은 편이였다. 나는 크리스마스에 처음으로 그를 만났는데 그 때 나는 나의 동료들에게 새로운 대좌가 누구인가 물었다. 그들은 그가 마후린 대좌라는 것을 알려 주었으며 앞서 말한 새 사람들의 도착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마후린 대좌는 목소리가 크며 극히 교만하였다. 내가 크리스마스에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 항공기의 조종법을 모른다. 내가 출격을 개시할 때까지 기다리요』 이것은 나의 몇몇 동료들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었다.

이상 진술한 바와 같이 나는 미 공군의 비 인도적인 발광적 세균전에 참가하였다.

나는 무서운 범죄를 범하였으며 나 자신 범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나의 범죄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생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받으며 인민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을 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받기를 오로지 념원하고 있다. 나의 생활을 갱신함에 있어서 나는 조선에 있는 미군이 세균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인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미국 시민으로서의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는 미국 인민들에 대하여 과학의 이단자를 비법화할 것을 호소한다.

제 51 전투 요격기 련대
제 16 전투 요격기 중대

미 공군 소좌 챨스 이. 스탈

군 번호 에이·오—1911688
1952년 7월 18일

(4) 미 공군 중위 로버트 이·마틴의 증언

나는 미 공군 중위 로버트 유진 마틴이며 군 번호는 에이·오—1910991이다.

나는 1929년 8월 21일 미국 미시십피주 빅크스버그에서 출생하였다 나는 1951년 11월 12일에 조선 수원에 있는 케이—13에 도착하였으며 또한 제8 전투 폭격기 대대에 배속되였다. 나는 1952년 2월 6일 아침 희천 상공에서 격추되기까지 도합 39회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였다. 나는 에프—80 씨형 항공기를 조종하였다.

나는 1952년 1월 17일부터 내가 중국 인민 지원군에게 포로된 1952년 2월 6일에 이르기까지 6차의 세균전 출격 임무를 수행하고 도합 10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나는 두번째의 세균전 출격 임무로서 군우리와 순천간 철도선에 출격하여 군우리 남방 5마일 지점에서 철로 상에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기타 4회의 세균전 투하 임무에서 나는 희천 남방 5마일 지점에 있는 철도선 오른편 약 1백 야드 면적에 세균탄들을 투하하였다.

1952년 1월 16일 오후에 나는 어떤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지나 않았는가 또는 그날의 출격에서 전부 무사히 귀환하였는가 어떤 가를 알기 위하여 중대 작전실로 갔다. 나는 중대 작전 장교에게 출두하라고 나의 이름이 게시판에 게시되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나에게 명일 특수 임무를 위하여 출격하게 될 것이므로 오후 7시 30분에 특수 명령을 받기 위하여 대대 작전 장교실까지 출두하라고 말하였다.

그날 밤 내가 대대 작전 장교실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3명의 비행사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 중 1명은 나의 중대원이였기 때문에 나는 그를 알았으며 그는 나를 다른 2명의 비행사들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우리들이 약 5분간 기다린 후 대대 작전 장교가 들어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명령 하달을 하였다.

『여러분 나는 우선 당신들이 명일 특수 폭탄들을 적재하게 될것이라고 말 하려 한다』.

그는 계속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명일 당신들은 정규적인 대대 명령 하달에서 당신들의 목표를 알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대대의 기타 항공기들과 동시에 항공기에 탑승할 것이며 그들이 리륙한 뒤에 출발하게 될 것이다. 리륙한 후 당신들은 1만 피트 이상 높이 떠서는 아니된다. 자연 대대는 더 높이 떠서 비행할 것이며 당신들이 목표 지점에 도착할 때 대대는 당신들과 같은 고도에로 하강하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대대의 기타 항공기들의 뒤를 따라 명령 하달에서 제시된 도시의 남방 5마일 지점에 있는 철도선 오른편 약 1백 야드 면적에 투탄하여야 할 것이다. 목표 지역을 떠난 후 당신들은 기지에 귀환할 충분한 까스를 보유하기 위하여 높이 떠 올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당신들이 투하하게 될 폭탄에 관하여는 사령부 명령 때문에 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폭탄은 세균탄이나. 이 세균탄들은 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항복시키며 그와 동시에 이 감염 지역을 통하여 보급 물자들이 수송되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동 지역 내에 있는 일반 주민과 병사들 간에 질병을 전파시킬 목적 밑에 사용된다. 철도선 부근에 이 폭탄들을 투하한다면 철도 복구 공사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이 병균에 감염될 것이며 이로써 철도 복구 공사는 지연될 것이

다. 그와 동시에 이 폭탄들을 철도선 자체에 투하함으로써 폭탄은 발각될 가능성과 파괴될 기회가 더욱 더 적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질문이 있다면 나는 이에 대하여 아는 한도 내에서 대답하려 한다. 물론 만일 당신들 간에 이러한 폭탄들을 투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가 군인이라는 것을 명기하여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데 대한 형벌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펠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이 임무 수행을 위하여 왜 우리들이 선발되였는가?』.

동 소좌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당신들은 대개 조선에서 적어도 25회 출격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북 조선 주변의 지리를 알고 있다. 당신들은 경험에 의하여 목표 지점까지의 항로를 잡을 수 있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 혼자 기지로 돌아올 수 있다. 념려말라. 당신들은 다른 비행사들과 마찬가지로 세균전 출격 임무를 교체받을 것이며 따라서 그리 빈번히 이 출격 임무를 수행하게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은 이에 관하여 누구와도 이야기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이 전부이였고 우리들은 해산하였다. 특별 명령 하달은 바로 이러한 것이였다.

1월 17일 13시에 나는 또다시 대대 작전 명령 하달실에 소환되였다.

그곳에는 이미 대대 작전 장교가 있었다. 펠과 기타 2명의 특별 출격 임무를 받은 비행사는 거의 동시에 들어왔다. 대대 작전 장교는 몇마디 하는 과정에서 그가 어제밤 우리들에게 한말을 다시금 반복하였으며 계속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의 목표는 희천이며 따라서 당신들은 그 큰 산을 당신들의 표식으로서 리용할 수 있다. 이것 뿐이다』.

나는 비행복을 입고 활주로로 나왔다. 보통 1천 파운드의 폭탄들이 적재되던 매개의 날개에는 2개의 세균탄이 적재되여 있었다.

대대가 리륙하고 제28번째의 항공기가 리륙하였을 때 우리들은 뒤이어 리륙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출격 비행기의 총수는 32대라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나의 기분은 리륙 후 약간 좋아졌으나 이 비행은 나에게 평상과 같은 쾌감을 주지 않았다. 우리들의 편대는 1만피트의 고도에서 전투 태세로 들어 갔으며 대대는 계속 2만 5천 피트에로 올랐다. 나는 즉시 주위를 돌보기에 바빴으며 즉시 많은 산들 중에서도 특히 큰 산이 눈에 띄였다. 위를 보았을 때 나는 대대가 우리와 같은 고도에로 강하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대공 포화가 집중된 것을 뵈여주는 검은 연기의 점들이 나타났다. 첫 비행기들이 강하 폭격을 하는 동안 기타 비행기들은 모두 주변에 소개함으로써 대공포화에 명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나는 지휘의 뒤를 따라 급강하하였으며 급강하하는 동안 지상에서 계곡이 나의 눈에 띄였다. 이 것은 철도선이 강을 따라 희천으로부터 군우리로 련결된 한개의 평화스러운 풍경이였다.

이 평화스러운 풍경에 조화되지 않은 유일한 현상은 작렬하는 폭탄들의 황색 또는 흑색의 연기였다.

우리들은 희천시 남방 약 5마일 떨어진 철로 우축에 세균탄들을 투하하였다. 나는 목표로부터 떠나서 높이 떠 오르면서 후를 본즉 아무런 폭발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간은 15시 10분이였다.

첫번 출격 임무가 이렇게 수행된 이후 기타 4회의 세균전 출격 임무는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되였다. 이러한 세균전 출격임무를 위하여 비행하고 있었을 그 당시는 매우 우울하였다. 그러나 일단 출격 임무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마지막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원기를 회복』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동일한 감정을 느꼈던 것이며 그들은 『당신이 이에 대하여 더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더 좋다』라고 말하였다.

2월 5일, 내가 제5차의 세균전 출격 임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 받았을 때 나는 대대 작전 장교에게 왜 내가 그렇게 빈번히 세균전 출격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은 9일에 알 앤드 알의 적임자로 된다. 따라서 당신은 이 출격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일본으로부터 귀환하기까지 당신의 마지막 출격으로 될 것인만큼 념려하지 말라』.

나는 또다시 희천 남방에 두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내가 본 바에 의하면 나의 중대의 사기는 평상시보다도 저락되여 있었다.

비행사들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표시하였는가를 말하기는 곤난하다.

그러나 이 현상은 사소한 일로부터 판단할 수 있었다. 평상시에 비행사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놀음거리로 삼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리기 위하여 그들이 출격 목표가 마치나 인민 또는 재산이 아니라 한개의 오락 사격 경기 목표인 듯이 말하군 하였다.

미 군공 중위 로버트 이 • 마틴

군 번호 에이 • 오—1910991

1952년 8월 2일

5. 미 공군 중위 데이비드 이 • 펜니의 증언

나는 미 공군 중위이며 이름은 데이비드 이 • 펜니이다. 군 번호는 에이 • 오—729654이다. 나는 1952년 3월 1일 조선에 왔으며 제 17폭격기 련대 제 17폭격기 대대 제37폭격기 중대 비—26형 항공기 항법사로서 부산 근방 케이—9공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었다. 나는 1941년에 처음으로 공군에 들어가 1942년에 장교로 임명되였다. 나는 제2차 대전에 4개년 반 동안 복무한후 제대되였다.

1951년 7월에 나는 다시 현역으로 소환되였으며 1951년 8월과 9월간에 엘링톤

공군 기지와 란돌프 비행장에서 훈련 기간을 마친후 버지니아의 랑글레이 공군 기지에 파견되였다. 나는 1951년 10월 10일 그곳에 도착하여 비—26형 항공기에 의한 전투 승무원 훈련을 받기 시작하였다.

나의 고향은 오레곤주 클라마트 폴스시이다. 나의 년령은 35세이다.

나는 결혼하였으며 한 아해의 아버지이다.

나의 주요 사업은 항행이였는데 우리들은 주로 단거리 항행법을 훈련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으로서의 우리의 임무는 단거리 항법사로서 알려졌다.

여섯번째 출격 임무를 마친 후 나는 비행사 코라오 중위. 그리고 폭탄 투하수 존슨 중위와 함께 탑승하기 시작하였다.

4월 중순을 지나 나의 15회 출격 당시에 우리는 중대에서 명령받은대로 정확히 임무를 수행하였는바 코라오 중위는 좌표가 표시되여 있는 한장의 종이를 나에게 주면서 우리는 그곳에 비행하여 폭탄을 투하할 것인바 이것은 특수 폭탄이라고 말하였다.

그 위치는 삽등 서방 어느 곳이였다

우리 항공기는 기지를 출발하여 1952년 4월 19일 경 약 21시 30분에 목표 지대에 도달하였다.

코라오 중위는 극히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이 폭탄들을 투하하였다.

그러나 하나도 폭발되지 않았다.

귀환한 후 그는 이 폭탄들이 불발탄이며 결과 미상이라고 보고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우리 동료들간의 누구에게도 아무 것도 말하지 말라고 부언하였다.

1952년 4월 21일 경 우리 승무원들인 비행사 코라오 중위와 폭탄 투하수 존슨 중위는 또 다른 임무를 가지고 출격하기로 되였다.

21시 경 우리들이 항공기에 탑승하였을때 코라오 중위는 존슨 중위와 나에게 말하였다.

그는 4개의 폭탄이 특수 폭탄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것들이 강동 근방에 투하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나에게 좌표를 표시한 종이를 주면서 존슨 중위와 더불어 행동할 데 대한 폭격 절차를 설명하였다.

우리는 처음으로 이 목표에 가서 그 폭탄들을 투하하였다. 그러나 하나도 폭발하지 않았다. 귀환한 후 코라오 중위는 동 폭탄들을 불발탄으로 기록할 것을 말하였다.

1952년 4월 24일 경 우리 승무원들은 다시 항공기에 탑승하였는데 코라오 중위는 그날 밤의 출격이 종전과 같이 동일한 종류의 4개의 특수 폭탄을 투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들은 이미 이와 같은 2회의 출격을 단행하였으므로 즉시 삽등 근방의 목표지로 비행하여 그곳에 폭탄들을 투하하였다. 또다시 하나도 폭발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이것들이 불발탄이라고 보고하였다.

1952년 4월 25일 정오 경에 비행사 코라오 중위는 나에게 우리 승무원들이 그날 오후 14시에 실시되는 특별 강의에 참가해야 한다고 알리고 이것은 의무적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 강의가 20회 내지 그 이상의 출격을 한 모든 승무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우리들이 이미 세번 출격한 특별 임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부언하였다.

14시에 우리 승무원들인 비행사 코라오 중위 항법 폭격사 존슨 중위, 그리고 나 자신은 지상 훈련대에 갔다. 우리 중대로부터 약 7.8명의 승무원들이 와 있었다 매개 승무원은 3명의 장교들로 구성되여 있었으며 하사관은 한명도 없었다.

중대 작전 장교 잭슨 대위가 먼저 이야기하였는데 그의 담화는 다음과 같은 것이였다.

『과거에 당신들 중의 일부는 특별 임무에 소환되여 특수 폭탄을 투하하였다. 과거에 있어서 이것은 실험적인 것이였다. 지금 우리들은 더 많은 새로운 비행기들을 가지고 있으며 제5공군은 비행기에 요구되는 것을 갖추었다. 여기에 있는 약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임무를 가지고 출격하지 못하였는 데 그러나 당신들은 다음 주간에 소환될 것이다. 이 중대의 기타 인원들은 그들이 조금 더 출격을 한 후 곧그와 같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특수 폭탄들은 당신들의 비행기에 있다. 만약 이 폭탄들이 적재되여 있으면 절대로 닿지지 말라. 만약 적재원들이 이 폭탄들을 적재하고 있으면 그들이 이를 끝낼때 까지 비행기에 가지 말라. 당신의 비행기를 검사하고 어떤 리유르 출발할 수 없다면 적재원을 중대에 보내서 그 폭탄을 내려 놓게 하라. 만약 어떤 리유로 당신들이 폭탄을 북 조선 상공에서 버리게 되면 동해안으로 비행하여 륙지와 떨어져 귀환하라. 부산 근방에 도달하면 그 폭탄을 대양 남쪽에 던지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라』.

잭슨 대위는 또한 그 폭탄 물체가 중국군과 북조선군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우리 군대들은 보호되여 있다고 암시하였다.

다음으로 대대 정보 장교 대리가 말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토의된 것이 극비이며 동료 장교들에게도 말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들의 방 또는 구락부에서도 서로 이에 관하여 담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그는 대대장 캠프 대좌가 어떤 말을 한자에게는 극히 엄격한 취급을 할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비밀은 보지 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 다음 잭슨 대위가 또 다시 말하였다. 그는 우리들의 일부가 정상적인 출격을 보다 정확하게 수행하면서 특별 임무 출격을 하지 않는다 할찌라도 이 사업은 모든 승무원들에 의하여 수행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입대자들 가운데서 이 출격이『중대 계획 출격』이라고 불리여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강의실 밖에서 이와 같은 것을 토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우리들에게 거듭 주의하였다.

1952년 4월 28일 경, 즉 중대 작전 장교인 잭슨 대위로부터 『중대 계획 출격』에 대한 절차를 개괄로 한 강의를 받은 후 3일만에 우리 승무원들은 그『중대 계획 출격』

의 지시를 받았다.

코라오 중위는 우리의 절차가 이전의 비행과 동일한 것이나 목표는 신계 서남방의 강줄기라고 말하였다.

나는 코라오 중위에 대하여 그가 우리들의 일상적인 폭격 절차인 화물 자동차 등보다 강들에 우리의 폭탄을 투하하는 리유를 알고 있는가고 물었다.

그는 그것이 완전히 비밀이나 우리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승무원이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 폭탄들이 세균 폭탄들이며 이와 같은 폭탄을 사용함으로써 조 중 군대는 병에 걸려 전쟁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잭슨 대위가 자기에게 알려 주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 정보가 극비에 속해 있으므로 이것을 타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리륙한 우리들은 신계 근방 목표로 비행하여 4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으나 폭발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발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코라오 중위와의 담화 후 얼마 안되여 나는 기지에서 제34중대 중대장 톰프슨 소좌와 자동차를 타고 기지로 같이 갔다.

그의 집에서 둘이 남았을 때 나는 극히 좋은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정보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이 특수 폭탄으로서 세균탄을 싣고 다니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이 조치를 설명할 수 있는가고 말하였다.

그는 나의 정보가 정확하며 그와 같은 것이 제5공군으로부터의 명령이 라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는 계속 수행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3회에 걸친 나의 최초의 특별 출격과 그리고『중대 계획 출격』이 세균 출격이였다는 것과 또한 우리가 투하한 그와 같은 특수 폭탄이 세균탄이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5월 7일 경 우리들이 우리 비행기가 있는 곳에 갔을 때 대대 명령 전달 장교 프리센 소좌도 우리와 같이 출격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었다.

우리 항공기는 날개 위에 4개의 세균탄과 폭탄실에 6개의 세균탄을 실었다. 우리는 수안 근방의 별개의 3개 장소에 폭탄을 투하하였는데 최초는 수안 남방에, 다음 번은 수안에, 마지막 것은 수안 동북방에 투하되였다. 출격이 끝난 후 프리센 소좌는 우리들이 복명하려 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출격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것 특히 그가 같이 탑승하였다는 것을 루설하지 말라고 부언하였다.

5월 16일 우리 대대장 캠프 대좌가 우리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우리는 4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는 데 목표는 수안 근방이였다.

1952년 5월 24일 나는 비행사 제이•전노, 그리고 항법 폭격사 비•햅메트와 함께『중대 계획 출격』에 출동하였다. 출발하기 전 항공기에서 전노 중위는 나에게 앞서 이와 같은 종류의 출격을 한 일이 있는가하고 물었다. 나는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는 폭탄 투하의 좌표를 나에게 제시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

였다.

목표의 위치는 수안 근방의 공급 창고였다.

우리는 그곳에 처음으로 비행하여 4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폭탄은 하나도 폭발되지 않았으며 이것들은 불발탄으로 기록되였다.

나는 북 조선에 도합10회의 세균전 출격을 하였다.

상술한 7회의 출격 외에 다른 3회의 출격은 1952년 5월달에 수행되였다. 목표들은 강동신계, 삼등 및 선평지구 근방의 수원지 또는 식량 공급 창고들이였다. 매회 마다4개의 세균탄이 투하되였다.

1952년 7월 7일 우리 항공기는 삼등 근방에서 고사포탄에 맞았다. 우리 항공기는 중대에서 가장 좋은 것의 하나이였지만 고도를 잃고 우리는 락하산으로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비행사 전노 중위, 항법 폭격사 햄메트 중위 그리고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탑승원들은 조선 내무서에 체포되였다.

제17폭 격 기 련 대
제17폭 격 기 대 대
제37폭 격 기 중 대

미 공군 중위 데이비드이•펜니
군 번호 에이•오—729654
1952년 8월 17일

6. 미 공군 소위 리차드 쥐•보스의 증언

나의 이름은 리차드 쥐•보스이며 미 공군 소위이고 군번호는 에이•오—2222690이다. 1950년 11월 나는 캔서스시에서 미 공군에 입대하였다. 1952년 4월 2일 나는 극동을 향하여 비행기로 미국을 출발하였다. 일본에 도착한 후 나는 조선 대구 부근에 있는 케이—2공군기지에 조동되여 제49 전투 폭격기 대대에 배치되였다.

나는 제24차 출격시에 지상 포화에 명중되여 북조선에 추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긴밀한 엄호를 위하여 비행하면서 격추될 때 너무 낮게 비행하고 있었다. 나의 락하산은 지상에 닿기 전에야 겨우 열려졌다. 그리고 내가 락하할때 나의 비행기가 폭격당하여 발화된 불 속을 뚫고 뛰여 나왔기 때문에 손과 얼굴과 무릎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지상에 떨어졌을때 나는 의식을 잃었다. 그러나 나를 포로한 중국 군대가 안전한 거리에 있는 전선 후방 참호로 나를 운반하여다가 나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었다. 나는 이 참호에서 의식을 바로 찾았다.

내가 조금 전에 폭격하고 손해를 끼쳐준 군대는 나에게 먹을 것과 물과 담배를 주었고 볼 수 있는 잡지들 까지도 주었다.

내가 이곳에서 받고 있는 대우는 극히 량호하다. 전선에서 3일간 체류한후 나

는 자동차로 북쪽으로 후송되어 중국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는 약 1개월 간 있으면서 의사와 간호인들의 최상급의 배려를 받았다.

나는 특히 이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왜냐 하면 만일 내가 이런 최상급의 대우와 배려를 받지 못하였다면 화상으로 말미암아 나는 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그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며 조그만 흠집도 없고 상처에서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않고 있다.

요사이 나는 나의 일생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고 있다. 나는 내가 조선 전쟁에서 감행한 많은 일들이 비 전투원들에 대한 참혹한 범죄이며 사실상 전 인류에 대한 범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였다.

나는 기독교 신자이다. 때문에 나는 병원에 있을 때 많이 기도하였다.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량심에 가책을 받아 밤이면 엄숙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중국인들은 나의 친우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즉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상처를 치료하여 주고 의복을 주며 담배, 사탕등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다. 이 대상으로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후회와 진실 뿐이였다. 현재 나의 마음은 평화스럽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세균탄을 투하하게끔 된 나의 정부의 옳지 않은 점을 폭로하였다. 나의 이전의 적들을 친우로서 맞이한 후 나는 이 비렬한 행동을 폭로할 수 있었다.

4월 말경 내가 대구 부근 케이—2기지에서 훈련 비행을 하고 있던때 우리들은 어떤 대위에 게서 명령을 받았다. 그의 이름은 절대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는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를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았다. 그는 우선「신사 제씨들 당신들은 제49대대에 있는 동안 종종 세균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말은 나를 너무도 놀래게 하였다. 나는 미국에 있을 때「룩크」나「라이프」등에서 미군이 세균탄을 투하하고 있다고 중국인민들이 비난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난다 이 잡지들은 중국 인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쓰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이 잡지들을 믿었고 나 자신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들 미국인은 세균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는 나 자신이 세균탄을 투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나는 우리 나라가 이런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때 수치감을 느끼였으며 실망하였다. 동 대위는 다음으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사용하는 세균탄의 종류는 보통 폭탄과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외 형을 가지고 있으나 보통 폭탄과 같이 격렬하게 폭발하지 않는다. 폭발시에는 다만 폭탄이 열려서 그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방출할 뿐이다. 당신들은 주로 이 종류의 세균탄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 세균탄이 투하되면 소 규모로 폭발 되기 때문에 폭탄의 폭발과 같은 위험은 없는 것이다.

당신들은 리륙시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중대에서 가장 좋은 비행기를 받게 될 것이다. 세균탄을 투하하는 것은 다만 목표지역(만일 세균탄을 정상적으로 투하하지 못한다면)이나 기타에서만 투하하게 될 것이고 비행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세균탄을 포항 동방 10마일의 안전 지점에 투하하여야 한다』.

동 대위는 세균탄에 관하여서는 절대로 아무와도 이야기하여서는 안되며 비록 동료들간에서도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주면서 말을 끝냈다.

만일 세균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 당하면 군법 재판에 회부되여 비밀을 루설한데 대하여 적용하는 공군 조례에 의하여 최고형을 받을 것이다.

동 대위는 또한 아무런 정당한 리유 없이 세균전을 진행하지 못한 것, 즉 세균탄을 싣고가서 적들에게 투하하려 하지 않는것도 처벌 당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명령 전달이 끝난 후 대위는 『이상 없으니 출발하시오』 라고 말하였다.

1952년 5월 16일 나는 제49 전투 폭격기 대대 제8 전투 폭격기 중대와 함께 첫 출격에 참가하였다. 1952년 5월 16일로부터 1952년 7월 17일에 이르는 기간에 나는 총계 24회의 출격에 참가하였는데 그 중 3회는 세균탄들을 투하하였다.

나는 1952년 6월 10일에 처음으로 세균탄 출격에 참가하였는데 목표는 순천 부근이였다. 13시 경에 대대명령 전달실에서 대대의 명령 전달이 있었다. 작전, 정보, 기상 및 지상군 련락 장교들이 관례에 의하여 주의 사항을 전달하였다. 다음으로 대대장이 전술과 편대에 관하여 명령을 전달하였으며 목표에 대하여 정확히 폭격할 것을 강조하였다. 대대의 명령 전달이 있은 후 나의 항공대 지휘관 젠센 중좌는 세균탄을 2개 싣고 출격할 것을 나에게 명령하였다. 세균탄의 폭발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통 급강하 폭격보다도 더 낮게 강하할 수 있으며 이 점이 보통 비행 및 폭격 기술과 다른 점이라고 그는 부언하였다.

15시 경에 출발하였다 25,000피트의 고도에서 목표를 향하여 출격하였으며 목표에 도착하였을 때 급강하하여 2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이 출격에서 우리는 적기와 조우하지 않았으며 지상 포화의 공격도 받지 않았다.

귀환후 우리는 대대 정보부에서 관례적인 복명을 하였다. 나의 두번째 세균전 출격은 6월 25일 경이였는데 출격 목표는 흥남 부근에 있는 수력 발전소이였다. 13시 경에 24명의 비행사들에 대하여 명령이 전달되였다. 대대장은 블루드 중좌이였다. 그는 또한 나의 항공대 지휘관이였다 중대의 명령 전달이 있은 후 블루드 중좌는 세균탄 2개를 싣고 출격할 것을 나에게 명령하였다 우리는 16시 경에 목표에 도착하였으며 항공대들은 명령 받은 대로 수력 발전소를 폭격하였다. 나는 급강하 폭격으로 2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이 2개의 세균탄은 목표에 명중하지 못하였으며 목표보다 3천 내지 5천 피트 떨어진 곳에 투하되였다.

착륙 후 관례대로 복명이 진행되였다 나의 세번째 세균전 출격은 1952년 7월 1일 경이였으며 목표는 철원 북방 농촌 부근에 있는 화물 자동차들이였다 이 출격에는 36대의 항공기가 참가하였다. 관례적인 대대의 명령 전달이 있은 후 나의 항공대 지휘관인 젠센 중좌는 세균탄 2개를 싣고 출격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였다.

7시 경에 출발하여 25,000 피트의 고도로 목표를 향하여 출격하였다. 목표 상공에서 지휘기가 화물 자동차들을 발견하였다. 나의 항공대는 화물 자동차들에 대

하여 2차에 걸쳐 공격을 가하였는데 한번은 폭탄을 투하하고 두번째는 로켓트 포를 발사하였다 제3호기의 급강하 폭격에 뒤이어 나는 세균탄 2개를 투하하였다. 우리는 이 출격에서 적기에 조우하지 않았으며 지상 포화의 공격도 받지 않았다.

나는 북조선 및 중국 인민들에 대하여 세균탄을 투하하는 범죄 행동을 감행하였다. 나는 나의 범죄 행동으로 말미암아 불행에 빠진 조 중 인민들을 위하여 여생을 바칠 수 있지만 그들의 불행을 결코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균탄에 관한 나의 이 진술이 내가 범한 과오를 시정하는 데 약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나는 세균전에 관하여 고백함으로써 마음이 가벼워 졌으며 이를 고백한 후에 있어서 행복감을 가지고 새로운 매일을 맞이할수 있게 되었다.

미 공군 소위 리챠드 쥐 • 보스

군 번호 에이 • 오 2222690

1952년 8월 27일

7. 미 공군 중좌 윌리암 엘 • 폰스의 증언

나는 미 공군 중좌이며 이름은 윌리암 엘 • 폰스이다. 군 번호는 에이 • 오—1862639이다. 나는 1928년 12월 1일 켄타키주 플렉스에서 출생하였다. 현주소는 버지니야주 크리스챤스버그 알레가니가 208번지이다. 나는 텍사스주 서맨에 있는 퍼린 공군 기지에서 기본적인 비행사의 훈련을 받고 아리조나주 챈들러에 있는 윌리암 공군 기지에 들어갔다. 1951년 10월 윌리암 공군 기지에서 비행사 훈련을 끝마치고 사격술 훈련을 받았다.

나는 1952년 1월 25일에 군대 수송선을 타고 쌘프랜써스코를 떠나 1952년 2월 8일 경에 일본 요꼬하마에 도착하였다. 나는 그후 요꼬하마에서 제136 전투 폭격기 련대에 배치되였는데 이 련대는 지금 제58 전투 폭격기 련대로 개편되였다. 나는 1952년 8월 6일 나의 제50호 임무 수행 과정에서 격추되였다. 나는 세균전 출격에 5회 참가하였다. 내가 대구 (케이—2)에 도착한 1952년 2월 15일 경에 나는 제136 전투 폭격기 련대 제111 전투 폭격기 대대에 배치되였다. 케이—2에 도착한 후 약 1주일 가량 나는 련대의 기타 새로 배치된 인원들과 함께 수차 회의에 참가하였다.

이 회의들에서 콜센 소좌는 우리의 조선 체류에 관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다. 훈련 비행을 통하여 진행되는 훈련이 개시되기 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케이—2에 23일간 더 체류한 후 텐 소좌, 제임스 중좌, 스텐리 중좌, 매햅피 소좌, 클렐랜드 소좌, 핏슈 소좌, 팜그렘 소좌 및 기타 몇몇 비행사들과 함께 일본에 파견되였다. 나는 3월 1일 경에 이따쯔까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나는 우리가 그날 아침 극장에서 강연을 듣기로 예정되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상기 비행사들과 함께 극장에 갔다. 약 50명이 강의에 참가하였는데 나는 나의 동무들을 제외하고 는 기타 참가자들은 알 수 없었다.

약 50세 가량되는 슈미트씨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슈미트씨는 강의 내용을 루설하지 말며 실외에서는 우리들 호상 간에라도 강의 내용에 대하여 말하지 말도록 주의한 다음 강의를 시작하였다. 그는 앞서 진행된 세균전에 관한 실험들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그는 기후 및 지세 관계로 병균을 전파시키는 최선의 방법을 발견하기는 곤난하였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있은 후에 일부 병들과 방법들이 발견되였다고 말하였다. 그가 말한 각종 병중에서 내가 단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지프테리아, 말라리아, 장질부사, 발진티브스, 황달병 및 코레라이다. 발견된 수단들 중에서 가장 효과있는 것은 병균에 감염된 곤충을 넣은 세균탄이며 이에 사용되는 곤충은 모기, 파리, 개미 라고 말하였다.

그는 적이 일단 산악 지대에 자리를 잡으면 사실상 보통 무기로 적을 섬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을 약화시키기 위하여는 조선의 군사 정세가 이와 같은 무기들의 사용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슈미트씨는 각종 세균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이 세균탄들의 하나는 병균에 감염된 곤충을 넣은 1천 폰드 세균탄이였다. 이 세균탄은 외양이 1천 폰드 일반용 폭탄과 꼭 같았다.

5백 폰드 세균탄은 1천 폰드 세균탄과 류사하였다. 그러나 음료수 오독용 폭탄으로 알려져 있는 5백 폰드 세균탄도 있었다. 이 세균탄은 그 구조가 곤충 세균탄과 류사한데 그 내부에 병균에 감염된 곤충 대신에 용액이 들어 있는 점이 다르다.

세균전에 관한 강의가 끝난 다음 슈미트씨는 화학 및 원자전에 관하여 강의하였다. 원자전에 관한 강의 마감에 『원자 무기들』이라고 표제한 영화가 상영되였다. 이따쯔까에서 강의를 받은 후 나는 케이—2에 도라갔는데 이곳에서 나는 3월 15일경에 진행될 시험 비행에 앞서 상기 비행사들과 함께 클갠 소좌가 담당한 세균전에 관한 강의를 받았다. 그는 첫째로 세균전에서 대대가 담당하고 있는 임무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대대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그리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규모로 세균전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였다.

그는 에프—84가 어떠한 방식으로 세균전에 참가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과거에는 대대의 임무가 대부분 철도 파괴이였다. 대대는 철도에 대하여 부단히 감시하였으나 적의 복구 공사는 극히 효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때문에 철도 복구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출격할때 마다 항공기 1대는 세균탄들을 싣고 갈 데 대한 계획이 채택되였다.

세균탄 투하 전에 비상 사고가 발생한다면 세균탄을 전야에 투하하지 말고 안전한 위치에서 바다에 투하하기로 되여 있었다. 포항(케이—3) 동쪽 10마일 지점에 있는 비상 투탄 지역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되여 있었다. 나의 첫 세균전 출격은 5월 15일 경이였다. 이 임무에 대한 명령 전달은 관례적인 것이였다. 작전 장교가 출격 목표는 신안주 북쪽에 있는 철도라고 명령을 전달하였다. 1천 폰드 일반용 폭탄 2개를 실었다. 목표 또는 가는 항로는 케이—14로부터 진남포를 거친 다음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였다. 항공기 6대가 이에 참가하였다. 제111

제154 및 제182중대들로부터 각기 2대가 참가하였다. 웻셀캠퍼 대위가 나의 항공대 지휘관이였으며 퀏슈 소좌도 같이 탑승하였다. 작전 장교가 출격 번호, 리륙 발동, 목표 상공 도착 시간, 연료 보급 및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전달하였으며 정보 장교, 기상 관계 담당 장교, 지상군 련락 장교가 관례적인 명령 전달을 하였다. 나의 항공대는 특별 명령을 받기 위하여 머물러 있었다. 당시 지상군 작전 장교 보좌관이였던 엣쯔 중위가 이 특별 명령을 전달하였다. 그는 매 항공기마다 5백 폰드 세균탄 2개를 싣고 갈 것을 명령하였다.

출격 목적은 철도 파괴이였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 바로 근방에 세균탄들을 투하하기 위하여 최후의 목표에 출격하기로 되여 있었다. 우리는 5,000 피트의 고도에서 투탄하기로 되여 있었다. 실패한 경우에는 비상 투탄 지역을 사용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웻셀캠퍼 대위는 출격에 앞서 출격에 참가한 대대의 항공기들이 전부 목표로부터 떠날때까지는 우리는 높은 고도를 유지하면서 선회하게 될 것이며 다음으로 목표에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항공대는 5백 폰드 세균탄 2개를 각기 실었다. 우리는 13시 경에 출발하였으며 목표 상공 도착 시간은 14시 경이였다. 목표에 대한 고도는 25,000 피트이였다. 우리는 보통 때보다도 높은 고도에서 세균탄들을 투하하였다. 투탄후 상승하였을 때의 목표로부터의 고도는 30,000 피트이였다.

항공대 지휘관이 목표에 세균탄들을 투하하였다고 복명하였다. 나의 둘째번 세균전 출격은 5월 30일경이였다. 우리 대대는 군우리 북쪽에 있는 철도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4개 항공대가 이 출격에 참가하였는데 그중 『디』항공대는 헌터 대위, 펠록 중좌 바울린 중좌 및 나자신으로 구성되였다. 작전 장교는 명령을 전달하면서 『디』항공대가 최후에 철도 근방과 군우리 시가를 폭격하게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디』항공대는 매 항공기마다 5백 폰드 세균탄 2개를 실었다. 세균탄에 관한 명령 전달이 관례적인 것이였기 때문에 이 출격에 대한 명령 전달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출격 임무는 명령 받은대로 수행되였으며 약 5,000 피트의 고도에서 세균탄이 투하되였다. 복명은 관례적인 것이였다.

나의 세번째 세균전 출격은 6월 1일경이였다. 대대는 회천 남쪽에 있는 청천강 철교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출격에는 5개 항공대가 참가하였는데 『에이』 항공대 지휘관인 콜갠 소좌가 이 출격을 지휘하였다. 기타 항공대는 리갠 중좌, 클렐랜드소좌 및 나 자신으로 구성되였다. 대대는 5백 폰드 일반용 폭탄을 실었다. 『에이』항공대는 매 항공기마다 세균탄 2개를 실었다. 중대에 명령을 전달하면서 콜갠 소좌는 출격에 참가한 모든 항공대들이 목표로 부터 떠날때까지 『에이』항공대가 높은 고도에서 선회할 것이며 강을 건느지 않고 강과 평행으로 비행하면서 강물을 오독시키기 위하여 철교 부근에 세균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17시경에 출발하였으며 목표 상공 도착시간은 18시경이였다. 출격 임무는 명령 받은대로 수행되였으며 나는 세균탄들이 강물에 명중한 것을 보았다. 이 지역에 미크들이 출동하고 있었다는 보고를 제외하고는 복명은 특별한 것이 없었

마. 나의 네번째 세균전 출격은 7월 30일 경이였다. 우리 대대는 원산 남쪽에 있는 보급 기지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6개 항공대가 이 출격에 참가하였는데 그 중 『에프』항공대는 솔스베리 중좌, 덴 중좌, 하트 중좌 및 나 자신으로 구성되였다. 나의 항공대는 목표에 최후에 접근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나의 항공대는 매 항공기마다 5백 폰드 세균탄 2개를 실었다. 출격 임무는 명령 받은대로 수행되였다. 솔스베리 중좌가 목표지에 세균탄들을 투하하였다고 복명하였다.

나의 다섯번째 세균전 출격은 1952년 8월 6일에 행한 것이였다. 희천 북쪽 청천강에 있는 철교들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출격에는 6개 항공대가 참가하였다. 그 중 『이』항공대는 항공대 지휘관인 솔스베리 중좌, 그의 옆 항공기에 탑승한 나 자신, 제 3호기의 쵸레트 대위와 제4호기의 하트 중좌로 구성되였다. 우리 항공대는 매 항공기마다 5백 폰드 세균탄 1개, 5백 폰드 일반용 폭탄 1개를 실었다. 목표에 가는 항로는 철원에 있는 엠•알 무전 련락소를 경유하여 이곳으로부터 목표에 직접 향하는 것이였다. 우리는 16시 경에 출발하였으며 사고 없이 명령받은 항로를 따라 비행하였다. 우리가 목표에 도착하였을 때 나의 항공대의 제3호기와 제4호기가 항공대 편대에서 떨어져나가 보이지 않았다. 솔스베리 중좌와 나는 제3호기와 제4호기를 찾으려고 목표 북쪽에서 수회 선회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폭탄들을 투하하기 전에 기타 5개 항공대들이 폭탄을 투하하고 도라갔다.

솔스베리와 나는 폭탄들을 투하하고 목표 상공에 상승하여 제3호기와 제4호기를 찾으려고 선회하였다. 이 두 항공기가 편대에 들어온 후에 항공대는 남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 항공대가 목표로부터 떠나자 미크들의 래습을 받았으며 나는 격추되였다. 포로된 후 나는 내가 평화적 인민들에 대한 파괴 행동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나는 평양시 하나밖에 보지 못하였지만 이 도시를 보았을 때 나의 심정은 침울하였다. 이 도시는 공장으로부터 병원에 이르기까지, 주택으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파괴되였으며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나는 이 파괴로 말미암아 남녀 로소들이 다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것을 보았을 때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나는 내가 조 중 인민들에 대하여 감행한 것에 대하여 생각하며 이를 리해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내가 범한 범죄들을 자진하여 진지하게 폭로하였으며 나의 범죄의 모든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다.

미 공군 중좌 윌리암엘•폰스

군 번호 에이•오—1862639

1952년 8월 27일

8. 미 공군 중위 로버트 씨•러리의 증언

나의 이름은 로버트 칼러리이며 1916년 7월 1일 미국 일리노이스주 시카고에서

출생 하였다.

나의 집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안젤스 시이다. 나는 1942년 8월에 미국 공군에 입대 하였다.

1944년에 나는 태평양 전쟁에 동원되였으며 1946년 5월에 미국에 도라 왔으며 즉시 공군에서 제대되여 평민 생활에 도라 갔다. 나는 1951년 10월에 다시금 공군에 징모 되였다. 1952년 5월에 나는 미국을 떠나 조선으로 향하여 1952년 6월 1일 조선 군산 케이—8에 도착하였다.

나는 제3전투 폭격기 련대 제3전투 폭격기 대대 제13중대에 항법사로서 배속 되였다.

나는 6월 12일경 대대작전부로부터 대대명령 하달실에서 특별 정보 강의를 받도록 지시를 받았다 이 강의에는 약20명의 비행사들과 항법사들이 참석 하였다.

이 강의는 캐스퍼츠크 대위가 진술 하였다. 그는 이 강의의 목적이 우리들에게 1개의 세균탄에 관한 예비지식과 또한 이의 안전한 취급 방법을 보급 시킴에 필요한 절차들을 전수하는 데있다고 말 하였다.

우선 그는 5백폰드형 지•피폭탄과 류사한 폭탄의 목조 모형을 보여 주었는 바 이 폭탄은 세균에 감염된 곤충들을 넣기 위한 4개의 간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매개의 간은 폭탄의 뒤에 달려 있는 프로펠러까지 세로 관통하는 한개의 라사곳에 의하여 열리게 되여 있는 1개의 문을 구비 하고 있었다.

이 프로펠러는 자연적으로 락하하면서 매초간에 너무나 빨리 돌기 때문에 이문은 일정한 고도에서 열리게끔 되여 있었다.

이 폭탄의 끝에는 지면과 접촉함과 동시에 충격에 의하여 폭탄을 작렬시키는 발화 장치가 구비되여 있었다.

그는 남조선 땅에 어떠한 전염병이 발병할 모든 가능성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상 조치가 취하여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만일 세균탄을 적재한 항공기를 조종하는 비행사가 리륙직후 발동기에 고장이 발생하고 제동기로써 이 항공기를 활주로 우에서 정지 시킬 수없을 때는 그는 이 항공기를 활주로 서단에 위치한 황해 바다나 또는 그 동쪽에 있는 저수지까지 조종하여야 하였다. 만일 폭탄들을 북조선에서 도저히 투하하지 못할 경우에 그리고 귀로 사고 발생이 예측될 때는 우리들이 항공기를 바다에 몰고 락하산으로 빠져나와야 할 것이 였다.

나는 캐스퍼츠크 대위에게 케이—8에 이러한 폭탄들이 있는 가라고 물었던 바 그는 이러한 폭탄들을 입수할 수 있다고 그는 대답 하였다. 그는 또한 세균탄 중에는 기타의 형태들이 있으며 우리들은 다만 이 종류만을 현재 취급한다고 말하였다.

나는 1952년 6월 14일경 세균탄 출격 임무를 처음으로 수행 하게 되였는바 그때 나와 나의 비행사 레 로이 파이크는『특별 출격 임무』를 위하여 비행할 것을 명령 받았다. 캐스퍼츠크 대위는 그의 일상적인 명령 하달을 끝마친 후『특별 출격 임무』를 받은 모든 승무원들은 특별 명령 하달을 위하여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특별 명령 하달에는 그는 우리들이 세균 탄들을 적재하게 되며 또한 투탄후 폭발

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 하였다. 그는 계속 우리들에게 세균탄 취급과 동일한 비상조치에 관하여 말하였으며 또한 우리들이 세균탄을 양덕에 투하하라고 말 하였다.

내가 파이크와 함께 항공기에 탑승 하려고 나갔을 때 나는 나의 항공기에 적재된 폭탄이 앞서 본 모형과 동일한 것을 알게 되였다. 나의 항공기에는 나무로 만든것 대신 2개의 금속 제 폭탄이 적재되여 있었다.

우리들은 예정대로 출발 하여 세균탄을 지정된 목표 지점에 투하 하였다. 우리들은 이 폭탄이 항공 기로부터 투하된 이후 아무런 반응도 보지 못하였다.

우리들은 지정된 항로를 순찰 비행하고 1시 45분경 케이—8에 귀환 하였다. 나는 목명 실에서 세균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였다.

『우리들은 세균탄을 지정된 목표 지점에 투하 하였으며 반응은 없었다』.

그다음 나는 레로이파이크 중위와 함께 6회에 걸쳐 세균전 출격 임무를 수행하였다.

6월 16일경 우리들은 황주에 대하여 2개의 세균탄을 투하 하였다.

6월 19일 경 우 리들은 진남포의 동방 약 10마일 지점에 있는 겸이포에 대하여2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6월 22일경 우리들은 중화에 대하여 2개의 세균탄을 투하 하였다. 일기는 흐리고 어두었다. 세균탄들은 목표로부터 약간 남쪽의 지점에 투하 되였다

6월 25일경 우리들은 신계에 2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우리들이 결과를 확인하려고 강하하였을 때 대공 포 사격을 받고 나의 항공기에는 4개의 구멍이 생겼다.

7월 8일경 우리들은 수안에 2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나의 마지막 세균전 출격 임무는 7월 17일경에 수행 되였다.

이날밤 제3폭격기 대대에 속한 30대의 항공기와 그리고 제17폭격기 련대에 소속된 거의 동일한 수의 항공기들이 영유시를 폭격하였다. 이 출격에서 우리들은 4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1952년 7월 24일경 신천에 대한 야간 출격에서 나의 항공기는 가렬한 폭풍을 만나 부득이 나의 항공기를 포기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다만 메카니와 나만이 생존 하였다. 우리들은 그다음 날 중국 인민지원군에게 포로 되였다.

메카니와 내가 포로된 후 우리들은 중국 인민 지원군이 우리들을 친절히 그리고 관대 하게 대우하여 준데 대하여 놀랬다.

그들이 우리를 한장소로부터 다른 장소에 이 송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평양과 기타 북 조선 도시들의 처참한 파괴상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나는 죄스러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 하였다. 나는 우리들이 세균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오늘날 그 무서운 결과에 관하여 읽을 기회를 가지게 됨에 따라 밤잠도이룰 수 없게 되였다.

상술한 사항들은 모두 나의 자백의 전부이다 만일 나의 심판자가 나를 용서하여 준다면 나는 미국과 또한 전세계의 더 좋은 시민으로될 수 있을 것을 희망한다.

나는 평화를 위하여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을 희망하는 바이다.

미 공군 중위 로버트 씨•러리

군번호 에이•오—929157

1952년 9월 1일

(9) 미 공군 소위 찰스 엠•커의 증언

나는 찰스 엠•커 소위, 군 번호에이•오2222551이며 년령은 24세 미국 오하이오주 리가 서부 오하이오가 9백 83번지 출생이다. 나는 미 공군 에프—86 비행사이며 1952년 4월 22일에 조선에 도착하였다. 그때 나는 금포에 있는 제4 전투 요격기 대대 제334 중대에 배속되였다. 나의 첫 세균전 임무는 압록강 이북중국 령토내에서 수행되였다 우리들은 1952년 5월 9일 심양 동남 쪽에 세균탄들을 투하 하였다. 우리의 에프—86 항공기 4대의 편대는 금포 비행장을 11시20분에 리륙하였으며 긴밀한 편대를 구성하고 4만피트의 고도를 잡았다. 이 고도에서 우리들은 편대를 풀고 전투 태세에 들어 갔다.

나의 항공기는 세균탄 1개와 1개의 예비 연료 땅크를 적재 하였다. 우리들은 심양 동남부 약 35마일 지점에 있는 2개 도시 펜지후와 당자쾅즈의 바로 서부에 위치한 공업 지역에 투탄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우리들은 해주 동방과 평양의 바로 서쪽을 통과하여 압록강을 건너 중국 령공에 들어가 목표 지역으로 향하였다. 나는 이번 출격 임무에 앞서 다른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였을 때 미크 4대를 본일 있었기 때문에 미크들을 만나지나 않을까 두려워 하면서 비행하였다. 나는 내가 전쟁 포로로서 보다는 간첩으로서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 하였기 때문에 중국 령토에서 격추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였다.

내가 북쪽을 향하여 비행하고 있었을 때 나의 편대 지휘관에 대하여 몹시 초조감을 느끼게 되였다. 나는 왜 편대 지휘관이 선두에 나아가 투탄 신호를 줌으로써 우리들에게 금포에 귀환할 충분한 연료를 보장하여 주지 않는가를 의심하였다. 우리가 속히 폭탄을 처분하면 할수록 그만큼 속히 우리들은 안전한 령토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편대 지휘관이 투탄 신호를 주었을 때 나는 안도의 감과 더불어 투탄스위치를 눌렀으며 그와 동시에 이 폭탄이 지상 목표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손실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다.

우리들이 돌아서 귀환하고 있었을 때 나는 우리들이 비교적 안전한 지역인 청천강 이남에 도달하기까지 미크들과 조우할는지 모른다고 역시 걱정하였다. 그러자 나는 금포 비행장을 보았으며 나의 첫 번 세균전 출격 임무가 무사히 수행된 데 대하여 대단이 맘을 놓았다. 잠시 동안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하여 약간 죄스러운 감정을 느끼였으나 드디여 나는 다만 명령대로 나의 과업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고나 자신을 설복 하였다. 나는 조선에 오기 오래전 부터 세균전 수행을 예기하고

있었다. 내가 아직도 미국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 지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 나와 함께 류숙하고 있던 18명의 에프86 비행사들은 1952년 3월 20일에 훈련 중대장 제임스 맥킨파이어소좌가 진술한 세균전에 관한 강의를 받았다.

그는 자기의 강의의 첫 부분에서 세균전의 력사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는 조선 전쟁에 이르는 직전까지 세균전은 대 규모로 사용 되지 않았다고말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인들은 비교적 소 규모로 중국 인들을 반대하여 세균전을 진행한바 있었다. 제2차 대전후 미국 정부는 일본인들이 전쟁중에 시작한 세균전 연구사업을 계승하고 미국의 과학자들을 시켜 그들의 연구 사업을 개선 하였다. 그들은 외국과 학자들의 원조 밑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최대의 규모로 세균전 연구를 발전 시켰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조선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군대만으로써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될 때 곧 세균전 진행을 결정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세균전은 비교적 작은 규모로 시작될 것이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지난번 전쟁에서 원자 폭탄이 일본에 적용되여 효과를 본바와 같이 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는데 세균전의 주요 목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세균전의 진행은 전염병의 만연을 초래할 것이며 그 결과 제일선 부대들과 후방에서 인적 자원의 부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세균전의 진행은 또한 인민들이 전투의 계속을 단념하게끔 하는 정도 까지 사기를 저락 시킬 것이다. 그는 우리가 거의 전쟁을 이겨갈 때 중국인들이 전쟁에 개입한데 대한 보복 조치로서 세균전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포병대가 보통의 포탄과 함께 세균탄을 발사하고 있지만 세균전의 대부분은 항공대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계속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그렇기 때문에 비록 당신들의 에프—86비행사로서의 주요 임무가 미크들과 싸우며 전투 폭격기들을 엄호하는 것이지만 조선에 주둔하는 동안 세균전에 참가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세균의 종류와 에프—86이 투하하는 세균탄의 형태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는 에프--86들이 그의 폭격의 대부분을 고공에서 실시하고 있는만큼 공군은 고공에서 투하하기 위한 특수 세균탄을 발전 시켰다고 말 하였었다.

끝으로 동소좌는 자기가 제시한 모든 자료는『극비』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들은 어느 누구와도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서조차 이에 관하여 론의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말 하였다. 나는 1952년 4월 22일에 조선 서울 부근 금포에 도착하였다. 새 비행사들을 위한 4일간의 지상 교육을 받은 동안 우리들은 대대 정보 장교 리들랜드 중좌로부터 세균전에 관한 강의를 받았다. 그는 폭격기들이 세균탄 투하를 이미 시작 하였으며 에프—86들이 일찌기 1951년 12월 후반부터 실험적인 세균전 투하를 진행 하였지만 1952년 3월에 와서 비로소 세균전에 실제적으로 참가 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에프—86들은 앞으로 이 목적을 위하여 더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그는 말 하였다.

그는 에프—86비행사들인 우리가 다만 북조선에만 세균탄을 투하하게될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 동북에 대하여도 세균탄을 투하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들은 연료의 형편 때문에 고공에서 세균탄들을 투하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라고 말 하였다. 그는 만일 우리들이 목표로 향하는 도중에서 미크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즉시 투탄하여야 할 것이며 연료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진행하지 말고 도피하여야 할것이라고 말 하였다. 그는 자기의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제시한 자료는 「국비」에 속한 것인만큼 우리들에게는 이에 관하여 론의할 자유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1952년 5월 9일 명령 하달실에서 중국에 대한 첫 출격 임무를 받았을 때 대대장 대리 장교가 중국 동북 까지의 출격에 세균탄 1개와 1개의 예비 연료 탕크를 우리들이 적재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데 대하여 놀래지 않았다. 투하 신호는 개별적인 항공 지휘관들이 내릴 것이 였으며 목표 지역은 심양 동남부 펜지후와 당자황쯔의 바로 서쪽에 있는 공업 지역이였다.

이 출격 임무가 비록 압록강 이북 지역에 대하여 수행될 것이지만 하달된 출격 임무가 수행된데 대하여 복명할 때는 비록 세균탄들이 중국 내에 투하되였다 하더라도 압록강 남부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우리들이 실제 중국과 싸우고 있지 않는 만큼 이것은 문건 기록상의 절차이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들이 대대 명령 하달실에서 압록강 이북 중국 령토에 세균탄들을 투하하게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시초 이에 대하여 리기적인 감정을 느끼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왜 우리들이 폭격을 하여야 하는가? 우리들의 본래 임무는 전투기 비행사이다, 하물며 항로는 1개의 예비 연료 탕크를 가지고 비행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이다, 왜 공군은 이 폭격에 폭격기들을 사용하지 않는가? 그러나 나의 규률 관념은 나로 하여금 기타 비행사들과 더불어 이 명령을 수행케 하였다.

내가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들은 당자황쯔 상공에 도달하여 항공 지휘관의 명령대로 세균탄을 투하하고 기지로 돌아왔다.

착륙하자 마자 우리들은 모두 복명을 하였다. 복명실에서 항공 지휘관은 대대 정보 장교 리들랜드 중좌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우리들은 하달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다음 항공 지휘관은 지도위에 우리의 전반적인 항로를 제시하고 우리들이 세균탄을 투하한 고도와 속도를 제시하였다.

우리들은 그의 말을 립증하고 이곳에서 떠났다.

1952년 5월 18일 나의 두번째 세균전 출격을 위한 목표도 역시 중국 동북 내의 동일한 지역 즉 당자황쯔지의 바로 남쪽, 심양 동남부 약 35마일에 위치하고 있었다.

매개 항공기는 1개의 세균탄과 1개의 예비 연료 탕크를 적재 하였다. 우리들의 시야는 장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양시의 외곽을 판단할 수있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들은 명확한 지점을 판단할수 없었으며 다만 남쪽에 강이 흐르는 대공업 도시 비슷한 지역을 판단할 수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의 세균탄은 두번째 출격에 있어 당자황쯔 바로 남쪽에 투하된 것으로 생각된다. 우

리들은 첫번 출격에 있어서 우리의 시야가 장애를 받았었기 때문에 세균탄들이 락하한정확한 지점을 말할 수가 없다.

목명실에서 항공지휘관은 세균탄들 이 지정된 지역에 투하되였다고 말하였다.

내가 1952년 5월 20일에 수행한 나의 14회째 전투 임무는 나의 세번째 세균전 출격 임무이였다. 목표 지역은 철산 시주면 지역이였다. 개개의 항공기는 또다시 1개의 예비 연료 탕크와 1개의 세균탄을 적재하였다. 매개의 항공 지휘관들은 이 임무 수행에 있어서 연료에 관한 특별한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폭탄의 정확한 락하 지점과 목표 지점접근 방향을 결정할 것이였다. 우리에게 명령을 하달한 대대 장은 투탄후 매개의 항공기는 금포에 귀환 함에 앞서 압록강 연안에 대하여 적어도 2회의 순찰 비행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철산 동남부 약 15마일 지점에서 세균 폭탄을 투하한 다음 우리들은 해안선을 따라 신의주까지 비행하여 선회하고 기지에 귀환 함에 앞서 압록강을 따라 3회의 순찰 비행을 실시하였다.

나는 그 다음날인 5월 21일에 미크에게 격추 당하였으므로 세균전 출격 임무에 더 참가할 필요가 없게 되였다.

내가 아는 한에 있어서 미국 공군의 모든 전투기들은 세균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몇개의 실례를 든다면 세균전을 수행한 항공대들 가운데는 수원에 기지를 둔 제51 전투 요격기 련대 (에프--86) 수원에 기지를 둔 에프—80대대, 그리고 원주에 기지를둔 에프—51대대가 포함되여 있다. 매개의 비행사들은 압록강 건너 출격 임무를 수행하기를 싫어 했다. 우리들이 직접 교전하고 있지 않는 나라에 대하여 세균전을 진행하는데 참가하는 것은 대단히 싫은 일이었다.. 이것은 또한 비행사들의 견지에서 볼때 한개의 옳지 못한 임무이였다 .그 결과 금포에 있던 비행사들간의 사기는 매우 저락되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의 비행 임무를 완결시키고 미국에 돌아가기 위하여 될수록 많이 출격 비행할것을 원하였다.

미 공 군 소 위 챨스 엠 • 커
군 번호 에이 • 오—2222551

1952년 9월 23일

(10) 미 공군 소위 밴스 알 • 프리크의 증언

나의 이름은 밴스 알 • 프리크이며 미 공군 소위이고 군 번호는 에이 • 오—2208933이다. 년령은 24세, 주소는 미국 미주리주 렉싱톤에 있는 하일랜드가 1006번지이다. 나는 1950년 10월 1일 공군에 소집되였으며 미국 텍사스주 셔맨에 있는 페어린 공군 기지에 있는 초급 비행학교에 입학하였다. 다음으로 나는 미국 알라바마주 셀마에 있는 크레이그 공군 기지에 가서 그곳에서 고급 비행 훈련을 끝마치였다. 그후 나는 사격술을 배우기 위하여 미국 아리조나주 페닉스에 있는 류크 공군 기지로 갔다. 1952년 1월 1일 류크에서 나는 1명의 군속에서 세균 무기에관한

강의를 받았다. 이 강의는 지상 훈련대 건물에서 오후에 실시되였다. 이 강의를 청강한 것은 나와 로렌스월프 소위와 기타 5명이였다.

잘 기억나는 것은 이 강의가 주로 에프—51에 사용될 각종 세균 무기에 관한 것이였다. 그는 우리들이 세균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아닌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우리들이 세균 무기를 사용한다면 우리들은 그 사용법에 관하여 더욱 충분한 강의를 받아야 할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였다. 이 강의는 에프—51에 사용될 각종 세균 무기에 관한 간단한 강의였다. 그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세균탄이 있으며 또한 세균을 투하하기 위하여 에프—51에 적재하게 될 산포식 세균 무기도 있다고 말하였다.

우선 강사는 5백 파운드급의 세균탄을 취급하였다. 이 세균탄은 5백파운드급 고성능 폭탄처럼 보인다. 이 세균탄은 내부가 여러 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균이라든지 세균을 보유한 곤충들이 여러 간들에 넣어져 있다.

이 5백파운드급 세균탄은 동시 폭발신관이나, 10초 늦게 폭발하는 신관이나 브이•티 신관을 장비할 것이다. 우리들은 이 신관들에 대하여 많은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 작용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았다. 비행사인 우리들이 세균탄에 세균을 집어 넣는 일이나 비행기에 세균탄을 적재하는 일에는 하등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강사는 이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 5백파운드급의 세균탄은 다른 5백 파운드 폭탄처럼 투하된다. 이 세균탄은 도시라든지, 군대 집결처라 든지, 전탄이 명중해야 될 기타 목표들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 세균탄은 목표에 명중시킴에 있어 가장 정확하다. 세균탄의 신관이 폭발하면 세균탄의 여러 간들이 열리고 다음으로 세균이나 세균을 보유하고 있는 곤충들이 대기 중에 흩어질 것이다.

다른 종류의 세균탄은 락하산식 세균탄이다. 이 종류의 세균탄도 여러간으로 나뉘여져 있는데 그속에는 세균이나 세균을 보유하고 있는 곤충들이 들어 있다. 이 세균탄은 도시와 같이 광대한 목표에 대하여 사용된다.

강사가 우리에게 강의한 마지막 세균탄의 형태는 산포식 세균 무기이다.

이와 같은 세균 무기들에 사용된 세균들은 각각 다르다. 그러나 아마 어떤 종류의 세균이나 세균을 매개한 곤충들이 사용되고 있는가는 알게 될 것이다. 이로써 류크 공군 기지에서의 세균전 강의는 끝났다.

나는 2월 21일 스톤맨 기지로부터 해외로 출발하였으며 2월 26일 일본에 도착하였다. 나는 그곳으로부터 케이—10호 기지에 있는 제18전투 폭격기 대대로 갔다.

이 기지는 진해에 있는 동 대대의 보급 기지이다. 3월23일 경 나는 동 대대의 작전 기지인 원주 부근의 케이—46 기지로 갔다. 나는 제39 중대에 배치되였다.

제18 대대에 근무하고 있던 중 나는 지도 보는 방법과 지상 정형에 대한 첩보 받는 법과 세균전에 관한 강의를 받았다. 1952년 3월 2일부터 1952년 4월 말까지에 나는 제18 대대에서 단지 5회의 전투임무 비행을 하였을 뿐인데 그 중의 한번은 세균 무기를 사용하였다.

세균전에관한 강의는 1952년 3월 23일 19시에 대대 명령 전달실에서 진행되였

다. 대대의 정보 장교 매크라프린 대위가 이 강의의 강사이였다. 이 강의는 15명이 참가하였다. 매크라프린 대위는 이 강의가 세균전에 관한 강의로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들이 왜 각종의 세균 무기, 각종의 신관 세균 및 곤충등을 사용한 세균전을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리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는 우리들에게 그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하며 그가 말하는 바를 잘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좋거나 싫거나 명령이 내리면 우리들이 실행하여야할 것이기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세균탄이 전쟁을 현저하게 단축시킬 것이다. 세균탄은 적의 군대 내에 전염병과 희생자들을 발생시킬 것이며 적군의 전투력과 투지를 약화시킬 것이며 이것이 오래 계속되면 세균탄은 전쟁을 단축시키며 많은 인명을 구원할 것이다. 당신들은 세균탄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왜냐 하면 당신들은 공군에 복무하고 있으며 공군은 당신들에게 적군에게 세균탄을 투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신들은 전쟁을 단축시키고 미국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균탄을 투하하여야 한다.

중국 군대와 북조선 군대는 숫적으로 너무나 우월하여 우리군대가 상대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는 보통 폭탄으로 피해를 입히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가 세균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매크라프린 대위는 또한 우리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의 세균 무기와 신관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는 우리들에게 주로 류크 기지에서 강사가 우리에게 강의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강의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어떤 경우에 어떤 세균 무기를 사용할 것인 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5백 파운드급 폭탄과 류사한 세균탄은 전탄을 명중시켜야 할 목표이거나 혹은 심대한 타격을 주어야할 목표들에 대하여 사용된다. 이 세균탄은 조그마한 농촌이나 군대 집결처와 같은 목표들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세균탄은 5백파운드 폭탄의 성능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타격을 줄 수 있으나 다른 세균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산포식 세균탄도 직접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낮은 고도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데 세균탄은 어떤 고도로부터든지 투하할 수 있다.

산포식 세균 무기는 인구가 광대한 지역에 분산되여 있는 곳과 같은 넓은 지역에 산포하기위하여 사용된다. 이 세균탄은 바람이 없거나 약간 바람이 부는 협곡지대에 사용하는것이 가장 적당하다. 그렇게 하면 곤충과 세균이 바람 때문에 목표로부터 날아가지 않고 곧장 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후 나는 제18대대에 속하여 있는 4대의 비행기가 이 산포식-세균무기를 장치하고 있는것을 보았다.

그 다음 종류는 도시라든지 기타 주민 지대에 투하하는데 사용되는 락하산식 세균 무기이다.

북조선에서 세균전을 진행하기 위한 제18대대의 작전 지역은 매크라프린 대위가 우리에게 말한 바와 같이 세포리, 양덕, 백송리, 덕천, 군우리선 이북의 전선으로 확대되였다.

이 계선은 군우리로부터 태천, 구성 및 선천 등 지점을 통과하고 그곳으로 부터 남쪽 해안에 이르고 있다. 끝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균전에 관한 이 모든 정보는 기지에 있을 때나 기지를 떠나서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조종사라 할찌라도 동료들 간에서 이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특별 출동시에는 세균탄이 리륙할 찰라에 활주로에서 비행기에 실려진다. 산포식 세균 무기가 사용된 후에는 소독하기 위하여 산포식 세균 무기를 일종의 화학 약품으로 닦아 내게된 한다.

나는 1952년 4월 1일, 평양 동방 10마일 내지 15마일 쯤 되는 농촌에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1952년 4월 1일 6시, 나는 제39중대 작전 장교로부터 8시에 대대 명령 전달실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는 명령대로 대대 명령 전달실에 출두하였다. 대대 작전 장교는 우리들에게 우선 그날 세균전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우리들은 한쪽 날개에 5인치짜리 로켓트탄을 두개 달고 다른 날개에는 5백 파운드급의 세균탄을 달아야 하였다.

그는 지도 위에서 우리들이 공격하여야 할 지점 (평양 동방 10마일 내지 15마일 지점의 농촌) 을 지적하였다. 우리들은 14시에 출발하여야 하였다. 그는 우리들이 목표지에 도착하였을때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공격하여야 할 지점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우리들이 곧바로 목표지로 비행 하여야 하며 목표를 폭격한 후 곧 기지로 도라와야 한다고 말하였다.

매 크라프린 대위는 다음으로 우리들에게 목표지에서는 약간의 대공 포화가 있을 것이니 평양을 우회하라고 말하였다. 왜냐 하면 평양에는 대공포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목표지의 기상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기상 담당 장교는 목표지의 기상은 청명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다음 우리들은 명령 전달실 전면으로 나아가서 목표지의 사진을 보았다. 그 후 우리들은 출발할 때까지 우리 방에 있었다.

13시 30분, 우리들은 활주로에 정지하고 있는 우리 비행기로 갔다. 세균탄은 이미 비행기에 적재되였고 나의 비행기 옆에는 아직도 두사람의 특별 정비원들이 서 있었다. 우리들은 14시에 리륙하였다. 우리들은 곧바로 목표지로 비행하였으며 3초의 거리를 두고 급강하하기 시작하였고 세균탄을 투하하며 다음으로 로켓트탄을 발사하였다. 목표지인 도시를 습격한 후 우리들은 좌편으로 상승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기수를 돌리고 항공대에 합류하였다. 16시경 우리들은 케이—46 기지에 도착하였다.

착륙한 후 우리들은 모두 복명하러 갔는데 매크라프린 대위가 우리의 복명을 받

았다. 그는 우리에게 금번 출동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며 우리들은 이에 대답하였다. 우리들은 매크라프린 대위에게 금번 작전은 명령대로 실행 되였다고 말하였다.

이것이 내가 제18 대대에 근무하는 동안에 실시한 단 한번의 세균전이다.

1952년 5월 1일 나는 다른 18명의 조종사들과 함께 제18 대대로부터 김포 미군 항공 기지에 있는 케이—14 기지 소속 제4 대대에 조동되였다. 나는 제336 중대에 배치되였다.

나는 5월 3일 에프—86 조종훈련을 받기 위하여 일본 쯔이끼 비행장에 파견될 때까지 케이—14기지에 근무하고 있었다. 쯔이끼에서의 훈련은 주로 에프—86에 익숙하여 지는 것이였다. 나는 1952년 5월 20일 케이—14 기지로 도라올 때까지 있었으며 케이—14 기지에서도 훈련을 계속하였다. 케이—14 기지에서 아직도 훈련 임무를 받고 있던 기간에 나는 두 차례의 강의를 받았다. 이 강의는 매 강의마다 한 시간씩 걸렸으며 특히 청강생은 18명이였다. 우리가 받은 첫 강의는 세균전에 관한 것이였다. 둘째번 강의는 대대 명령에 의한 일반 작전에 관한 것이였다.

세균전에 관한 강의는 1952년 5월 20일 19시에 대대 명령전달실에서 대대 정보장교 리들랜드 중좌가 진행하였다.

리들랜드 중좌의 강의에서 잘 기억나는 것은 아래와 같다. 우선 그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것은 중요치 않다. 공군이 당신들에게 충분한 비행 훈련을 시키는 것은 당신들에게 비행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들에게 반드시 집행할 것을 기대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즉 당신들은 전력을 다하여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북조선과 중국 동북 지방에 세균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쟁을 성공적으로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적의 보급로는 중국 동북을 통하여 그리고 북조선을 통하여 부설되였다. 우리들은 이 보급로가 전선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그들이 조선에 대한 보급품 수송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유생 력량을 손상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조 중 량국 인민들의 사기를 저락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폭격을 회피하기 위하여 전쟁을 중지할 것을 희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그들이 조선으로 파견되는 군대 보충을 못하도록 방해하여야 한다. 인민들과 군대는 이러한 폭격으로 말미암아 투지를 상실하게 되고 전쟁을 종식될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우리들이 에프—86조종사로써 수행하여야 될 세균탄의 종류에 대하여 화제를 돌렸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들이 오늘날 주로 사용하고 있는 종류도 탕크식 세균탄이다. 이 세균탄에

사용되고 있는 세균은 장질부사, 황달병, 코레라, 흑사병, 티브스 등이고 이 세균탄에 사용되는 곤충은 파리, 모기, 벼룩, 이 등이다.

다음 종류의 세균탄은 5백파운드 형 세균탄이다. 이 세균탄은 내부가 여러간으로 나뉘여져 있으며 그 속에는 세균과 곤충들이 넣어져 있다.

이 세균탄은 땅크형이기 때문에 동일한 종류의 세균과 곤충들이 사용되고 있다. 만일 당신들이 중국 동북으로 세균탄을 투하하려 간다면 한개의 예비연료 땅크와 한개의 세균탄을 싣고 신의주와 수풍 발전소 간을 비행하게 될 것이며 항상 동일한 경로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만일 연료가 모자랄 때에는 중국 동북으로부터 직접 케이—14 기지로 귀환할 것이다. 만일 이 세균탄을 투하한 다음 연료가 넉넉히 남아 있다면 미크 비행기를 수색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동북 지방까지 가면 필경 연료가 모자랄 것이므로 대개 곧 바로 기지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 세균 강의는 극비이므로 동료간에서도 발하지 말라」.

1952년 7월 18일 20시 나는 둘째번 출격 명령을 받았다. 우리 항공대는 1952년 6월 19일에 명령 받았을 때처럼 대대 명령 전달실에 출두하였다. 이번 명령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4명의 비행사들만 참석하였다. 우선 지상 련락 장교가 전날 밤에 발생한 전선 소식과 전선의 현 위치와 륙군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지상 포와, 암호 및 전날 다른 비행기가 진행한 출격수 등에 관하여 말하였다.

다음으로 작전 장교가 「당신들은 15시에 출발하게 되였다. 목표는 신의주 남방 15마일 지점에 있는 부락들이 있는 계곡이다. 만일 미크를 발견하거던 어데서든지 세균탄을 투하하라. 당신들은 두개의 세균탄을 싣고 있으며 예비 연료는 없다. 그러므로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 가를 조심해 볼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리들랜드 중좌는 「당신들은 두개의 땅크형 세균탄을 적재하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싣고간 세균탄을 편대한 채로 전체 비행기가 동시에 투하하여야 할 것이다. 신의주 주변의 지상 포화에 주의하라. 당신들은 신의주에 접근하게 될 터인데 신의주 주변에는 지상포가 많이 배치되여 있다」고 말하였다.

다음 기상 담당 장교가 우리들에게 얼마간 구름이 떠 있으나 대체로 청명할 것으로 측측되는 일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대대의 명령을 전달 받은 후 우리들은 중대 명령 전달실로 갔다. 이곳에서는 항공대 지휘관이 우리들에게 또다시 거의 동일한 주의를 주었다. 그 다음 우리들은 모두 우리의 장비를 입고 비행기 있는 곳으로 갔다. 나는 특별 정비원들이 나의 비행기에 세균탄을 적재하는 작업을 막 끝마쳤음을 보았다. 우리들은 15시에 출발하여 문산 편대로 대렬을 정돈하였다. 우리들은 15시 53분에 목표 상공에 도착하였으며 문산 편대로 세균탄을 투하고 15시 53분 케이—14 기지에 착륙하였다. 내가 제4 대대에 근무할 당시 나는 몇몇 비행사들과 담화하고 처음으로 사용된 세균탄이 땅크식 세균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후 5백 파운드 급 세균탄이 사용되

였다. 이 두가지 종류의 세균탄이 내가 격추 당할 때까지 사용되고 있었다.

나는 1952년 6월 21일 최후로 출격하였다. 이번 출격은 관례에 의한 미크를 발견하기 위한 출격이였다. 우리들은 신의주와 수풍 발전소 간을 비행하였다. 나는 신의주 남방 10마일 지점에서 격추 당하였다.

제4 대대 비행사들의 사기는 주로 그들이 세균전에 참가하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부단한 공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 높지 못하다. 만일 단지 미크와 전투하는 문제에만 국한되였다면 사기는 저락되 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는 높아질 수 없을 것이다

제4 전투 요격기 대대 제336 중대

미 공군 소위 벤스 알 • 프리크

군 번호 에이 • 오—2203933

1952년 10월 9일

(11) 미 공군 중위 죤지 • 엘리스의 증언

나는 미공군의 죤지 • 엘리스 중위, 군 번호 에이 • 오—1862790이다. 나는 버지니아 리치몬드 스튜아트가 2026번지에 거주하였다.

1950년 11월에 공군에 입대하기 전에 나는 듀퐁 회사에서 기사로서 일하였다. 공군에 입대하자 나는 기본적인 비행사 훈련을 받기 위하여 먼저 텍사스에 있는코날리 공군 기지에 파견되였으며 젯트 항공기의 고급 훈련을 받기 위하여 그곳에서 다시금 아리조나에 있는 윌리엄스 공군 기지에로 옮겨 졌다. 그곳에서 비행사면허장을 받은 다음 바다를 건너 조선에 파견되기 전 1952년 1월과 2월 간 에프—80과 에프—86 항공기 전투 훈련을 받기 위하여 1951년 12월에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지에 파견되였다. 나는 5월 1일부터 7월 20일에 이르는 동안에 중국에 대하여 2회 북 조선에 대하여 2회, 도합 4회의 세균전 출격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7월 20일에 격추되여 포로되였다. 이 모든 세균전 출격에서 세균 곤충들은 외면상 예비연료땅크와 동일한 용기들에 포장되여 운반되였다. 1952년 5월 1일 경에 내가 대대와 함께 나의 5차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려 하였을 때 나의 항공 대의 비행사들은 날이 밝기전 명령 하달을 받도록 지시를 받았다.

우리들 4명은 전투 작전 명령 하달시에 집합하였으며 그곳에서 대대 정보 장교 리들랜드 중좌와 기상 관계 담당 장교를 만났다.

리들랜드 중좌는 우리 항공기들이 탄저병균에 감염된 벼룩들을 가진 1개의 연료땅크형 세균 폭탄과 1개의 예비 연료 탕크를 적재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는우리에게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들어가 안동과 따퉁코우 중간에 위치한 지점에 이두개의 땅크를, 즉연료 땅크와 세균탕크를 투하하라고 말하였다. 리들랜드 중좌는만일 우리들이 미크들을 만나 다면 땅크들을 투하하고 최대 속도로 기지로 도라오라고 말하였다.

우리들은 중대로 도라왔으며 그곳에서 항공 지휘관은 우리들이 취할 항로를 지정하였는 데 이것은 진남포의 서쪽을 통하고 그 다음 북쪽으로 강을 건너 미크의 통로 지역을 피하여 룡동 반도 상공에 도란오는 것이였다. 그는 우리들에게 신의주 상공에서 좌측으로 돌아 안동 상공과 따퉁코우 상공을 통하여 동북으로부터 서남부를 경과하여 바다에 나가 동일한 통로에 의하여 도라오라고 말하였다. 우리들은 날이 밝기 20분전에 리륙 하였였다

우리들은 강을 건너 북쪽으로 갔으며 룡동에 도달하였을 때 신의 주로 돌았다 우리들은 신의주 주변에서 좌측을 향하여 급강하를 시작하고 안동을 통과한 후 약 3마일 지점에서 세균 땅크와 연료 땅크들 투하하였다 시간은 바로 해가뜬 수분후이였으며 나는 중국 동북을 통과하여 황해로 나올때 압록강 하구가 나의 눈에 띠였다. 우리들은 진남포를 통과하여 케이—14로 도라왔다 그 후 약 1주일이 경과하여 5월 8일 경 제336중대 소속 우리들 6명의 비행사는 오후 1시 경에 전투 작전실에서 명령을 하달받기로 예정되여 있었다.

우리들이 도착하였을 때 기타 중대로부터 4명의 비행사들이 와 있었으며 리들랜드 중좌는 우리의 임무가 제 336중대로부터 우군기의 협조 없이 미크들에 대한 순찰을 하는 것이며 나의 중대는 또한 병균에 감염된 곤충들을 가진 연료 땅크형 세균폭탄들을 적재하는 세균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6대의 항공기 중 4대는 1개의 세균 땅크와 1개의 연료 땅크를 적재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청천강 이북 지역을 순찰하기 위한 연료를 가질 것이였다.

나의 항공기를 포함한 남아지 2대의 항공가들은 매개 항공기에 2개의 세균 땅크들을 적재할 것이며 이 땅크들을 투하한 이후는 청천강을 통과하여 금포에 도라오는 것이였다. 그는 전기 4대 의 비행기와 2대의 비행기가 진남포의 바로 동북지점에서 동시에 세균 땅크들과 연료 땅크들을 투하할 것을 지시하였다. 우리들은 진남포 동북 약 5마일 지점에서 우리의 세균 탕크들을 투하하였다. 청천강에 도달하자 우리들은 좌편으로 돌아 하구를 향하여 비행하고 케이—14에 귀환 하였다.

다음으로 5월 23일경, 우리의 항공대는 모든 중대로부터 온 약 6명의 기타 비행사들과 함께 아침에 명령하달을 받기로 예정 되여있었다. 전투 작전 명령 하달실에서 리들랜드 중좌는 제49및 제 8전투 폭격기 대대 소속 항공대들이 평양의 동북쪽 10 마일 지점에 있는 철도선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우리 대대의 임무는 미크들의 공격으로부터 전투 폭격기들을 엄호하기 위한 순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였다. 리들랜드 중좌는 또한 나의 비행기가 순찰 진행 과정에서 세균전 임무를 수행하게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의 항공기들의 매개가 1개의 세균 땅크 및 1개의 연료 땅크를 적재할 것이며 이 두개를 신안주와 안주 중간 지점에 투하하여야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들은 11시 수 분후에 리륙하여 세균 땅크들과 연료 땅크들을 동시에 신안주 및 안주 중간 지점에 투하하였다. 그 다음 우리들은 좌편에로 선회하여 청천강 하구와 진남포 중간을 순찰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들이 케이—14에 도라왔을 때 항공지

휘관은 그자신 복명을 하기 위하여 전투 작전실에 갔다. 6월 10일경, 나는 마지막으로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들어가 세균전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번에는 리들랜드 중좌와 더불어 련대장 타잉 대좌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달하였다.

비행사들에게 목표 지역들과 고도를 제시한 다음 타잉 대좌는 나를 제외한 모든 비행사들에게 미크들을 만나지 않는한 그들의 연료 탕크들을 보존하라고 말 하였다. 그는 명령하달실에서 퇴장하였으며 나의 항공 지휘관은 리들랜드 중좌로부터 지시를 받기 위하여 명령 하달실 전면에 갔으며 기타 사람들은 우리의 중대로 도라갔다. 약 10분후에 타잉 대좌는 도라와서 우리들이 수풍땜 바로 위에 있는 압록강 이북 동북 중국내에 투하할 1개의 연료 탕크와 한개의 세균탕크를 적재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도중에서 제51전투 요격기 련대의 일부 항공대들은 미크들과 교전하였다.

그 다음 우리들이 수풍땜 상공에 있는 동안 우리 항공대 중 2대는 신의주 남쪽에서 미크들과 단시간에 결쳐 교전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은 어떠한 미크들과도 조우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수풍땜 동 단에서 압록강을건너 투탄하고 급속도로 비행하였다 우리들이 미크들과 조우하지 않았지만 미크들은위에 떠 있었으며 따라서 나와 기타의 비행사들은 지상에 주의를 돌릴 수 없었다. 우리들은 상공에 대하여 날카로운 주의를 돌리였으며 또한 가능한 공격을 위하여 지상에 주의를 돌리였다. 우리가 중국 령토내에 건너 왔다는 것을 자각함에 따라 우리들은 급격히 불안을 느끼게 되였다.

우리들은 서쪽을 향하여 비행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중국 동북에 있는 관천남방 7마일 내지 8마일 지점에 세균 및 연료 탕크들을 투하하였다. 그다음 우리들은 좌편으로 급히 돌아 다시 압록강을 건너 수풍땜 남방에서 단시간의 순찰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 다음 우리들은 철수하여 룡동 남방을 거쳐 해안선을 따라 도라왔다. 이것은 모두 내가 세균전에 직접 참가한 모든 경위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첫출격 임무를 수행하기 전 조선에서 에프—86들을 조종함에 있어서 예측하여야 할 사항을 지시 받았다.

미국 네바다에 있는 넬리스 공군 기지에서 1952년 2월 20일경 훈련대 장관 매킨타이어 소좌는 지상 훈련대 건물 내의 강당에서 극 비밀의 강연을 실시 하였다. 이 강연에는 에프—86 비행 훈련생만이 참석하였다. 매킨타이어 소좌는 처음에 이 강의가 극비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강당을 떠난 후 이것에 관하여 전연 론의하지 말것을 명령하였다. 그는 세균전의 목적이 다만 직접 군사적 목표물을 사용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적의 사기를 저락시키고 항쟁을 계속 하려는 인민들의 의지를 꺾는데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전염병에 감염된 곤충이 든 폭탄들, 또는 탕크들을 적재 함으로써 에프—86들이 이러한 종류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 하였다. 이 전염병균들 중에는 탄저병균, 코레라, 티브스가 들어 있었는데 이 병균들은 각종의 적합한 곤충들에 의하여 운반될 것이였다. 그는 계속 세균탄들이 각종의 용기들에 포장된 것인바 그 일부는 5백 폰드 파괴용 폭탄과 동일하였으며 다른 한 종류는 에프—86에

사용되는 예비 연료 탕크와 동일하였다 .이 모든 용기들은 그 내부에 곤충들을 넣는 간들을 구비하고 있었다. 윗간에는 이간과 련결된 신관 장치가 있었으며 이간은 세균들을 넣은 기타의 간들과 격리되여 있었고 신관이 발화할 때 세균을 넣은 간들에 충격이 가해짐이 없이 세균을 산포하도록 이 폭탄의 간들이 열리게끔 되여 있었다 일방적으로 사용된 신관은 브이•티신관, 즉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일정한 거리에서 폭발할 각종의 시한 신관이 사용될 것이다.

그는 우리들이 조선의 기지들에 도착할때 이 세균전에 관한 정보를 더욱 얻을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이 정보에 관한 엄격한 비밀을 엄수할 것을 우리들에게 주의 시키면서 그의 강의를 끝마치였다.

4월 1일에 나는 금포에 있는 제4 전투 요격기 련대에 부임하였다. 제4대대는 에프—86의 3개 중대, 즉 제 334 중대, 제335 중대 및 제336 중대로 구성되였 었다. 나는 제336중대에 배속되였다. 4월 7일, 또는 8일 경 명령 하달 실에서 대대 정보 장교 리들랜드 중좌는 제4대대가 어떻게 세균전에 참가하였는가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그는 우선 그가 우리들에게 전달하려하는 정보가 극비밀에 속하는 것이며 또 한 정규적인 지상 근무원들과 기타 직접 관계 되지 않는 공군 인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므로 우리들은 이것을 명령 하달실 밖에서 론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였다.

우리들이 넬리스에서 동일한 강의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게 되자 그는 세균전의 목적은 군대의 사기를 저락시키며 또한 적대 행동을 계속하려는 인민의 의지를 꺾는데 있다고 말하였다. 그다음 그는 제4대대의 비행사인 우리들이 이 계획의 일부로서 압록강 이북 중국 령토에 들어가 북조선 사람들에 대한 중국 인민의 원조와 지지를 파탄시킬 목적밑에 세균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동북에 대한 이세균전 출격 임무는 항공기가 압록강을 넘어 충분한 범위내에서 활동하기 위한 연료를 보충받을 수 있도록 1개의 정규적인 연료 탕크를 적재하는 이외에 1개의 세균 폭탄을 매개 항공기에 적재함으로써 수행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세균 폭탄에 포장된 세균은 모두 탄저병, 티브스 및 코레라와 같은 전염병 균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세균탄 투하 지시와 기타에 관한 개별적인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인 명령하달에서 설명될 것이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세균 폭탄들은 특별히 선발된 승무원들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기들에 적재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정보의 어느 하나라도 이를 가지 지상 근무 인원에게 전파시키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강의를 받은 다음 우리들은 모두 세균전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며 또한 다분히 중립국 령토인 중국 동북에 출격하지 않은면 아니될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자 불안과 더불어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였다.

우리들은 또한 자기가 세균전 임무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느낀 불쾌감을 미리 예상하였다. 대개의 비행사들은 세균전에 대하여 증오감을 느끼였으며 그들은 또한 중

렵국 령토 상에서포로 될는 지도 모르는 이 세균전 임무 수행을 중오시하였다.

제4전투 요격기 련대 에프—86 비행사
군 번호 에이•오—1862790

미 공군 중위 죤지 •엘리스

1952년 10월 31일

(12) 미 공군 대위 죤 에이•오스번의 증언

나는 미공군 대위이며 이름은 죤에이•오스번이다. 군번호는 에이오—796188이다. 나는 1952년 5월 18일 조선에 도착하여 제 131전투 폭격기 대대 제182 전투 폭격기 중대에 배치되였으며 현재는 제58 전투 폭격기 대대제 311 전투 폭격기 중대에 소속되여있다. 나는 제311 전투 폭격기 중대 작전 장교이였으며 에프—84 비행사이였다. 나는 33회의 출격에 참가하였는데 그중 6회는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나는 1940년 10월 6일에 륙군 항공대에 입대하였다. 조선에 오기 전에는 나는 미 공군 공군 전략 사령부 제1전투 엄호 련대 항공기 지휘관이였다. 나는 1947년 이래 이 련대에 근무하고 있었다.

나는 1951년 8월 경부터 세균전의 실지 훈련을 받았다.공군 전략 사령부는 죠아지주 알베니에 있는 터너 공군 기지에 원자,세균 및 화학전 학교를 설립할것을 명령하였다. 내가 이 학교에다닐때에 우리는 세균탄의 구조에 관한 강의를 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야얇은곽 폭탄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중심부로 내려가는 폭발 약을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가 강의받은바에 의하면 이것은 크기와 외양에 있어서 일반용 5백폰드 보통 폭단과 거의 동일하며 액체가 들어 있다. 우리는 또한 이 폭탄에 들어 있는 세균들은 천연두, 티브스, 황열병, 코레라 및 페스트와 같은 병을 전파시키기위한 목적에 사용된다는 것도 배웠다

우리는 세균 산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이 산포기는 기준 화학산포 탕크 내에서 연기나 가스와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세균 무기들이 조선 전쟁에 사용된 다는데 대하여는 아무말도 없었다.

1952 년 5월 1일 내가 몇몇 비행사들과 함께 일본의 이다 즈까에 도착하였을때 나는 제136 전투 폭격기 련대에 복무하는 비행사들을 위하여 설립된 적은 륙군 학교에 다녔다.

이 학교에 다닐때 우리는 하루 포탄 공급기지를 견학하였다. 기술군조가 우리를 안내하고 설명하여 주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제136련대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포탄들을 견학하였다. 그는 세균탄에 관하여 잠시 설명하였으며 그가 우리에게 제공한 그 구조와 내용에 관

한 정보는 덕녀에 있는 초보적인 학교에서 우리가 강의 받은 것과 동일한 것이였다.

1952년 5월 18일 내가 케이— 2에 도착한후 나는 제 182 중대에서 나의 작전장교이였던 노위키 대위로부터 세균탄의 실지 투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가 나에게 말한 주요 내용은 세균탄 투하가 기타 어떤 종류의 폭탄 투하와도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였다. 그는 또한 세균탄을 싣고 출동한 후에 만일 실패하는 경우에는 포항 동방 10마일 지점에 있는 케이—3이 비상 투탄 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두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제136 련대와 제58련대에서 우리는 세균탄을 사용하였다. 나는 인원 및 로력부족과 케이—2에있는 시설 부족이 세균탄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세균전 임무에 관한 나의 사업은 전날밤에 명령을 받은후에 개시 되였다. 만일 이 명령이 세균탄을 싣고 출동할 것을 요구한다면 나는 작전 장교로서 이 출격에 내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항공기를 결정하여야 하였었다.

다음으로 나는 항공기 지휘관들이 나에게 전달한 출동 표들을 검사하였다. 만일 신체가 약한 사람이 세균전 임무를 담당하고 출동하기로 예정되여 있다면 나는 항공기 지휘관과 련락을 취하여 이를 교체 시켜야 하였었다.

사업상 나는 나의 비행사와 항공기의 모든 것을 언제나 잘 알고 있어야 하였었다.

출동할 항공기가 결정된 후에는 나는 어떠한 세균탄을 싣고 갈것인가를 병기과에 통지하기로 되여 있었다. 비행사들과 승무원들이 나에게 파견되는 즉시로 그들은 대대가 명령부에서 그들을 만날수 있도록 대대에 복종하기로 되여 있었다.

내가 포로된 후 느낀바에 의하면 세균탄을 싣고 출격하는 비행사에게 요구되는 필수 조건은 그가 목표를 명중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버커슨 장군이 작성한 계속적인 훈련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비행사들이 세균탄을 싣고 갈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비행사들에 대한 부단한 검열을 실시하며 필요한 비행사들에 대한 추가적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용이하였다.

1952년 6월 27일 경에 나는 첫 세균전 출격을 하였다. 목표는 평양 동북방에 있는 철교들과 턴넬이였다. 이 임무에는 24대의 항공기가 참가하였으며 부티 중좌가 이를 지휘하였다. 샤프 중좌는 나와 가치 탑승하였는 데 그는 세균 항공기를 지휘하였다. 7시 경에 이 임무에 대한 명령이 전달되였다. 대대 작전 장교 폴린트 소좌는 임무 번호를 발표하면서 명령을 전달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출격 목표인 평양 북동방에 있는 철교들과 턴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이 임무에 참가할 비행사들과 승무원 명단을 발표하였다. 그는 세균탄 1개와 일반용 폭탄 1개를 싣고갈 『이』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들이 1천 폰드 일반용 폭탄 2개를 싣고 출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포항 동방 10마일 지점에 있는 세균 항공기 비상 투탄 지역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다음

으로 대대 정보 장교 밀러 중위가 명령을 전달치였다. 그는 지도와 사진을 내놓고 목표지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목표 부근 대공 화점의 위치를 설명하였으며 대공 포화에 맞았을 경우에 취할 긴급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세번째로 련대 련락 장교가 명령을 전달하였다. 그는 전선의 대략 정형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기후 관계 담당 장교가 명령을 전달하였다. 그는 목표지 래왕 항로의 기후와 목표지의 기후 및 케이—2 귀환 항로의 기후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

끝으로 이 임무를 지휘할 부티 중좌가 명령을 전달하였다. 그는 첫째로 편대의 활주, 리륙 및 편대 구성 절차에 관하여 말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우리가 목표지에서 사용할 절차에 관하여 말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미크의 전술과 비상 투탄 지역에 관하여 말하였다

우리가 중대에 돌아간 후 샤프 중좌는 자기 중대에 명령을 전달하였다.

우선 그는 이 임무가 다른 어떠한 임무보다도 곤난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나에게 유리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이것이 나의 첫 세균탄 출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는 중대 명령 전달 실에 비치되여 있는 지도를 펴놓고 비상 투탄 지역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우리가 공격을 받는 경우에 중대내에서 사용할 미크의 전술을 설명하였다.

이로써 명령 전달은 끝났다.

우리는 九시 경에 기지를 떠났다.

우리는 명령한대로 목표에 대하여 편대를 지여 접근하였다.

목표에 도착하자 우리는 우측으로 선회하고 교량 남단 강변에 투탄하였다. 우리는 4대 편대로 케이—2에 귀환하였다

착륙후 우리는 복명하려 갔다.

「이」 항공기에 탑승하였던 우리들이 복명하려 들어갔을 때 다른 항공기 승무원들은 복명을 끝마쳤거나 또는 복명이 거의 끝나고 있었다

밀러 중위는 목표지의 사진과 지도를 펴 놓고 우리는 복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세균탄 4개와 일반용 폭탄 4개를 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도와 사진을 가르치면서 폭탄이 폭발된 장소를 될수 있는대로 정확히 설명하였다.

우리는 끝으로 목표지에 있는 대공화점과 목표지의 기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이로써 대대의 복명은 끝났다. 나의 두번째 세균전 출격은 7월 6일 경이였다.

이번 출격 목표는 해주 남방 두개의 호수사이에 있는 소도시이였다. 이 출격에는 4대의 항공기가 참가하였으며 개프니 중좌가 지휘하였다. 이 출격에는 본 가드 대위, 하스톤 대위 및 나 자신이 참가하였다. 명령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우리는

매개 항공기마다 500폰드 세균탄 1개, 500폰드 일반용 폭탄 1개를 싣고 출동하였다.

15시경에 목표 상공에 도착하였다. 명령한바와 같이 세균탄들과 일반용 폭탄을 목표지에 투하하였다. 복명도 별다른 것은 없었다.

나의 세번째 세균전 출격은 해주 남방에 있는 연안에 대한 것이였다. 이는 8월 7일 경이였으며 목표 상공 도착시간은 17시 경이였다.

지휘관은 프린트 소좌이었다. 세균탄을 싣고 가는 항공기의 지휘관은 제이•디•브라운 중위였으며 월슈 중위와 나자신이 그와 같이 탑승하였었다. 페이지 중위는 기타 항공기들을 지휘하였다. 세균 항공기는 각기 500폰드 세균탄 1개와 500폰드 일반용 폭탄 1개를 실었다. 일반 목표는 연안시가이 였으나 나는 명령받은대로 이 도시의 남쪽에 있는 주택지 각 지점에 세균탄들과 일반용 폭탄들을 투하하였다. 복명은 정상적인 것이였다.

내가 네번째 세균전 출격에 참가한 것은 8월 13일 경이였다. 목표는 철원 북부에 있는 보급 기지이였다.

8대의 항공기가 출동하였다. 이 임무의 지휘관은 로버트슨 대위였으며 나는 세균탄을 실은 항공기를 지휘하고 있었다. 나의 항공기에 탑승한 기타 2명은 제임스 중위와 벤 브룻웰 대위였으며 또 한명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겠다. 12대로 편성된 2개소대가 이 임무를 담당하였다. 플린트 소좌가 지휘한 제1 소대는 신의주에서 우측으로 선회하여 수풍댐 남쪽에 있는 군관 학교에 투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매개 항공기는 1,000 폰드 일반용 폭탄 2개를 실었었다. 부티 대좌가 지휘한 제2소대는 안동으로 출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임무에 대한 명령 전달은 보통때보다 좀 더 오래 걸렸다. 케코아 중좌가 세균탄을 실은 제2 소대 제2호기를 지휘하였는데 나는 그와 같이 탑승하였었다. 매개 항공기는 액체가 들어 있는 세균탄 1개와 500 폰드 일반용 폭탄 1개를 싣고 있었다. 기타 8대의 항공기는 각기 1천 폰드 일반용 폭탄을 싣고 있었다.

쵸케트 대위는 목표가 안동에서 가장 가까운 비행장이라고 명령을 전달하였다. 우리 련대장 워포드대좌는 출격 전날 제5 공군에서 하루를 보냈다. 제5 공군 정보부에서 온 디•엘•브라운 중위도 명령을 전달하였다. 관례적인 명령 전달이 있은 후 제1 소대는 중대에 명령을 전달하기위하여 소속 중대들로 돌아갔다. 브라운 중위는 제5 공군이 안동지역에서 적기의 출격을 피하여 도주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2 소대에 전달하였다. 다음으로 우리의 정보 장교 내슈 중위가 목표지에 있는 대공 화점의 위치를 설명하였다. 그도 사진으로 목표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워포드 대좌가 브라운 중위가 말한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는데 그는 브라운보다도 강력히 말하였다.

다음으로 쵸레트 대위가 우리에게 필요할는지도 모를 부차적인 소항로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우리는 케이—12에 귀환하기로 되여 있으며 필요하다면 이곳에서 연료 공급을 다시 받기로 되여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목표 상공 도착 시각은 15시 경이였다. 이 임무는 우리가 압록강에 도달하였을 때까지는 명령대로 진행되였다.

제1 소대는 항로를 바꾸어 군관 학교로 향하였다. 우리가 압록강을 바로 도강하였을 때 미크들이 우리 항공기에 대하여 사격을 가하였다. 우리는 안동에 세균탄들과 일반용 폭탄을 투하하고 남방으로 향하였다. 에프—86이 우리를 엄호한다는 명령은 전달 받았으나 우리는 에프—86을 보지 못하였다. 우리는 연료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케이—13에 가서 연료를 재 공급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목표 또는 폭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복명은 관례적인 것이였다. 나의 마지막 세균전 출격인 동시에 나의 마지막 임무는 1952년 9월 19일에 행한 것이였다. 나는 5백 폰드 세균탄을 2개싣고 떠났다. 출격 목표는 원산 서북방에 있는 철교들이였다. 이것이 주요 공급로이였기 때문에 그들은 될 수 있으면 복구 공사를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제310중대와 함께 출동하였다. 이 임무의 지휘관은 플린트 소좌이였다.

차터 중위가 세균 항공기를 지휘하였다. 나는 제3호기에 탑승하였으며 비네트 중위는 제4호기에 탑승하였다. 우리가 목표지 바로 남방에 도달하여 엷은 구름을 통하여 강하할때까지는 만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구름 속에서 나는 적기에 대하여 사격을 가하였으며 적기가 나를 사격하였기 때문에 나는 락하산으로 내리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이 시각은 대략 12시였다. 나도 몇회에 걸쳐 세균전 출격 임무를 지휘하였으나 나 자신이 세균탄을 투하하지는 않았다. 내가 처음으로 지휘한 것은 오산 서쪽에 있는 대 보급 기지에 대한 출격이였는데 이것은 7월 2일 경이였다. 2대의 항공기가 이 임무에 참가하였다.

세균 항공기 비행사들은 세균 항공기 지휘관 비르 중위, 잉그렘 중위, 콜 중위 및 팔그렌 중위이였다. 매 항공기마다 세균탄 1개를 실었다. 목표 상공 도착 시간은 9시 경이였다. 내가 두번째 지휘한 것은 8월 2일 경이였다. 항공기 12대가 이에 참가하였다. 제69 대대에서 온 잉그라시아 대위가 세균 항공기를 지휘하였다. 매개 세균 항공기는 세균탄 1개와 일반용 폭탄 1개를 실었었다. 목표지는 안주 바로 북쪽에 있는 철로이였으며 우리는 14시경에 목표 상공에 도달하였다.

세번째 내가 지휘한 것은 8월 6일 경이였다. 항공기 24대가 이에 참가하였다. 솔스베리 중위, 폰스 중위, 쵸레트 대위 및 하트 중위가 세균탄을 싣고 출격하였다.

그들은 각기 세균탄 1개와 일반용 폭탄 1개를 실었었다. 목표는 회천 북쪽에 있는 철교들이였다. 목표 상공 도착 시각은 17시 경이였다. 더블유•엘•폰스 중위가 이 출격에서 포탄에 쓰러졌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휘한 것은 8월 29일 경이였다.

항공기 24대가 이에 참가하였다. 나는 세균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중대를 지휘하였다. 련대장 쵸단 대좌, 제임스 중위, 개리크 중위 및 핼로랜 중위가 세균탄을 싣고 출격하였다. 그들은 각기 세균탄 1개와 일반용 폭탄 1개를 실었다. 목표는 평양 동북 지구에 있는 주택지대이였다. 목표 상공 도착 시각은 17시 경이였다. 우리가 목표 동쪽지역에서 공격을 가할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출격에 대한 명령 전달은 관례적인 것이였다. 쵸단 대좌가 탑승한 항

공기가 이것을 수행하였으며 평양 동쪽 약10마일 지점에 있는 포로 수용소를 습격 하였다. 쿄단 대좌는 출격전 날에 제5 공군에 출두하였는데 이 사실에 비추어 보아 이 습격에 대한 명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는 확신하였다. 조선에 오기전에는 나는 이것이 우리 측으로서는 부정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또 내가 무고한 사민들에 대하여 세균탄을 투하하는 데 참가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부정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북조선에 출격하고 이 무기들을 투하하고 있을 때 언제나 나의 심중에 한가지 생각이 떠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출격 목표가 군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였다. 그것은 사민들을 살륙하며 주택들을 파괴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였다. 내가 포로된 이후 나는 내가 무고한 사민들에게 대하여 범한 파괴 행동의 결과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범한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매일 밤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있다. 하느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는 조 중 인민들에게 내가 범한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청원하고 있다.

미 공군 대위 존 에이 • 오스번
군 번호 에이 • 오—796188
1952년 12월 4일

나는 미 공군 대위이며 이름은 존에이 • 오스번이다. 군 번호는 에이 • 오—796188이다. 나는 제58 전투 폭격기 련대 제311 전투 폭격기 중대 작전 장교이였다. 1952년 8월 6일경에 나는 희천 북쪽에 있는 철교에 대한 출격 임무를 지휘하였다. 항공기 24대가 이에 참가하였다. 세균탄을 실은 「이」항공기는 솔스베리 중위가 지휘하였으며 더블유 엘•폰스는 제2호기, 쵸레트 대위는 제3호기, 그리고 하트 중위는 제4호기에 탑승하였다. 그들은 매 항공기마다 500 폰드 세균탄 1개와 500 폰드 일반용 폭탄 1개를 싣고 떠났다. 목표 상공 도착 시간은 17시 경이였다. 이 임무에 대한 명령 전달은 통례적인 것이였다.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강하하기 시작하였을 때 까지는 임무는 명령 받은 대로 실행되였었다.

이 출격에서 솔스베리 중위는 그의 제3호기와 제4호기를 잃었다. 다른 항공기들은 정상적으로 투탄하였는 데 솔스베리 중위는 그옆에 있는 항공기와 같이 투탄하고 제3호기와 제4호기를 따라 상승하였다. 그가 제3호기와 제4호기를 따라 갔을때 미그들이 그들을 습격하였다. 그들은 한번 미그들을 격퇴하였으나 미그들은 다시 그들에게 래습하였다. 미그가 그들로부터 떨어졌을 때 폰스 중위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총탄에 맞은것으로 인정하고 케이—2로 귀환하였다. 전투 중의 손실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복명은 별다른 것이 없었다. 전투 손실에 관한 보고는 제5공군에 전달되였다.

미 공군 대위 존 에이 • 오스번
군 번호 에이 • 오—796188
1952년 12월 4일

(13) 미 공군 중위 하워드 버튼 힛첸스의 증언

나의 이름은 하워드 버튼 힛첸스이다. 군 번호는 에이•오—2077668이며 년령은 28세이다. 포로되기전 조선 부산 근처에 있는 케이—9의 제17 폭격기 련대 제17폭격기 대대 제37 폭격기 중대에서 비—26 항법사로 근무하였다. 직급은 중위이다. 나의 주소는 미국 뉴캐슬주 멜러웨어시 가필드 공원 돈해분거리 143이다. 나는 미 공군 예비역 장교인데 1952년 1월 현역으로 재 소집되였다. 나는 1952년 7월 17일경 캘리포니아를 떠나 1952년 7월 21일경 일본에 도착하였으며 왜셈 대좌와 린듣리 대좌가 각각 지휘하는 제17 폭격기 련대 제17 폭격기 대대에 입대하기 위하여 1952년 7월 29일 케이—9에 도착하였다.

나는 버지니아주의 랭글리 비행장에서 정상적인 탑승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참석한 한 강의에서 세균전에 관하여 알게 되였다. 그 날자는 1952년 5월 15일이였다고 기억 된다.

이 강의는 지상 훈련대 교실에서 제임스 시들로 중위라고 기억되는 사람이 하였는데 이에는 제임스 시들로 중위, 티모씨 중위도 참석하였다.

이 강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일부는 후에 나와 함께 제17 폭격기 대대에 배치되였다.

중위는 『곤충 폭탄 또는 세균 폭탄이 실제로 있으며 이것은 조선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강의를 시작하였다. 그는 계속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들이 투하할 세균 폭탄은 500파운드의 보통 목적의 폭탄만큼 크며 브이•티 신관이 달려 있다.

그 내부에든 세균체는 일반적으로 분말 형태로 되여 있다. 이것은 적당히 수분이 공급된다면 극히 치명적이며 효과적인 무기로 된다.

세균체가 준비되고 밀봉된 폭탄에 넣어 우리의 어느 항공 기지에 도착하기까지 우리 기지들에서는 최대한의 위생 보장 문제가 나서고 있다.

그 중위는 또한 세균폭탄이 보통 폭탄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투하된다는 데 대하여서도 말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이것은 고도의 비밀에 속하는 일이다. 이번 강의는 당신들이 그곳에서 그러한 사명을 띠고 비행할 때에 너무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예비적 강의이다. 이것은 특별한 비밀이며 말해서는 안된다』.

이리하여 그의 강의는 끝났다. 1952년 7월 29일 우리들은 케이—9에 있는 부대에 도착한 후 먼저 지상 훈련대에서 공부하였다. 조선에서 세균 전에 관한 강의는 1952년 8월 2일경 대대 지상 훈련대 교실에서 레몬드 대위가 하였다.

이 강의에서 레몬드 대위는 랭글리에서 우리가 들은 것과 대부분 동일한 말을 하였다. 그는 우리가 500파운드 폭탄과 크기가 같은 세균 폭탄을 투하할 것이나 그 무게는 275 내지 300파운드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리용된 질병은 적리와 흑사병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폭탄 속에 넣은 물질은 세균을 가진 분말이며 이 폭탄에는 대개 지상 약 500피트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하는 브이•티 신관이 달려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비행하기 까지의 절차는 보통 폭격에 있어서와 거의 같다고 말하고 이곳에서의 비행 과정에서 우리들이 이러한 세균 폭탄 투하 사명을 띠고 비행하게 될 것이나, 그것을 보통 극히 적고 용이하게 그리고 짧은 시간에 수행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세균 폭탄을 적재하고 위급한 경우에 당면할 때에는 그것을 륙지로부터 적어도 10마일 떨어진 바다 속에 안전한 위치에서 투하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래몬드는 무엇보다도 이 세균전에 관하여 밖에서 일체 이야기하지 말것과 비밀을 루설할 경우에는 군법 재판에 회부되여 투옥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였다.

회상컨대 그 강의로부터 물러나올 때 우리들 사이에서는 웃음소리와 장난질이 적어졌다.

이 세균전이라는 엄중한 일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것이였다. 우리는 1952년 9월 12일경 처음으로 공보국에서 특별 임무에 참가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승무원들을 만났다.

우리들의 감정은 복잡하였다. 우리들은 이러한비 인도적 형태의 전쟁에 참가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은 이 사명의 댓가로 명성을 얻을 것을 념원하였다. 나 자신에 관하여 말한다면 나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크리쓰마스를 즐길것을 념원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량심을 버리고 그것을 실행하였다.

나의 첫 세균전 출격 목표는 세포리였다. 그것은 1952년 9월 12일이였다.

짐 시들로와 레이 배노이, 그리고 나는 도로 교차점을 목표로 하여 그것을 투하하였다. 나는 6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1952년 9월 18일 오후 3시 30분경 나와 나의 비행사 제임스 시들로 중위는 그날밤 『특별 임무』를 수행한 대대 내의 기타 모든 승무원들과 함께 세균전에 관한 특별 강의에 참석하였다.

루돌프 대위의 승무원들과 챨스머레이 대위의 승무원들도 그 날밤의 『특별 임무』 수행에 참가한 것으로 기억된다.

래몬드 대위는 우리들에게 항행 및 폭격에 관하여 지시하였다. 우리의 목표는 원산 서쪽에 있는 마전리였다.

우리는 한번에 날아가서 기차에 폭탄을 투하하고 도라와야 하는 것이였다. 그는 우리 매개 비행기에 브이•티 신관이 달린 6개의 세균탄을 실을것을 지시하였다.

다음으로 지상 련락 장교가 우리들에게 전선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말하였다.

한 사람의 정보 장교는 우리들에게 현행 군호와 우군 간의 암호를 알려 주고 비상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안 가까운 바다에 내리면 해군이 우리를 구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음에는 기상 담당 장교가 24시간 동안의 기상 예보를 말하여 주었다.

끝으로 정보 장교는 비밀 보장에 관하여 주의하였다. 그는 이 임무가 극비밀에

속하는 것이며 밖에서는 일체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그날 밤 조종사 제임스 시들로 중위와 항법사인 나와 포수 레이 배노이는 계획된 임무 집행을 위하여 비행하였다.

우리들은 오후 11시에 출발하였다.

마전리를 찾기 위하여 우리들은 원산 서쪽 마전리 남쪽에 있는 높은 산위를 날았다.

이 높은 산을 보았을때, 우리는 왼쪽으로 돌아 서남방향으로 흐르는 큰 강을 발견하고 목표를 찾기 위해 북쪽으로 날았다. 우리가 목표한 것은 마을의 중심이였다. 마전리는 강기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마을에는 큰 도로 교차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뚜렷이 볼 수 있는 이 교차점을 목표로 하여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그때의 나의 감정은 공포 그것이였다. 나는 이 마을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었다.

우리 세 사람은 모두 목표에 들어 맞았는가를 주시하였다. 그러나 폭탄이 폭발되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

기지에 착륙하자 우리는 보고하기 위하여 대대 정보부로 갔다. 거기에는 보통때와 같이 한 사람의 정보 장교가 있었다.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우리는 그에게 아무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장교는 브이•티 신관이 달린 분말 산포식 폭탄은 공중에서 극히 경미하게 폭발하며 극히 빨리 소멸되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결과를 보지 못했음』이라고 보고하는 것으로 끝마쳤다.

나는 1952년 10월 4일 세번째의 세균전 출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산 근처에 있는 케이—1에서 출발하였다. 제17 폭격기 대대는 1952년 9월 30일경 케이—9로부터 케이—1로 이동하였다.

이 이동의 목적은 기사들이 케이—9의 활주로를 다시 닦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대대는 12월까지에 되돌아갈 계획이였다.

세번째 세균전 출격 임무 수행에도 시들로와 배노이와 나 세 사람으로서 전과 동일한 승무원들이였다.

우리는 6개의 세균탄을 실었다. 목표는 화천리였다. 나는 이 마을을 지나 가고 있는 도로를 목표로 하여 6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1952년 10월 7일 내가 네번째의 세균전 출격 임무를 수행할 때에도 시들로와 배노이가 함께 비행하였다. 나는 나의 목표인 봉암에 있는 강기슭에 6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1952년 10월 9일 다섯번째의 세균전 출격 임무 수행시에도 시들로와 배노이가 같이 비행하였다.

목표는 회양이였다.

이 때에는 대공 포화가 심하였기 때문에 나는 목표도 분간함이 없이 6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는데 나는 극도로 놀랐다. 나는 시간이 늦어 이 폭탄을 투하한 것

이 오후 11시 30분쯤 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1952년 여섯번째의 세균전 출격 임무 수행시에도 같은 승무원들과 함께 비행하였다. 이때의 목표는 사기리였다. 이 조그마한 마을은 산골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나는 거기에 있는 도로의 굴곡부와 그 마을을 흐르고 있는 냇물의 굴곡부를 목표로 하였다. 나는 6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는데 이번에는 목표에 정확히 들어맞은 것으로 생각된다.

1952년 10월 17일 나는 다시 마전리에 대하여 일곱번째의 세균전 출격 임무를 수행하였다.

승무원은 역시 같은 사람들이였다.

우리는 6개의 분말 산포식 폭탄을 실었다.

우리는 목표를 발견하기 위하여 전과 동일한 방법을 취하였다.

즉 산위로 해서 강위로 그리고 계곡 위로 날았다.

폭탄을 투하하였을때 우리는 사격을 받았다.

그리하여 나는 폭격의 정확성을 확증하지도 못하였다.

폭발되는 것도 전혀 보지 못하였다.

일곱번의 세균전 출격 임무 수행에서 언제나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고 언제나 래몬드 대위가 지시를 주었다.

지시를 받을때마다 세균탄을 실으라는 것이였다.

하루밤의 출격 임무 집행에 참가하는 승무원들은 최소 3명, 최대 6명이였다. 지시를 받을때 우리들은 언제나 비상조치에 관한 말을 들었으며 지시를 받는 방밖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임무에 관하여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우리 중대 인원의 거의 전부가 이러한 임무 수행에 참가한 것으로 생각한다.

나와 함께 입대한 사람들은 10월 말에 세균전 출격 임무 수행을 위하여 비행하였다.

대대가 수행하는 이 세균전 임무의 대부분은 일주일에 3회 내지 4회로 밤에 수행되였는데 최소 한도 주 1회는 수행되였다.

나는 조선에서 도합 7회의 세균전 출격 임무를 수행하였다.

세균전에 참가한 나의 감정은 수치와 공포 그것이다.

이에 참가한 사람은 자기 사업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그 임무를 거부하지 못하였다.

그 임무는 극히 용이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었으며 모든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너무나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였다.

결국 그 임무의 수행은 우리들을 더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였다.

나는 1952년 10월 29일 35회째의 출격 임무 수행 과정에서 교원 근방에서 격추당하였다.

나 혼자만 살아 남았다.

나는 포로된 후 참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세균전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 어느때 보다도 똑똑히 알게 되였다.

나는 어떠한 문명인으로부터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나는 중국 인민 지원군의 후대를 받았다. 그리하여 나는 지금 그들이 확실히 평화를 념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였다

지금 나는 평화스러운 정세 하에서 집으로 도라가 어떤 비인간적 수단으로 살륙당하리라는 공포를 느끼지 않고 가족들을 부양할 것을 념원하고 있을 뿐이다.

진실로 나는 평화를 념원한다.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일하려 한다.

제 1 7 폭 격 기 대 대

미 공군 중위 하워드 버튼 힛첸스

군 번호 에이 • 오—2077668

1953년 1월 16일 북 조 선

(14) 미 공군 소위 워렌 더블유•럴의 증언

나의 이름은 워렌 워커 럴이다. 포로되기 전 나는 미국 공군 소위이였으며 군번호는 에이 • 오—2223287이며 년령은 23세이다. 나는 1950년 12월 29일 병사로서 인디아나주 인디아나 폴리스에 있는 공군에 입대하였다. 나는 1952년 8월 2일 조선에 도착하여 1952년 11월 6일 제45 전술 정찰 대대에 조동될 때까지 에프—51형 비행기의 조종사로 제18전투 폭격기 련대 제18전투 폭격기 대대 제68 전투 폭격기 중대에 복무하고 있었다.

나는 1952년 12월 27일 조선 중부 전선에서 지상 포화에 의하여 격추되였다.

나는 전선으로부터 5마일쯤 되는 곳에 추락되여 약 10분 후에 중국 인민 지원군들에게 포로되였다.

케이—46 기지에서 특별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나는 로버트 테일러 중좌에게서 몇차례의 훈련 강의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 즉 1952년 8월 15일에 진행된 강의는 순전히 세균전에 관한 것이였다. 이 강의는 대대 훈련과 강의실에서 진행되였다. 이에 참가하였던 쉬젤 대위와 기타 7명의 비행사들은 전투 특수 훈련에도 참가하였다.

테일러 중좌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균탄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당신들은 다만 액체를 넣은 세균탄 탕크만을 취급할 것이다. 이 세균탄은 투하하던가 산포하던가 두가지 중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가 우리들에게 말한 다른 종류의

세균탄은 세균을 전염시킬 곤충들을 넣은 여러간으로 되여 있는 세균탄이다.

이 세균탄과 우리들이 사용하게 될 세균탄과의 주요한 차이는 이 세균탄에는 곤충들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테일러 중좌는 우리들에게 이 세균들로 말미암아 발생할 병들이 티브스, 뇌염, 말라리아 및 기타 기억되지 않는 병들이라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테일러 중좌는 탕크를 설명하였다. 탕크의 꼭대기에는 『브이』자를 꺼꾸로 한 고리가 두개 달려 있다. 탕크들을 비행기에 매여 달려면 이 고리들을 날개밑에 달려 있는 투하 장치인 두개의 갈구리에 걸게 된다. 탕크는 조종간 끝에 달려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투하된다.

테일러 중좌는 우리들이 사격 목표에 대한 훈련 비행을 할때 취하여야 할 절차로 넘어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탕크를 산포하고 투하하는 비행 절차는 너무도 류사하기 때문에 훈련시에는 다만 투하 련습을 할 뿐이다.

이로써 훈련 강의는 끝났다. 1952년 8월 21일 경, 나는 훈련 비행을 하기로 되였다. 4대의 비행기가 이 훈련에 참가하였다. 우리들은 이 훈련에 물을 넣은 두개의 탕크를 사용하였다. 리륙하였을 때에는 개별 행동을 취하였으나 비행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편대를 짰다. 우리들은 사격 목표를 우편 쪽으로 두었다. 목표가 비행기 기수 밑으로 지나가므로 나는 조종 간 끝에 달려 있는 투하 스위치를 눌렀다. 탕크를 떨어뜨린 후 우리들은 기지로 귀환하였다.

1952년 10월 9일 저녁에 중대의 작전에 관한 예고판을 보았을 때 그 이튿날 아침 4기 편대의 항공대에서 내가 둘째 차례로 비행할 예정으로 되여 있음을 알았다. 다음날 아침 9시 우리 항공대는 대대 명령 전달실로 작전 명령을 받으러 갔다.

처음 우리에게 말한 것은 대대 작전 장교이였다. 그는 『제1801차 출동, 세균 작전, 사용 무기는 세균액을 넣은 탕크 두개』라고 말하였다. 그는 다음으로 우리들에게 목표를 지정하여 주었는데 이 목표는 해주 서방 25마일 지점에 있는 15채의 림시 병사이였다. 그는 이 목표를 군대 집결처이며 보급 지역이라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들에게 말한 장교는 기상 담당 장교 인데 그는 일기가 쾌청하다고 말하였다. 끝으로 대대 정보 장교가 말하였다.

그는 또한 지도 위에서 우리 목표를 지적하면서 회피 전술에 관한 관례적인 정보 주의를 주었다.

그후 우리 항공대 지휘관은 항공대를 중대 명령 전달실로 데리고 가서 이번 작전에 우리들이 적용하여야 할 절차에 관하여 말하였다. 세균전에 관한 주의 이외에는 모든 것이 정례적인 것이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의 경우 우리들이 출격 중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면 기지 남방 5마일 지점에 있는 투하 지역에 탕크를 투하하도록 하라. 만일 폭격선을 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거던 돌아와서 착륙하기 전에 투하 지역에 탕크를 투하하라. 만일 폭격선을 넘어선 후에 사고가 발생하거던 탕크를 투하하고 귀환 착륙하라. 어떤 일이 있더

라도 탕크를 가진채 착륙하려 하여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주의가 있은 후 우리들은 10시 30분 출발하였다. 우리들은 목표 서방 1마일에 접근하였다. 지휘관으로부터의 무전 신호는「투하」하라 하였다. 우리들은 세균탄을 투하하고 고도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9,000 피트에 도달하였을 때 우리들은 다시 전투 편대를 짜고 기지로 향하였다.

착륙한 후 항공대는 또 다시 대대 명령 전달실에서 회합하였는데 대대 정보 장교가 우리들의 복명을 받았다.

그후 나는 3차나 더 세균 무기 사용을 위하여 출격하였다. 내가 둘째번 세균전으로 출격한 것은 10월 15일 경이였다. 이번 출동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대낮에 결시되였다. 이번 출동의 목표는 해주 서밤방 25마일 내지 30마일 지점에 있는 림시 병사들을 폭파하는 일이였다. 이것도 군대 집결처이며 보급 지역이였다. 이 농촌은 동서로 달리고 있는 도로 주변에 있었다.

나의 세째번 세균전 출격은 10월 20일이였다. 이번의 목표는 둘째번 목표에서 동쪽으로 약 5마일쯤 떨어진 곳이였다. 이 지역의 지형은 완전히 산악 지대였다. 나는 10월 26일 경에 최후의 세균전 출동을 하였다. 이번의 목표는 동북방에서 서남방으로 달리고 있는 도로 주변의 농촌이였다. 우리들은 동북방으로부터 침입하였다. 나는 제18 대대에서 4차의 세균전 출격을 하였고 매차례 출격에서 2개의 액체를 넣은 세균 탕크를 투하하였다.

일반적으로 비행사들은 도덕적인 견지에서 자기들의 세균전 출격에 관하여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전부는 아니라 할찌라도 적어도 일부 사람들은 세균 무기가 얼마나 야수적인 무기이며 비인도적인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무기가 자기 가족들에 대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만 하여도 전률할 것은 틀림 없다. 그러나 전쟁과 이 무기의 효력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비행사들에게 하등 관심사가 아니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범행한 행동의 결과를 생각해 볼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나는 포로가 되여 조중 량국 인민을 대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 비로소 이 비인도적인 무기가 얼마나 엄중하며 참혹한 것인가에 대하여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나는 세균전에 참가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 무기와 이와 류사한 무기들을 비법화 할 것을 견결히 희망한다. 나는 현재 내가 조선에서 감행한 조 중 량국 인민에 대한 범죄를 나의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씻어 내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45 전술 정찰 대대 제67 전술 정찰 중대

미 공군 소위 워렌 더블유 럴

군 번호 에이•오—2223287

1953년 1월 25일

(15) 미공군 중좌 로져워 렌의 증언

나의 이름은 로져 워렌이며 중좌이고 군번호는 에이•오—2223184이다.

나는 제58전투 폭격기 련대 제58전투 폭격기 대대 제69 전투 폭격기 중대 소속 비행사로 임명되였다. 나는 1929년 1월 21일 생이다.

나의 집은 뉴욕주 시라큐스 스탄더슈거리 302번지이다.

1946년 9월 나는 코넬 대학에서 나의 대학 생활을 시작하였다.

나는 농학 기술을 전공하였다. 1950년 6월 나는 이 부문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1951년 2월 23일 나는 공군에 입대하였다.

비행사 훈련을 끝마친 후 나는 극동으로 배치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1952년 7월 5일 나는 미국을 출발하여 1952년 7월 9일 일본의 이따즈께에 도착하였다. 1952년 7월 15일 나는 조선에 있는 케--2기지에 도착하였으며 제58 전투 폭격기 대대에 배치되였다. 격추되였을 때 나의 임무는 비행사였다. 1953년 1월 15일 나는 격추되여 북조선 신안주에서 포로되였다.

7월 11일 이따즈까에서 나는 버크 대좌에게 부임 인사를 하였다. 그 당시 그는 제58련대의 련대장이였다. 우선 그는 대대에 배치된 새 비행사들을 환영하고 다음으로 제58 련대의 전투 사업을 설명하였다. 주요한 사업은 차단 임무이고 제2차적으로는 밀접한 엄호 비행을 하는 것이다. 그는 차단 작전에도 종종 세균 무기가 사용되였다고 말하였다. 나는 우리들이 세균 무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비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담화가 끝나자 그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일련의 강의를 하게 될 장교를 소개하였다 7월 12일에 강의가 시작되였다. 우리들은 두 그루빠로 나누어졌다. 매 그루빠에는 9명 내지 10명의 비행사들이 속하여 있었다. 강사들의 이름은 기억할 수 없으나 7월 12일 13일 및 14일 오후에 내가 속하여 있던 그루빠는 세균전에 관한 강의를 받았다.

우리 그루빠의 비행사들은 커티스켈레이 키드 리세도프 소좌들과 나였다. 그외의 5—6명은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

첫 강의의 제목은 미국이 무엇 때문에 세균 무기 사용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였다. 그는 우선 제58련대가 지난 수개월간 세균 무기 사용을 위하여 출동하였다고 말하였다. 세균 무기가 사용되였다는 사실을 말함과 함께 그는 세균 무기의 사용이 기대하고 있는 바와 같은 성과가 달성될때 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에 기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전투 폭격기 대대들이 세균 무기를 사용하였으며 제58련대도 세균 무기를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 만일 적이 약화될 증조를 보이지 않거나 그들이 앞으로 증강될 것이 예상된다면 세균전이 계속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가 다음으로 취급한 제목은 세균전의 력사와 그 발전에 관한 것이였다. 그는

第2차 대전중 일본인들이 효과적인 세균 무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사업하였는가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후 미국은 몇명의 일본 과학자들을 장악할수 있었고 세균 무기의 연구 발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그들을 연구소들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세균탄의 효과를 개선하고 세균과 세균을 전염시킨 곤충들을 사용하고 산포하기 위한 새롭고 보다 좋은 방법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처음으로 사용된 세균탄이 형태가 적었으며 사실상 비교적 효과가 없었다고 말하였다. 그후 그들은 일종의 개폐식 장치가 되여 있는 500 폰드형의 세균탄을 사용하였다. 이 세균탄은 세균을 전파시키는데 있어서 이전에 사용한 세균탄 보다도 효과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되였다.

그후 그들은 속에 조그마한 파괴 장치가되여 있는 새 종류의 세균탄을 제조하였다. 이 세균탄은 외견상 500 폰드의 일반용 폭탄과 류사하며 실험을 통하여 개폐식 세균탄 보다도 훨씬 효과가 더 많다는 것이 증명되였다. 왜냐하면 이 세균탄에는 더 많은 분량의 세균 액체와 세균에 감염된 곤충을 넣을수 있으며 더욱 광범한 지역에 세균을 산포할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종류의 세균탄은 지금까지 제조된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여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는 그들이 이 세균탄 속에 사용한 곤충들의 종류가 파리, 벼룩, 이 및 모기등이였다 고말하였다. 이 곤충들이 전파시킨 세균은 페스트, 티브스, 코레라, 천연두 및 황달병등이였다.

그가 우리에게 최후로 강의한 다음 제목은 세균탄의 사용 방법이였다.

그는 오늘날 세균탄이 사용되고 있는 작전의 종류는 강과 저수지 등의 수상 보급로등의 군대 밀집처에 대한 차단 작전과 철도 절단 작전등이며 세균을 군대 밀집처들에 있는 군대들과 사민들에게 전염시키며 철도 절단 작전으로 동원된 수리 인원들에게 전염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술들에 관하여 말하였다.

목표전 약 5분간의 간격을 두고 모든 비행기들은 고도를 9,000피트까지 낮추게 되며 약 4,000 피트의 고도에서 세균탄이 투하된다고 한다.

세균탄을 투하한다음 비행사는 재빨리 비행하여 자기의 고도로 복귀하고 귀환하여야 한다.

내가 이따쯔까에서 세균전에 관하여 받은 정보중에서 기억나는 가장 좋은것들은 이것뿐이다.

비밀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 강의가 끝난후 누구와도 세균무기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1952년 7월15일 나는 케—2 기지에 도착하였다. 병영에 자리를 잡고 비행 도구등을 받은후 7월 16일 우리들 새 비행사들은 샤프 중좌와 처음으로 면담하였다.

그는 이따쯔까에서 버크 대좌가 말한바와 꼭같이 第58련대의 사업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우리들이 정규적인 작전에서 보통 폭탄 대신에 세균탄을 휴대한

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현재 조선 전선에서 적용되고 있는 세균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명령대로 세균무기를 사용할것을 우리에게 말하였다.

훈련비행 기간중 나는 1952년 7월 17일과 18일에 세균전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나와함께 이 강의에 참가한 비행사들은 커티스 컬레이 맥키니 버스틴 키드 킴멜슈 오브라이안트 로버쓰 서펀 리세도프 웬 스톤 시몬센 소좌등과 나였다.

그외는 기억나지 않는다. 비온도 중좌가 우리에게 강의 하였다.

그는 주로 이전 듣던것과 동일한 것들을 강의하였다. 매 강의가 끝날때 마다 우리들은 이것이 극비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의받았다.

우리들은 강의받은 내용에 대하여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9월 15일경 나는 다른 2대의 비행기들과 함께 출동하기로 되였다.

이 출동에 있어서의 나의 비행 지휘관은 솔스베리 중좌이였다.

명령 시간은 8시쯤이였다.

멜빈 하트 중좌가 명령하였다. 그는 중국의 동북 지역으로 들어서서 5마일쯤 되는곳을 목표로 정하여 주었다.

그는 솔스베리의 비행기가 매개 비행기마다 2개씩 세균탄을 실은 4대의 비행기들과 함께 세균탄을 투하할것이며 기타 2대의 비행기들은 지•피 폭탄을 싣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하트 중좌는 또한 12대의 에프—86들이 우리를 엄호하게 될것이며 그외에 24대의 에프—86들은 압록강 지역을 습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다음 내슈 중좌가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는 목표지가 압록강 북방에 있는 군대 집결처이며 세균무기를 사용하라는 명령이 내렸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최근 격추당하여 행방불명이된 비행사들에 관한 이야기도 하였다. 이번 출동의 지휘관인 워프드 대좌가 간단한 주의의 말을 하였다. 첫째 그는 또다시 리륙과 목표에 도착하는 시간과 세균탄 투하시간들을 말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이번 출동에 적용될 전술과 편제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였다.

9시 45분 우리들은 발동을 걸고 출발하였다.

나는 압록강 지역으로 출동하는것이 이번에 처음이므로 흥분하였다.

무엇보다도 세균탄을 싣고 간다는 사실이 나로하여금 무서운 감정을 느끼게하였다. 우리들은 명령대로 목표까지 출동하였다. 에프—86들이 우리와 함께 비행하였으며 압록강 남방 5분의 거리에서 고도를 9,000 피트로 낮추었다. 고도 4 000피트에서 나는 2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나는 재빨리 비행하여 귀환의 길에 올랐다.

기지에 착륙한후 우리들은 규정에 의한 복명을 하였고 복명이 끝난후 우리들은 모두 규정에 의한 비밀문건에 서명하지 않을수 없었다. 10월 9일에 나는 또 세균전을 하기로 되여 있었다. 명령받은 시간은 아침이였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나 명령을 준 장교는 관례적인 명령을 하였다. 목표는 중국 동북 국경선에서 북방으로 약 5마일 지점에 있는 군대 집결처이였다. 이 출동에는 12대의 비행기가 명령을 받았다. 12대의 비행기들은 매개 비행기 마다 2개씩의 세균탄을 싣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또한 24대의 에프—86들이 압록강 지역을 습격할 것이며 그외의 12대는 우리를 엄호하기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정보 장교는 노리스 중좌이 였다.

그는 우리들에게 목표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는 매개 비행사들이 목표에 정확하게 세균탄을 투하함에 있어서 주의 깊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지상 련락 장교와 기상 담당 장교가 간단한 주의를 주었다.

다음으로 이번 출동의 지휘관인 쵸레트 소좌가 간단한 주의를 주었다. 그는 이번 출동에서 적용할 편제와 전술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들은 명령대로 출동하였다. 압록강 남방 5분의 거리에서 우리들은 고도를 낮추고 대렬을 정돈하였다.

9,000 피트의 고도에서 목표를 묘준하고 투하준비로 스위치들을 틀어쥐였다. 4,000 피트의 고도에서 나는 2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나는 재빨리 비행하면서 행동을 같이 하기 위하여 료기들을 찾은후 귀환하였다. 착륙한후 우리들은 복명하였다. 복명을 끝내고 우리들은 모두 규정에 의한 비밀문건에 서명 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번 출격에는 콜린 쵸레트 소좌, 트로 이 마린 중좌, 윈스톤 시몬센 중좌, 제임스 라류 중좌와 내가 참가하였으며 그외에는 기억되지 않는다.

12월 20일 나는 최후의 세균전에 참가하기로 되였었다. 라류 중좌가 나의 비행지휘관이였다.

7시에 명령을 받았다.

명령 하달 장교인 케이스멘 중좌는 우선 이번 출동은 철도 절단과 세균무기 사용을 배합한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에게 목표를 지적하여 주었는데 이번 목표는 평양 남방 약 15마일쯤되는 지점이였다. 이번 출동에는 36대의 비행기가 참가하는데 그중의 12대는 세균무기를휴대하기로 되였다. 케이스멘 중좌는 우리들에게 라류 중좌의 편대와 기타 2개의 편대는 12개의 비행기가 매개 비행기에 2개의 세균탄을 휴대할 것이며 기타 24대의 비행기들은 일반 폭탄을 휴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정보장교인 내슈 중좌가 주의를 주었다. 그는 이번 출동의 특징이 특수한 범위로 철도를 절단하고 매개 절단 지점에 세균탄을 투하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세균탄을 정확히 투하할 필요성도 없으며 그 효능도 없을런지 모른다고 말하였나. 지상군 련락 장교는 당시의 전선의 지상 형편을 설명하였다.

기상 담당 장교는 수온과 간만조 시간등에 관한 주의를 주었다. 다음으로 이번 출동의 지휘관인 워포드 대좌가 주의를 주었다. 그는 미 경험자들에게 발동거는 시간과 리륙 시간을 다시 주의주었다. 목표 상공에 도착하는 시간은 10시로 되였으며 고도는 20,000 피트로 지정되였다.

9시 20분경 우리들은 리륙하였다.

목표 지역 상공에까지 이르는 절차는 명령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였다. 목표 상공

에 이르기 5분전에 우리들은 고도를 9,000피트로 낮추어 스위치들을 틀어쥐고 폭격 묘준을 하였다.

다음으로 워포드 대좌가 대렬을 정제하라고 명령하였으므로 우리들은 모두 그대로 하였다. 고도가 4,000피트에 달하자 나는 세균탄을 투하하고 재빨리 비행하여 나의 대렬에 합류하였다. 착륙한후 우리들은 그전과 같이 복명하며 갔다. 이 작전에 참가한 자로서 기억나는것은 워포드 대좌, 슈나어더 대위, 라류 중좌, 패터슨 소좌, 셀하우스 중좌, 잉그램 중좌, 마이어 소좌 등이다.

그외의 비행사들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1952년 8월부터 1953년 1월에 이르는 동안 북조선과 중국에 출동한 총 출격회수 71회 중에서 12회나 세균무기 사용을 위하여 출동하였다.

위에 말한 3회의 세균무기 사용을 위한 비행외에 9회는 아래와 같다.

즉 1952년 9월 6일경 나는 성천에 두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고 1952년 9월22일경 군우리에 2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고 1952년 10월 13일경 강계에 2개를 투하하였고 1952년 10월 20일경 군우리에 2개를 투하하였으며 1952년 10월 28일경 안주에 2개를 투하하였으며 1952년 11월 4일경 신안주에 2개를 투하하였고 1952년 11월 15일경 중국 동북 국경 약 5마일 지점에 2개를 투하하였으며 1952년 11월 29일경 해주에 2개를 투하하였고 1952년 12월 3일경 원산에 2개를 투하하였다.

나는 세균전에 대하여 격심한 증오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작전에 관련하였던 나 자신을 명시하는 바이다. 이따즈까와 케—2 기지에 있는 동안 나는 부단히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였다. 나의 마음과 량심을 격심하게 괴롭히는 계속적인 세균무기 사용은 나로 하여금 크나큰 고통과 근심에 싸여 있게 하였다.

나는 이와같이 대량 학살의 죄를 지고 있다. 전 세계의 정직하며 평화애호 인민들은 세균전의 실행을 중지시킬 것이며 영원히 이를 근절 시키기를 희망한다.

오늘날과 같이 발광적이며 혼란된 세계를 바로 잡으며 앞으로 다시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함에 있어서 우리들을 도와달라고 나는 하느님에게 기도한다.

제58 전투 폭격기 련대
제58 전투 폭격기 대대
제68 전투 폭격기 중대 미국 공군 중좌
로 저 워 렌
1953년 4월 25일

(16) 미 공군 중좌 윈스톤 제이•시몬센의 증언

나는 미국 공군 중좌 윈 스톤 제이•시몬센이며 군번호 에이•오 —2223176이다.

나는 1929년 1월 30일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출생하였다.

나는 1952년 1월 2일 항공대에 입대하였다. 1952년 7월 10일에 나는 일본 이따

쯔까에 도착하였으며 또한 1952년 7월 15일에 조선 대구에 왔으며 제58 전투 폭격기 련대 제58 전투 폭격기 대대 제69 중대에 배속되였다. 나의 주요한 직무는 항공 지휘관이며 2차적인 직무는 비행사의 직무이다.

1953년 3월 1일에 나는 북조선 금성 남방에서 포로되였다. 1952년 7월 11일에 일본 이따쯔까에서 모든 새 비행사들은 제58 련대 련대장 버크대좌로부터 간단한 환영사를 받았다. 그는 다음과 같은 임무에 언급하였다. 즉 그것은 긴밀한 항공 엄호, 교통차단 및 세균전를 위하여 비행하는 것이다. 이 연설의 결과로 우리들은 어느정도 자기 임무에 대한 료해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세균전에 익숙하기 위하여 일부의 강의를 받았다.

1952년 7월 12일 8시경에 후에 중좌로 승급된 맥키니 로버츠 써편 킴멜쉐 버스틴 소좌와 나 그리고 기타의 3명은 3회의 강의의 첫 강의를 받도록 작전실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우리의 교관은 발로우 중좌이였다.

그는 우리에게 미국이 세균전에 참가하는 리유를 말하였으며 또한 그는 우리들이 소기의 성과를 얻기까지 세균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52년 7월 13일 8시경에 우리들은 세균전의 력사에 관하여 간단한 강의를 받았다. 이 강의에 대하여 내가 기억하고 있는바에 의하면 미국은 세균전을 제 2차 대전이후 부터 발전 시키기 시작하였다. 일본인들은 세균전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였으며 우리들은 이를 계승하고 일본인들의 연구사업을 개선하였다. 그는 또한 수년간 각종 세균 폭탄 발전 과정을 토의하였으나 나는 그의 강의의 이부문에 포함된 상세한 것을 상기할수 없다.

이 강의의 마지막 부문에서 그는 우리들이 제58 전투 폭격기 대대에서 우리들이 접촉하게될 세균 폭탄 중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하였다.

한가지 형태는 외면상 파괴를 목적으로한 500폰드 폭탄과 같았으며 그 내부에는 극히 소량의 폭발약이 충전 되여 있었다. 이 폭탄은 지면과 접촉할때 폭발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세균을 산포한다. 다른 하나는 폭발하지 않는『문』형의 세균탄인데 이것은 그주위에 몇개의 문을 가지고 있다.

이두가지 폭탄들은 세균용액 (나는 그 정확한 명칭을 기억하지 못한다) 또는 병균에 감염된 곤충들을 포함하는 동일한 요기를 구비하고 있었다.

내가 상기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 곤충들은 벼룩, 파리, 모기및 이들이 였으며 이 곤충들은 코레라, 티브스, 황달병등의 질병을 전파시키는 것이였다. 그는 문형 세균탄이 젯트 항공기에는 적재될수 없으며 우리들은 현재 파괴를 목적으로한 5백폰드형 세균폭탄을 사용하게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장래에 우리들이 새로 발전된 세균무기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당시 그는 세균폭탄들이 감염을 방지하게끔 포장되여 있기 때문에 전염될 우려는 없다고 우리들에게 설명하였다.

1952년 7월 17일 8시경에 우리들은 마지막 강의에 참석하여 세균폭탄들을 투하함에 있어서의 전술을 토의하였다. 그는 세균 폭탄의 투탄 방법은 일반 폭탄의 투

하방법과 다름없다고 계속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체로 기지로부터 목표 지점에로 비행하는 행정에서 우리들은 25,000 피트의 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목표 지점 도착 5분전에 9,000 피트 강하하기 시작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들은 약 4,500피트의 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하여야 할것이다. 만일 목표가 기지로 부터 너무 멀지 않을 때는 우리들은 보다 낮게 비행함으로써 폭탄의 효력을 손상하지않게끔 류의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항상 될수록 낮추 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는 우리들이 될수록 정확하게 폭탄을 투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만일 당신들이 세균전 투하임무를 포기하지 않으면 아니될때는 폭탄을『안전』한 위치에서 포항항으로 부터 약 10마일 내지 15마일 떨어진 해상에 투하하여야 한다.

그는 세균탄을 투하하는 목표들은 군대 집결처, 보급기지, 하천 및 저수지 들이라고 말하였다. 끝으로 그는 비밀 엄수를 위하여 우리들이 이 세균탄에 대하여 어느 누구와도 토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말하였다. 이 3일간에 우리들은 이 강의를 오전중에 받았으며 다른 대대는 강의를 오후에 받았다.

내가 기억하는 한에 있어서 오후에 이 강의를 받은 비행사들은 패터슨 로져 워렌 및 커티스칼리 였으며 기타는 기억나지 않는다.

1952년 7월 15일 나는 조선에 있는 케이—2 공군기지에 도착하였다.

1952년 7월 16일에 이따즈까에서 온 모든 새 비행사들은 샤프 대좌로 부터 환영사를 받았다. 그는 우리들이 수행하여야할 형태의 세균전 비행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말하였으며 또한 그도 직접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행 하였으니만큼 공동의 임무인 이 세균전 임무를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1952년 7월 17일과 18일오후에 모든 새 비행사들인 매커니, 로버츠써펀, 컴벨쉐, 버스틴크 패터슨, 로져 워렌 및 커티스 칼리와 나 그리고 기타 수명은 비온도 중좌가 진술한 세균전에 관한 2회의 강의를 받았다. 이 강의의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들이 일본 이따즈까에서 받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였다.

그는 주로 전술에 치중하였으며 또한 대대가 어떻게 세균전에 참가하였는 가를 설명 하였다.

1952년 10월 9일에 초레트 소좌, 로져 워렌 소좌, 스코트 중좌, 마틴 중좌, 그리고 나와 피쉬 중좌, 리간 그리고 기타의 4명은 전부 작전실로 부터 7시 30분경에 명령 전달을 받도록 지시를 받았다.

우리들이 모두 집합하여 흑판을 보았을때 흑판 위에 쓰인 우리들의 항로, 고도, 시간 그리고 목표 지점을 보았을때 우리들은 약간 놀랬다.

목표는 만주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즙안이라고 불리진 도시의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명령을 하달한 장교 케이스멘 중좌는 목표가 만주 즙안 북부 약 4마일 내지 5마

일에 위치하고 있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항로와 시간이 정확하며 이것을 정확히 준수하여야한다고 말하였다. 12대의 항공기가 이 임무 수행에 참가할 것이였으며 매개 항공기는 2개의 세균 폭탄을 적재할 것이였다. 케이스맨 중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 임무 수행에 있어서 추가적인 엄호 조치로서 에프—86의 엄호를 받게 될 것이다.

압록강 연안에 대한 출격에 있어서 24대의 에프—86들이 출동할 것이며 당신들을 긴밀히 엄호하기 위하여 12대가 배당될 것이다.

이 12대의 에프—86들은 희천 근방에서 당신들과 만나게 될것이다』 그는 목표까지의 우리의 고도가 25,000 피트일 것이며 우리들은 목표에 도착하기 5분전에 급강하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에프—86들은 우리들과 함께 급강하를 할 것이며 목표를 향하여 강하하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들을 엄호하며 또한 희천 남방까지 같이 돌아갈 것이였다.

케이스맨 중좌는 그 다음 우리의 귀환 시간을 말하였으며 이로써 그의 명령 하달을 끝마치였다.

다음으로 노리스 중좌가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명령을 하달하였다.

『여러분 오늘의 목표는 군대 및 보급 물자의 집결지로서 우리들은 믿는다. 이 지역은 또한 북조선에 대한 인원 및 장비의 배치 지점이며 따라서 많은 부대가 즙안과 그 주변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지역에서 최대의 효력을 발생 시키기 위하여 세균 폭탄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들이 이 지역을 완전히 감염시키는데 성공한다면 공산측은 새로운 보급 및 배치 지점을 설정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정보 장교 노리스 중좌는 이 정보를 우리들에게 전달한 다음 우리들이 세균 폭탄을 정확하게 투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뒤이어 천후 관계를 담당하는 장교가 계속하여 전반적인 천후 정황을 설명하였다. 지상군 련락 장교가 우리에게 전선의 정세를 설명 한다음 이번 출격 임무의 지휘관 쵸레트 소좌가 그의 명령 하달을 하였다.

끝으로 마틴 중좌로부터 우리의 출격에 대하여 간단한 말이 있었다. 우리들은 9시 30분에 리륙하여 희천 지역에서 에프—86들과 만났으며 예정 시간대로 목표 지점에 달하였다. 우리들은 용이하게 목표를 확인하였다. 나는 목표에 도달하기 전 약간 거리를 두고 압록강을 보았으며 얼마 아니되여 즙안시를 보았다. 모든것은 순조롭게 진행되였으며 나는 목표 지점에 있는 조그마한 민가를 목표로 순조로운 급강하 폭격을 실시하고 즉시 목표를 떠나 곧 상공에 떠올라 마틴과 만났다 항공기들은 급속히 본래의 편대로 돌아갔으며 에프—86들은 희천까지 우리와 동행하였다.

우리들은 착륙한 후 노리스 중좌에게 복명을 위하여 보고하였으며 또한 비밀의 복명 절차를 완료하였다. 내가 말하려고 생각하는 다음의 일련의 세균전 출격 임무는 대체로 1953년 1월 11일과 15일간에 수행되였다.

이에 앞서 수일 동안 워포드 대좌는 서울에서 열린 련대장 회의들에 참가하였으며 또한 우리들은 모두 어떤 대규모의 작전이 불원간 진행되리나는 것을 예측하였다. 1953년 1월 11일 오전 6시 30분경에 우리들은 명령 하달을 받았다. 명령을 하달한 장교 니콜슨 중좌는 다음과 같이 자기의 명령 하달을 시작하였다.

「여러분 오늘 아침 당신들은 교량 파괴를 목적으로 신안주에 가게 된다. 이 출격은 제5공군의 공동의 노력으로 진행될 것이며 여기에는 모든 대대들이 포함된다. 흑판에 쓰인 항로와 시간은 정확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계속하여 노리스 중좌가 명령을 하달하였으며 그는 이 출격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들이 좋은 성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천후 관계 장교와 지상군 련락장교가 각각 평상대로 그날의 정황을 말하였다.

명령하달이 끝난다음 노리스 중좌는 트레시 중좌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의 항공기는 이 출격에 1개의 파괴용 폭탄과 1개의 세균 폭탄을 적재하게 될것이다. 당신들은 제시된 주요 목표인 대공 포진지를 파괴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것이다.

세균 폭탄들은 병균이 교량들의 재건 사업을 지연시키게끔 전파되도록 투하되여야 한다. 당신들은 폭탄을 하나씩 투하하여야 한다. 즉 처음에 대공 포진지에 파괴용 폭탄 1개를 투하하고 다음에는 부근 지역에 세균 폭탄을 투하하여야 한다. 애트우드 소좌는 우리들이 취할 전술에 관하여 간단히 말하였으며 다음으로 내가 나의 비행 대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였다. 우리들은 8시 30분에 리륙하여 예정시간대로 목표에 도달하였다. 그때 주변 상공에는 많은 항공기들이 있었다. 나는 항공대를 지휘하여 지정된 목표에 폭탄들을 투하하였다. 나는 목표를 떠나 좌측으로 돌았으며 급히 본래의 편대로 돌아가 기지를 향하여 높이 떠올랐다.

나는 전면에서 많은 항공기들이 목표를 향하여 떠오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를 돌리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들은 기지에 착륙한 이후 복명을 위하여 노리스 중좌에게 보고하였다.

나는 도합 신안주에 대하여 4회의 세균전 출격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4회의 출격 임무의 매개 임무를 위한 절차는 동일하였다. 1953년 2월 15일 아침에 애트우드 소좌 그리고 드류스 켈리베이콘 카네스 중좌들과 나 그리고 기타는 명령 하달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케이스맨 중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분 오늘의 목표는 초산 북방 압록강 이북 약 3마일 떨어진 중국 만주 내에 있다. 흑판에 쓰인 시간과 항로는 정확하다. 이 출격 임무에는 32대의 항공

기가 출동할 것인 바 그중 8대는 각각 2개의 세균 폭탄을 적재할 것이며 기타24대는 일반적 목적에 사용되는 폭탄을 적재하게 될 것이다.

애트우드 소좌와 시몬젠 중좌의 항공기는 세균 폭탄을 적재하게 될 것이다. 압록강 연안에 대한 출격에는 16대의 에프—86들이 출동할 것이며 그중 12대는 당신들을 긴밀히 엄호할 것이다」.

뒤이어 노리스 중좌는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달하였다

「여러분 목표는 압록강 이북 약 3마일 만주 내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 부근 지역에 대량의 보급 물자들이 집적되여 있으며 또한 약간의 부대가 집결되여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우리들은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곳에 세균 폭탄들을 사용한다.

우리는 당신들이 농촌 지역과 민가에 세균 폭탄들을 투하할 것을 원한다」.

우리들은 명령대로 리륙하여 14시 50분 경에 우리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였다. 나는 얇은 구름을 통하여 농촌 부락을 발견하고 급강하하여 지정된 대로 우리의 세균 폭탄들을 투하하였다. 나는 될수록 급속히 편대를 갖추고 케이—2에로 향하였다.

착륙 후 우리들은 노리스 중좌에게 보고하였으며 또한 규정대로 복명을 완료하였다. 복명 형식은 비밀에 속한 것이였으며 우리들은 이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하였다.

나는 1952년 8월부터 1953년 3월에 이르는 동안에 북조선과 중국에서 96회의 전투 비행 사명을 수행하였으며 그중 16회는 세균전 수행 임무였다. 나는 다음 렬거하는 시일에 이러한 매개 목표들에 대하여 각각 2개의 세균탄들을 투하하였다.

1952년 8월 22일 북조선 사리원, 1952년 9월 14일 북조선 진남포의 동쪽 지점, 1952년 9월 18일 북조선 겸이포(송림)의 동북방 지점, 1952년 10월 4일 북조선 평양 서북방의 촌락, 1952년 10월 9일 만주 즙안의 북방 4 내지 5마일 지점, 1952년 10월 20일 북조선 황주, 1952년 11월 20일 북조선 오산리 북방 약 2마일 떨어진 촌락, 1952년 12월 1일 원산으로부터 서남부 10마일 내지 12마일 떨어진 촌락, 1953년 1월 7일 북조선 세포리, 1953년 2월 15일 중국 만주 내에 있는 압록강 이북 3마일 지점, 1953년 1월 11일과 15일 간에 나는 북조선 신안주에 대하여 4회의 세균전 출격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매회의 출격에서 1개의 세균 폭탄을 투하하였다.

제58 전투 폭격기 련대는 1952년 11월 후반에 야간 전투 임무를 위하여 출동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대대는 매일 또는 하루건너 야간에 제5 공군 사령부 명령과 천후의 조건들에 따라 8대의 비행기들을 파견하였으며 또한 이 8대의 비행기들은 10분 내지 30분의 간격을 두고 1대씩 비행하였다. 이 8대의 비행기들 중 2대는 세균 폭탄들을 적재하였다. 나의 기억에 의하면 그 당시에 두 형태의 세균 무기들이 사용되였는 바 하나는 정규적인 파괴용 폭탄 형태의 세균탄이며 다른 하나는 산포식 세균 무기였다.

나는 1952년 12월 20일에 북조선 신안주에 세균탄 1개를 투하하였으며 또한 1953년 1월 12일에 북조선 회천의 바로 남방에 세균탄 1개를 투하하였다.

세균전에 의하여 병균을 산포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였으며 나는 이에 참가하는 것을 증오하였다. 나는 이러한 세균전이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비법화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조선에서 진행되는 이 전쟁 특히 우리들에게 하등의 관계도 없는 이 전쟁에서 왜 미국 정부가 대량적인 살륙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도저히 리해할 수 없었다.

제 58 전투 폭격기 련대
제 69 중대 항공 지휘관
군 번호 에이•오—2223176 미국 공군 중좌

윈스톤 제이•지몬센

1953년 5월 4일

(17) 미 공군 대좌 워커 엠•마후린의 증언

나의 이름은 워커 엠•마후린이며 군 번호는 8658 미시간주 벤톤항에서 1918년 12월 5일에 출생하였다. 나는 미국 공군 대좌이며 항공 기술 과학 부문의 학사이다.

제 2차 대전에 종군한 후 나는 중좌가 되여 미국으로 돌아 왔으며 미 공군 총사령부 자재국 전투기 설계 장교로 임명되였다. 나는 공군 전략 사단 전투기 부장으로 될 때까지 전투기 자재국에서 계속 복무하였으며 1950년 6월 공군 장관 대리 보좌관에 임명되였다.

미 공군 총 사령부에 있어서는 직책상 신임을 필요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였기 때문에 공군 장관 실에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들은 사상에 관한 심사를 받았다.

련방 조사국은 나의 확실성을 결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였고 나는 신임할만하다는 인정을 받았으며 『엠』 심사라는 『극비』 에 속하는 심사를 받았다.

내가 세균 무기에 처음으로 접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11월에 공군 장관 대리 보좌관인 나의 상관 릴 대좌로부터 메리랜드주 프레데리크에 있는 데트리크 기지를 방문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였다.

릴 대좌는 나에게 공군이 데트리크 기지에서 세균 무기를 수송하며 비행기에서 세균 무기를 투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세균탄이 땅에 떨어지자 마자 폭발하였을 때 그 지역에 유해로운 결과를 줄 수 있도록 세균이 살아 남게 하기 위하여 폭발약과 세균을 적당히 배합한 것이 들어

였는 적당한 폭탄 껍질을 연구하는 모든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틸 대좌는 미 합동 참모 본부 의장 브래들리 대장과 공군 참모장 반덴버그 대장과 륙군 참모장 콜린스 대장과 해군 작전 부장 셔만 제독과 같은 고급 군사 지도자들이 세균 무기가 효과적이며 비용이 적게 들며 일반 무기 분야에 속할만큼 발전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 당시 조선 전쟁이 만족할만큼 전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발생할 사변을 예측하기 곤난하기 때문에 세균전 계획은 실험 연구 단계에 들어 갔다.

틸 대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 공군 장관 핀렛터씨와 공군 참모장 반덴버그와 같은 공군의 수뇌자들은 데트리크기 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능통하기 위하여 전체 미 공군 총 사령부 관하에서 선발된 수다한 장교들을 파견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정책에 의하여 우리 부서의 수명의 장교들도 이 기지로 가게 될 것이다.

관례로 공군은 장교들이 앞날에 이 계획들에 중요성이 부여될 그러한 사전에 대하여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새로운 계획으로 훈련시키고 있다.

데트리크 기지에서는 비 26, 비 29, 비 50 등과 같은 온갖 종류의 폭격기들이 운반하는데 적당한 세균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틸 대좌는 계속하여 데트리크 기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관하여 말하여 보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전에 전투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틸 대좌는 전투기를 이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돌려야 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틸 대좌는 이 계획이 극비에 속하는 것이며 데트리크 기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험은 극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강조하였다.

나는 1950년 11월 중순 경 메리랜드주 프레데리크에 있는 데트리크 기지로 갔다. 문에서 신임장을 보인 후 나는 안내를 받아 연구소로 갔다.

이 기지 자체는 륙군 포병 군단들과 화학군들이 주둔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공군은 이 기지의 일부 만을 쓰고 있었고 그 나머지는 륙군이 사용하고 있었다. 륙군이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프레데리크에 있는 공군 부대는 그 당시 미 공군 자재 관계 참모장 대리였던 월프 중장의 지휘 하에 있었다.

이 연구소에는 각종 자격을 가진군속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실지로 수행하고 있는 잘 훈련된 기술자들이였다. 그 외에도 정상적인 서기들이 있었다.

연구소에는 강철로 된 큰 구형이 있었는데그 직경은 약 60피트 가량 됨즉 하였다. 이 구형은 튼튼하게 만들어졌으며 2중 벽을 가지고 있는데 내벽과 외벽 사이에는 공간이 있었다. 이 구형의 주위에는 일정치 않은 거리로 여러 개의 두텁고 깨지지 않는 유리창이 달려 있었다. 즉 구형 외부 주위에는 구형내 공기의 표본

을 흡인 펌프의 방식으로 빨아 낼 수 있는 조그마한 창들이 달려 있었다. 구형 밑 바닥에는 크고 묵중한 문이 달려 있는데 이 문은 장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형 내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열 수 있다. 구형 외부면에는 근무원들이 구형 내부를 창문을 통하여 들여다 볼 수 있으며 시험용 공기 표본을 빨아 내기 위하여 조그마한 문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소 통로가 달려 있다.

이 구형은 연구 중에 있는 세균 무기의 시험 폭발을 진행하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폭발이 있은 후 구형 내로부터 빨아낸 공기의 표본은 폭탄 내에 들어 있던 세균들이 유해로운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얼마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뵈여 줄 것이다.

그 당시 이 연구소에서는 비 29를 위하여 세균을 수송할 폭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폭탄은 주위가 18인치이며 직경이 2,5인치이였다. 이 폭탄의 뒤에는 비행기로부터 정확하게 투하하기 위한 안전판이 달려 있다. 폭격기 내에 이 적은 폭탄들을 한 묶음에 많이 수송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였다.

이 폭탄은 투하된 후 서로 흩어져서 광범한 지역에 뿌려진다.

나는 구형 내에서 세균탄을 시험하는 것을 보았다. 이 세균탄은 구형의 내벽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놓여 있게 하기 위하여 전선으로써 구형의 중심부에 매여 달았다. 연구원은 공기의 표본을 빨아 내기 위하여 구형 외부 주위에 만들어진 구멍 옆에 서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적당한 시기에 세균탄은 전기로써 폭발되였다.

폭탄 조각은 구형 밑바닥에 떨어지고 폭탄 내에 들어 있던 세균들은 공기 중에 흩어졌다. 다음으로 공기의 표본을 빨아 내여 폭발이 있은 후 폭탄 내에 있던 세균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 없이 남아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근에 있는 연구실로 옮겨 졌다. 그리고 세균탄이 폭발한 후의 세균의 치명적인 효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동물들을 구형 내에 넣는다.

이 실험들의 목적은 이 사업에 가장 적당한 폭탄의 용적과 형태를 결정하려는데 있다. 폭탄 자체에 사용한 물자의 종류에 관한 실험도 진행되였다.

즉 강철, 알미늄, 플라스틱 등이다. 폭발의 파괴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세균들의 생존률이 많을 것은 명백한 일이다.

세균탄을 제조하는 물질은 폭탄이 내부의 세균을 모두 죽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폭발될 수 있도록 변경되였다.

구형이 놓여 있는 건물 옆에 연구실이 있다.

이 연구실에서 직원들은 구형으로부터 가져 온 공기의 표본을 시험한다. 그리고 시험에 사용되는 세균들은 연구실에 보관된다. 연구소는 시험 목적을 위하여 앞으로 거둘 수 있는 성과와 동일한 징후를 줄 수 있는 형태의 세균과 동일한 세균들을 보유하고 있다.

세균은 연구소 직원이 실험하기 전에 시험용 폭탄 속에 넣어진다. 세균을 취급할 때마다 직원들은 엄격한 방균복을 입는다.

이 부대에 관련하여 몇채의 온실이 서 있다. 이런 건물들은 세채 또는 네채 있었으며, 매 건물의 높이는 60피트, 폭은 24피트 가량 되여 뵈였다. 이 온실들은 각종 작물들에서 볼 수 있는 종류의 균들을 배양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시험에 사용될 것이 온실들에 수집되었다.

균들은 작물에 유해한 세균의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세균의 목적은 작물들을 시들고 죽게 하며 각종 작물의 수확고를 감소시키는 것이였다. 식용 식물들이 온실에서 재배되였다. 그러나 연구 중에 있는 세균은 어떠한 종류의 작물에 대하여도 손해를 줄 것으로 예견되였었다.

내가 방문한 건물들의 주변 지역에는 몇개의 커다란 경작지가 있었는 데 이 경작지는 세균탄이 비행기로 부터 실지 투하된 후에 대기 중에 있는 각종 형태의 생물에 대한 자연 기후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데 리용되였다.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세균탄을 폭발시키고 폭발의 중심으로부터 각이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대기의 상태를 연구하였다. 바람과 기후의 영향력 및 산포력이 이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었다. 이 시험은 세목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정확할것으로 예견되였었다.

시험용 폭탄 자체가 본부에서 제작되고 있었다. 본부가 가장 훌륭한 설계를 결정하자 즉시로 대량 생산 규모로 폭탄이 생산될 수 있었다.

내가 방문을 끝마쳤을 때 나의 안내인은 많은 종류의 세균들이 시험 중에 있다고 말하였다. 세균들은 인체와 야생 동물과 작물들에 대하여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이것은 병에 걸리게 하며 로동 및 전투력을 경감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전투기가 이와 같은 사업에 참가할 데 대한 문제가 심의되였는가고 나는 나의 안내인에게 물었다.

연구 사업이 아직 이 점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그들은 단지 폭격기 장비 문제를 연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명령이 내리기만하면 그들은 전투기에 동일한 형태의 폭탄을 사용할 가능성을 용이하게 연구할 수 있다고 그는 부언하였다.

다음날 내가 미 국방성에 사업하러 갔을 때 나는 릴 대좌에게 그가 명령한대로 방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야영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투기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나에게 물었다.

본부가 지금까지 연구 제작한 내가 본 폭탄들이 고속도 젯트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나는 대답하였다. 전투기가 사용된다면 이와 같은 형태의 무기의 위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릴 대좌는 말하였다. 그나 나나 모두 다 이와 같은 것은 그리 곤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수일 후 아침에 릴 대좌는 펜렛터씨 사무처로 자기를 만나러 오라고 나에게 요청하였다. 그는 공군 장관이 데트리크 야영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정형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틸 대좌와 내가 공군 장관 사무처에 갔을때 틸 대좌는 대변인의 역할을 놀았으며 데트리크 기지의 일반 사업 정형에 관하여 설명 하였다.

공군 장관은 틸대좌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다. 틸 대좌는 그리 커다란 곤난성 없이 전투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명백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나의 시찰 보고를 전달 하였다.

말이 적은 공군 장관은 우리의 의견을 듣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하여 그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을 확인하였으며 사실 그가 반덴버그 장군과 이 점을 토의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반덴버그 장군이 자기에게 공군 참모가 이 문제를 권고 하였다고 확언 하였으며 가까운 장래에 이에관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언 하였다.

틸대좌가 복명을 끝마쳤을 때 공군 장관은『정보를 제공 하여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공군 장관 사무 처를 떠났다.

1951년 2월에 나는 대좌에게 영진 하였으며 4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빅토빌 제1 전투 요격기 대대 대대장으로 임명되였다.

1951년 10월 마지막 주에 나는 미 공군 사령부로부터 전보 지시를 받았는데 이 전보 지시는 미 공군 작전 참모장 대리 새빌소장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 내가 새 빌소장에게 보고 하였을 때 그는 걸렌 준장과 맥닉클 대좌를 자기사무처에 소환 하였다.

새빌 소장은 이 회합에서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반덴버그 장군은 제51 전투 요격기 련대의 에프—80을 에프—86이로 대치하기 위하여 75대의 에프—86이를 조선에 수송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마후린 당신이 이 계획을 담당하기로 되여 있다』. 새빌 소장은 항공기들이 조선에서의 세균 전 계획과 관련하여 사용되기로 되여 있다고 말하였다.

새빌 소장이 조선에서 제한된 세균 전이 개시될 것이라는 국방성 상급당국과 합동 참모 본부의 지시를 접수하였다고 말 하였다. 이 지시는 공군 참모장 반덴버그 장군 사무처를 경유하여 작전 참모장 대리에게 전달 되였다.

이에 관한 전체 지시 문건이 참모장에게 전달 되였으며 그후에 이를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적당한 행동을 취하도록 각 참모 기관들에 발송되였다.

당시 전체 계획을 알고 있던 사람은 몇명 안되였었다.

세균 전 계획의 목적은 그 효과를 시험하기 위하여 조건의 실지 전야 조건에서 이무기들을 사용하는 것이 였다. 이 무기들은 또한 후 일의 조건 여하에 따라 확대된 규모로 조선 전쟁에 앞으로 사용 될것이 예견 되여 있었다.

각종 항공기에 사용될 용기들은 충분히 시험하기로 되여 있었으며 이 무기들은 각이한 지세와 온갖 기후 조건에서 투하 되기로 되여 있었다. 이것은 정전 담판에 영향을 줄 것이며 만족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 기대 되였었다.

이때까지 공군 당국은 각종 병에 감염된 곤충들을 넣고 운반할 수 있는 에프—86

용 외부탕크를 제작하였다.

제51 전투 요격기 련대가 실지 전투 조건하에서. 이 탕크들을 시험하기로 되여 있었다.

에프—86이가 낡은 에프—86에이보다 성능이 우수하며 보다 낮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에프—86이가 제51전투 요격기 련대에 수송되고 있었다.

새빌 소장은 미국 전국의 각 부대들에 대하여 에프—86이 항공기와 그 인원들을 조선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야주 알라메다에 있는 해군 항공기지에 파견하라는 명령을 전달하였다고 말하였다.

맥닉클 대좌와 내가 출발시의 모든 준비를 검열할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었다.

수송이 개시되면 우리는 새빌 소장을 보좌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새빌 소장은 맥닉클이 담당한 계획부문이 미국으로부터 수송대가 출발하면 끝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나는 수송이 완료된 후 나를 조선으로 이동 시킬 데 대한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측 되였다.

내가 일본 도쿄에 도착하여 극동 공군 사령관 웨일랜드 장군에게 보고 하기로될 것이라고 그는 부언하였다.

그는 아직 선출되지는 않았으나 기타 2명의 장교가 동시에 해외에 파견될 것이며 내가 일본이나 조선에서 그들 중 한 사람은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새빌 소장은 면담을 끝마치면서 그는 맥닉클 대좌와 나에 대하여 기밀을 보장할 데 대하여 주의 하였으며 세균전 계획에 관하여 그가 말한 것은 루설하지 말도록 요구 하였다.

항공기 및 인원 수송이 1951년 11월 5일에 완료되기로 되여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검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월 4일에 알라메다에서 맥닉클 대좌와 만나기로 하였다.

1951년 11월 4일 나는 알라메다에있는 해군 항공기지에 도착하였다. 맥닉클 대좌는 전날밤 워싱톤으로부터 알라 메다에 도착하여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즉시로 검열에 착수 하였다.

세균전 계획과 그 내막을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들 뿐이 였다.

검열을 끝마치고 우리는 새빌 소장에게 우리의 결론을 서술한 전보를 보냈다.
맥닉클 대좌는 새빌 소장에게 친히 보고 하기 위하여 비행기로 워싱톤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나는 앞으로의 지시를 기다리기 위하여 제1 전투 대대에 돌아갔다.

1951년 12월 9일 나는 나를 제1 전투 대대로부터 극동 공군 사령부로 이동 시킬데 관한 전보를 받았다. 나의 미국 출발 날자는 12월 15일로 결정되였으며 일본에 도착하면 극동군 사령관 웨일랜드 장군에게 앞으로의 지시와 임무에 관하여 보고 하기로 되여 있었다.

다음으로 나는 극동을 향하여 비행기로 미국을 출발하였다.

이 비행기는 12월 18일 야밤에 도쿄의 하네다 비행장에 착륙 하였다.

그리고 나는 다음날 아침 미 극동공군 의례국에 보고 하였다.

의례국 담당 장교는 나와 함께 사업하게 될 기타 2명의 장교들에게 나를 소개 하였다.

이 두 장교는 샤펴 소좌와 챈들러 소좌이였다.

그들은 모두 미국에 있을 때에 세균 전 계획의 내막을 지시 받고 나보다 하루 앞서서 일본에 도착한 것이 였다. 우리들이 이날 오후에 웨일랜드 장군을 만나도록 준비가 되였다.

우리들이 웨일랜드 장군을 만났을 때 그는 세균전 계획에 관하여 미 합동 참모 본부로부터 비밀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 하였다.

웨일랜드 장군은 이 지령은 『에프—86이 차후에 이 계획을 확장할 가능성 밑에서 최초에는 이것을 소 규모로 개시할 것을 지시 하였다고 말 하였다.

그는 비26과 같은 기타 형태의 비행기도 이에 사용될 것이며 그리고 제 51전투 요격기 련대의 에프—86들도 역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웨일랜드 장군은 다음에 세균전 계획이 에프—86에게 적용되므로 우리들에게 이 계획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우리들의 세균전 경험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개시될 것을 자기는 예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들은 조선 대구로부터 공중 수송 되여 올 우리들의 세균 탕크를 받을 것이라고 말 하였다.

그는 우리들을 제5 공군에 파견하고 여기로부터 제51 전투 요격기 련대에 파견할 필요한 명령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 하였다.

그는 자기가 제5 공군 사령관 에버레스트 장군과의 전화 련락에서 우리들이 에버레스트 장군과 만나서 개별적으로 담화할 수 있게 우리들을 에버레스트 장군에게 파견할 것을 말 하였다고 우리들에게 말 하였다.

우리들의 임무는 에버레스트 장군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충분히 설명 되게 되여있었다.

그는 우리들의 임무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으로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들과의 회담 끝에 웨일랜드 장군은 그가 우리들과 회담한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하였다.

그의 비서는 다음에 우리들을 제5공군에 전임시키는 우리들에 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1951년 11월 20일 오후 3시에 우리들의 비행기는 케이—16(서울)에 착륙 하였다. 우리들 3명, 즉 샤펴 소좌, 챈들러 소좌, 그리고 나는 짚으로 제5 공군 본부에 안내되였다.

우리들이 제5 공군 사령관 에버레스트 장군 사무실에 복명 하였을 때 그의 비서는 우리들을 곧 에버레스트 장군에게 데리고 갔다.

자기 사무실에서 에버레스트 장군은 자기 소개를 하고 다음에 제5 공군 작전 장교 메이어스 대좌를 소개 하였다.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던 에버레스트 장군은 다음에 제51 전투 요격기 련대가 세균전 계획에서 수행할 역할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리였다.

그는 우리들 3명이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히 제 51전투 요격기 련대의 전반적인 일상 과정에 적합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에버레스트 장군은 자기가 제51 전투 요격기 련대 사령관 가브레스키 대좌에게 우리들이 도착할 것을 이미 통고하였다고 말 하였다.

에버레스트 장군은 다음에 제5공군은 제한된 세균전을 개시 하려하고 있다고 설명 하였다.

제5 공군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할것을 명령 하였을 때 우리들의 사업은 조종사들에게 이것을 보고 하군 하는 것이 였다.

한편 우리들은 이 계획을 될 수 있는 대로 안전하게 보관 하게 되여 있었다.

우리들은 곧 제5공군으로부터 공격개시 명령을 받았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이 련대가 필요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였다.

에버레스트 장군은 우리들에게 대하여 자기 사령부 지휘하의 폭격기와 전투기가 모두 이에 관련되여 있다고 말하였다.

이 공격들은 앞으로 확대 시킬 가능성을 내포한 실험적 기초 위에서 진행 되게 된 것이 였다.

곤충을 수송하는 용기가 모든 형태의 비행기에 따라 상이할 것이므로 지령들은 모든 련대에 따라 상이하였다.

사용된 곤충들은 파리, 벼룩 및 모기였는데 이 곤충들에는 말라리야, 티브스, 페스트 및 적리균이 매개되여 있었다.

메이어스 대좌는 다음에 제51 전투 요격기 련대는 1명의 장교와 수명의 병사들로 구성된 병기 반이 병균탕크의 취급 절차에 대하여 우리들의 병기 인원들에게 지시를 줄 것을 예기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최초의 2,3차의 사명을 한 후 우리들은 문제가 제기될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게 되였다.

메이어스 대좌는 세균 분배 시설이 대구에 설치되여 있으므로 에프—86 비행기에 적재할 세균 탕크들이 대구로부터 우리들에게 수송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제5공군의 퍼구손 대좌 휘하의 자재과는 세균전 계획에 관련되여 있는 항공 련대들에 대한 기타 수송물과 함께 이 수송물을 취급하였다.

훈련된 인원들은 대구에 와 있었다.

이러한 사명들의 최초의 정형에 관하여 말한다면 우리들은 『특별 단풍』이라는 말을 사용한 지령을 받을 것을 예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특별』이란 말은 이것이 세균 사명들이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였다. 또한 우리들은 아마도 전화로 지시들을 받았다.

이 공격들에 망라된 지역은 신안주로부터 남시동 및 희천에 이르는 주요 철도선로 연변이 였다.

이 지역은 남은 청천강, 북은 압록강과 경계되여 있다.

메이어스 대좌는 이 사명들의 일부가 압록강 북쪽에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부언하였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명들을 그리드 조정기에 의하여 수행하게 될 때에 전투 명령에서 제시된 목표들에 대하여 말할 수 있군 하였다.

에버레스트 장군이 담화를 재 개시 하였을 때 그는 제51 전투 요격기 련대가 가장 가까운 장래에 세균 사명들을 개시할 것을 예기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계획이 우리들 측을 위한 지령은 2, 3일전에 극동 공군에 의하여 접수 되였을 뿐이며 그리고 제5 공군 참모부는 세목을 장성하는데 분망 하여있었다.

에버레스트 장군은 이 사명들의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매월 약 8 내지 10차가 표준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 하였다.

끝으로 에버레스트 장군은 조종사들이 이런 형의 사명을 수행할 것을 불긍하는 경우에는 군법 재판의 권력이 적용될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 하였다. 에버레스트 장군이 그의 말을 끝마친 다음에 우리들은 그의 사무실을 떠났다.

워커 엠 • 마후린

미 공군 대좌 군 번호 8658 에이 북조선

우리들 세 사람, 즉 샤퍼 소좌, 챈들러 소좌, 그리고 나는 1951년 12월 20일에 케이—13(수원)에 도착하였다.

우리들이 제51전투 요격기 련대장과 브레스키 대좌에게 보고하였을 때 그는 샤퍼 소좌를 제16 전투기 중대에, 챈들러 소좌를 제25전투기 중대에, 그리고 련대가 앞으로 세균전 계획을 실천하는 것을 돕도록 나를 련대 사령부에 각각 배치 하였다.

그날 저녁, 가브레스키 대좌와 나는 우리 부대들에서의 세균전 계획에 관하여 개인 적으로 담화하였다.

가브레스키 대좌는 에버레스트 장군으로부터 그 계획의 세칙에 관하여 이미 지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이상 더 보충적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그 계획을 실천하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가능한한 조속히 련대 및 대대의 몇몇 고급 참모 장교 회합을 소집하여 그들에게 세균전 계획의 세칙을 전달하기로 결정 하였다.

가브레스키 대좌는 우리들이 그 계획을 실천할 최선의 방법에 관하여 적당한 결정을 지으며 동시에 계획의 기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회합 참가자를 주요 참모 인원으로 국한할 데 대하여 말 하였다.

1951년 12월 22일 회의는 련대 사령부에서 열리 였다. 가브레스키 대좌 샤퍼소좌, 챈 들러 소좌, 그리고 나와 함께 다음과 같은 장교들이 이 회의에 참가 하였다.

제51 전투 요격기 대대장 존스 중좌, 련대 작전 장교 윌슨 소좌, 제25 중대장

휘즈너 소좌, 제 16중대장 쿤스 소좌, 련대 부관 쿠크 대위, 그리고 대대 자재과 및 병기과 장교들, 가브레스키 대좌는 샤퍼 소좌와 챈들러 소좌와 나를 기타 참석자들에게 소개 함으로써 회의를 개회하였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제5 공군으로부터 세균전의 비밀 사업을 수행할 데 대한 지시를 받았다.

지금 내가 소개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 계획 수행을 방조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다. 마후린 대좌는 련대와 제5공군간의 련락 장교로서 일할 것이다.

그가 당신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에 관하여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제5공군 사령부에서 에버레스트 장군과 메이어스 대좌로부터 들은 말에 관하여 회의에 참석한 장교들에게 이야기 하였다.

나는 우리들이 대구로부터 세균 탕크를 공급받을 것이며 한명의 장교와 수명의 하사관으로 구성된 일단의 병기과 인원이 그 세균 탕크의 취급 절차를 우리 병기부 인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곧 도착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또한 제5공군 사령부로부터 지시가 있으면 즉시로 우리들이 세균전 사명리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부언하였다. 다음으로 회의에서는 일반적 토론이 시작되였다.

제16 중대를 이 목적을 위하여 동원할 것이 결정되였다.

대구로부터 병기부 인원들이 도착하면 제16중대와 제25중대의 주요 병기과 인원들은 세균 탕크의 취급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도록 되였다. 이 계획 실행에 참가할 비행사들에게는 다만 그들이 실험용 탕크를 비행기에 싣는다고만 말하고 그 사명에 대해서는 비밀히 할 것이 또한 결정되였다. 우리가 모든 인원에게 계획에 관하여 이야기 하도록 제5 공군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련대 부관 쿠크 대위가『군무규정』을 랑독하며, 챈들러 소좌가 세균전 계획에 관한 강의를 하며, 그리고 내가 그 계획의 요점들에 대한 강의를 할 것으로 결정되였다.

12월 24일 제16 중대와 제25 중대 주요 인원들에게 세균 탕크의 장치에 관하여 설명할 병기과 인원들이 대구로부터 케이—13에 도착하였다 이 두 중대의 인원들이 해당한 지시를 받자 곧 우리들은 첫 세균전 공격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12월 27일 우리들은 세균전 사명을 실천 할 데 대한 첫 지시를 받았다. 이 지시는 다음과 같이 되여 있었다.

제5공군 사령부 1951년 12월 28일

제목——일상적 임무에 관한 지시

제4 전투 요격기 련대, 제18 전투 폭격기 련대, 제49전투 폭격기 련대, 제 51 전투 요격기 련대, 제67 정찰 련대, 제136 전투 폭격기 련대, 제3 폭격기 련대, 제452 폭격기 련대 앞

제5 공군 사령부 작전부로부터 제1부

제51 전투 요격기 련대는 다음과 같은 철도 목표들을 공격하는 『젤』이라는 부호 명칭을 가진 24대의 에프—84 항공기들을『호위하기 위하여 『당풍』이란 부호 명칭

을 가진 24대의 에프—86 항공기들을 준비할 것이다.

임 무 번 호	번 호 A C	T, O, T	지 역
5101	24	0830	X E 40 50
5102	24	1330	Y D 43 12

또한 『특수 단풍』이라고 부르는 4대의 에프—86 항공기들은 전기 지시에 따라 엑스 이 0102 지역을 공격할 것이다. 4대의 에프—86 항공기들은 활주로 경계를 위하여 준비될 것이다.

에버레스트 중장의 명령에 의하여 제5 공군 사령부 작전 장교 서명.

우리가 처음으로 세균전 사명을 수행한 것은 북조선 신안주와 군우리 사이의 청천강 지역에서 였다.

쿤스 소좌는 이에 참가한 항공기들에게 그들이 목적지에 접근할 때까지 련대의 다른 항공기들을 따라 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이 항공기들은 저공하여 지시된 지역에 탕크들을 투하하였다. 투하한 후에 그들은 다른 항공기들과의 편대에 다시 참가하여 정상적으로 비행하였다.

이 특별 사명을 위하여 비행하는 비행사들은 다른 비행사들과 같이 정상적으로 설명을 듣는 회합에 참가하였다. 이 정상적인 설명이 끝난 후 그들은 물러나와 편대 지휘자로부터 그들이 특수한 성질의 실험 탕크를 싣는다는 데 대하여 설명을 듣는다. 그들은 세균 탕크를 지시된 지역에 투하함으로써 지시된 대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였다. 기지로 돌아왔을때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관하여 서로 이야기 해서는 안되며 탕크에 관하여서도 론의해서는 안된다. 첫 세균전 사명은 지시된 대로 집행되였다.

12월 발 련대 정보 장교는 가브레스키 대좌와 나에게 그가 세균전 계획에 관하여서와 진행되고 있는 일에 관하여 말이 떠도는 것을 들었다고 보고하였다. 추측컨대 비행사들과 하사관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명확한 개념을 가지지는 못하였으나 어떠한 비정상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였다. 왜냐 하면 일부 비행사들은 정상적 설명이 끝났을 때 특수 지시를 받았었기 때문이다.

련대 정보 장교는 세균전에 관한 말이 퍼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 회합을 가질데 대하여 제5공군의 허가를 받도록 우리들이 노력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제5공군에 보고하고 련대 인원들이 회합을 가질데 대한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1952년 1월 2일 아침 8시 모든 인원들이 련대 극장에 집합할데 대하여 련대 사령부의 명령을 내릴것을 지시하였다.

1952년 1월 4일 비행사들, 책임 승무원들, 그리고 병기과 인원들이 아침 8시에 집합하게 되였다.

모든 련대 인원들에 대하여 군사 규률에 관한 첫 강의가 1952년 1월 2일에 진행

되였다.

가브레스키 대좌는 련대가 진행하고 있는 활동에 관한 이야기들이 련대 내에 퍼지고 있는것을 그가 깨닫게 되였다고말하면서 회합을 개회하였다.

그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련대의 사업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귀에 모종의 이야기들이 우연히 들어갔을지 모른다고 부언하였다. 가브레스키 대좌는 련대의 모든 성원들에게 군사적 명령의 존엄성에 관하여 다시한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 쿠크 대위가 모든 관계자들앞에서 『군무 규정』을 랑독할것이였다. 가브레스키 대좌는 이 랑독이 모든 관계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군사적 의무에 관한 기억을 새로히 할것이라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연설이 끝난후 쿠크 대위는 『전쟁에 관한 문건들』을 랑독하였다. 가브레스키 대좌는 회합을 페회하면서 참가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방을 나갔다.

계획에 따라 비행사들만이 참가하는 강의를 그 익일 오후에 진행할것으로 결정되였다. 이날 모든 사람들이 다 집합하였을 때 나는 세균전 계획 집행 착수에 관하여 강의하였다.

나는 조선의 전반적 정세가 지상 전투에서나, 정전 담판에서나 다 곤경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의 강의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성공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공군의 사용이라고 나는 말하였다. 나는 또한 앞으로 세균전을 시작할, 그리고 사실에 있어서는 세균전을 시작한 상부측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비행사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정전 담판에는 영향이 미쳐질 것이며 성공적인 결말이 도달될 것이라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한편 우리들은 실험상 이러한 형태의 전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나는 말하였다. 계속하여 나는 그들의 표정에 의하여 이것이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하였다.

나는 다시 한번 비밀 엄수에 대하여 말하고 특히 정보가 루설되지 않도록 이에 대하여 그들 사이에서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 전체 비행사, 전체 책임 승무원, 전체 무장인원이 극장에 모이였다. 챈들러 소좌가 세균전 계획의 전반적 내용에 관하여 강의하였으나 특수한 점들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챈들러 소좌가 그의 말을 끝냈을때 내가 말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우선 장교들이나, 병사들이 이 계획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세균 탕크들에 관하여 나는 그들에게 이 탕크들에 말라리야, 발진 티브스, 열페스트 등에 감염된 모기, 빈대 및 파리들이 들어 있다고 말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이 출격이 어느 기간동안이나 계속될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지시를 받는 한 이것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1952년 1월 10일부터 우리는 제5 공군 사령부로부터 세균 출격을 위한 정기적인

지시를 받기 시작하였다. 내가 제51 련대에 있었을때 우리는 1개월간에 평균 10회의 세균 출격 지시를 받았는데 그중 2회 내지3회는 압록강 북쪽으로 갔다. 이 세균전 출격이 전부 끝난후 비행사들은 세균탕크들이 투하된 곳을 정보부에 보고하였으며 이 정보는 제5 공군 본부에 전달되였다.

공격을 당한 전반적 지역은 청천강 북방으로서 신안주로 부터 남시동에 이르는 주요 수송로들과 군우리로 부터 희천에 이르는 주요 수송로들을 따르는 지구였다.

출격이 압록강 북방에 행하여 졌을때 공격 지구는 안동 따뚱교 바로우였다. 압록강 북방의 출격에는 이에따르는 위험성으로 말미암아 경험있는 비행사들만이 사용되였다. 또한 련대는 적 레이더에 의하여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균출격에 포함된 비행기의 아이·에프·에프 라디오 장치를 절단하는 연습을 하였다.

압록강 남방에 대한 세균전 출격들의 목적은 감염된 빈대,·파리 및 모기들로써 철도선들의 지구를 마비시키는데 있었다. 그 결과는 철도선을 복구하려는 수선 일군들의 사업을 방해할 것이다. 빈대, 파리 및 모기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이것은 계절에 맞지 않기 때문에 큰 의혹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안동 및 따뚱교 교외를 공격할 경우에는 그 목적은 만주 중국으로부터 북조선에로 가는 보급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 지역들을 마비시키려고 시도한 데 있다.

최초의 몇 차례에 걸친 세균전 출격이 있은 후 제15 중대는 또한 이 형식의 계획을 리행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출격들은 매번 비행기 마다 세균 탕크들을 사용할 것이 요구되였으며 4대의 비행기. 때로는 8대로 구성되는 편대들이 계획되였다.

모든 경우에 세균 편대들은 정규적 출격을 하는 기타 비행기들을 따라 비행하였다. 세균 편대들이 세균 탕크들을 투하하기 위하여 강하한 후 그들은 전투 지구를 정찰하기 위하여 기타 비행기들에 합류하였다.

내가 제51전투 요격기 련대에 있었을 때 나는 전부 38회의 출격을 하였는데 그중 4회는 세균 출격이였다. 1952년 3월 15일에 나는 한 세균전 출격을 지휘하였다.

그 2일전에 대대 지휘관 죤스 중좌는 나에게 다음날 아침 출격을 지휘할 의사가 있는가를 물었는데 나는 이것을 응낙하였다. 출격 명령은 대대 작전부에서 받았는데 호송 정찰을 위하여 24대의 에프—86형 비행기들과 세균 공격을 위하여 4대의 에프—86형 비행기들이 참가하기로 되였다.

이 출격을 하는날 아침 일찌기 나는 제5 공군 사령부로부터 에프—80, 에프—84 전투 폭격기들이 그들의 힘을 신안주로부터 북방에 이르고 있는 주요 철도선을 폭격하는데 집중하고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선들은 수주일 동안 공격을 받았는데 제5 공군은 그들이 야간에 복구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들은 수선 일군들을 실망케 하고 수선을 방해하기 위하여 신안주 북방 지구에 세균 탕크들을 투하하기로 결정하였다. 만약 공격의 결과 수선 일군 중 누구가 병에 걸린다면 수리에 종사하는 일군들의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상적인 보고 절차에 의하여 보고에 참가할것이 요청된 모든 장교들이 내가 있

는 보고실에 모였을 때 회의 참가자들은 주의하게 되였으며 정보 장교는 보고를 하기 시작하였다. 보고의 첫 부분은 우리와 같은 시간에 전투 지구에 있던 기타 비행기 및 기타 편대들의 활동을 개괄하는 것이였다. 에프—80들과 에프—84들은 이 지구의 철도선들에 급강하 폭격을 하고 있었다. 그가 말을 끝냈을 때 내가 앞에 나가서 출격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나는 비행사들에게 우리가 4대의 비행기로써 편대들을 지어 출발할 것이며 편대들 사이에는 1분간의 간격을 둘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나의 편대가 먼저 떠나고 기타는 우리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였다.

나의 편대를 제외한 모든 편대들은 압록강구에 직접 비행하여 강구 사이를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정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우리가 우리의 세균 출격을 끝낸 다음 기타 비행기들과 더불어 정찰에 참가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주요 보고가 끝난후 나는 나 자신의 편대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할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우리가 평양시 북방에 도착할때 우리는 신안주시를 넘어가자 곧 목표를 향하여 강하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나의 세균 탕크들을 투하할것이며 나의 편대 인원들은 천천히 열까지 세고 그를 투하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가 나의 편대 인원들이 투하하는 것을 보자 나는 하강하여 투하하도록 할것이다.

그와 그의 편대 인원들이 탕크들을 투하하자 그들은 상승하여 우리와 함께 편대에 참가할 것이였다.

이 출격은 계획에 의하여 실시되였다. 우리는 내가 명령한대로 공격을 하였다 우리는 우리 공격의 결과에 대하여 말할 수 없었으나 우리는 탕크들이 투하된 곳을 말할수 있다. 우리는 지상으로부터 맹렬한 대공 포화를 받았다. 우리가 모두 착륙하여 비행 복을 벗은 후 우리는 정보부 목명실에 뫼였다.

우리는 세균 탕크들을 투하한 곳을 말하고 지도에 이 지점들을 그렸다.

정보부 서기가 비행사의 말을 적었으며 전체 비행사들의 말이 청취된후 보고들은 출격 활동 총결 속에 요약되였다.

이 세균 출격들은 모두 내가 이상에서 말한바와 거의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였다. 다만 큰 변동은 목표지구 선택이 였을 뿐이 였다.

워커 엠◦마 후 린
미 공군 대좌
군번호 8658 에이
북 조 선

1952년 3월 16일경 나는 케이—14(금포)에 기지를 둔 제4전투 요격기 대대장으로 임명되였다

나는 대대 인원 구성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모든 인사 변동을 실시하였다.

그때까지 제4 전투 요격기 편대 인원들 간에는 세균전 계획에 관하여 그리고

第51전투 요격기 련대가 놀고 있는 역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타 련대 들이 놀고 있는 역할에 관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비행사들은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호상 만나군 하였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알고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상세히는 알지못하였다.

제4 전투 요격기 련대 련대장 타잉 대좌는 이에 관하여 나에게 특별히 질문하였으며 또한 나는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에게 알려 주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 나는 에버레스트 대장과 메이어스 대좌에게 내가 비밀 보전을 맹세하였던 것을 잊지 않았다.

련대의 기타 인원들이 세균전 문제에 관하여 나에게 질문할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이 문제를 토의할것을 금지 당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3월 27일에 타잉 대좌는 우리들이 가급적으로 속히 제5 공군의 새로 임명된 작전장교 메존 대좌에게 보고하여야 할것이라고 나에게 말하였다.

메존 대좌의 사무처에서 우리들 중 세 사람은 제4 전투 요격기 련대의 세균전 계획을 실시할 데 관하여 토의하였다.

처음에 발언한 메존 대좌는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마후린. 나는 당신이 제51 련대에 배속되여있었으며 또한 세균전 계획이 이 련대에 적용되는 것인만큼 당신이 세균전 계획에 관하여 알고 있다는것을 안다』. 그는 그 다음 타잉 대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은 이에 관하여 공식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세부에 관하여 보충하겠다』.

메존 대좌의 명령 전달은 에버레스트 대장과 메이어스 대좌가 준 것과 거의 다름 없었다.

제4 전투 요격 련대를 사용하는데 대하여는 몇가지 리유가 있었다. 하나의 리유는 세균전 작전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였다.
또 하나의 리유는 제4 전투 요격기 련대가 만일 앞으로 세균전 계획에대한 충분한 중요성을 둘 것이 결정될 때 세균전 실천의 가능성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상급 당국이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균전 임무들을 위한 지역은 평양으로부터 압록강 북쪽까지, 그리고 바다로부터 동서 산지들에 이르렀다. 이 세균전 임무가 압록강 북부에 이를 때는 이 임무는 압록강의 북부와 그리고 이 강 자체에 병행하는 지역들에 있는 공격 목표들에 적용될 것이였다.

공격은 정규적인 작전임무와 더불어 제5 공군으로부터 내린 작전 명령에 의하여 진행될 것이였다.

제4 전투 요격기 대대의 정규적인 호출 신호가『존』이 였으니 만큼 세균전 임무의 호출 신호는『존 특별』이였다. 이것은 또한 작전 명령에도 지적되였다.

세균 탕크들에 관하여는 우리들은 이것들이 제51전투 요격 련대에 보급되였던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구로부터의 공중 수송에 의하여 이것들을 받았다. 메존 대좌는 우리들이 세균 탕크의 취급 절차에 관하여 배우기 위하여 수명의 병기과 장교들과 수명의 중요한 병기과 인원들을 제51 전투 요격 련대에 파견할것을 제의하

였다. 이것은 될수록 속히 실시되여야 하는 것이였다.

메존 대좌 자신도 제51 전투 요격련대에 대하여 이러한 인원들이 이목적 밑에 방문을 할 것이라는 것을 통고 하였다.

메존 대좌는 우리들이 다음 수일간에 우리의 세균전 공격이 시작되는 것을 예측하여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작전 명령에 있어서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비밀 보존에 대하여는 메존 대좌는 적군이 세균전의 진행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낀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균전이 수개월 동안 진행되여 왔으니 만큼 적군은 반드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 또는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비행사들에게 비밀 보존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끝으로 메존 대좌는 우리들이 1개월에 압록강 북부에 대하여 이러한 세균전 임무를 수회에 걸쳐 진행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그 당시에 그 규모를 말하지 않았다.

타잉 대좌와 내가 케이—14에 도라왔을 때 우리들은 이 계획을 취급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토의하였다.

그는 중요한 병기과 인원들을 케이—13에 파견하여 지시를 받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였다.

이 인원들은 3명의 중대 병기과 장교, 매개 중대로부터 선발된 고급 하사관 5명을 포함하여 합계 18명으로 구성되게 결정하였다. 나는 이 문제를 비행사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비행사들의 회의를 열 예정이였다. 그때부터 우리들은 미국으로부터 제4 전투 요격 련대에 임명된 비행사들에게 이 문제에 관하여 주지시키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였다. 세균전 계획에 관한 이 교육은 정규적인 학교에서 기타 과목들과 더불어 진행될 예정이였다.

이 학교는 종전에는 보통의 과목들을 교수하였다. 그런데 우리들이 몹시 필요로 한 것은 교과에 세균전 강의를 첨가시키는 것이였다.

1952년 3월 27일 밤에 나는 3명의 중대장 이외에 필요한 대대 본부 인원의 참모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참가하였다.

대대장 대리	쿤 중좌
대대 작전 장교	페인 중좌
대대 정보 장교	리들랜드 중좌
제334 중대장	마틴 소좌
제335 중대장	아멜 소좌
제336 중대장	아슬라 소좌

일반적 토의가 진행된 다음, 세균전 임무에 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행사들에게 전달할 것이 결정되였다. 대대 정보 장교 리들랜드 중좌가 비밀 보존에 관한 강의를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나는 세균전 임무의 세부와 또한 우리에게 대략 결정된 계획에 관하여 발하였다. 3명의 중대장들이 상급 사령부들의 지시를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추가적인 명령 전달을 중대 작전 본부에서 실시할 것이 또한 결정되였다.

그 다음날인 1952년 3월 28일 9시에 우리들은 대대명령 전달실에서 비행사들에 대한 확대 명령 전달을 실시하였다. 나는 합계 약 100명의 비행사들이 참가하였다고 추측한다. 나는 우리들이 모든 개인적 견해의 여하를 막론하고 임무 수행을 지시 받았기때문에 이 세균전 임무를 실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세균전 임무 실행의 기일이 올 때는 어느 누구도 이 임무 참가를 회피할 수는 없었다. 그 때부터 제4 전투 요격 련대는 세균전 계획에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1952년 3월 30일 경, 우리들은 세균전 임무 수행에 대하여 제5 공군으로부터 임무 수행에 대한 첫지시를 받았다. 우리들은 세균전 임무를 위하여 『존 특수』라는 호출 신호를 사용하였다.

우리들은 1개월에 약 15회에 걸쳐 세균전 임무에 대한 지시를 받았는데 그중 4회 내지 5회의 지시는 중국 만주, 압록강 이북 지역의 목표들에 대하여 세균전을 진행할 데 관한 것이였다.

일반적으로 북조선에 대한 이 세균전 임무 수행의 범위는 한개의 구형을 구성하였는데 서쪽은 해안에 이르고 동쪽은 산악 지대에 이르고 남쪽은 평양에 이르고 북쪽은 압록강에 이르렀다. 제5 공군이 지시한 목표 지역들은 주요 보급선을 따라 신의주, 정주, 붕천 및 남시동 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공격의 목적은 철도 연선 지역을 세균에 감염된 벼룩, 파리 및 모기들로써 질병을 감염시키며 또한 철로 수리 공사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

중국 만주에 대한 세균전 임무에 대하여는 이 임무의 대부분은 압록강 자체에 병행하는 이 강 북부에 지정되였으며 2회 또는 3회의 임무는 심양 바로 남쪽에 적용됐다. 중국 동북에 대한 세균전임무에 있어서는 항공기들은 1개의 세균 탕크와 1개의 기준 외부탕크를 적재하였다. 이 세균전 임무의 목적은 이 지역을 병균에 감염된 곤충들로써 병균을 전파시킴으로써 조선에 대한 보급 물자의 류입을 방지하며 또한 그곳의 산업 활동을 저지시키는 데 있었다. 심양에 대한 세균전 임무 수행의 목적은 이러한 조건 하에서 에프—86의 최대 행동권을 시험하며 또한 이지역을 병균에 감염된 벼룩과 파리 및 모기들로써 병균을 전파시킴으로써 산업활동을 저지하는 데 있었다.

내가 제4 전투기 련대에 배속되여 있었을 때, 우리들은 3개 중대 간에서 이 세균전 임무를 륜번으로 실행하는 것을 관례로 하였다.

우리들이 선차로 수차의 세균전 임무를 수행한 다음 우리들이 받은 세균 탕크들은 종류가 다른 것을 알게 되였다. 이 세균 탕크들은 그 형태가 타원형으로부터 원형으로 변하였다. 또한 세균 탕크들은 기준형 탕크보다 약간 작았다. 이 변화는

임무 수행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또한 세균 탕크의 취급 절차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 임무는 4대 내지 8대의 항공기들의 비행을 필요로 하였다. 세균 탕크들이 세균을 산포한 다음에 항공기는 높이 떠올랐으며 또한 대대의 기타 항공기들과 함께 다시금 순회하였다.

비행사들은 세균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행하는 것을 그리 좋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가 없어진 다음에 그들은 모두 세균전임무 지시대로 수행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자연 압록강 이북에 대한 세균전 임무 수행에 있어서는 비행사들이 중국 본토에 비행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불쾌한 것이였다.

1952년 4월 20일 경 나는 제5 공군 작전 장교인 메존 대좌로부터 제5 공군 사령부 (서울)에 보고하라는 명령을 전화로 받았다. 나는 명령대로 보고하였다.

메존 대좌는 처음부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에버레스트 장군은 모든 조건 하에서 우리의 항공기가 비행을 하며 또한 기지로 돌아올 수 있는 최대 한도의 행동권에 관하여 그에게 보고를 제출할 것을 제4 전투 요격 대대에 요구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말을 메존 대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에버레스트 장군은 여기에 있어 폭탄과 연료 적재의 모든 조건과 실제 전투 조건들을 고려에 넣은 것이다.

이 정보를 수집 하는 목적은 제5 공군이 필요한 자료들을 입수하는 데 있었다.

나는 제4 전투기 대대가 종전 폭탄을 적재한 일이 없으며 자료는 우리에게 입수될 수 없다는 론의를 제기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서 메존 대좌는 제4 전투 요격 대대로 하여금 세균탄을 적재하는 일부의 임무를 실제적으로 수행케 하겠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우리의 첫 공격을 위하여 신의주 시를 목표로 지정하였으며 기타의 목표는 후에 지정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들은 1개의 세균탄과 1개의 외부 탕크를 적재할 것이였다. 그는 세균탄이 발전 하였으며 극동 공군은 제4 전투 요격 련대에 대하여 이러한 형태의 폭탄을 투하하는 실험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말하였다.

메존 대좌는 우리들이 다음의 두 가지 리유로써 세균 폭탄을 적재한다고 말하였다. 즉 한가지 리유는 고공으로부터 세균탄을 투하하는 것을 실험 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리유는 우리들이 이러한 조건 하에 에프—86의 최대한의 행동권을 실험하는 것이다.

메존 대좌는 그의 말의 마지막 부분에서 세균 폭탄들이 말라리야, 티브스, 열병 및 페스트 병균에 감염된 모기, 벼룩 및 파리들을 포함하는 간을 가진 형태를 구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세균 폭탄들은 세균 탕크들을 취급하며 또한 항공기에 적재하는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되며 또한 항공기에 적재되는 것이였다. 우리들은 가급적으로 속히 세균 폭탄 적재 장치를 항공기에 장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였다.

그는 매개 임무 수행에 앞서 대구로부터 항공기로 적절한 세균 폭탄 보급을 실시하게 할 것이였다.

내가 케이—14에 도라왔을 때 나는 즉시 메존 대좌가 우리에게 준 지시들을 타잉 대좌에게 보고하였다. 우리들은 세균 폭탄들을 적재하기 위하여 1개 중대, 즉 제334 중대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타잉 대좌는 련대의 자재 담당 장교를 불러 제334중대로 하여금 세균 폭탄 적재 장치를 확보케 하기 위한 필요한 지시들을 주었다. 나는 제334 중대장 마틴 소좌와 접촉을 유지하고 그에게 이 계획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즉 나는 그가 공격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또한 그 중대의 병기과 인원들에게 조언을 주라고 그에게 말하였다.

1952년 5월 1일에 마틴 소좌는 모든 항공기들이 세균 폭탄 적재 장치들을 장치하였으며 출격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나에게 보고하였다. 나는 이것을 타잉 대좌에게 보고하였으며 타잉 대좌는 모든 것이 준비되였다고 메존 대좌에게 보고하였다.

5월 3일부터 시작하여 우리들은 세균 폭탄 투하 임무를 위한 지시들을 받기 시작하였다.

나는 제4 전투 요격 련대에 배속되여 있을 동안 도합 5회의 세균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나는 1952년 5월3일에 내가참가한 세균전 임무에관하여 상세히 말하겠다.

1952년 5월 2일 20시경에 우리들은 제5 공군 사령부로부터 신의주시 남부에 대한 첫번째 세균탄투하 임무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20시 30분에 대대 작전 비행기들은 기지 수송 장교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1대의 수송기는 수송기들이 제4 전투 요격기 대대를 위한 군수품 물자를 적재하고 케이—14에 도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내가 이 정보를 입수하였을 때, 나는 수송기로부터 세균탄을 해하하는 즉시로 제334중대의 에프—86 젯트기 12대에 폭탄을 장치하기 위하여 준비를 갖추도록 필요한 행동을 취하라고 마틴 소좌에게 지시하였다.

우리들은 그 다음으로 이른 아침의 세균 폭탄 투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출격 전의 명령 하달은 1952년 5월 3일 6시에 실시되였다.

타잉 대좌는 그가 전투기 지휘관으로 되여 있었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 출석하였다.

다음에 렬거한 것은 내가 기억하는 그 당시의 항공기 략호 및 전투 지휘자들의 명단이다.

존 에이블 스페샬(특수)…대대장 마후린 대좌

존 베이커 스페샬…………대대장 대리 쿤 중좌

존 찰 리 스페샬…………제334 중대장 마틴 소좌

존 레 드………………………제336 중대장 아슬라 소좌

존 화이트……………………제336 중대장 킨 대위

존 블 류……………………대대 작전 참모웨브 대위

존 블랙크……………………제335 중대장 아멜 소좌

존 그 린……………………제335 중대 전투 지휘관 러브 대위

존 옐로우……………………련대장 타잉 대좌

존 또 그……………………제334 중대장 대리

존 파 플……………………제335 중대 전투 지휘관 래트쇼우 대위

리들랜드 중좌는 우리들과 동시에 전투 지역에 출현할 다른련대들의 상세한 정황을 설명함으로써 그의 작전 명령 하달을 시작하였다. 이에 뒤이어 나는 대대에 작전 명령을 하달하였다.

나는 비행사들에게 우리들이 각각 2분의 간격을 두고 리륙할 것을 지시하였다. 모든 항공기들은 압록강 하구까지 전진하여야 할 것이였다. 순찰대는 압록강 남부에서 수풍 저수지와 황하 간을 왕복할 것이였다.

만일 적 항공기와 조우할 때는 개개의 항공기들이 이에 따라 행동할 것이였다.

주요 명령 하달이 있은 다음, 나는 세균전 항공기들의 비행에 관하여 명령을 하달하였다. 목표 지역은 신의주시 남쪽이였다. 세균 폭탄들은 500폰드 폭탄 (일반적 목적에 사용되는 형태)과 비슷하였으며 이 폭탄들은 세균 탕크들에 넣은 형태의 세균곤충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염된 곤충들을 포함하는 여러개의 간으로 나뉘여졌다. 일단 세균 폭탄들이 작렬하면 세균들은 목표 지구 주변 지역에 산포될 것이였다 나는 우리들이 1개의 연료탕크와 1개의 세균 폭탄을 적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리들이 목표 지점 상공에 도달하자마자 우리들은 세균 폭탄들을 투하할 것이였다. 세균 폭탄들을 투하한 다음 우리들은 항공기 들을 정돈하고 케이—14에 도라올 것이였다. 매개의 세균탄 항공기 지휘관은 그가 진행하려는 폭격에 관하여 그 자신의 항공기에 대하여 작전 명령을 하달하여야 하였다.

즉시 세균탄 투하를 위한 비행은 계획대로 실시되였다. 목표 지점에로 향하는 도중 수명의 비행사들은 투탄 장치를 잘못 조종하여 서투르게도 목표 지역에 도달하기도 전에 연료와 세균 폭탄을 동시에 투하하였다. 신의주시 부근 지역에 도합 9개의 세균 폭탄들이 투하되였다.

우리들은 착륙한 이후 목명실에서 정보 장교 리들랜드 중좌에게 우리의 활동 정형을 보고 하였다. 확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세균 폭탄들은 목표 지역 내에 투탄되였다. 정확한 결과는 비행사들이 폭탄의 폭발을 목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곤난 하였다.

내가 제4 전투 요격기 대대에 배속되여 있을 동안 이 모든 세균전 임무는 내가 방금 위에 서술한 바와 거의 동일한 형식을 취하였다.

1952년 5월 13일에 나는 북조선 군우리로부터의 고사포화로 말미암아 격추 당하였다. 뒤이어 나는 조선 공민들에게 포로 당하였다.

미 공군 대좌 군번호 8658에이

워 커 엠 • 마 후 린

1953년 5월 10일

북 조 선

18. 미 공군 대좌 앤드류 제이•에반스의 증언

나의 이름은 앤드류 제이•에반스이며, 미국 공군 대좌이고 군 번호는 4072 에이 이며, 년령은 34세이다. 나는 1941년 6월 웨스트포인트로부터 군무에 복무하게 되였으며 그 이후 계속 복무 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는 구라파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있었다. 미국에 도라 왔을 때 나는 1946년 3월부터 1947년 8월 까지 공군대학 서기대리로 되였으며 1947년 9월부터 1948년 6월까지공군 고급 사관 학생으로 있었으며, 1948년 7월부터 1950년 6월까지 합동 참모 본부 내 합동 수송 계획반에 복무 하였으며, 1950년 7월부터 1951년 7월까지 공군참모장 대리 보좌관으로 있었으며, 1951년 8 월부터 1952년 6월까지 알라바마주 막스웰 항공 군관 학교 학생으로 있었다.

1952년 4월 내가 항공 군관학교 학생으로 있을 때 제5 공군 배치의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미 공군 총 사령부 로부터 발령된 것이였으며 나를 제 4 전투기 련대에 배치한다고 씌여 있었다.

그러나 그당시 나는 젯트 비행사가 아니였으므로 그들은 내가 조선에 가기 전에 먼저젯트로 전환하고 전투 승무원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하였다. 항공 군관 학교를 졸업하자 나는 7월 15일부터 7월 28일까지에 젯트로 전환하기 위하여 캔사스주 위치타 공군 기지로 왔으며 그 후 전투 승무원 훈련을 받기 위하여 1952년 8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네바다 주 넬리스 공군 기지에 갔다.

극동에 도착하였을 때 나는 내가 제4 전투기 련대로부터 제49 전투 폭격기 련대로 달리 배치되였음을 알았다. 나는 조선에 도착하여 1952년 11월 10일 제49련대에 부임하였다.

나는 1953년 3월 15일까지 제49련대의 부련대장으로 있었으며 내가 1953년 3월 3일 격추 당할 때 까지 제58 전투 폭격기 련대 부련대장으로 있었다.

이 두 련대에 복무하고 있던 기간 나는 총 회수 67차에 걸쳐 전투 임무를 띠고 비행하였으며 그중 8차에 걸쳐세균 무기를 휴대 하였다. 부 련대장으로서 나는 세균 무기에 관련하여 전 련대의 활동을 감독 함에 있어서 련대장을 보좌 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사실상 내가 처음으로 세균 무기에 접하였고 이것이 조선에서 사용될지 모르겠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은 1951년 1월이였다. 그 당시 나는 미 공군 참모장 반덴버그 대장의 대리인 그루쎈도르프 중장의 보좌관으로 있었다.

대리 장교로서 그루쎈도르프 중장은 공군 참모부의 행정 사무를 담당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자연 일부 극비에 속하는 일에 관련하게 되였다. 어떤날 우리들은 조선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관하여 담화한 일이 있다. 우리들은 중국군대가 참전한이래 조선에서 사태가 전도된 데 대하여 이야기 하였는 데 그때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합동 참모본부는 조선에서 세균 무기를 준비할 것과 이를 사용할 것을 승인하였다. 세균 무기 연구 제조 사령부는 1951년 말까지 이 계획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계획은 앞으로 전쟁 행정에서 다소 효과를 얻게 될는지는 모른다』.

항공 군관 학교에 재학중 우리들은 미국에서 연구중에 있는 장래에 사용될 무기들에 관한 일련의 강습을 받은 일이 있다. 이 강습에는 원자탄 수소탄, 유도 병기 및 세균 무기 등이 포함 되였다. 우리반에는 132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좌는 3명밖에 없었다. 우리의 계급과 직무는 우리들로 하여금 1년 동안에 많은 극비에 속하는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였다.

1951년 9월 중순 우리들은 메리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세균 무기 연구 제조 사령부의 분석학자로부터 21시간의 강습을 받았다. 강사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으나 그는 세균 연구 계획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었다.

이 강습은 이미 실험해 본 많은 종류의 세균병들과 이 무기를 산포하는 방법에 관하여 진행 되였다. 실험 중에 있는 많은 종류도 있었으나 그 이름들은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너무나 기술적인 것이였다. 알아 듣기 쉬운 말로 기억 나는 것은 발진티브스, 티프스, 코레라, 말라리야, 열대지 면병 및 재귀열 등이 였다. 그는 매개세균이 무엇에 대하여 사용되여야 하는가, 즉 인간과 식물의 생명에 대한 효과들, 어떠한 지역에 완전한 효과를 내는데 필요한 수효 및 매개 세균들이 투하 되였을 때 얼마 동안 생명을 유지하는가 등과 같은 문제에 언급하였다. 그는 세균들과 세균을 매개한 곤충들이 실험중에 있다고 말 하였다. 세균 무기는 폭탄이나 탕크의 수단으로써 공급 되였다. 세균탄에는 충격 발화신관이나 또는 브이•티신관을 사용하도록 되였으며 이것들은 세균탄이 폭발하였을 때 분해시키려는 것이다. 두 종류의 탕크가 실험 되 였는 데 한 종류는 투하 탕크로 사용될 것이며 다른한종류는 화학 무기 탕크처럼 산포를 위하여 세균을 용해한 액체를 넣어 두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그는 이 연구들이 만족스럽게 진전 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앞으로 조선에서 실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1952년 8월부터 10월까지 멜리스 공군 기지에서 전투 승무원 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 나는 일반 비행사의 전술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균 작전에 관한 강습을수차 받았다. 이 학교는 에프86비행사들의 학교 이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에프86작전에 대한 학습을 하였다. 그 당시 에프 86은 세균 탄과 세균투하 탕크들을 가지고 출격 하였다. 어떤 편대를 적용할 것인가, 비행 고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 장비의 조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행 거리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등과 같은 작전상의 기술 문제들이 토의 되였다.

나는 1952년 10월 15일 전투 훈련을 끝마치고 알라바마주 몬트고메리에 있는 집으로 도라가서 해외로 출발하기 까지의 며칠 간을 보냈다.

1952년 11월 4일 나는 도꾜에 도착 하여 11월 5일 메이지 삘딩에 있는 극동 공군 사령부에 출두 하였다. 그 당시 극동 공군 참모부의 인사 관계를 취급하는 참모장

대리인 그릴스 준장은 나에게 제 4련 대에는 또 한사람의 대좌가 있을 필요가 없게 되였는데 제49련대에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련대장 대리를 파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 하였다.

11월 9일 나는 조선으로 가서 1952년 11월 10일 아침, 제5 공군 사령관 대리 워버튼 준장에게 출두하였다.

내가 출두한 소위 제5 공군 후방 사령부는 대구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제5 공군 사령부의 전투 작전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성원들을 제외한 기타 성원들은 모두이 후방 사령부에 있었다. 전투 부서들은 서울에 있는 제5 공군 전선 사령부에 속하여 있었다. 그러나 제5 공군 후방 사령부는 서울이 폭격 당하거나 점령 당할 경우를 위하여 후보 전투 사령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워버튼 준장 자신은 제5 공군 부사령관으로서 전투 작전과 밀접한 련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5공군 후방 사령부와 전선 사령부간을 래왕하고 있었다.

제5 공군에 부임하는 모든 대좌들은 준수하여야 할 절차가 있다. 그들은 우선 3, 4일 동안에 제5공군 활동에 관한 방향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 절차로 제5 공군 사령관인 버커스장군을 만나기 위하여 제5 공군 전선 사령부로 가는 것이다. 이 방문의 목적은 사령관과 친히 면접하고 공동 작전 본부의 기능을 시찰하는 데 있다. 그리고 전선에 있는 지상 부대도 방문하는 것이 관례로 되여 있다. 나의 경우에는 워버튼 준장과 면회하고 방향을 제시받 았으나 병으로 말미암아 남아지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

워버튼 준장과의 담화에서 그는 우선 그 당시 제5공군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한 작전계획을 말 하였다. 이 작전은 유명한『교살 작전』이 였다. 이 작전은 적에 대한 수송 보급을 차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작전은 교량, 도로, 철도 보급 중심지, 군대 집결초등 적들의 보급 체계에 봉사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폭격 하는 것으로써 진행 되였다.

우리 지상 부대들에 대한 밀접한 원호 작전도 기타 작전들과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제5 공군의 부담한 기능의 하나라고 설명 하였다. 워버튼 준장은 제5 공군의 정규적인 사명을 설명한후 제5 공군의 세균전 활동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제5공군의' 세균 활동은 공군이 그 당시 제작한 이 무기를 실지로 실험 하라는 1951년 10월 부 합동 참모 본부의 결정에 따라 시작 되였다고 말하였다. 케—8기지에 있는 제3 비29 폭격기 련대는 극동 공군 폭격기 사령부 소속 비29들과 함께 1951년 11월에 이와 같은 첫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들의 성공에 뒤이어 이 계획은 정식적으로 승인 되여 1951년 12월에 정규적인 사명이 개시되였다. 그후 얼마 안되여 12월에도 합동 참모 본부는 자기 계획중에 압록강 북방에까지 세균전을 확대할 사명에 관하여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은 1952년 1월에 실시 되였다.

그는 또한 이 세균전 활동이 시초에는 소 규모로 시작 되였으며 점차적으로 전부대를 계획중에 인입할 계획을 수립 하였다고 말하였다 세균 매개 체와 세균무기

들의 공급은 초기 계획에 있어서는 그量이 제한 되였다. 그는 海병 대도 이 활동에 포함 되였다고 말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우리들의 담화 중에서 매개 련대의 세균전 활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워버튼 준장은 그 당시 제5 공군의 모든 련대들이 참가하고 있다고 말 하였다. 비 26들은 주로 야간을 리용하여 청천강 남방의 적의 주요한 수송로를 따라서 세균 무기작전을 진행 하였다. 전투 폭격기 련대들은 주간에 북 조선 전역에 걸친 목표에 대하여서만 세균전 사명을 수행 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주로 청천강 남방에 국한 되였다. 에프 86들은 주로 청천강과 압록강 간의 지역에서 작전을 전개 하였다. 그러나 제5 공군이 이 지역에 관계 없는 어떤 부대들에 대하여도 목표를 지정하여 줄 수 있었다. 압록강 북방에 대한 세균전 실시에 대하여 그는 이 임무가 제5 공군 사령부의 결정으로 다른 부대들에도 할당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균 제조 자재들이 도꾜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제조 되여 비행기로 조선에 수송 되여 그곳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폭탄껍질과 탕크에 넣는다고 말하였다. 500폰드, 1000 폰드 쥐•피형의 세균 폭탄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에프 86 들은 투하 탕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어떤 부대들은 그 때로부터 얼마 전에 화학 전쟁에서 사용하는 산포 탕크와 류사하게 용해체를 담은 산포 탕크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제 5공군에서의 세균전 사명 실행 계획을 토의함에 있어 워버튼 준장은 매일의 작전 명령이 모든 련대에 발포된다고 말하였다. 그날 계획된 련대의 비행 사명은 모두 이런 것이 였다. 인원수, 항공기 대수, 목표, 시간, 병기 적재, 그리고 사명과 관련된 기타 특수 지시들이 내렸다. 이것이 세균전 및 정상적 전쟁에 대한 제5 공군의 활동을 위한 매일의 동일한 계획이 였으나 련대 내부에서 사소한 변경도 있을 수 없었다. 련대장들은 어떠한 사명을 리행함에 있어서 세균 무기를 포함한 병기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나와의 토론은 끝마치면서 워버튼 준장은 세균 작전의 비밀 보장을 비록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폭로하였지만 여전히 극히 중요하다는 것과 이 계획에 참가하는 것은 중대한 책임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지적 하였다.

10일 오후 나는 바로 대구 시외에 위치한 제49 련대장 로저스 대좌와 만났다.

그곳에 체류한 첫수일 동안 나는 그의 사무실에서 그와 여러번 담화 하였다. 이 담화들에서 그는 제49 련대의 전투 활동에 관한 전반적 개요를 나에게 이야기 하였다. 「교살작전」이라는 전투 작전에서 제49 련대가 맡은 역할과 긴밀한 지원에 관 하여 수차토론이 있은 후 그는 제49 련대가 세균 전쟁에 참가할 데 대한 방침을 나에게 이야기 하였다.

배경을 개관하면서 그는 비 29와 비 26들이 시험과 작전 개시에 뒤이어 1952년 2월 그들이 소규모로 이 작전에 참가 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하였다.

처음에는 제7 중대에서 네번의 출동에서 단 한번만 세균을 실을 것이 계획되였

다. 그 다음에는 4대의 비행기로 각각 구성된 제8 및 제9의 두 중대들이 그 후 수개월 동안 세균탄을 실을 것이 계획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균전 출격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세번의 출동을 교대할 데 대한 계획을 수립 하였다.

그리고 그는 또한 제49련대가 1952년 4월 압록강 북방에로 세균전 출격을 개시 하였다는 데 대하여서도 말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세균 작전의 규모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그는 이 작전이 처음에는 가끔 진행 되였으나 후에는 세균탄의 공급의 증대에 따라 빈번하여 졌다고 말 하였다 .세균탄의증대된 공급을 받음에 따라 그들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훈련된 비행사들을 준비 하기 위하여 세균 작전에 경험이 있는 비행사들로 하여금 지상 학교에서 이 문제에 관한 강의를 하도록 하였다.

10월 1일까지는 제49 련대가 그의 세균 작전에서 오직 세균 탄만을 사용하였으나 그 후에는 새로운 무기, 즉 세균액 산포 탕크를 사용하기 시작 하였다고 그는 말 하였다. 그는 이 탕크가 120가론의 용적을 가지며 외관상 연료 탕크와 류사하다고 말하였다.

비행사 좌석에서 조종을 할 때에는 이 탕크들은 그 후면으로부터 세균 용액을 계속 내여 뿜어 그것이 목표 지역에 덮인다.

이 산포 탕크들과 폭탄들의 사용이 그의 련대의 활동 규모를 크게 한다고 그는 말 하였다.

그가 그때에 말한 이러한 사명을 련대가 보통 리행하는 방법은 제5공군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전달되는 정상적 작전 계획 속에 포함 되여 있는 세균전 비행을 하는 것이 였다. 즉 만일 그들이 세균 무기 사용에 적당한 목표에 대하여 24대의 항공기를 출동시키기로 계획 하였다면 이 사명을 가진 소여의 수의 항공기는 보통 병기 대신에 세균 무기를실도록 지시를 받는다.

이 사명을 리행하는 세균 무기를 실은 항공기 수는 각이하였다.

1952년 11월 19일경 미공군 참모 총장 반덴버그 대장은 제5 공군 사령관 버커스 중장과 함께 우리 련대를 방문하였다.

이날 오후 2시경 반덴버그 대장, 버커스 중장, 로저스대좌, 나, 그리고 제49 전투기 대대장 오르 대좌는 기지의 시찰을 끝마친 후 로저스대좌의 사무실에서 짧은 담화를 하고 있었다.

이때 토론은 주로 공산군의 계속되는 공급을저지 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였다. 우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공급은 주로 야간에 트럭 수송에 의하여 부단히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되였다. 비 26들이 이 야간 수송을 저지하기 위하여 출동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작전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반덴버그 대장은 그가 워싱톤을 떠나기 전에 적들의 주요 교통선에 대하여 전투폭격기들의 야간 작전 실험을 진행할 것을 버커스 중장에게 지시하였었다고 말하

였다. 이것은 미국 공군에서는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고안이였다. 버커스 중장과 몇몇 련대 지휘관들과 담화한 후 그는 전투 폭격기들을 위한 일정한 야간 작전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그는 또한 그가 버커스 중장과 제5공군의 세균전 작전에 관하여서도 토의하였다고 말하였다. 세균전에서 달성된 성과에 대하여 실망을 표시하면서 그는 세균 작전을 위하여 야간 전투 폭격기를 잘 리용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사용될 무기 선정된 목표 및 훈련된 비행사들과 같은 요소들에 기초한 계획에 포함될 세균전 사명의 세측들과 조항을 버커스 중장에게 보내고 있다고 시사하였다.

반덴버그 대장과의 토론은 부득이 짧았다. 그것은 그가 조선에 있는 다른 련대들과 기지들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였다.

케이 2를 떠나기 전 그는 그곳에 있는 제58련대도 방문하였다.

버커스 중장은 그 익일 10시에 서울에 있는 제5공군 사령부에서 전체 전투 폭격기대 지휘관들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 회의의 목적은 반덴버그 장군의 지시에 근거하여 전투 폭격기들을 야간에 출동 시킬 데 관한 계획을작성하는 데 있었다. 로저스 대좌는 이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도라와 그는 그 익일 8시에 제5공군의 결정을 전달하며 앞으로 련대가 수행할 임무를 토의하기 위하여 련대 참모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 참가한 것은 련대 작전 장교 메이어즈 중좌, 전투기 대대장오르대좌, 전투기 대대 작전 장교 리커트 소좌, 련대 정보 장교 커니온 대위, 련대 병기 장교 먼스 소좌, 로저스 대좌, 그리고 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로저스 대좌는 제5 공군 회의에서 행하여진 토의들과 결정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다. 그는 3개 에프84 비행 련대들과 1개 에프80비행련대들이 이계획에 참가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매일밤 이 비행 련대들 중 2개만이 활동할 것이며 그리고 다음에 하루밤씩 두고 기타의 두련대가 출동하게 될 것이다. 야간 활동중에 각 련대는 8개의 비행기를 갖게될것이다.

목표 지역들은 북조선에 있는 주요 교통선의 어떤 하나로 될 것이나 전투 폭격기 활동에 지정된 주요 지구는 정주로부터 신안주, 평양을 거쳐 해주에 이르는 도로들과 평양으로부터 전선에 이르는 도로들로 될 것이 예견되였다.

야간 출격은 주간 출격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 명령에 의하여 예정될 것이며 밤사이에 교대될 것이 예견되였다.

예정 시간은 그날 밤에 나르는 항공 대대들에 각각 지정하여 주어 한 항공 련대에 속하는 모든 비행기들이 다른 련대가 출발하기 전에 떠날 수 있도록 할 것이 예견되였다.

그 야간 계획 중 세균전에 관한 부분은 각 항공 련대에 속하여 출동하는 8대의 비행기 중 2대로 구성될 것이 예견되였다. 이 두 비행기는 보통 정상적인 야간 출격에 포함될 것이 예견되였다. 즉 이 비행기들은 같은 교통로를 따라 비행하며 비행기들이 정규적으로 따르는 같은 교통선들을 따라 그리고 같은 방식을 따라 목표

지구들에 나르며 이 지구들로부터 날아올 것이 예견 되였다. 정상적인 출격과 같이 단 하나의 선박 출격이예견되였다.

제5 공군이 야간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세균 무기는 1,000폰드 및 500폰드형의 세균 폭탄들과 세균 산포 탕크들이였다. 때로는 폭탄들을 수송할 때 한 비행기에 한개의 쥐•피형 폭탄과 한개의 세균탄이 수송될때도 있고 두개의 세균탄이 수송될 때도 있었다. 산포탕크를 사용할 때에는 120갤론형 탕크들이 언제나 수송되였다.

이 무기들을 사용하기 위한 전술들은 각 련대들에 마껴졌다.

그러나 산포 탕크들은 도로에 왕래가 있든 없든 간에 주로 공로들을 따라 사용할것이 예견되였다. 이와같이 하여 세균들은 공로를 따라 적군의행로나 또는 거주지구들에 투하될 것이 예견되였다. 폭탄들은 주로 발견된 화물 자동차 통행과 주요 공급 중심지들에 사용되여야 하였다. 이리하여 전선에 수송되는 보급 물자들이 세균에 감염될 것이 예견되였다.

제5 공군의 이와같은 결정에 대하여 우리 련대 회의에서 토론이 있은 후 우리는 야간 계획을 실시하는 데 우리들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토의하였다.

우리가 이 야간 활동에 사용될 비행사들의 선택을 결정하는 방법은 오르 대좌의 제의에 의하여 결정되였다. 그의 제의는 40회의 주간 출격을 하고 남조선 상공에서 10시간의 야간 비행 련습을 한 모든 비행사들을 우리가 사용하자는 것이였다. 또한 40회 출격 수준에 가까운 비행사들이 10시간의 야간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야간 훈련 계획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

우리는 또한 중대들 사이에 8명을 분배할 방법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리하여 제1야에 제7 중대가 4명의 비행사를 제공하며 기타 2개 중대는 각각 2명씩을제공하며 그다음날 밤에는 제8중대가 4명을 제공하며 이렇게 륜번제로 할것이 결정되였다.

그날 밤 4대의 항공기를 출동시킬 중대는 세균 무기를 싣고 갈 2대의 항공기를 가진 중대가 원칙적으로 출동하기로 되여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전술에 관하여 토의하고 폭탄을 싣고 가는 비행기에 적용되는 전술은 그것이 쥐•피 폭탄을 싣고 가든지 또는 세균탄을 싣고 가든지간에 동일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목표지와 이 지역의 지상교통을 관찰하기 위하여 우리는 목표지 상공에서 15,000 피트의 고도를 유지하면서 비행하기로 되여 있었다.

화물 자동차의 탐조등 불줄기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 불줄기 바로 뒤에 위치를 취하고 자동차가 다니는 통로를 따라 5천피트의 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하기로 되여 있었다. 산포탕크를 사용하는 절차는 달빛이나 화물 자동차의 탐조등 빛에 비쳐보이는 도로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도로 상공을 따라 비행하면서 2000내지 3000 피트의 고도에서 세균 용액을 방출하는 것이였다.

우리는 또한 야간 임무에 대한 명령을 매 오후마다 정식 명령 전달실에서 전달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날 밤 야간 임무를 담당한 모든 비행사들은 대대장 및 중대장의 명령을 받기 위하여 모이기로 하였다. 세균 무기를 싣고 가는 2명의 비행사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명령을 하지않기로 하였다. 이 명령 가운데서 목표지 목표상공 도달 시각, 무전 련락처 목표지에의 왕래 항로, 비행 고도, 항로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비교적 중요치 않은 기타 세목들은 대대장 및 중대장에게 위임하였다. 제49련대가 다음날 밤, 즉 1952년 11월 22일에 출동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로저스대좌의 명령을 받고 우리 련대는 이점에 관하여 토의하기 위하여 회합을 가졌다.

실지에 있어서 야간 임무 계획은 시초의 계획대로 준수되였다. 야간 임무 계획과 시초의 계획이 다른점은 단지 이것이 때때로 야간 교대제가 준수되지 않았으며 한 련대가 며칠밤 계속 출동하기로 예정된 것이였다. 그러나 천기 불순 관계로 한 련대가 수일밤 계속 출동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계획 사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야간 임무에 참가한 매개 련대는 평균 1개월에 10일밤 출동하였으며 이 10일밤 매 밤마다 2척의 선박이 세균 무기를 운반하였다.

1952년 12월 20일 경에 제49 전투 대대가 일본으로 이동되였기 때문에 우리의 주간 세균전 출격률은 3분의 1 감소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과 같은 회수로 계속 출동하였기 때문에 야간 세균전에는 영향이 없었다.

1953년 3월 15일 제49 전투 대대는 제58 련대 본부 휘하에 있는 제58 전투 대대와 병합되였다. 제49 련대 본부는 해체되였다. 로저스 대좌는 제5 공군 사령부에 작전 장교 보좌관으로 이동되였으며 나는 제58 련대 련대장이였던 워포드 대좌의 대리자로 되였다.

따라서 나는 제49 련대에 약 4개월 반 근무하였으며 제58 대대에 10일간 근무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총계 67회에 걸쳐 출동하였으며 그 중 8회는 세균 무기를 싣고 출동하였다. 이 8회 중에서 신안주 지역에 2회, 정주 및 평양 부근에 야간에 2회, 원산 부근에 1회, 전선 후방 25마일 근방에 1회, 만포진 부근에 1회, 압록강 북부에 1회 출동하였다. 세균전 출격에 내가 처음으로 참가한 것은 1952년 12월 28일 경이였다.

나는 제7중대 제8소대 소대장이 였다. 련대 작전 장교는 우리에게 명령을 전달하면서 전선 후방철원 서북 약 25——30마일 되는 지점에 있는 보급 및 군대 소재 지역인 건물들이 있는 목표지를 가리켜 주었다. 그는 매일 작전 계획에 의하여 10시 15분에 목표를 공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1,000 폰드의 쥐피폭탄 외에 4개의 1천폰드 세균탄을 목표물 공격에 사용하기 위하여 싣고 가라는 작전 명령도 시달되였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호출 신호와 레다 련락처를 가르쳐 주었으며 우리는 출동 및 귀환시에 보고하기로 되여있었다. 다음으로 련대 정보 장교가 지도와 목표의 사진을 내 놓고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목표지에 있는 고사포 시설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 두 장교의 명령 전달이 끝난 후 나는 비행사들에게 대하여 사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말하였다.

나는 최후의 4대의 비행기들이 세균탄을 싣기로 하고 이 4대의 비행기는 각기 1,000 폰드 쥐·피 폭탄 1개, 세균탄 1개를 실을 것을 명령하였다. 첫 4대의 비행기는 각기 2천 폰드 쥐·피 폭탄 2개들 싣기로 하였으며 모든 신관들은 충격에 의하여 폭발되기로 하였다. 나는 목표물에 대하여 거듭 말하였으며 매개 비행사들에 대하여 목표물의 일부를 그 목표로 할 데 대한 과업을 주고 세균 항공기들에 대하여 목표지에 있는 비동의 가장 큰 건물을 목표로 할 것을 명령하였다. 다음으로 나는 비행기들이 4천 피트의 투탄 고도에서 일직선 편대로 각기 투탄하고 선회하여 목표지로부터 약 15마일에 있는 강위에서 집합할것을 명령하였다.

이 임무의 실지 리행은 이 명령대로 정확히 준수되였다.

다음으로 1월에 나는 세균탄을 싣고 가는 임무를 세번 담당하였다. 그 중 2회는 신안주 지방에 대한 대 작전의 일부이였다.

1월 8일에 버커스 장군은 신안주 주변 지역에대한 대 작전 계획을 토의하기 위하여 련대장 회의를 소집하였다.

당시 로저스 대좌가 출장가고 부재중이였기 때문에 나는 련대장 대리로서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는 1월 8일 9시 서울에 있는 제5 공군 사령부 참모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제5 공군 사령관 버커스 장군, 제5 공군 부사령관 언더힐 준장, 제4 련대의 죤슨 대좌, 제51 련대의 밋췔 대좌, 제18 련대의 페레고 대좌, 제8 련대의 갤라거 대좌, 제58 련대의 워포드 대좌, 제47 련대의 인겔후트 대좌, 제67련대의 버그 대좌, 제17 련대의 웨이곰 대좌, 제3 련대의 르베 일리 대좌, 제5 공군 항공 통제 및 신호 대대의 화이트 대좌, 제5 공군 작전 참모장 대리 브라운 대좌, 제5 공군 정보 장교 스터링 대좌, 제5 공군 전투 작전 장교 오어 대좌 (그는 제49 전투 대대대장으로 부터 1953년 1월 경에 이 직위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제1 해병 항공 련대 련대장 (그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겠다) 이 참가하였다.

버커스 장군은 이 작전에 관한 반덴버그 장군의 명령서를 랑독함으로써 회의를 개회하였다. 이 명령서는 극동 공군 사령관 웨일랜드 장군에게 보낸 것이였는데 웨일랜드는 버커스 장군과 이를 협의할 것을 위임 받고 있었다. 이 명령서의 내용은 동북 중국 공업 지대로부터의 조선 전선에 대한 보급 물자 및 장비들의 수송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였다. 보급 물자의 대부분이 안동으로부터 대령강과 청천강을 건너 평양에 이르는 보급 루트에 따라 수송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보급 물자 수송을 방해함에 있어 전 북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지점으로 결정되였다. 동 명령서는 이 두 강에 걸려 있는 교량들을 파괴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작전을 전개하며 이 교량 주변 지역에 세균을 산포할 것을 명령하고 있었다.

제5 공군 정보 장교 스터링 대좌는 이 지역에 관한 정보를 나에게 제공하였다.

그는 이 지역에 있는 도시와 교량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설명하였으며 이것에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적의 모든 고사포 시설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이 지역은 모든 형태의 자동 무기들과 대구경 고사포로써 극히 견고히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자료들에 비추어보아 우리의 손실을 방지하려면 비상한 조치가취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명백하였었다. 대체로 두 가지 반대 의견이 있었다. 하나는 비행대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임무를 주고 하루 종일 분산적으로 목표지의 담당부분에 비행대들을 파견하자는 것이였으며 또 하나는 모든 비행 부대들의 참가하에 매일 계속적인 대 작전을 전개하자는 것이였다. 나 자신으로써는 매개 비행대들이 개별적으로 작전하는 것을 찬성하였다. 나는 이것이 그 전술에 있어서 매개 비행대들에 더 많은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만일 매개 비행대들이 다른 비행대들의 뒤를 즉시 따른다면 달성할 수 없는 공격에서의 어느 정도 놀라운 성과를 개별적인 작전에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버커스 장군은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모든 비행대들이 즉시로 호상 뒤를 따르며 목표에 속히 접근하고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비행대들이 목표 상공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목표 지역 상공은 비행기로 덮이게 될 것이 였으며 고사포가 모든 비행기들을 동시적으로 사격할 수 없을 것이였다. 이점에 관하여 워포드 대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부대들이 호상 방해함이 없이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목표에 도달한 부대들의 밀접한 협동이 필요할 것이다」. 버커스 장군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브라운 대좌에 대하여 련대장을 매일 목표에 대한 작전을 지휘할 항공 사령관으로 임명할 것을 지시하였다. 매개 비행대는 항공 사령관에게 보고 하고 목표에 접근하여 출격명령을 받기로 되여있었다.

둘째번 비행대가 목표에 접근할 때까지 공격 임무를 받은 첫 비행대가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항공 사령관은 둘째번 비행대에 대하여 목표가 명확히 판명될때까지 접근하지 말도록 지시하기로 되여 있었으며 전 작전을 통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되여 있었다.

이 회의의 관측에 의하면 전체 임무를 완수하는 데는 5일간 계속적으로 출격하여야 될 것이며 매개 전투—폭격 비행대는 비26,12대와 해병 항공 대대 항공기 24대, 계 36대의 항공기를 매일 작전에 동원받기로 되여 있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폭격기를 엄호하기 위하여 목표지 상공과 압록강과 목표지 간 상공에 에프86들이 출동하기로 되여있었다. 제18 련대는 케이 55에 있는 새로운 기지에 이동 중에 있었으며 에프51들이 에프86 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련대는 동원되지 않기로 되여 있었다.

전투—폭격 비행대의 36대의 항공기와 해병 항공 대대의 24대의 항공기 중에서 4대의 항공기가 세균 무기를 싣고 가기로 계획되여 있었다. 매개 항공기들은 5백 폰드 세균탄을 싣고 가기로 되여있었다. 그리고 나의 정확한 기억에 의하면 5백 폰드 세균탄 4개를 각기 실은 12대의 항공기 중에서 2대는 비26을 사용하기로 되

여 있었다. 이것은 시초의 계획이였으나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사실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공동 작전 본부의 승인밑에 련대장은 작전 기간에 이 숫자를 변경하자 않을 수 없었다. 세균탄을 사용하는 목적은 목표지 도로와 도시에 세균을 산포하고 이곳을 통과하는 사람들이나 전선에 래왕하는 도중에 야영하는 사람들을 병에 걸리게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리유로 목표지의 도시들과 이도들로부터 교량들에 이르는 도로가 세균탄 투하 목표로 선택되였다.

1953년 1월 10일이 전면적인 작전을 개시하는 첫날로 선택되였다. 그리고 작전이 성공하였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속 작전을 진행하기로 되여있었는데 이것은 5일간 걸릴 것으로 관측되였다. 천기 불순 관계로 1일간 중단되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임무는 10일부터 15일까지 계속되였다. 버커스 장군이 명령한 바와 같이 브라운 대좌는 깰라거대좌를 제1일 항공 사령관, 인겐홋트 대좌를 제2일 항공 사령관, 워포드 대좌를 제3일 항공 사령관, 그리고 그 때까지 돌아오기로 되여 있었던 로저스 대좌를 제4일 항공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제5일 항공 사령관은 필요하다면 후에 선출하기로 되여 있었다.

이 임무를 위한 지역은 영미동으로부터 성흥동, 안주, 신안주 및 영미동에 이르는 지역을 포함하기로 대략 결정되였다.

나는 전체 36대의 항공기를 가진 제49련대의 제1일의 임무 수행을 지휘하였다. 우리의 정규적인 적재 무기는 비행기 1대당 2—1,000폰드의 쥐•피 폭탄들이였다. 우리 련대의 4대의 항공기는 각각 브이•티 신관을 가진 2개의 5백폰드 형 세균 폭탄을 적재한 세균탄 항공기들이였다. 이 세균탄 항공기들의 비행은 우리 편대의 마지막 비행기였다. 그날의 우리의 과업은 영미동 부근의 지역과 교량을 목표로 공격하는 것이였다. 우리들은 공격을 진행한 최초의 젯트기 편대였으며 뒤이어 비 26들이 공격을 진행하였다. 우리들은 북조선의 서해안 상공에 이르러 청천강 하구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돌려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폭격을 하였다.

영미동 부근에 있는 대령강에 가설된 교량과 또한 그 주변의 고사포 진지들에 쥐•피 폭탄들이 투하되였다.

영미동과 교량 간의 도로 연변에 세균탄들이 투하되였다. 우리들은 돌아갈 항로를 잡기 위하여 해안선까지 철수하였다. 우리의 전체 36대의 항공기는 허용된 4분이라는 예정 시간 대로 목표 지점을 떠나 비행하고 있었다.

나는 제4일의 임무 수행을 지도하였는 데 그때는 신안주시와 청천강에 가설된 교량을 공격하는 과업을 받았다. 그전에 받은 손상 때문에 우리들은 다만 26대의 항공기를 받았다. 이 임무의 수행은 첫 임무의 수행과 동일하였다. 적재된 정규적인 폭탄은 충격 발화 신관을 가진 2—1,000폰드의 쥐•피 폭탄이였다. 우리들은 또다시 우리 편대 내의 마지막 항공기에 브이•티 신관을 가진 2—500폰드 형 세균 폭탄을 적재하였다. 쥐•피 폭탄들은 신안주 부근 교량과 그 부근의 고사포 진지들에 투하되였다. 세균 폭탄들은 동시에 북단에 투하되였다. 1월에 나는 상술한 2회의 임무 이외에 다른 또 하나의 세균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임무는 1

월 20일 경에 수행되였으며 또한 이것은 야간에 정기적으로 수행되기로 예견된 것이였다. 나는 그날 밤 세균탄을 가진 우리 편대 중의 2대의 항공기 중 한대를 조종하였다. 평상 대로 이 기간의 야간 임무 수행에서 나는 단독적인 출격을 담당하였다.

나의 목표 지구는 정주로부터 영미동에 이르는 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날 밤 이 지역에 도달하였을 때 시간은 21시 15분이였다. 나는 2개의 500 폰드형 폭탄을 적재하였는 데 하나는 쥐•피 폭탄이며 하나는 브이•티 신관을 가진 세균탄이였다.

나의 목적은 상공으로부터 도로상을 달리는 화물 자동차 수송대를 그들의 헷트라이트에 의하여 발견하고 그들이 대피하기 전 또는 헷트라이트를 끄기 전에 공격하는 것이였다. 세균탄을 작렬시키는 목적은 수개의 화물 자동차들을 파괴하고 수송대의 전진을 막거나 또는 정지시킨 다음 세균탄으로 화물 자동차 내의 인원을 감염시키거나 또는 화물 자동차들에 의하여 제 일선 지역 또는 기타 지역들에 세균을 전파시키는 데 있었다. 나는 처음에 정주를 향하여 비행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내가 공격할 수 있는 화물 자동차들의 집결체를 보기까지 통로를 따라 동남방으로 비행하였다. 그때 나의 고도는 15,000 피트였으며 400 피트까지 강하하여 투탄하였다. 나는 화물 자동차들 간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나 폭탄의 명중 여하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2월에 나는 2차의 세균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행하였다. 한번은 2월 15일 밤 경, 신안주와 평양 간의 교통선에 대한 공격이였다. 이 공격은 1월에 수행한 다른 야간 임무와 동일하였으나 다만 다른 것은 이때 나는 120갤론 형의 세균 산포 탕크들을 적재하였다는 것이다. 나의 목표 지점 상공 도착 시간은 오전 2시였고 나는 이번도 단독 비행하였다. 나는 15,000 피트의 고도에서 평양에 접근하였으며 평양으로 부터 2,3마일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 남쪽으로 향하는 수대의 화물 자동차들을 보았다. 나는 약 2,000피트의 급강하를 실시하고 화물 자동차 대렬 상공을 비행하면서 세균 매개체 용액을 산포하였다. 나는 선회하면서 다시 금 북쪽으로 항로를 잡고 나머지 세균 매개체 용액이 산포되기까지 도로 상공을 비행하였다.

2월에 수행한 나의 기타의 세균전 임무는 20일 경에 수행되였는데 그때 나는 원산의 서남† 약 30마일 지점에 있는 보급 중심지와 군대 집결처에 대한 공격에서 16대의 항공기를 지휘하였다. 첫번째 8대의 항공기는 제7중대 소속이며 두번째의 4대는 제1중대 소속이였다. 마지막 4대는 세균탄을 적재한 제8중대 소속이였다. 모든 폭탄들은 1천 폰드 형이였으며 세균 비행기는 1개의 쥐•피 폭탄과 1개의 세균탄을 적재하고 있었다. 이 폭탄들의 모든 신관은 충격으로 발화하게끔 되여 있었다. 우리들은 25,000 피트의 고도에서 그날 오후 16시에 예정 대로 목표 지점에 달하였다. 남쪽 20마일 지점에서 우리들은 12,000 피트까지 급강하하여 일직선 편대로 폭격을 하고 목표 지점 상공 3,000 피트의 최대 고도에서 높이 올랐

다. 우리들이 공격한 20개의 건물 중 약 10개는 파괴를 당한 약간의 징조를 보여 주었다. 2대의 우리 항공기는 소화기 또는 기관총화에 의하여 경상을 입었다. 3월에 나는 또한 2회의 세균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회의 공격은 3월 3일경 만포진 서남부 군사 목표 지점에 대하여 진행되였다. 그날 우리들은 제5 공군으로부터 중국 무장 부대의 사령부 지역으로서 우리에게 설명된 지점에 대한 36대의 항공 작전을 진행할 것을 지시받았다. 우리의 목표 지점 상공도착 시간은 14시경이였으며 적재 무기는 24대의 항공기에 2—500폰드 쥐•피 폭탄으로써 설명된 폭탄이 적재되였으며 기타 12대의 항공기에는 500폰드의 쥐•피 폭탄 및 1개의 세균탄이 적재되였다. 모든 폭탄은 충격으로 발화하는 신관이 장치되였다. 지시문에는 련대의 공격 계획 연구용으로 목표 지역의 사진이 첨부되였다.

명령에 지정된 36대의 항공기를 구성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2개 중대로부터 각각 18대의 항공기를 제공받았다.

제7중대는 전체 20회를 위한 마지막 비행을 구성하게끔 제8중대 소속 비행기 2대와 함께 그의 마지막 비행을 실시하였다. 뒤이어 제 8중대는 16대의 비행기와 함께 공격을 하였으며 마지막 12대는 세균 폭탄을 적재하였다.

이 지역 내의 산지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들은 약 6,000피트의 산지의 고도 수준에서 목표 지점 상공에 도달함으로써 우리의 접근을 엄폐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들이 목표로부터 30마일 거리에 달하였을 때 이 고도에로 강하하여 동쪽으로부터 서쪽 방향으로 목표지점 상공에 달하였다. 우리들은 폭격 비행을 위하여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선회하였다. 목표 지역은 6개의 부문으로 분할되였으며 그 매개는 쥐•피 폭탄만을 적재하는 6대의 비행기로부터 투탄되였다. 그때 세균전 공격 임무는 12대의 세균 항공기 중 각각 2대가 6개로 분할된 목표 지역의 매개 지점에 투탄되게끔 나누어졌다. 목표 지점 동남부에 있는 강계 상공에서 에프 86엄호대가 우리와 만났으며 이 엄호대는 우리들이 낮추 강하하여 폭격을 할 동안 상공을 비행하였다.

3월에 내가 진행한 기타의 세균전 임무는 만포진의 서북쪽에 위치한 만주 집안 부근 지역의 인구 밀집 지대에 대하여 21일에 수행되였다.

나는 각각 브이•티 신관을 가진 2개의 500 폰드형 세균탄을 적재하는 4대의 항공기를 지휘하였다. 우리의 목표 지점 상공 도착 시간은 그날 저녁 17시 30분 경이였다. 우리들이 30,000피트의 고도에서 압록강에 접근하였을 때 우리들은 목표 부근에서 12,000 피트의 고도에로 강하하였다. 목표는 약 3마일 평방의 지역에 산재한 수개의 주민 부락들이였다.

매개의 항공기는 동 지역 내에 있는 한개의 각이한 부락을 개개의 목표로 지정받았다. 우리들이 받은 지시는 바로 6,000 피트의 고도에서 주민 지역의 서북쪽으로 약 1,000 야드 지역에 폭탄들을 투하하라는 것이였다.

그때 브이•티 신관은 지면에 도달하기 전 폭발할 것이였으며 바람이 서북쪽으로부터 불고 있었으므로 곤충들은 동 지역 지상에 전파될 것이였다. 세균 산포

임무는 그 계획대로 수행되였다.

내가 제49 련대에 배속되여 있을 기간에 제5 공군 자재 담당 부참모장 에프•라이트 대좌는 케이 2를 빈번히 방문하였다. 나는 그의 이 방문 과정에서 그와의 수차의 담화를 통하여 세균전 무기들의 보급 및 유지에 관하여 몇가지를 배웠다.

그는 땅크, 폭탄 케스 및 신관이 미국에서 제조되여 조선에 수송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세균 매개체 자체는 도꾜 부근의 공장에서 생산되였다. 이 세균 매개체들은 용기들에 포장되여 조선에 있는 2개소의 세균 무기 창고에 항공기로 수송되였는데 2개소의 세균 무기 창고중 하나는 부산에, 다른 하나는 대구에 있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에프•라이트 대좌는 부산에 있는 세균 무기 창고가 제17, 제3, 제474, 그리고 제18 련대에 보급하였다는 것을 나에게 한번 말한바 있다. 대구에 있는 세균 무기 창고는 제49, 제58, 제8, 제4 및 제51련대에 보급하였다.

내가 미국 공군의 세균전 계획에 참가한데 대한 나의 개인적인 기억은 현재 극히 명확하다. 나는 내가 세균전에 크나 적으나 참가하였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세균전은 모든 인류를 반대하는 한개의 범죄이였으며 또한 제 국가의 군비로부터 항상 비법화되여야 할 것이다. 나는 어떠한 사태 하에서도 이와같은 일에 다시금 참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제58 전투 폭격기 련대 부련대장
4072 미국 공군 대좌
앤드류 제이•에반스
1953년 8월 18일

19. 미 공군 중위 제임스 이•건노의 증언

나는 제임스 이•건노 중위이며 군번호는 에이•오—1909980이다.

나는 1927년 11월 6일 웨스트 버지니아주 사우스 찰레스톤에서 탄생하였다.

1949년 4월에 나는 미 공군에 입대하였다. 나는 1952년 2월 조선에 도착하여 제17 폭격기 련대 제17 폭격기 대대 제37 폭격기 중대에 전투기 비행사로서 배치되였다.

나와 나의 승무원들인 햄메트 중위와 케니 중위는 1952년 6월 7일 북조선에서 격추당하여 내무원에 의하여 포로되였다.

나는 두가지 형태의 세균전 출격 임무를 위하여 비행하였는데 그것은 제이•오•씨 특별 임무와 우리들이 「중대 계획 임무」이라고 부르는것이였다.

제이•오•씨 임무는 제 5공군 합동작전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통제되고 있으며 우리들은 지시를 받고 폭탄을 싣기 위하여 우리 기지로부터 다른 기지로 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1952년 4월 15일 나는 전투 임무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고 대대 작전부에 골 출

투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나와 나의 승무원들이 대대 작전부에 도착하였을때 우리들은 제이·오·찌 특별 임무를 위하여 즉시로 케이—46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는 이 임무가 그 어떤 중대한 목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비행기에 뛰여 올라 최대한의 속도로 케이—46으로 날아갔다.

우리는 그곳에 15시에 도착하였는데 뜻밖에도 지시를 받기 위하여 21 시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이 내렸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21시에 기지 작전부에 출두하였다. 10분 후 한 사람의 소좌가 나타나 곧 실내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였다. 그는 극히 사무적인 방법으로 지시를 전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의 비행기에는 500폰드 폭탄과 크기가 같은 4개의 세균탄을 싣게 된다 이 폭탄들은 만주 국경으로 부터 약 40마일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통화 근방에 투하되여야 한다』.

다음으로 그는 적의 레다 때문에 목표에로 갈때와 돌아올때에 다 가능한 저공으로 비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케이—46으로부터 케이—47—철원—원산—함흥—장진 저수지를 통과하는 코스를 7,000피트의 고도로 비행한 다음 저공으로 통화에 들어갈 것을 지시하였다.

우리들은 동일한 코스로 귀환해야 하였으며 케이—46에서 보고해야 하였다. 소좌는 우리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타 지시들을 주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우리들은 문형 세균탄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것을 알았으며 소좌가 조급한 태도를 취하며 출발할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관심 없이 비행기를 빨리 검사하였다. 나는 엔징을 걸고 소좌가 『만일 당신이 만주령내에 들어서거든 곧 세균탄을 투하하라. 그리고 포로되거든 항로를 잃어 여기에 오게 되였다고 말하라』 라고 한 대좌의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리륙하였다.

우리들은 케이—47과 철원을 지나 전선을 뚜렷이 알려주는 탑조등을 보았다. 우리들은 날아가는 로켓트 탄들과 아랫쪽에서 둥둥 뜨고 있는 조명탄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불빛들이 없어지고 적 지역에 들어서게 되였다.

우리들은 지시된 코스를 따라 계속 비행하였으며 장진 저수지를 지났다. 이 곳에서 나는 최저 고도로 내려가서 산사이를 안전하게 날았다.

나는 항법사와 나자신이 앞을 더 잘보게 하기 위하여 좌석에 켜진 전등의 대부분을 꺼버렸다.

항법사는 지도를 뒤적거리고 있더니 갑자기 『압록강이다』 라고 말하였다. 저쪽에 압록강이 있다.

우리는 강을 잠간 내려다 보았다. 이리하여 우리는 만주에 들어 섰다. 계속되는 엔징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승무원들이 잠자코 있는 것은 리해할만한 일이였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들어 서서는 안될 땅에 들어서고 있었기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에 들어선 것을 모르도록 정숙한 태도가 필요하였다.

중국의 광경은 딴판이였다. 도시들과 부락들에는 불이 켜져 있였으며 차들도 불을 켜고 있었다.

돌연 항법사는 목표에 가까워 왔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전 속력을 내여 6,000피트의 고도로 상승하였다. 통화는 밝게 불이 켜져 있어 뚜렷한 목표로 되였다. 나는 투하 준비를 하고 목표 서남 약 10마일에 도달하였을 때 폭탄고의 문을 열었다. 나는 승무원에게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목표를 향하여 비행기의 머리를 수겼다. 나는 지면으로부터 약 600피트 상공으로 내려가 속력을 늦추면서 불이켜진 도시를 향하여 날았다.

세균탄은 통화의 서남단에 투하되였다. 나는 다시 전 속력을 내면서 폭탄고의 문을 닫고 하늘을 향하여 비행기의 머리를 처들었다. 급각도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도시는 곧 보이지 않게 되였다.

나는 귀로에 올랐다. 항법사는 『폭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였고 우리들의 담화는 불과 수분간에 몇 마디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들은 압록강을 건너 다시 조선으로 들어섰을 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였다.

나의 단거리 항법사는 이러한 임무를 싫어한다는 뜻을 표명하는 진심의 말을 몇 마디하였다. 장진 저수지에 다달았을 때 나는 지시된 고도로 상승하여 정상적으로 다시 귀환하였다. 우리가 케이—46 에 도착하여 땅에 발을 붙이기가 무섭게 우리에게 지시를 주던 소좌는 복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케이—91에 있는 우리 기지로 돌아갔다.

1952년 4월 25일경 나는 대대 작전부에 출두하도록 지시를 받았는데 거기서 대대 정보 장교 프리슨 소좌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은 예정된 목표에 4개의 폭탄을 투하하는 극히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행하도록 선발되였다. 이 폭탄은 그 특별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남 조선에 도루 가져와서는 안된다』.

그는 만약 엔징 고장이 생길 경우에는 제동기를 당기는 정상적인 비상조치를 취하지 말고 비행기를 바다 속에 몰아 넣어야하며 폭탄들을 우군 지역에 떨어뜨리지 말고 차라리 비행기를 바다속에 몰아 넣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나는 왜 나의 비행기의 승무원들이 그렇게도 특별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가 라고 그에게 물었으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목표를 표시하는 좌표를 알려주고 승무원들에게 우리가 『탄약 적재소나 창고 혹은 그와 류사한 것』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떠나려고 할때 프리슨 소좌는 나에게 다소 친근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북조선의 전염병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당신은 오늘밤 이것을 조장시킬 세균 폭탄을 싣고 비행하게될 것이다』. 내 비행기의 승무원들은 항법사 보비 이•햄메트 중위, 항법사 파지오 중위 그리고 기사 로버트 엠•핼스테드였다. 나는 좌표를 전달하면서 우리들이 그곳에 폭탄을 투하

한다고 말하고 질문을 받는 것을 회피하였다.

우리는 22시에 출발하여 목표를 향하여 직행하여 4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항법사는 두개는 폭발했고 두개는 불발탄이였다고 보고하였다. 세균탄은 신계 바로 근처에 투하되였다.

5월 1일 경 나는 한 회합에 참석하였는데 그 회합에서 책슨 대위가 일단의 비행사들에게 예정된 목표에 『특별』 폭탄을 투하할데 대한 지시를 주었으며 목표를 표시하는 좌표는 임무를 실천할 그날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임무가 곧 이미 개시된 소위 『중대 계획』이였는데 그는 이 임무가 차량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하도록 지시하였다.

그후 바로 그 책슨 대위가 직접 나에게 4월 하순에 실지로 개시된 『중대 계획』이 바로 세균전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이『중대 계획』을 약 8회 수행하였다. 이 임무는 약 3일만에 한번씩 수행되였는데 그 날자는 4월 28일, 30일, 5월 2일, 5 일, 8일, 19일, 22일, 및25일로 기억된다. 세균탄들은 모두 신계, 이천, 수안, 률리, 양덕 및 강동 지역에 투하되였다. 이 임무들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52년 5월 25일에 수행된 것인데 책슨 대위는 그것을 또 하나의『박멸 임무』이라고 불렀다. 그는 기관의 고장이 생길때에는 제동기를 잡아 당기기 보다 차라리 비행기를 바다속으로 몰고 들어가라는 말을 되풀이 하였다.

나는 그날 햄메트 중위와 펜니 중위와 같이 출격하였다.

우리들은 평상대로 세균전 출격임무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 나는 세균탄 투하 목표를 표시한 좌표를 다음에 돌렸다.

그 임무는 정상적인 것이였다.

나는 실내 전화를 통하여 『투탄 완료』라는 소리를 들었다.

4개의 세균탄이 수안 지역에 투하된 것이다.

우리들은 차량들을 폭격 및 기총 소사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돌아와서 『불발탄』에 관하여 보고 하였다.

개인적 담화에서 책슨대위는 우리들이 련대의 전체 작전구역에 페스트 탄을 투하하였다고 나에게 말하였다. 그는 그가 세균전을 위하여 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의 하나이라는 것과 또한 그가 우리들에게 중대 계획을 전달할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말하였다.

미 공군 중위 제임스이•건노

군번호 에이•오—1909980

1952년 7월 28일

북조선

3. 전쟁 포로들에 대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만행

(1) 조선 인민군 포로들에 대한 미국 침략자들의 만행에 관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의 보도

1, 서 론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도발한 미국 간섭자들은 공인된 국제법의 제 원칙과 규범 및 전쟁 법규들을 란포하게 유린하면서 력사상 류례없는 야수적 만행을 조직적으로 감행하였다.

미국인 들은 전쟁 포로에 대하여서도 이를 야수적으로 학대하였으며 갖은 악행을 감행하였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는 정전 협정에 의하여 고향으로 귀환한 조선 인민 군 포로들이 미군 관리하의 포로 수용소에서 직접 당한 가지가지의 류혈적 박해, 학대와 참을 수 없던 고통에 관해서 조국 전선 중앙 위원회에 허다하게 보내온 호소를 심의하고 이 사실들에 대한 심중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중앙 위원회는 이 조사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서 수다한 귀환 조선 인민군 포로들로부터 그들의 포로 생활 기간 체험하였고 또한 목격할 수 있었던 포로들에 대한비 인간적 대우들과 미국 간섭자들과 리승만 도당들이 포로에게 감행한 야수적 만행들에 관한 자세한 진술을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청취하였다.

목격자와 직접 고통을 당한 전쟁 포로들로부터 받은 수다한증언들과 또한 아직도 그들의 육체 위에 명백하게 남아 있는 각양의 불구와 상처의 흔적등에 근거하여 본 위원회는 청취한 진술의 론박할 수 없는 객관성과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실들에 근거하여 본 중앙 위원회는 미국 간섭자들과 리승만 도당의 범죄들의 일부만을 이 보도를 통하여 발표한다.

본 중앙 위원회가 접수한 방대한 량의 확실한 자료들과 론박할 수 없는 증거자료들은 조선 인민군 포로에 대하여 미 제 침략자들이 감행한 허다한 범죄적 만행의 전반을 공통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성격과 특징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준다.

1, 미국인들의 조선 인민군 포로들에 대한 만행들 즉 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정 기타 공인된 국제법 규범들의 위반은 조선 인민군 포로들이 미군에 억류된 첫날부터 그들이 조국에 송환될 때까지 도처에서 있은 사실이다.

2, 미국 침략자들의 조선 인민군 포로들에 대한 만행은 어떠한 우연적 개별적 성질을 띠는 것이 아니라 가장 광범한 범위에서 조직적으로 감행되였다.

조선 인민군 포로들에 대한 대량적 학살과 류혈적 폭행 등이 발생하지 않은 미군 관리 하의 단 한개의 포로 수용소도 존재하지 않았다.

3, 미제 침략자들의 포로에 대한 만행은 그의 전대 미문의 가혹성으로써 특징지어진다.

미국인들과 리승만 도배들은 포로에 대하에 위협, 공갈 강압등을 감행 하였으며 인권을 유린하며 가장 란폭하고도 모욕적인 고문을 적용하였다.

미국 사람들은 조선 인민군 포로들을 살해함에 있어서 총으로 사살하거나 칼로 찔러 죽이는 등 방법 이외에 땅크로 압살하며, 물끓는 가마에 삶아 죽이며, 맹견으로 하여금 물어 뜯어 죽이게 하며 물에 던져서 죽이며 때려죽이며, 굶겨 죽이며, 얼어 죽이는등 허다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미국 야만들은 포로를 학살하는 것만으로서는 만족하지 않았다.

이들은 포로에 대한 테로 수단을 감행하기 위하여 포로들을 교살장에 몰 아내고 불구로 되여 죽은 동무들의 시체를 보게 하고 그 시체를 산산히 절단하여 포로와 주민들에게 강제로 보여 주었다.

미국 인들은 포로 심문시에 전기 고문 고추가루와 물을 코와 입으로 부어 넣었으며몽둥이와 가죽채로 란타하는 등 가장 잔인한 각종 형태의 고문 방법을 적용하였다.

미국인들은 특히 녀성 포로에 대하여 모욕적이며 야수적 폭행과 강박을 감행하였다.

전쟁 포로들에 대한 강압과 테로들은 국제법 규범에 의하여 전쟁 포로에게 엄숙하게 허여된 포로의권리와 자유를 단순히 박탈 유린할목적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지향하고 있는 일정한 군사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감행되였다.

미국인들은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써 조선 인민군 포로들을 강제로 억류하며 그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대하여 자기의 조국을 배반케 하며 리승만 도당에게 넘겨 줌으로써 대포밥으로 만들려 하였으며 사실에 있어 이미 수만의 조선 인민군 포로들을 강제로 리승만 역도들에게 넘겨 주었다.

미국인들은 조선 인민군 포로들에게 허위적이고 도발적인 선전을 류포하고 마치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가 있는듯이 폭력으로서 포로 "선별"을 실시하였으며 포로들의 육체에 모욕적 그림과 글자를 새겨넣는 등의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국인들이 감행한 만행들은 각각 자기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일정한 계단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제반 증거자료가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1950년 9월부터 1951년 2월에 이르는 기간은 조선 인민군 포로에 대하여 미국인들이 감행한 만행의 최초의 계단으로 된다.

이 기간에 있어서 미국인들은 조선 인민군 포로들을 강제적으로 그들에게서 자기 조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을 박탈하기 위한 준비 공작을 진행하였다. 미국 야만들은 포로들에 대하여 테로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그들에게 최소한도의 생활 조건도 허여 하지 않았으며 수다한 병상포로에 대한 치료를 고의적으로 태공하였다. 미국 날강도들은 전쟁 포로들을 군사 무기의 저격성능과 관통 능력의 시험 대상으로

서 리용하였으며 포로인원들에게 군사 기밀 및 북조선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기밀에 관한 기타 정보를 제공할 것을 가혹한 심문과 고문을 적용하면서 강요하였다.

포로 집결 후송 과정에서 미국인들은 우리측 포로인원들을 가죽을 베껴죽이였으며 생매장하여 죽이였으며 땅크로 깔아죽였으며, 휘발유로 불태워 죽였으며, 총창으로 찔러 죽이고 전기 고문 끝에 굶겨 죽이였으며, 강간 륜간 끝에 죽엄에 이르게 했으며 수송선 밑바닥에 몰아 넣고 질식시켜 죽였다.

1950년 7월부터 동년 9월까지 포로 수용소를 대구 및 영도에 설치했을 때 미국인들은 조선 인민군 전쟁 포로 인원들에 대하여 주로 간첩 행위를 강요 하기 위한 간첩 교육을 미 극동군 총 사령부 직속 극동 정보국의 지휘 하에 강제적으로 실시하려고 시도하였는 바 이를 거부하는 포로 인원들은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간첩 학교 졸업 후에는 포로 인원들을 간첩으로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후방 지역에 강제로 파송하려고 하였다.

미국인들은 소위 자원송환의 구실밑에 포로들을 강제로 억류하기 위한 지반을 닦기에 광분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미국인들은 조선 인민군 전쟁포로 수용소에 특무 테로 도당을 대량적으로 투입하고 수용소내 행정 관리기구의 각급 구분대 책임 부서에 배치 하였다.

그들은 수용소 내에 비법적인 사설 영창, 경찰, 감찰, 경비대 등을 설치하였다 각 소대에 이르기까지 거미줄과 같이 정보망을 조직 포치하지 않은 곳이 없다.

미국 수용소 관리측은 포로인원들에게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극도의 고통을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맹종하게 하며 또한 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포로 수용소 내에 주택 및 문화 위생 설비를 고의적으로 하지않았고 피복을 계절에 적응하게 공급하지 않았으며 급식은 질량적으로 극도로 불량하고 부정기적이였으며 그 우에 비법적인 급식 처분까지 실시했으며 의료상 치료를 태공하고 전염병을 고의적으로 만연시키였으며 포로 인원들을 비법적으로 군사 시설을 위한 로동에 강제로 동원 혹사했으며 로동 조건과 공구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무제한적 장기간 로동에 혹사하였다.

포로 인원들은 전시 각종 세균무기 등의 실험 대상으로 리용했으며 포로 인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종교를 믿을 것을 강요하고 리승만 괴뢰군가를 부를것을 강박했으며 미국식 군사 훈련을 실시 했으며 사상 전환을 위한 반동 교육을 실시하였다.

미국인들은 포로들에게 조국에 대한 중상적 각종의 선전 내용의 방송을 강박했으며 정치적 음모의 선전 대상으로 리용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전쟁 범죄자』로서의 허위적 진술서를 쓰게 하고 서명, 날인할 것을 강박하였다.

또한포로 인원들로 하여금『석방』한다는구실하에소위『석방 탄원서』를 쓰게하였다.

조선 인민군 포로를대량적으로 거제도에 이송하기 시작한 1951년 2월 초순경부터 1952년 6월에 걸친 기간은 미제 침략군대의조선 인민군 포로에 대한만행의 제2계단으로된다. 이 계단은 미국인들이 조선 인민군 포로들에 대하여 더욱 대규모적

인 류혈적 학살과 폭행을 빈번히 감행한 시기로서 특징 지어진다.

미국인들은 포로 인원들을 거제도에 이송시킨 다음 동년 5월까지 수용소 및 억류 기관 관계 건물들을 신축하는데 리용하였다. 1951년 6월부터 포로 인원들에게 송환을 거절하도록 하기 위한 모략적인 선동 사업을 진행 하였다.

최초에는 사상 전환을 위한 이 선동 사업이 비밀리에 실시되였으나 이어 공개적으로 또는 집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수용소 내에 길이 50메터, 넓이 15메터 정도의 바락크 건물을 건축하고 『기술 교육』을 위한 『교재』로서 반동 출판물을 반입하였다.

바락크는 『학교』라고 부르고 그 『학교』에 포로 인원들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학교』 출입구에는 경비원을 세웠으며 교수 내용의 반동성을 비판하거나 『학교』에 동원될 것을 거부 기피한 포로 인원들에 대하여 온갖 야수적인 고문을 감행하고 다른 장소에 이송하거나 또는 학살하였다.

미국인들은 포로들에게 탄압을 가하기 위하여 교회와 그의 종업원들을 리용하였다. 포로 수용소 내에는 파견된 특무 테로 도당들의 방조하에 경찰 테로 제도가 수립되였다. 이 앞잡이들의 방조로서 수용소 내에는 각종 반동적 테로 단체들이 창설되였다. 례를 들어 『멸공단』『대한 청년단』『서북 청년단』『대한 소년단』등인바 전체 포로 인원들을 이에 강제로 가담할 것을 강박하였으며 이 조직에 가입할 것을 거부한 포로들을 고문 구타하고 혹은 학살하였다.

부산에서 미국인들은 처음에 소위 『석방 탄원서』를 쓰게 하는데 머물러 있었다면 그 후에는 포로인원들로 하여금 "나는 강제로 인민 군대에 나왔다" "나는 북조선에 돌아갈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정치적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 남조선에 남을것을 원한다" 등 내용의 문서에 서명날인 하거나 혈서할 것을 강요했으며 이에 수표할 것을 거절한 포로들에게는 가혹한 고문을 가하고 몸에 『리승만기』 또는『멸공』『반공』『대한 민국 만세』등 어구를 강제로 새겨 넣었다.

수용소내 포로 인원들 중 상술한 바와 같은 미국인들의 강제적 억류를 열성적으로 지지 안하거나 비판 반대하는 분자들을 "공산주의 지도자" "공산주의 선동자"라고 하면서 타 수용소에 이동시켰으며 영창에 감금하고 특별한 중로동에 사역했으며 금식등 방법으로 처벌하였다.

1952년 3월 초순에 미국인들은 소위 『리승만기』『유•엔기』 및 각종 반 인민적 구호를 쓴 푸랑카드와 머리에 동이는 『반공』 구호의 수건을 대량적으로 수용소 내에 반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자원 송환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대한 민국에 남는다" "공산당을 타도하라" 등 구호를 웨치면서 소위 『자원 송환』 지지 시위 운동을 조직 진행하도록 포로들에게 강요하였다.

미군과 리승만 괴뢰군 장교들의 직접 지휘하에 이러한 시위를 진행하기 위하여 미국인들은 포로들을 수용소 밖에까지 총검으로 끌고 나와 시위 행진을 시키려고 시도하였다. "개인 면회 심문"을 실시할 때는 미국인들은 사전에 수용소 내부에

권총과 그 실탄, 군용단도, 곤봉 기타 무기들을 공공연히 혹은 비밀리에 반입하여 "한사람도 북조선에 돌아갈 희망을 표시하지 못하게하며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학살하라"고 특무와 테로들에게 지시하였다. 테로 도당들은 미군 장교, 하사, 종군 목사들의 직접 지도 하에 조국에 돌아가겠다는 희망을 표시한 포로들을 살해하였다. 이러한 포로들을 죽을때 까지 구타하고 목을 매여 달고 물이 가득찬 통에 몰아 넣고 끓는 물에 넣고 도자기 굽는 가마에 넣고 땅에 생매장하고 몸을 토막으로 내여 죽였거나 총살하였다. 이들 테로 도당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동원된 미군 및 리승만 무력들은 중기, 경기, 카빙, 엠•완 보총, 화염방사기를 수용소 내부에 란사하였다.

힘이 없이 일어서지 못하는 포로 인원을 미국인들은 땅크로 깔아 죽였다. 강제적 "개인 면회 심문"을 감행한후 미국인들은 80,000명에 달하는 우리측 포로 인원들을 강제 억류하기 위해서 남조선 각 지역에로 강제 이동시켰다.

이 기간에 감행된 대중적 학살의 몇개 실례만도 다음과 같은 것이였다.

1951년 6월 19일 제72호 수용소에서의 참변을 위시하여 동년 8월 15일 부산 및 거제도 각 수용소에서의 동시적 대량 학살 사건과 동년 9월 18일 거제도 제78호 수용소, 동년 12월 22일 제62호 수용소, 동년 12월 24일 제73호 수용소, 1952년 2월 18일 제62호 수용소 등에서의 학살 사건들이다.

특히 강조할 것은 동년 3월 13일 제92호 수용소에서의 대량 학살로부터 동년 4월 말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거제도의 20여개 수용소들과 부산 각 수용소들에서 동시적으로 감행된 "개인 면회 심문"감행 과정에서의 대량 학살 사건들이다. 동년 6월 10일 제76호 수용소에서의 대량 학살 사건도 이에 속한다.

1952년 6월 이후 포로들의 송환 까지의 기간은 미제의 만행에 있어서 세째 계단으로 된다. 이 기간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어떠한 강제로서도 자기 조국에 돌아가겠다는 조선 인민군 포로들의 불굴의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을 깨닫고 미국인들은 우리 측의 포로들을 강제로 억류하려고 모든 힘을 경주하면서 포로들에게 갖은 고문과 강박을 가하였다.

미국인들은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고 우리측 포로들에 대한 테로를 매일 강화하였다.

1952년 12월 14일 봉암도에서의 포로 학살사건, 1953년 2월 9일 제17 수용소. 동년 3월 7일 및 4월 17일의 룡초도 조선 인민군 군관 포로 수용소에서의 학살 사건 등은 이에 관하여 말하여 준다.

미국인들은 포로들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였다. 노래를부르는 것을 금지하고 극히 초보적인 체육까지도 금지하였으며 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종이와 필기 용구를 소지하지 못하게 했으며 포로 인원 호상 간의 담화를 금지하였다.

포로 수용소 내에는 야간에 미군 무장병들이 빈번히 침입하여 포로 인원들을 위협공갈 학살하였다.

미국 간섭자들은 엄동에 포로들에게 랭수를 퍼부어 운동장을 굽보로 뛰우거나 무

릎을 꿇고 앉게 하였다.

또한 미국인들은 포로들에게 수류탄을 투탄하고 각종 포와 화염 방사기를 발사하여 엠•완 보총, 카빙총 등으로 사격하고 곤봉으로 구타하며 전기 고문, 물 고문, 금식 고문을 가하고 밤에 잠을 재우지 않고 밤 낮을 앉지 못하게 하고 온 종일 뛰게하며 총창으로 찔러 죽이고 유독 까스로 질식케 하고 중상, 경상을 입힘으로써 종신 불구자로 만들었다.

포로들에 대한 강제와 만행은 미군의 어떤 개별적 성원의서로 고립된 우연적 범죄행동이 아니라 미제 침략군대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면밀하게 준비되고 체계적으로 감행되였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조선 인민군 포로들에 대하여 미국 간섭자들이 감행한 만행은 이 목적에서 특별히 창설된 대 규모의 조직 부대의 방조로써 수행되였다.

이상과 같은 미국 침략자들의 조선 인민군 포로에 대한 만행은 송환된 조선 인민군 포로 인원들이 제공한 자료에만 의하드라도 학살 당한 조선 인민군 포로의 수는 33,600여명에 달하며 부상당하였거나 불구자로 된 포로의 수는 수만명에 달한다.

이제 조선 인민군 포로들에 대하여 미국 간섭자들이 감행한 수다한 만행 중 본 중앙 위원회에 알려진 전형적인 허다한 사실 중에서 몇가지 실례만 렬거하면 다음과 같다.

2. 전쟁 포로 학살

1. 1950년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한 미군 기갑 부대 소속 미군 대위 핼손은 인천 부두에서 조선 인민군 포로 김만수외 150여명의 전원에게 옷을 벗을 것을 강요하고 3정의 중기와 3정의 경기 및 각종 보총으로 무장한 45명의 미군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여 포로들에게 집중 사격을 가하여 죽였으며 시체는 바다에 처 넣었다.

2, 1950년 10월 25일 미군 제8군단 직속 헌병 대위 "윌리암"은 무장한 미군 헌병 20명과 통역 2명을 거느리고 조선 인민군 포로들을 억류하여 둔 평양 사창 시장에 이르렀다.

그는 포로 인원중 머리를 길렀거나 사민 의복을 착용하고 있던 포로 29명을 군관과 로동당원이라는 리유 밑에 군중 앞에 세워 놓고 자기 헌병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묘준 사격을 하게 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도 권총으로 그들을 사격하여 학살하였다.

그후 "윌리암"대위는 주변의 사민들과 나머지 포로 인원들에게 향해서 『이 놈들은 최고 악질 빨갱이기 때문에 총살하였다. 우리 미국 헌병은 악질 빨갱이는 모주리 이와 같이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3, 1950년 11월 15일 미군 제8군단 직속 헌병 대위 "케스"는 리승만 괴뢰군 제107련대를 지휘하면서 평양 방직 공장을 위시한 평양 시내 수개 처에 림시 포로 수용소를 설치하고 우리 측 포로들을 집결 수용하였다.

이들 림시 포로 수용소들에서는 전체 수용소들에서는 전체 수용 인원들로부터

군복과 소지품을 박탈하고 내복만 입혀 남겨 두었다.

이날 밤 조선 인민군 포로들이 추위를 막기 위하여 한 곳에 뭉쳐 있을때 그들이 도주를 계획하고 있다는 구실로 미군 헌병 대위를 위시한 리승만 도배들은 그들을 카빈총으로 란사하여 149명의 포로를 학살하였다.

1950년 10월 28일 평양 교화소에 설치한 림시 포로 집결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미국인들은 불길을 피하여 뛰여 나오는 포로들을 란사하였다.

그리하여 100여명이 화재와 란사에 의하여 학살되였다. 그 외에도 미국인들은 화재에서 구원되여 나오는 포로 40명을 총살하였으며 20여명을 중상시켰다.

4, 1950년 10월 24일부터 동년 12월10일에 이르는 기간에 미국인들은 포로를 수용하였던 인천 소년 형무소를 위시한 수개처의 림시 집결소에 있던 조선 인민군 포로들을 인천으로부터 선박으로 실어 내 갔다.

림시 집결소로부터 인천 부두에 향하는 도중의 경비에는 미군 중좌 (성명 미상) 및 미군 8군단의 10명의 대위의 지휘 하에 있는 리승만군 107련대의 표식을 한 리승만 괴뢰군 소위 10명과 병사 100여명이 동원되였다.

포로들을 수송하기 위한 수송선으로는 미군 상륙 정엘•에쓰•티 함선과"삼랑 진"호를 위시한 수척의 화물선이였다. 이들 수송선에는 승선 정원을 몇배로 초과하여 강제로 실었다.

포로 수송은 주로 깊은 밤중에 감행되였다.

미군의 명령에 의하여 포로들은 량손을 목에 얹고 좌우 측에 3명씩 6명으로 구성된 미군 및 리승만 병사들의 감시 하에 100명 대렬을 한개 단위로 구성하여 상선시켰다.

감시병들은 포로들에게 굽보로 배에 오를것을 재촉하였다. 승선용으로는 사다리 대신에 넓이 40센치메터 밖에 되지 않는 외나무 널판이 리용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허다한 포로들이 바다에 떨어졌다.

승선시 익사한 포로수는 500명에 달하였다.

배위에는 다만 미국 군인들만 있었다. 포로들은 변소도 없고 전기불도 없는 선박의 제일 밑창에 실렸다. 초만원된 선창에서는 150명 이상이 질식되였다.

인천으로부터 부산까지 선박은 70 내지 78시간 항행하였다. 항해 행정에서 미국인들은 포로들에게 식사 및 음료수 공급까지도 하지 않았다. 시체와 함께 기아에 빠진 포로들을 미국 사람들은 바다에 몰아 넣었다.

바다에 몰아 넣은 포로의 수는 한배에서 100명씩이나 되였다.

5, 1950년 11월 8일 미군 동래 4련대 헌병 대위 "암스트 롱그"의 지령에 의하여 2명의 미국 병사는 조선 인민군 포로들에게 동래역에서 군수품을 옮겨 실을것을 강요하였다. 포로들은 화차로부터 트럭에 소총 탄환 상자들을 전재하였다.

미국인들은 극도로 피로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남궁일 (25세 황해도 출신)외 8명이 힘에 겨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란타한 후 많은 사민이 보는 면전에서 군수품을 실은 미식 젬스트럭으로 압살하였다.

11월 15일 동래 포로 수용소를 호위하는 2련대 7대대 미군 2등상사 홀트 컨스는 60명의 포로들을 부산 수영 군사 비행장 확장 공사에 몰아냈다. 작업에서 포로들에게 일부러 휴식 시간도 주지 않았다.

그날 아침 11시경 그는 포로 리형구 외 17명에게 손을 머리에 얹고 앉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일을 태공하였다는 구실 하에 그들이 앉은 자리에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킨 결과 15명이 폭사하고 그 근방에 있던 10명의 포로가 중상을 입었다.

6, 1950년 12월 24일밤 부산 제3부두에서 동래 남수용소 1련대 1대대의 80명의 포로들은 식량 하선 작업을 하였다. 1련대 부관 미군 1등상사 "카펜타"의 지시에 의하여 미군 하사 "잭슨"은 실과 및 고기 통조림 상자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포로들을 감시하였다.

그는 포로 김락수 외 8명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 하여 그들을 전부라체로한 다음 몽둥이와 카빙총탁으로 란타하고 부두 바다물에 처 넣었으며 물에서 기여나오려고 하는 3명을 묘준 사격하여 즉사시키고 나머지 6명을 끌어내여 혹독히 구타하였다.

그후 "잭슨"은 이 6명까지도 바다에 차 밀어 넣어 학살하였다.

7. 1951년 1월 30일 부산 제3 부두에 있는 미군 식량 창고에 화재가 났을 때 미군 94헌병 대대장 "하인키히"중좌는 자기 부하 미군 장교 대위 2명과 병사 100명을 거느리고 현지에 왔다. 이 창고에서 서편 포로 수용소 제 8대대의 조선 인민군 포로 80명이 작업하였는바 미국인들은 그들을 강제로 화재 진화에 내몰았으며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7명의 포로를 미군인들은 사살하고 12명을 중상시켰다.

8. 1951년 3월 15일 밤 거제도 제61호 수용소에서는 중환자 포로 250명에게 큰 돌을 운반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힘에 겨운 일이였다. 병이 중한 포로 리기현은 휴식을 줄것을 청하였는바 미국 병사 "파울"은 그를 구타한 다음 다른 일터로 데려다가 돌과 함께 쇄석기 (돌 까는 기계)에 몰아 넣어 참살하였다.

3. 전쟁 포로들의 곤난한 생활 조건들

미국 침략자들은 전쟁 포로에 대한 위생상 건강상의 초보적 조건들과 숙소 및 음료수 또는 의류 등의 공급에 대한 국제 법상의 제 요구를 위반하고 조선 인민군 포로들에 대하여 온갖 비인간적 대우를 하였고 포로들의 정당한 요구는 사소한 것에 대하여서까지도 테로로써 대답하였다.

1. 1950년 11월 6일부터 1950년 11월 27일까지 기간에 미국 간섭자들은 평양 방직 공장을 림시 집결소로 하고 약 3,000명의 조선 인민군 포로들을 수용한바 폭격에 의하여 심히 파괴된 건물에 아무런 방한, 방우 설비도 없이 콩크리트 바닥에 그냥 수용하였다.

이 수용소에는 변소의 설치도 없었으며 포로들에 대한 외부 출입을 엄중 단속하였

기 때문에 실내에서 용변을 보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생활상 비참한 상태에 처한 포로들에게는 전염병이 발생되여 수다한 사망자가 나게 되였다.

1950년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사이에 양인배외 14명의 포로가 병사하였다.

당시 포로들은 미군이 주는 식량을 말량곡이라고 불렀고 이 기간에 포로들은 한쪼각의 야채도 한방울의 기름도 먹지 못하였고 오직 22일 기간에 다섯번에 걸쳐 메루치를 한번에 3—5마리씩 먹었을 뿐이다.

포로들은 음료수조차 제대로 마실수 없었으며 더구나 세수는 한번 도 할 수가없었다. 오직 비가 올때 지붕위에서 흘러 내려 오는 빗물을 마시고 손을 씻을수 있었으며 리발과 목욕은 한번도 시키지 않았다 .

2,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 10일경까지 미국 군사 당국은 부산 비행장 부근 논 발에 지여 놓은 천막에 약30,000명의 조선 인민군 포로들을 수용하였는바 매개 천막에 110—130명을 수용하면서 가마니위에서 자게하였다.

미군은 새벽에 포로들을 깨워서 소위 신성한 공기를 바꾸어 넣는다는 구실로써 천막을 말아 올리게 하여 포로들은 찬바람이 부는 밖에 앉아 있지 않으면 안되였다 낮에는 포로들이 수용소안에 남아 있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건강한 포로들을 강제 로동에 몰아내고 중환자들은 수용소 앞 마당에 앉아 있게 하였다.

미국 군사 당국은 포로들을 추위와 비를 막을 수 없는 낡은 천막에 수용하였다. 겨울에 전체 수용소들에는 하나의 난로도 설치하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포로들로부터 일체 피복 군화등을 전부 강제 회수 소각하고 그 대신 미군이 입던 작업 하복을 내여주었다

추위를 막기 위하여 포로들은 작업 장에서 마대들을 주어 다 몸에 감았으나미국인들은 이 때문에 처벌하고 피복을 압수하였다. 이러한 대우의 결과에 병에 걸린 포로의 수는 수용인원의 5분의 4를 점하게 되였다.

의료상 방조는 환자의 3분의 1도 주지 않았으며 치료하여 주었다. 하여도 이것이 병에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아스피링을 제공하는등 가짜 치료를 하여 주었다.

환자의 대다수는 아무러한 의료상 방조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군 제4대대 관하의 한 수용소에서만 하여도 6,000명 수용인원중 1 400명의 중환자들이 12개의 천막에 수용되여 있었으며 그 중 매일 평균 7—8명이 사망하게 되였다.

3, 1951년 1월 1일 부산 제100포로 수용소 소장 미륙군 헌병 대위 디께손은 미군 륙군 헌병 중좌 하인덕히의 지령에 의하여 미군 하사 4명에게 서면 수용소 제3대대 소속 인민군전쟁 포로들을 부산 제 3부두에 데려다가 식량 하선 작업에 동원하도록 지시한바 작업 과정에서 20명의 포로가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 하여 5시간동안 한시각의 휴식도 주지 않고 련속 무게 30킬로 그람의 통조림 상자를 150메터 지점에 강제로 운반케 하였다. 황혼이 내리고 작업이 끝나자 작업에서 피로한 이 20명의 포로를 전부 바다에 처넣어 참살하였다.

4, 1951년 2월부터 3월말까지 기간에 미국인들은 8천명 이상의 포로들을 도로 건설 복구 및 수원 비행장 확장 작업에 동원시켰다.

미국인들은 포로들을 하루에 12——16시간씩 작업 시켰다. 과중한 작업 시간에도 미국인들은 포로들에게 휴식을 허가하지 않고 용변을 하기 위하여 대렬에서 나가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포로들이 열성적으로 일안한다느니 점호에 늦게 대답한다는 구실로써 구타 하였다.

과중한 로동과 계속 되는 강박의 결과 1951년 2월에만 하여도 30 명이상의 포로가 작업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380명이 중환에 걸리고 1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50명이 병원에 입원하였는바 그중29명이 병사하였다.

5, 미국 군사 당국은 부산 서면 제5수용소 포로들을 부산항 제3부두 화물 하선 운반 작업에 강제 동원하였는바 포로들은 무장한 미국 군대의 감시하에 매일 평균 12—13시간씩 강제 로동을 하였다.

작업 과정에서 미국인들은 포로들을 곤봉으로 구타하였다.

1950년 12월23일 70명의 포로가 구타 당하고 중상을 입었는바 미국인들은 그중 5명을 바다에 처넣어 죽였다.

이때 바다에 처넣은 포로들을 구원하려한 포로들을 미국인들은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6, 1951년 12월 4일 거제도 제 92수용소 포로들은 수용소 북방 80메터 지점에 미군 병사 건축을 위한 벽돌 제작 작업에 동원되였는바 작업 현장에서 미 륙군 헌병 대위 "레이"의 지시에 의하여 포로들을 감시하고 있던 미군 하사는 15명의 포로가 작업에서 태만하였다는 구실로 이15명을 땅속에 생매장하였다.

30분후에 "레이"대위 립회하에 포로들을 파본 결과 그중 5명은 이미 죽었으며 10명은 실신하여 빈사 상태에 있었다.

4. 전쟁 포로들의 인권 유린과 자유 박탈

미국 간섭자들은 포로들의 문화, 체육, 오락, 도서들에 대한 자유를 예견하고 있는 국제 법의 규범들을 란포하게 위반하면서 포로들의 권리를 무시하였다.

동시에 포로들로 하여금 강제로 종교 의식에 참가케 하였다.

학습 선택에 대한 포로들의 요구나 항의에 대하여서는 미국인들은 테로와 고문과 학살로써 대답하였다.

1, 1951년 11월 부터 12월까지 거제도의 전체 포로 수용소들에서는 미국 당국이 포로들로하여금 『공산당 타도』『멸공구국』『방공』등의 표어를 쓴 프랑카드를 걸것을 강요하였다. 포로 수용소들에 미국 인들은 반동적 정치적 조직을 창설하고 포로들에게 『한국기』『미국기』『유•엔기』를 게양할 것을 강요하였다.

2, 1951년 9월 15일 거제도 제78호 수용소 씨•아이•씨 책임자 미군 대위 앨라드·『전범자』 심사처 책임자 미군대위 부라운, 그의 보조원 남조선 군대 중위 김승호는 포로들 속에 이미 배치하여 놓은 자기 특무들에게 종교를 신앙하지 않으며종

교 의식을 반대하여 나선 포로들을 암살케 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수용소에 반입한 57개의 곡괭이 45개의 단도, 3정의 미국식 권총, 18개의 수류탄들을 보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특무들 속에는 박대연과 그의 졸도 15명, 박남용과 그에 속하는 120명, 제78 수용소 려단부 부관 김종결과 그에 속하는 25명 수용소내 기독교회 책임자 차영두 기타 들이 있었다. 차영두는 테로단 단장으로 임명되였다.

차영두는 1951년 9월 16일 새벽에 자기 방조원 박남용, 박대연, 김종결외 10명을 소집하고 그들과 함께 포로들의 암살 계획을 심의하였다. 준비된 암살에 관한 소문이 포로들에게 까지 도달 하였다.

강구된 대책의 결과에 9월16일 10시 수용소 마당에서 차영두와 10명의 방조원들은 모든 포로들 앞에서 포로들의 암살을 자기들이 준비하였음을 자인하였다. 10시 30분에 수용소에 비밀이 반입되여 수용소내 기독교회 천막에 보관되였던 모든 무기는 수용소 경비 책임자、미군 하사 "카펜타"의 립회하에 수용소 밖으로 반출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78호 수용소 포로들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 총사령관 미륙군 헌병 대좌 "리낀"에게 항의를 제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리낀"대좌는 78호 수용소를 방문하고 지난 사건의 정보를 청취한 다음 범죄자들을 처벌할 것을 포로들에게 확언하였다. 그후 차영두 외 419명의 방조원들을 이 수용소에서 데려갔다. 그러나 "리낀"대좌는 이와 같은 만행의 중지를 위한 아무러한 실지적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상기 인원들을 다른 수용소에 옮김에 그치였다. 이후 리낀은 아무 조건도 없이 조선 인민군 포로 대표 려중구 익류번호 (13560)를 제 62호 수용소에 이동시키고 10여명의 포로들을 76호 수용소에 이동시키여 류치장에 구금하였다.

이에 격분한 포로들은 려중구와 그외 구금자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서 1951년 9월 17일 18시 20분에 "리낀"대좌는 거제도 제70호수용소 미군 관리 책임자 미륙군 헌병 대좌 "휘사"에게 미군 94헌병 대대장 헌병 중좌 "데임"제74수용소 책임 장교 미륙군 헌병 대위"부라운"제76, 77, 78수용소 씨•아이•씨 책임 장교 미 륙군 대위"벨라드"「전쟁 범죄자」심사처 책임장교 헌병 대위"로버트"및 동 심사처 배속장교 미 륙군 헌병 대위"오디"동 심사처 부관 리승만 괴뢰군 중위 임승호, 미군 종군 목사"우두보리"조선인 종군 목사 "김"들과 함께 미군 94헌병 대대 소속 전사 200명, 미군 453 공병대대 소속 전사 150명, 리승만 괴뢰군 경비대대 소속"총"중위를 위시한 인원들을 리용하여 수용소를 포위하고 무력으로써 포로들의 격분을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다. 여기에서 엠•원 보총 60정, 80개의 수류탄, 최류탄, 20개를 사용할 것이 지시되였다. 상기"휫사"대좌는 감시탑에 올라가 두발의 권총 발사로써 행동을 개시하라는 신호를 하였다. 수용소를 포위한 군대들은 수용소광장에 모인 7,250명의 포로들에게 수류탄을 던지면서 수용소 내부에 침범하였다.

250명의 미군과 50명의 리승만 도배들은 총창으로 찌르면서 비 무장 포로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개시하였다. 이 결과 38명의 포로가 학살당하고 194명이 부상당하였다. 미국 인들은 포로 585명을 수용소 류치장에 구금하였다.

3, 1951년 12월 24일 거제도 제73호 수용소에서 당시 거제도 포로 수용소 사령관 미 륙군 헌병 대좌"휫찌째랄드"의 지시에 의하여 거제도 주둔 미군 제94 헌병 대대장 미 륙군 헌병 중좌는동 대대 경비 과장 헌병 대위"케이스"를 지휘하여 자기 지휘하의 미군 전하사20명과 리승만군 제 33군 경비 대대 전하사 100명을 무장시켜 동 수용소 주변에 배치하고 포로들을 위협하면서 25일 "크리스마스"를 기하여『미국기』『한국기』『유•엔기』를 게양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를 반대하여 나선 포로 수용소 인원 6,000명에게상기 중좌의 지시하에 "케이스"대위의 권총 일발의 신호 지휘로써 300여명의 미군, 리승만군 부대는 수용소 내에 침습하여 총창과 곤봉으로 구타하여 포로 7명을 사살하고 47명을 중상시키고 902명을 71호 수용소 영창에 감금하였다.

4, 1952년 1월 25일부산 제12 야전 병원 제6 수용소에서 수용 소장 미 륙군 대위 "브릭스"는 미 극동 사령부 특명으로 파견된 미 륙군 대위 (성명 미상)의 지시에 의하여 황동복 (포로 번호 200773) 신은상 손재광 외 8명을 포로 되기 전에 조선 인민군이였다는 것을 알고 불러 왔다.

"부릭스"대위는 포로들에게 말하기를『미 극동 사령부로부터 특별 임무를 맡고 온 대위가 조직한 이 접견은 당신들에게 가장 높은 영예로 된다』고 하고 대위는 다음과 같이 엄명하였다.

『최근 북 조선에서는 미군이 세균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을 일으키고 있다. 나는 당신들에게 록음으로 연설할 것을 제의한다. 당신들은 북 조선에서 전염병이 만연되는 리유는 미국인이 세균을 산포하기 때문이 아니라 북조선 사람들이 북조선에서 특히 전시에 자주 발생하는 전염병 방지에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데 있다는 것을 언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포로들이 이 요구를 수행할 것을 거절하였을"때 브릭스"대위는 포로들에게 구타와 고문을 가하면서 개별 심문을 시작하였다. 나중에는 포로들을 수용소 류치장에 감금하였다.

5. 1952년 3월 28일 거제도 제71호 수용소 제 2대대에서 미국 씨•아이•씨 조직의 직접 지시에 의하여 수용소 관리 당국으로부터 감찰계 계장을 포함한 6명은 조선 인민군 포로 김도출을 호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답할 것을 강요하면서 심문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로동당원인가?』『유격대원이였던가?』『미국 포로를 얼마나 죽였는가?』『군관이였던가?』심문 시에 그들은 김도출에게 전기 고문 물 고문을 가하여 김도출은 사망하였다.

6, 1952년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1주일 간에 거제도 제14 수용소 1—8대대포로들에 대하여 미군 제555 헌병 대대와 13 헌병 중대 및 리승만군 제 132 경비 대대 등 600여명의 무장한 군대들은 비법 수사를 실시하였다.

9월 27일 오전 비법 수사는 제2 대대포로들에게 대하여 실시되였으며 동일 오후

에는 제8 대대, 9월 29일 오전에는 제3 대대, 동일 오후에는 제5 대대, 9월 30일에는 제6 대대, 10월 1일에는 제1 대대 10월 2일에는 제4 대대, 10월 3일에는 제7대대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수사 실시 시에는 포로들을 손을 머리 위에 놓고 일렬로 세워 밖으로 내몰았다.

수용소의 전체 집들을 수색하였다(의복 담요 등). 개별적 경우에는 수사 시에 방벽까지 허물었다.

미국인들과 리승만 도배들의 비법적 행동을 반대하여 나선 포로들에게는 무력을 적용한바 그 결과 2,8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235명이 류치장에 감금되였다.

7, 1953년 5월 1일 거제도 제1수용소 "지" (G) 대대에서 미군 제 8137 헌병 집단 사령부 관하 제13 헌병 대대 소속 미군 헌병 소좌 "펜드렛톤"은 리승만군 제 878부대 장교 전사들 250여명을 리용하여 수사를 실시하였다. 약 500명의 포로들을 밖에 끌어 내면서 리승만 군대는 포로들을 라체로 하고 수색하면서 입, 코, 귀, 머리들을 들여다 보았다. 수사시에 연필과 종이를 가진 8명의 포로들은 그들의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였다. 전체 포로들에게 말하기를 『포로들은 읽고 쓰고 하며 종이와 연필을 가질 권리가 없다』고 하였다. 8, 1951년 8월 15일 밤 8시 30분 거제도 제62호 수용소에서는 수용소 관리 책임자 미 륙군 헌병 대위 "카메리"와 제92헌병 대대 경비 부책임자 (성명 미상)와 리승만 군제32 련대 소속 중위는 리승만군32련대 전사 30명에게 동 수용소 제3대대 포로들이 8•15 조선 해방일 노래를 불렀다 하여 그들을 사격하라고 지시하였다.

사격은 10분간 계속되였는바 그 결과 3명이 죽고 27명이 중상당하였다.

9, 1951년 8월 15일 부산 거제리 제 1, 2, 3, 4, 5, 6, 7, 8, 9, 10, 11포로 수용소들에서는 미군 제93 헌병 대대 소속 전사들과 리승만군 제31 경비 대대 소속700명의 전사들은 엠•원 보총으로 무장하고 경비과장 미 륙군 헌병 대위 "께이스"의 지시에 의하여 포로들이 8•15명절에 제하여 노래를 불렀다 하여 조선 인민군 포로들에게 일제 사격을 가하였다.

미국인들과 리승만 도배들은 3대의 땅크 5대의 장갑차, 10정의 중기 3정의 경기 엄호하에 행동하였다.

『작전』은 미군 헌병 대위 "메이비스"제4 포로 수용소 소장 군의 대위 "따가" 제6 수용소 관리 책임자 군의 대위 "웨루덴"경비 대대 지휘관 리승만군 헌병 소좌 (성명 미상) 가 지휘하였다.

포로들에 대한 사격은 저녁 9시 20분부터 10시까지의 40분간에 걸쳐 계속되였는바 그 결과 44명이 죽고, 86명이 중상을 입고, 101명이 경상을 입었다.

10, 1951년 9월 18일 아침 10시에 제84 포로 수용소에서는 미국인들에 의하여 총살당한 포로 최순식의 장례식이 조선 인민군 포로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진행되였다.

거제도 주둔 미군 헌병 제94대대 지휘관 미군 헌병 중좌 "데임"은 5대의 장갑차 3정의 박격포 엄호 하에 100명의 군대를 수용소 주위에 배치하였다.

미군은 "데임"의 지시에 의하여 아침 10시 32분부터 11시 30분까지 포로들에게 대한 사격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13명이 죽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다음 100명에 가까운 미군 및 리승만 종합 부대가 수용소내에 침습하여 총창으로 400여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886명을 71호 수용소 류치장에 감금하였다.

11, 1953년 2월 9일 거제도 제 17 포로 수용소 소장 미 륙군 중좌"에프•에스•떼 일라르"는 자기 관하 수용소 관리 측에 2월 8일 인민군 창건 기념일에 제한 일체 경축 행사를 중지시키며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을 지시하였다.

명령은 이 수용소들에 수용되고 있는 전체 포로들에게 전달되였다.

2월 9일 제3관구 제5대대 소속의 약간의 포로들이 조국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는 노래를 부르자 미군중좌"떼일라르"와 경비과장 미군 대위"죠께스"는 미군 제555헌병 중대 소속 50여명의 전사와 리승만군 6,183 부대의 한 중대에게 14정의 중기·8정의 경기,화염 방사기 및 기타 엠•원 보총, 카 빙총등 무기를 주어 이를 진압 시키는 데 동원시켰다. 포로들이 있는 수용소에 침입하여 미국인과 리승만 도배들은 저녁 5시 부터 시작하여 2시간반 동안 포로들에 대한 류혈적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포로들의 가슴과 얼굴과 배를 갈랐다. 4명은 죽고 71명은 부상을 입었다.

12, 1953년 3월 9일 거제도 제3 수용소에서는 미군 제8137 헌병집단본부 제13헌병대대 미군 헌병 소좌는 리승만군 제878부대 소속 전사 500명과 함께 조선 인민군 포로 4,000명을 수용소 광장에 끌어 내다가 그들이 쓰딸린 대원수의 서거와 관련하여 조장을 착용하였다 하여 구타하였다.

리승만 도배들은 곤봉으로 얼굴 가슴 손,발을 란타하여 포로의 대다수를 부상시키였다.

13, 1953년 4월 17일 룡초도 제3 포로 수용소 관리 책임자 미륙군 소좌 "죠세프 제이•킹스베리"와 동 수용소 제4 대대 책임자 하사"샴엘"은 동 수용소 각 대대 포로 대표자들을 소집하여 놓고 조선 인민군 군모 박탈과 부역 등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언명 하였다.

그 후 동일 4시 30분경에 완전히 무장한 미군 중대와 리승만군 제6133 부대 소속 한개 대대는 수용소 광장에 모인 제18 대대 포로들을 포위하였다.

포로들에게 수용소 내에 들어 갈 것을 명령하고 이 수용소에 150발 이상의 수류탄을 던지고 보총으로 사격하였다.

그 다음 이 군대들은 수용소에 침입하여 포로들을 총창으로 찔러 17명을 즉사시키고 190명을 부상시켰다.

5. 전쟁 포로들에 대한 강제 억류

조선에서의 침략 전쟁의 최초부터 미국인들은 모든 전쟁 포로들을 의무적으로 송환할 것을 예견한 국제법의 원칙을 위반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국 인들은 우리측 전쟁 포로들을 강제 억류하여 그들을 대포밥으로 리승만 도당의 손에 넘기려고

시도하였다.

전쟁 포로들을 강제 억류하기 위하여 미국인들은 소위 송환을 원치 않는 자들의 『선별』을 실시하고 남 북 출신 포로 또는 사민 억류자 등으로 강제 선별하고는 그들에게 소위 『석방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면서 그들의 강제 억류의 구실을 각방으로 획책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추구하면서 미국인들은 조선 정전 담판 진행 과정에서 소위 자원 송환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1952년 3월부터 미국 포로 수용소 당국은 전쟁 포로들을 억류하기 위하여 그들에 대한 개별 심문을 로골적으로 실시하였다.

미국 및 리승만 교형리들과 그들의 특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송환을 주장하면서 전쟁 포로들에 대한 미국 사령부의 피문은 마수를 반대하여 나선 포로들을 학살 하였다.

1, 1950년 12월 초순 부산 거제리 수용소 각 병원들에서는 미 륙군 중장"니꼴스"의 직접적 지령에 의하여 10여명의 미군과 리승만 앞잡이 50여명을 직접 지휘하면서 매개 환자 포로들에게 소위 『석방 탄원서』를 쓸 것을 강박하였다.

『석방 탄원서』는 미리 인쇄된 용지에 매개 포로들의 본적지, 생년월일 및 략력을 기입케하고 인민군에 강제로 나왔는가 지원에 의하여 나왔는가를 심문하여 기입하는 형식으로 되여 있었다.

매개 포로들이 지원하여 군대에 나왔다고 하거나『석방 탄원서』를 쓸 것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곤봉으로 구타하며 밧줄로 묶어서 천정에 달아매며 타체로 하여 랭수를 끼여 얹고 밖에서 얼구는 등 악형과 고문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 12월 7일 부산 거제리 수용소 제1호 병원에서만 하여도 28호 침대 김문수외 7명을 고문 치사했으며 50여명의 중상자를 내였다.

2, 1951년 10월 15월일 거제도 60 단위 소용소 소장 미륙군 중좌"에이•엘•엔파트" 는 60호—68호 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는 조선 인민군 전쟁 포로들로 하여금 그들이 전쟁 포로가 아니라 민간 억류자들이라는 것을 성명시키기 위하여 미리부터 포로로 가장하여 잠입시킨 리승만 특무들을 상기 각 수용소의 매개 수용소마다 50명씩 재 배치시켜 놓고 당일 미 륙군 중좌"에이•엘•엔파트"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포, 땅크, 수류탄 및 저격 무기 등으로 무장한 무력을 한개 수용소에 300명씩 수용소 주변에 배치하고 민간 억류자 심사를 받겠느냐? 아니 받겠느냐? 고 위협하다가 포로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에이•엘•엔파트"는각 수용소에 일제이 포탄 70 여 발을 발사하고 동시에 보총 사격을 감행하였다. 결과에 이날 80여명의 조선 인민군 포로들이 학살 되였으며 5백여명의 인민군 전쟁 포로들이 중상당하였다.

3, 1952년 2월 18일 오전 3시 30분 거제도 제62호수 용소에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 사령관 미 륙군 헌병대좌 "휘찌째랄드"는 제92 헌병 대대 대대장 미 륙군 헌병 중좌"바라바스"제62호 수용소 책임 장교 미륙군 헌병 소좌"케이스"및 제62호 수용소 미군 부관"마쓰테쯔 마데유"를 대동하고 자기 지휘 하의 미군 부대 약 1,000 명을 수용소 주위에 배치하였다.

동일 오전 3시 50분을 기하여 권총 1발의 발사를 신호로 수용소 주위에 배치된 화력은 2분간 일제 사격을 가하였다. 수용소 당국의 이와 같은 행동은 동 수용소에 수용 중의 약 8,000명의 전쟁 포로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민간 억류자』로 되겠다고 서명 날인하지 않는 다는 것과 작 2월 17일 리승만군 『문교부 장관』의 해설에도 불 구하고 계속 『인민군 전쟁 포로로서 공화국에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기인되였다. 이리하여 수용소는 그 주변에 배치된 25정의 중기와 63정의 경기의 사격을 당하였다.

수용소에 대한 2분간 일제 사격이 끝나자 대기했던 미군 부대는 수용소 내에 들어와 수류탄을 던졌다. 이 조직적인 침습으로 인하여 리우영 (29세 서울시 영등포 출생), 정봉환 (25세 서울시 종로구 출생), 정원준(22세 전북 전주 출생), 서마영 22세 서울시 룡산 출생), 김동진(24세 서울시 룡산 출생), 조점수(23세 전남 광주 출생)김인배 (25세서울시 출생), 김수남 (28세 제주도 출생), 선진호(29세 경북도 출생). 송중수(23세 충남 출생)김태의(28세 인천 출생), 유동진(24세 군산 출생), 변춘식(41세 전남 화순 출생), 리진혁(22세전남 광주 출생)김창수(40세 전남 광주 출생)등 102명을 즉사시켰으며 김영상(26세 경기도 개성 출생), 정광준(22세), 김상국 (29세) 서정옥(31세). 방제천(25세)등 260여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4. 1952년 3월 13일 미군 제94 헌병 대대 경비과장, 미 륙군 대위"레이니"는 거제도 제92 포로 수용소의 조선 인민군 전쟁 포로들을 강압하였다. 이 강압 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레이니"대위는 오전 8시에 91호, 93호 94호 및 96호 수용소로부터 이 수용소에 미리 전쟁 포로로 가장시켜 잠입시켰던 약 1,000명의 리승만 테로 도당들을 동원하여 그들에게『멸공단 만세!』, 『공산주의자를 죽여라!』, 『92호 수용소를 타도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 행진시켰는바 상기 테로 인원들의 시위 행진의 선두에는 헌병 대위 "윌손"을 선두로한 미군 전하사 및 리승만군 전하사들 약 300명이 참가하였다.

9시 30분 시위 행렬이 제 92호 수용소 정문에 도착하자 상기"레이니" 대위는 리승만군 통역을 통하여 『지금부터 92호 수용소 악질 빨갱이를 잡아 죽이겠으니 정신을 똑똑히 차렷!』하고 웨치고 "레이니"대위는 강압의 신호로 권총 1발을 발사하였다.

3백명의 무장병력은 92호 수용소를 향하여 약 20분간 간단없는 사격을 감행하였다. 김순남은 자기 옆에 서 있다가 미군의 흉탄에 맞아 쓰러진 심태윤을 일으키면서 간호한다고 하여 상기 "레이니" 대위가 직접 소지한 권총으로 쏘아서 즉사시켰다. 여기에서 13명이 즉사하였으며 78명이 중상을 당하였다.

거제도 제76호 수용소 사령관 미 륙군 중장 "보우트너"는 수일간에 걸처 동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을 강압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군 제187 공정 련대 제2 사단 제27 련대 미군 제92, 94 헌병 대대 등 약 4,000 여명의 병력을 동원하였다.

이 병력은 20문의 포와 40정의 중기 및 경기와"엠 · 원"보총, 카빙총과 22대의

땅크 로써 무장되여 있었다.
이 작전의 목적은 76호 수용소에 수용되여 있는 6,800명의 전쟁 포로들의 「개인 면회심사」를 용이케 하기 위한 데 있었다. 1952년 6월 10일 6시 10분 정각 미 륙군 중장"보우트너"는 76호 수용소를 공격할 것을 신호하였다. 미군은 동 수용소에 대하여 무차별 란사하며 독까스를 산포하고 수류탄을 투탄했으며 땅크를 수용소 내에 침입시켜 포로 인원들을 땅크로 깔아 죽이였다.
륙군 중장"보우트너"는 잠시 초소로부터 동 수용소의 파괴 침습을 지도하였다. 이 수용소에 대한 공격은 4시간 계속되였다. 10시 30분 침습은 끝났다.
이 결과 2백 76명의 조선 인민군 전쟁 포로가 즉사하였으며 4,000명 이상이 부상 당하였다.
5. 미군 제94헌병 대대 부관(성명 미상)은 미군 종군 목사(성명 미상) 1명과 괴뢰군 제33경비 대대 소속 리승만군 중위 김연우를 대동하고 1952년 4월 7일 오전9시에 거제도 76호 수용소에 와서 동 수용소에 미리부터 전쟁 포로로 가장시켜 투입해두었던 테로 분자 김두익에게 권총 7정과 최루탄이 든 상자를 수교하면서 동월 9일에 실시하는『개인 면회 심사』에서 한 사람도 북 조선에 갈 사람이 없도록 할것을 지시하였다. 이 부관의 지시에 의하여 300명으로 조직된 동 수용소 내「대한 청년단」『서북 청년단』『멸공단』『기독교회』가담자들은 4월 8일 오후 7시부터 8,000여명 포로들을 수용소 내 씨・아이・이 학교에 개별적으로 호출하여 권총으로 심문하였다.
심문 시에 그들은 고문으로써 위협하면서 전쟁 포로들이 남조선에 남을 것을 강박하였다. 이에 응치 않은 포로인원들은 총살하였다. 이리하여 이날에 170명 이상의 포로들이 학살당하였다.
6. 1952년 4월 8일 오후 3시 30분 거제도 제81호 수용소에서 동 수용소 책임 장교 미 륙군 헌병 대위"스나이더"는 미군 종군 목사 옥호열 대위(조선 이름은 가진 미군인와 제33 경비 대대 소속 리승만 륙군 중위 김관희와함께 미식 전투용 권총 1정과 실탄 30발을 찦차로 가지고 와서 미리부터 동 수용소에 전쟁 포로로 가장시켜 투입하여 수용소 려단장으로 배치해 둔 테로 분자 배영호에게 수교하고「오는 4월 10일에 "개인 면회 심사"를 실시하겠으니 한사람도 북조선으로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주었다.
이 지시에 의하여 배영호는 동 수용소 경비 대장 마초원과 결탁하여 동일 오후 8시 30분부터 동 수용소 7,500여명의 포로들에게 넓이 5센치메터 길이 6센치 메터의 백지를 분배하여『북조선에 갈 사람은"북"이라고 쓰고 남조선에 남을 사람은 "남"이라고 써서제출하라』고 하였다.
이 용지들을 회수한 후 배영호는 이날 오후 10시에 "북"이라고 쓴 전쟁 포로를 하나씩 이 수용 소 내 씨・아이・이 학교에 불러다 80명의 기타 테로 도당들과 함께 전쟁포로를 고문하였다. 이 결과 90명 이상이 학살되였다.
7. 1952년 4월 9일 거제도 제83호 수용소에서 동 수용소 책임 장교 미 륙군 헌

병 대위"마취"는 리승만군 제33 경비 대대 소속 리승만 륙군 대위 박(이름 미상)과 함께 동 수용소에 미리부터 전쟁 포로로 가장시켜 투입하여 수용소 려단장으로 배치해 두었던 테로 단원 장위선과 기타 박상조들에게 20개의 단도를 주었다. 이 수용소에서 『개인면회 심사』를 진행한 모략을 준비할 다음 상기 "마취" 대위는 북조선으로 가겠다는 사람을 처리할 데 대하여 지시하였다. 동 수용소 포로 인원 6 400여명에게 동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백지를 분배하여 북조선에 가겠는가 또 남조선에 남겠는가에 대한 자기의 희망을 기입케 하였다.

이 배포한 용지를 수집한 후 테로들은 북조선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한 포로들을 불러다 고문 구타 학살하였다.

이 결과에 50여명이 학살되였으며 60명이 테로들에 의하여 찌•아이•이학교 근방 광장에 생매장되여 죽였다.

8. 1952년 4월 12일 거제도 제71호 수용소에서 제94헌병 대대 미 헌병 중좌"레이본"의 지시에 의하여 동 수용소 책임 장교 미군 헌병 대위는 (성명 미상) 유•에쓰 마크가 찍힌 단도 2백여개를 수용소 내에 반입하여 동 수용소에 미리부터 전쟁 포로로가장시켜 투입해 두었던 테로 분자 고영수에게 주면서 『개인 면회 심사』실시 시에 북 조선에 가겠다는 포로들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4월 12일 오전 7시부터 동 수용소 수용 포로 약 5,000명에 대하여 소위 『개별 심문』이 개시되었다. 이 심문 장소에는 미군 대위를 선두로한 275명의 미군 및 리승만 병사들이 동원되였으며 동시에 상기 테로 분자 고영수외 300여명으로 구성된 살인단들이 동원되였다.

심문 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 돌아갈 것을 표명한 전쟁 포로들은 단도로 찌르고 곤봉으로 란타하여 125명 이상의 전쟁 포로들이 무참히 살상되였다.

9. 1952년 4월 9일 거제도 제73호수용소에서 미군 제94 헌병 대대 소속 제 73수용소 책임 장교 미 륙군 헌병 대위"브라운"은『개인 면회심사』를 획책하고 동수용소 내에 미군에 의하여 전쟁 포로로 가장시켜 배치해 두었던 김명원 외 239명의 테로 분자에게 『북 조선에 가는 사람이 한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동일 오전 7시부터『개인 면회 심사』를 시작한바"브라운"대위는 미군 장교 30여명과 엠•원 보총 카빙총으로 완전 무장한 미군전하사 280여명을 수용소 주위에 배치하고 포로들을 위협하는 한편 김명원외 239명의 테로단은 수용소 내 찌•아이•이학교 내부에길이 12메터 넓이 10메터 깊이 8메터의 토굴을 파고 북 조선으로 돌아가겠다는 포로 김인원, 리창수, 최경곤, 기해룡, 정기우, 윤병룡, 강칠갑, 한광옥 등 27명을 곡괭이, 삽 등으로 란타 학살한 후 상기 토호에 매장하였다.

1952년 4월 10일 거제도 제95호 수용소에서 미군 제94 헌병 대대 경비과장 미 륙군 헌병 대위"레이니"는 95호 수용소 포로들이 『개인 면회 심사』시 남조선에 남을 것을 거부하였다 하여 량일간 식량과 음료수 공급을 중단시켜 포로들을 기아에 빠뜨렸다. 그리고 동일 오후 5시 정각 상기 "레이니"대위의 직접 지휘 하에 95호 수용소 책임 장교 미 륙군 헌병 대위"윌손"과 협동하여 미군 제7 사단의 약 450명

과 리승만군 제33 경비 대대 리승만군 장교 및 전하사 200여명을 동원하여 95 수용소를 포위하였다. 이 군대는 경기, 중기"엠•원"보총 및 권총으로 무장되였다. 리승만군 전사 80명에 각각 곤봉을 휴대시켜 수용소 내에 침습시킨 다음 동 수용소 포로들을 무차 별란타케 하여 5,000여명 포로들이 혹독한 구타를 당하였다. 이구타에 이기지 못하여 수용소로부터 쫓겨나 오자"레이니"는 전쟁 포로들에게 사격할 것을 군대에명령 하였다.

45분간 계속된 사격의 결과 45명의 전쟁포로들이 중경상을 당하였다.

10. 1952년 4월 8일 거제도 제93호 수용소에서 미군 제94 헌병 대대 소속 미군 장교는 괴뢰군 제33 경비 대대의 30명의 병사들과 협동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돌아갈 것을 원하는 포로 인원에게 야수적 고문을 가하여 72명의 조선 인민군 전쟁 포로를 동 수용소 씨•아이•이 학교에서 학살하였다.

11. 1952년 4월 10일 오전 8시경부터 오후 11시까지에 거제도 제91호 수용소에서 동 수용소 미군 행정원 일등 상사 "오브라스키"는 동 수용소 기독교회 신자로 가장하고 잠입한 리승만 테로단 25명과 협동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는 조선 인민군 포로 150명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테로 도당들은 북조선에 돌아갈 것을 원하는 포로들을 카빙총으로 위협하여 도자기 가마에 쓸어넣고 불을 걸러 구어 죽이였으며 동 수용소 내 씨•아이•이 학교 건물 내부에서 120여명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그 시체를 깊이 8메터, 넓이 4메터, 길이 12메터의 토호 속에 매장하였다.

12. 1952년 4월 10일 거제도 제94 수용소에서 동 수용소 책임 장교 미 륙군 헌병 대위는 리승만군 제33 경비 대대 소속 리승만 륙군 중위 황삼주와 동 수용소 특무강명호외 60여명의 협조를 받아 동 수용소에 수용중인 포로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 돌아갈 것을 원하는 34명을 곤봉으로 때려 죽이고 달아 매고 칼도로 신체를 찢었다

13. 1953년 4월 14일 거제도 제1 수용소 제8대대에서 동 대대의 미군 상사"마크"는 판문점 정전 담판이 성립되여 수용 중의 포로들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 송환된다는 데로부터 아무러한 리유도 없이 돌연히 조선 인민군 포로 조인수(포로 번호 22212)와 7명을 호출하여다가 동 수용소 고문실에 집어 넣은 다음 미리 투입하여 두었던 10여명의 리승만 특무들을 시켜 그들을 물고문하여 실신케 한 후 쇠젓가락을 달궈가지고 실신한 포로들의 몸에 반공 구호들을 새기는 등 가혹한 고문 끝에 학살하였다.

6. 녀성 전쟁 포로에 대한 만행

미군은 조선 인민군 녀성 포로에 대하여 그들이 녀성이라는 육체적 조건과 위생보건 상 고려없이 수용하고 학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검으로 위협하고 라체로 하여 군중들의 면전에서 보행케 하였으며 강간 후 그 죄악을 음폐하기 위하여 학살하며 강간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학살하며 기타 파렴치한 야만적 만행을 서슴치 않고 하는 동시에『빨갱이 계집』,『녀맹 위원장』『인민군대의 처』등의 리유로써 학살하

거나 또는 갖은 고문으로써 중상을 주는 등 만행을 감행하였는바 본 중앙 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한 70명의 귀환 포로들의 진술에만 의하더라도 미군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녀성 포로는 128명이나 되며 강간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학살당한 녀성 포로는 34명, 강간을 감행하고 그를 엄폐하기 위하여 학살한 수는 44명, 기타 리유로써 학살한 수는 120명, 중상 혹은 부상당한 자는 130명에 달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로써 미군이 감행한 인민군 녀성 포로들에 대한 야만적 만행의 전모를 능히 짐작할 수 있는바 이제 그 몇가지 실례를 든다면 아래와 같다.

1. 1950년 10월 16일 황해도 곡산군 조선 로동당 군당부 자리에서 미군 헌병 대위(성명 미상) 지휘 하에 리승만 군대 2군단 산하 헌병 중위는 조선 인민군 포로 남녀 36명 중에서 당 23세 되는 녀성 포로 김인숙을 전신 라체로 한 후 『녀맹 위원장이 아닌가?』고 혹독한 고문과 모욕을 가한 후 강간하였다.

10월 18일 오전 7시 미군 헌병 대위는 상기 김인숙과 함께 녀성 2명, 남성 4명 계 6명의 포로 인원을 상기 군당부의 전쟁 포로 림시 집결소로부터 약 500메터 떨어진 곳에서 총살하였다.

2. 1950년 10월 28일 오전 8시에 평남도 순천군 순천 시내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야전 병원 소속 미군 중위 1명, 중사 3명과 8명의 미군 병사는 조영희를 비롯한 5명의 조선 인민군 녀성 포로를 라체로 하여 그들의 손을 노끈으로 결박한 후 휘발유를 치고 불태워 학살하였다.

3. 1950년 10월 15일부터 1950년 11월 12일까지 황해도 평산군 한포리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중위 "해리손" 은 동 리 『치안대』 감방에 구금되여 있는 조선 인민군 녀성 포로 유옥희를 강간하고 리승만 헌병을 시켜 그를 감방에 넣고 매일 고문하게 한후 총창을 불에 달구어 팔과 다리를 지졌다.

4. 1950년 10월 14일 밤 충청남도 대전에서 미군 대좌 "매래" 는 조선 인민군 녀성 포로 김영순을 감방 밖으로 끌고 나와 노끈으로 팔과 다리를 결박한 다음 차에 강제로 실어다 강간한 후 다시 독감방에 강금시켜 놓았다.

그 이튿날 오전 10시경에 상기 대좌 "매래" 는 감방으로부터 녀성 포로 김영순을 끌고 나와 또다시 강간한 후 그를 총살하였다.

5. 1952년 4월 30일 오후 5시경에 거제도 미군 제64 야전 병원 앞마당에 그날 부산으로부터 거제도로 이송되여온 조선 인민군 녀성 포로 약 500여명을 태운 미군 대형 트럭 10여대가 도착하자 동 야전 병원 소속 미군 하사 "데니" 등 미군 병사들은 녀성 포로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던지면서 돌을 녀성들에게 던졌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50여명의 녀성 포로들을 부상시키고 자기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 부상자들을 병원에 남겨 두었다. 이 병원 소속인 "데니" 하사와 기타 미군들은 전쟁 포로 녀성들을 릉욕하였다.

6. 1950년 10월 14일 남녀 포로 도합 80명이 의정부 류치장으로부터 서울로 이송되는 도중 당시 이송 책임을 진 미군 소위(성명 미상)와 그의 병사들은 이송되는 포로들의 손을 결박하고 총창으로 의복을 찢어서 전부 라체로 만들었으며 이송 도

중 인민군 녀성 군관 박정자외 2명을 발이 붇으러서 걷지 못한다는 리유로 미군 특무 상사(성명 미상)는 즉석에서 카빙총으로 총살하였으며(보충에는 113이라고 황색 뼁키로 기입되여 있었음) 서울시에 도착하여서도 미군은 라체로 만든 포로들을 서울시 내로 행진시키면서 시민들에게 구경시키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 역전에 와서는 미군 영사 기사들이 촬영까지 하였다.

서울 륙군 형무소에 이감된 1950년 10월 15일 밤에는 리승만 포로 관리자 7명이 들어와서 녀성 포로 6명을 끌고 나갔다가 30분 후에 돌려 보내였는데 그중 1명은 음부가 파열되여 심한 출혈로 그날 밤 사망하였다.

7. 1950년 10월 26일 강원도 원산 남쪽 28키로메터 지점에서 충청북도 충주 출신인 허일현과 그의 누이 동생 허일선(19세)외 인민군 남성 포로 3명과 기타 녀성 포로 2명이 미군에게 포로되였는바 미군은 이들 7명을 트럭에 싣고 가다가 부근 산 비탈에서 차를 멈추고 허일현외 3명의 남성 포로들을 나무에 결박하여 놓고 3명의 녀성 포로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는데 약 1시간 30분 후 녀성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여 왔다.

얼마 후 미군들은 산에서 내려와 나무에 결박하여 놓았던 남성 포로들을 풀어 놓고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강간하고 학살한 녀성 포로들을 매장하라고 하였는바 허일현의 누이 동생 허일선은 음부에 나무 꼬쟁이가 박힌채 학살되여 있었다.

8. 1950년 10월 5일 오후 9시경 왜관역에서 미 륙군 하사 "긴스포"(8군단 소속— 포로 이송 책임자)는 충청북도 영동에 수용되여 있는 포로 인원을 부산 수용소로 이송 도중 녀성 포로 김애자(20세 전북 전주 인민 병원 간호원)를 강제로 왜관역 구내에 정차 중인 빈 객차에 끌고 들어가서 강간한 후 역 서쪽 150메터 가량 되는 지점 밭에서 카빙총으로 총살하였다.

9. 거제도 녀자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여 있던 김정숙은 환자로서 거제도 64 야전 병원 녀자 포로 입원실에 입원하고 있었다. 당시 64 야전 병원 수용소장 "멜리손" 은 1952년 8월 5일 오후 8시경 미군 의사(성명 미상)대위를 시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게한 후 김정숙을 강간하려고 달려 들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니까 소지하였던 권총으로 김정숙의 좌측다리 대골을 관통시켜 그 후 치료하였으나 14일 만에 사망하였다.

10. 1952년 3월 10일 10시경 부산 100 포로 수용소 제2 수용소 내 정보과에 근무하는 미군 상사"바비소"와 미군 중사 "메이" 는 부산 100 포로 수용소 제4 수용소에 수용되여 있는 녀성포로 강점숙(21세)과 정정순(21세)을 병원 간호원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구실로써 정보과에 데리고 가서 6시간에 걸쳐 발로 차고 가죽채로 무수히 란타하며 물고문을 한 결과 두 녀성은 실신하여 쓰러졌으나 계속 이와같은 고문을 거듭하여 강점숙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정정순은 귀머거리가 되였다.

7. 병상포로들에 대한 학대와 의학 실험

미군은 수다한 조선 인민군 병상 포로들을 의학적 실험 대상으로 리용하였다.

미국인들의 이러한 만행에 의하여 학살 혹은 불구자가 된 인민군 포로는 허다한 바 본 중앙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376명의 귀환 포로들의 진술에만 의하더라도 학살당한 조선 인민군 포로수는 2,018명이며 불구자 수는 1,116명에 달한다.

그몇가지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인민군 포로 박용국(21세)은 1950년 9월 26일 좌측족관절부에 골 손상이 없는 관통 총창으로 부상되여 1950년 9월 26일에 포로된 후 10월 20일 부산 제1 수용소에 수용되였다.

수용소 당국은 당시 특별한 합병증이 없고 골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생들의 실습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질병 치료와는 하등 관계 없는 비 인도적인 행위를 감행하였다. 미국 의학생들은 좌측 족 관절부를 절단하였으며 11월말에는 제2차로 하퇴 말단 3센치메터를, 1951년 3월 17일에는 제3차로 2센치메터를, 4월에는 4차로 2센치메터를, 5월에는 제5차로 2센치메터를, 계속 절단하여 하퇴 하반부를 완전히 상실케 하였다.

2. 1950년 10월 13일 강원도 홍천 북방 약 30키로메터 지점에서 인민군 포로 조민현(28세)은 좌측 전박에 골절성 관통 총창 및 좌측 하퇴에 포 파편성 맹관창을 당하여 포로된 후 원주에서 사회 의사(성명 미상)로부터 처치를 받고 부산 수산 대학에 수용되여 있다가 11월 말경에 이르러 수술 처치와 기프스 고정을 받았다.

이에 미군 의사들은 손상 부위를 치료하는 것보다도 치료의 가면을 쓰고 미군 측 부상자들을 치료할 목적으로 조민현의 골편을 치료 재료로서 절재한 생골 절취 행위를 감행하였는바 그 후 1951년 1월 6일 부산 제14 야전 병원에서 미군 군의 대위 "씨라"는 좌측 상박을 재 수술하고 기프스로 고정한 후 동 환자의 좌측 하퇴에 있는 파편을 적출 한다는 구실 하에 하퇴를 절재하고 그 당시 하등 자각 증상과 손상이 없는 좌측 하퇴 "비골" 약 7센치메터를 절재하여 가져갔으며 1952년 2월 20일 역시 "씨라"는 동 환자의 좌측 전박을 다시 수술하고 금속 철사로 고정한 후 기프스 붕대를 하였으며 1952년 8월 중순 제4차로 골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하여 우측 하퇴 경골 약 15센치메터를 절재하여 좌측 전박 골절부에 이식하고 다시 우측 장골 약 8센치메터를 절재하여갔다.

3. 1950년 10월 6일 강원도 원산시에서 미군의 기총사격으로 좌족지가 절단되고 좌하퇴 하 3분의 1 부위에 관통창을 입은 녀성 강중숙은 미군에 의하여 포로되였는바 미군 군의는 1950년 10월 14일에 환자의 좌측 하퇴하 3분의 1 부위에서 절단하고 제2차로 동년 10월 20일경에 슬관절 하에서 절단하고 제3차로 10월말경에 슬관 절부에서 절단하고 제4차로 11월 15일경에 좌측 대퇴 2분지1 부위에서 절단하고 제5차로 11월 25일 경에 좌측 대퇴 상단 10센치메터를 남기고 절단하였으며 이상 5차에 걸치는 매 수술 후 치료에서 매번 절단 창면을 봉합하지 않고 개방하여 두었으며 또 불필요한 압박 견인 장치를 실시함으로써 질환에 대하여 과학적인 치료의 목적없이 5차에 걸쳐 절단 수술을 하고 불필요한 견인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자기들의 실험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환자를 결국 더욱 심한 불구자로 만들었다.

4. 제14 야전 병원 외과 과장 미군 소좌 "라스킨"은 많은 환자에 대하여 실험 대상으로 페 수술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포로들은 이를 반대하였으나 특무들을 사수하여 그를 구타하여 의식을 상실케 한후 "라스킨" 은 페 수술 실험을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환자들은 전부 다 사망하였다.

5. 제14 야전 병원 실험실 주임(성명 미상)은 일련의 약제의 작용을 검사하기 위하여 환자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는 의식적으로 환자들을 극도의 쇠약에 이르게 한 후에 각종의 의약품을 사용하였는바 이로 말미암아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아졌으며 특히 그는 리승수를 포함한 수명의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들을 독특한 방법으로 극도로 쇠약케 만든 후 "떼라미찐" 을 사용하였으며 그 작용을 실험하기 위하여 보충으로 리승수의 흉부를 쏘아 죽이고 시체 해부를 실시하였다.

6. 14 야전 병원 미군 관리자들은 실험 대상으로 병원 내에 전염병을 만연시키는 만행을 감행하였는바 그들은 적리 환자들을 격리시키지 않았으며 수용소에는 세면기와 음료수가 없었고 포로들을 그냥 땅에서 자게 하였으며 적리 환자가 건강한 사람과 가치 자게 할뿐만 아니라 1950년 10월부터 1951년 5월까지 하등의 치료도 하지않은 결과 매일 20명 이상의 적리 환자가 사망하였으며 1959년 11월 23일에는 하룻 동안에 91명의 적리환자가 사망하였다.

제4 수용소에 있어서만 하여도 이러한 8개월 간에 걸치는 실험의 결과 2,000여명의 적리 기타 환자들이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높은 사망률의 원인은 치료를 하지 않은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험 대상으로서 리용하였기 때문이다.

7. 미국인들이 병상 포로들에게 대하여 고의적으로 의료상 방조를 주지 않은 결과 1950년 10월 15일부터 1951년 2월말까지 부산 거제리 제4호 수용소에서는 6,700명 이상의 포로가 죽였다.

이 수용소의 군의 미군 소좌 "텐니" 는 환자들에게 해당 병증에 적응한 투약을 하지 않았는바 리질 환자에게 아쓰피링을 투약하는 등의 사실이다.

그리고는 겨울 아침에 환자들을 청소라는 구실로써 밖으로 내몰았다.

8.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까지 미군 군의 소좌 "뻬니" 의 지휘 하에 있은 부산 제1, 2, 3, 4, 5호 병원에서는 의료상 방조를 주지 않은 결과 960명의 포로가 병사하였다.

병원은 추위와 바람을 막지 못하는 엷은 천막에 있었다. 환자들은 한장의 담요를 가지고 마루바닥에 누어있었다.

8. 전쟁 포로에 대한 무기의 성능 시험

미군 당국은 조선 인민군 포로들을 억류하고 있는 기간 포로들에게 비 인도적인 박해와 학살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 포로들을 원자 무기를 포함한 각종 무기 시험에 리용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포로들을 일본 등 다른 지역에 이

송하였다.

1. 1950년 11월 16일 부산 거제리 제100 포로 수용소 관하 제7 수용소에서는 인천, 단양 등 방면으로부터 후송된 조선 인민군 포로 약 2000여명이 수용되여 포로 신분 등록을 시킨다는 구실로 대기중에 있었다.

동 수용소를 관리하는 미군 하사 1명은 조선 인민군 포 부대에 속하였던 장상현을 선발하여 수용소 정문에 대기 중에 있던 미군 기갑 부대 대위에게 인계하였다.

미군 대위는 그를 찦차에 싣고 미군 장갑차 및 땅크 집결소에 데리고 가서 장갑차와 땅크 소제를 시킨 후 그를 카빙총의 목표물로 삼았다.

동년 11월 20일 오전 10시경 미군 대위는 20여명의 미군을 데리고 동 수용소에 와서 포로들 중 주로 인민군 포 부대에 복무했던 포로 3백여명을 강제 선발하여 이들을 대형 트럭 4대에 분승시키고 동 수용소 동남방 6키로 지점에 데려 갔다 그리고는 포로들을 낮은 산기슭에 앉히거나 또는 눕히고 상기 미군 대위는 동 장소에서 약 200메터 떨어진 지점에 이미 배치하였던 땅크 중기 등으로 집중 사격하여 전원을 학살하는 만행으로써 무기의 살상력과 사격의 정확성을 시험하였다.

2. 1952년 7월 7일 거제도 수용소 소장 "보우트너" 는 포로들을 작업에 동원한다는 구실 하에 미군 군의 2명을 대동하고 동 수용소 제4 대대에 수용 중의 조선 인민군 포로 120명을 특별한 장치를 한 자동차 2대에 싣고 거제도 제1 부두에서 약 3키로 떨어진 지점에 데리고 가서 차를 멈추고 약 4시간 동안 포로들을 차내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채 까스 무기의 실험을 하고 수용소에 돌려 보내여 이 포로들은 다른 포로들로부터 격리시켰다. 이러한 실험 후 포로들은 2개월간 눈을 뜰 수 없었다.

3. 1952년 12월 30일 미군 비행기 1대는 저공 비행을 하면서 거제도 제17 수용소 4대대 숙사 상공에 이르자 봉지 1개를 투하하였는데 이 봉지는 제4 대대 숙사 상공에서 터졌다. 상기 17 수용소 4대대 전원은 눈병에 걸리여 보지 못하였으며 그 후 미군은 이 제4 대대 포로들을 엄중 차단하고 1주일에 두번씩 군의들이 와서 그 정형을 조사하였다.

4. 1952년 8월 13일 봉초도 제2 수용소에서 미군들은 조그마한 철조망 안에 500명 이상의 인민군 포로들을 몰아 넣고 2개 소대의 병력으로 1천여개의 가스탄을 투탄하여 리환 상태를 실험하였다.

이 결과 350명 이상이 중한 화상을 입었으며 44명이 의식을 상실하였으며 4명이 사망하였고 3명이 청각을 상실하였으며 6명이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였다.

5. 1951년 5월 중순경 거제도 제2 부두 앞 해상 약 1마일 지점에 정박하고 있던 미군 위생선 제19호의 미군인들은 제61, 62, 63, 64, 65 등 전쟁 포로 수용소들에 수용 중에 있던 조선 인민군 전쟁 포로 1,500명을 싣고 그 이튿날 오전 3시에 출항하였다. 이 사실은 이날 동부두에 동원되여 미군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 작업에 동원되고 있던 조선 인민군 포로 25명이 시종 목격하였다.

상기 조선 인민군 전쟁 포로 25명의 제2 부두에서의 작업을 감시하던 거제도 미륙군 제94 헌병 대대 소속 미 륙군 상사는 손과 얼굴로 형용하면서 『아로 멍 봄보

스 보봉!」이라고 원자탄의 폭발 형용을 표시하고 상기 위생선 제19호에 포로들의 주의를 돌리게 하였다.

이 1천 500백명 포로들이 원자탄 실험을 위하여 실려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 포로 고진규는 이 사실을 더욱 확증할 목적으로 감시병이던 리승만군 하사 양인배에게 질문한즉 그는 말하기를「저 미국 상사가 말하는데 미국에서 전에는 돼지나 개 기타 동물들을 원자탄 성능 실험에 리용하였는데 이번에는 포로들로 실험한다」고 하였다.

6. 1950년 10월 23일 밤 10시경 부산 제3 부두로부터 미 해군 장교 및 병사들에 의하여 운행되는 약 5천명 수용 능력이 있어 보이는 회색 미군 수송선은 부산 포로 수용소 관하 서면 수용소에 수용 중의 조선 인민군 포로 8백여명을 행처 불명의 곳으로 이송하여 갔다. 이날 동 부두에서 식량 하선 작업에 동원되였던 조선 인민군 포로 정상형외 150여명의 포로들은 상기 8백여명의 포로들이 매인당 모포 1매씩을 어깨에 메고 미군 대좌 1명의 지휘 하에 미군 장교 및 병사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미군 대형 트럭을 타고 동 부두에 도착하자 곧 전기 수송선에 실리우는 것을 보았다.

이 때 포로들은 타인과의 면담을 엄중히 금지당하고 있었으며 작업 중의 포로들은 이들과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약 1백메터 되는 지점에 물러서 있게 하였다 한다.

8백명의 포로 중 한사람이 미군 감시의 틈을 타서 한장의 서면을 작업중의 포로들을 향하여 던지였는바 이 서면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 있었다.

「우리는 주로 1950년 9월말경 경상북도 일대에서 포로된바 부산 수용소에 와서 20여일 되는 사이에 포로 등록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더우기 외부와는 엄중히 차단되고 있었다. 지금 우리들은 어데로 이송되여 가는지 행처를 모른다」.

9. 결 론

이상 지적된 제반 사실들은 정확하고 공정하고 과학적인 조사의 결과 확정된 사실들 중 지극히 적은 부분이다. 그러나 이 일부 사실에 의하여서만도 미국 침략군대가 조선 인민군 전쟁 포로들에 대하여 감행한 야만적 죄악의 전모를 알수 있는 것이다. 평화 애호 인류는 이와 같은 범죄의 감행자들을 엄격히 규탄하면서 그들을 처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들은 조선 인민군 포로들에 대한 미제 침략자들의 만행이 결코 일부 개별적 장령이나 장교 또는 병사들에 의하여 우연적 동기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만행이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에 있어서 미국 군대의 이와 같은 만행은 군벌 및 통치층 두목의 직접 지시에 의하여 감행되였다.

미국 침략자들은 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1907년 및 1927년의 협약과 1949년의 제네바 협약에서 예견된 국제법의 규범을 조직적으로 란포하게 위반하여 인류 력사에서 치욕적인 페지를 이루었다.

엄연한 현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미국 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였다. 조선 인민은 영웅적 중국 인민 지원군의 원조 밑에 영웅적 투쟁으로써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였다.

조선에서 감행한 이 류혈적 만행의 범죄자들은 자기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 세계 인민들은 분노와 격분으로써 이 범죄자들을 규탄하면서 영웅적 조선 인민과 인민군 포로들에게 비 인간적 만행을 감행한 미국 침략자들을 즉시 처단할 것을 요구한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1953년 12월 10일

(2). 조선 인민군 포로들에 대한 미국 침략자들의 의학적 실험의 범죄적 만행에 관한 조선 적십자회 조사 위원회의 조서

서 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후보 원사 최응석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과 교수 주민순, 내과 의사 김성중, 외과 의사 박병흡, 외과 의사 성주영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본 조사 위원회는 미군 제 14 十 3호와 제64호 병원에서 미국측 의사에 의하여 조선 인민군 전쟁 포로에게 감행된 의학적 실험의 범죄적 만행의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위원회는 조사의 진행과 이조서의 작성에 있어서 포로번 호 제80,284호로 1951년 12월 27일부터 1952년 11월 2일까지 제 14 十 3호 병원에서 일한 전 포로 의사 량히환과 포로 번호 제73,542호로 포로된 의사로서 1952년 7월 9일부터 1952년 12월 20일 까지 제14十3호 야전 병원의 제4 수용소에서 사업한 오평갑과 포로 번호 제32,670호로 1950년 11월부터 1952년 1월까지 부산시에 있는 미군 제 14호 야전 병원 제4 수용소에서 일한 전 포로 의사 김명준과 포로 번호 제 90,087호로서 1951년 1월 20일부터 1952년 8월 14일까지 제 14호 야전 병원 제5 수용소에서 일한 전 포로 의사 최충렬 등의 구두 및 서면 진술과 또 현재 조선 인민군 병원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포로된 기간 중에 있어서 고문, 가스탄 피해와 범죄적 비법적 수술을 받은 송환된 전쟁 포로들의 진술에 의거하였다.

본 조사 위원회가 진행한 조사의 결과 미국 침략자들이 조선 인민군 포로들을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며 많은 조선 인민군 포로들을 학살 하였으며 불구자로 만들었다는 전률할 범죄적 제 사실들을 립증하여 주는 객관적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제 조선 인민군 포로들에 대하여 미국 침략자들이 감행한 수다한 만행중 본 조사 위원회에 알려진 전형적인 허다한 사실 중에서 몇가지 실례만 렬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시에 있는 미군 제 14 十 3호 야전 병원에서 미국 의사 콘르이와 캐휠트는 실험의 목적으로 조선 인민군 전쟁 포로의 인체에 인공적으로 장천공을 만들

였으며 그 다음에 이 환자를 수술하여 계속 자기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때의 수술은 사망률이 80%까지 달하였다. 즉 40명의 수술 환자중에서 32명이 사망하였다.

3명의 환자에 대하여서는 이 미국 의사들은 반복하여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5명의 환자를 회복되기도 전에 퇴원시켰다.

이리하여 8명의 환자는 전부 불구자로 되였다. (진술자 량히환)

2. 미군 제 14 十 3호 병원에서 정형 외과장인 모아 소좌는 조선 인민군 전쟁 포로들에 대하여 동상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는 포로 환자를 1950년 12월과 1951년 1월에 거의 질식시키고 랭한의 작용을 받게 하였다. 즉 그는 환자를 침구와 의복이 없이 언 땅에 누어 있게 하였다. 이 결과 환자들 속에 대량적인 동상이 발생되였다.

또 실험의 목적으로 미국 의사 모아 소좌는 다만 수지의 제1 도 동상 (발적) 으로 사지의 범죄적 절단술을 감행하였다.

일련의 포로에게 실험의 목적으로 분절적 (부분적으로) 반복적 절단술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하여 다만 족지의 제1도 동상을 당한 포로 김순산에게 모아 소좌는 9회의 반복적 재 절단술을 실시하였으며 나중에는 대퇴의 완전 절단술을 감행하였다.

모아 소좌와 그 조수들은 이러한 범죄적 만행적 수술을 다만 1951년 1월부터 1951년 3월까지의 3개월 간에만도 80명 이상의 조선 인민군 포로들에게 실시하여 그들을 전체 불구자로 만들었다. 이런 수술은 의수 의족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근육과 골을 같은 높이에서 절단하였다. (진술자 량히환)

3. 제 14 十 3호 야전 병원에 온 덴마크 병원의 원장은 실험을 실시할 목적으로 김치영 외 많은 조선 인민군 전쟁 포로들에게 두개골과 뇌수에 대하여 수술을 실시하였다. 즉 절대로 부상당한 일이 없는 포로에게 강제적으로 뇌조직 간에 파편이 있다는 구실 밑에 범죄적 실험 수술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환자』들의 사망률은 50% 이상에 달하였다. 살아난 나머지 『환자』들도 수술 후 마비와 언어 장애 및 기타로써 불구자가 되였다. (진술자 량히환)

4. 내과 전문가이며 제 14 + 3호 병원 안과장인 슈나이다는 아무런 적응증과 근거가 없이 다만 눈에 약간의 동통이 있다 하여 조선 인민군 전쟁 포로들에게 야만적으로 범죄적 안적 수술을 감행하였다. 슈나이다는 이러한 출술을 1951년 12월 한달에만도 문봉선외 15명의 포로에게 감행하였다. (진술자 량히환)

5. 1950년 12월에 제1493호 병원 제3호 병원 제2호 포로 수용소에서 미군 위생 군무 하사관은 실험의 목적으로 예방 주사를 놓는다는 구실 밑에 (장티브스 왁찡을 치사량 이상으로 대량 투여 하였을때의 발병 여부를 알기 위하여) 장티브스 왁찡을 조선 인민군 전쟁 포로들에게 대량 투여하여 심한 질병을 야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비 인간적 실험을 거절 혹은 항거한 포로는 두옥하였다.(진술자 량히환)

6. 미군 제 1493호 야전 병원 내과장 페니 소좌와 제4 수용소 소장 베리는 직접 자신들이 포로 중에 미국 의사 특무 그루빠를 조직하였다. 그 그루빠에는 손영화, 정기원, 정세우, 박창원, 김문식, 조영문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들은 포로에게 고문을 하고 심문하였다.

즉 포로된 리훈운 준의는 인민군 군관이라는 리유로서 특무 의사인 상기 6명의 특무들로부터 고문과 심문을 당하였으며 4시간이 경과한 후 1952년 2월 12일에 사망 하였다.

미국 의사 페니와 베리는 특무 의사인 손영화에게 진단을 다르게 하여 리훈운 준의의 사망의 진상을 은폐 하게끔 지시를 주었다. 이 날에도 그 병원 병실에서 고문이 조직되였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는 포로되였던 의사인 오명갑, 리환현, 신태환, 김기철과 포로되였던 환자인 김호가 증언하였다.

7. 부산 본부 수용소 소장인 미군 의사 피스웟즈는 환자들이 노래를 불렀다 하여 1952년 4월 15일부터 1952년 5월 25일까지 40일간 조선 인민군 전체 포로 환자들에게 치료를 거절하였다. 이 때 그는 말하기를 약은 우리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고 너이들 포로에게는 없기 때문에 약은 우리의 무기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치료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500여명 이상의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 중 많은 환자들이 사망하였다. 이 사실은 의사 오명갑, 차종혁, 강호전, 리순제가 증언하였다.

피스웟즈는 자기의 범죄를 이것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1952년 5월 25일부터 10일간 투약 및 식사를 중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까지 주지 않았다.

수 일후 미국인들은 환자들에게 질식성 까스를 작용시켰다. 그결과 241명의 환자가 중하게 질식 (호흡 곤난) 되였으며 8명이 사망하였다. 뿐만아니라 피스웟즈는 호흡 곤난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급보로 갈 것을 강요하였으며 이 때 미국 경찰은 날창으로 포로 대퇴부와 둔부를 찔렀다.

8. 미국 의사 메젠 대위와 소로몬 대위는 정전후에도 이러한 악행을 계속하였다. 즉 정전 15일 후 메젠과 소로몬은 결핵성 뇌막염을 합병한 가장 중독 상태의 결핵 환자들을 속히 사망시킬 목적으로 감옥으로 이송하였다.

그 후 감옥에 미국 경찰관 리승만 괴뢰병이 들어와 포로들을 구타하였다.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각혈하였으며 3명이 사망하였다.

8일에 중독 상태에 있는 900명 이상의 결핵 환자를 퇴원시켜 그들을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이송하였다.(진술자 최충렬)

9. 또 미국 의사들은 14호 야전 병원 수용소 내에서 조선 인민군 포로들의 사망률을 높이며 그들에게 정신적 쇠약을 가져올 목적으로 전염병을 만연시키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염병 특히 적리의 만연이 잘 되게 끔 조건들을 만들었다.

즉 적리 환자를 격리하지 않았으며 수용소에는 세면기와 음료수가 없었고 포로들을 땅에서 그냥 자게 하였으며 환자들을 건강한 사람과 같은 이불 속에서 자게

하였다. 게다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5월까지 치료를 가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매일 적리로서 20명 이상의 환자가 사망하였으며 1950년 11월 23일에는 하룻 동안에 91명이 사망하였다.

자기 실험에 대하여 미국 의사들은 때때로 잡지에 소개하였다. 즉 1953년 『의학잡지』의 제4호 3페지에서 미국 의사 『리챠드 메이존』 대좌는 1,048명의 적리 환자에 대한 치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강조하기를 거제도 수용소에서 그들(미국인들)이 약 2%의 적리 환자만을 입원시켰으며 기타 모든 적리 환자는 실험의 목적으로 6그루빠로 구분하여 그 중 1그루빠는 252명으로 되여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게 하였으며 그 결과 그들의 사망률은 90% 이상이였다고 하였다.

미국 의사는 돈을 받을 목적으로 이런 또는 저런 약제의 효과를 검사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가장 중환자를 선택하여 그들로써 소위 대조군을 만들어 그 대조군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망률은 더 증가되여갔다.

제4 수용소에 있어서만 하여도 이러한 7개월 간에 걸치는 실험의 결과 2천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적리에 의한 높은 사망률의 원인은 치료를 하지 않은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의사들이 실험 재료로서 이런 또는 저런 약재의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환자를 리용하였다는 데 있다. 즉 대조군의 환자는 한랭의 작용을 받게 하여 그들에게 동상 및 기타를 일으키게 하였으며 또 미군 하사 스헤하로의 만행에 대하여 반대 항거한 사람들을 침대와 함께 1951년 겨울 한기 중에 끄집어 내서 탈의시키고 랭수를 끼얹어 주었다.

이러한 극악한 실험의 결과 환자들은 그날에 사망하였다. (진술자 홍순옥)

10, 14호 미군 야전 병원 실험실 주임은 돈벌의 목적으로 일련의 약재의 작용을 검사하기 위하여 환자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 그는 환자를 극도의 쇠약에 달하게 하였으며 그 후에 약품의 효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각종 약재를 사용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환자 사이에 있어서 사망률이 높아졌으며 오랫동안 인공적으로 병의 기일을 연장시켰다.

특히 미국 실험 의사들은 중국 인민 지원군 환자에 대하여 장난하였다. 그는 독특한 료법으로써 중국 인민 지원군 리승주를 완전한 쇠약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은 허약한 유기체에 대한 까스의 작용을 연구할 목적으로 수회 이러한 쇠약한 환자에 대하여 까스의 작용을 검사하였다.

미국인들은 리승주에게 떼라미찐을 실험적으로 사용하였다. 리승주가 보행 상태에 있고 병실로부터 나오게 되였는데 제4 수용소 소장 미국 의사 소좌가 걸상 위에 앉아 있는 리승주를 보고 보초의 총을 달래서 떼라미찐의 작용을 실험적으로 연구할 목적으로 흉부를 사격하여 리승주를 죽이고 시체 해부를 실시하였다. (진술자 홍순옥)

11. 제14호 미군 야전 병원 외과 과장 소좌 락키는 사경에 처한 모든 환자에 대

하여 실험적으로 폐 수술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약간의 사람은 죽으려 가는 것을 희망치 않고 도망하려고 하였으나 리승만 특무들은 그들을 구타하여 의식을 상실케 하였다.

락키는 그가 포로 의사 한 태빈에게 말한 바와 같이『계획에 의하여 수술하였으며』이러한 환자는 동일에 사망하였다. (진술자 한태빈)

12. 제14호 미군 야전 병원 제5 수용소에서는 미국 의사 대위 라크가 결핵 환자에 대한 범죄적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실험되여 있는 스트렙트미찐의 작용을 검사할 목적으로 중한 결핵 환자의 대조군을 설정하고 이들에게 아무런 방조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극악한 실험의 결과 1951년 7월부터 1952년 6월 사이에 제14호 병원 제5 수용소에서 1,000명의 결핵 환자가 사망하였다.

라크는 이렇게 독특한 실험으로 결핵 환자의 대중적 살륙을 감행하였다. (진술자 최충렬)

13. 제14 + 3호 병원 제5 수용소(부산)에서 리승만 군속 의사 리옥경은 복강에 공기를 충만시키는 방법으로써 결핵 환자를 치료하였으며 또 고의적으로 자주 복강 대동맥의 창상을 일으키게 하였는바 이로 말미암아 환자를 사망케 하였다.

환자들은 리옥경 의사에 대하여 이러한 위험한 료법의 적용을 중시할 것을 호소하고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수용소장 대위 소로몬과 의사 에이 • 디 • 라크는 중환 결핵 환자의 치료를 2개월간이나 중단하였는바 그 결과 100명의 환자가 사망되였다. (진술자 최충렬)

14. 수용소에서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미국인들은 아무러한 리유없이 인체에 대한 독가스의 작용에 관한 실험적 관찰을 목적으로 독가스를 사용하였다.

1952년 8월 13일 제2 수용소 (룡초도)에서 미국인들은 거리가 100메터 이내인 두개의 철조망 사이의 좁은 장소에 몰아 넣은 500명 이상의 포로에 대하여 독가스를 두개 소대의 병력으로써 투탄하였다.

독가스를 강력하게 투탄하였을 때의 리환 상태를 연구할 목적으로 독가스탄 1,000개를 투탄하였다.

그 결과 350명 이상이 중한 화상을 입었으며 44명이 의식을 상실하였으며 4명이 사망하였으며 3명이 청력을 상실하였으며 6명이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였다.

미국인들은 실험적 관찰의 목적으로 부상자들에게 아무러한 치료도 실시하지 않았다. (진술자 량히환)

15. 실험의 목적으로 미국 의사는 만성 재발성 적리 환자에게 환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적인 인공 홍문 수술을 실시하였다.

환자의 항거가 있으면 의식이 상실될 때 까지 구타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수술을 실시하였다. 포로번호 16145호의 환자 리병건, 포로 번호 181693호의 윤영옥, 포로 번호 27739호의 김신현은 치료중 제54호 병원에서 범죄적 실험적 수술을 받

았다.

귀환 포로 중에서 분루가 있은 환자는 조선 인민군 제55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완전히 회복되여 로동을 하게 되였다.

16. 미국 의사들은 각종 야만적 극악한 고문 방법을 실시하였다.

례를 들면 포로 번호 제61538호인 환자 리정호, 포로 번호 제31419호인 최영환, 포로 번호 제22837호인 김선옥 기타 많은 환자들은 몽둥이로 눈이 자멸될 때까지 눈을 타박당 하였다.

이는 미국 제14호 야전 병원에서 실시되였다.

많은 환자들은 독가스 사용후 시력을 상실하였는바 포로 번호 제46157호인 김경선은 1953년 6월 16일 반복 가스 중독을 입게 되여 그 결과 량안을 완전 실명당하였다.

포로 번호 제67130호인 환자 송계온은 1953년 7월 26일 2시간에 걸쳐 가스 중독을 제13호 수용소(거제도)에서 입었다.

그 결과 시력이 상실되였다.

그 외에 이와 동일한 날 4명이 완전 실명을 하였으며 350명의 포로는 가스 중독에 의하여 위독한 상태에 빠졌는바 이 때 미국인들은 가스의 작용에 대한 실험적 관찰의 목적으로 부상자의 치료에 있어서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았다.

17. 미국인들은 포로의 대중적 리환의 목적으로 독가스, 수류탄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땅크와 포로써 화학탄을 방사하였다.

포로 번호 제128750호인 김정수의 진술에 의하면 제76호 수용소(거제도)에서는 1952년 6월 10일 미국인들이 7.000명의 포로들을 쏠 목적으로 27대의 땅크와 12문의 포를 사용하였다. 여러 시간 쏜 결과 227명의 환자가 사망하였으며 572명이 중한 손상을 입었으며 2.000명 이상이 경한 손상을 입었다. 미국인들은 실험의 목적으로 사람이 가득 탄 차에 대하여 독가스 수류탄을 던졌다.

1952년 9월 29일 미국인들은 트럭에 24명의 포로를 태우고 다음에 실험의 목적으로 5개의 화학 수류탄을 던졌다. 트럭에 있던 사람은 15—20시간 의식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또한 가스탄에 의한 개별적 손상 실험을 하였다. 즉 1953년 2월 2일 제11 수용소 (거제도)에서 방독 마스크를 쓴 미국인들은 산포기를 리용하여 1메터 거리에서 포로 1명씩 가스 중독을 실험하였다. 포로는 2시간 동안 의식을 상실하였으며 호흡 곤난을 느꼈고 또 부상자에 있어서는 10—15일 경과 후 체중이 급격히 저하되였다.

조선 인민군 포로들에 대한 범죄적인 실험을 하였다는 사실은 반복 가스의 사용을 받은 다수의 포로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였다. 포로 번호 제105738호인 박류철은 거제도 제15호 수용소장 보스겟트 소좌가 1953년 3월 10일 화학 수류탄을 포로에게 투탄하며 포로써 화학탄을 수용소에 쏘아 가스 작용 시간을 실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보스껫트» 소좌는 일정한 시간 또는 신호를 하였으며 손에 시계를 쥐고 가스 사용의 개시와 종말을 측정하였으며 그리고 또한 독가스 작용 시간, 부상의 강도 및 무게를 측정하였다.

상기한 사실들은 의학상 방조를 주는 대신에 전쟁 포로를 대중적으로 학살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을 발견하며 또 각종 작용을 가진 가스 (질식성, 포 미란성, 최루성 및 화상 야기성)의 영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포로에 대하여 미국인들이 실시한 인류 력사에서 있어 보지 못한 극악한 실험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결 론

이상과 같은 론박할수 없는 명확한 제 사실들로부터 출발하여 본 조사 위원회에 망라되 우리들은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의 량심과 명예를 가지고 세계 모든 선량한 사람들과 과학계에 종사하는 인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미국 침략자들은 그들이 야기한 금번의 조선 전쟁 행정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인민을 말살하기 위하여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비 인도적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만행의 한가지 방법으로서 미국 침략자들은 인류를 대량적으로 학살하기 위한 의학적 실험의 대상으로 조선 인민군 포로를 대량적으로 사용하였다.

우리는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을 무한히 사랑한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무궁한 장래 발전과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과 세계 인민들의 공고한 평화를념원하며 이를 위하여 투쟁한다.

오늘 세계의 모든 량심있는 과학 일꾼들은 과학적 발명의 성과가 인류를 살륙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 관하의 남조선 각 야전병원과 후방 병원에서는 인간을 살륙하기 위한 과학적 실험의 대상으로 인간이 사용되였다.

전 세계의 선량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미국 침략자들이 조선에서 감행한 이와 같은 범죄적 만행을 증오하여 분격하며 앞으로 이러한 무서운 범죄가 미 영 무력 침략 세력 측으로부터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범죄적 만행에 대하여 책임 있는 미군 지휘관들과 그들의 명령을 수락하고 집행한 자들을 처단할것을 엄숙히 요구한다.

조선 적십자회 조사 위원회 위원장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후보 원사
(내과 의사) 최 응 석

동 위 원

외과교수	주 민 순
내과의사	김 성 중
외과의사	박 병 흠
외과의사	성 주 영

1953년 11월 28일
평 양

(3) 조선에서 미군이 감행한 만행에 관한 중국 적십자 회의 보고

서 언

1950년 6월 25일 미국 정부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도발하였다.

이 전쟁에서 미국 군사 당국은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을 온갖 방법으로 학대하여 그들을 학살함으로써 제네바 협정과 국제법의 제 원칙을 란포하게 유린하였다.

인도주의적 원칙과 제네바 협정 및 국제법을 옹호하기 위하여 중국 적십자회는 송환된 중국 인민 지원군 전쟁포로들간에서 문답을 진행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그들의 제소를 청취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이 제소를 공중으로부터 투하된 후 체포된 미군간첩들의 공술과 및 기타 자료들과 대조하였다.

심중하고 거듭된 검증에 의하여 우리들은 전쟁 포로들을 학대하고 학살함에 있어서 미군 당국이 범행한 범죄를 하등의 의문도 없이 확신하게 되였다.

우리들은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을 학대하고 학살한 미군 당국이 범행한 만행에 대한 이 조사 보고를 전 세계 인민 앞에 제시하는 바이다.

제 1 장
전쟁포로들에 대한 학살

조선에 대한 침략 전쟁 행정에서 미군 당국은 자기 군대에 의하여 포로된 중국 인민 지원군을 야수적으로 학대하고 학살하였다.

이 전쟁 포로들에는 전쟁 마당에서 부상당한 전사들, 전투 지구로부터 철수하지 못한 병상자들, 야전 병원에 수용되였던 환자들과 미군 전쟁 포로 수용소들에 억류된 중국 인민 지원군 전사들이 포함되여 있다.

미군 병사들이 범행한 이 범죄들은 1949년 8월 12일에 체결된 전쟁 포로 취급에 관한 제네바 협정 제1부 제3조 및 제2부 제13조, 그리고 1949년 8월 12일에 체결된 전쟁 마당에서의 군대 내의 병상자들의 형편을 개선할 데 관한 제네바 협정의 제2장의 제15조 및 제3장의 제19조의 규정들을 횡포하게 위반한 것이다.

송환된 중국 인민 지원군의 포로 인원들이 제공한 정보에만 의하드라도 1950년 11월부터 1953년 1월에 이르는 동안에 미국 군대는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 2,600여명을 살해하였다.

자기들의 범죄를 감행함에 있어서 미군 당국은 총검, 자동소총, 카빈총, 경기관총, 중기관총 60미리포, 수류탄, 가스탄, 화염 방사기, 장갑 자동차 및 탕크 등과 같은 무기들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중국 인민 지원군을 불에 태워 죽이며 산채로 사격목표로 사용하며 생매장 하며 심장을 도려 내며 교살하는 등의 야수적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송환된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들은 미군 당국과 그 군대가 야수적 학살을 감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던 것이다.

송환된 사람들 중에는 학살을 요행이도 모면하여 탈출한 일부 사람들이 포함되여 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그들이 당한 박해로 말미암아 입은 상처와 흔적들이 남아 있다.

1.

미군 사령부 관하의 미국 군대와 리승만 군대는 그들이 전쟁 마당에서 포로한 중국 인민 지원군과 또한 자기들의 수중에 들어간 병상 전투원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확증된 통계 숫자들은 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측 포로 인원 2,350여명을 살해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학살 사건 중에는 개별적인 학살과 집체적 학살 사건들이 포함되여 있다.

중요한 사건들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다수의 중국 인민 지원군이 포로된 직후 살해 당한 사건은 아래와 같다.

즉 1951년 5월 21일 홍천 동방 지역에서 리웨위와 기타 중국 인민 지원군 30여명은 모두 중상을 입고 미군에게 포로 당한 직후 살해당하였다. (부록 1참조)

1951년 5월 29일에 린제 북부 지역에서 미군은 140여명의 부상당한 중국 인민 지원군 및 조선 인민군 전사들을 총살하였는바 그 중 80여명은 중국인이였다.

1951년 9월 14일 금성 남쪽 흑운 토령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리승만 군대는 중상당한 중국 인민 지원군 50여명을 학살하였다 (부록2 참조)

1951년 5월 30일 미군은 그들이 린제 지역에서 포로한 중국 인민 지원군를 학살하였다.

1951년 5월에 련천 동남부 운천리에서 리승만 군대는 자기들의 수중에 들어간 70여명의 중국 인민 지원군 부상병을 학살하였다.

1951년 11월에 중국 인민 지원군 부대들이 금성 동부 과호리 부근에 있는 진지들을 다시 점령하였을 때 그들은 손과 발이 나무에 결박된 중국 인민 지원군 전사의 시체를 발견하였는바 이 시체 전신에는 상처가 있었다. 그가 포로된 이후 살해당하였다는 것은 명백하였다.

다수의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들은 전쟁 마당으로부터 호송되는 동안 또는 수용소들에 이송되는 도중에 살해당하였다. 1950년 12월 1일에 미군 제2 사단의 부대들이 평안 남도 개천군에 있는 춘소리로부터 철수하는 동안에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 31명을 기관총으로 사살하였다. 시체의 가슴에는 『전쟁 포로』 라는 글자를 쓴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다.

1950년 11월 28일에 미군은 북부 조선에 있는 구장 지역으로부터 철수하기 전에 40여명의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을 학살하였다. 1951년 5월말경에 린제 부근에서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 30여명은 호송 도중에 학살당하였다. 1951년 5월 28일에 계관촌 부근에서 리승만 군대는 부상당한 중국 인민 지원군 전사 1명을

총검으로 찔러 죽이였다.

1951년 5월 31일에 수원 및 대전간의 공도 상에서 미국 군용차 1대는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인원 4명을 깔아 죽이였다. (부록 3 참조)

특히 참혹한 것은 미국 군대와 리승만 군대가 야전 병원 및 구급소들을 점령하였을때 그들의 수중에 들어간 중국 인민 지원군의 비무장 상병 포로들에 대하여 감행한 학살 행위이다.

1951년 5월 27일 련천 남부산 언덕에서 미군은 야전 병원에서 포로된 130여명의 부상당한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을 기관총으로 살해하였다. (부록4 참조)

5월에 동북전선 화천 지역에서 리승만 군대는 100여명의 중국 인민 지원군 부상자를 총살하였다. (부록 5참조)

1951년 5월 27일 오전 9시에 기관총과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80여명의 미군 병사들은 빈제 부근에 있는 야전 병원에서 220여명의 중국 인민 지원군 부상자들을 학살하였다. (부록 6참조)

1951년 5월 27일 화천 부근에서 미군은 그들이 포로한 중국 인민 지원군 20여명을 총살하고 야전병원에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던 부상당한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 10여명을 태워 죽였다.

미군과 리승만 군대는 군사 정보를 요구하여 심문을 진행하는 동안에 다수의 중국 인민 지원군을 살해하고 그들의 소지품들을 강탈하였다. 많은 녀성 포로들은 릉욕당하고 학살당하였다.

1951년 5월 28일에 춘천 서북방 명월리에서 미군 및 리승만 군대는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 280여명을 집체적으로 학살하였다.

이 지역을 점령한 이후 기관총 및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미군 병사들은 지상에 누어 있었거나 혹은 가옥 내에 있던 부상자들을 총살하였다.

이 280여명 중 류춘유 (구류 련번호 731125) 만이 요행이도 탈출할 수 있었다. (부록 7 참조)

중국 인민 지원군에게 포로된 미군 및 리승만 군대 병사들은 미군 사령부 관하에 있는 미군 및 리승만 군대가 부상당한 중국 인민 지원군 및 기타 포로들을 전투 마당에서 야수적으로 살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미군 제2 사단 제2 전투 대대에 취및 에스 중대 소속 병사 오도 벨 (군 번호 18276618)는 1950년 11월 30일 순천과 군위리 간에서 리승만 군대가 200여명 이상의 포로된 중국 인민 지원군 및 조선 인민군 전사들을 학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미군 제24 사단 제19 보병 련대 제1 중대 소속이였던 포로 필립 아르앤더슨 (군번호 11179178) 오장은 미군과 리승만 군대가 전쟁 포로들을 생매장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부록 8 참조)

중국 인민 지원군에게 포로된 리승만 군대 제2 사단 소속 최진종은 1950년 11월 6일 하갈우리 도로 상에서 미 제1 해병 사단 병사들이 포로된 100명 이상의 중국 인민 지원군을 학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 한사람의 리승만군대 병사인 김재룡은 1951년 11월 13일 2명의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가 사격 목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이 2명의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는 살해당하였다.

2.

미군 포로 수용소에 억류되여 있던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들은 또한 포로 수용소들을 죽음의 수용소로 전변시킨 미군과 수용소 관리자들에 의하여 대 규모적인 야수적 학살을 당하였다.

확인된 통계에 의하면 포로된 240명 이상의 중국 인민 지원군이 1951년 1월부터 1953년 7월에 이르는 기간에 총검, 수류탄, 까스탄 및 기타 무기들로 사살당하였으며 미군 포로 수용소 내에서 300명 이상이 미군에 위하여 부상당하여 불구자로 되였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포로 수용소들에서는 3차에 걸쳐 대 학살이 감행되였다.

상기 자료들은 미군 당국이 실제로 학살한 전쟁 포로수의 완전한 숫자들인 것이다.

미군 포로 수용소 소장들과 수용소 경비병들과 미군 당국에 의하여 수용소에 고용되여 있는 국민당 도당의 비밀 특무들은 제한없이 마음대로 전쟁 포로들을 살해하였다. 1951년 7월 미군 경비병들은 아무런 정당한 리유없이 부산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에게 발포하였으며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왕평충을 살해하였다.

1952년 5월 16일 거제도 제621호 수용소에서 미군 병사들은 왕화이를 살해하였다.

1952년 7월 8일 미군 경비병들은 또하나의 중국 인민 지원군 장퉁하이를 살해하였다. (부록 9 참조)

1952년 8월 말경 부산 수용소를 경비하던 리승만 군대는 중국 인민 지원군 리완칭을 사살하였다.

1952년 10월 27일 제주도 제8호 수용소에서 미군 병사들은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후슈쉥을 살해하였다.

1952년 12월 14일 미군 병사들은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관치네를 살해하였다. (부록 10 참조)

1952년 2월부터 5월에 이르는 기간에 미군 당국은 소위 『자원 송환』 음모를 꾸미면서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들을 강제 억류할 기도밑에 전쟁 포로들에게 대 규모적인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일련의 류혈적인 학살을 감행하였다.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차오 차오추 란쥬 슈쿠에이 및 유안둥웬 등은 『공산주의 반대 쏘련 반대』라는 글을 몸에 새기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살해되였다.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창첸 룽탕카이 치엔 린쉐푸 치충탕 양웬 화 등은 미군사 당국이 강제적으로 진행한 비법적인 『선별』과정에서 공공연히 송환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살해되였다.

1951년부터 1952년 사이에 미군 당국은 미군 포로 수용소 들에서 3 차에 걸쳐 중

국 인민 지원군 포로에 대한 대 규모적인 학살을 감행하였다.

1951년 10월 14일 오후 3시 미군 사령부는 10대 이상의 땅크와 장갑차가 엄호하는 군대를 부산 제2호 수용소에 파견하여 동 수용소내 제 2, 제3, 제4 및 제7 수용장들을 돌연 포위하고 이 수용장들에 있는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들과 조선 인민군포로들에게 기관총 및 자동 소총으로 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여 60명 이상을 살상하였다.

예비적 조사에 의하면 20명이상이 살해되였다. (부록 11 참조)

1952년 5월 21일 오전 7시 30분 미 군사 당국은 군대와 13대의 땅크 및 장갑 자동차를 동원하여 부산 제2호 수용소 내의 병상 포로들이 수용되여 있는 제3 수용장을 포위하였다

미군 중좌의 지휘를 받은 이 군대들은 중국 인민 지원군 및 조선 인민군 전사들에 대하여 기관총, 자동 소총, 까스탄, 60미리포를 사용하고 포로들의 천막에 수류탄을 던졌다.

불완전한 자료에 의하면 미군은 190명이상의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 지원군 병상 포로들을 살상하였는바 그 중 양령화 및 기타 34명은 살해당하였다. (부록 33 참조)

1952년 10월 1일 제주도에서는 전 세계를 격동시킨 『10월 1일 학살』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오전 7시경 미군 당국은 제8호 수용소 에취수용장에 있는 적수 공권의 6백여명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들을 습격하고 수용소 소장 리챠드 보에렘 대좌와 브르크스 대위의 지휘 하에 류례없는 야수적인 학살을 감행하였다. 미군은 수용장 내에서 공공연히 수다한 전쟁 포로들을 살해하고 천막 속으로 뛰여 들어가서 더 많은 포로들을 살해하였다.

이 학살 사건에서 65명의 중국 인민 지원군이 살해되였으며 약 1백명이 중상을 당하였거나 불구자로 되였다.

살상자들의 피는 땅을 덮었다. (부록 12참조)

자기 수중에 있는 중국 인민 지원군들을 살해 할때 미군 당국은 현대적 무기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로들을 생매장하고 물 고문을 하며 심장을 도려 내고 산채로 태워 죽이며 락인을 찍으며 못 박아 죽이며 찔러 죽이며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짜오 리싱창체룽은 찔러 죽였고 왕캉 양차이푸 및 쪼웬캉은 교살당 하였고 왕샤오치 유시치에는 몽둥이에 맞아 죽었고 쳉퉁하이 및 기타들은 물 고문을 당하였거나 하복부에 락인을 찍힌후 살해당하였다. 그리고 수쿠에이는 못에 박혀 죽었으며 렌타오무는 휘발유 칠을 당하여 생으로 불타 죽였다.

1952년 4월 8일 밤 미군 당국이 수용소에 파견한 국민당 특무 리타안은 린쉐푸를 살해하고 그의 심장을 도려 내여 공갈의 수단으로써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에게 이를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만행들은 미군 장교들의 지시 밑에 감행되였다. (부록 26 및 31 참조)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들에 대하여 미군 당국이 감행한 만행은 미국 및 영국의 통신 보도와 포로 수용소에 있는 미군 장교들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미국 및 영국 통신들이 전한 불완전 한 숫자에 의하면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까지 미군 포로 수용소들에서 3,438명의 조선 인민군과 중국 지원군 포로들이 살상되였다. 이 중에 624명은 살해되였다. 이 숫자가 대단히 과소 평가된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1952년 5월 거제도에서 「돗드사건」이 일어났다.

전쟁 포로 수용소 소장 콜슨 준장이 서명하였으며 당시 준장이였던 동 포로 수용소 전소장 돗드가 보충한 조중측 전쟁 포로 대표들에게 보낸 회답은 미군 당국이 포로된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전투원들을 야만적으로 학살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였다. (부록 13 참조)

상술한 사실들은 미군 당국이 포로된 다수 중국 인민 지원군들을 야만적으로 학살함으로써 제네바 협정과 국제법의 원칙들을 유린하였다 는것을 확증하고 있다.

미군 사령부와 그 사령관들 즉 미 극동군 사령부 전 미 극동군 총사령관이였으며 유•엔군 총 사령관이였던 매슈 비•릿지웨이, 전 미 극동군 총 사령관이였 으며유•엔군 총 사령관이 였던 마크 더블유•클라크 및 전 미제 8군 사령관 제임스 에이•밴 플리트 중장의 승인 하에 계획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만행이 감행되였다.

제2장 비법적 심문

「전쟁 포로들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육체적 및 정신적 고문 또는 기타 어떠한 강박도 가하여서는 안되며 답변을 거부한 전쟁 포로들을 위협하거나 모욕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불쾌하고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한 전쟁 포로 취급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정 제17조와 87조의 규정들을 란포하게 유린하면서 미군 당국은 각종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중국 인민 지원군의 포로된 전체 인원들을 비법적으로 심문하였으며 심문받는 포로들에게 각종 야만적 고문을 가하였다.

례컨대 그들은 전쟁포로들의 발을 묶어 거꾸로 매달았으며 곤봉으로 구타하여 팔다리를 꺾었으며 총검으로 찔렀으며 살을 베여 내였으며 손톱을 송곳으로 찔렀으며 전기 고문을 하였으며 고추를 뿌린 물을 먹였으며 물이 찬 지하실에 집어 넣었으며 예리한 못을 박은 우리 속에 가두었으며 (부록 14 참조) 각종 고문에 의하여 학살하였다.

전쟁 포로들을 비법적으로 심문하는 사업을 미군 당국으로부터 공공연히 위임받은 기관들은 지•투 전쟁 범죄 조사과 씨•아이•씨 전쟁 범죄 조사국 및 전쟁 포로들이 집결되여 있는 지역들에 설치된 헌병대 본부들이다.

미군은 이 조직체들의 구내에서 뿐만아니라 전선 수송로상 포로 수용소들 및 병원들에서도 전쟁 포로들을 비법적으로 심문하였다.

미국 장교들, 헌병들 및 군의들과 국민당 및 리승만 특무들은 도처에서 수시로

전쟁 포로들을 비법적으로 심문하였다. 중상당한 포로들까지도 이와 같은 심문을 면할 수 없었다.

제주도 제8 포로 수용소의 에프 수용장에서 돌아온 511명에 대하여 행한 조사는 그들 전부가 비법적인 심문을 받았으며 그들 중 442명 (상기 송환 포로들의 86% 이상)이 각종 고문을 받았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다음 표는 고문 당한 포로수, 고문방법 및 고문 회수를 표시한다.

고　문　방　법	고문당한 인원수	고문회수
전기 고문	16	40
거꾸로 매달고 때리기	12	18
살 태우기	3	3
고추를 뿌린 물 먹이기	1	1
곤봉으로 구타하여 팔 다리 꺾기	1	1
살 베여 내기	4	4
총검으로 찌르기	6	6
채찍 또는 곤봉으로 때리기	198	337
팔 다리 비틀기	2	2
상처 때리기	3	3
구타 및 기타 고문	216	283

전선 린접지에서 미군들은 중국 인민 지원군의 포로된 인원들을 고문하면서 심문하였다.

호용챙은 1951년 3월 15일 중부 전선 용두리에서 포로되였다.

심문받을 때 그의 팔은 뒷짐지여 결박되였으며 헌겊으로 눈을 가리워졌었다. 다음으로 미군은 그를 논에 끌고 나와 3일반동안 그의 하반신을 물 속에 들여 놓았으며 그리하여 그의 하반신은 물에 잠기여 부었다.

유펑안은 중부 전선 백사산에서 포로되였는데 그는 주야간 심문을 받았으며 발을 매여 거꾸로 매달린채 구타당하였다. 중상당한 포로들까지도 고문을 면할 것을 바랄수는 없었다.

머리를 부상당한 양융텐은 1951년 5월 24일 북한강 남부에서 포로되였다. 심문 과정에서 그는 머리를 총탁으로 구타당하고 2회의 전기 고문을 당하였다.

상처로부터의 계속적인 출혈의 결과로 양은 수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

중국 인민 지원군의 포로된 인원들이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송되고 있던

기간에 미군들은 고문의 방법으로 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려고 부단히 기도하였다.

도중 정지할 때마다 심문이 진행되였다.

1951년 3월 22일 철원 부근에서 포로된 부상당한 류광은 이송 기간에 다섯번 비법적 심문을 당하였다. 이 심문 과정에서 중좌 및 소좌의 직위에 있는 미군 장교들은 손가락을 태우며 철봉으로 구타하며 전기 고문을 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고문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록 15 참조)

1951년 2월 18일 토평리 부근에서 포로된 부상당한 청쉔민은 같은 날 이송되는 도중 4개소의 야전 구급소들을 통과하였다. 미군들은 심문을 거부하였다는 리유로 이 구급소들에서 그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뼈가 부러진 그의 다리를 비틀었다.

포로 창리엔치도 이송 과정에서 같은 방법으로 취급당하였다. 전쟁 포로 수용소 들에 있는 미군들은 전쟁 포로들에 대한 시계 바늘식 회전 고문에서 더욱 야만성을 발휘하였다.

1951년 2월 전쟁 포로 초우렌멱은 42일동안 부산에 있는 전쟁 범죄 조사과의 어둡고 습기찬 지하실에 감금되였다. 감금 기간에 그는 7회의 전기 고문들과 8시간에 걸쳐 동결 고문을 받았다. (부록 16 참조)

1951년 9월 29일 부산에 있는 제2호 상병 전쟁 포로 수용소에 있는 제1호 구금 수용장에 감금되였던 차오치 쿠에이로부터 군사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미군 대위는 그를 고문하였다. 미군은 그를 곤봉으로 구타하였으며 전기 고문을 하였으며 고추를 뿌린 물을 그에게 먹였다.

그의 상처들에 대한 치료는 8일간이나 중단되였다.

이 결과로 그의 상처들은 악화되였다. (부록 17 참조)

거제도 포로 수용소 72 련대 전쟁 포로인 페유산은 1951년 10월에 6명의 특무의 심문을 받았다.

그는 결박당하고 철봉으로 관절을 구타당하고 다리를 찔리우고 화상을 당하였다.

심문이 끝난 후 그의 몸에는 맞은 자리와 탄 자리가 있었으며 전신이 부어 있었다.

병원에 입원한 전쟁 포로들까지도 이와같은 비법적 심문을 당하였다.

1952년 6월 거제도 포로 수용소 병원에 입원중이였던 전쟁 포로 창핑중이 비법적인 심문 과정에서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하였다 하여 3명의 미군 병사들은 그에게 구정물을 강제로 먹였다. 정보를 얻기 위하여 병원 당국자들은 6월의 가장 더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병실의 모든 문과 들창을 꽉꽉 닫고 스토브에 불을 질렀다. 너무나 참을 수 없게 더웠기 때문에 상병 포로들은 땀을 많이 흘렸다. 포로들로부터 군사 정보를 얻을 목적밑에 가하여진 고문 이외에 미군 당국은 포로들에게 『전범자』라고 고백하였다는 락인을 찍기 위하여 그들을 고문하였으며 그 후 그들을 투옥하였다.

1951년 7월 6일 전쟁 포로 티엔민은 그가 미군 포로를 살해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것을 미군 소위로부터 강요당하였다.

이 미군 소위는 그에게서 이와 같은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하여 바른편 넓적다리에 2인치의 못을 박았다.

그 다음 티엔민은『전범자』로서 투옥되였다. 1951년 11월 23일 거제도 72련대에 수용되여 있던 전쟁 포로 친하임 쿠오는 전쟁 범죄 조사과로 호출되였으며 그가 17명의 미군 포로를 살해하였다고 자백할 것을 강요당하였다. 그가『중국 인민 지원군은 전쟁 포로들을 모두 훌륭히 대우하고 있으며 포로를 살해하는 것과 같은 일은 절대로 없었다』라고 대답하였을 때 그는 전기 고문을 당하였으며 물 고문을 당하였다.

그 다음 미군은 그가 미군 포로를 살해하였다는 증언서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였다. 그 다음 그는『전범자』로서 투옥당하였다. (부록 18 참조)

포로 캥칭창(부록 19참조)은 또한『전범자』라는 루명을 쓰고 투옥되였다. 심문당한 많은 전쟁 포로들은 고문으로 말미암아 불구자가 되였다.

실례로 1951년 말 제주도 61호 수용소에서 포로 리포린이 심문당하였을 때 그는 국민당 특무들과 미군 대위에 의하여 척추를 영구히 부상당하였다. 심문 과정에서 많은 전쟁 포로들이 미군 당국에 의하여 살해당하였다.

1951년 11월 20일 춘천에서 전쟁 포로 류펭챵은 미군 대위 한사람이 2명의 녀성포로 코췐 메이와 창쿠에 이치에 전기 고문을 가한 후 곤봉으로 때려 죽인 정형을 말하였다.

제 3 장

미군 당국은 숙소, 식사, 의류 및 위생 시설에 관하여 1949년 8월 12일 전쟁 포로 취급에 관한 제네바 협정 제3장 제2부 제2절에 규정된 조항들을 란포하게 유린하였다.

병상자를 포함한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들은 오랫동안 불충분한 식사를 받았으며 그들의 건강은 악화되였다.

그 결과 수용소들에는 질병들이 만연되고 억류된 포로들은 대단히 쇠약하여졌으며 체중이 극도로 저하되였다.

식사, 의류, 숙사 및 위생 시설에 있어서 미군 당국이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들에 대하여 취한 학대의 실례들은 아래와 같다.

식 사

미군 당국이 중국 전쟁 포로들에게 준 식사는 항상 곰팡이 쓴 것이였다.

종종 그들은 아직도 겁질을 벗기지 않은 모래 섞인 곡물도 받았다. 그들의 주식물은 보리 싸래기 또는 밀과 섞은 보리가루였다. 병상자를 포함하는 매개 포로들은 매 끼니마다 불과 반 사발의 밥을 받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계란보다 그리

크지않은 4온스 내지 5온스의 썩은 보리 단주를 받았다.

그 결과 포로들은 항상 기아 상태에 있었다.

식사 조리도 극히 나빴다. 즉 불충분하고 영양 가치가 없었으며 때로는 불결하기 까지 하였다.

썩은 배추, 오래 되고 시들은 무잎, 썩은 염생선 및 구데기 쓸은 야채—이런 것들까지도 너무나 적게 배급되고 있으므로 매개 포로들은 자기의 반사발도 못되는 『야채국』에 불과 2개. 혹은 3개의 배추잎이나 무잎을 받을 수 있었다.

1952년 여름 이전에는 매개 포로들이 종종 얼마 안되는 고기를 받았다. (고기 통조림일 경우에는 매인 당 1,25그람이 배당되였다) 그러나 그후 1952년 여름 이후에 고기배급은 완전히 없어졌다.

제주도 제8 수용소에서는 매개 포로들이 매일 염생선 30내지 60그람을 받았다. 이 장기간의 기아 식사에는 심지어 먹을 물 조차 충분하지 못하였다.

5천명의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들이 수용되여 있던 거제도 제602호 수용소에는 하루에 2시간 동안 물을 공급하는 직경 2센치메터의 급수관이 있었다. 아침 8시 후 미군 당국은 물의 공급을 중지한다. 1950년 여름 이와 동일한 물의 공급 제한이 거제도 제72련대에서도 실시되였다. 그런데 이 곳에는 7.000명 이상의 전쟁 포로들을 위하여 단하나의 물 펌프가 있을 뿐이였다.

물이 적었기 때문에 포로들은 식사를 조리하는 것이 극히 곤난하였다. 물이 적었기 때문에 식사는 종종 반숙되였고 야채를 씻기가 곤난하였다 음료수는 더욱어려웠다.

거제도 제72 및 제86 련대들에서는 억류된 포로들이 급수관에서 물을 얻기 위하여 줄을 지어 서지 않으면 안되였고 매일 한 코프의 음료수를 겨우 얻는데 불과하였다.

목이 너무나 말랐기 때문에 그들은 웅뎅이에 있는 흙탕물을 마시는 것이 보통이였다.

바닷가에서 강제 로동을 할때에는 미군이 그들을 구타함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염수를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미군 당국은 종종 식사와 물의 공급을 동시에 중단하는 일도 있었다.

1952년 5월 11일부터 부산의 병상자 수용소 제1, 제2 및 제3 수용장 포로들은 아무런 리유도 없이 7일 내지 12일간 식사와 물을 받지 못하였다

1952년 10월 4일부터 제주도 제8호 수용소 더 수용장 포로들도 아무 리유없이 식사를 받지 못하였다(자세한 것은제6장『전쟁 포로들에 대한 비법적 처벌』참조).

전쟁 포로들은 생존을 위하여 투쟁하면서 물을 얻기 위하여 샘을 파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군 당국은 그들이 샘을 파는 것을 횡포하게 금지하였다.

실례로 제주도 수용소 당국은 72련대의 포로들에게 그들이 파놓은 샘을 메꾸라고 명령하였다.

제주도 제8호 수용소 지 수용장 포로들이 물 공급을 중단당하고 물을 먹으려고 샘물터로 가려고 하였을 때 창룽헤라는 포로는 사살당하고 마오유짜이는 부상당하였다.

의 류

매개 포로들은 포로당할 당시 미군 혹은 리승만 군대에 의하여 의류와 기타 개인 소지품들을 강탈당하였다.

1951년 7월 거제도 미군 수용소 당국은 포로들에게 붉은 빛과 누른 빛의 짧은 소매의 내의와 빤쯔를 공급하였다. 매개 포로들은 단 한벌만을 받았기 때문에 갈아입을 옷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들의 대부분은 겨울에도 이 짧은 소매의 옷밖에는 입을 옷이 없었다.

그들은 추위에 떨었으며 손발은 얼거나 또는 터졌으며 때로는 썩기까지 하였다.

1951년 겨울 거제도 제86 련대 6대대 16조의 61명 포로중에서 34명이 동상에 걸렸고 7명은 그 정도가 심하였다.

1952년 겨울 제주도 제8호 수용소의 6,000명 이상의 포로들 중 2,700백명은 손발이 모두 동상을 입었다.

에이 수용장에서는 500명 이상의 전쟁 포로 중 4분의 3이 또한 동상당하였다. 파이 친탕 니완프 및 기타20명의 포로들은 심한 동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 근육은 뼈가 보일정도로 째여졌다

수용소 당국자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가할 대신에 일상과 같이 중 로동을 강요하였다.

강제 로동을 하는 동안 전쟁 포로들은 휴지와 짚이나 헌 포대를 모아 이를 자기들의 허리와 발에 둘러 온기를 얻었다. 이것이 유•엔의 위신을 손상한다는 구실하에 미군 수용소 당국과 대만에 있는 국민당 반동 도당이 각 수용소에 잠입시킨 특무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포로들에게 야만적인 처벌을 가하였다.

부산 제2호 포로 수용소에 있는 병상 포로의 대부분은 오랫 동안 전연 의복을 입지 못하고 있었다.

실례로 린쳉광이 병상 포로들을 수용하는 제1 수용장에 억류되여 있었을 때 1951년 8월부터 1952년 8월까지의 1년간에 의복을 입지 못하였으며 모포를 두르고 있었다.

샤중창이 병상 포로들을 수용하는 제2 수용장에 있었을때 그는 1951년 겨울 동안 의복도 신발도 양말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너무나 심하게 동상을 당하였으므로 걸을 수도 없는 지경이였다.

미군 병사는 그가 너무 늦게 걷는다고 불평하면서 여러 차례 총창으로 찔렀다.

포로들은 해진 의복을 수리할 실과 바늘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것은 포로들이 이미 처하여 있는 비참한 상태를 가일층 처참하게 하였다

미군 포로 수용소 당국이 포로들에게 준 단 한켤레의 구두는 이전에 미군 병사들

이 신던 낡은 구두였다.

보급품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포로들은 맨발로 지내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군 포로 수용소 당국은 전쟁 포로들에게 양말을 공급한 일이 없다.

숙 사

전쟁 포로들은 천막이나 막집들에서 살고 있었다.

10메터의 길이와 5메터의 넓이를 가진 천막 (가운데 넓이 1메터의 통로가 있고 량편에 자게 되여 있다)에는 대개 50명 내지 80명이 수용되여 있었다. 매개 포로들이 자는 자리로서 넓이 15센치메터 내지 20센치메터의 자리를 할당 받았다 (병상 포로를 위한 제2 및 제3 수용장들에서는 넓이는 30센치메터 였다)

서로 꼼짝 못하게 끼여 자기 때문에 포로들은 모로 두러 누어 자야 되며 돌아 누울수 없었다.

1952년 10월 부산에 있는 병상 포로들을 위한 제11 수용장은 동시에 200여명의 포로를 수용하여 그 대부분은 부득이 한데서 자지 않을 수 없었다.

1951년 10월부터 각 수용소들에서는 막집들이 천막에 배치되였다. 45메터의 길이와 5,5메터의 넓이를 가진 막집들은 300여명의 포로들을 수용하도록 건설되였다. 면적에만 관하여 말한다면 이는 포로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한 것으로 볼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그들은 천막에서있을때 보다 더 좁게 지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왜냐 하면 이 막집의 반은 몇놈의 특무들이 차지하고 있기때문이다. 그 결과 매개 포로들은 12내지 15센치 메터 넓이를 할당받았다.

하루종일 중로동을 한 다음 어떤 포로들은 누어서 잘 대신에 무릎으로 머리를 바치고 졸지 않을수 없었다.

겨울이 되면 막집은 대단히 추웠다. 72련대 내의 매개 막집들에는 단하나의 난로가있을 뿐이였고 매일 얼마 안되는 석탄이 분배될 뿐이다 막집에 온기가 돌기전에 석탄은 떨어진다. 막집의 벽에는 항상 성에가 쓸어있다 겨울이 되면 매개 포로들은 모포 2매를 배급받는다 (하나는 여름용이다). 이 모포들은 부대처럼 엉성하기 때문에 전쟁 포로들은 밤이 되면 항상 추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거제도 각 포로 수용소들에서는 천막들과 막집들이 거칠게 갈아놓은 논 가운데 건설되여 있었다.

포로들은 얇은 짚으로 만든 마트라스 위에 꼬부리고 잔다.

습기가 너무 많아서 마트라스밑에는 곰팡이가 진뜩 쓸어있었으며 그때문에 많은 포로들이 병에 걸렸다

거제도에서 제주도로 이송된 6.000명 이상의 포로들 중에서 2 500명은 옴에 걸렸으며 730명은 관절염에 걸렸다.

천막들은 모두 낡은 것이여서 비가 오면 물이 새기 때문에 포로들은 락수를 피하려고 애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폭풍에 천막이 날아가면 포로들은 비가 와도 은신할 곳이 없었다. 천막속이 좁고 습기가 차 있으며 포로들은 정기적으로 목욕을 하거나 의복을 세탁할 용구를 배급받지 못하였고 특무들이 포로들의 행동자유를 제한하며 때로는 심지어 문과 들창을 여는것까지 금지하였기 때문에 모든천막들과 막집들은 악취에 가득차 있었다. 천막과 막집들은 낮에도 어둡고 밤에는 등불이 없었다.

위 생 시 설

전쟁 포로 취급에 관한 제네바 협정 제29조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억류국은 수용소의 청결과 보건의 유지 및 류행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온갖 위생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군 수용소들에 억류되여 있던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들에게는 최소한의 위생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세수 하기도 곤난하였으며 또는 머리 깎기도 곤난하였으니 만치 목욕을 하거나 의복을 세탁하는 것은 말할 필요 조차 없다.

이미 송환된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들이 제공한 증언은 수용소에서 물이 부족하기때문에 포로들은 세수하기도 곤난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들은 1주일에 단 한번 세수를 할수 있었을 뿐이며 때로는 한달에 한번 세수를 할 수 있었을 뿐이였다. 뿐만 아니라 수십명이 같은 물에 세수를 하였다. 미군 수용소 당국은 수십명에 단한개의 치솔을 주었을 뿐이다. 어떤때에는 치솔없이 치분만도 배급하였다.

이와같이 다수의 포로들은 1년내 이를 닦지 않고 지내지 않을수 없었다.

포로들은 두달 혹은 석달만에 한번씩 머리를 깎기 위하여 면도칼을 받았다. 15명내지 50명의 포로들이 한 면도로 머리를 깎았는데 이 면도는 세사람만 깎고나면 무디여졌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많은 포로들은 머리가 대단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깎을 수 없었다.

거제도 제72 및 제86 련대에는 1,300명의 포로들에 한개의 변소가 있었는데 이 변소에는 10개의 똥통이 있었다. 이러한 사태는 포로들을 대단히 곤난하게 하였다. 포로들 중의 30내지 80%는 그들에게 급식되는 부패한 음식과 끓이지 않았거나 더러운 물을 먹은 결과로 리질에 걸리였기 때문에 변소의 부족이 더욱심하였다.

지금까지 송환되여 온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들이 보고한 바와 같이 그들은 모두 포로되여 있던 기간중 한번도 목욕을 하지 못하였다. 왜냐 하면 각 수용소에 설비되여 있는 『목욕탕』에는 물이없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위 목욕탕은 왕왕 고문실로 사용되였고 이곳에서 포로들은 매달려 매맞는 고문을 당하였다.

포로들이 오랫 동안 목욕을 하지 못하고 의복을 갈아 입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의복, 모포 및 머리에는 이와 서캐가 들끓었다.

미군 수용소 당국이 포로들을 야수적으로 대우하였기 때문에 포로들은 많은 병들에 걸렸으며 그들의 건강은 심히 악화되였다.

적에게 포로된 중국 인민 지원군의 의료 인원이였으며 또한 전쟁포로 수용소들에서 의료 사업을 담당하였던 왕체웡(구류 련번호 730445호), 호렌 청(구류 련번호710345), 리필윤(구류 련번호 706101), 장칭룽(구류 련번호 716234)이 제공한 증언에 의하면 수용소 내에서 가장 많이 류행된 질병은 리질이였다. 1952년 7월부터 8월에 이르는 기간내에 제주도 제8호 수용소 에이 수용장에 구류되여있던 550명중 400여명은 리질에 걸렸다.

야맹증과 결막염도 또한 많이 류행되였다. 례를 들면 1951년 7월에 이 수용소에 억류된 전쟁 포로들 중 40%내지 50%는 영양 부족에 기인한 결막염에 걸렸다.

제8호 수용소에서는 6.000명중 3.540여명이 야맹증에 걸렸다.

동 수용소의 제11조 에이 수용장의 전쟁 포로 68명 중 43명은 그들의 시력을 손상시킨 종증에 걸렸다. 한 실례를 든다면 쑹궈웡은 20센치메터 이상의 앞을 볼수 없었으며 또한 야간에 걸어 다닐수 없었다.

1952년 3월에 미군 의료 장교들은 중로동을 위하여 70호 수용소에 파송할 전쟁 포로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제72 련대로 갔다.

그 당시 동 수용소에 억류되여 있던 7.000여명중에서 동 미군 의료 장교들은 다만 1.500명을 선발할 수 있었는바 한편 기타의 포로들은 극도로 쇠약하였거나 팔 다리를 짤리웠거나 또는 심한 종증에 걸렸거나 혹은 야맹증에 걸려있었다.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수용소들에서는 말라리아가 류행하였다. 1952년 여름에 제주도 제8호 수용소에 억류된 3.300여명은 말라리아에 걸렸다.

수용소들에서 류행한 기타 질병은 빈혈증, 장질부사, 옴 및 관절염이였다. 많은 포로들은 또한 폐결핵 및 기관지염에 걸렸다.

전쟁로포들이 장기간에 걸쳐 극악한 조건 하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체중은 급시 감소되였다.

제주도 제8호 수용소 에이 수용장에 억류되여 있던 왕퉁신은 포로되기전 체중이 68키로 그람이였다.

그가 송환될때까지 그의 체중은 48키로그람으로 감소되였는데 30%가 감소된 셈이다 이사실은 미군 수용소 당국이 중국 전쟁포로들을 학대함에 있어서 감행한 범죄를 웅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제 4 장 정 신 적 학 대

1949년 8월 12일에 체결된 전쟁 포로 취급에 관한 제네바 협정 제2부 제14조. 제3부 제2항 제5장 제34조 및 제38조 그리고 제5항 71조에 규정되여 있는 바와 같이 전쟁 포로들은 정신적 면에서 인도적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당국은 전쟁 포로들을 강제 억류하려는 시도에서 전쟁포로들에게 정신적인 학대를 가하였다.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에게는 반동적인 정치 사상이 강제로 주입되였다.

미군 당국은 전쟁 포로들을 기만하며 그들에게 테로를 가하기 위하여 종교의 가면 밑에 선전을 진행할 목적으로 전쟁 포로들간에 공공연하게 특무들을 잠입시켰다. 심지어 그들은 전쟁포로들이 응당 가져야할 정신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각종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1. 강제적인 반동 정치 교육

전쟁 포로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치적 신념을 포기케 하기 위하여 미군 수용소 당국은 1951년 8월부터 10월간에 대만에 있는 국민당 패잔도당의 특무들인 장싱떵, 랑지더, 장삐, 깐삐윙 및 왕치꿍과 더불어 부스 대위를 거제도 제72 및 제86 련대에 공공연히 파견하고 전쟁 포로들 간에서 반동적 정치 교육을 진행시키고 그들의 귀국을 방해하였다 (부록 20 참조).

소위 반공 학교들에는 리치, 류삥창, 류칭한, 왕쟈떠, 칭리렌 및 기타의 특무들이 련속적으로 교장, 학감 및 교원들로서 배치되였다.

이 반공 학교들은 매일 두시간씩 4회의 강의를 진행하였는바 이 강의에는 각 대대로부터 전쟁 포로들을 륜번으로 참석시켰다.

전쟁 포로들은 반동 사상의 주입을 매우 증오하였다.

그들이 강의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곤봉을 가진 특무들이 그들을 교실에 몰아 넣었다.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들은 자기 조국을 반대하는 특무들의 흉악한 선전에 대하여 격분하였다.

그들이 일어서서 이를 반박하였을 때 그들은 구타당하였으며 땅에 엎드려 기는 벌을 받았으며 고문당하였다.

실례로 제86 련대에 수용된 전쟁 포로 양티유는 『강의』를 듣기 싫어 하였다는 리유로 실외에 끌려나와 곤봉으로 관절을 구타당하였으며 땅에 엎드려기는 벌을 당하였다. 『토론』시간에 말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리유로 그들은 원유샨을 매달고 구타하였으며 몸이 얼 때까지 눈속에서 하룻밤 무릎꿇고앉아 있도록 강요하였으며 그후 그를 하루종일 감금하였다.

리유짜이가 『공산주의는 전체주의다』라는 문제에 대한 답안지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는 표식을 하였을때 특무들은 그를 끌어 내여 구타하였다.

그들은 리유짜이를 벌거벗기고 직장을 통하여 위에 물을 집어 넣었으며 입과 코로부터 피가 날때까지 그의 부른 배를 짓밟았다.

포로들에 대하여 반동 교육을 공공연히 강요하는 외에 국민당 잔당 특무들은 억류된 포로들이 집에 돌아가는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들에 대하여『혈서탄원서』에 서명하며 몸에 글자를 새기는 것을 강요하도록 포로수용소들에 있는 특무 들에게 지시하였다.

2. 종교의 가면밑에 감행된 파괴 활동

자기들의 비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군 당국은 종교의 가면 밑에 간첩활동을 진행할 목적으로 3명의 특무 즉 우드베리, 한병혁 및 한명의 자칭 『목사』를 거

제도에 있는 제72, 제86 련대들에 파견하였다.

례배라는 명목밑에 이 특무들은 전쟁 포로들에 대하여 테로를 가할 목적을 가진 선전을 하였다. 종교의 가면밑에 감행된 이 특무들의 무서운 공격은 그들의 소위 『설교』를 듣기를 거부한 포로들 간에 격분을 일으켰다.

미군 헌병과 특무들은 포로들을 복종시키기 위하여 곤봉으로 구타하였다. 그들은 또한 포로들이 강의를 열심히 듣지 않거나 또는 그들이 명령한 반동 정치 구호를 따라 부르지 않는 것으로 보일때는 포로들을 구타하였다.

제86련대에서는 구호를 따라 부르는 것을 거부한 리충과 기타 20명의 전쟁포로들은 채찍으로 손바닥을 40회 구타당하였다.

종교의 가면밑에 전쟁포로들을 위협하며 기만하는 외에 이 미국 특무들은 포로들을 학살하는데 직접 및 간접으로 참가하였다.

1951년 거제도에 있는 제72련대에서 강제로 몸에 글을 새기는 만행이 개시되였을때 우드베리는 국민당 류산지부 비서장 웨이취시에게 제4대대(장교들의 대대)에서 몸에 글새기기를 감행할것을 지시하였다.

이 만행이 끝난후 우드베리는 몸에 글을 새길것을 강요당한 희생자들을 촬영하였다.

1951년 10월 한병혁은 거제도 제86련대에 있는 특무들에게 전쟁포로들을 박해하는데 사용할 칼, 삽, 곡괭이들을 공급하였다.

우드베리는 전쟁포로 리우양을 천막에서 비법적으로 재판하였는바 그는 이 재판에서 리에 대하여 중국 인민 지원군 군관이라는 것을 자백할것을 강요하였다. 리가 이를 거부하였을때 우드베리는 그의 얼굴을 때리고 그를 끌어내다 때리라고 명령하였다.

1952년 4월초에 미군 당국이 진행한 전쟁 포로들의 『선별』에 앞서 우드베리와 한병혁은 전쟁 포로들을 위협하며 학살할 목적으로 『유•에스』라는 표가 새겨진 칼들을 제72련대에 있는 특무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공급하였다(부록 29 참조).

1952년 7월 18일 목사의 가면을 쓴 특무는 미군 대위 오스맨 및 소위 더들과 함께 소대의 선두에 서서 제주도에 있는 제8호 수용소에치 수용장에 돌입하여 거품이 나는 썩은 액체를 억류된 포로들에게 들씌웠다.

이로 말미암아 165명의 전쟁포로들이 중독되였다 (부록 28 참조).

3. 학습 및 오락에 대한 전쟁 포로들의 권리의 박탈

미군 포로 수용소 당국은 전쟁 포로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며 자기의 취미에 맞는 오락을 즐기는 것을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포로될 당시 펜, 수첩 및 기타 개인 소지품들을 박탈당한 제주도에 있는 제8호 수용소 및 부산에 있는 제2호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학습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쇠조각으로 펜을 만들었으며 남비에 붙은 검정으로 잉크를 만들었다. 이 대용품들과 수집한 휴지들로써 그들은 계속 학습을 진행하였다. 그러

나 미군 포로 수용소 당국은 위생 검열이라는 가면 하에 진행된 수용소 강제 수색 과정에서 이 물품들을 압수하고 파괴하였다.

오락에 관하여 말한다면 포로들은 그들이 즐기는 노래를 부를 자유를 조금도 가지지 못하였다 노래를 부른 포로들은 물과 식료품 공급을 받지 못하였으며 심지어는 학살당하였다.

1952년 7월 18일 제8호 수용소 에치 수용장 포로들은 노래를 불렀다는 리유로 미국의 독까스탄과 거품 나는 썩은 액체의 공격을 받았다. 같은해 8월 15일에 에프 수용장에서 류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강제 로동을 당하고 있을 때 자기 나라 노래를 불렀다는 리유로 미군은 전쟁 포로들을 구타하였으며 총검으로 찔렀다.

4. 전쟁 포로들의 인격에 대한 모욕

전쟁 포로 취급에 관한 제네바 협정 제14조에 의하면 『전쟁 포로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 받을데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포로들의 인격을 모욕하기 위하여 가장 파렴치한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1952년 7월 27일 아침 제주도 비행장에서 듀 대좌는 제8호 수용소 에치 수용장의 전체 포로들에 대하여 40여정의 중 경 기관총들로 무장한 미군 대대의 목전에서 발가벗고 자기에게 경례하라고 명령하였다. 포로들이 경례하는 것을 거부하였을때 미군은 그들을 구타하였으며 총검으로 찔렀다. 이로 말미암아 탕켄 쾌이 차오위 및 기타 20명의 포로들은 부상당하였다.

1953년 2월 제8호 수용소 포로들이 강제 로동을 당하고 있었을때 한명의 미군 병사가 껌을 쌌던 종이를 땅에 고의적으로 떨어 뜨리고 숭 아웅이라는 포로에게 이를 집으라고 명령하였다. 이 포로는 이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사살되였다.

전쟁 포로들은 서신 련락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전쟁 포로 취급에 관한 제네바 협정 제7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쟁 포로들은 서신 련락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와 같은 서신은 억류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급속한 방법으로 전달되여야 하며 경제적인 리유로 지연 또는 보류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미군 포로 수용소 당국은 그들이 억류하고 있는 전쟁 포로들로부터 그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였다.

제8호 수용소 포로들의 강경한 요구로 말미암아 미군 포로 수용소 당국은 1953년 정월 명절에 포로들의 편지를 발송할 것을 처음으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대하여 많은 제한 조건을 붙였다. 전쟁 포로들이 수천 통의 편지를 썼을 때 미군 포로 수용소 당국은 이 서한들이 포로들의 실 생활을 폭로하고 있다는 리유로 보류하였다 (부록 21 참조).

제5장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는 강제 로동

1949년 8월 12일의 전쟁 포로 취급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횡포하게 위반하면서 미군 당국은 부산, 거제도, 제주도 및 기타 장소들에 있는 전쟁 포로 수용소들에 억류한 병상자들을 포함한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들에게 미군 병영들과 부두

들에서 아무런 보수도 없이 일년내 주야를 막론하고 중로동을 할것을 강요하였으며 여기에는 제네바 협정에 의하여 명백히 금지되여 있는 군사적 성격을 띤 중 로동이 포함되여 있다. 전쟁 포로들은 음식물과 의복이 부족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할 때에도 이러한 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전쟁 포로 수용소 관리를 책임진 미군 당국은 전쟁 포로들을 이러한 작업에 동원시킴에 있어서 지방적인 기후 조건들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로동에 종사한 전쟁 포로들은 미군에게 횡포하게 모욕당하고 구타당하고 처벌 받았다.

작업 도구와 안전 시설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전쟁 포로들은 위독한 질병에 걸리였으며 부상을 당하거나 혹은 심지어 작업 과정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잃기까지 하였다.

중로동을 강요당한 전쟁 포로들은 말할 수 없이 극악한 조건 하에서 생활하였다. 그들에게는 매일 세끼 잡곡을 끓인 것이 반공기씩 급여되였다. 굶주리고 쇠약한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중로동을 하도록 작업장에 끌려 나갔다.

때때로 그들은 야간 작업을 강요당하였다. 여름에는 전쟁 포로들이 내의 하나와 빤쯔 하나를 입은채 뜨거운 태양열 밑에 그들의 사지를 로출시키고 중로동을 강요당하였기 때문에 몸이 붓는 병에 걸리였다. 그들이 이러한 고역에 못이겨 쓰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겨울에 전쟁 포로들은 추위를 막는데 극히 부적당한 얇은 의복을 입었다. 그들의 손 발은 심한 추위로 인하여 동상을 입었다.

1949년의 제네바 협정 제53조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전쟁 포로 수용소들을 관리하고 있는 미군 당국은 전쟁 포로들에게 휴식도 없는 중 로동을 강요하였다. 거제도 제70련대에는 1,500여명의 전쟁 포로들이 있었다. 전쟁포로 수용소들을 관리하고 있던 미군 당국은 낮에 이 련대에 대하여 매일 900명 내지 1,000명, 밤에 500명 내지 600명의 로동력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 련대에서 약 200명이 취사원이였거나 또는 기타 임무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1,300명이 야외 로동에 적합하였다. 그 결과 그들중 100명 내지 200명이 주야로 로동을 강요당하였다.

1952년 3월과 4월까지의 20일 동안에 전쟁 포로 수용소들을 관리하고 있던 미군 당국이 6차에 결쳐 련속적으로 낮에 1,200명을 요구하고 밤에 700명을 요구하였을 때 이러한 형편은 더욱 더 악화되였다. 매번에 600명은 계속 24시간 작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아니되였다. 그 실례로서 전쟁 포로 진계안은 동기간 내에 4차나 이러한 작업에 종사하였다. 제네바 협정 제49조에 의하면 『억류국은 육체적으로 적합한 전쟁 포로들의 로동을 리용할 수 있는바 여기에 있어서는 그들의 년령과 성별, 직급 및 육체 상의 적합성을 고려하며 또한 그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좋은 상태에 두게 하는데 특별히 류의하여야 한다』.

전쟁 포로 수용소들을 관리하는 미군 당국은 년령 또는 육체적 조건 때문에 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전쟁 포로들과 군관들과 병상 전쟁포로들에게 중로동을 강요하였다. 그들의 대부분은 과중한 로동으로 말미암아 중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

망하였다.

1952년 6월에 18세 되는 전쟁 포로 타이친청은 다른 전쟁 포로와 함께 미군에게 각각 100키로 그람의 중량을 가진 바위를 운반할 것을 강요당하였다. 하룻 동안 이러한 중로동을 강요당한 이후 그는 입에서 혈담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1951년 9월에 거제도 제86련대에 소속되였던 챈지후가 중로동에 종사하였을때 그는 미군 병사에게 곤봉으로 혹심히 구타당한 결과 혈담을 뱉기 시작하였다.

그가 입은 상처로 말미암아 그의 병은 더욱 악화되였으며 2개월 내지 3개월을 두고 주기적으로 10일동안 계속적으로 빈번히 혈담을 뱉았다. 드디어 그는 중결핵병에 걸렸다. 중로동을 강요당한 쑨지첸과 같은 병상 전쟁 포로들은 자기의 건강을 크게 손상시켰다 (부록 22 참조)

송환된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 티엔지청의 증언에 의하면 부산 제2수용소 제 2 병상 포로 수용장에 있던 퉁유충을 포함한 3명의 결핵병 환자 포로는 1952년 5월 23일부터 26일에 이르기까지 4일동안 련속적으로 미군에게 철조망 수리 작업을 강요당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강요당한 결과 그들의 질병은 악화되였으며 퉁유충은 그후 사망하였다.

미군 당국이 전쟁 포로들에게 강요한 각종 형태의 로동 가운데는 돌을 운반하거나 또는 깨는 그러한 중로동이 포함되였다. 더욱 엄중한 것은 미군은 제네바 협정 50조의 규정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쟁 포로들에게 군사적 성격을 띤 로동에 종사할 것을 강요하였는바 그 중에는 가스탄, 수류탄, 포탄, 총탄, 카빈총, 경기관총 및 중기관총이든 위장된 나무함을 적재 또는 수송하는 작업, 참호굴착, 토굴 굴착, 무기 창고, 석유 저장, 땅크 및 기타 군사 시설 축조 작업이 포함되였다.

작업중 미군은 전쟁 포로들을 집체적으로 채찍과 총탁으로 때리고 총검으로 찔렀으며 또한 모욕하고 처벌하였다. 수십종의 처벌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전쟁 포로들을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도록 강요하며 맨발로 자갈위를 뛰도록 강요하며 시간외 작업을 강요하며 또는 음식물 공급을 중지하는 것이 포함되였다.

1953년 2월 27일에 리평밍은 제주도 제8수용소 이 수용장으로 부터의 기타 전쟁 포로 9명과 더불어 미군에 의하여 석유 도람통을 수송할 것을 강요당하였다. 하등의 리유도 없이 한명의 미군 병사는 그에게 땅을 기여가라고 명령함으로써 그에게 처벌을 가하였다. 리평밍이 이를 거절하였을때 미군 병사는 돌로 그의 잇발 두개를 꺾었다. 그의 입으로부터 피가 쏟아 나왔다. 이를 목격한 모든 전쟁 포로들은 이러한 만행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미군은 그 다음부터 전쟁 포로들에게 두끼 음식물 공급을 중지하였다.

1951년 7월에 거제도 제86련대 제4대대 제13소대 소속 장치칭 및 장친더를 포함한 전쟁 포로60명은 미군의 명령으로 돌을 깨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미군은 이 전쟁 포로들이 너무나 뜨게 작업하였다는 구실 밑에 60명 전체에 대한 처벌로서 의복을 벗고 땅을 기여갈 것을 강요하였으며 이로써 포로들의 라체를 뜨거운 태양

에 토출시키게 하였다. 티엔샹퀜을 포함한 많은 포로들은 쓰러졌다.

1952년 9월 13일에 전쟁 포로 한에치를 비롯하여 제주도 제8 수용소 이 수용장에 있던 224명의 전쟁 포로들은 미군의 명령으로 참호굴착작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휴식에 대한 자기들의 권리를 박탈한 데 대하여 미군 당국에게 항의를 제기하였다.

이것을 구실로 삼아 미군은 땅크 4대와 2개 소대의 군대를 파견하여 그들을 탄압하였으며 또한 그들을 습기 치고 좁은 창고에 감금하고 32시간이나 음식물 공급을 중단시켰다. 공기가 통하지 않고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피로와 갈증 때문에 첸즈춘과 류첸푸를 포함한 16명의 전쟁 포로는 쓰러졌다. 밤 사이에 아무 정당한 리유도 없이 미군은 발포하여 푸쉐린과 궈원칭을 포함한 3명의 전쟁 포로들을 부상시켰다.

전쟁 포로 수용소들을 관리하는 미군 당국은 공구가 부족되며 안전시설이 완전히 결핍되는 조건 하에서 전쟁 포로들에게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공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돌 깨기에 종사한 전쟁 포로들은 빈번히 그들의 손과 발을 부상당하였다. 1952년 9월에 제주도 제8 수용소 에취 수용장으로부터의 전쟁 포로 왕융차오가 부두에 무거운 나무 상자를 부리우고 있을때 기중기 갈구리에 다쳐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동일한 수용소 제2 수용장에 있던 전쟁 포로 류용허와 기타 1명도 또한 그들이 미군의 명령으로 해하 작업에 종사하고 있을때 기중기 갈구리에 다쳐 부상당하였다 (부록 23 참조).

송환된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 첸웬위 양치원 리충 및 기타는 거제도 제86련대 제 5대대에 있던 전쟁 포로 탄시우와 기타 30여명이 거제도에서 불안정한 제방 아래서 굴토 작업에 종사하도록 강요당하였으며 그때 땅이 무너저 탄시우와 기타 2명의 전쟁 포로들은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제 6 장 전쟁 포로들에 대한 비법적 처벌

미국 전쟁 포로 수용소 당국은 부단히 그리고 정당한 리유 없이 전쟁 포로들에게 야만적이며 비법적인 처벌을 가하였다. 전쟁 포로들의 어떠한 말이나 또는 행동이라도 『처벌』을 위한 구실로 사용되였다. 어떠한 병상자나 또는 어떠한 군관 및 고급 군관도 이 참혹한 처지로 부터 면제되지 않았다.

미군 당국은 전쟁 포로들을 처벌하는 데 각종의 비법적인 수단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그들의 상투적인 방법중에는 음식물 공급을 중단시키는것,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는것, 구타하는것, 땅을 기도록 강요하는것, 어두운 감방, 지하 감방 또는 침수된 감방에 감금하는것 그리고 장기의 중로동을 강요하는것 등이 포함되였다.

전쟁포로 취급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 협정에 대한 미군 당국의 이러한 횡포한 위반은 절대로 용허할 수 없는 것이다. 직접 야수적 고문을 경험한 중국

인민 지원군 군인들은 자기들의 제소 가운데서 미국 수용소 당국과 대만 국민당 도당 특무들의 수많은 범죄 행위를 폭로시켰다.

개별적 전쟁 포로에 대한 비법적 처벌

전쟁 포로 취급에 관한 제네바 협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전쟁 포로들은 항상 인도적으로 취급되여야 한다. 억류국이 자기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들을 사망케하거나 또는 그들의 건강을 크게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동이나 조치라도 이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며 또한 이것을 현 협정을 크게 위반하는 것으로서 간주된다』.

『동일한 리유로써 전쟁 포로들은 항상 보호되여야 하며 특히 폭행 및 위협의 행위에 대하여 그리고 모욕과 군중적 희롱에 대하여 보호 받아야한다』.

『전쟁 포로들에 대한 보복 조치는 금지된다』. 그러나 거제도 제72 및 제86 련대 내에서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들은 빈번히 각종 형태의 처벌을 받았다. 그들은 또한 수차에 걸쳐 한개의 단순한 날조된 죄명밑에 처벌되였다. 명백히 이것은 어떠한 전쟁 포로도 동일한 행위 또는 동일한 죄명.에 의하여 1회이상 처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네바 협정 제86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1951년 9월에 제72련대에 억류되였던 전쟁 포로 원난푸는 그가 자면서 말을 하였다는『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체포되여 심문을 받았다. 심문 기간 그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곤봉으로 구타당하였다. 그다음 그는 밤중부터 새벽까지 처벌로서 땅을 기여갈것을 강요당하였으며 그다음 날에는 돌깨는 로동을 강요당하였다. 1951년 12월의 어느날 부산 제2호 수용소 제11수용장에 있던 전쟁 포로 후카 이싱은 작업장으로 끌려갔다.

일기가 몹시 춥고 그의 의복이 몹시 얇았기 때문에 답보함으로써 자기 몸을 덥게하려 하였다. 이『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국민당 특무들은 그에게 2시간동안 땅을 기여 갈것을 명령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은 부당하고 횡포한 처벌을 받은 전쟁 포로들과 또한 동일한 사건으로 1회 이상 처벌을 받는 실례는 수용소들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였다.

미국 수용소 당국은 전쟁 포로들이 그들의 인신과 인격에 대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전쟁 포로들을 처벌하였다.

사용된 방법들은 너무나 횡포한 것이기 때문에 문명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1952년 2월에 제72련대의 진련청은 밖에서 작업하는 동안에 소변을 보았다는 죄로 자기 무릎위에 약 100파운드의 중량을 가진 모래주머니를 올려 놓은 다음 앉아서 팔을 쳐들고 있을 것을 강요당하였다. 그가 이 괴로움에 못이겨 넘어 졌을때 미군 병사들은 그를 발로 차고 일어나 다시 같은 자세를 취할것을 강요하였다. 그 모래주머니는 다시금 그에게 올려졌으며 10분 이상이나 경과하여 그가 인사 불성 상태에 빠졌을때에 비로소 그는 석방되였다.

미국 수용소 당국이 설치한 감방, 지하감방 및 감옥들은 매우 어두었다. 감금된

전쟁 포로들은 얼음같이 찬 땅위에서 찢어진 모포 한장을 덮고 잤다 제주도 제8 수용소. 예취수용장에 수용되였던 류쯔창과 기타의 10명의 전쟁포로들은 1952년 12월 5일 오후 4시경에 아무런 정당한 리유도 없이 감금되였으며 33일후에 비로소 석방되였다. 제602수용소의 쑨첸콴과 장뎌시는 제주도에 있던 미군 헌병대 본부 치안부의 직접 통제하에 113일 동안이라는 소위 『최대한의 구금』을 아무런 정당한 리유 없이 당하였다. 이 두명의 전쟁 포로는 건강을 크게 손상시켰다 (부록 24 참조).

미국 수용소 당국은 전쟁 포로들을 처벌하기 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하여 감방들을 침수시켰다. 1952년 3월 17일 부산 제2수용소 내에 설치된 상병 포로들을 위한 제3 수용장에 있던 전쟁포로 야오웬첸은 그가 다리를 절기 때문에 걸어 다니기가 곤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소 밖에서 소변을 보았다 하여 침수 감방에 15일간 미국 당국에 의하여 투옥 당하였다.

전쟁 포로들을 비법적으로 처벌함에 있어서 미국 당국은 군관들과 그리고 이에 해당한 직급을 가진 군인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단히 온갖 구실들을 사용하여 포로된 군관들과 이와 동등한 직급의 군인들을 투옥하였으며 그들을 라체로하여 비가 퍼붓는 가운데 서 있게 하는등 비법적인 처벌을 가하였다. 거제도 제72 련대 제4대대 (군관대대)의 전쟁포로 류팡 및 기타 4명 (모두 군관)은 철조망울타리로 둘러싸인 『분리』 수용장에 억류되였으며 또한 그들은 매일 2시간씩 땅을 기여가는 처벌을 당하였다. 그들은 또한 야수적으로 구타당하였다 (부록 15 참조).

군관 왕팡과 리싱이는 하등의 정당한 리유도 없이 투옥되고 지하 감방에 장기간 감금되였으며 고문과 모욕을 당하였다 (부록 25 참조).

병상 전쟁 포로들에 대한 비법적 처벌

미국 수용소 당국은 병상 포로들을 가장 야만적으로 처벌하였다.

그들은 빈번히 음식물 공급을 중단시킴으로써 또한 의학적 치료를 중단시키는 그러한 참혹한 방법으로써 병상포로들을 처벌하였다. 례를들면 1952년 4월 16일부터 5월22일에 이르는 동안에 부산 제2 수용소 당국은 제1, 제2 및 제3 병상 포로 수용장에 대한 음식물 공급을 7일간내지 12일간 중단시켰는데 그 리유는 이 수용장들의 전쟁포로들이 비법적인『선별』을 받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이였다. 이 병상포로들은 기타 수용장의 전쟁 포로들이 제1, 제2 및 제3 병상 포로 수용장의 병상 포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음식물 소비량을 삭감함으로써 원조를 주었기 때문에 아사를 모면하였던 것이나 동기간내에 의학적 치료는 32일내지 37일간 중단되였다.

음식물 공급이 중단된 3일째에 제1 수용장에 억류된 병상 포로들은 나무 잎과 나무 뿌리로써 기아를 면하지 않으면 아니되였으며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의 헌 가죽구두와 혁대를 끓여 먹기까지 하였다. 그들의 상처의 대부분은 병균에 감염되여

구데기가 쓸었다 (부록 33 참조). 1953년 2월초에 부산 제2수용소 제4수용장 제4호 막집에 감금된 40여명의 결핵환자 포로들은 중국의 정월 명절 (음력)을 경축하여 노래를 불렀다는 죄명밑에 의복을 벗기운채로 밖으로 나가 한시간동안 눈위에서 있도록 강용당하였다.

이러한 야만적 처벌은 많은 병상포로들의 증상을 더욱 더 유독하게 하였다. 1951년 말경 부산 제2수용소 제4수용장의 장원룬은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손이 떨렸기 때문에 체온기를 떨어뜨리고 깨뜨렸다.

미군 대위는 그의 바지를 벗기고 침수된 감방에 1시간 이상이나 앉아 있도록 강요하였다. 이 감방은 어둡고 약 반메터가량 물이 차 있었다.

제1수용장에 억류되여 있던 초우광위는 1952년 8월 후반에 미군 오장에게 강제로동을 할것을 강요당하였다.

서 있지못할 정도로 앓고 있던 초우는 쇠약한 탓으로 야수적으로 구타 당하였다. 수명의 병상포로들은 미국 수용소 당국에 항의하였다. 그러나 그 미군 오장은 4개월동안 그를 침수된 감방에 감금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그를 더욱 혹독히 처벌하였다. 그 결과 초우광위의 병상은 더욱더 위독하게 되였다.

집 단 적 인　처 벌

제주도 제8 수용소에서는 전쟁 포로들이 집단적 처벌을 당하는 사건이 극히 일상적으로 발생하였다.

중국에 돌아갈데 대한 요구를 공공연하게 표명한 6,000여명의 중국 인민지원군 포로 인원은 이 수용소에 감금되였는바 미국 수용소 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귀국을 념원한 이 전쟁 포로들을 커다란 적개심과 증오심의 대상으로 하였다.

식사 공급 중단, 중로동 및 인격 모욕등과 같은 각종의 처벌 방법들이 전쟁 포로들에게 집단적으로 형벌을 가하는데 사용되였다. 어떤 경우에는 개별적인 포로들의 행동에 대하여도 집단적인 처벌이 운동장에서 가하여졌다.

이것은 제네바 협정 87조의 위반인 것이다.

1952년 7월 7일 이 수용장의 전쟁 포로들이 변소의 오물을 치기 위하여 해변에 갔을때 한 사람의 조선 민간인이 전쟁 포로 쿠오 치수오를 보고웃었다.

이때문에 미군은 총창으로 쿠오를 부상시켰다.

모든 전쟁 포로들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미군 병사에게 처벌을 가할 대신에 미군당국은 7월 8일로부터 4일간 모든 전쟁포로들에게 대한 식사 공급을 중단하였으며 첫날에는 물의 공급까지도 중단하였다

1952년 9월 25일 오후 2시경 더 수용장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던 35명의 전쟁 포로들은 미군소좌로부터 반날동안 돌 깨는 작업을 하라는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그들이 곡물을 운반하는 동안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였다.

1952년 10월 4일 더 수용장 전쟁 포로들이 식사 준비 작업을 하고 있을때 미군 수용소 당국은 100명이 요구되는 작업이 있다하여 그들의 일을 중지시키려고 하

였다.

전쟁 포로들의 대표는 준비 작업이 끝나면 즉시로 그 인원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때문에 보루그스 대위는 부당하게도 그들을 종일 돌을 깨게 함으로써 수용장 내 모든 포로들을 처벌하였다.

식사 공급도 3일간 중단되였으며 그들은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였다. 미군 당국은 종종 노래를 불렀다 하여 전쟁 포로들을 처벌하였다. 어느때는 포로들의 그루빠가 노래를 불렀다 하여 수용장에 있는 모든 포로들이 처벌당하였다.

1952년 9월 17일 에프 수용장에 있던 400명의 전쟁 포로들은 야외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들중 25명으로된 그루빠가 노래를 불렀다하여 미군 당국은 400명 전체를 강제로 창고안에 쓸어넣고 48시간 동안 식사를 공급하지 않았다.

9월 27일 지 수용장에 있던 100 여명의 포로된 중국 인민지원군 들은 바닷가로 일하려 갔다. 그들중의 50명이 노래를 불렀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서 미군 소좌와 대위가 지휘하는 미군 1개 중대는 수용장의 포로 통역을 강제로 끌고 갔으며 전쟁 포로들의 다음 식사를 주지않고 3시간 동안 햇볕에 서 있게 함으로써 처벌하였다.

오후에 그들은 해변으로 큰 바위를 운반하는 작업을 강요당함으로써 가일층 혹독한 처벌을 당하였다. 이때에 미군은 또한 26명의 전쟁 포로들을 총창으로 찔렀는데 그중 4명은 중상을 입었다.

11월 13일 제8수용소의 아이, 지, 이, 씨, 에이, 피, 에취, 에프 및 디 수용장 전쟁 포로들이 노래를 불렀다 하여 미군 수용소 당국은 4일반동안에 걸쳐 이 수용장들에 대한 식사와 음료수의 공급을 3분의 2 감소시켰다.

제 7 장 전쟁 포로의 강제 억류

국제 협정들을 란포하게 유린하며 전쟁 포로들의 개인적인 의사를 무시하면서 미군 당국은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인원들을 공공연히 강제 억류하였다.

이 강제 억류는 미군 당국의 잘 계획된 음모밑에 진행되였다. 전쟁 포로들을 강제 억류하기 위하여 미군 당국은 포로 수용소 내에서 각종의 비법적인 활동을 하도록 수다한 특무들을 파견하였다. 일부는 대만에 있는 국민당 잔당으로부터 파견되였고 일부는 동경에서 특별 훈련을 받았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들에서 이 특무들은 국민당 『류산』지부와 소위 씨 • 아이 • 이 『학교』 (부록 20참조)를 창설하였으며 전쟁 포로들에게 박해를 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비밀 단체들을 창결하였다. 그들은 전쟁 포로들에게 『혈서 탄원서』 에 피로 지장을 찍게하며 자기 몸에 글자를 새기게하며 그들을 비법적으로 『선별』 하며 대량적으로 살륙하였다.

조선 정전 조인 이후 그들은 온갖 추악한 수단을 다하여 중국 인민 지원군 대표단의 해설 사업을 파탄시키고 방해하며 송환에 대한 전쟁 포로들의 권리 행사의

, 자유를 박탈하기 위하여 광분하였다.

1, 비법적인 『조사』

중국 공산당원, 중국 신민주주의 청년 단원 및 중국 인민 지원군 군관들을 적발하여 내려는 미군 당국의 『조사』는 전쟁 포로들의 억류에 유리한 테로의 분위기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일찌기 1951년 2월 미군 당국은 이미 전쟁 포로들에게 박해를 가할 목적밑에 그들간에서 비법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특무들에게 지시하였다. 1951년 7월 대규모적인 『조사』가 시작되였다. 『조사』를진행하는 동안 미군 포로 수용소 당국은 특무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주었다.

거제도 헌병 사령부의 중좌 한 사람과 왕대위라는 미국 정탐 기관의 특무와 씨•아이•이 『학교』의 부스 대위 및 종교의 가면을 뒤집어 쓴 미국 특무 우드베리 등이 모든 자들은 특무인루량 및 리타안에게 중국 공산당원과 중국 신민주주의 청년단원과 중국 인민 지원군 군관들을 적발할 것을 비밀히 명령하였으며 그들을 『엄격한 감시』 하에 두며 매질하며 고문하거나 심지어는 살해하기 까지 하였다. (부록 26참조)

거제도 72련대의 2 000명 이상의 전쟁 포로들은 구타 고문을 당하였다. 전쟁 포로 시에레라오는 거꾸로 매여 달렸으며 손에 석유를 묻쳐 태웠으며 그의 팔, 다리는 몽둥이로 구타당하여 부러졌다. 전쟁 포로 멩칭창은 손톱에 못을 박혔으며 전기 고문을 당하였다. (부록 19 참조)

순웬칭은 흉문에 강제로 끓는 물을 붓는 고문을 당하여 살해되였다.

2, 『혈서 탄원서』에 대한 강제 지장 찍기

1951년 7월부터 1952년 4월간에 8차에 걸쳐 미군 당국은 거제도72 및 86련대에 있는 전쟁 포로들로 하여금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허위적 문구를쓴 유•엔과 장개석에게 보내는 『혈서 탄원서』에 피로써 지장을 찍도록 강요 하였다.

1951년 11월 판문점에서 전쟁 포로 송환 문제가 토의되고 있을때 미군 부스 대위는 전쟁 포로들에게 모든 포로들의 이름으로 되는 『혈서 탄원서』에 지장 찍기를 강요하기 위하여 특무 왕순칭 및 리타안을 파견하였다.

『혈서 탄원서』 에 지장을 찍는 일은 특무들에 의하여 강요되기도 하였고 강제로도 실시되였다.

72 련대에서 1951년 11월 하순경 및 1952년 2월경 이 수용소들의 특무들은 련대의 모든 포로들의 이름으로 되여 있는 『혈서 탄원서』 2통을 작성하였다. 1951년 11월 중순 어느 날밤 『혈서 탄원서』 중의 하나에 지장 찍는 일이 진행되였다. 전쟁 포로들은 사전에 이 일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미군은 취침 중에 있는 포로들을 두들겨 깨웠다. 포로들은『혈서 탄원서』에 지장을 찍도록 전쟁포로 대대 본부로

팔려 갔다.

어떤 지장은 포로들의 손가락을 강제로 피나게 찔러 이 『탄원서』에 지장을 찍게 한 것이며 다른 지장들은 포로들을 인사불성이 되도록 구타한후 찍게한 것이다.

지장을 찍게하기 전에 대다수의 포로들은 구타당하였다. 제4대대의 전쟁 포로 친 푸는 곤봉으로 심하게 구타 당하였다. 제1대대의 고라는 성을 가진 또 한 사람의 전쟁 포로는 특무에 의하여 발가 벗고 잔돌 위에 무릎을 꿇을 것을 강요당하였다. 그가 완강하게 지장 찍기를 거부하자 특무들은 그의 손가락을 찔러 피나게 하여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였다. 심한 구타를 당한 후에도 여전히 완강하다는 것이 증명된 자들은 야외에서 중로동을 하고 있는 자들과 동일한 방법의 취급을 받았다.

즉 그들의 지장 찍기는 특무들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

3, 몸에 글자 새기기

미군 당국은 전쟁 포로들의 몸에 강제로 문구들이나 중국 글자를 새겼다. 이와 같이 비법적으로 몸에 글자를 새기는 일은 1951년 7월에 시작되였다. 1951년 10월 국민당 특무 창피는 72련대에 있는 특무들인 왕순칭, 리타안 및 기타 들에게 더욱 대규모로 몸에 글자를 새기는 일을 강화하라고 말하였다. 11월말 전 미 극동 미군 총사령관 릿지웨이가 72련대를 방문하였을 때 특무들은 전쟁 포로들에게 상의를 벗고 영어로『반 공』이라고 새긴 표시를 들어 내게 하라고 강요하였다. 릿지웨이는 강제로 몸에 글자를 새기는 일을 장려하였다. 그후 계속하여 72및 86 련대에서는 전쟁포로들의 몸에 강제로 글자를 새기는 일이 광범하게 진행되였다. 1952년 4월에 『선별』이있기 전 86련대의 특무들은 고문과 살해의 수단으로써 싫어하는 포로들에게 강제로 몸에 글자를 새기게할 목적으로 『글자새기기소대』를 조직하였다 86 련대2대대의 특무들은 구타와 물고문으로써 전쟁포로 왕추안라이에게 글자를 새기도록 강요하려고 노력하였다.

72련대 1대대의 전쟁 포로 왕우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구타당한후 몸에 글자가 새겨졌다 제4대대의 전쟁 포로 루수친의 몸에는 발갛게 달은 쇠로 글자가 새겨졌다. (부록28참조)

제2 수용소 제11수용장에 있던 전쟁 포로 황잉수안은 몸에 글자를 새기는 것을 거부한 결과 날카로운 천막대로 머리를 찔리였다 특무들에게 찔린 결과로 황의 머리는 부상당하였으며 그의 우반신은 마비되였다. 많은 전쟁 포로들은 몸에 글자를 새기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살해당하였다. 72 련대의 전쟁포로 탄치우 및 차오 차오추는 특무들에 의하여 교살 당하였다. 86련대의 전쟁포로 쳉퉁하이는 홍문에 강제로 고추를 뿌린 물을 넣은다음 발갛게 달은 쇠끝으로 지지는 방법으로 살해당하였다.

4. 비법적인 『선별』

1952년 4월에 거제도 72 및 86 련대에서는 미군 당국에 의하여 2차의 비법적인

『선별』이 진행되였다.

비법적인『선별』이 있기 1주일전에 소위 씨∘아이∘이『학교』의부스대위와 72련대를 책임지고 있는 로니에 대위는 특무 왕순칭 및 리타안에게 어떤 전쟁 포로도 귀국할수 없도록 선별이 진행되여야 한다고말하였다.

그들은 이것이 실패된다면『유∘엔』의 체면이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대만으로부터 온 국민당 특무창피는 리타안 및 기타들에게 귀국할 의사를 공공연히 선언하는 전쟁 포로들을 살륙하기 위한『암살대』를 조직하라고 지시하였다. (부록26참조) 이렇게 지시하기 전후하여 미군특무 우드베리, 리승만 특무 한병혁 및 미군 군조 한명은 수용소들에 있는 특무들에게 수다한 천막대와 미국제 칼들을 보냈다. (부록29참조)

72 및 86련대에서의 비법적인 첫『선별』은 4월8일 및 9일에 진행되였는데 이 『선별』은 악명 높은 4월8일 거제도 학살 사건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4월6일 및 7일에 수용소 당국은 방송을 통하여 특무들에게 전쟁 포로를 위혁하라고 선동하였다.

수용소 당국의 방송이 있은후 동 련대내의 특무들은 전쟁 포로들을 구타하고 살해함으로써 테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광분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4월7일 및 8일에만도 72련대의 1,000명 이상의 전쟁 포로들이 구타당하였다.

중상당한 560여명 중에는 왕홍타 리추안유 리시엔 타오 펭민텅들이 포함되여있었다.

차오 티엔 카오(부록 30 참조) 양야오티 및 기타등 250여명에 달하는 포로들은 살점이 도려졌으며 창첸룽 및 기타들은 특무들에게 살해당하였다.

4월8일 저녁 소위 씨∘아이∘이『학교』로 되여있는 콘세트집에서 전쟁포로 린쉬푸는 무수히 란타당하였을때『공산당 만세!』를 웨치면서 리타안에게 타살당하였으며 그의 심장은 도려내여 졌다 이날밤 특무들은 칼과 곤봉으로 조 리쉥과 기타 포로들을 학살하였다. 4월9일 아침 특무들은 송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양웬화를 살해하였으며 그의 심장을 도려냈다.

4월7일 및 8일 아침에만도 제86련대에 수용된 전쟁 포로 조 웬캉렌타오무 치충탕 탕카이첸 및 기타 포르들은 특무들에 의하여 학살되였다.

4월8일 및 9일 수용소 당국은 제72및 제86련대들에 있는 전쟁포로들에게 비법적인『선별』을 강요하였다. 미군헌병과 다수 특무들이 손에 예리한 칼과 곤봉들을 들고 수용장들의 문앞에 서있었다. 제86련대에 잠입한 특무 윙상윤은『너이들은 결코 살아서 본토에 돌아가지 못할것이다!』라고 웨쳤다. 제72련대의 쉬라는 전쟁 포로가 문을 향하여 걸어갔을때 특무는 그를 총검으로 찌르고 그후에 그를 감금하였다. 뒤이여 또 한명의 포로가 문옆에서 살해되였다. 부상당한 포로 초우치 타이가 곤봉과 칼의 위협을 무릅쓰고 용감히 문을 향하여 갔을때 특무들은 다수 기타 전쟁 포로들이 강제 억류되여 있는 철조망을 친 구내에 끌어 넣었다.

이『선별』에서 미군 수용소 당국이 감행한 비 인간적 학살을 목격하면서도 제 86

및 제72련대들의 근2,000명의 전쟁 포로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송환을 요구하였으며 제602호 수용소에 도달하는데 성공하였다. (부록 31 참조)

제602호 수용소에 도착한후 전쟁 포로들은 즉시 류혈적『선별』을 맹렬히 반대 항의하였다. 그들은 중국 인민 지원군의 학살된 인원들의 시체를 조사할것과 강제 억류된 모든 전쟁 포로들이 집에 돌아갈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제602호수용소에 이송할것을 요구하였다.

미군 수용소 당국은 이 항의에 대한 회답을 지연시켰으며 동시에 학살된 전쟁 포로들의 시체를 몰래 딴곳으로 옮기고 태워버렸다. 1952년 5월 3일 및 7일에 비로소 돗 드춘장과 브루쿠스 대위는 제72및 제86련대들을 방문하고 전쟁 포로 대표들인 순체쾡 및 기타들과 함께 시체 수색에 대한 제의를 조사하였다. 수용소 당국은 자기의 범죄 증거물들을 음폐하였지만 많은 피묻은 의복들과 까맣게 탄 뼈들이 수용소 구내에서 발굴되였다. (부록 32 참조)

첫『선별』이 있은후 제602호 수용소에 있는 전쟁 포로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군 수용소 당국은 4월16일부터 4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비법적인 제2차『선별』을 진행하였다.

이『선별』도 또한 곤봉과 칼의 위협하에 전쟁 포로들에게 강요되였다.

제72 및 제86련대의 200여명의 전쟁 포로들이 죽엄을 무릅쓰고 제602호 수용소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전에 발표되지 않았었다.

1952년4월부터5월에 이르는 기간에 미군 수용소 당국은 부산에 있는 제2호 수용소에 수용된 전쟁 포로들에 대하여 또 하나의 비법적인『선별』을 강요하였다.

병상 포로들을 위한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수용장들에 억류 되여 있던 중국 인민 지원군 및 조선 인민군 병상 포로들은 전쟁 포로들의 강제 억류를 위한 수용소 당국의 이 음모를 명백히 알고있었다.

그들은 한결 같이『선별』을 반대하였다.

수용소 당국은 상병 포로들을 위협하여『선별』을 받도록 하기위하여 7일 또는 12일간 그들에게 식사와물을 공급하지 않았으며 32일 내지 37일간 그들에 대한 치료를 정지하기까지하였다.

이 기간에 병상 포로들의 병세는 악화되였으며 상처는 더욱 곪고 구데기가 쓸었다.

포로들은 식료품 공급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몸을 지탱할수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비법적인『선별』을 견결히 반대하였다.

음모에 실패한 포로수용소 당국은 5월21일 제3호 병상 포로 수용소에 억류된 전쟁 포로들을 학살하기위하여 땅크, 60미리포, 기관총 및 독가스탄으로 무장한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것이 악명 높은 5월21일 학살사건이다.

이 참혹한 학살 사건에서 190여명의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 병상 포로들이 학살 또는 부상당하였다.

5월22일 미군은 제2호 상병 포로 수용장에 억류되여 있는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 병상 포로들에 대하여 독가스탄을 던졌다. 동 수용장의 모든 포로들은 피해를 당하였으며 약 270명이 중상당하고 3명이 사망하였다.

학살이 끝난후 미군들은 제2호 및 제3호 병상 포로 수용장들에서『선별』을 진행하였으며 다수 조선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 상병 포로들이 강제 억류되였다. (부록33참조)

5. 직접 송환되지 않은 전쟁 포로들에 대한 박해의 격화

1952년 4월중에 거제도 및 부산의 수용소들에서 비법적인 강제『선별』을 진행한 다음 미군 당국은 미군당국과 특무들의 참혹한 박해때문에 귀국에 대한 자기 의사를 자유로이 표명할수 없었던『직접 송환되지 않은』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 14,000여명을 제주도로 이송하였는바 거기에는 그들을 인수하기위하여 제9호 수용소가 설립되였던것이다.

미군 당국과 그 조종을 받는 특무들의 테로 제도는 더욱더 강화되였다. 특무들은 전쟁 포로들의 모든 행동을 제한하였으며 전쟁 포로들의 생명은 항상 위험한 처지에 놓여있었다. 1953년 6월말까지 미국 전쟁 포로 수용소당국과 대만 국민당 잔당은 장개석비적도당의 구호들과 국민당 휘장 및 깃발들을 전쟁 포로들의 팔과 가슴과 잔등에 새길것을 또다시 강요하였다.

글새기는 것을 거절한 전쟁 포로들은 구타 당하였으며 살해당하기 까지하였다. 전쟁포로 왕깡 양궤푸는 글새기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였기 때문에 6월28일밤 특무 왕치와 후청밍에 의하여 교살당하였다. 그다음 특무들은 그들의 시체를 막집대들보에 매달았다. 초우라고 불려진 전쟁 포로도 동일한 리유로 구타당하여 살해되였다.

8월 14일부 에이•에프•피통신 서울발신에 의하면 글새기기를 거부한 80여명의 중국 인민지원군 포로 인원들은 미군 당국에 의하여 분리되고 투옥되였으며 또한 그들중1명은 살해당하였다. 대만 국민당 잔당의『조선주재 대사』왕풍원은 투광타이라는 특무를『미군 통역』이라는 역할을 부여하여 동 수용소에 파견하였다. 투는 전쟁 포로들에게 자기 손가락을 찔러 장개석에게 보내는『탄원서』에 피로 지문을 찍을 것을 강요하였다.

8월2일에 미국 수용소 당국은 제주도 수용소들에 있는 전쟁 포로들에게 보내는 장개석의 록음된 연설을 공공연하게 방송하였다. 그후 대만에 있는 국민당 잔당은 악명 높은 특무 두목 팡치를 단장으로한『대표단』을 조직하였으며 또한 8월22일에는 이『대표단』이 비행기로 제주도에 도착하였다. 대만 국민당의 깃발들과 휘장들과 장개석의 초상들과 그리고『위문품』들이 전쟁 포로들에게 배포되였다. 전쟁 포로들을 강제 억류하기위한 음모는 공공연히 감행되였다.

부산의 수용소들에서는 특무들이 미국 수용소 당국의 지지밑에 전쟁 포로들을 억류할 목적을 가진 온갖 범죄적 활동에 종사하였다.

강제 억류된 많은 중국 인민지원군 포로 인원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송환될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중에는 뎬충챙과 궈랑펀이 들어있었다. 송환된후 그들은 전쟁 포로들을 강제 억류한데 관한 제반 사실들을 폭로시켰으며 또한 미국 당국의 이러한 범죄를 규탄하였다. (부록 34참조)

제8장 쟁전 포로들을 특무로 리용하기 위한 강제 등록

국제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면서 미군 당국은 회유 및 위협으로써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에게 미군 정보기관의 간첩으로 되여 군사 정보와 기타 비밀을 탐지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 인민 공화국에 침입할것을 강요하였다. 이것은 미군 당국에 특무로서 복무할 것을 강요당한후 북조선에 공중으로부터 투하된 다음 중국 인민 지원군에게 투항한 중국 인민지원군 포로인원의 증언과 또한 송환된 중국 인민지원군 포로 인원들의 증언에 의하여 증명되였다.

1951년 8월부터 1953년 4월에 이르는 동안에 도합 188명의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인원이 미 극동군 사령부 련락단에 의하여 거제도 제72 전쟁포로 련대 및 제86 전쟁포로 련대와 그리고 제주도 제9 전쟁 포로수용소로부터 비밀리에 이송된것이 판명되였다. 그들은 미군 극동 정보 학교에서 훈련을 받도록 9개조로 나뉘여 파견되였다.

양런과 기타 13명을 포함한 제1조는 첩보 훈련을 받기 위하여 조선 대구에 파견되였으며 판지에와 장웬룽 및 기타72명을 포함한 제2, 제3 및 제4조는 일본 동경에 파견되였으며 왕쎈과 기타 24명을 포함한 제5, 제6, 제7, 제8 및 제9조는 조선 선갑도에 파견되였다.

5명의 기타 인원들은 서울에 있는 미군 정보기관에서 훈련을 받기위하여 파견되였다 매개조의 훈련기간은 실습훈련을 포함하여 20일내지1개월이였다.

훈련 기간중에 전쟁 포로들은 정탐방법, 무기사용법 및 락하산으로 락하하는 방법들을 배웠으며 그들은 거짓말과 기만 술책을 쓰는 방법을 배웠다.

그들은 중국 인민 지원군의 편제에 관하여 상세히 배웠으며 또한 지리를 연구하고 관측법을 배웠고 또한 기억훈련을 받았다. (부록35및36참조)

훈련 사업 후의 짧은 실습 기간이 끝난 다음 전쟁 포로들은 미극동군 사령부 련락단 서울 분견대(부대번호8240)에 의하여 락하산으로 락하하며 해안선을 따라 비밀리에 상륙하며 또는 제 일선을 돌파함으로써 제 일선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후방에 잠입하도록 배치되였다. 그들의 목적은 중국 인민 지원군과 조선 인민군의 병력, 각종의무기, 포진지 및 교통선에 관한 군사 정보와 미군이 진행한 세균전의 결과를 조사하는데 있었다. 그들은 또한 비밀 정보를 수집하기위하여 중화 인민공화국에 잠입하려고 시도하였다.

전쟁 포로들은 어떻게 특무로 복무하도록 강제 모집되였는가

미군 당국은 거짓말과 감언으로써 거제도 및 제주도에 있는 전쟁 포로수용소들로부터 중국 인민지원군 포로 인원을 10명내지 20명의 소조를 지여 다른 곳으로 이송하여갔다.

그들은 미군 특무인 왕 대위로부터 개별적으로 심문을 받았는데 이 왕 대위라는 자는 키가 작고 비만하고 얼굴이 검고 얽은 미국인과 중국인의 반종이였다.

심문을 받은 다음 전쟁 포로들은 특별히 준비된 철조망 울타리 안으로 끌려갔으며 그곳에서 그들은『전쟁 포로』라는 표식을 가진 자기들의 의복을 다른 의복과 바꾸어 입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다음 그들은 배와 비행기로 미군의 호송하에 비밀이 정보 학교에 이송되였다. 그들은 천으로 가린 화물 자동차로 이송되였으며 서로 말하거나 또는 밖을 내다보는 것을 금지당하였다. 그들중 어느 누구도 그가 어데로 이송되는가 또는 무슨 목적으로 이송되는가를 알지못하였다.

한편 미군 당국은 그들의 이름을 도주자 및 사망자 명부에 등록하였다.

이 포로들이 학교에 도착하자 정보 학교를 관리하고 있던 윌리암 데이비스 중위는『이제는 당신들은 전쟁포로가 아니며 유•엔군 사령부의 정보원이다』라고 말하였다.

전쟁 포로들은 미군 당국의 이 행동에 격분하였으며 일부 포로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훈련 받는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1952년 2월29일 전쟁 포로 왕샨창은 훈련을 받기위하여 동경에있는 정보 학교에 파견되였다. 이 학교의 부교장인 일본계 미군인 미주노가 너는 유•엔군 사령부 특무로 훈련받게 될것이다 라고 말하였을때 왕은 즉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한 일을 하지못하겠다 전쟁이 끝나면 나는 중국에 돌아갈 예정이다』 미주노는 성을 내면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네가 여기에 온 이상 너의 마음대로는 할수없다.

만일 네가 유•엔군 사령부의 정보원으로 되는것을 거부한다면 너의 생명은 없을것이다』왕은『나는 죽어도 나의 량심에 배반되는 일을 할수없다』고 대답하였다.

그후 경비병이 그를 데리고 나갔는데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또 하나의 전쟁 포로 평렌샨은 미주노의 심문을 받은후 죽어도 특무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시하였다. 조선 특무이며 동 정보학교 교관인 김영찬은 그를 위협하면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너는 네가 어데 있는지를 알고 말해야한다 네가 공작을 완강히 거부하는것은 너에게 리롭지 못하다』

다음으로 미주노는 평렌샨에게 영문으로 쓰인 카드에 지장을 누루도록 강요하였다 평은 영문을 몰랐다.

비밀리에 이 학교에 이송된 전쟁 포로들은 위협 공갈로써 자서전을 쓸것을 강요당하였으며 사진을 촬영당하였으며 영문으로 쓰인 카드에 지장을 찍는 것을 강요당하였다. 이 정보 학교는 전쟁 포로들을 가일층 협박하기위하여 이 모든것을 자료로 리용하였다.

전쟁 포로들의 사상을 통제할 기도밑에 정보 학교는 전쟁 포로들에게 그들의 사상 및 감정을 일기에 기입하도록 강요하였다. 이 일기들은 검열을 위하여 때때로 교관들에게 제출되였다.

정보 학교에서의 전쟁 포로들에 대한 훈련은 극 비밀리에 진행되였다.

이 학교가 동경에 있을때에는 많은 규칙들이 적용되였다. 즉 포로들은 자유로 걸어 다니거나 중국말을 큰 소리로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 당하였으며 외부 사람들이 보지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이 나면 곧 자기 방으로 돌아 가기로 되여 있었다.

이 학교가 선갑도로 이동된후 이 섬의 모든 주민들은 미국 당국에 의하여 이주를 강요 당하였으며 정보 기관의 선박 외에는 어떠한 선박도 이섬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훈련이 끝난후 전쟁 포로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가?

미군 당국의 위협하에 정보 훈련을 받을 것을 강요 당한 전쟁 포로들은 왕왕히 이에 대한 반대를 표시하였다.

훈련 기관과 공작 임무를 받기 전에 다음과 사건들이 일어 났다.

1. 행 방 불 명

1951년 11월 전쟁포로 궈 파오룽은 특무로써 공작하는 것을 거부 하였다는 리유로 투옥 되였다.

그는 미 극동군 련락단 서울 분견대 특무들인 조선인 왕연각 및 김이주의 위협을 받았으며 그들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네가 계속 반대한다면 너는 2—3일내로 좋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될것이다』

11월 27일 저녁 미군 소위가 인솔한 3명의 무장한 미군 병사들은 궈 파오 룽을 찦차에 태워데리고 갔는데 왕연갑 및 김이주 도 이차를 타고 갔다

얼마후에 왕연갑과 김이주는 돌아왔는데 궈파오 룽은 보이지 않았다 궈와 함께 있던 기타 전쟁포로들은 김이주가 궈가 가졌던 라이타로 담배불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궈가 어디 있는가고 물었을때 김은 궈가 어떤 『공작』을 하기 위하여 출발하였으며 선물로 이 라이타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후 궈는 볼수 없었다.

1952년 12월 하순경 어느날 전쟁 포로 원촨치는 정보 훈련을 받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리유로 발가벗고 24시간 추운데서 있도록 강요당하였다. 그 날밤 10시경에 한명의 미군 병사와 남조선 헌병이 그를 데려간후 그의 소식은 들을수 없었다.

2. 특무의 공작을 접수하는 것을 거부한 전쟁 포로들에 대한 가장 헐한 처벌은 투옥이였다

믿을만한 정보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미국 정보 기관에 감금된 포로들 중에는 궈 파오 룽, 수친, 한린샹, 리리창, 창야오푸, 마싱룽, 창하오센 및 기타들이 있었다. 감금중 그들은 의복과 모포를 박탈당하였다. 그들의 식사는 도저히 먹을수 없는 것이였다. 병자들은 아무 치료도 받지못하였다 9개월간 감금당하고 있던 기간에 전쟁포로 수친은 미국 특무로부터 빈번히 위협 당하였는데 미국 특무는 그에

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이 어떠한 조직체인가를 너는 알아 야한다 너는 지금은 우리 직원중의 한 사람이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한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말라』.

3. 탈 주 및 자 살

포로들은 특무로 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정보 기관의 박해에 견딜수 없었기 때문에 탈주를 기도하였으며 심지어는 자살하였다. 1952년 4월 6일 훈련을 받고 있던 전쟁 포로들의 제3조에 속하여 있던 유리와 친커는 담을 넘어 탈주하였다.

정보기관의 소재장소가 폭로될까 두려워 왕대위와 월레드 린스 애빈스 중위는 제3조에 억류된 포로들을 다음날 다른 적은 우리안으로 이동시켰다 높이 3메터는 벽돌 담이 이곳을 둘러 싸고 있었으며 출입 구는 한개 밖에 없었는 데 거기에는 리승만 경비 대원들이 엄밀히 경비하고 있었다 경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무장한 보초의 인원수가 증가되였다.

4월 7일 저녁 서울에 있는 미군 정보 기관내에서 전쟁포로 리리창은 강요된 공작을 거부하여 정보 기관이 공급한 소총으로 자기를 쏘았다.

총탄은 가슴 왼쪽을 관통하였으나 그는 죽지 않았다 자살에 앞서 리는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썼다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 당국은 어째서 전쟁포로들에게 미국의 전쟁도박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는가』 리가 부상 당한 후 2명의 미군병사들이 리가 입고있던 솜녕은 군복 (자기 직원들을 중국인민 지원군으로 가장시키기 위하여 정보기관이 사용한 의복) 을 벗기고 들것으로 그를 운반하였다.

그후 리는 투옥되였다.

다음날 (4월 8일) 밤 왕나이 룽은 담을 넘어 탈주하였다.

4. 전쟁 포로 창웬룽은 미국 비행기를 파괴하였다

1952년 2월 중국 인민 지원군전쟁 포로 창웬룽은 군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비행기로부터 북조선에 투하되였다 비행기로부터 락하할때 그는 미국제 수류탄을 미국 씨•46비행기 탑승실에 던졌으며 이로써 비행기를 파괴하였다 착륙하자 그는 중국 인민 지원군에 자수하고 미군 당국의 명령하에 그가 훈련을 받고 잠입을 강요한데 관하여 상세히 보고하였다. (부록 37참조)

이 모든것들은 미군이 전쟁 포로들에 대하여 특무의 역할을 놀 것을 범죄적으로 강요하였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4. 미군이 조선에서 중국 인민 지원군 병상포로 인원에게 감행한 의료상의 착오 및 폭행에 관한 중국 적십자회의 보고

이 문헌은 저명한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금년 4월 및 8월에 송환된 1,609명

의 중국 인민 지원군 병상포로 인원에 대하여 의학적 및 외과학적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동 보고는 또한 미국 당국에 의하여 병상포로서 구분되지 않은 1.045명의 송환된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인원를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 기초하여 송환된 포로 인원의 전반적 영양 상태에 관한 진단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동 조사는 미국인들이 1949년의 제네바 협정을 란포하게 위반하고 중국 인민 지원군 전쟁 포로들을 취급함에 있어서 범죄적 인만행을 감행하였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외과학적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미군 외과의들이 부당한 절단수술을 진행한 비률이 높다는 사실이다 외상을 당한 송환된 중국 인민 지원군 1.172명중 840명은 폐인이 되였거나 또는 불구자가 되였다 그중 적어도 13.5명이 폐질자로된 책임은 응당 미국측이 져야 할것이다.

부당한 절단 수술은 폐질의 주요원인으로 되였다.

미국측은 많은 전상자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의학적 원칙을 위반하였다.

동상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태하에서 조선에 있는 미군에게 13.8%의 비률로 절단수술이 진행된 반면 우리측 포로인원에게는 70%의 비률로 절단수술이 실시 되였다 이것은 동상에 걸린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인원을 치료함에 있어서 미군 외과의들이 의학과 인도주의의 원칙을 모두 무시하였음을 증시하여 준다

동 보고는 또한 일부의 절단수술들이 외과학적 견지에서 전적으로 부당하게 실시 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주고 있다.

동 보고는 미군 외과의들이 상처를 치료함에 있어서 뼈 및 관절을 부상당한 637명의 환자중 66%에 대하여 초기에 적당한 수술 치료를 하지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하지 골절을 당한 483명중 43.5%는 부목을 갖지못하고 있었다 뼈와 관절에 부상당하고 부상당한 부분이 절단되지 않은509명의 환자들중 45.4%는 현저한 기형을 보여주었다.

대퇴골 골절을 당한 153명중 85%는 하등의 견인 치료도 받지못하였다 경관절에 대한 부당한 조절은 6명의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재골절을 초래하였다 뼈와 관절에 부상당한 637명의 환자중 20%는 사지를 보존하기 위한 보존 원칙에 의한 처치가 실험됨이없이 첫 치료 조치로서 사지에 대한 주요 절단 수술을 당하였다.

동 보고는 조사된 567명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하고있다.

그들중 92%는 만성적인 호흡기 질병에 걸려있었는데 그것은 미군 관하 전쟁 포로 수용소들에서의 비 인도적 만행과 극악한 생활조건의 결과인 것이다.

결핵병 환자 230명중 186명은 그들이 병에 걸리기전과 또는 병에 걸려있는 동안에 야만적인 학대를 당하였다. 이 186명중 142명은 폐결핵에 걸려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그들이 받은 비인간적 대우로 말미암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였다.

동 보고는 남조선의 미군 관하 전쟁포로 수용소들을 제2차 세계 대전중의 나치

스도배 및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수용소들과 대비하였는데 이 수용소들은 결핵병의 온상이였으며 이 수용소들에서는 영양 부족과 극악한 생활 조건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의발생과 만연이 촉진되였던 것이다 많은 중국 인민지원군 포로 인원들의 결핵병은강제 로동, 구타, 고문, 독까스공격, 음식물 공급의 중지 및 미군 수용소 당국의 기타의 만행에 기인하 는 것이다.

그들이 병에 걸려 있는 동안 그들에게는 어떠한 식사, 료법 또는 치료도 가해지지 않았다. 그들은 휴식 또는 기타의 배려를 받기는 커녕 수용소 의사로부터 결핵병 중환자로서 진단 받고『병원』에 이송된 이후에도 모든 전쟁 포로들에게 가해진 육체적 및 정신적 고문으로부터 제외되지 않았다.

송환된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인원 292명은 비 결핵성인 만성적 호흡기 병에 걸려 있었다. 동 보고는 포로된 이후 호흡기 병환자수가 이렇게 큰 비률을 차지한 것이 대부분 미군 관하 전쟁 포로 수용소들에서의 극악한 생활 조건과 폭행 및 비인도적 대우에 기인하는 것이 라고 지적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계속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결핵병 환자중 46%는 그들이 수용소들에서 구타 및 독까스 공격을 당하고 추운 밖에 쫓겨나며 강제 로동, 독방 감금을 당하고 의복을 벗고 무릎까지 물이 차는 침수 감방에 감금당하며 코와 목구멍에 고추를 뿌린 물을 주입당하는 고문을 당한 결과 병세가 더욱더 악화되였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병세가 악화된이 후 이 전쟁 포로들은 의연 독까스 공격 및 기타의 만행을 당하였던 것이다.

강제 로동은 계속 되였으며 그들은 극히 불충분한 음식물로써 생활하지 않으면 아니 되였다.

육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면에서 이렇게 유해로운 사태하에서 미군관하전쟁포로 수용소내에 만성적인 호흡기 병이 놀라울 정도로 만영되였다는 것은 하등 기이한 사실이 아니다.

동 보고는 계속 다음과같이 쓰고있다. 미군 수용소 당국이 비 결핵성인 만성적 호흡기병 환자들을 취급한 방법은 기본적인 의학적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 환자들의 약 3분의 1은 전혀 아무런 의학적 치료도 받지 않았으며 그들중 극소수만이 안티비오티크 또는 케모테라피제를 급여 받았다.상술한 바와 같이 그들중 대부분은 강제 로동을 당하였으며 또한 박해의 희생을 당하였으며 신체에 상처를 입었다.

거의 3분의 2는 즉석에서 그리고 그릇되게 폐결핵 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더 진단을 받음이 없이 결핵병 환자들과 함께『분리』되였다 이『분리』는 이러한 비결핵성 환자중 64.3%에 강요되였는바 때때로 이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동일한 방법으로『분리』되였다. 한편에 있어서 일부 결핵병 환자들은 무시 되였으며 적절히 격리되지 않았다.

수용소『병원』의 조건들도 또한 극히 불량하였다 환자들은 이 질병에 관한 진단서나 혹은 그 증상의 위급성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비결핵병 환자들과

혼합되였다.

례를들면 10명의 결핵병 환자는 비결핵성 환자와 혼합되였다 시설은 극히 빈약하였으며 여기에는 이렇다 할 경리 시설이 없었다.

수용소 의사들은 호흡기 병의 증상을 나타낸 모든 포로들을 다만 편의상 격리시켰으며 여기에 있어서는 페결핵이 다른 환자들에게 전염될 위험 성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태하에서는 다만 결핵 병균이 한 환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타의 병균도 전염될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 환자들은 본래의 질병 이외에 부차적인 질병을 병발할수 있었으며 이 질병은 병증을 악화시키고 병상의 악화 과정을 촉진시키고 전과들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사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동보고에서 취급된 1,609명의 송환 포로들이 포로된 이후 온갖 형태의 폭행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폭행에 관한 의학적 증거는 전쟁 포로들의 질병이 악화된 것이 학대로부터 기인되고 있으며 일부 전쟁 포로들은 전쟁 포로 수용소 들과 『병원』에서 미군과 그의 의료 인원이 학대로 말미암은 상처를 입고 있다는 사실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송환된 포로들의 첫 그루빠에 속한 350명에 대한 상세한 조사에 의하면 그들중 347명 즉 99%가 전쟁 포로 수용소들에 억류되여있는 동안 야만적으로 취급되였으며 그들의 매개 인은 1회 이상 고문을 받았으며 그에는 수개 형태의 고문 방법이 사용 되였다는 사실이 판명되였다. 적십자회 보고는 이러한 형태의 만행의 일부를 제시하였는데 그중에는 독까스 공격, 곤봉에 의한 구타, 발로 차거나 또는 치는 것, 음식물 공급을 중단하는것, 강제로동과 땅을 기여 가는것, 독방감금, 전기고문, 칼로 찌르는것, 의복을 벗기고 물에 몰아 넣는것, 피부와 머리털을 태우는것, 물과 고추물을 코에 넣는것, 참대꼬치로 손톱밑을 찌르는것, 불에 달군쇠 꼬치로 지지는것 등이 포함되여 있다.

독까스의 사용은 전쟁 포로들의 병상에 가장 해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350명의 환자중 313명 즉 89.4%는 독까스 공격을 받았다.

부상당한 귀환포로들 중에서 40명은 미군 관하 포로 수용소들에서 부상 당하였으며 36명은 미군 관하 전쟁 포로수용소 병원들에서 상처를 입었거나 또는 병원에로 이송되는 도중에 부상당하였다.

이 76명의 환자중 49명이 입은 상처는 신체의 각 부분에 있는 상처의 흔적으로써 증명될수 있으며 피해자의 27명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불구로 되였다.

동 보고는 영양부족이 송환된 전쟁 포로들간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여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인들에 의하여 병상자로서 분류되지 않은 1,045명에 대한 조사는 영양부족의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즉 그것은 허약하고 수척한 외양, 체중의 감소, 빈혈증, 비타민 『에이』 결핍증

리볼라빈 결핍증 및 모세관 약화의 증세가 포함되여 있다.

귀환포로들은 일반적으로 얼굴이 창백하고 쇠약하였으며 피부가 건조하고 년령보다 퍽 늙어 보이였다.

귀환포로 1.045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중 841명은 그들이 귀환한후 26일 동안에 체중이 2.8킬로그람 증가하였으며 그중 125명은 체중이 5킬로그람 증가 하였다.

이 유력한 증거는 귀환한 포로 인원들이 억류 기간에 체중이 상당히 감소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 병상 전쟁 포로들중 임의의 785명의 혈색소를 측정한 결과 우리들은 절대 다수의 귀환 포로인원의 혈색소 농도가 정상적 상태보다 낮다는 것을 볼수 있었다. 즉 그들중 80%이상에 대한 검사에 있어서 매1백씨씨의 혈액중 혈색소는 12그람 이하이 였으며, 60%이상의 혈색소는 11그람 이하이였으며, 40%이상의 혈색소는 10그람 이하이였고 평균 혈색소는 다만 10•3그람이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귀환한 비 병상포로 인원의 영양부족 정형은 극히 엄중하였다. 반수 이상은 야맹증에 걸리여 있었으며 63•1%는 피부 모낭각화에 걸려 있었다. 비타민『에이』결핍자 총수는 90%에 달하였으며 리볼라빈 결핍증도 보편적이 였으며 그 총수는 79•7%에 달하였다 만일 억류기간중에 발생한 증상 정조를 통계숫자에 포함시킨다면 그것은 88%에 달한다 18%에게 있어서는 모세관이 파렬되기 쉬운 상태에 있었으며 따라서 잠복성 비타민『씨』결핍도 또한 존재하였다.

동 보고는 영양부족의 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렬거하고 있다.

ㄱ, 학살 테로 제도 및 야만적 취급이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부단히 감행 되였으며 이것들은 동화작용에 악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음식물 소화 및 흡수를 저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차별로서 빈번히 가해진 식료 공급의 중단은 물론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였다.

ㄴ, 전쟁 포로들은 항상 강제 로동을 당 하였으며 장시간에 걸친 힘에 겨운 육체 로동은 의심할바 없이 영향물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켰다.

ㄷ, 영양상태에 가장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 요소는 물론 식료품자체의 량과 질이영다.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미군 관하 수용소 내에 억류된 전쟁 포로들에게 급여된 식료품은 불충분하고 질에 있어서 빈약하였다.

귀환한 전쟁포로 인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수용소에 억류되여 있는 전체 기간을 통하여 단 한번 의충분한 식사도 하여본적이 없다고 보고 하였다. 남조선에서 전쟁 포로들은 반 기아상태에 있었다.

미군 관하 전쟁 포로 수용소 당국은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협정 제 26조를 위반하였는바 동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있다.

『매일의 기본 식량은 량과 질 및 종류에 있어서 전쟁 포로들의 건강을 유지하며

체중의 경감 또는 영양 부족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이 규정은 결코 부인할수없는 것이다.
이 보고를 작성하는데 10명의 지도적인 의사 및 외과의들이 참가하였으며 그들은 중국 적십자회 회장 리덕전과 더불어 이 보고에 서명하였다.

장효재 (의학 박사)
류사호 (의학 박사)
종혜란 (의학 박사)
오집중 (의학사)
맹계무 (외과의 의학 박사)
진경운 (외과의 의학 박사)
오영개 (의학사)
필화덕 (의학 박사)
고문한 (의학사)
라종현 (외과의 의학 박사)

그들은 자기들이 수집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동 보고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들은 송환된 우리 전쟁 포로들이 팔 다리를 절단당하고 중병에 걸렸으며 또한 불구자로 된것을 증명하는 증인이다 여기에 제시한 상세한 자료들은 미군이 조선에서 병상 전쟁 포로들에게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또한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로 된다.
인도와 의학적 륜리의 이름으로 우리들은 미군이 범행한 추악한 범죄에 대하여 론고하며 또한 이 보고에서 확증된 제반 사실들을 전 세계에 알릴 책임을 지고있는 것이다.
동 보고의 10장중 8장은 조사한 병상에관한 자료들 즉 병력서, 사진, 렌트겐 사진, 도표 및 도해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장들은 뼈 및 관절의 부상, 동상, 절단 기타의 전상 영양 형편, 결핵병, 비결핵성, 만성 호흡 기병과 미군이 전쟁포로들에게 가한 폭행의 의학적 증거들을 취급하고있다.
적십자회가 작성한 병력서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미군 외과의들이 취급한 뼈 및 관절 부상에 관하여 동 보고는 류문재 (구류번호 730247) 의 병상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실예는 미군 외과의들이 초기 수술 치료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간단한 병력서는 다음과 같다.
그는 1951년 3월 3일에 오른발에 포탄 파편의 부상을 입었으며 그후 12시간 후에포로 되였다.
상처는 붕대로 감았으며 아직도 정위시키지도 않았으며 고정시키지도 않았다.
포로 된 후 6일 동안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다.
부산 전쟁 포로 병원에 도착한 3일 후 비로소 석고 고정이 실시되였다. 상처는

의연히 하등의 수술치료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이 확대되여 네째 및 다섯째 발가락은 수술 절단을 요하였다. 1951년 5월에 나머지 발가락들이 비교적으로 좋은 형편에 있었을때 오른 발은 발뒤축부로부터 절단되였으며 그후 또다시 다리의 3분의 1이 절단되였다.

동 보고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환자는 부상당한 12시간 후에 포로되였다 이때에는 바로 창상을 넓히는 수술을 진행하는 가장 적당한 시기였으나 미군 외과의들은 초기에 수술을 가하지 않았으며 상처가 고정되지 않은채 후방 병원에 이송되였다 부산 전쟁 포로 병원에서 조차 어떠한 외과 치료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후 3일이 지나 다만 석고가 붙여졌을 뿐이다 따라서 감염이 확대된 것은 당 연한 것이였다. 그후 기타의 외과적 방법에 의하여 감염을 방지할 대신에 적당한 치료도 가함없이 절단이 실시 되였다.

미군외과의 들도 인정한 한개의 외과 의학적 원칙은 일반적으로 대퇴골 골절 치료에 있어서 매달고 견인하는 방법은 골절 복위를 위한 중요한 방법이는라 것이다.

그러나 적십자회 조사자들은 중국 전쟁 포로들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이 방법이 153명의 대퇴 골 골절 환자 중 130명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판정하였다 동보고는 고운성(구류번호 730.215)을 실례로 들고 있다.

1952년 10월 1일제주도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그는 미군 병사가 고의적으로 발사한 보총 총탄으로 말미암아 오른 대퇴를 3분의 1부분에서 골절을 당하였다.

그는 부산 전쟁 포로 병원에 이송되였다. 이곳에서 다만 히프스피카형석고 고정이 적용되였을 뿐이였다.

현재 그의 오른 다리는 5,5 센치메터 짧으며 현저히 굽어 있다.

재골절을 일으킨 불합리한 조절의실례중에서 동 보고는 강성정(구류번호706268)의 병력을 기록하고 있는바 그는 1951년 2월에 오른 팔에 총탄 부상을 입었다.

그는 같은날 포로되였으며 전방에서 창상 확대 수술 및 석고 고정을 적용받았다 석고를 제거한 3개월후 본래의 상처인 골절은 나은것 같았으나 팔꿉 관절은 고착되였다 5일후 그의 팔꿉은 조절되였다.

세사람이 그를 억 누른 다음 네째번 사람이 그의 팔꿉을 힘껏 잡아 단기였다 이러한 강제 조절을 당하는 동안 오른팔로 부터 돌연 뼈가 꺾어지는 소리가 났다 팔은 몹시 붓고 아팠으며 이 고통은 그후 10여일간 계속되였다.

동상환자 치료에있어서 조사를 진행한 외과의들이 발견한 현저한 특징은 절단률이 매우 높으며 또한 절단이 필요한 부위를 넘어 상부위에서 진행되였다는것이다,

동 보고는 미군의료인원이 명백히 국부적 혈액순환을 개선하기위한 방법들과 상처를 꿰매는 정형법과 같은 치료의 보존적 또는 회복적 형태를 채택하기 위하여 거의 노력하지않았다고 지적하고있다 조경릉 (구류번호702970) 은 동상에 대한 절단 수술로 말미암아 두발을 상실하였다.

절단시에 왼발의 발가락들은 검고말라있었으며 오른발의 발가락은 의연 붉은 색을

며였고 이발의 발바닥은 다만 부어있었다. 엄중한감염의 징조는없었다. 오른발은 괴저의 증상이 없으며 왼발은 다만 발가락들이 괴저의 증상을 보여주었다. 동 보고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쓰고있다. 수술이 다만 왼발의 괴저를 보여준 발가락들을 제거하는데만 국한되였어야 한다는것은 극히 명백하다. 그러나 미군 외과의들은 지나친 절단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때문에 두발이 희생되였다. 동 보고는 이에관한 도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 도표에 의하면 다만 발가락만이 위험한 81개의 다리 가운데서 39개 즉48.2%가 다리에서 절단 수술이 진행됨으로써 항구적인 불구자를 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능히 피할수 있었던것이다.

동 보고에 그 증상이 상세히 기술된 채근포 (구류번호 703288) 와 방배덕 (구류번호 73 581) 과같은 일부 귀환 포로인원은 그들이 미군 관하 전쟁 포로 병원 또는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동상에 걸렸던것이다.

동 보고는 미군 외과의들이 군사 외과학의 확정된 원칙을 위반하여 전쟁포로들의 사지를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흔히 절단 수술을 한 사실을 규탄하고 다음과같이 쓰고있다.

의학적 견지로 보아 전상 치료를 위한 주요 방법으로서의 절단 수술은 원시적이며 비과학적인 방법이다. 인도적 견지로 보아 팔 다리의 부당한 절단은 인류에 대한 참혹성과 무관심의 표현인것이다.

미군 외과의들은 불필요한 고통과 불필요한 팔다리의 상실을초래하는 수많은 실례들을 내였는데 그들은 단순한 편의와 처치의 용이화를 위하여 회복할수 있는 팔다리들을 절단하여버렸던것이다. 진정한 리유는 그들 자신이 제일 잘알고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처치를 비인도적이며 비륜리적인 것이라고 간주한다.

동 보고는 다음의 3개 표제로 부당한 절단 수술의 실례를 제시하고있다.

즉 그것은 회피할수 있는 절단 수술, 불필요한 고위 절단 수술및 최악적 절단수술이다.

회피할수 있는 절단 수술의 범주내에는 주요한 혈관 손상 또는 기성괴저의 징조를 보여주지 않은 상처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지를 남겨두기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절단 수술은 주요치료 방법으로서 적용되였다. 왕용기 (구류번호 730300) 는 오른 다리 3분의1 부분에 총탄 부상을 입고 골절을 일으켰다. 총탄의 입구는 직경 2센치메터이고 출구의 직경은 4센치메터이였다.

그가 포로된 날에 그리고 그가 상처를 입은 24시간 내에 미군 전방 『병원』 에서 대퇴부 3분의1 부분 절단 수술이 실시되였다. 다리의 수술이 실시될 직전에 상처는 평상과 다름 없었으며 아직도 화농하지않았으며 부상 당한 다리의 빛과 감각이 정상적이였다.

그의 체온도 높지 않았다. 다리의 하부 3분의1 부분에서 골절을 일으킨데 대하여 무릎으로부터 절단 수술을 실시한 것은 결정적으로 전상 치료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불필요한 고위 절단 수술은 전쟁 포로들의 상처를 치료함에 있어서 미군외과의

들이 흔히 감행한 그릇된 방법이다.

조사되고 분석된 297건의 하지절단 수술에서 다만65건의 절단수술이 원 상처의 위치에서 실시되였다. 절단 수술 건수의 절반 이상이 원 상처보다 퍽 높은 위치에서 실시됨으로써 사용할수있는 많은 관절들과 유용한 각부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왕창해 (구류번호 780298) 는 오른발에 기관총상을 입었다.

그가 포로된 후 2주일동안 상처에대한 하등의 치료도 받지않았으며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다. 상처가 발에 국한되였으며 절단시에 환자는 그의 발뒤축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다닐수있었으며 또한 발목과 다리가 하등의 감염징조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불구하고 첫치료 조치로서 대퇴상부 3분의1부분에서 절단 수술이 실시되였다

여기에 있어더욱 사태가 악화된것은 절단수술이 실시된 이후견인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더욱 재 절단을 필요로 하게됨에 따라 환자의 고통은 더욱 심하게 되였으며 긴뼈가 필요없이 손실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였다.

동 보고는 죄악적인 절단 수술의 범주가 전연 부당한 것이라고서술하고있다. 여기에는 장화생 (구류번호730242) 의 실례가 인용되여 있다. 그의 병력의 개요는 다음과같다.

그는 오른 다리의 3분의1 부분과 오른 종다리에 연 조직 관통상을 입었고 골절은 없었다.

그는 상처를 그자신이 처매고 도보로 3일동안 련속 산을 50킬로메터 걸었다.

그는 그다음 포로되여 전방 병원에 이송되였다. 도중에 그는 부축을 받지않고화물자동차를 오르내렸다.

병원에 도착한 이후 그는 주사를 맞고 환약 한알을 먹었으며 그후 잠이들었다.

잠을 깨였을때 그의 오른 다리는 이미무릎위에서 절단되여 있었다.

동 보고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환자는 어떠한 뼈의 상처나 혈관의손상 또는 신경의 손상 또는 어떠한 엄중한 상처의 감염도 받지 않았다는것이 확실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50킬로메터의 거리를 걷거나 또는 산에 오르지못하였을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단 수술은 전연 부당한 것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종류의 처치를 죄악적인것이라고 인정하는 바이다.

동 보고의 한장은 미군 외과의들이 기타의 전상자들을 치료함에 있어서 범한 엄중한착오와 태공을 취급하고 있다.

이 보고에 렬거된 실례들로 부터 판단한다면 미군 외과의들은 부상당한 눈을 방치하였으며 기능을 상실하고 아울러 자극적 증상을 초래하는 안구를 제때에제거하지 않음으로써 교감성 안염의 발병을 초래하였으며 수술중 중요한 신경을 횡포하게 절단함으로써 마비와 기형적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들은 흉곽성형 수술시에 적응증을 고려치않았기 때문에 호흡 곤난을 초래케 하였으며 또한 그들은 협판 고정을 적용함으로써 아히레스건의 수축기형을 방지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처리를 취하지않았다.

강명권 (구류번호780387) 의 실례는 이를 설명하여준다. 동 보고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1951년 10월 2일 포탄작렬로 된 조그마한 돌조각으로 말미암아 그는 왼눈을 부상당하였다. 그는 자기의 부상한 눈을 혼자 처매였다.

약 두시간후 그는 포로되였으며 밤늦도록 심문을 받았다. 심문을 받는 동안 그는 두번이나 곤봉으로 구타당하였다. 그다음날 그는 미군 사단 본부에 이송되였으며 거기서 그는 또다시 수시간동안 심문을 받았다.

그다음 그는 약 4일후 서울에 이송되였다. 그동안 그는 음식물을 급여 받지 못하였으며 붕대로 처맨 눈을 한번도 진찰받지 못하였다. 그는 서울에반달 이상이나 있었으나 눈을 처맨붕대는 다만 두번 바꾸였을 뿐이다. 서울로부터 그는 부산으로 이송되였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눈을 진찰받았으며 그때는 시력이 이미 감소되였다. 2개월후 염증은 없어졌으며 아울러 한자의 거리를 두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었다.

1952년 6월에 그는 제주도에 이송되였다.

그곳에 있는 동안 전쟁포로들에 대하여 4차에 걸쳐 독까스 공격이 감행되였으며 그후 약 1개월 이내에 그의 시력은 완전히 상실되였다.

이 실례들을 종국적으로 분석함에있어서 조사자들은 미국의료 인원들이 그들의 엄중한 태공과 착오로 말미암아 다만 전쟁 포로들의 고통을 제거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또한 엄중한 기형과 불구 현상을 초래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 보고는 귀환 포로들간의 결핵병을 취급하고 있다.

21세되는 풍년은 그가 전쟁 포로수용소내에 1년 4개월동안있은 이후에 그의 폐결핵 증상이 악화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병력서에는 다음과 같다.

그가 1951년 5월 23일에 포로되기전에는 어떠한 폐결핵 징조도가지고 있지 않았다. 구류된 이후 그는몹시 굶새기기. 곤봉에 의한 구타 및 기타의 폭행을 포함한 학대를 계속 받았다. 1952년 9월에 3회에 걸쳐 련속 독까스 공격을 받은 이후 기침과 담이 나기 시작하였다.

담은 황색이고 불결하고 피가섞여 있었다. 아울러 가슴이 아팠으며 야간에 땀이 나고 체중이 감소되였다.

더우기 그는 병중에 5회에 걸쳐 독까스 공격을 받았으며 그때문에 증상은 더욱더 악화되였다. 1952년 12월에 렌트겐 검사를 받았으며 폐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다음 그는 부산에 『입원』 하였다.

송환된 이후 그는 의연 가슴이 아팠으며 기침이 나고 피가 섞인 누런담이 나고 체온이 38도로 올랐다.

담에는 결핵명균이 섞여 있었다. 렌트겐으로 흉부를 촬영한 결과는 오른쪽 폐의 상부 및 왼쪽 폐 상부와 중부에 다량의 침윤성 병변과 대소부동의 공동이 있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소장근 (구류 번호 713885) 은 거제도 72호 수용소에서 강제 로동을 당하고 있던 1951년 10월에 가슴을 혹심하게 구타당하였다.

그는 곧 피를 토하고 구토하였으며 부산에서 『입원』 하고 있는 동안에 결핵명이 악화되였다.

왕학신 (구류번호 716989) 은 그가 공산당원이 아닌가라는 심문을받는 과정에서 무참하게 구타당하여 의식을 잃은후 20일간 폐결핵의 증상들이 조장되였다.

이 환자들중의 아무도 체포되기 전에는 아무런 호흡기 질환의 증상이 없었다.

미국 포로 수용소들에서 감행된 만행들에 의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다수의 결핵 환자들이 발생하였는바 이것은 그 전형적인 실례이다.

동 보고는 현저히 악화된 폐결핵에 걸린 30명의 전쟁포로 환자들을 기록한 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이 병중에 만행들을 렬거하고 있다. 이 만행들은 독까스공격. 곤봉에 의한 구타. 발로 차기. 강제 로동. 독방 감금. 음식물 공급 중단등이였다.

이와같은 고문들과 학대들이 292명의 이 비 결핵성 호흡기 환자들을발생시킨 원인이였다.

이 전형적인 실례는 시세홍 (구류번호 780101) 의 경우이다. 즉 동 보고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그는 1950년 12월 8일에 포로되기전에는 아무런 호흡기 병의 증상이 없었다. 1952년 4월 어느날 그는 4명의 미국 병사들에게 혹심하게 구타당하였으며 고문당한후 심한 기침을 하였으며 많은 담을 토하였으며 각혈하고 가슴이 아프고 전신이 쇠약해졌다.

미국 의사는 진찰을 한 다음에 폐결핵이라고 말하였다.

1952년 6월에 그는 결핵 환자들과 함께 수용되기 위하여 제주도 제 8수용소의 ㅃ 수용장에 이송되였으나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였다.

귀국후에도 그는 여전히 기침을 하였으며 가슴이 아프고 담이 많이 나왔다. 담에는 때때로 피가 섞였으며 그 빛갈은 불결하였다. 흉부를 진찰한 결과 아무런 비정상적인 증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담에는 결핵균이 없었다. 흉부를 촬영한 렌트겐 사진은 실질조직의 변화들이나 폐결핵의 증상을 보여주지 않았다.

비 결핵성 만성 호흡기 질환과 동일한 폐질환 증후들이 악화되고 있었다.

이 사건은 호흡기 질환의 증상들이 육체적 고문의 결과 발생되였으며 만성이 되였다는 것을 설명하여 준다.

손국의 (구류번호718251) 는 1951년 9월18일에 고문을 당하였는데 심문 과정에서 고추를 코구멍과 목에 강제로 집어 넣었기 때문에 그는 의식을 잃게되였다. 이튿날 아침 그는 피를 많이 토하였으며 그후곧피가 섞인담이나왔다. 기침이 심해졌으며 량쪽 가슴이 아프고 열이났으며 체중이 줄었으며 기타증상들이 나타났다. 그

는 결핵환자들과 같이 「입원」 하였다. 귀국한 후에도 증상들은 그대로 계속되였다.

그러나 흉부를 촬영한 렌트겐 사진은 실질 조직장애의 증상들을 나타내지않았다. 이것은 호흡기 질환의 증상들이 고문의 결과 발생되였으며 고문이 시작된 이후 2년간이나 지속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동 보고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비결핵성 호흡기 환자들의 90%는 아직도 각이한 강도의 증상들에 고통받고 있으며 피와혈담을 토하고 있으며 흉부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것들은 그들의 호흡기 질환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만성으로 되였으며 일부의경우에 있어서는 기관지염이나 농창과 같은 만성 화농성 질환으로 전환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동 보고는 다음과같이 서술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학대의 희생자들인 이들이 입은 피해는 외과환자들이 받은고통보다도 더 오래 계속되였으며 심하였다.

미군이 전쟁포로들에게 감행한 폭행들의 의학적 증거에 관한 동 보고의 해당 부문에는 이러한 경우의 일련의 실례들이 인용되여있다.

병상포로들에 가해진 만행은 흔히 더 심한 상해를 가져왔다. 류령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여 있다.

그는 1951년 10월 27일 그가 포로되였던날 좌측 상박골에 소총사격을 받아 좌상을 입었다. 그는 철사줄로 잔등에 손목을 결박당하는 외에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였다. 그후 결박 당한채로 약 5킬로메터 거리를 행군하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드디여 그의 동무들이 철사줄을 풀어 주었다. 그의 왼손은 부풀어 올랐으며 얼어버렸다.

병상은 점차로 악화하였으며 그가 부상당한 약 20일후에는 그의 전박은 시꺼멓게되였다. 팔은 절단되였으며 후에 재차 절단되였다.

이와같이 하여 미국인들은 부러진 팔을 움직이지 않게할 대신에 포로의 손목을 그의 잔등에 란폭하게 결박하였다. 이것은 뼈의 말단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혈관에 상해를 가져왔으며 드디여는 전박괴저증을 초래하였다.

만행은 전쟁포로들을 강제 심문하는 과정에서도 가해졌다.

호단화는 관통상으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의 하부 3분의 1과 왼쪽 다리의 두개뼈에 골절을 입었다. 그는 부상당하고 포로된 직후 심문당하였는바 그 과정에도 그는 큰 곤봉으로 약 20회나 구타당하여 이미 부상당한 왼다리에 더욱 더 상해를 입었다. 그는 의식을 잃었으며 랭수를 퍼붓기에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재차 의식을잃을 때까지 반복 구타 당하였다.

2 일후에는 원 상처의 하부인 왼다리에 검은 부문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다리는 절단되였으며 그후 재차 절단되였다.

전쟁포로들을 억류할 목적으로 그들은 포로들의 몸에 반공구호를 강제로 새기였다. 이를 거절하는 포로들은 동료포로들의 면전에서 빈사지경에 이르기까지 구타당하여 의식을 잃은채 몸에 글이 새겨졌다.

귀환포로들의 일부는 마취당하고 수출당한 끝에 몸에 글이 새겨졌다. 그들중에

는 곽륙근 (구류번호733000) 이 들어 있는바 그는 담가로 후송당하는 동안에 오른 팔에 한문으로 8개의 글자가 새겨졌다. 상술한 환자들 중에는또한 1952년10월 1일 제주도에서 중국 인민지원군 포로 인원이 중국 국경절을 경축하여 중국 국기를 게양하였을때 감행된 학살의 희생들이 포함되여있다.

호천은 (구류번호731113) 은 좌측 두골과 로정골에 총탄 상처를입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두골에는 큰 상처가 생겼다. 그는 이로 말미암아 자동실어증으로 오는 엄중한 불구자가되였다. 장국동 (구류번호708313) 은 어깨에 관통상을 받아 왼쪽 상박골과 견갑골에 골절을 당하였다. 현재 그는 왼편 어깨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적십자회 조사자들이 진행한상기환자들에 대한 진단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은 중국 전쟁 포로들에게 실시된 외과 처치의 범죄적 성격과 또한 그들에게 가해진 병을일으키게하는 학대였다.

동 보고에 인용된 외과환자의 또 하나의 일반적 특성은 미국 의료당국자신이 제창하는 군진외과 의학 기본 원칙과도 직접 모순되게 고의적으로 잘못 처치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있다.

동 보고는 미국의 최신 의학문헌들로 부터 많은자료들을 인용하고 있는바 실례로 동 문헌들은 동상치료에 있어서는 처음에 보조하는 원칙을 적용하며 좌상을 입은 부분은즉시로 한자리에 고착시켜야 한다는등등을 제창하고있다.

미군 외과의들이 화선부상을 치료함에있어서 1949년의 제네바 협정을위반하면서 전쟁 포로들을 매우 부당하게 취급하였다는 것이 명백하다.

동 보고의 과학적사실들의 배후에는 미군 관리하에있는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의 생 지옥의 엄연한 현실이있다.

동 적십자회의 림상전문가들이 귀환전쟁포로들의 상태로부터 끌어낸불가피한 결론은 이 수용소들이 인도주의의 매개 원칙들과 전쟁포로 취급에관한 국제법의 명백한 규정들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4) 미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범죄에 대한 국제 조사단의 조사보고

(1) 미제 침략군과 리승만 괴뢰군이 감행한 만행에 대한 국제 녀맹 조사단의 보고서

국제민주 녀성련맹의 초청을 받은 우리는 국제련맹의 성원과 비성원인 여러 녀성조직체들을 대표하여 미군과 리승만 군대가 조선에서 감행한 만행을 조사하기 위한 국제민주 녀성련맹 조사단에 참가하였다. 우리는 구라파 아메리카 아세아 및 아프리카의 17개국을 대표한다.

조사단의 성원

단　장　노라・카드린・로드 (카나다)
부단장　류청양 (중국)
부단장　이다・바크만 (정말)
제1비서　밀취쉬・스바트쇼봐 (체코슬로바끼야)
제2비서　소에니토・트레스・헤일르헤리스 (화란)
단　원　모니카・펠톤 (영국)
〃　마리야・오브산니꼬바 (쏘련)
〃　백　랑 (중국)
〃　리　강 (중국)
〃　질레트・지글레르 (불란서)
〃　엘리자베따・갈로 (이태리)
〃　예바・프리에스테르 (오지리)
〃　힐데・칸 (독일민주주의 공화국)
〃　릴리・베흐체르 (서부독일)
〃　제르맨・한네봐르트 (백이의)
〃　레티께 (월남)
〃　칸델라리아・로드리게즈 (큐-바)
〃　레오노르・아기아르 (아르젠틴)
〃　파트메・벤・슬리만 (츄니스)
〃　아비씨아・포딜 (알제리야)
옵써-버 케이트・플레론・야콥센 (정말)

우리는 나라가 서로 다르고 국적이 서로 다르고 정치적 신조가 다르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며 우리중에는 서로 다른 정당원과 무소속인 사람들도 있으나 우리들

은 한개의 공통된 과업을 가졌으니 그것은 우리를 본 조사단에 파견한 그 녀성들과 평화애호인민들 및 전세계의 모든 보통사람들에게 우리가 본대로 그 사실들을 량심적으로 또 진실하게 전달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하의 모든 사실들과 숫자와 이 문건에서 언급되는 재료들은 본 조사단원들이 친히 기록한 것이다. 이 사실들은 모두 조사단원들이 자신의 눈으로 본 그 증거들과 일치되며 조선에서의 목격자들의 진술들과도 일치된다.

이 보고서 자체는 5월 16일로부터 29일 사이에 조선령토 평양 근방에서 완성되였으며 서명되였다.

1 장

조사단은 중국에 접경한 조선의 도시 신의주를 방문하였다. 이 도시는 거의 완전히 파괴되였다。남아있는 몇개의 가옥들도 모두 몹시 파괴되였다。도시는 여러차례에 걸쳐 폭격을 당하였다。그러나 피해의 대부분은 세차례의 큰 공습에 의한 것이다. 그중 첫번째의 공습은 1950년 11월 8일에 있었고 그 나머지는 11월10일과 11일에 있었다.

조사단이 신의주를 방문한 날도 세차례의 공습경보가 있었다.

신의주시 인민위원회 대표자들의 공식적인 언명에 의하면 1950년 7월 신의주에는 14,000호의 가옥에 거주하며 일하고있는 126,000명의 주민들이 있었다. 조사단은 이 도시에는 군수사업에 기여하는 사업은 없었다는것을 알았다.

이 도시에는 다만 콩으로 만드는 장, 두부의 제조 신발 성냥 소음 그리고 젓갈의 생산등 경공업밖에는 없었다. 1950년 11월 8일 이 도시를 조선에있는 소위 유·엔군에 소속된 100대의 비행기가 폭격하였다.

그때에 총계 3,017호에 달하는 국유 및 시 소유의 가옥들 가운데서 2,100호가 파괴되였다. 11,000호 이상의 주택들 가운데서 6,800호가 파괴되였다. 5,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살해되였는데 그 가운데는 4,000명 이상의 녀자와 어린애들이 포함되였다. 17개의 초등학교들 가운데서 16개가 파괴되였다. 그리고 14개 중등학교들가운데서 12개가 역시 소이탄에 의하여 파괴되였다.

17개의 교회들 가운데서 2개만이 남아있다. 2개의 시립병원은 매개의 지붕위에 국제협정의 규정에의하여 커다란 적십자를 표시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이탄에의하여 파괴되였다.

조사단들은 지붕들이 부서진 위에 이러한 적십자 표식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한 병원에서는 소이탄의 불길에 의하여 26명의 환자들이 타죽었다. 시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커다란 프로테스탠트의 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을때는 250명의 인민들이 살해되였다. 다른 이야기들 가운데서 조사단은 시영 식당이 폭격을 맞았을때 은폐장소를 찾으려던 30명의 어머니와 아동들이 살해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시장에서는 2,500명의 인민들이 살상 당하였다.

11월8일 신의주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의 총수는 3,155명에 달한다. 조사단원들은 폐허속에서 파낸 불발탄들을 검사해보았는데 그 위에는 다음과 같은 기호들이 적혀있었다.

Amm—Lot RN—14—29, Sheli MJ for M 2 a MFL Lot GL 2116—1944 M JBCA 2—ACT4 64.

주민들의 절대다수는 흙으로 짓고 나무를 주어다뻗치여 놓은 토굴들속에 살고 있으며 그 토굴들 가운데의 어떤것들은 파괴된 가옥들에서 주어온 기와로 지붕을 덮은 것들도 있다. 그밖에 다른 사람들은 폭격을 맞았으나 아직 남아있는 지하실 속에서도 살고있으며 또 다른사람들은 파괴된 가옥들의 형태만 남은 속에 위를 가리운 천막과 부수려진 벽돌과 돌 조각들로 쌓올린 오막사리들 속에도 살고있다.

조사단원들은 이러한 오막사리들의 하나를 방문하였다.

그곳에는 권문수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세 어린아이들로 구성되여 있었다.

오막사리는 두간으로 나뉘여 있었는데 한간은 거처하고 자는 방이요 또 한간은 부엌이였다.

거처하는 방은 넓이 3×2메—터요 부엌은 넓이 1.5×3 메—터였다. 이 가족들은 방도있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못한 홑이불도 한채 있고하여 이웃사람들은 그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판명된바에 의하면 세차례의 대공습은 주로 많은 소이탄에 의한 것이였다。처음에 조사단원들은 어찌해서 피해가 그다지도 막심하였는지 알수 없었다。시의 직원들이나 대중들을 만나 우연히 말하면서 질문한 결과 그 리유를 알게되였다。

우리와 회견한 사람들은 누구나 첫번째의 파상적인 소이탄의 투하가 있은다음 불을 끄려고 거리에 나선 사람들은 계속적인 저공 비행기에 의한 기총소사를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대중들 가운데의 한사람인 장윤자 라는 녀성은 자기 아버지와 남편이 소이탄에 의하여 불이 붙는 자기집의 불을 끄려고 물을 길어 오다가 저공비행기에 의한 기총소사를 맞아 살해당하였다는 것을 말하였다.

김인단이라는 또 한녀성은 11월 8일의 공습에 의하여 자기의 세 손자와 자기의 딸을 잃었다고 말하였다. 딸은 불가운데서 제일 어린 자식을 끌어내고 나서 총에 맞아죽었다. 김흔윤은 자기 아내가 소이탄에 의하여 불이붙는 자기집에서 뛰여나오다가 죽었다고 말하였다.

신의주로부터 평양까지 려행하는 도중 조사단원은 자기들이 통과한 도시와 촌락들이 모두 완전히 파괴되였거나 또는 거의 완전히 파괴된것을 보았다. 그 도시들은 남시 정주 안주 숙천 및 순안등이다. 파괴된 촌락들은 너무나 많기때문에 일일이 매거할수가 없다.

1951년 5월 18일

조사단의 전원이 서명함

2 장

조사단 일행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림시수도인 평양시를 방문하였다.

전쟁전 평양시의 인구는 40만명이였다。과거 평양 시내에는 벽돌과 세멘트로된 근대식 큰 건물들이 허다히 있었다。그밖에 현대식 주택들도 있었다。남아있는 흔적에서 이러한 집들에는 현대식 난방장치와 위생설비가 갖추어 있었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시내에는 또한 수많은 공장들이 있었다. 평양시의 주요한 산업은 방직업 고무신 제조업 각종 식료품 가공업 양주업 맥주 연초 및 화학비료 생산업들이다.

평양의 주요한 대 건축물로서는 국립예술극장 국립극장을 비롯한 9개소의 극장과 20개소의 영화관이 있었고 1945년 후에 건설된 종합대학이 1개소 단과대학이 6개소 소학교가 43개소 중학교가 20개소 전문학교가 5개소 기술전문학교가 4개소 있었다. 이밖에 20개소의 야간성인학교와 전쟁직전에 거의 준공되였던 1개소의 공업대학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것들은 전부 파괴되였다. 원래 있던 거리의 대부분이 평지화하였다. 다만 잿데미로된 폐허속에서와 부서진 집들에서 벽돌조각과 기와장들만을 찾아볼수 있었다. 몇개의 근대식 건물들은 아직 테두리가 남아있었으나 지붕은 날아나고 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기타의 건물도 부분적인 벽이 남아있을뿐이다. 이것은 이곳에도 건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건물외에도 많은 교회들과 시내의 모든 병원들이 전부 폭격에 의하여 파괴되였다.

조사단 단원들은 이미 폐허로된 평양에서 제일 큰 인민학교를 시찰하였다. 학교의 담벽에는 백묵으로 『제77야전포 련대용』이라고 써있었다. 친히본 사람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조사단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

미국군대가 평양으로부터 철퇴할때 (특히 지적할것은 평양에서 전투하지않고 철퇴한 점이다) 시내의 80%의 건물들이 이미 미국 군대의 계획적인 방화에 의하여 소각되였다.

현재 파괴 정도는 실지 100%에 달하고있다. 그러나 남은 것이 없이 파괴된 평양에는 아직도 야만적인 폭격이 계속되고 있다. 조사단이 시내를 조사하던 날도 다섯번이나 공습경보가 울렸다.

이날 대표단과 해당 지방의 대표들과 담화하는 곳에서 멀지않은 곳에서 10분 내지 20분의 사이를 두고 3개의 시한탄이 폭발되였다. 이 시한탄은 일주일 전에 투하한 것이라 한다.

사람들은 조자단원들에게 미국군대가 평양을 파괴함에 쓴 방법에 대하여 말하였다. 전쟁이 시작된후 지금까지 시내폭격은 계속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1951년 1월

3일의 폭격은 제일 참혹하였다. 이날 미국의 비—29형 폭격기 80여대는 평양을 폭격하였다. 80여대의 폭격기들은 1월 3일 해질 무렵부터 이튿날 정오까지 15분내지 20분의 간격을 두고 계속적인 폭격을 하였다. 먼저 소이탄을 퍼붓고 다음에는 휘발유통을 다음에는 대형폭탄을 퍼부었다.

또한 소이탄과 시한탄을 동시에 퍼부었다. 소이탄과 휘발유 통으로 인하여 시내는 불바다를 이루었다.

이것은 또한 시민들의 구호사업을 진행 못하게끔 하는 수단이다. 그렇기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산채로 파묻혀 죽었으며 질식하여 죽었다. 수많은 시체들이 아직 그속에 파묻쳐있다.

1951년 1월 3일과 4일 량일에 걸쳐 파괴된 건축물 중에는 많은 병원들이 있다. 이병원들의 옥상에는 적십자의 표식이 뚜렷이 새겨있었다.

이 표식은 고도 6천 내지 8천메—터에서 볼수있는 것이였다. 그러나 병원마다 최소한도 한번씩의 직접 폭격을 받았다.

조사단 단원들은 폐허로된 보건성 건물을 보았다. 그 부근에는 길이 4내지 7메—터의 구멍이 3개 있었다.

직접 목격한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중앙병원은 적기의 30메—터 저공폭격에 의하여 파괴되였다 한다. 시내의 건축들은 전부가 폭격에 의하여 파괴된것은 아니다. 그중 많은 건물들은 미국군대가 철퇴할 때에 폭파 혹은 소각한것이다. 이렇게 파괴된 건물로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 제일 남자중학교, 국립예술극장, 시 인민위원회 대부분의 식료품공장 및 기타 큰 기관 건물들이 있다.

조사단 단원들은 이와같은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할수 있었다. 그것은 미국군대가 평양으로부터 철퇴할때 모든 전화를 소각하였으며 철교와 수도를 폭파시킨 사실이다.

미국군대는 유서깊은 영명사를 파괴하였다. 영명사는 약 2천년전에 수축된것이라 한다.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1950년 12월 미국군대가 철퇴하던 당시에는 파괴되지 않았다 한다.

그러나 1951년 1월 3일 미국비행기는 그곳에 수많은 폭탄과 소이탄과 휘발유통을 투하하여 그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한다.

조사단원들은 평양에있는 국립중앙력사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박물관의 천정은 로켓트폭탄에 의하여 구멍이 뚫어졌으며 고물들도 략탈당하였다. 그 중에는 고구려시대의 금부처와 탄 생불이 포함되여있다. 조선의 저명한 미술사가 리여성 선생은 략탈당한 통계표를 조사단 단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평양을 철퇴할때 고분을 공공연히 발굴하여 많은 고귀한 벽화들을 도적해 갔다고 한다.

시민들은 미국인의 기총 사격으로써 조선의 평화적 인민들을 죽인데 대하여 조사단 일행에게 한두번 말한것이 아니다. 조사단단원들은 미국비행기들이 밭에서 일하는 조선농민들을 사격하는것을 친히 보았다. 그것은 전방에서 수백키로 떨어진

곳이며 도시와도 떨어진 군사적 목표와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평화적 농촌이였다.

조사단 일행은 폐허로된 평양거리를 지날때 무너진집 기와장 사이에서 무수히 흩어져 있는 기총탄환을 보았다. 조사단 일행은 미국인이 새로운 살인을 목적으로하는 무기를 사용하고있는 증거를 얻었다. 이 무기들 가운데서는 습격성폭탄이 있다.

이 폭탄은 지상 혹은 건축물에 떨어지면 폭파되지않고 대량의 밀착성있는 물질을 방사하여 벽돌 나무 혹은 기타 물건에 산포시켜 일광에 의하여 발화케하는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미국인이 휘발유통을 사용하는 정형을 말했다. 조사단단원들은 휘발유통의 잔해를 검사하였다. 그는 길이 약 3메—터 넓이 약1메—터이다. 그의 한쪽은 좁혀들어 50쎈치밖에 안된다.

1950년 조선 농민들이 추수를 할때에 역시 미국군대는 이와 류사한 무기를 사용하였다. 자라난 또는 이미 다 익은 농작물들은 전부 소각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인민들이 입은 손해는 막대하다.

시민들은 현재 미국군대가 쓰고있는 시한탄은 신형 폭탄이라고 조사단 단원들에게 말하였다. 이 시한탄에서는 뢰관을 찾을수 없기때문에 그를 해제할수가 없었다.

우리들은 폭탄의 파편을 주었다. 그 위에는 『고열 0뻬 5143』 이라고 쓴 표식이 있었다. 이것은 바로 모란봉 영명사를 폭격한 폭탄중의 하나이다. 아직 살아있는 평양시민들은 혹은 간단한 토막에서 혹은 파괴된 건물의 지하실에서 혹은 담벽아래 판자를 둘러싸놓고 살고있다.

조사단 단원들은 4조로 나누어 약 네시간에 걸쳐 시내의 각 구역을 시찰하였다.

우리들은 이 시찰에 있어서도 벽과 천정이 남아있는 집을 보지못하였다. 조사단 단원들은 평양에서 몇몇 가정을 방문하였다. 강복산의 가정은 전부 다섯식구였다.

그중에는 세살나는 어린애와 8개월되는 젖먹이가 있다.

그들은 파괴된 평양시 녀성동맹 청사의 방공호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방공호는 넓이 1메—터 길이 2메—터밖에 되지 않는다. 이 방공호속에 들어가자면 먼저 길이 3메—터가량되는 좁은 길을 기여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집이다.

방공호속의 천정은 사람이 서지도못할 정도 로 낮다. 이 방공호는 특수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례는 너무나 많다. 수많은 시민들은 이와 류사한 조건에서 생활하고있다.

강복산의 딸은 조사단단원들에게 미국인들이 평양시 국립예술극장에다 군인유곽을 설치하였다고 말하였다. 미국인들은 녀성들과 처녀들을 거리에서 잡아다가 감금하였다. 그는 이를 무서워서 40일간 자기의 토굴에서 나오지 못하였다한다. 그는 또 말하기를 그의 남편 리산선은 자기의 처자를 숨겼다는 죄로서 미군에게 구타 당하였다 한다.

평양시 시민 66세의 로동자 권송동 역시 미국인이 평양 국립예술극장을 유곽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립증하였다.

평양의 수많은 시민들이 다 같이 미국인이 야수적 만행에 대하여 말하였다.

네 어린이를 가진 금년 37세의 어머니 김정옥의 말에 의하면 지난 1950년 7월3일

그의 집이 폭격당한 후 그는 송산리에 가서 있었는데 거기서 그는 미국인들이 어떻게 잔인하게 37명의 인민을 학살하였는가를 친히 보았다 한다. 그중에는 리 녀맹위원장도 있었다고 한다. 미국인들은 리 녀맹위원장의 옷을 벗 고 거리를 끌고 다니던 나머지 붉게 달은 쇠몽치로 그의 국부를 쑤셔 무참히죽이고 그의 어린아들까지 생매장을 하였다한다.

1951년 5월 21일

국제녀성련맹 조사단 전원이 서명함

3 장

조사단 단원 노라•케•로드 (카나다) 예바•프리에스테르 (오지리) 리강 (중국) 칸텔라리아•로드리게즈 (큐ㅡ바) 마리야•오브산니꼬바 (쏘련) 모니카•펠톤 (영국)들이 황해도 안악시와 신천시를 방문하였다.

조사단 단원들은 황해도에서 강점군에 의하여 폭격으로 희생된자들 외에 12만명이 학살되였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안악시에는 미국 군대와 리승만 군대에 의하여 19,092명이 학살되였다.

안악시에서 조사단 단원들은 미군들이 감옥으로 사용하던 농민은행 이전 창고를 방문하였다.

이 감옥에는 5개의 감방이 있었는데 매개의 감방은 길이 4메ㅡ터이였고 넓이가 3메ㅡ터이였다. 증인들은 말하기를 이 감방들은 『죄인』 들이 앉아 있을수 없으리만큼 꽉 찼다고 한다. 순상리 194 번지에 사는 농민 한낙섬 녀자는 조사단원들에게 말하 를 그의 남편 김봉권과 시동생 김봉근은 1950년 11월 10일에 체포되여 투옥되였다고 하였다 미군 두사람이 리승만 괴뢰군 4명을 동반하여 그들을 체포하였다.

한낙섬은 도주하여 은신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녀자는 말하기를 그녀자의 남편과 시동생과 기타 『죄인』 들은 모두 농민들이거나 로동자들이였으며 그중에는 주권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도 없었고 로동당원들도 없었다고 하였다 감옥에는 어머니와 함께 많은 어린애들도 있었는데 그중에는 두살도 못되는 애기도 있었다.

『죄인』 들은 음식물이 없이 15일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다 그들은 쇠마치로 구타당하였다 증인 녀자는 이야기하기를 리승만 괴뢰군들이 미군의 지휘하에서 『죄인』 들을 어린애들과 녀자들과 함께 산에 데리고 가서 큰 굴속에 몰아넣어 생매장하였다.

서상리 172번지에 사는 김상영이라는 중년이나되는 증인은 말하기를 그의 가족 12명은 늙은 처와 두살이되는 손자와 같이 체포되였다고 하였다. 최초에는 그가 자기 가족에 대한 사실을 구명할수 없었다. 그러나 그후에 그는 자기 가족이 산에 끌려가서 그 곳에서 학살되였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도시가 해방된 후에 그는 그

들의 시체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자기의 아들의 시체와 며누리의 시체를 찾았다. 이들은 포승으로 결박되여 있었다. 시체에는 상처가 없었으며 그들은 생매장되였다. 김상영은 이야기하기를 그의 아들은 국영백화점에서 일하였는데 모범일군이라는『죄』로써 체포되였다고 하였다. 김상영자신은 10월 29일에 석방되였다. 그는 조사단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인 것 만큼 좋은 행동을 할줄로 알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만행을 감행한 후에는 이 도시 사람들은 그들을 신임하지 않았다.

다음에 조사단원들은 두번째 감옥을 방문하였다. 여기도 역시 감방들은 어찌나 좁았던지『죄인』들이 앉아있을 수도 없었고 누어있을 수도 없었다.

조사단원들은 감옥에서『죄인』들을 구타하던 도구들을 발견하였는데 이 도구중의 하나는 미군들이 사용하는 규격있는 마치였다. (이 마치를 조사단원들은 증거물로 가지고있다) 감옥의 감방 곁 복도에는 지금까지도 피의 흔적이 명확히 보이고있다.

산녀한리 187번지에 사는 배운복녀자는 말하기를 그의 남편과 아들은 투옥되여 학살당하였다고 한다. 며누리는 어찌나 혹독하게 구타 당하였던지 그는 지금까지도 병석에 누어있다.

아홉살나는 박창옥이는 이야기 하기를 그의 아버지 45세되는 박병수는 역시 학살되였다고 하였다.『누가 너의 아버지를 죽이였느냐?』하는 물음에 그 애는 대답하기를『미국놈들이다!』라고 하였다. 그애와 그의 어머니도 역시 체포 투옥 되였다. 미군은 그들도 역시 학살한다고 말하였으나 그들은 조선인민군의 힘으로써 해방되였다. 이 아이 어머니는 조사단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녀자를 쇠꼬쟁이를 달쿼서 손톱눈에 박아넣으면서 고문하였다고 하였다. 조사단들은 그 부인의 험하게된 손가락들을 보았다. 이 증인녀자는 말하기를 그를 고문하려고 데리고 갈때에『죄인』들을 정원에 있는 우물에다가 산채로 쓸어넣는것을 그 녀자가 보았다고 하였다.

조사단원들은 우물을 관찰한 결과 깊이가 7—8 메—터였다. 맑은 날에는 우물밑에 있는 시체들이 명확히 보이였다.

물위에 광채나는 단추를 단 검은 옷을 입은 어린애의 시체가 떠있었다. 도시에서 2키로 메—터되는 산에는 미군들이 학살한 도시 주민들이 많이 매장되였다 한다.

조사단원들은 시체를 보기위하여 무덤들을 팠다. 한 무덤에는 어린아이들의 시체가 있었다. 파낸 시체들을 각각 다시 묻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아볼수 없으리만치 험하게 되였었다. 조사단원들은 구뎅이에서 어린애의 신, 녀자의 머리칼, 책 및 소소한 소지품과 학살된자들을 결박하였던 바들을 보았다.

증인 녀자 황승이는 이야기하기를 그 녀자의 어머니는 생매장되였다고 하였다.

최초에는 그 어머니가 무덤에서 도주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그를 다시 체포하여 생매장하였다.

이 산속에는 20개의 큰 무덤들이 있는데 그 매개의 무덤에는 450명 가량이 묻혀

있다. 조사단원들에게 말하기를 이 도시 주위에 있는 11개의 산은 미국놈들이 인민들을 학살하는데 리용하였다고 하였다.

조사단원들은 도시 주변에있는 많은 녀성들과 담화를 하였다. 11세되는 김성애라는 녀애가 안악에서 32키로메—터되는 온군리에서 왔다. 이 소녀는 말하기를 미군들이 그의 농촌에 왔을때 인민학교 4학년에서 공부하였었는데 그의 부모와함께 투옥되였다고 하였다. 12일 후에는 그 소녀의 아버지를 십자가에 결박하여 강물에 던지였다. 이 소녀의 어머니는 로동당원이였다. 이 소녀는 조사단원들에게 말하기를 어머니를 로동당원이라고해서 목을 자르고 젖가슴을 도려내였다고 하였다. 이 녀애의 4세나는 녀동생을 생매장하였다. 이 소녀는 지금 유가족 학원에서 교양을 받고있다. 그 소녀는 선생에게서 조사단원이 그의 변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소녀에게 증거설만한 가능성을 허여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왔다. 역시 11세되는 신순자라는 소녀는 김성애의 동창생인데 이야기하기를 미군들이 그 촌에 가까이 올때에 어머니와 언니와 함께 소개하려고 집을 떠났으나 도중에서 체포되였다고 하며 미군의 물음에 대답을 거절하니 그들을 구타하고 다음에는 어머니와 언니를 총살하였다. 이 소녀는 도주하였으나 미군들이 그를 체포하여 구타 투옥하였다. 조사단원들은 그 소녀의 머리에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의 허물을 보았다.

보호리에 있는 16세되는 옥분전이라는 소녀는 말하기를 아버지와 어머니가 체포되였으나 얼마후에 석방되였다가 다시 체포되여 그들의 목을 잘라 강물에 던져버렸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는 전 리에서 증명하고 있다. 그다음에는옥분전 소녀 자신도 체포되여 투옥되였다. 이 감옥에서는 서있을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어린애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었는데 애기들이 울기시작하면 우는 애들을 창으로 찔러죽였다고 하였다.

안악에서 8키로메—터되는 우석리에 있는 심동빈이라는 녀자는 이야기하기를 자기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를 미국놈들이 학살할때 세사람을 총살한 후에 창으로 또다시 찔렀으며 시아버지는 생매장하여 버렸다. 안악 영념리에 사는 49세되는 옥녀봉이라는 녀자는 말하기를 29세되는 자기 아들을 미국놈들이 체포하여 쇠마치로 구타한 다음 땅속에 생매장해 버렸다고 하였다. 이 녀자의 며누리를 자루에 넣어 때려죽였다.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을 찾아내여 구원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병석에 누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안악에서 20키로메—터되는 제주리에서 온 천화국이라는 젊은 녀자는 이야기하기를 그 녀자가 체포되여 19명의 농부들과 함께 총살장으로 끌려나갔다. 그 녀자는 어깨에 상처를 받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강물에 던지였었는데 40세되는 리해정이라는 녀자와 함께 생명을 구하였다고 하였다.

그들은 결박된 팔을 호상간 풀어가지고 헤염쳐 나와 생명을 구하였다. 리해정은 상처로 말미암아 사망되고 천화국은 토굴까지 와서 조선인민군이 올때까지 3개월반 동안을 살았다. 천화국은 조사단원들에게 왼쪽 어깨에 탄환에 부상당한 3개의

상처의 흔적은 보이였다. 그 녀자는 말하기를 자기의 촌에서 백명 이상의 사람들이 미국놈들에게 학살당하였다고 말하였다. 조사단원들이 돌아다니는 동안에 촌들을 지날때마다 주민들은 차를 정지시키고 미군들이 그들에게 가져온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신천으로 오는길에 농민들은 조사단을 멈추었다.

그들은 발에 진흙이 가득 묻은채로 우리를 찾아와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촌 곁에 있는 강에 물이 불을때에는 몇달전에 강에 던지였던 시체들이 지금에 와서 강물위에 떠오르는데 그들은 온 밤을 거쳐 자기동포의 시체를 건지고 있다고 하였다.

조사단원들은 신천을 방문하였다. 이 도시에서 23, 259명이 미국놈들에 의하여 학살되였다.

조사단원들은 강점당시에 미국놈들이 형무소로 사용하던 학교건물을 보았다. 이 건물에서 멀지않은 곳에 두개의 자연적 굴이 있었다. 주민들은 조사단원들에게 말하기를 첫굴에다가 녀자 30명과 어린애들을 몰아넣고 총살하였다. 두번째 굴에다가는 104명을 몰아넣고 휘발유를 뿌리여 불을 질렀다. 모든 사람이 다 타지는 않았으나 화염에 죽지않은 사람은 까스에 질식되여 죽었다. 첫째굴의 벽에는 지금까지 피의 흔적이 남아있고 두번째 굴에는 불탄 자리가 남아있다.

형무소 앞에는 굴들이 있었는데 이 굴들은 주민들을 취조와 고문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이 굴벽에는 역시 피의 흔적이 똑똑히 보이였다. 조사 단원들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완성되지 못하였고 미군들이 도시를 강점하였을 때 형무소의 중심지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방문하였다. 이 건물 뒤에는 자연적 굴과 류사한 것이 있었는데 그곳 주민들이 이것을 방공호로 사용하였다. 주민들은 조사단원들에게 말하기를 미군들이 후퇴할때에 이 굴속에다가 479명을 몰아넣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

다른 굴에서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기총사격으로 총살하였다고 한다. 고한리 248번지에 사는 한양권 증인은 말하기를 그는 정미소에서 일하였는데 미군놈들이 이 도시를 강점할때에 도주하여 빨찌산에 가입하였으며 해방후에 그는 귀환하여 첫굴에서 시체를 파내는데 방조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또 말하기를 시체들은 라체이였는데 불탔었지만은 하나의 시체도 탄환의 흔적은 없었다고 하였다. 조사단원들은 굴속에서 시체의 잔재 벽에는 피의 흔적 화염의 흔적을 보았다.

조사단원들은 굴 근방에서 친척들이 학살된 그 지방의 많은 주민들과 담화하였다.

고한리 247번지에 사는 65세 되는 채춘옥이라는 한 녀자가 큰 찌께와 류사한 도구를 가져왔는데 그 녀자의 말에 의하면 『죄인』들의 다리를 트는 데와 기타 고문에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그 녀자는 말하기를 8 남매의 자식이 큰 구뎅이에서 총살당한 사람들중에 포함되여있다고 말하였다.

그 녀자는 말하기를『미국놈들은 야수이다! 그놈들은 우리도시에 와서 모든 사람을 다 학살하였다』고 하였다.

산진리 197번지에 사는 박려숙이라는 녀자는 말하기를 그 녀자의 남편 아들과 6명의 손자는 첫구뎅이에서 학살되였으며 아들은 농민이였다고 하였다.

그 녀자는 말하기를『우리들은 미국사람들이 신사인줄로 생각하였다. 우리들은 그들이 그렇게 혹독하게도 사람을 학살할줄은 상상하지 못하였다.』

사진리 292번지에 사는 13세나는 변승수는 이야기하기를 13명의 그의 가족중에서 그애와 어머니만이 남아있고 다른 식구들은 미국인들이 때려 죽인다음 굴에서 불질러 버렸다고 하였다.

자기가족을 전부 잃어버린 박수라라는 녀자는 말하기를『미국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그들이 사람을 죽일수 있겠는가?』하면서 그녀자는 미군들이 오기전에는 그녀자 자신이 기독교인으로서 례배당에 늘 다니였으나 지금에는 무엇이든지 더 믿을수 없다고 부언하였다. 위에 묘사한 두개의 장소를 방문할때에 조사단원들은 도처에서 시체들이 썩는 악취를 감각하게 되였다.

조사단원들은 시외에 있는 무덤들을 가 보았다. 이곳에서 벽돌과 세멘트로 159메—터 범위로 지은 기와이엉을 넣은 창고를 우리에게 보이였다. 창고 창문들은 높이 달리였고 견고하게 되여있었다. 조사단원들에게 말한바에 의하면 300명의 녀자와 어린애들을 이 캄캄한 창고에 투옥하여 굶여 죽이였다.다음에 녀자들을 총살하고 어린이들을 굶여 죽이였다.

송화리 117번지에 사는 28세되는 양영덕이라는 녀자는 이야기 하기를 그이에게 어린애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어버렸다고 한다. 그의 남편도 학살되였다.

그 녀자 자신이 두살먹은 어린애와함께 창고에 가치여있었다. 미국놈들이 그 녀자의 어린애를 뻴이 나올때까지 발로 밟아서 죽였다. 그후에 미군 두놈이 그 녀자를 강간하고 구타하여 내던지였기 때문에 그 녀자는 도망하여 살았다고 한다.

39세되는 신애수라는 녀자는 이야기하기를 15명이나되는 그의 전가족이 미국놈들에게 학살되였고 아이 셋은 이 창고에서 얼어죽었다고 하였다.

19세나는 리난야라는 처녀는 이야기하기를 미국놈들이 그의 부모와 형제를 총살하였다고 한다.

21세나는 송숙미라는 녀자는 이야기하기를 10명의 가족에서 그녀자 하나만이 살았으며 그녀자의 남편 어린애 그 녀자의 친척 형제들은 모두다 미국놈들에게 학살되였다. 그 녀자는 해주감옥에 가쳐있었고 그 감옥에서 그 녀자의 의복을 벗기여 라체로 만들었다. 그녀자와 같이있던 어린애는 굶어 죽었다고 하였다.

상동리 2번지에 사는 박미자라는 녀자는 이야기하기를 22명의 가족중에서 그 녀자만이 살아났다고 한다. 그 녀자는 조사단원들에게 묻기를『우리의 고통에 대한 복수를 당신들이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나는 원수를 갚지못하고 살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전쟁을 속히 끝내여야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인민이 다 죽을 것입니다.』라고 부언하였다.

조사단원들은 상술한 창고에서 60메―터 거리에 있는 산봉우리에서 두개의 무덤을 보았다. 이 무덤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파 헤쳐놓았다. 그중 한개의 무덤에는 70명의 어린애들의 시체가 있었고 다른 무덤에는 200명의 녀자의 시체가 있었다.

이 시체들은 불탄 시체들이였다. 조사단원들에게 이야기한 바와같이 두개의 무덤과 가즈런히 어린애들만을 수용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감옥이 있었다. 이 감옥이 지금에와서는 파괴되였다. 창고주변과 그 근방에있는 무덤들에다가 폭탄을 자주 투하하였는데 주민들은 추측하기를 미국놈들이 자기들이 감행한 범죄의 자취를 없애기 위하여 그곳을 폭격하였다고 하였다.

조사단원들은 무덤들을 조사하면서 폭탄떨어진 몇개의 구뎅이들을 지나다니였다. 송동리 8번지에 사는 42세되는 송춘옥은 이야기하기를 그 녀자의 가족전부가 학살되였다고 하였다. 그의 어린애들은 도끼와 칼에 학살되였다고 하였다.

그 녀자는 말하기를 『나는 전선으로 가서 미국놈들로부터 전조선이 해방될 때까지 일하겠다. 미군만이 이와같은 만행을 한것이 아니라 영국군대도 역시 이 만행에 참가하였다.』 고 부언하였다.

얼마후에 조사단원들은 그들과 담화하기 위하여 온 50여명의 녀성들을 만났다. 어떤 녀성들은 신천에서 40키로메―터에 있는 농촌들에서도 왔다. 녀자들마다 그가 어떤 고통을 받아왔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상 관계로 조사단원들은 그중에서 비교적 적은 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들을수 있었다.

금제리에 사는 64세되는 김영희라는 녀자는 이야기하기를 34세나는 그 녀자의 딸 정애는 열성적 농민이라하여 체포되였다고 하였다.

미국장교는 그 녀자를 죽이는데 탄환을 없애기는 아깝다고 하며 그 녀자의 손발을 동여매고 창으로 그녀자와 업고있던 두살난 어린애를 찔러 죽였다. 그녀자가 김일성 장군만세 공화국만세를 외칠때에 그녀자의 혀를 베여던지고 생매장하였다.

김영희는 말하기를 자기딸의 죽음에 대하여 미국장교의 명령에 의하여 이 만행을 자기가 직접 감행하였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리승만 괴뢰군에게서 자세히 들었다고 하였다. 다음 김영희는 부언하기를 자기의 20세 15세나는 두손자와 사위사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학살되였다고 하였다. 그 녀자와 함께 여섯살난 손자만이 남아 있다.

권초리에서 온 41세되는 유도전이라는 녀자는 조사단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 면에서는 3만5천여명의 무고한 아동들이 학살되였으며 자기촌에서 175명이 학살되였는데 그 중에는 그 녀자의 남편과 다섯살되는 애기도 포함한 그 녀자의 가족 18명이 들어있다. 그 녀자 자신도 체포되였으나 그후에 석방되였다.

그 녀자는 자기들 촌에는 미군들과 영국군들이 와있었는데 미국군들과 영국군들은 야수와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미군들과 영군들이 무죄한 사람들을 강에 쓰러넣는것을 그 녀자는 자기의 눈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그 녀자에게 그 사람들의 민족별을 규정할수 있었는가 하고 물은즉 미군과 영군의 표식의 차이를 알았

다고 대답하였다. 『영국에서는 이와같은 불행을 알지못하고 있는가? 어린애들을 학살할수 있겠는가?』고 질문하였다. 이 녀자는 미군들이 후퇴할때에 우리들은 북조선에다가 원자탄을 던지여 모든것을 파괴하겠으니 우리와같이 남으로 가자고 주민들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주민들이 자기촌을 떠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갈때에 공중으로부터 기총소사를 하여 주민들을 총살하였다.

상경리에 사는 임예녀가 말하기를 그 녀자의 딸과 사위는 학살되였다. 그 녀자의 딸은 열성적 교원이였다. 증인은 말하기를 그들은 총살당하지는 않았으나 맞아죽었다고 하였다. 사위리에 사는 22세나는 박은인은 자기의 남편과같이 농민이였던 3형제는 체포되여 모두 학살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직접 자기의 눈으로 18세나는 김윤순이라는 녀자를 강간하고 나서 즉시로 학살하는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 녀자는 말하기를 이와같은 만행을 미군 및 영국군인들이 감행하였는바 또한 미국놈들은 사람들을 빨갛게 달군 쇠꼬챙이로 코구멍을 꿰여가지고 거리로 그들을 끌고 다니였다고 하였다. 그 녀자는 이와같은 만행을 당한 농민 한사람을 보았다. 그의 성명은 리상순이다. 그 녀자는 도주하여 산속에 숨어있었다. 그 녀자는 얼마후에 자기 남편의 시체를 얻어보았다. 그 남편의 두골은 깨여졌고 불에 탔었다.

척서리 3번지에 사는 30세되는 리재혜는 말하기를 자기 남편은 과수원을 경영하였었는데 미국놈들이 들어와서 그를 체포할 때에는 조선 전체 인민들을 죄다 죽인다고 그에게 말하였다. 그는 또 말하기를 자기 리에는 100여호가 있었는데 그중 90세대의 가족이 학살되였다고 하였다. 이 녀자도 자신이 두 어린아이와 함께 체포되였는데 한 감옥에서 다른 감옥으로 옮길때에 그 녀자는 도주하였다고 하였다.

그 녀자는 평양까지 가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또다시 미국놈에게 체포되여 총살 명령이 내리였다. 그러나 총살장으로 가는 도중에서 그는 구사일생으로 도망하였다.

그 녀자는 말하기를 미국놈들이 북조선의 군대를 광야로 내몰고 석유를 뿌려 사람들을 태워죽이는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세삼리에 사는 김숙선은 말하기를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붙잡아다가 학살하였다고 하였다.

그것은 이 녀자가 열성적 녀맹원이였기 때문이였다. 그 녀자의 남편도 역시 학살당하였다고 한다. 그 녀자의 20세되는 딸 김출장은 간호원 강습소에서 공부하였는데 미국놈들이 모두다 귀를 꿰매가지고 등에는 북을 메우고 라체로 만들어 거리로 끌고다니였다. 다음 그녀자를 감옥에 넣고 미국놈들이 강간하려했으나 그 녀자는 끝끝내 반항하여 결국 창에 찔려 학살되였다. 그 녀자의 어머니는 절반으로 절단된 자기 딸의 시체를 찾았다.

김숙세가 말하기를 미군이 시내에 들어왔을때에 그들은 유곽을 설치하고 젊은 처녀나 녀자들을 잡아 이에 감금했다. 증인은 말하기를 고운 처녀들은 미국놈들과

영국장교들에게 제공되였고 곱지않은 녀자들은 리승만 괴뢰군들에게 제공되였다고 하였다.

그 녀자는 이곳에 감금되였던 중에서 세 녀자들만이 산것을 알고 기타 녀자들은 학살되였다 한다. 또 이 부락에서 240명의 주민이 학살되였다.

상천리에서는 14세되는 황익수는 말하기 자기가족 11명중 7명이 미군 영국군 카나다 군들에 의하여 학살되였다. 자기도 아버지가 광부로서 열성로동자가 되였다해서 체포되였다고 한다. 어머니와 두형제를 그애와 함께 투옥하였다.

그 녀자는 미국놈들에게 매맞았다. 그 소녀는 조사단원들에게 발에 있는 매맞은 흔적을 보이였다. 그다음에 그 녀자의 가족을 석유를 뿌린 창고에집어 넣었다. 그들을 빨찌산들이 구원하였다. 그 녀자는 빨찌산중에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도주한 사람들을 만났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그 녀자의 아버지를 다섯곳이나 창으로 찔렀고 그의 머리를 두조각으로 까서 죽였다한다. 그리고 그 녀자의 오빠를 미국놈들이 목을 매여 거리로 끌고다니다가 5명의 그의 가족과 함께 땅에 생매장하였다고 하였다.

황해도 길을 지나는 동안 조사단원들은 곳곳에서 파괴된 도시와 불탄촌락들을 보았다,

1951년 5월 26일

황해도를 방문한 조사단 전원이 서명함

4 장

조사단원 질레트·지굴레트 (불란서) 파트메·벤·슬리만 (츄니스) 아비씨아·포딜 (알제리아) 레·타·궤 (월남) 이다. 바크만 (정말) 케이트·플레론·야곱센 (정말) 들이 평안남도 남포시와 강서군을 방문하였다.

남포에는 6만명의 주민이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인구의 50%가량이 남아있다.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송창렴은 조사단원들에게 이 도시에는 군사산업은 없었고 류리 방직 자기 식료품 산업과 농업, 화학비료공장이 있었다는것을 말하였다.

남포는 황해 연안에 있는 항구이지만은 항구로서는 통상적 견지로나 군사적 견지로나 이 바다의 수심이 얕기때문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지못한다.

도시에는 전쟁전에 2만개의 건물들이 있었는데 거의 전부가 파괴되였다. 기술전문학교와 농업전문학교 건물도 파괴되였다. 이 도시에는 13개소의 병원이 있었는데 매개병원에는 알아볼수있는 적십자표식이 있었다. 그러나 이 병원들은 소이탄으로 어찌나 심하게 파괴되였는지 그 중에서 한개의 병원만이 복구할수 있을 정도이다.

26개의 학교에서 두개만이 남아있고 도시의 많은 교회들 중에는 한개의 작은 교회만이 남아있다.

남포시는 1950년 10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미국강점자들의 계속되는 폭행에

의하여 식료품 전부를 소각 당하였다.

미국인들은 주민들에게 온갖 모욕들을 다하였다. 1,511명이 폭행을 받았다.

그중 반수 이상은 부녀자와 아이들이였다.

남포를 계속적으로 폭격하였는데 1951년 5월 6일에 제일 큰 폭격이 있었다.

조사단원들은 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보았다. 곳곳마다 폭탄떨어진 자리와 무데기들이 보이였다. 조사단원들이 머문 곳마다 주민들은 우리들을 둘러싸고 자기들의 고통에 대하여 자기들의 재산만이 잃어진것이 아니라 친척까지도 잃어진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또한 미국인들에게서 고문받은 상처를 보이였다.

도시의 4분지 3 이상은 무덤으로 전환되였다. 매개 가정에서는 3—4명 이상 혹은 10명까지 학살당하였다. 양동이라는 산에 있는 도시의 일부에는 벽이라곤 하나도 없고 나무들은 꺼멓게 타버렸다. 이 도시한구역에 있는 병원에 소이탄이 투하되였을 때에 16명의 환자가 피살되였다. 이도시의 주민 리태화는 큰 구덩이 곁에 서서 말하기를 『여기에는 나의 집이 있었다. 나는 6명의 나의 가족들 처 두아이 세사람의 친척을 잃어버리였다. 그들은 모두다 지난 5월에 있은 적기의 폭격당시에 희생되였다. 우리 조선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조국을 방어할것이며 국제녀성련맹은 조선의 사업을 적극 옹호하여줄 것이라고 우리는 희망하는 바이다.』라고 그는 우리에게 말하였고 자기의 가족 10명을 잃어버린 이 도시의 다른 주민 김수유는 말하기를 『전 조선사람은 한사람과 같다. 나는 나의 감정을 표현할수 없다. 그러나 세계는 나를 알아줄 것을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남포에 있는 큰 시장은 1951년 4월 21일에 폭격당하였는데 48명의 무고한 인민이 죽고 많은 식료품들이 있는 농업 화학비료공장은 북조선에있는 큰 공장중의 하나이다.

1950년 8월 31일에 이 공장을 미국인들은 6시간동안 폭격하였다. (오후 9시부터 오전3시까지) 800명의 공장로동자들 중에서 300명이 학살되였다.

공장 건물들은 매우 파괴되여 많은 제호들은 복구할 가능성이 없다.

조사단원들은 도시의 많은 주민들과 담화하였다. 13세나는 소녀 김순옥과 11세나는 소년 두 아이들은 (둘이다 보육원에 있음) 이야기하기를 미국인들이 남포를 강점하였을 때에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붙잡아다가 강제로 거짓고백을 시키려고 하였다.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음식물을 주지않고 그들을 고문하였다.

후퇴 직전에 미국인들은 아이들을 다 학살하며 북조선에다가 원자탄을 던진다고 위협하였다 44세되는 권태손은 어떠한 당에든지 가입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10명의 로동자가 일하는 정미소가 있었다. 미국인들은 축적되여 있던 곡물을 압수하고 후퇴시에는 그 정미소를 파괴 소각하였다. 미국인들의 선전에 기만된 권태손은 미군을 따라가기 위하여 미군과 함께 38선 접경 해주시로 떠났다.

이곳에 많은 피난민들이 집합하였을때 미국인들은 기총소사를 개시하고 조선사람들을 많이 학살하였다.

46세되는 허양국이라는 기독교 목사는 조사단원들에게 말하기를 남포에는 4,500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미국인들의 선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방황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 12월 5일에 그들은 기선에다 짐을실고 남포항에서 출항하기 위하여 모두 집합하였다. 미국인들은 바다로부터 그들을 향하여 발포하고 상공에서는 기관총으로 쏘기시작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있는것을 알지못한데서 오는 착오라고 인정하고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그들에게 사격을 계속하여 275명을 학살하였다.

48세되는 농민 김곤태는 농민동맹원이였는데 이 동맹에 가입하였다는 리유로 미국인들은 그를 체포하였다. 미국인들은 그를 심하게 구타하였으며 그의 전 발가락을 불구로 만들었다.

지금 그는 자유롭게 움직일수 없게 되였다. 그들은 그의 처의 면상을 험하게 만들고 쇠표쟁이로 코를 찔려놓았다.

강서에서는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되였다. 1950년 10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미군강점시에 신정면에서는 1,561명을 미군인들은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남자 932명 녀자 452명 8세까지의 아동 354명) 또 57명을 교수형에 처하였다. (남자 42명 녀자 15명) 52명을 산장하였다. (남자 30명 녀자 20명) 35명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남자 32명 녀자3명) 이 자료들은 인민위원회 위원장 리하숙 이가 40명 가량되는 살아 남아있는 주민증거인들이 모인곳에서 조사단원들에게 말하였다. 조사단을 환영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 장군 허정숙 문화선전상 조선민주녀성동맹 박정애위원장 —김일성 수상은 다음과같이 언명하시였다— 『만일 당신들이 조선의 실제 형편을 전세계에 이야기하고 또한 조선인민의 사업이 얼마나 정당하다는것을 전세계에 이야기하여 주신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릴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지지가 우리들로 하여금 강점자들을 우리강토에서 몰아내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조선은 자유독립 국가이며 절대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지않을 것입니다!』

조사단원들이 많은 증거인들에게서 들은 말에 의하면 미군들은 아래와 같은 사실로써 사람들을 체포하였다는 것을 규정할수있다.

그들이 빨찌산이였기 때문에, 그들의 친척이 인민군대에 입대하였기 때문에, 그들이농민동맹이나 다른 민주주의단체 례를 들면 소비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혹은 그들의 친척이 이 단체에 가입하였다는 리유로써 체포되였다.

례를 들어 말하면 이전에 소비조합 상점에서 일하였던 주민 한 사람은 조사단원들에게 미군인들이 쇠표쟁이를 달구어서 찔러서 생긴 두다리의 수다한 허물들을 보이였다. 감금한 1,561명 중에서 폭행과 고문으로도 아직 죽지아니한 사람들을 미군인들은 산속에 가져다가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죽이고 다른 사람들은 산장하였다.

미군들이 후퇴한 후에 만든 이 분묘들의 소재지를 그 지방에 사는 농민들이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이 묘들을 미국놈들의 지시에 의하여 판 사람들이였었다. 아래와 같은 지방에서 생매장된 사람들의 묘들이 발견되였다.

대창산 무연리 화산봉 창대관 초성면 익기변 동군면등 인민 위원회 위원장과 죽

은 사람들의 무수한 어머니와 아버지 아이들과 동반하여 조사단원들은 대창산 위에 있는 가련하게 죽은 사람들의 묘들을 방문하였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죽은 사람들의 일부분을 그들이 파내여 각각 장례를 하였다고 한다.

시체를 관찰한 결과에 이 사람들의 손들은 포승으로 결박되였고 어떤 사람들의 두골은 깨여졌다. 조사단원들은 분묘 곁에서 미국탄환들을 보았다. 조사단원들은 미국인들의 손에 학살된 희생자들의 피묻은 흰옷 머리칼과 바오래기 신 및 기타 의복조각들을 보았다. 조사단원들은 머리칼과 의복의 특수성에 의하여 이 희생자들은 조선 농민이라는 것을 쉽게 규정할수 있었다. 조사단원들이 답사한 한개의 산 에만 하여도 8개의 동일한 묘들이 있었다.

그중의 묘 하나는 길이가 80메ー터였고 다른 하나는 70메ー터였다. 묘들속에는 시체가 2렬로 눕히여 놓여있었다.

조그마한 묘중의 하나를 조사단원들에게 보이여 주었는데 그 무덤에는 20명의 아동들이 파묻혀있었다. 이 어린 아이들의 시체들은 어머니와 같이 묻혀있는 무덤에서 찾아낸 것이였다. 조사단원들과 같이 산에 간 44세되는 당북동이라는 녀자는 이야기 하기를 그는 다리 사이에 머리를 넣고 뒷짐을 결박하고 앉아있는 자기 아우의 시체를 무덤에서 찾아냈다고 한다.

그 녀자는 무덤을 파본즉 그 속에있는 눈을 뜨고죽은 시체와 아이를 업은채 죽은 어머니들의 시체를 보았다고 부언하였다.

58세되는 김기순은 이 모든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증거인의 한사람으로서 조사단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의 아들은 며누리와 작은 손자와 함께 산장되였다고 하였다.

자기는 피신하였다가 그 후에 그는 무덤이 있는 장소를 알아가지고 자기자신이 시체를 파내였다고 하였다.

모든 희생자들의 팔들은 결박되여 있었다. 조사단원들은 주민들에게 누가 이와 같은 만행과 학살을 감행하였는가? 미군인들뿐이던가? 혹은 리승만 괴뢰군도 있었는가? 고 물었다. 대답은 이러하다.

이 면에는 미군들만이 기여들어왔고 그들만이 이 만행을 감행하였다.

조사단원들이 도시들을 방문하는 그날에도 공습이 심하였다. 미군들의 비행기는 조선어부들에게 바다로 나갈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음으로써 조선인민들을 아사케하려고 하고 있다.

강점당시에 미국인들은 15,860가마니의 곡물을 불질러 놓았고 후퇴 당시에는 23,453가마니의 곡물을 략탈하여 갔을뿐만 아니라 황소, 돼지, 닭, 오리, 말, 등까지도 무수하게 략탈하여갔다.

1950년 가을에 곡식이 결실되였을 때에 미군인들은 소이탄으로 4,300정보의 벼와 2,100정보의 기타 곡류들을 소각하였다.

1951년 5월 25일

조사단원 전원이 서명하였음

5 장

류청양 (중국) 제르맨•한네바르트 (백이의) 엘리자베타•갈로 (이태리) 밀귀쉬 •스바트쇼봐 (체코슬로바키아) 로 구성된 대표들의 그루빠는 평양에서부터 150키로 메—터. 원산에서부터 48키로메—터 지점에 있는 북강원도 문천군 마전리 및 북강원도의 원산항을 방문하였다.

조사단은 도중에서 거의 전부 파괴된 평양 강동등의 도시를 통과하였다.

온천으로 유명한 양덕은 폐허로 되였고 그곳에는 파괴된 몇개의 건물들이 서있었는데 그중에는 도로의 좌측에 파괴된 중학교의 건물이 서있었다. 밤중에 조사단원들은 전야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보았다. 낮엔 그들은 미국비행기의 사격때문에 일할수 없었다. 조사단원들은 밭에서 파종을 다한것을 보았다.

문천리 농민들은 조사단원들에게 그들이 밤에도 일을 해가면서 자기들의 춘기파종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마을 주위에서 대표들은 산과 수풀과 들과 촌락들에 투하된 미국제 소이탄들에 의하여 불타고 난 수풀들의 커다란 공지들을 보았다.문천리 주민들은 조사단원들에게 5월 23일밤 미국비행기들이 수개의 폭탄을투하한 결과 집들이 모두 파괴되였던 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선일 농민은 조사단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천리는 1950년 10월 14일부터 1950년 12월 5일까지 미국인들에 의하여 강점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군과 5일간 전투를 한끝에 마을에 침입하였으나 곧 인민 군대에 의하여 포위되였다.자기들의 진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그들은 촌락의 주위에 있는 산림들을 불사르고 아직 은신못한 주민들을 전부 감옥에 감금하였다.

그들은 이 마을을 림시적 감옥으로 만들었다. 미군들은 500명의 인민들을 체포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54명은 살해 당하고 76명은 원산으로 끌려갔다. 그후 그들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하고 있고 감금되였던 녀성들을 미군들이 구타하였다. 20명의 녀자는 강간을 당하였다.

김선일은 미군과 함께 번역원으로 일하는 몇개의 남조선 사람들은 있었으나 리승만 괴뢰군은 없었다고 확인하였다. 문천리에서 14키로 떨어져 있는 금리에서는 미군인들이 촌락 주민들이 은폐하고있는 방공호 속에다 수류탄을 던졌다. 그리하여 9명의 로인과 녀성과 아이들이 살해되였다. 미군인들이 퇴각한 뒤에 촌락의 주민들은 미군인들에 의하여 살해된 수많은 인민들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그러고 희생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입에다 폭발되는 탄환을 넣어 죽이고 도끼로 머리를 까서 죽이고 산채로 파묻어 죽였던 것이다. 시체를 발굴할 때에 다음과 같은 증인들이 현장에 있었다. 김선일 그의 친구 서웅전 인민위원회 위원장 정성걸 양재한 등이다. 미군인들은 자기들이 패주한 다음에 소이탄을 던져서 촌락을 파괴 소각하였다. 그들의 대폭격은 1950년 12

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계속되였다.

이 폭격 당시에 전기선이라는 농민의 전 가족이 몰살 당하였다. 그 가족은 7명의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10명의 식구로 되여있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기총소사에 의하여 10명의 인민들이 피살되였는데 그중에는 4명의 아동들도 있었다. 폭격과 동시에 기총소사에 의하여서는 30명의 인민들이 살해당하였다. 43세되는 김부전이라는 녀성은 어린것들이 넷인데 미군인들이 공산주의 자라는 구실밑에 주민들을 박해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고리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부전의 남편은 체포되여 원산에서 잔등과 머리를 나무몽둥이와 총탁으로 얻어맞고 빈사의 상태에 있다가 그부상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절명 하였다. 그 촌락의 인민위원장은 산채로 매장 당하였다. 그리고 그의 늙은 아버지는 총살당하였다, 김부전은 미군인들이 녀맹위원장 천만수를『빨갱이』라고 불들어다가 이를 동안이나 릉욕하였다고 말하였다.

차옥순이라는 27세된 녀성의 남편은 고리우편국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 녀자는 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분배받은 토지를 자기손으로 경작하고 있었는데 미군인들은 그 녀자를 남편과 어린애들과 함께 (그중의 하나는 겨우 한살되는 유아이다)『빨갱이』가족이라하여 감옥속에 집어넣고 호상간 격리하여 두고 구타하였다.

그뒤로 차옥순은 자기남편을 다시 보지 못하였으며 그에게는 며칠동안에 두덩어리의 주먹밥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지않았다.

그리고 미군인들은 그를 원산으로 끌고갔다, 그 녀자는 어린것을 기를 수가 없었고 어린것은 배가고파 기를쓰고 울었다, 원산 감옥에서 그 녀자는 미군인들이 밤마다아이들이 없는 녀자들을 어떻게 강간하였다는 확언할수있는 증거인으로 되였다.

20일동안 감옥에 가쳤다가 그 녀자는 조선인민군대에 의하여 해방되였다.

고리 농민녀자로서 두살먹은 어린애의 어머니인 28세된 강요인은 조사단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미군인이 왔을때 자기는 산으로 도망쳤다가 며칠 후에 추수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바로 그날에 그 녀자는 어린애와 함께 체포되였다,

미군들은 배고파 우는 어린애의 울음을 달래지 못한다고 채찍으로 그녀자를 구타한 후 4일간 그 녀자를 딴방에 감금하여 두었다가 원산으로 실어갔다. 그 녀자는그곳에서 조선인민군에 의하여 해방되였다•원산에서(동해 안에 있는 항구이며 강원도인민위원회 소재지) 로동당 강원도당 위원장 최광렬은 조 사단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공식적 보도를 하였다.

전쟁전 원산에는 123,127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57,667명 밖에 남지않았다. 주택 가옥과 사회단체 건물의 대부분은 파괴되였다. 현재는 심하게 또는 경하게 피해받은 건물을 포함하여 9,257동의 건물이 남아있을 따름이다, 원산을 미군들은 1950년 10월 14일부터 동년 12월 9일까지 강점하고 있었다,

1950년 12월 9일부터 1951년 3월 31일까지에 폭격기 비—29와 917대의 전투기가 275회에 걸쳐 시가지를 폭격하였는데 838개의 폭탄을 투하하고 3,519회에 걸쳐 주

인들을 기총소사하였으며 그 동안 487회에 걸쳐 함포사격을 하였다. 희생자는 부상자가 518명 학살된자가 498명 인데 그중에 남자 255명과 243명의 녀자가 있었다.(거기에는 241명의 어린아이도 포함되였다)조사단원들이 원산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미군은 도시와 시외를 계속 함포로 사격하였다.

23일 밤중의 함포사격은 매우 심하였다. 이날 함포사격에 대한 공식자료에 의하면 6,752발의 폭탄을 발사한 결과에 65개의 사회단체 건물들과 47개의 주택이 파괴소각되였으며 11명이 학살되고 4명이 중상되고 3명이 경상되고 소 세마리가 죽었다.

우리들은 함포사격에 파괴된 구역을 시찰하였다. 이 구역은 전부 파괴된 석유정제공장 근처에 있었다. 조사단원들은 많은 포탄 파편들을 보았다. 이 구역의 매개의 집은 잿데미로 되였으며 여러곳에서는 아직 연기가 났다 조사단원들이 도착하기 얼마전에 주민들은 4명의 어린아이를 가진 어머니의 시체를 장례하였다.

조사단원들은 불에 탄 중년녀자의 시체를 파묻은 것을 보았다.

조사단 단원들이 이 구역을 시찰하는 동안에 시내에서는 3차의 경보가 났다

조사단원들은 주민들의 유일한 은신장소인 산에다 판 방공호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니되였다. 조사단원들은 도시의 한 구역인 충청리를 방문하였다.산 옆구리마다 홈을 뚫은 굴들은 주택을 대신하였다 출입구는 위장하였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비행기가 그들을 보고 기총소사할것을 념려하였기 때문이였다. 조선 민주 녀성동맹 강원도 위원장 권진유는 아래와같이 공식적 보도를 하였다.

강원도의 폭격은 1950년 7월부터 개시되였다. 주택외에 파괴된 건물들과 살해된 인민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1950년 7월 13일 로동자 료양소 (그곳에서 168명이 학살되였다.)13개의 인민학교 중앙병원 적십자병원 (그곳에서 간호원이 학살되였다.)제일병원 (그곳에서 병자2명과 간호원2명이 학살되였다.)

(2) 1950년 8월 13일에 교원대학 철도철공소 (이때에 8대의 폭격기 비—29가 와서 폭격한 결과 100명 이상의 로동자들이 학살되였다.)

(3) 1950년 9월 13일에 3개의 녀자 고급중학교와 도립극장

(4) 1950년 8월 15일에 석유 정제공장 (15일후에는 수차에 걸친 폭격을 받았다) 과 조선 소

5、 1951년 1월 25일에 시립도서관

현재 원산에는 한개의 학교건물도 없다 분교실을 리용하여 아동을 교양하고있다. 교원들은 매개의 분교를 구역마다 다니면서 교수한다.

38선 접경 구역들에서는 쓸만한 집이 전혀 없다. 전 강원도를 통하여 1950년 7월 25일부터 1951년 3월 31일까지에 2,293명의 녀자와 2,292명의 아이들이 학살되였다.

676명의 아동들은 고아로 되었다. 1950년 10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의 미군강점시기에 강원도에서 감행한 만행에 대하여 권진유는 조사단원들에게 아래와같

이 이야기하였다.

철원시에서 1,500명의 평화적 주민들을 방공호에 집결하여 놓고 산장하였다. 철원군 갈마면 갈마리에서는 미군들이 엄송호 농민과 그의 가족 전부와 60명의 어린아이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였다

철원군 철원면 사기리에서는 평화적 주민의 대부분을 산장하였는데 그후 무덤을 파보았을때 그중에는 아직 살아있는 세살나는 어린아이도 있었던것이다. 평강면 옥천리에서는 려천초라는 임신 8삭되는 23세의 부인을 미군들은 벌거벗기고 모든 주민들에게 끌고 다니면서 보이고 팔을 나무에 얽어 매여놓고 그 녀자의 배를 구타하여 어린애를 류산하게 하였다.

안변군 안도면 미면리에서는 려양손 농민의 가족안 3명의 녀자를 미군인들은 정원에 있는 방공호에 끌고가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녀자들이 반항하였으므로 미군인들은 그 녀자들의 젖가슴을 도려내고 쇠를 달구어놓은 위에 몰아넣어 죽였다. 원산시 용성리에 사는 42세나는 최옥히를 14명의 미군들이 륜간하였다. 지금 그 녀자는 현재 철원군 이롱면 로곡리에 살고 있으나 매우 앓고있다.

32세나는 김효순은 1950년 11월 3일에 자기 어린애와 같이 체포되였다.

그 녀자를 벗겨놓고 배를 찌른 다음에 총살하였다. 어린애는 어머니의 곁에서 굶겨 죽이였다. 전 북강원도에서 조사된 130,000명 녀자중에서 2,9.3명의 녀자들이 미군과 리승만 괴뢰군에 의하여 강간되였다.

조사단원들은 증인들의 아래와같은 증거를 역시 기록하였다.

49세나는 녀자 천경화 기독교 목사는 조사단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25세 나는 자기 며누리 윤순자를 유곽에 있는 2명의 녀자와함께 체포하여 달리는 차밑에 밀어넣었으나 그 녀자들은 천신만고로 차밑에서 빠져나와 논밭에 은신하였다. 그러나 체포되여 강간당한 다음 총살당하였다.

천경화의 오빠 천춘권과 시누이 박경열은 1950년 12월 29일 에 거리에서 기총소사에 의하여 학살되였다. 현재 천경화는 6명의 고아를 양육하고있다.

원산시 경상리에 거주하는 46세되는 농민 녀자 신영옥은 이야기하기를 25세 되는 자기 며누리는 9삭되는 임신중에 있었는데 1950년 11월 8일에 『빨갱이』라고 하여 체포하여다가 구타하고 5일후 그 녀자를 광장으로 끌어내다가 임신한 어머니의 국부에 막대기를 넣어서 모자를 다 죽게 하였다.

이와같은 학살에 강제로 참여한 증인들은 임백반 김옥녀이다.

학살된 녀자의 남편 박찬유는 죽게 구타당하여 지금까지도 병석에 누워있었다.

55세되는 원산시민 김송류는 조사단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1950년 10월 20일에 5명의 미군들이 홀아비 기독교인 신봉기의 집에 들어와서 그의 맏딸 21세되는 신화순을 두 어린 동생이 있는데서 강간하였다.

집안에 있던 소녀들이 뛰여나가면서 언니를 놈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소리쳤다고해서 총살하였다.

38세되는 리금순이라는 녀맹원은 원산시 부근 서동리에 거주하는데 1950년 10월

25일에 젖먹는 어린애와 함께 체포하여 원산부근에 있는 뚤짜기로 끌고갔다. 미군은 밤마다 심문할때에 그 녀자의 등과 배를 때렸다. 12월 10일에 그 녀자를 석방하였다. 석방되여 5일후에 어린애는 죽었다. 12월 20일에 그 녀자의 남편은 체포되였다. 7일간 그를 고문한 다음 다른사람들과 함께 화물차에 실어서 안변군 석원면 춘천리로 가져갔다. 해방후에 리금순은 자기 남편의 시체를 38명의 시체속에서 찾아내였다. 이 희생자들의 팔다리는 결박되였고 신체에는 탄환이 관통한 흔적들이 있었다.

1951년 5월 26일

조사단원 전원이 수표함

6 장

힐데•칸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릴리•베호체료 (서부독일) 맥랑 (중국) 소에니토•트레스•헤일리헤로스 (화란) 로 구성된 조사단의 한 그루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북쪽 한부분을 방문하였다.

로정은 평양에서 개천 희천 강계를 거쳐 만포까지 갔다가 평양으로 돌아오는 것이였다.

평양에서 개천까지 가는 도중에 조사단원들은 완전히 파괴되여 페허로된 비개의 작은 도시들을 보았다.

수많은 불탄 촌락들과 농민의 주택들도 지났다 조사단원들은 도중에서 파괴되지 않은 도시를 하나도 보지못했다. 그리고 피해를 입지않은 촌락은 거의 없었다.

조사단원들은 6개소에서 산불을 보았다. 그 중에 2개소는 그들의 눈앞에서 불붙기 시작했었다. 1개소는 평양과 개천 사이였고 다른 1개소는 희천과 개천 사이였다. 두곳에서 다 항공기소리가 들렸으며 조사단원들은 땅위에서 불길이 올라가자 곧 불이 번쩍하고 별안간에 불길이 퍼지는것을 보았다. 또 다른 한개의 산화는 강계와 희천 사이에서 있었다.

부락사람들은 몇시간 전에 지나간 비행기들이 불을 질른것이라고 말했다. 도중에 조사단원들은 산화에 의하여 시꺼멓게 타버린 산등성이들을 보았다.

조사단원들은 개천을 방문할것을 예정하지 않았었다. 개천군은 개천거리와 5개의 촌락을 포함하고있다. 개천군은 평안남도의 북부에 있다. 이 지방의 인민위원장 김병호는 단원들에게 다음과같은 정보를 제공했다. 즉 1950년 10월 21일에 개천은 미군 제26사와 27사에 의해서 강점되였는데 미군은 다른 원조 국가들로 부터온 군대들에 의해서 강화되였었다.

김병호씨는 특히 영국 호주 카나다 로이기 군대와 몇백명의 리승만군대에 대해서 말했고 그 수는 8만 내지 9만이라 했다.

강점은 40일간 계속되였다.

개천지방에서 피해가 없는곳은 하나도 없다. 개천군에는 1만 3천호의 집이 있었

는데 6천 5백호 이상이 파괴되였다.

그 대부분은 폭격으로 파괴되였고 그 나머지는 패주하는 미군이 불을 질러서 파괴하였다.

수천의 가옥이 손해를 입었다. 이 사실들은 최근 통계에 합치되는 것이다.1950년 6월 이전에는 7천 6백마리의 소가 있었는데 패주하는 적은 2천 2백마리만 남겨놓았다.

7천 8백마리의 돼지중에서 3백마리만 남았고 10만 마리 이상의 닭과 병아리 중에서 1천마리만 남았다.

김병호씨는 말하기를 그렇게 많은 소가 략탈되였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인민군대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녀성들은 평년보다 3주간이나 일찌기 파종을 완료했다고 했다.

개천은 파괴되기 전에 1개의 고급중학교 6개의 초급중학교 31개의 인민학교 1개의 도서관 1개의 극장과 13개의 병원과 의료기관이 있었는데 이 모든 기관들이 다 파괴되였다.

지금 폭격이 계속되는 고로 새로 건설할 수 없다.

개천군은 8만 이상의 주민을 가졌었고 그중의 80%는 농민이였다. 그러나 지금 인구는 약 6만이고 농촌에 흩어져있다.

미국놈들은 1,342명을 총살 또는 태워 죽이고 때려죽였다.

알려진바에 의하면 860명 이상의 녀성이 겁탈당했으나 많은 녀성들은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않는다. 이 범죄가 미국군대에 의해서 감행되였는지를 김병호씨가 확실히 아는가하고 조사단원들이 질문했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다른 군인들이 아니고 미국군인들인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말했다.강점 기간중에 그 자신이 빨찌산 지도자였고 그 동지들중에는 저명한 조직자의 한사람인 김계선(31세)이가 있었는데 그의 가족 전부가 학살되였다.

그의 안해 리학실은 임신된 몸으로 미군인들에게 체포되여 심문받았다. 그 녀성이 대답하기를 거절했을때 미국인들은 이 녀성을 고문했고 왼쪽 팔을 자르고 오른쪽 다리를 잘랐고 마지막에는 배를 째고 애기를 끄집어냈다.

그 녀성이 죽을때 아이들은 집안에 가쳐있었고 그속에서 불타죽었다.

그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때 그 시체들을 보았고 그 이야기를 이웃 사람들에게서 들었다. 그는 지금 인민군대에 참가해서 싸우고 있다.개천시내에 사는 리춘형이라고 하는 녀성은 조사단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했다.

그의 동생은 모범농민으로서 정부의 표창을 받은 녀성이였고 리 녀맹 책임자였었는 데 미군에게 학살되였다. 미군이 들어왔을때 리춘형은 그의 동생 리보부에게 피신하기를 권했으나 그는 녀맹책임자로서 그렇게 속히 떠나려하지 않았으므로 아이를 데리고 자기혼자 떠나게되였다.

리춘형이는 동생이 오지 않으므로 8세된 아들을 데리고 무슨일이 생겼나 보려 되

돌아왔을때 동생이 다체로 나무에 결박되여 미군인들에게 구타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미군인들은 그 녀성에게 그 남편과 그 조직체에 관해서 심문했었다. 그러나 그 녀성이 말하지 않으니까 놈들은 마지막에는 전기고문까지 했다. 그리고 8세난 아이를 총살하였다. 그 녀성은 여러날동안 고문당했고 미군인들은 주민들에게 이를 보라고 강요해 오다가 마지막에는 그 녀성을 총살했다. 리춘형 자신도 체포되였으나 그동생과의 관계를 숨기고 자기의 생명을 구할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집의 빈약한 재산이 략탈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밖에도 더많은 악행을 보았고 자기동생의 이야기는 단지 더많은 다른 것들 중에서 하나이라고 조사단원들에게 말했다.

미군인들이 부녀들을 붙잡아 찌프차에 담아서 유곽으로 잡아갔다. 그러므로 젊은 녀성들은 얼굴에 재를 칠하고 늙은 녀성으로 분장하고서 피할 수 있었다. 거의 완전히 파괴된 개천시내에서 조사단원들은 여러가지 다른것들 중에서 폭격된 병원을 보았는데 그 지붕에는 적십자표가 보였다.

군녀맹위원장은 적은 주택들을 가진 이지역에서 500명이 살해되고 완전히 소각되였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번전쟁에서 희생되였고 또는 미국군대에 의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학살당한 고아들을 국가적으로 양육한다는 보육원을 찾았다.

수많은 녀성들과 아동들이 조사단원들을 둘러싸고 자기네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청했다. 이 녀성중의 많은 사람들은 격앙되였고 울면서 우리의 손과 옷자락을 움켜잡았다. 시간이 촉박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을수 없었다.

조사단원들은 다음과 같은 성명과 사실을 기록했다.

최윤숙은 미군인들이 왔을때 인민군대에서 싸우다가 부상된 자기아들이 군복을 입고 집에 와 있었는데 그가 자기 눈앞에서 총살되였다고 말했다.

김이숙은 농민동맹 책임자이던 자기남편이 학살되였다고 말했다. 그녀성은 아이를 업고 피신했다.

미국병정들이 그 녀성을 잡아서 아이를 땅에 던지고 밟아 죽였다.

오인분은 28세나는 김용주라는 자기딸을 여러 미국병정들이 강간하고 물에 빠뜨리여 죽였다고 말하였다. 리순실은 12일 동안이나 라체로 여러병정들이 있는 방안에 잡혀있었다고 말했다.

김룡녀 (20세) 는 개천군 북면에 거주하는데 자기 오빠가 학살당했다고 말했다.

홍영복 (37세) 은 개천면 현동1리에 거주하는데 그 남편이 총살당했다고 증명했다.

김용실 (34세) 은 남현리 472번지에 거주하는데 자기아들이 학살되였다고 말했다.

리은주 (30세) 는 개천 중훈리 57번지에 사는데 자기오빠가 학살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최선료 (34세)는 개천면 신모리에 사는데 자기 남편을 미군인들이 총살했다고 이야기했다.

몇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파괴된 개천시가를 방문한다음 조사단들은 48명의 아

동들이 양육되고 있는 농촌의 육아원으로 갔다. 거기에 있는 여섯살쯤되여 보이는 작은 사내하나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고로 그 이름과 그 친척의 이름도 아직 불명하다. 폭격에서 그렇게 되였다고 한다.

조사단원들은 일간에 더많은 아이들이 이곳으로 온다는 말을 들었다.

부모를 잃고 돌보아줄 성년자가 없는 아이들을 먼저 받아들인다는 말을 들었다.

조사단원들은 개천에서 개천북방에 있는 부락 녀맹위원장 리선실을 만났다.

이 녀성은 여러가지 사실중에서 미국비행기가 몇주간전 자기부락 밭에서 소를 가지고 일하던 3명의 남자를 저공비행하여 기관총으로 소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두 남자와 3두의 소가 죽었고 한남자는 중상되였다.

강계시는 자강도에 있다. 도위원장 리효순씨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조선의 가장 북쪽에 있는 이 도시는 인구밀도가 희박하고 대부분이 농민이다.

이 도에는 중요한 공업이 없다. 이 지방은 적은 부문만이 유•엔군에게 강점되였었다.

이 도는 50만인구를 가졌으나 남방에서 온 전재민의 집결로 인해서 지금 그 수는 증가되고있다. 이 도에서는 전재민을 원호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일을 다하고 있으나 식량과 거처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곤난들은 미국 비행기들에 의하여 증가되고 있으며 길가는 사람들을 기관총으로 사살하고 로상과 밭에서 가축들을 죽인다. 강계시는 4만 인구를 가졌다.

사범학교가 2개 림산학교가 1개 고급중학이 1개 초급중학이 2개 인민학교가 4개 극장이 2개가 있었다. 이 모든 문화시설 중에서 초급중학교만이 서있는데 이것도 역시 파손되였다. 중앙병원은 그 지붕에 적십자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괴되였다. 이 도시에는 2개의 신교 교회당과 1개의 카톨릭 교회당과 향교와 천도교회가 있었는데 전부 파괴되였다.

주민중의 기독교인들은 처음에 교회당 가까운곳에 대피하였었다. 그 리유는 미군인들이 교회당은 다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강계뿐만 아니라 산중에 있는 아주 작은 농민 부락까지도 미국비행기에 의해서 폭격되고 소각된다. 소이탄에 의해서 일어난 산화는 비전투 주민에게 대해서 한개의 재난이다.

강계시가 심하게 폭격되고 거의 완전히 파괴되기는 1950년 12월 12일이였다. 미국비행기는 주로 소이탄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는 시한탄인데 이것은 떨어진채로 여러 시간을 경유한 뒤에 폭발되는데 26일 후에 되는 수도 있다.

1951년 2월초에는 새로운 중폭탄을 이미 다 파괴된 이 도시에 떨어뜨렸다. 이번에는 주로 시한탄이 사용되여서 주민들은 20일동안 통행하지 못하였다.

조사단원들은 이 지역에서 유일한 군사적 목표들인 기차선로와 정거장을 이미 1950년 10월 9일에 파괴하였다는 보고를 들었다.

조사단원들은 거의 완전히 파괴된 강계시를 방문하고 외과의 백기제와 이야기하게 되였다.

그는 중앙병원이 벌써 12월 이전에 폭격되였는데 그 건물은 지붕위에 적십자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공비행하는 미국비행기가 기총으로 사격했다는 사실을 말했다. 1950년 12월에 폭격이 있었을때 백의사 자신이 100명 이상의 부상자를 취급하고 1951년 2월 폭격시에는 2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보았다.

백의사는 역시 농민의 가옥들이 미국 비행기에게 폭격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실례로서 박후령 농민의 집이 폭격되여 그 집에서 10명이 살해된 사실을 말했다.

조사단원들이 백의사에게 정부가 어떻게 전염병을 방지하고 있는가하고 질문했을때 그는 파란과 체코슬로바끼야에서 공급받은 방대한 량의 예방주사약으로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강계시에서 조사단원들은 3명의 농촌녀성들을 만났는데 그들도 우리가 시내에 체류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려고 온 것이였다. 그중의 한 녀성은 말하기를 내 남편과 두자식이 폭격에 죽었다. 나는 나의 로동으로써 복수하련다.

그러므로 우리인민군대가 미군을 내모는데 필요한 것을 받을수 있게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세계평화를 쟁취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만포시는 조선과 중국 국경의 압록강가에 있다. 도위원장 리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도시는 1만2천7백명의 인구를 가졌었다. 제재와 직조의 경공업이 약간 있었다. 만포는 두차례의 대폭격을 받았는데 1950년 11월 12일에 대부분 소이탄에 의해서 거의 완전히 파괴되였다.

조사단원들이 그 폐허를 방문하였을때 거기서 막대한 수량의 소이탄 잔재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었다.

1950년 12월 7일에 이미 파괴된 이 도시는 다시 폭격되였고 움집과 폐허 속에서 생활하던 3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해되였다. 조사단원들은 7메—터 이상이나 깊은 폭탄 구멍을 보았다. 만포는 많은 문화시설의 건물도 가졌었는데 그 중에서 조사단은 거대한 학교건물과 극장의 폐허만을 보았다.

여기에는 다른 폐허화한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주민들이 땅굴속에서 살고 있다. 조사단원들은 그러한 집을 보았는데 그것은 파괴되고 남은 지하실이였고 아주 캄캄한 그속에는 두 어린아이들이 있었다. 그중 제일 어린것이 2세이며 13세되는 형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조사단원들은 이 큰 아이와 이웃 사람들에게 그의 아버지는 철도로동자이고 그 어머니는 1950년 12월 7일 폭격에 살해되였다는 말을 들었다.

리주선씨는 말하기를 정부는 아무도 돌보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아이들을 먼저 원호하고 있다고 했다.

1951년 5월 28일

조사단 전원이 서명함

결 론

본 조사단은 조선 각지에서의 자기 단원들의 관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조선인민은 미군에 의하여 무자비하고 또 계획적인 살육을 당하고 있다.

그것은 다만 인도주의적 제 원칙에 위반될뿐만 아니라 헤―그와 제네바의 협정들에 기입된 전쟁 진행에 관한 규칙에도 어그러지는 것이다. 이와같은 살육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감행되고 있다.

(ㄱ) 미군들은 식량과 식료품 창고를 소각하였으며 식료품공장 기업소를 파괴 또는 소각하였다.

산림 성숙된 곡식 과수원들이 미군의 소이탄에 의하여 불붙고 있다. 밭에서 밭갈이하는 농민들은 미국 비행기의 저공사격에 의하여 자기의 농우와 함께 살해당하고있다.

그들은 이와같이 전 조선인민을 아사하도록 하고있다.

(ㄴ) 군사적 목표 또는 산업지대라고는 도저히 리해할 수 없는 그러한 농촌들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파괴는 조선 인민들을 정신적으로 굴복시키며 육체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부단적인 폭격으로써 계획적으로 주택 병원 학교 기타의 시설들을 파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미 잿더미로 된 도시에서 아직 살아있는 주민들의 로굴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까지도 폭격을 당하고 있다.

(ㄷ) 국제적 제 협정등으로써 금지된 평화적 주민들에 대한 무기의 사용 즉 소이탄 휘발유통 시한폭탄 또는 저공비행 기총소사로써 평화적 주민들을 계속 살상하고 있다.

(ㄹ) 조선 주민을 계속적으로 야수적으로 살상하고 있다.

미국군대와 리승만군대가 림시로 점령하였던 지역들에서는 수십만의 평화적 주민들이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늙은이나 젊은이나 고문을 당하고 불에 타죽고 매맞아 죽고 산장을 당하였다. 수천명의 다른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이 하등의 근거와 재판과 판결도 없이 좁은 감옥에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고 있다.

이러한 대중적 학살과 대중적 고문들은 히틀러 나치스들이 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구라파에서 감행한 만행보다 더 혹심한것이다.

평화적 주민들과 담화한 결과에 의하면 상술한 모든 만행들은 미국 병사들이나 장교들에 의하여 진행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국 장교들의 명령에 의하여 감행된 것이다. 때문에 이 만행에 대한 전적책임은 조선에서의 미군 총 지휘부에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맥아더 릿쥐웨이 기타 소위 유·엔 군대라고 칭하는 조선에 와있는 군대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 만행들이 직접 조선에서 진행하는 부대 장병들의 명령에 의하여 진행되였다 할지라도 이 만행들에 대한 책임이 역시 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보낸 정부들과

유•엔에서 조선에서의 전쟁도발을 찬성하여 거수한 그들에게도 있는 것이다. 조선 인민을 반대하여 진행된 이 범죄적 행동에 대한 책임자들은 1943년 동맹국들의 공동선언에 의거하여 전범자로서 규정되여야 하며 또한 이 선언서에 의거하여 이 책임자들은 세계 인민들에 의하여 재판을 받아야 할것이라고 인정한다.

조사단은 전 인류의 명예를 위하여 조선에서의 이 전쟁을 즉시 중지할것과 조선으로부터의 외국군대 철거를 요구할 것을 전세계 인민들에게 호소한다.

조사단은 또한 미국 간섭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감행한 만행의 결과로써 흉년과 질병에 직면하고 있는 조선인민에게 급속한 방조를 조직할 것을 전세계 인민들에게 호소한다.

조사단은 이 보고서를 전세계 각국 정부들과 국제민주녀성련맹의 가맹여부를 불문하고 세계 모든 녀성단체들과 세계평화 위원회와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단체들과 각종 정치적 또는 종교적 견해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보낼것을 국제민주녀성련맹에게 요청한다.

조사단은 국제 민주녀성련맹이 조선에 있어서의 미군과 리승만 군대들이 감행한 만행에 대한 국제민주녀성련맹 조사단의 보고서를 유•엔에 보낼것을 강조하였다.

보고는 조선어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및 로씨야어의 다섯가지 언어로써 작성되였다.

단 장	노라•카드린•로드	(카나다)
부단장	류 청 양	(중 국)
	이다•바크만	(정 말)
제 1비서	밀취쉬•스바트쇼봐	(체코슬로바끼야)
제 2비서	소에니토•트레스•헤일리헤르스	(화란)
단 원	모니카•펠톤	(영국)
〃	마리야•오브산니꼬바	(쏘련)
〃	백 랑	(중국)
〃	리 강	(중국)
〃	질베트•지글레르	(불란서)
〃	엘리자베따•갈로	(이태리)
〃	예바•프리에스테르	(오지리)
〃	제르맨•한네봐르트	(백이의)
〃	힐네•칸	(독일민주주의공화국)
〃	릴리•베흐체르	(서부독일)
〃	레•티•궤	(월남)
〃	칸델라리아•로드리게즈	(큐—바)
〃	레오노르•아기아르	(아르젠틴)
〃	파트메•벤•슬리만	(츄니스)
〃	아비씨아•모덜	(알제리야)

(2) 국제 민주 법률가 협회 조사단이 발표한 조선에서의 미국 범죄에 관한 보고서

주 석

1. 본 보고는 국제 민주 법률가 협회의 권한을 가진 조사단에 의하여 발표되였다.

협회 본부 사무실은 벨기 브뤼셀 레그드가 70번지에 있다.

2. 본 조사단은 지체없이 본 보고서를 발표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므로 본문 속에 조사의 지명과 인명의 부정확한 음역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3. 조선은 도로 나누어졌으며 각도는 군으로 다시 나누어졌으며 각 군은 면으로 나누어졌고 면은 리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리는 또한 시의 분구로서도 사용되고 있다.

4. 조선의 말 (중량)
리 (거리)
평 (면적)
(1키로메터는 영국 마일의 8분의 5)

5. 본문중 괄호속에 들어있는 번호는 보고서 끝에 있는 목록에 나타난 문건 및중요 증인들을 표시한다.

6. 본 보고서의 영문판에만 조사단원들이 서명하였다

제 1 장 서 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그의 적들이 조선 령토에서 국제법을 위반한데 대하여 항의하도록 유•엔에 여러번 요구하였다. 그러나 유•엔은 이 요구를 무시하였다.

이러한 요구들은 여러가지 조사의 대상으로 되여왔던바 특히 조선을 방문했던 국제 민주 녀성련맹에 의하여 작성된 1951월 5월 27일부 보고서에서 취급되였다.

이 비난의 지극히 큰 엄중성은 국제 민주법률가협회 리사회로 하여금 1951년 9월 협회 베를린 회의에 뒤이여 조선에 가서 현장에서 법적 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 진술들을 조사할 목적으로 여러나라들의 법률가들로써 구성된 조사단을 조직하게 하였다.

조사단은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되였다.

하인릿히 브란드와이네르 그라츠대학 국제법 교수 (오지리) 단장

루이지 가발리에리 로마 최고 재판소 변호사 (이태리) 부단장

쟈크 카스타 변호사 런던 (영국) 마드크 작키에 공소원 변호사 파리 (불란서)
커 버 넨 외국사정 인민협회 조사 국장 북경 (중국)
마리 루이 스무에렌 쓰 변호사 브뤼셀 (벨기)
데텔바 로드리케스 데•브리토 변호사 리오데쟈네이로 (브라질)
조피아•와시레브스까야 최고 재판소 판사 와르샤와 (파란)

본 조사단은 1952년 3월 3일부터 3월 19일까지 조선에 체재하였었다.

조사단원들은 평양 남포 개천 덕동 안주 안악 신천 사리원 원산등 도시들을 포함한 평안남북도 황해도 강원도를 방문하였다.

조사단에 부여된 제한된 시일과 전쟁상태는 그앞에 제출된 진술들의 전부를 조사할 수 는 없게 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사명을 완수함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조선 당국으로부터 받은 조사단은 사건의 범위와 희생자의 수로 보아서나 사건 장본인들이 사용한 방법의 특수성으로 보아서나 가장 특징적이라고 생각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조사를 행하였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관계당국에 의하여 제공된 보고와 성명을 심의한 다음 조사단은 직접적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과정에 있어서 조사 단원들은 백명이상의 증인들에게 질문하였다.

조사단의 결론은 직접적 증거에 의하여 조사단앞에 증명되였으며 또 모든 관계문건의 조사에 의하여 확증된 사건들에 기초하였다.

이 보고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는 특히 세균 및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분석되였으며 력사적 의의를 가진 문건들은 전쟁 근원과 관련하여 조사되였다.

이 보고에 인용된 도시 및 보호건물의 폭격사건 일반주민에 대한 암살 고문 살해는 다만 정당하게 확증된 직접적 증거물에 의하여 증명된 것이다.

마지막에 조사단은 증명된 사실에 의하여 유도되여야 한다고 인정된 결론을 내린다.

인용된 매개사건에 있어서 최소한 한사람의 증인의 이름과 극히 중요한 참고문건들중의 일부목록은 본보고의 끝에 포함되여 있다.

조사단은 증명된 사실들을 그 성격에 의하여 분류한 다음 그것들이 전쟁 범죄인지 또는 도덕상 범죄인지를 뉴름베르그 국제 군사재판소 헌장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찰하였으며 또한 그것들이 지금도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협정들에 위반되는지 또는 전쟁법규와 전쟁관습에 배치되는지를 고찰하였다.

법률가들의 조사단이 시찰중에 조사한 광범위한 각종 사건들에 관한 국제법을 한페지로 개괄하는 일은 무모한 일로 될 것이다.그러나 일반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되는 중요 조약들 및 협정들과 관습법을 극히 간략하게 진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총괄적인 것으로 될수는 없을 것이며 또 조사단이 자기결론들에 도달함에 있어서 신중히 고려한 이러한 또 저러한 법령들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첫째로 조사단의 사업은 1899년 7월 29일과 1907년 10월 18일부의 륙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두가지 협정 헤그규정을 그 토대로 하였는바 그리유는 이 협정들은 무장충돌에 있어서 전투세력의 행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모든 국가가 준수하여야할 관습법의 표현으로 접수된 것이기 때문이다.

헤그규정은 전쟁법규의 기본적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바 그것은 전쟁에 참가한 국가는 적에게 손해를 주는 수단의 선택에있어서 무제한한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는것과 무엇보다도 그들이 비전투원에게 직접적 공격을 가하는것을 금지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헤그규정은 방위 및 무방위 도시와 지방을 구별하고 있으며 교회 병원 학교와 같은 일정한 건물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이 협정들은 더욱 략탈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정한 무기 및 전쟁방법의 사용을 비난하고 있다.

이 금지된 무기들에는 특히 독약 및 유독무기가 포함되여 있으며 또한 화학 및 세균무기의 사용이 포함되여 있다.

이 두가지 금지는 전쟁에서 질식성 독성 및 그와 류사한 가스와 세균무기 금지에 관한 1925년 6월 17일의 제네바 의정서에서 더욱 자세히 진술되여 있다.

그밖에 조사단은 무엇보다도 전쟁 터에 있어서의 부상병 및 환자의 조건 개선을 규정한 1929년 7월 17일부 제네바협약과 동일부의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협정과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을 고려에 넣었다.

최후에말한 협약의 적용에 관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상은 1950년 7월 13일 조선인민군이 그 협약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확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조사단은 뉴름베르그 국제 군사재판소 헌장 및 그 재판소가 행한 판례들에 표현되여 있는 소위 뉴름베르그 원칙에 특별한 중점을 두었다. 뉴름베르그 원칙은 특히 국제법에 반대되는 두가지 종류의 범죄를 구별하였다.

(가) 전쟁 범죄

전쟁 관습법의 위반은 점령된 령토의 또는 그 속에 있는 비전투원에 대한 살해 학대 또는 노예로동이나 기타의 목적을 위한 추방 전쟁포로나 해상인원에 대한 살해 또는 학대인질의 살해 공공 또는 사유재산의 략탈 도시 촌락의 란포한 파괴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지 않는 황폐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나) 인도에 대한 범죄

일반 주민에 대한 살해 섬멸 노예화 추방과 기타의 비인간적 행위 또는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리유에 의한 박해 등의 행동과 박해가 평화를 반대하는 범죄 또는 전쟁범죄가 감행되고 있거나 혹은 그와 관련하여 감행되는 경우 이러한 원칙들은 헤그 규정과 국제 관습법의 일보 발전이며 일반적으로 승인되여 있는 것이다.

최후로 조사단은 1948년 12월 9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을 고려하였다.

제노사이드라는 것은 민족적 종족적 인종적 및 종교적 집단에 대하여 그들을 섬멸할 의도밑에 수행 또는 기도된 행위를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이러한 집단들의 성원들에 대한 살해 이러한 성원들의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심대한 공격 그들의 전반적 또는 부분적 멸망으로 이끄는 생활상태에 그들을 복종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조선 전쟁의 발단에 대하여 본조사단은 세밀한 조사를 행하지 않았으나 이 문제에 대하여 약간의 일반적 견해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법에 의하면 제3자는 일반적으로 내전에 간섭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유•엔 성원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령토완정을 반대하거나 또는 유•엔 목적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군대를 사용함을 금지하는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또 유•엔이 헌장 제7장에 의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의 내정에도 간섭하는것을 금지한 제2조 제7항에 의하여 강조되여 있다.

유•엔의 간섭에 대한 결정은 그 결정이 제27조 (3) 에 의한 안전 보장리사회의 모든 상임위원 국가의 일치된 투표를 방지못하였으며 또한 제32조에 위반되므로 그 자체가 헌장 위반으로 되는 것이다.

유•엔이 위에서 말한 비법적 결정을 취하기 전에 트루맨 대통령이 미국 해군과 공군에게 간섭할것을 즉시 명령한 사실은 유•엔의 간섭이 비법적이며 분명히 준비하였던 것이며 미리 계획되였던 것이며 따라서 침략 행위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엔의 기타 가맹국가들의 간섭도 또한 유•엔 헌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유•엔 성원 국가들이 남조선을 원조하기 위하여 파견한 군대가 유•엔의 권고에 의하여 미군 총사령부 지휘하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말한 일반적인 견해 이외에 조사단은 조선전쟁의 근원에 관하여 조선에 있어서 조사단이 조사한 중요한 문건들의 복사사진을 본보고의 부록에 포함시킨다.

제 2 장 세 균 전

조사단은 조선에 도착하자 조선에 있는 미국 군대들이 군대와 비전투원을 반대하여 세균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대단히 엄중한 사건을 조사하는 예기하지 않은 과업에 직면하게 되였다.

조사단원들은 이 나라의 여러 지방에 가서 현지에서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일상적이 아닌 환경에서 곤충들을 발견한 증인들에 질문하였으며 발견된 용기의 잔존물에 관한 증거물들을 얻어 검사하였으며 전문가들에 질문하였으며 최근 수년간의 보건상태에 관한 자료와 질병의 발생에 관한 자료를 보건일군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얻었으며 그들앞에 제출된 공적 문건들과 기타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조사단은 사실들에 대하여 증거를 준 많은 순박한 농민과 기타 사람들의 명확성과 현저한 진실성과 성실성에 감격하였다.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 지원군부대와 지방 항공감시소들의 보고에 의하면 북조선 169개 지역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곤충들이 발견되였다. (1)

대표적인 15개의 경우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사가 진행되였으며 그곳들에서 발견된 곤충이 1952년 1월 23일과 3월 12일간에 확증되였는바 그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

1. 1월 28일 강원도 평강군 파리 벼룩 거미 (2)
2. 2월 11일 강원도 철원군 파리와 벼룩 모기 (3)
3. 2월 17일 강원도 평강군 거미
4. 2월 18일 평안남도 안주군 파리와 벼룩
5. 2월 23일 평안남도 평원군 파리와 생선
6. 2월 25일 강원도 문천군 덕원면 거미와 기타 곤충
7. 2월 26일 평안남도 대동군 파리와 거미
8. 2월 27일 평안남도 강동군 파리
9. 2월 27일 황해도 (군부대) 이
10. 2월 27일 평안남도 순천군 파리
11. 2월 29일 황해도 수안군 파리와 기타 곤충
12. 3월 1일 평안북도 철산군 파리와 벼룩
13. 3월 1일 평안남도 양덕군 파리와 기타 곤충
14. 3월 2일 함경남도 고원군 벼룩과 기타 곤충
15. 3월 4일 평양시 중구 파리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종류의 파리 벼룩 거미 딱장벌레 빈대 귀뚜라미 모기와 기타 곤충들이 발견되였으며 그 대부분은 지금까지 조선에서 볼수없던 것들이였다. 곤충들은 많은 경우들에 있어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곳에서 눈위에와 강얼음위와 풀과 돌사이에서 발견되였다. 보통으로 곤충이 나올수 없는 그 당시의 대단히 낮은 기온 (1월 최고 온도는 1도이며 2월에는 5도이다. 그러나 다만 수시간동안은 평균기온이 섭씨 령도를 훨씬 내려가는 일이 있다.)을 고려할때에 또한 그 곤충들이 왕왕 다수로 더우기 혼합집단으로 또는 보통으로 한장소에서 같이 발견할수없는 파리 거미와 같은 각양 각색의 곤충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발견된것을 고려할때 이러한 곤충들이 나타난것은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전문적 조사의 결과는 다수의 곤충들이 병균에 감염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여러 경우에있어 또한 곤충들은 알을 쓸고 있는것이 발견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곤충들은 인공적으로 배양된 것으로 생각된다.

1952년 2월 13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는 숙천면에서 멀지않은 산위에 파리와 또 담수와 염수중간에 있는 종류의 생선들이 다량으로 발견되였다. 생선들은 거의 썩

어있었으며 코레라로 감염되여 있었다. 이 생선들은 산위에 잘못 투하된것으로 생각된다. 발견된 세균종류는 급성 코레라 파스토르 페스트 에비델라 티브스바칠루스 파라티브스 A와 B 리켓챠 로와체키 시가 적리균이였다.

각종의 곤충들이 전파되고 있다는 현지보고는 조사결과 확증되였으며 또 투하된 곤충들은 페스트 코레라 및 기타 전염병에 감염되여 있는 것이 확증되였다. (1)

조사단은 특히 다음의 경우들을 조사하였다.

1. 1952년 1월 30일 강원도 이천동남에 파리 빈대 거미가 눈위와 돌사이에 살아있는것을 발견하였다. 곤충들을 발견한 직후에 그 장소를 태워버렸으나 직경 6배내지 7백메터 면적속에서 1평방메터 당 20내지 30개의 표본을 아직도 발견할수있었다.

전문적 조사는 파리들이 코레라균으로 감염되여 있는 것을 보이여 주었다.

곤충들이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약3백내지 4백메터되는곳에 특별한 장치를 가진 폭탄과 같은 용기의 잔존물이 발견되였는바 그 용기는 지면에 닿자마자 즉시로 터져 열리도록 장치되여 있었다.

한사람의 목격자는 사진 8호와 9호 (4)에 있는 이 종류의 폭탄 (4)을 확증하였는바 그것은 조사단 자신이 조사한 폭탄의 잔존물과 같은 형의 것이다. (5)

2. 1952년 2월 18일 평안남도 안주군 대리면 발남리에서 파리 거미 딱장벌레가 발견되였는바 지면위에 3개소에 각각 1평방야드 속에 밀접하여 있었으며 그 장소는 각각 1메터 떨어져 있었다.

한장소는 눈으로 덮여 있었으나 기타 장소에는 눈이 없었다. 곤충들은 전부 살아있었다. 조사단이 그 장소에 도착하였을때에는 곤충들이 그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파리는 재래의 조선파리와 달라 이상한 것들이였다. 발견된 파리는 긴 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날개는 조금 벌어져 있었다. 몸집은 큰편이였으며 머리는 재래의 파리의 그것보다 비교적 큰편이였다.

거미에 대하여 말하면 재래의 거미는 큰것과 작은것의 두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색갈은 검은것이다. 발견된 거미는 그 크기가 중간의 것이며 몸집빛은 조금희다. 딱장벌레는 재래의 것은 몸집이 둥굴고 약간 누른빛을 가지고 있는것에 비하여 발견된것은 몸집이 납작하였으며 검은빛이 였다. 이 시기에 이 지방에서 파리와 거미를 본일이 이전에는 절대로 없었다. 지상온도는 섭씨 령하 20도였다.

곤충들이 발견되기 전날 야반경에 비행기들은 이 장소를 정찰하면서 대단히 낮게 수차례에 걸쳐 선회하였으나 폭탄 또는 소이탄을 투하하지도 않았으며 기총소사도 하지 않았다.

전문가의 조사결과 이 곤충들은 페스트균으로 감염되여 있었다. 2월 25일 이 촌락에 페스트가 발생하였다. 50명이 병에 걸려 3월 11일까지 (약 6백명 인구중에서 36명이 사망하였다. 질병은 그 이상 만연되지 않았다. 전에 이 지역에서 페스트가 발생한일은 절대로 없었다 (6) (7)

3. 2월 22일 황해도 봉산군 초와면 양동리에서 파리들이 뭉쳐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바 얼음과 눈위에 1평방메테에 5—10마리의 파리가 직경 약 2백메터 면적에 걸

쳐있었다. 그것들은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들판위에 있었다.

또한 같은 군 사인면 월산리에서 파리들이 가장 가까운 집들로 부터 7백메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였다. 이두 경우에 있어 파리들은 모두 보통 알려져있는 파리보다 머리가 작고 날개가 길며 몸에는 털이 많았다. 도 전부에 걸쳐 3월 12일까지 파리 모기 거미 벼룩과 류사한 보지못하던 곤충들이 발견된 36개의 경우가 확증되였다. (8)

4. 평안남도 개천군에서는 2월 25일이후 파리와 기타 곤충들이 9건 발견되였다. 그 일부는 눈위에서 발견되였다. 이 발견된 곤충들은 지금까지 보지못한 종류이였다. 이 군에서는 4월전에 파리가 나타나는 일이 보통없다. 조사단원들이 방문하였을 때까지는 질병이 발생되지 않았었다.

5. 2월 26일 같은군 북면에서 다수의 벼룩과 파리가 눈위에서 발견되였다.그후 그것들은 2키로 메터 떨어져있는 람전 2리에서 람전 1리까지 흩어졌다. 곤충이 뭉쳐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누런종이에 싸이였고 눈이 녹은 습지위에 뭉쳐 있었다. (9)

6. 2월 28일 평안남도 강동군 원탄면 승오리부근에서 북강 (그것은 평양 수도 공급에 사용되고 있다) 언덕 얼음위에서 개미같은 곤충들이 발견되였는바 직경 약 30센치 메터의 몇개의 집단으로 되여있었으며 각 집단의 거리는 약 3내지 5메터였다.

다음날 그 곤충들은 이미 8백 메터의 면적에 걸쳐 흩어져 있었다.

곤충들이 발견된 전날에 5대의 미국 비행기들이 반시간동안 그 장소위로 선회하였으나 폭탄이나 소이탄을 투하하지도 않았고 기총 소사도 하지않았다. 증인은 말하기를 전문적 조사의 결과 그 곤충들은 장병질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감염되여 있다는 것이 판명되였다고 하였다. (10)

7. 3월 3일에 평안남도 순천군 자산면 고음리에서 이상한 외양을 가진 파리들이 약 1평방야드의 한 지점위에 뭉쳐 있는것이 발견되였다. 파리들은 섭씨 령하10도이하의 눈위에 있었으나 아직 살아있었다. 파리의 머리는 조선파리보다 작고 날개는 서로 붙어있었고 몸집은 보통파리보다 길었다.이 지역에서 이 시절에 집밖에서 파리들이 살고있는 것은 보통 볼수 없다. (11)

8. 3월 4일에 같은군 순천면 마상리에서 동일한 조건밑에 같은 종류의 파리들이 발견되였다. (11)

9. 같은 날 안주 부근에서 몇그루빠의 모기들이 발견되였다 앞에서 기록한 바와같은 용기 즉 사진 第8호에서 보는 바와 같은 용기가 발견되였다. (4) (12)

10. 같은날 안주면 차장리에서 모기들이 발견되였다. 이 지역의 여러 장소에서 이 곤충들은 집단적으로 발견되였다.

그들은 이상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보통 모기들은 머리로부터 몸까지 약간의 털로 가볍게 덮여있는데 이것은 털이 훨씬 더 많았다. (6) (7)

11. 3월 5일 평양시 중구 남문리 길위에 파리들이 크고 작은 집단으로 발견되

였는데 약 1.5메터 폭과 5메터 길이의 면적위에 흩어져 있었다. 그 다음날 이웃거리에서 코레라가 발생하였다. (13)

12. 3월 11일 맥동군에 있는 전쟁포로수용소로부터 몇키로메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약간의 파리와 기타 곤충들이 뭉쳐 있는것이 눈위에 있었다.

조사단이 증명한 이 개별적 경우들은 다만 실제 사실들의 적은 부문을 대표할뿐이다. 왜냐하면 조사단은 이 모든 피해장소들을 방문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삐라탄과 같은 용기가 발견된 곳에서 그 부근에 삐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두어야 하겠다.

북조선에는 과거 4년동안에 상기한바와같은 전염병은 없었고 조사단이 방문하였을때 까지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곤충들이 뭉쳐 있는것을 발견한 바로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건이 있다는 보고가 없었다.

우리의 관찰에 의하면 감염된 곤충들의 투하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광범히 만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바 없이 인민들과 완전하고 밀접하게 협력하여 당국이 취한 용의 주도하고 철저한 방역 대책의 결과인 것이다.

코레라환자를 처음 진단한것은 2월 20일이였다. 환자는 강원도 철원군 북면에 사는 김학문이라는 40세된 사람이였는바 그는 2월 23일에 사망하였다. 같은 동리에서 2월 25일에 35세된 김술순이가 병에 걸렸다.평안남도 숙천면에서는 같은동리에서 3월 5일 두사람이 병들어 누었는데 그 다음날 두사람이 다 사망하였다.3월 8일에 3인이 더 앓아누었고 그중 한 사람은 그날로 죽고 나머지는 3월 9일에 죽었다.

평양시에서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3월 6일에 2명이 병들어 눕고 또 한 사람은 3월 8일에 병들어누었다. 그중에 2명이 3월 8일에 죽었다. 그 지역은 차단되였다. 황해도에서는(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곤충이 발견된 건이 36건인데 수안군 수구면 석달리에서 3월 8일에 코레라로 2명이 병들어 누었는바 그중 한사람은 3월9일에 죽었다. 코레라에 리병한 군인은 없었다. 이 지역에서 코레라 발병지수는 13명인데 그중 9명이 죽었다. (1)

페스트 환자를 처음으로 진단한것은 2월 25일인데 이 환자는 안주군 발람리에 사는 29세 되는 황리채이였다. 이병은 차차 악화되여 갔다. 2월29일에 같은 동리에 사는 26세 되는 박순옥이가 병에 걸렸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2월 8일에 페스트로 감염되여 있는 벼룩들이 확증되였던 것이다. 이 동리에서 페스트 발생수는 50건으로 증가되였고 조사 단이 안주에 갔을때까지 그중에서 36명이 죽었다. 군대내에서는 3건의 페스트 발생이 판명되였다. 강원도 문천군 덕원면 성하리에서 3월 4일에 한병사가 병들어서 3월 6일에 죽었다. 평안남도 양덕군 천이리에서 3월 7일에 한병사가 병들어서 그 이튿날 죽었다. 함경남도 고원군 산곡면 성남리에서 3월 11일에 한 병사가 병들어서 그 이튿날 죽었다. 페스트병의 총건수는 53명이고 그중에서 39명이 죽었다. (1)

많은 경우들에 있어 코레라 및 페스트 발생과 감염된 곤충의 발견 사이에는 장소

와 시간의 일치성이 있다.

이 사실들로 보아 조사단은 왕왕 조선에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분량의 곤충들이 매우 낮은 기온하에 눈위에서 들판에서 또는 강얼음 위에서 발견되였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곤충들은 많은 수가 페스트와 코레라와 기타 전염병으로 감염되였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곤충들이 발견된 장소에서 아주 가깝게 용기들이 발견되였는바 그 구조는 다량의 곤충들을 운반하는데 사용될수 있도록 되여있다. 그 용기의 하나에는 영어로 표식되여 있는 것이 발견되였다. 여러 경우에 있어서 발견된 물건들과 비행기의 출현사이에 장소와 시간상 일치성이 판명되였는바 이 비행기들은 그 장소위에 낮게 떠돌면서 기총소사도 폭격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것들을 발견한 직후에 페스트와 코레라가 발생하였다.

상술한 것은 조사단이 조사한 사건으로서 보고받은 여러 건들중의 다만 몇개에 불과한 것이나 다만 이것만으로써도 그러한 곤충들의 엄중하고 광범한 산포가 폭로되였다.

이 모든 조건밑에서 조사단은 미국 비행기들이 조선에다 전염병으로 감염된 곤충들을 투하했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제 3 장 화 학 무 기

미국 비행기는 적어도 1951년 5월 6일 이래로 많은 경우에 질식성 및 기타 가스 또는 화학 무기들을 사용하여 왔다.

남포시 인민위원회 보건과장이 본조사단에 제공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1) 1951년 5월 6일 오후 5시 5분부터 6시 30분 사이에 이 도시는 네차례 폭격을 당하였다. 이 폭격이 있었을때 천기는 좋았고 온도는 섭씨 23도였다. 13개소가 폭격을 받았다. 최후의 공습때 주민들은 모두 대피하였다. 이때 비 29 3대가 삼화리 후포리 축동리 용정리 및 용수리의 일부 즉 그면적으로 보아 0.3 평방키로메터를 가스탄으로 폭격하였다. 그 결과 1천 3백 79명의 사상자를 내였다. 그중 4백 80명은 질식으로 사망하고 6백 47명은 가스로 중독되였다. 또 이 공습중 다른 방법으로 76명이 피살되고 1백 76명이 부상당하였다.

본조사단이 청취한 목격자의 증언과 전문가의 증언 (2) (3) (4) (5) (6) (7) (8) (9) 와 본조사단에 제출된 물질적 및 문서상 증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증되였다.

가스는 폭탄의 폭발후 즉시로 퍼졌으며 시초에는 이 폭탄에서 검은 연기가 났고 이 연기는 그 다음에 황록색으로 되고 다시 황색으로 변하여 끝으로 무색으로 되였다.

이 연기는 염소의 냄새에 비슷한 불쾌한 냄새를 피였으며 그 독성은 이 연기가 증발할 때까지 계속되였는데 그시간은 약 두시간이였다. 대피호안에 있던 사람들 (그중에 아동들이 많이 있었다.) 이 특히 중독이 심하였다.

희생자의 증후는 다음과 같았다. 호흡은 곤난하여지고 음성은 거칠어지고 현기증이 나고 기침을 하고 눈물이 나고콧물이 흐르고 두통이 나고 감각이 맥이 없어 지고 피부가 뜨거워지고 구토증이 나고 입에서 거품이나고 피를 토하고 열이나고 피부에 청색반점이 생기고 맥박이 약하여지고 극렬한 기관지염과 수명증이 생긴다. 혈색 검사의 결과 백혈구와 적혈구가 증가되고 헤모그로빈이 1백으로부터 115%로 증가된 것을 알게 되였다.

조사후 검진의 결과 폐의용량과 중량이 증대하여 륵골의 외면선에 다달으고 있으며 분비물이 쉬여 검붉은 액체가 실질 세포조직으로부터 흘러나왔다. 기관의 표면은 그 빛이 맑은 회색으로 되고 용이하게 터진다.

신장과 심장은 혈액 결핍의 증조가 보이고 모세관조직의 확대에 의하여 반점이 생기며 뇌막은 평평하여지며 그 구조가 팽창하여지고 해부한 척수골 골수에는 그 백색물질에 충혈을 보이고 있다.

본조사단이 남포에 갔을때에 시체해부의 결과를 보았다. 이 도시의 가스탄 공격을 받은 지역에서는 풀은 황갈색으로 되였고 동합금을 포함한 물건은 청록색으로 되였으며 은가락지는 흙색으로 변하였다.

본조사단은 이러한 물건을 몇가지 보았으며 이 물건들을 증인들이 증명하여 주었다. 1951년 7월 6일 오전 8시에 미국 젯트기 2대가 동북방으로부터 서남방향으로 원산의 남쪽에 있는 풍포리의 상공을 비행하였다. 그때 기온은 27도였으며 가벼운 바람이 서북에서 불었고 공기는 비교적 습기를 품고 있었다. 공중에는 구름이 없었다.

가스 혹은 어떠한 식별할수 없는 화학품이 이 마을의 동쪽 약 2백메타의 지점에서 1백메터 내지 2백메터의 지역에 퍼졌다. (10)

농민 안영화와 그아내 양춘옥의 2명이 밭갈이하려 나가는 도중에 피부에 불이붙는것 같은 뜨거움을 느꼈고 호흡이 곤난하여졌으며 눈물이 나고 눈을 뜨고 있을수 없었다. 보건성의 과학 위원회는 조사단을 파견하였고 (11) (12) (13) 목격자와 전문가 (14) (15) 조사단이 검토한 환자의 병력서는 이두 희생자가 1951년 10월 6일까지에는 건강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비행기들이 지나간 직후에 그들 (희생자들) 은 신체의 로출부분 (얼굴 손발) 이 근질러워졌으며 붉은점이 생겨서 그것이 콩알만하게 커지고 그다음에는 부풀어 올라서 그내부가 화롱하게되였다. 이 상처는 어떠한 내과병환의 증후로서 올수는 없는것이며 제2도 화상과 흡사하나 미란작용이 더욱 심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많이 걸렸다. 남자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원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녀자는 8월 20일까지 퇴원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입원하여 있는 동안에 아연연고를 바르고난후 고름 혹은 물이찬 기포가 터지고 가피가 벗어졌다. 그러나 약간의 흔적이 남았다.

이 가스가 퍼진 곳에서는 농식물의 10%와 특히 콩잎에는 약 1센치 메터의 사이를 두고 둥굴고 흰 점이 나타났으니 이것은 그 희생자의 신체 로출부분에서 발견된

붉은 점과 흡사하였다. 목격자들은 폭탄 폭발의 소리도 없었으며 기관총 소사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1951년 9월 1일 (황해도) 연성리와 원철리에 한마을에 하나씩 2개의 폭탄이 투하되였다. 이폭탄은 보통때와 다른 약한 소리를 내고 공중에서 터져서 검은 연기를 내고 다음에 황록색의 구름이 지면에 펴졌다. 일반주민 4명이 사망되고 40명이 중독되였는데 그증후와 결과는 1951년 5월 6일 남포 폭격때에 발견된것과 류사하였다.

나무잎은 떨어지고 지상의 곡식은 피해를 입었으며 유기는 흑색으로 되였다. (18) (19) (20) (21)

1952년 1월 9일 오후 4시경에 원산북쪽에있는 학선리라는 마을이 비행기 2대의 습격을 받았다. 그때 구름은 없었고 기온은 적어도 5도는 되였다. 이 폭격후 83명이 중독되였는데 그 증후는 남포폭격때에 발견된 것과 흡사하였다. 그위에 목이 가려워지고 입안에 단맛이 생긴것이 다르다. 이사실은 본조사단이 질문한 의사와 기타 목격자에 의하여 확인되였으며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또 강원도 인민위원회 보건부 부장이 제공한 정보 (32) 와 원산 중앙병원의 여러의사들의 보고 (33)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이상의 사실들은 조선에 있는 미군이 각종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이것을 많은 기회에 일반주민에 대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는것을 의심할 여지도 없이 증명한다.

제 4 장 대량학살 및 기타 비인간적 행동

녀성들과 아동들을 포함한 조선 일반주민들에 대하여 미국군대들이 범한 대량적 및 개별적 학살과 야수적 행동의 증거는 감행된 범죄의 량에있어서 나 또한 그 사용된 방법의 다양성에 있어서 전례없는 것이다.

본조사단은 자기보고의 이 부분에서 조사단이 방문한 다음과같은 두개의 도만을 실례로 든다.

(1) 황해도 본조사단원들은 황해도에서 신천 안악 사리원의 3개도시들을 방문하였다.

(2) 평안남도 본조사단원들은 다음의 지방 즉 평양시 순천 안주 개천 남포 군면리 (강서군 신정면) 의 6개 지방을 방문하였다.

제 1 부 대량 학살

1. 황 해 도

조사한 사건들 (본조사단앞에 제시된 여러사건중 몇개의 사건들) 은 다음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가) 신 천

인민위원회 위원장 변윤규의 증언에 의하면 1950년 10월 17일 부터 1950년 12월 7일까지의 미군 강점기간중에 즉 2개월미만에 3만 5천 3백 83인의 일반주민 (남자 1만 9천 1백 49명 녀자 1만 6천 2백 34명) 이 신천지방에서 살해당하였다.

이 숫자는 이 지역에 있는 상당한 수의 피난민을 포함하고있다.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의심할 여지없이 확증할 수 있다.

1950년 10월 18일에 신천시 인민위원회 건물뒤에서 약 3백명의 아동을 포함한 약 900명의 남녀에 대한 대량학살이 감행되였다. 부녀자들의 일부에는 임신한 녀자들도 있었다.

이 살해사건은 당시 미국점령군의 사령관 해리손 (한 증인은 할리손이라고 서술했다.)의 명령에 의하여 감행되였다.

해리손은 자기명령이 집행될때에 현장에 립회하여 그 광경을 사진찍었다.

그 학살은 다음과같은 방법으로 감행되였다.

학살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깊은 참호속에 몰아넣었다.

해리손은 그들에게 의복을 벗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나서 희생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태우라고 명령하였다.

참호속에서 나오려고한 사람들을 총으로 쏘아죽였다.

증인은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이 사람들의 아우성과 비명은 가슴을 찌르는듯 하였다. 타죽지 않은사람은 생매장을 당하였다. 해리손은 다음날 그곳에 다시와서 사진을 찍었다.』

1950년 10월 20일에는 약 1백명의 아동을 포함한 약 5백명의 남녀가 살해당하였다. 해리손은 이번에도 현장에 립회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방공호속으로 강제로 끌려들어갔다. 그방공호에는 출입구가 두개 있었다. 이방공호는 그당시 신천시 내무서뒤에 있는 암석을 파 만들었던 것이다. 해리손의 명령에 의하여 미국 병정들은 그방공호속에다 폭발약을 충전하고 밖에있는 도화선과 련결시켰다. 그다음 두 출입구를 흙가마니로 막았다. 해리손은 도화선에 불을 부치라고 명령하였다. 방공호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폭발에 의하여 살해당하였다.

1950년 11월중순에 또하나의 대량학살이 감행되였다. 부녀자와 아동을 포함한 약 5백명이 살해당하였다.

이사건에 대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해리손은 신천지방에 있는 구월산에 유격대가 숨어있다고 말하면서 그곳으로 토벌대를 파견하였다.

토벌대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미군 책임장교는 그부근 촌락들의 모든 주민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하였다. 신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촌리에서 그 미군 지휘관은 그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그사람들은 미군병정들에 의하여 기관총으로 총살되였다.

1950년 12월 7일미군이 이지대에서 퇴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을때 해리손은 미

군장교와 자기의 지휘하에 있는 조선 보조부대 리승만 장교들에게 연설하였다.

그특징적인 연설에서 퇴각은 『림시적』이며 『전략상리유』에 의한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아직 자유롭게 남아있는 주민들은 미군과같이 남으로 가야한다고 일러줄것을 그는 언명하였다. 『누구든지 여기에 머물러있는 자는 사실상 적으로 취급될것이며 그들에게는 원자탄이 사용될것이다.』

『빨갱이』의 모든 추종자들은 섬멸되여야 한다고 명령하였으며 조선 인민군의 모든 가족들과 전체 공무원들의 가족을 『빨갱이』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명령하였는바 그명령은 집행되였다.

그날 신천시 원암리 지구에 있는 두개의 창고에서 남녀 약 9백명에 대한 대량적 학살이 또 집행되였다.

그중 한 건물에는 2백명 이상 아동들이 있었다.

미군 병정들은 사람들의 의복에 기름을 퍼붓고 불을 질렀다.

창문으로부터 건물속으로 수류탄을 던졌다.

두아이들과 같이 건물내에 감금되여 있던 한조선부인은 창문으로부터 아이들을 내놓았다. 한아이는 총살되였으며 한아이는 도망하였다. 그어머니는 불에 타죽었다.

해리손과 그장교들이 현장에 림석하였다.(2) (3) (4)

본 조사단원들은 1950년 10월 20일에 대량학살이 감행된 무덤을 시찰하였다.

그 무덤은 조사단의 립회하에 일부 발굴되였다.

또한 본조사단은 10월 20일에 학살이 감행된 방공호와 창고들을 방문하였다. 한채의 창고는 그후 폭격으로 파괴되어 있었다.

방공호와 창고의 벽돌에는 불탄 자국들이 있었다.

신천지방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또한 대중학살들이 감행되였다. 례를들면 신천군 용진면 상성리에 미국병정들이 들어오던날 그들은 약 4백명의 사람들을 강제로 참호속에 몰아넣었다.

그중에는 한 젊은 녀자가 있었는바 그는 증언을 제공하였다.

그는 자기의 15명의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이사람들은 모두 생매장을 당하였다

그후에 주인과 다른 한 젊은 녀자는 참호로부터 겨우 몸을피하여 산으로 탈주하였다. (5)

1950년 10월 17일 부정리 (남부면) 지방에서는 미국인들이 4백명의 남녀를 지하실속에 강제로 몰아넣었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 지하실에는 사람이 꽉차있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수 없었다.

1950년 10월 18일 오후 7시경 미국인들은 그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고그들을 산채로 태웠다.

불에 탄 시체들은 그지방이 해방될 때까지 지하실에 남아있다가 그후에 그들의

가족들이 찾아내였다.

증인은 창문으로부터 겨우 빠져나왔던바 부상은 입었으나 그는 탈주하여 자기생명을 구출하였던 것이다 (6)

신천군 설매리 (로월면) 에서는 미군강점기간에 2천명의 남녀가 체포되여 갖은 방법으로 학살당하였다.

이들중에는 학살된 어린아이들과 70이 넘은 로인들도 섞여있었다. 한목격자는 감옥내의 무시무시한 형편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사람들은 항상 구타당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칼과 몽둥이로써 살해되였다.

증인은 학살될 예정이던 80명의 집단속에 들어있었다.

그는 총을 쏘는 소리를 들었으며 창으로 찔리였다.

그는 의식을 잃었다가 후에 정신을 차려 겨우 도망하였다.

여러번 그는 사람의 집단들이 살해되여 무덤속에 파묻히는것을 보았다 (7)

본조사단은 만나볼수있는 대량학살의 목격자들을 전부 심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본조사단은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언명한 신천지구 학살자 3만 5천명의 숫자를 확인하였으며 전쟁범죄 조사를 위한 조선인 조사단의 자료가 현실과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사 리 원

한증인은 (8)조사단에게 1950년 12월 5일에 한부대를 지휘하고 있던 미국장교의 명령에의하여 많은 녀성들을 포함한 약9백 50명이 사리원에서 5키로메터 떨어져있는 미라산위에서 총살당한 광경을 말하였다. 미국군대가 할수없이 이도시를 떠나기 바로 직전에 기총소사가 감행되였다.

본조사단원들은 사형이 집행된 산언덕과 희생자들의 무덤을 시찰하였는데 그 무덤은 조사단의 조사를 위하여 발굴되였다.

미국 군대가 사리원 대원리 지방에 들어온 직후 조선인민군에 복무하는 사람들의 가족전부를 포함해서 많은 주민들이 체포되였다. 한사람의 증인 (9) 은 젊은 녀자로서 약50명의 녀자와 30명의 남자들의 집단과같이 피검되였었으며 그중에는 1—2세의 아동들도 있었다. 증인은 미국병정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수감자들을 고문하였던가를 말하였다.

수감자들은 쉴새없이 구타당하였다.

가장 빈번히 사용된 고문방법은 사람들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코에다가 물을부어넣는 것이였다.

감옥속에서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살해당하였다.

사람들을 머리채로 묶어달아 매놓고 미국 병정들은 표적에 쏘듯이 그들에게 총을쏘았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때까지 구타하였으며 혹은 돌로 까죽였다.

3명의 녀성을 포함한 29명을 이방법으로 죽였다.

다른 수감자들은 이 살해장면을 강제로 목격하여야 되였다. 미국인들이 이 도시를 떠나지않으면 안되게 되였던 바로 직전까지 살아있던 수감자들은 감옥에서 끌

리여나와 총살당하였다.

그 증인의 아버지와 동생은 살해당하였다. 이 증인은 사람들이 사형집행현장으로 끌려나가고 있을때에 겨우 도망하였다.

또한 사람의 증인 (10) 은 약 7백명의 집단과 같이 사리원 감옥에 20일간 있었다. 수감자들은 모조리 구타 당하였다.

목구멍에다 물을 부어넣었다.

그곳에 있던 수감자들중에는 어린아이를 가진 녀성들이 있었다.

한사람의 임신부는 너무나 구타당하였기 때문에 락태하고 말았다. 저녁마다 미국병정들이 감옥으로 찾아와서 몇명의 녀성들을 골라간다음 몇시간후에 그 녀성들은 들어 오는데 그들의 의복은 쪼각 쪼각 찢어졌으며 거의 미쳐서 소리치는 것이였다.

1950년 12월 5일 미국인들이 퇴각할때 수감자들을 집단적으로 끌어갔다.

증언은 최후의 집단에 들어있었으며 겨우 도망할 수가 있었다. 그는 그뒤에 다른 수감자들이 모조리 살해당한 것을 발견하였다.

(다) 안 악

미군의 안악강점은 1950년 10월 18일부터 1950년 12월 5일까지 계속되였다. 이 기간중에 인민위원회 위원장 문종성이 작성한 보고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1만 9천 72명을 살해하였다. (11)

본조사단은 다만 이 살해사건들의 일부분에 대하여서만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였다.

한증인은 또한 1950년 10월 25일 장남이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리유로 체포되였다. 그 녀성의 차남은 도망하였다.

그날 저녁 미국인들은 이증인과 그의 적은 아들 두명도 포함한 수천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을 돌무지근처 강으로 끌고갔다. 그들은 두사람씩 묶이였다.

총과 총창으로 사형을 집행하였다. 이증인은 젊은 소녀와 같이 묶였던바 이 녀자는 총으로 찔렸다.

이증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나에게 총을 쏘았다. 그리하여 우리 두사람들은 다 정신을 잃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때 나는 나의 잔등이 무겁게 내려눌려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시체들이 내위에 쌓여있기 때문이였다. 나는 그들의 피로써 젖어있었다.』 이 녀자와 소녀는 부상을 당하였지만 겨우 도망하였다. 이증인의 두아들은 총살을 당하였다. (12)1950월 11월초에 안악군 안악면 신장리에서는 약 1천명이 생매장을 당하였다. 그아들과 손자가 생매장당한 한사람의 증인이 이사실을 진술하였다 (13)

미국인들이 퇴각하고 있던 동안에 그들은 주민들에게 그들과 같이 남방으로 가기를 명령하였다. 그들이 퇴각한후에는 원자탄을 그 지방에 투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민을 위협하였다. 수천명 인민들이 그들의 가족과 같이 남쪽으로 밀려가고 있었을 때에 미국 비행기들이 그들에게 기총 소사와 폭격을 하였다. 겨우 도망한

증인은 살해된 수가 약 1천 5백명이나 된다고 본조사단에 말하였다 (14)

(라) 기 타 지 방 들

조사단이 신천에있을 때에 다른 지방들로부터 증인들이 도착하여 증거를 제공할 기회를 요구하였다. 조사단은 그들중 겨우 몇사람만을 만날 수있었다. 만난 사람들 중에는 해주지방 동강해안과 연평도에서 온 증인들이 있었다.

미군강점 기간중에 약 6천명의 남녀 아동이 해주에서 학살되였다.

이들중에는 이지방의 미술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섞여있었다. 한 증인은 (15) 녀성을 포함한 5백명의 집단과 같이 감옥에 있었다. 이모든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끌려나와 증인은 겨우 도망하였다. 그의 친구 한사람이 이집단들중의 한집단에 들어있었는바 총을 맞아 세군데 상처를 입었으나 죽지 않고 후에 도망하였다. 그외의 모든 사람들은 피살되였다. 동강해안에서 1950년 12월말 한증인은 많은 녀성들과 아동들을 포함한 약 3백여명의 조선사람들을 미국군인들이 학살하는것을 보았다 (16) 그들은 총살당하였거나 또는 일본도로 목을 잘리였다. 미국인들은 그러한 일본도를 전부 수집하여 가지고 있었다.

1950년 12월 하순에는 연평도에서 대중학살들이 감행되였다.

그증인은 피살된 사람수가 약 2천명이였던바 그 일부분이 소년들과 소녀들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희생자들은 총살하였거나 또는 배에 실려가서 수장당하였다. 증인은 그자신이 총을 쏘는 것을 보았으며 또 미국인들이 수장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2. 평 안 남 도

이도에서 본조사단원들은 다음 지방들 즉 평양 순천 안주 개천 남포 구련리를 방문하였다.

(가) 평 양

미국인들이 퇴각할때에 삐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원자탄을 사용하겠다고 인민들을 위협하여 수천명을 강제로 대동강을 건느게 하였다. 강을 건느는 동안에 미국 비행기는 비무장인민들을 습격하고 폭격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1950년 12월 4일에는 약 1천명의 조선사람들이 그리고 1950년 12월 7일에는 약 3천명이 피살되였는바 그중에는 녀성들과 아동들이 포함되였다. (17) (18) (19) (20)

(나) 순 천

한사람의 증인은 1950년 11월 27일에 녀성들과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1백 43명이 어떻게 학살되였던가를 말하였다 (21) 또하나의 증인은 10월 20일 10월 21일 및 12월 2일에 미국인들이 범한 세가지 학살사건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첫 경우에는 한명의 녀성이 총살당하였고 두번째에는 2명의 녀성과 세번째에는 51명이 총살당하였는바 그중에는 5명의 신부와 5—6세의 아동이 몇명 끼여 있었다. 그학살 집행은 강동리 지방에 있는 강변에서 감행되였다.

(다) 안 주

1950년 11월 11일 미군 제24사단에서온 미국병정들이 로동당원으로서 인정된 25명의 조선사람들을 총살하였다. 학살전에 그들은 감금당하였고 구타당하였으며 조직적으로 고문당하였다. 몇 사람들은 전기고문을 당하였다. (23) 1950년 11월 19일 미국병정들은 4명의 조선사람들을 체포하여 살해하였다. 3일후에 그들은 약 20명을 체포하여 근방 산골짝에서 총살하였다 (24)

1950년 11월 23일에는 안주군 동면 룡흥리에서 미국 병정들이 9명의 로동자를 산채로 우물에다 집어 넣고 돌을 던져서 죽였다,

(라) 개 천

1950년 10월 29일 운룡리에서 미국병정들이 4백명 이상의 조선사람들을 살해하였다. 약 30명의 병정들이 이 대량적학살에 참가하였다. 살해전에 그 조선 사람들은 8일간 감금 당하였으며 구타와 전기고문을 당하였다. (26)

(마) 구 련 리

1950년 10월 23일 5세 미만의 60명의 아동 8명의 임신부 60세 이상의로인 5명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3명의 미국군인과 1명의 리승만군 병사에 의하여 총살되였다. (27)

1950년 10월 23일 또는 24일에 어린애기를 등에 업은 어머니들과 수명의 아동들을 포함한 80명의 사람들이 미군과 리승만군에 의하여 학살되였다. 어른들은 총살되고 아동들은 생매장 되였다. 한사람의 증인은 자기 아버지가 이학살에서 피살되는것을 보았다. (28)

구성진 농민은 다른 8명의 농민들과 같이 근처 언덕에서 미군과 리승만군의 병정들에게 체포되여 강제로 참호에 끌리여 들어가 거기에서 총살당하였다. 그는 부상당하고 의식을 잃었다. 명백히 그는 죽은것으로 오인되였다. 때문에 그가 의식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미국인들은 가버렸고 그는 도망할수 있었다. (29) 본조사단원들은 구성진을 동반하고 그 참호를 시찰하였다. 일행은 시체들을 보았다.

1950년 11월 23일 강서군 신정면의 50명의 사람들이 미 군대에 의하여 총살되였다. 살해된 사람들 중에는 이증인의 아버지와 그형제들이 포함되여있다. 그는 이 학살장면을 목격하였다. 그의 모친 조모 4명의 녀동생들 (끝동생은 3세) 그리고 2명의 남동생과 5세로부터 14세의 이웃 아동 약6명 피살되였다. 그중 몇 명은 총살되였고 다른 사람들은 생매장되였다. 이증인은 아동들의 학살장면을 목격하였다. 미군이 이지방에서 퇴각한 이후 다른 시체들이 발견되였다. (30)

(바) 남 포

1950년 12월 5일 미군이 퇴각하던 날에 그들은 한 공장에서 64명의 로동자들을 체포하여 근방에 있는 방공호에 넣고 사격 또는 수류탄으로써 학살하였다. (31)

제 2 부

개인들에 대한 고문 폭행 살해 여기에서 서술되는 조선남자 부인 아동들에 대한 살해 폭행 사건들은 상술한 사실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도들에서 자료를 얻은

것이다.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인정된 사건들에 관한것들을 이 보고에서 고려에 넣었다.

1. 황해도

(가) 신 천

미국군대가 신천군 초리면 월산에 들어온 바로 그날에 우말재의 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끔찍한 범죄를 감행하였다. (32)

미국인들은 증인의 남편의 손과 귀와 코를 쇠줄로 끼여 뚫렸다. 그들은 방에 있던 로동 표창장을 그의 이마에 못으로써 박아붙이고 그가 죽을때까지 고문했다. 5세로부터 25세까지 이르는 11명의 우말재 가족의 자녀들은 즉석에서 총살되였다.

우말재의 며누리는 미국병정들이 그 시아버지를 고문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려고 하였다. 미국인들은 이녀성의 머리채를 잡아서 나무에 빗그러 맨다음 젖을베고 국부에다 막대기를 박고 기름을 부은 다음 불을 질렀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 녀성에게 기름을 붓고 산채로 태웠다. 이 범행에는 약20명의 미국병정이 참가 하였다. 봉산군 영천면 미곡리에서 1950년 12월 5일 박용녀는 3명의 미국병정들에게 강간당하였다. 같은 동리에서 36세되는 녀성은 같은날 4명의 미국병정들에게 강간당하였다. (33) (34)

(나) 안 악

1950년 10월 18일 송산리 (내원면) 지방에서 미국병정들은 어른 아이 할것없이 모든 주민들을 학교건물안으로 몰아넣었다. 강간당하지 않으려고 반항했던 김화실이라는 녀성은 마당에서 발가숭이가 되였다. 체포된 모든 사람들은 이 녀성이 더욱 고문당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강요당하였다. 한메터나되는 긴곤봉을 그녀성의 국부에다 박았다. 그 녀성은 즉사하였다. 그 시체는 전선주에 매여달리였다. 미국인들이 퇴각할때까지 그시체는 그대로 매달려있었다. 이 모든 장면을 미국인들은 사진찍었다. 다른 10명의 녀성들도 차례 차례로 2—3명의병정들에게 강간당하였다. 그들동 곤봉으로 맞았고 발길로 채웠고 다리사이에 곤봉이 끼여졌다. 어린아이들은 어머니 젖가슴에서 떼여내쳤다. 구타와 강간과 학살은 8일간이나 계속되였었다. 1950년 10월 26일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변으로 끌려가서 총살당하였다. 한증인은 호위원이 도중 로상에서 머물러 잠간 어물어물할 때에 도주하였다. 그녀자는 유일한 생존자이였다. (35)신천군 용진면 삭석리에서는 증인 김현춘 동생인 12세의 소년이 미국군대가 자기부모를 때리는것을 방위하려고 하였을 때 미국 군대는 이 소년을 구타하고 그의 눈알을 뽑았다. (37)

(다) 사 리 원

1950년 10월 25일 사리원시에서 엠피 완장을 단 한 미국병정은 김창두라는 사람에게 끔찍한 살인을 감행하였다.

그는 칼을 가지고 목에서부터 아래배까지 희생자의 피부를 째고 산채로 피부를

벗기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다가 잘안되니까 그는 희생자를 돌로 때려 죽였다. 1950년 11월 11일 한젊은 녀성은 3명의 미국인들에게 강간당하였다. 그 녀성은 몹시 구타당하였으며 또한 발로 채웠으며 그의 목구멍에는 물을 부어넣었다. 다른 병정들은 56세된 로파를 강간하였다. (36)

(라) 해 주

해주시에서 미국병정들은 지방녀맹 위원장인 조옥희라는 젊은 녀성을 고문하였던바 이녀성은 증인과 같은 감방에 구금되여 있었다. 조사단원들이 심문한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미국군대는 그녀성에게 장시간에 걸친 고문을 하였다. 처음에는 그녀성의 눈을 뽑고 얼마뒤에 그의 코를 베였고 마지막에는 그의 젖을 베였다. (38)

2. 평안남도

(가) 평 양 시

미국인들의 만행과 범죄는 평양시에서 수없이 감행되였다. 전형적인 개인적 범죄는 강간 고문 살인이였는바 그 몇가지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1950년 10월 24일 림흥리에서 부모 2명의 아들, 2명의 딸을 가진 안득실의 전체가족과 8명의 아동 중 2명의 유아를 포함한 11명의 그의 친척들은 미국병정들에 의하여 생매장되였다. 미국군대가 철퇴한 후에 구뎅이 속에서 그시체가 발견되였다. (39)

1950년 11월 5일부터 12월 3일사이에 림흥리에서 25세의 시민 최기옥은 전기 고문과 구타를 당하였던바 그녀자는 옷을 발가숭이로 벗기우고 거리를 끌려다녔다. 그것은 그가 『빨갱이』라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였다. (40)

송석리 (평원군 평원면) 에서 1950년 11월 25일 12세나는 김영숙과 그 어머니는 『빨갱이』라는 리유로 총살당하였다. 조학률이라는 교원은 『빨갱이』라는 리유로 림흥리에서 체포되여 1950년 11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구금되였다. 그는 고문당하고 학살되였다. 그의 어머니 계길녀는 『빨갱이』를 낳았다는 리유로 체포 구금당하였고 구타 당하였다.

(나) 개 천 지 방

1950년 10월 15일에 미국인들은 현역 병사와 그 어머니를 그집에서 체포했다. (6장참조) 그들은 어머니와 그 아들을 목을 쏘아죽였다. 언덕에 숨어있던 그 아버지는 그들이 체포되는 것을 보았고 그뒤에 시체들을 찾아내였다. (43)

1950년 10월에 미국병사들은 4명의 아이들을 가진 한 어머니를 집에서 끌어냈다. 이 아이들중에서 7세되는 소녀와 7세되는 남아가 어머니의 치마자락에 매달리는 것을 미국인들은 그 어머니의 전면에서 계집애는 목을 눌러죽였고 남아는 총탁으로 때려죽였다. (44) 이 지방 녀맹의 지도적인 맹원인 리선실은 1950년 11월 17일 체포되여 11월 29일까지 감금되였다. 이 녀성은 전기고문을 당했으며 2명의 병정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옷을 벗기운채 거리로 끌려다녔다. 미국인들이 퇴각한 바로 그날에 그녀성은 겨우 탈출하였다: (45) 1950년 11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증인 김용선은 감금되여 있었다. 그는 구타와 전기고문을 당했다. 11월 29일에 그는 다른 수김자들과 함께 살해당하기로 되여 사격을 받았다. 그는 중상을 입고 기절을

하였으나 밤에 쟁신몰어 간신히 도망하였다 (26)

(다) 안 주

대리면 협흥리에서 25세되는 교원 김태순은 『빨갱이』라는 리유로 구금되고 전기로 고문당하고 구타당했다. (1950년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북송리 (안주면) 에서 『빨갱이』라고 하여 최명순이가 체포되여 감옥에서 구타당하고 그뒤에 학살당했다. 시체는 그 근처 못에서 그 아버지가 발견했다. 1950년 11월 19일 (45)

북송리에서 세사람의 농민은 미군이 비법적으로 령수증도 대가도 없이 그들의 곡식을 몰수해가려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체포 학살되였다. 1950년 11월 19일 (46)

맹리 (동면) 에서 38세된 농민 박창록은 미군이 돼지와 곡식을 비법적으로 령수증도 대가도 없이 몰수하려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1950년 10월 23일에 체포되였는데 그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결박되여 산채로 우물에 거꾸로 집어넣었다. 시체는 미국군대가 퇴각한 직후에 그 어머니가 찾았다. (47)

오리 (신안주면) 에서 1950년 11월에 28세되는 유부녀 리선옥이란 녀성은 강간에 반항하였기 때문에 학살되였다. (48)

구정리 (순천군 밀전면) 에서 1950년 11월 20일 12세되는 차덕군이란 소년은 농민인 그아버지 어머니와 더부러 체포되여 총살당할번 하였다. 부모는 그때 총살되고 그 소년만은 부상되였다가 그뒤에 탈주하였다. (49)

봉림리에서 1950년 11월 21일부터 29일사이에 농민 리화순은 미군이 법적으로 령수증도 대가도 없이 곡식을 몰수하는 것을 거절했기때문에 구타 학살되였다.(51)

룡림리 (운곡면) 에서 1950년 11월 20일부터 30일사이에 3명의 어린애를 포함한 한농민의 전가족은 곡식의 몰수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체포되여 감금당하였다. 그 어머니와 한아이는 학살되고 16세의 리윤숙을 포함한 다른 두아이들도 학살될번하였다. 그중에 두아이는 수류탄에 부상되였으나 살아서 도망할 수 있었다. (50)

(라) 순천 상리에서

1950년 11월 64세된 리씨가 강간당하였다 (51)

(마) 구 련 리 에 서

1950년 11월 23일에 농민 오봉년은 체포되여 구금되였다. 미국 병사들의 지휘와 그 립회하에 리승만 군대에 의하여 빨갛게 단 쇠로써 고문을 받았다. 같은 증인은 같은 감옥에서 정송백이라는 녀성이 미국군대와 리승만 군대에 의하여 고문당하고 얼마뒤에 살해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27)

보고의 이 부분에서 조사단은 그 외견상 확실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믿는 직접적 증거들에 의하여 립증된 사실들을 진술하는데만 국한하였다. 상당한 분량의 진술서들이 조사단에 제출되였는데 이것은 주요한 증거들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들을 확증하는 방법으로써만 고려되였다.

우리는 여러 지방에서 상술한 바와같은 많은 사건들을 조사하려 오라고 초청을 받았으나 다만 시간이 허락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였다.

조사단원들은 희생자들이 론쟁할 여지없이 일반주민들이며 일반주민들로서 취급

받을 자격을 가진 경우에 그리고 그들이 재판도 받지않았으며 또 점령군에 대하여 자기를 변호할 권고도 받지않은 그러한 경우에만 관련하는데 만족하였다.

조사단이 방문한 장소에 대부분에서는 인민을 감금하였거나 대량적으로 학살한 환경이 일정한 공통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조사단은 이 사전들을 단순히 개별적인 병사들이나 부대들에 의하여 감행된 무절제한 사건들이라고만 취급할수는없다. 대량적 학살은 본질상 두가지 범주로 분류되는데 그 하나는 지방주민의 살해이며 다른 하나는 피난민에 대한 살해이다. 지방주민을 학살한데 대하여서는 미국군대가 한지방에 침입하자마자 단독으로 또는 리승만 도당들이나 일본인 앞잡이들을 시켜서 조선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모든 사람들 또는 국가기업소나 정부기관 복무자들의 가족이나 또는 로동당 열성분자 또는 녀성동맹의 지도적 활동을 한 열성분자들의 가족들을 모조리 검거했던 사실이 증명되였다.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 이는 젊은 남자가 없는 모든 가족들을 체포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경우에 이러한 검거는 남녀로소를 전부 포함했었다. 어떤 경우에는 한동리의 주민전체를 체포한 일도 있었다. 더우기 많은 촌락들에서 농민과 그 가족들이 당국의 정당한 인정서가 없이 또는 령수증이나 보상을 받지않고 곡식과 가축을 넘겨주는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되였던 것이다. 강점시기에 모든 지역에서 집단학살이 계속되였지만 학살된사람의 절대다수는 강점되는 첫며칠동안이 아니면 강점자들이 그 지역에서 퇴각하기 직전에 살해당했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시찰한 모든 도시들에서는 강점군대들이 퇴각하기 전날 또는 퇴각하던날 인민을 이런 저런 리유로 잡아다 가두었고 그들을 계획적으로 학살하였던 것이다.

피난민 살해에 관하여서는 두기간으로 구분된다.

미국군대가 1950년 9월과 10월에 북으로 진군할때에 많은수의 피난민들이 북쪽으로 피난하다가 특히 신천 안악지구에서 미국군대에 의하여 차단되였다. 이 피난민들은 피난민인것이 분명히 알수있었는바 (부녀자와 아동들을 포함한 전가족들 남자들은 재래의 조선 흰 옷을 입었고 녀성들은 빛갈이있는 긴치마를 입었다.) 그들은 조선 인민군대와 섞여있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집단들이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조직적으로 학살되였던 것이다.

(ㄴ) 1950년 11월—12월에 미국군대가 퇴각할때에 대부분의 도시들의 많은 주민들을 삐라와 위협으로써 강요하여 그들로 하여금 원자탄이 투하될것이므로 미군과 함께 이남에 가야할 것이라고 확신케 하였다.

이러한 피난민들은 수천명씩 미국군대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학살되였다.

개인들에 대한 고문과 야수적 행위는 시찰한 전 지역을 통하여 그 행동에서 공통한 형태를 다시한번 보여주고 있으며 어느 개인들의 무질서한 잔악행위로서 간주될 수 없는 것이다.

보고의 이장에서 례거된 사건들의 전부를 범행된 사건들의 전체증거라고 보아서는 안되며 조사단이 주의해서 조사한 많은 이와 류사한 사건들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아니된다. 구타하여 발길로 차며 전기고문하는것 코와 목구멍에 물을

부어넣는 것 신체의 여러부문을 절단하며 사지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인민들을 고문하며 총살하며 창으로 찌르며 질식시키며 폭살하여 산채로 태으며 생매장하는 방법으로 불구자로 만들며 죽이는 것이 대단히 횡포하게 반복되였다.

조사단은 이러한 확증된 사실들로부터 뒤에나오는 결론을 얻었다.

제5장 일반 주민에 대한 공습

(가) 도시와 농촌의 파괴

북위 38도 이북의 조선 각 지역을 려행하면서 조사단원들은 그들이 통과한 혹은 류숙한 소 도시들이 모두 완전히 파괴되였거나 혹은 불과 몇개의 집들이 서 있는 것을 친히 보았다. 그들은 또 혹심한 피해를 입은 많은 촌락들을 보았다. 약간의 특징적인 실례를 조사하여 미국 비행기에 의하여 이러한 파괴를 당하였다는 것과 그 파괴시의 정형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실증을 얻었다.

(1) 평양시

북조선의 수도는 모란봉을 중심으로하고 넓게 들어선 큰 도시이다. 전전에는 46만 4천명의 인구를 가졌었으나 이것이 줄어서 1951년 12월 31일에는 18만1천명의 인구가 있을뿐이였다. 평양시 인민 위원회 부위원장 리학수는 본 조사단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950년 6월 27일 이래 평양시는 주야로 무수한 공습 목표로 되였다. 이 공습의 전 과정을 통하여 3만개 이상의 폭탄(폭탄, 소이탄, 류산탄)이 이 도시에 떨어졌다.

1951년 12월 31일까지에 총 가옥수 8만동중 6만 4천동이 파괴되였다. 1951년에만 이 폭격으로 인명에 있어 4천 7백 68명이 살해되고 2천 4백 38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병원과 진료소 32개소, 교회당 64개소, 학교와 종합대학 건물 99개소, 박물관 1개소, 극장 29개소가 완전히 파괴되였다.

공공 기관의 관리하에 있던 병원은 적십자 표식을 하였다. 1950년 8월 18일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사 위원회는 일반 보건 사업에 사용되던 일체 건물과 차량은 되도록 신속히 적십자 표식을 달고 이 표식이 공중과 기타 방면에서 명백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령하였던 것이다. (1)

조선 인민군 부참모장 유성철 중장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평양시에는 한곳의 병기창도 없었으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장은 전혀 없었다. 또 이 도시의 방어를 위하여 군대가 주둔한 일도 전혀 없었다. 그뿐 아니라 이 시내에는 고사포대는 하나도 없었다. 고사포대는 시내로부터 약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시외에 배치되여 있었다. (2)

본 조사단원들은 이 도시를 방문하고 주택들의 대부분이 대량적으로 파괴되여있음을 보았다. 또 조사단은 몇 군데에서 교회당이 파괴된 것을 보았는바 아직 남아

있는 첨탑으로 그것이 교회당임을 알아 볼 수 있었다. 조사단은 또 김일성 대학이 파괴된 것도 보았다. 이 대건물은 시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 위에 있었는데 67차 폭격을 당하였고 그 후에 미군이 평양을 철퇴할 때 그들은 이 건물에 방화하였다.

평양의 폭격에 대하여 한 목격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50년 9월 16일 즉 전투가 상당히 먼 거리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1백대 이상의 삐 29가 소이탄으로 이 도시를 습격하였고 그 다음 약간의 시간을 두고 그라만 40대가 다시 공습하였다. 이 공습은 일기가 청명한 날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1시경까지의 사이에 있었다. 처음에 공중에서 일차 폭발하고 그 다음 지면에 접촉하여 다시 폭발하는 류산탄이 이 도시에 처음으로 투하되였다.

가옥의 연소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났다. 모란봉 위 해방탑 근처에 피난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였다. 여기에만 시체 70개가 있었으며 방공호입구에 시체 17개가 있었다. (3) (4) (5)

이 폭격으로 많은 건물이 파괴되였다. 그 파괴가옥중에서 첨탑과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관후리에 있는 교회당이였다. (6)

이외에도 여러번 폭격이 있었다. 그중 몇가지 실례를 들면 1950년 12월 3일(야간) 삐29편대에 의하여 폭격을 받았으며 그다음에 1950년 12월 8일 일기가 청명한날에는 삐29 7대에 의하여 그리고 1950년 12월 24일 청명한 주간에는 삐29 6대에 의하여 폭격을 받았다. 1950년 12월 27일에는 삐29 11기의 공습을 받았으며 1951년 1월 3일에는 다수의 삐 29가 소이탄을 사용하는 공습을 감행하였다. 또 1951년 7월 30일의 저공비행하는 젯트기 50대에 의한 공습과 1951년 8월 15일 다수의 전투기와 폭격기에 의한 공습등을 들수있다. 공습의 대부분은 1950년 10월 19일부터 동년 12월 3일까지 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었던 미국 군대가 떠난 다음에 있었다.

조사단은 많은 증인들로부터 교회당과 학교들의 파괴에 대한 상세한 정황들을 들었다. (7) (8) (9)

(2) 평안남도 순천읍

이 시가에는 공습 전이나 그 후에나 군대 혹은 고사포대가 없었으며 오직 화학공장이 1개소 있었을 따름이였으나 여러번 폭격당하여 거의 완전히 파괴되였다.

본 조사단에게 증언한 증인들은 혹심한 공습으로 어떻게 파괴되였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말하여 주었다.

미군이 이 도시로부터 철퇴한 후인 1950년 12월 4일에 운동장으로 뚜렷이 알수있는 학교를 폭격하여 파괴하였다. 1950년 12월 15일 아침에 젯트기들의 공격으로 많은 건물이 파괴되였으며 많은 인명이 살상되였다. 이 공습으로 50명이 피살되였는데 그중 11명은 기관총소사를 받은 것이다.

1951년 1월 11일에 약 30대의 삐29가 이 시가에 폭탄을 투하하였으며 그때 교회당 몇개가 파괴되였다. 이 교회당들은 다른 건물들과 혼돈될 수는 없었던것이다. (10)

(11) (12) (13)

(3) 평안남도 개천읍

이 시가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다. 본 조사단에 증언한 증인중 한사람은 여러번 폭격이 있은가운데서 1950년 7월 2일과 동년 10월 13일의 폭격이 가장 심하였는데 이 두번폭격만에 의하여 총 인구 7천 5백명중 근 1천명이 피살되고 근 6백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비행기들은 급강하하여 시가의 일반주민을 기총소사하였다고 말하였다. (14)

또 증인중 한사람은 8월 13일에 학교임을 용이하게 알아볼수있는 교사를 파괴한데 대하여 자세히 말하였다. (15) 본 조사단은 이 도시의 폐허를 방문하였다. 거기에는 지상에 주택 한채도 있는것같지 않았다.

병원, 학교, 교회당, 공공건물 할것없이 모두 파괴되였다. 1951년 5월에 개천을 방문한 국제 민주녀성동맹 대표들은 그들의 보고에서 이 도시의 여러병원중 지붕이 일부 남아있는 곳이 한곳 있었으며 그위에 아직까지 적십자의 표식이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1952년 3월에 본 조사단원들이 개천에 갔을때에는 이건물의 나머지 조차도 그동안에 전부 파괴되고 그 표식은 보이지 않았다.

전전에 있던 집 총수 1천 3백 42동중 단지 15동이 남아있었다. 현재 인구는 4백 60명이다.

이들은 주로 시가지 주변 산기슭의 방공호에나 시내의 폐허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교외의 철도선을 제외하고는 시내에는 군대도 고사포대도 시내 군사목표물도 없다.

(4) 안 주 읍

이 도시는 심대한 손해를 입었다. 두개의 병원과 한개의 카톨릭 교회당과 많은 학교들이 공습으로 파괴되였다. 전전에 주택 2천 7백 8동이 있었는데 그중 2천 1백 72동이 파괴되였다.

미국군이 철퇴한 그다음날 폭격으로 63명이 피살되였다. (16) 이 파괴된 건물들은 철도연변에 있었던것도 아니다. 시내에나 근처에는 군대, 고사포대, 군용시설 또는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는 공장이 없었다.

(5) 남 포 시

남포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본 조사단에게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전쟁전에 인구 10만을 가졌던 이 도시가 미국비행기의 습격을 처음 받은것은 1950년 7월 6일이였으며 그중에는 B29가 수대 끼여있었다.

이 폭격으로 미곡창고와 다량의 식량 가마니가 파괴되였다. 그후 1950년 7월 8일과 동12일에 또 공습이 있었다. 이 폭격중에 17개의 학교, 2개의 병원, 3개의 진료소, 한개의 극장이 파괴되였다. 미군이 이도시를 점령할때까지 폭격이 계속되였으며 그들이 이 도시를 철퇴한후 비행기와 군함에의한 폭격과 포격이 다시 계속되

였다. 특히 B29에 의한 란포하고 살인적인 폭격은 1951년 5월 6일에 있었다. (17) (18) (제3장 참조)

여기에는 군대도 없었으며 군사시설도 없었으며 무기생산공장도 없었다. 이 항구는 어선들만이 리용하고 있었다. 이 도시의 교외에 있던 초자공장과 주물공장은 전쟁이 개시된 직후에 파괴되였다. 철도는 여러번 반복하여 폭격당하였다.

본 조사단원들은 이 도시를 방문하였을 때에 이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였음을 보았으며 큰 중학교가 폐허로된것을 보았다. 이 학교는 작은 산위에 홀로 서있었으며 그 주위는 운동장으로 되여있었다. 넓은 들판가운데 서있는 병원 한채와 교회당 몇곳이 폐허로 되여있는것도 보았다. 단원들은 병원의 지붕에 적십자를 그렸던 흔적을 보았다. 기관총탄의 자리가 무수하게 보였다.

(6) 사 리 원 시

이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였다. 사리원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옥영자는 본조사단에 대하여 이 도시가 빈번히 폭격당하였다고 말하였다. 가장 심한 폭격은 1950년 9월 14일과 동21일에 있었다. 그외에도 B29와 쌍발기, 그라만등에 의하여 1950년 10월 12일, 1951년 2월 5일, 4월 3일, 동 23일, 5월 15일, 8월 1일, 10월 12일, 12월 25일에 각각 폭격이 있었다.

이 도시에 투하된 폭탄의 수는 약 3천개로 추산되고있다. 이 도시에는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는 공장이 없었으며 주둔하는 군대도 없었고 군사시설도 없었으며 철도는 적대행위가 개시된 이래 사용되지않았다. 고사포대는 1951년 하반기에 와서 설치되였던 것이다.

폭격으로 파괴된 건물중에는 11개의 학교, 1개의 도서관, 4개의 구락부, 4개의 교회당, 16개의 병원과 진료소등이 있었다. 이 병원들은 민간관리하에 있었으며 인민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적십자의 표식을 하였다. 폭격과 기관총소사로 1천3백91명이 살해되였으며 3천명 이상이 부상당하였다. (19) (20) (21) (22) (23)

(7) 신 천 읍

B29, 쌍발기, 그라만등에 의하여 여러차례 폭격당하였으며 특히 1950년 8월 13일, 1951년 12월 23일이 심하였다.

폭격은 주로 주간 일기가 청명한날 반시간내지 한시간동안 계속되였다.

이 도시의 근처에서는 전투는 전연 없었다.

신천읍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공장은 없었으며 군사시설이나 고사포대도 없었다. 군대는 여기에 주둔하지도 않았다. 철도는 전쟁초기에 파괴되였고 그 후로 사용되지 않았다. 병원들은 공공관리하에 있었으며 적십자 표식이 되여있었다.

(8) 안 악 읍

이 도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문종성은 적대행위가 개시된이래 이 도시는 대단히 빈번히 폭격당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중 주요한 공습은 1950년 9월 20일경과

1951년 4월 및 5월에 삐29와 젯트기에 위하여 행하여졌다. 여기에는 군사시설도 없었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장도 없었고 고사포대도 철도도 없었다. 2개의 교회당, 8개의 학교, 1개의 병원이 파괴되였다. 이 병원은 공공관리하에 있었으며 적십자 표식이 있었다.

기관총소사로 9백 11명이 살해되였다. 폭격당시 전선은 이 도시로부터 1백 20키로내지 2백키로 떨어져 있었다.

(9) 룡 강

본 조사단원들은 폭격에 의하여 파괴된 촌락을 한례로서 조사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룡강을 방문하였다.

이 마을은 평양의 서남에 있으며 1951년 1월 12일 오전 11시에 쌍발기 6대에 의하여 세시간동안 폭격받았다. 이 비행기들은 소이탄 약1백50개를 투하하고 또 주민을 기총소사하였다. 전 호수 1백 15호중 36호가 완전히 소실되였다. 이때 8명이 살해되였으며 그중에는 두살에서 열다섯사이의 어린아이 6명이 포함되였다. 또 그외 2명이 중한 화상을 당하였다. (26) (27)

위에 렬거한 례들에 의하여 미국 비행기들은 대체로 군사적 시설이 없는 후방의 도시와 촌락의 상공을 비행하였으며 이도시와 촌락을 무차별 폭격하여 일반주민에 많은 사상자를 내게 하였고 적십자 표식을 한 병원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학교, 교회당들이 파괴되였다는 것을 증시하고 있다.

(나) 외따른 건물의 파괴

(1) 구련리에 있는 학교의 파괴

1952년 3월 11일 오전 9시반 본조사단이 조사를 위하여 이지점을 지나갈때에 그라만 비행기 4대가 폭탄으로 한 학교를 습격하였다. 이 학교는 주민들의 주택으로부터 약 1키로 떨어져있었다. 이 학교는 그 건축양식으로 보아 용이하게 식별될수 있었다. 이 건물은 결코 공장과 혼돈될 수 없었다.

본조사단원들이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 건물이 손상당하지 않았음을 볼수 있었다. 그직후 폭격으로 그 지붕이 파손되였다. 그다음에 비행기들은 급강하하여 기관총 소사를 하였다.

그러나 희생자는 없었다. 구련리에서 철도까지의 최단거리는 40키로였다. 여기에는 군사시설도 군사적 목적으로 쓰는 공장도 주둔중의 군대도 없었다.

폭격직후에 본 조사단원들은 이 폭격을 목격한 한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였다. 본 조사단원들은 친히 그 피해를 조사하였다. (28)

(2) 문화건물들의 파괴

물질문화 유물조사 보존위원회 위원장 한흥수 박사는 본조사단에 건물과 문화유

물의 파괴에 관한 보고를 제공하였다.한 박사는 또 건축예술상으로나 혹은 력사적으로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번에 파괴된 건물 (사원, 궁전, 루각) 29개소의 목록을 주었다.이 건물들은 대개 미군의 후퇴직후에 폭격된 것이다.미군 사령부는 폭격당한 목표물의 문화적 가치를 무시할수는 없을 것이다.한 박사가 지적한바에 의하면 이 파괴된 건물의 대부분은 종교적 전통에 부합하는 관례적인 건축상의 특징을 가진 건물들이였다. 한홍수 박사는 본 조사단에 많은 사진을 주었다. 이사진으로 보면 파괴된 사원들은 특징있는 양식으로 지은 집단 건물이였으며 대개 인가와 떨어진 벽지에 있었다. (29)

본 조사단은 영명사의 파괴를 조사하기 위하여 평양으로 갔다.이 절은 11세기의 건물로서 가장 오래된 고대건물의 하나이며 대동강을 내려다 보는 모란봉 산기슭에 있는 공원에있었다. 이 절의 근처에는 다른 건물이 없었다.

영명사의 폭격은 미군후퇴 후 얼마 아니된 1951년 1월 3일에 있었다. 이절은 청명한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삐29에 의하여 소이탄으로 파괴되였다. 이 공습시에 소이탄은 이 절에서 8백 메터 떨어진 곳에도 락하되였다. 그러나 모란봉의 다른 부분은 그날 폭격을 받지 않았다.

이곳을 방문한 본 조사단원들은 그 사원이 완전히 파괴되여있음을 목격하였다.

본조사단은 조선각지를 려행하면서 친히 도시와 촌락, 병원, 교회당, 학교, 공장, 제작소, 교통수단들의 무서운 파괴를 목격하였다. 또 본 조사단은 국제법에서 승인되여 있는 그러한 군사목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장소들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인한 파괴를 헤아릴수 없이 많이 목격하였다. 방어도시와 무방어 도시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이 완연하다.

전쟁법규도 어떠한 건물이 보호되여 있는가 없는가는 어떠한 차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본 조사단은 또 조선인민이 그들의 집과 그들의 마을을 파괴당하고도 오늘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보았다.도시의 폐허와 산기슭에 판 땅굴 속에서 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일상 생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논밭을 갈고 있으며 지하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를 지하학교 혹은 굴속 학교에 보내고 있으며 여가가 있으면 지하극장과 영화관에 가고있다.

미국 비행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황폐화는 국제법의 모든 개념에 상반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견지에서 리해되여야 한다.

제 6 장 기타의 전쟁범죄

(가) 민간 재산의 고의적 파괴

미국 군대에 의하여 일시 강점당하고 있었으며 또한 조사단원들에 의하여 시찰된 거의 모든 도시들과 농촌들에서 민간재산의 고의적 파괴사진들이 조사되였으며 미국군대가 퇴각한 후에 지방 인민위원회들에 의하여 임명된 조사위원단이 작성한

조사서들이 제시되였다.조사단은 수개 도시들에서 전형적 사건들을 조사하였으며 목격한 증인들에게 질문하였다.

개 천 지 방

개천 고급중학교와 초급중학교의 현대식 교사는 그 교정 가운데 서있었는바 이 도시가 미국군대에 의하여 점령당하였던 기간에 군사상 목적에 사용되였다.

그들이 이 도시에서 퇴각하던 1950년 11월30일에 이르러 그들은 이 건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파괴하여 버렸다.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공공건물들도 이와 류사한 방법으로 파괴되였다. (1) (2)

평 안 남 도 순 천

관상 1리에 있는 순당인민학교는 미국 륙군 병원으로 되고 있던바 미국군대가 퇴각하던 1950년 12월 4일에 이르러 패주하는 군대는 이 건물을 휘발유로 방화하고 파괴하여 버렸다. (3) 이 지방에 있는 다음의 건물들도 1950년 12월 2일과 4일에 걸쳐 이와 류사하게 파괴되였다.

순천 녀자중학교, 순천인민하교, 은산 녀자중학교, 순천 남자중학교, 밀전 인민학교 2개소 순천 "천주교" 교회 (로마카톨릭) (4) (5)

(나) 문화재의 략탈과 파괴

평 양 박 물 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박물관들중 가장 중요한 이박물관은 평양을 강점하였던 미국 군대에 의해서 1950년 10월 29일과 11월 3일에 략탈당하였다. 증언은 박물관의 략탈을 목격한 동 박물관장에 의하여 진술되였다. (6) 공원지대로 둘러싸인 언덕위에 있는 이 박물관 마당에는 콩크리트 암실이 건설되여 있었다.미국인이 점령하기 전에 이 박물관의 보물들은 이 암실에 안치되였고 암실은 필요한 환기가 가능할 정도로 밀폐하고 흙으로 묻어버렸다. 한 상관의 지휘밑에서 행동하는 미국군대는 이 암실을 탐색하여 이를 발견한 후 파괴하여 헤치였다. 그리고 그들은 외형상 가장 가치있다고 보이는 물건들을 미국군용 화물자동차에 실어가 버렸다.

박물관에 있는 금고를 파괴하여 열었으며 조상은 함부로 파손하였다. (6) 이번전쟁이 시작되기 여러해전부터 조선물질문화 유물조사 보존위원회 위원장이며 전쟁개시 이후로는 유물의 파괴와 손실을 조사할 책임을 진 한홍수 교수의 이와같은 건조물들의 폭격에 의한 파괴에 대한 증언은 본 보고서 제5장에 인용되였다.

동씨가 말하는바에 의하면 미국인의 강점기간에 상술한 평양 박물관외에도 그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의 력사박물관, 청진 력사박물관, 함흥 력사박물관, 평안북도묘향산 특수 박물관과 황해도 해주 력사박물관에 침입하였다. 그리하여 예술적으로나 또는 력사적으로 가치있는 6천 7백9점의 유물이 략탈 또는 파괴되였고 자료와

서적들이 불살려 버려졌다. 그밖에도 함부로 헐어놓고 파괴한 력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들 중에는 평안남도 강서군의 고구려시대 (서기 400년경) 의 벽화가 들어있는 고분이 있는바 이것은 파괴당한 다음 창고로 사용되였다. 역시 평안남도 룡강군에 있는 화려한 벽화가 들어있는 고분은 조선 일반 주민들을 감금하는 감방으로 리용되였다. 또 황해도 안악에 있는 한 고구려 벽화 고분에는 수류탄을 던저 이를 파괴하고 그후에 폭격하여 버렸다. (7)

(다) 곡물의 파괴와 몰수

제4장에 서술한 많은 사건들에서 먼저 사람들을 체포해 놓고 그에 뒤이여 박해 또는 학살한 것은 그들이 징발에 대한 정식 기관의 증명서도 없이 령수증이나 또는 대금의 지불도 하지 않고 곡물과 가축을 몰수하려는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였다.

그밖에도 자기지방에서 미국군대가 철퇴한후에 각 군인민위원회 조사단이 준비하였던 통계가 본 조사단에게 제공되였는바 그것은 식량과 가축들을 점령군대에게 제공할 필요에서가 아니라 일반 주민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점령군대가 대량적으로 략탈하고 함부로 파괴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2) (5)

본 조사단에 의하여 조사된 전형적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순천군 창이리 1950년 12월 15일 이 지방에서 미국군대가 퇴각한 직후에 곡판에 쌓여있던 곡식 가마니들은 미국비행기가 대낮에 저공 비행으로 투하한 소이탄에 의하여 소각되였다. (8)

안주군 룡림리 1950년 10월 19일에 농민들의 한 가족은 30명의 다른 리민들과 함께 체포되여 감금되였는바 이것은 그들이 미군이 당국의 청구서도 없이 령수증이나 대금지불도 없이 곡식과 가축을 제공하라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였다. (9)

개천 1950년 11월 2일에 미국군대는 현물세 창고에서 5백포대의 벼와 옥수수를 화물자동차로 실어다가 다리로 사용하였다.

개천군 산포리 1950년 11월 5일에 미국군대는 2명의 농민의 마당에 있던 5백말의 쌀을 휘발유로 불태워버렸다.

안주군 북송리 1950년 11월 19일에 미국군대는 명령서의 제시도없이 령수증도 대금지불도 없이 곡식과 가축을 강탈했다.

(라) 전쟁포로에 대한 범죄

개천서는 군복을 입고 군인증을 가지고 있던 조선인민군대의 한 전사는 자기 아버지 차유석의 집에서 자기의 어머니와 함께 미국병사들에게 포로로 잡히였다. 이틀이 지나 그와 그의 어머니는 미국인들에게 총살되였고 그들의 시체는 그의 아버지에 의하여 발견되였다.

벽동 제5호 포로수용소는 미국 항공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차례나 폭격당하였다.

1950년 11월 9일 오후 2시

1950년 11월 14일 오전 9시 30분

1950년 11월 19일 오후 1시 30분

조사단은 제1차폭격이 있은다음 수용소의 위치를 상세히 표시하여 항의문을 유•엔에 보내였다는 보도를 조선당국으로부터 들었으나 이와 관련된 문건은 보지 못하였다. 현재 수용소에는 공중에서 볼수있는 커다란 표식이 붙어있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일기는 맑았고 압록강과 그 지류가 합치는 곳에 있는 작은 반도의 한 끝에 놓여있는 이 수용소는 다른 목표로 오인될수 없는 것이다. 전쟁포로들은 대피하여 있었기 때문에 사상자는 없었으나 가옥은 파괴되였다.

창성 평안북도 제1호 포로수용소는 두차례나 미국항공기의 폭격을 당하였다.

1950년 10월13일 오후10시에 2명의 영국장교와 1명의 영국인 포로병,5명의 미국인 포로병이 부상당하였고 3명의 미국인 피해자는 그후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수용소 소원들중 2명이 사망하였으며 1명이 부상당하였다. 유•에쓰의 마크가 찍힌 폭탄파편과 폭탄꼬리가 발견되였다. 1952년 3월 16일 재차 폭격을 당하였는바 그결과에 영국 포로들의 숙사 3개소가 파손되였으며 영국포로 1명이 부상당하였다.

이 수용소는 북조선의 산악지대에 있는데 수용소 부근에는 철로도 병영도 군용창고도 시설도 기타 군사적 목표로 될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차례에 걸친 폭격에 관한 증거는 수용소내의 다수 영국인 포로병에 의하여 조사단에게 제공되였다. (13) (14)

제 7 장 결 론

조사단은 이 보고중에 발표된 사실들에 대하여 용의주도하게 고려하였으며 또 그 사실들에 대하여 문명국가들이 보편적으로 접수하고 있는 국제법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종국적 판결을 내리는것은 본 조사단의 임무가 아니다. 조사단은 그런일을 할 자격을 가진 재판소가 아니다.

그 의무는 사실들에 대한 조사에 국한되였으며 그 의견으로 보아서 이러한 사실들에서 폭로된 국제법에 위반되는 범죄들을 지적하는 것에 국한되여있다. 이 보고가 발표한 범죄들에 대하여 변론할것이 있다면 종국적 판결을 내리기전에 적당한 국제 재판소에서 이것을 청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립장에서 조사단은 다음의 결론들에 도달하였다.

1. 조선 인민군을 반대하며 북조선 일반주민 가운데 주검과 질병을 만연시킬 목적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세균을 감염시킨 파리와 기타 곤충들을 고의적으로 산포함으로써 미국군대는 1907년의 륙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그협약의 조문에 위반되며 또 1925년의 제네바 의정서에서 다시 진술된 세균전을 금지하는 보편적으로 접수된 법들에 위반되는 가장 엄중하고 전률적인 범죄를 조선에서 범하였다.

2. 북조선 일반주민에 대하여 독가스탄과 기타의 화학물체를 사용함으로써 미국군대는 1907년의 헤그규정 제23조 (가) (마) 그리고 1925년의 제네바 의정서를

계획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범죄를 범하였다.

3. 기소도 재판도 없이 많은 녀성들과 아동들을 포함한 일반주민들 혹은 개인들에게 대한 집단살해를 함으로써 미국군대와 그 지휘하에 있는 리승만군대는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데 대한 점령군의 의무를 규정한 1907년의 헤그규정의 명확한 조문들 (제46조) 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였다.

4. 점령지역들의 일반 주민들에 대한 불법체포와 감금, 학대와 고문을 감행함으로써 미군과 그의 지휘하에 있는 리승만 군대는 또다시 1907년의 헤그규정의 명확한 조문들을 위반하였다.

5.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무방비 도시들과 촌락들에 대하여 폭격하고 비군사목표들에 대한 공중으로 부터의 무차별 파괴를 함으로써 미국 군대는 또다시 접수된 전쟁법규와 전쟁관습 특히 헤그규정에 위반하여 행동하였다.

6. 일반의 례배를 위한 건물, 예술, 과학, 력사적 기념물 및 병원건물과 같은 보호건물들을 파괴함으로써 또 때로는 무방비 도시와 촌락을 무차별 폭격하고 또 필요에 따라 적당한 표식을 하고 그들이 의도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되고 있는 보호건물들을 고의적으로 공격함으로써 미국군대는 또다시 1907년의 헤그규정 특히 제27조를 위반하였다.

7. 전쟁필요상 절대적으로 그 파괴가 요구되지 않는 민간 또는 비군사적 성격을 가진 공공 건물들을 방화와 폭발물로써 고의적으로 파괴함으로써 미국군대는 헤그규정 특히 55조와 56조를 위반하였다.

8. 점령군 유지에 필요하지 않는 민간인들의 식량과 사유재산을 징발권이나 대금지불이나 령수증도 없이 몰수하며 또 고의적으로 파괴함으로써 미국군대는 또다시 헤그규정 특히 46조 및 52조를 위반하였다.

9. 전쟁포로들을 살해함으로써 미국군대는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1929년 및 1949년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죄를 범하였다.

10 력사적 예술품들과 개인재산을 략탈함으로써 미국군대는 헤그 규정 47조를 위반하였다.

조사단의 의견에 의하면 이상의 모든점은 뉴름베르그 국제 군사재판소 헌장 제6조에 규정한 전쟁범죄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나타난 범죄들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면서 조사단은 조선에서 미국군대가 아래와 같이 뉴름베르그 헌장에 규정된 인도에 배치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한다.

(1)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자도 공판에 부치려고 함이없이 각계각층의 일반주민과 특히 피난민을 대량적으로 절멸 또는 학살하였으며 조선인민의 각세각층에 대하여 폭력수단을 썼으며 또한 1952년 1월 28일 이후에는 일반인민들에 대하여 대규모로 세균무기를 사용하였다.

(2) 북조선 인민들의 생활량식을 파괴했거나 혹은 파괴하려고 시도하였고 학교, 대학, 박물관, 력사적 기념물과 문화재를 파괴하고 정부 기관을 파괴하며 그 일꾼들을 살해하였다.

본 조사단은 광범한 학살이 개인적인 과격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미군이 점령한 전지역을 통하여 그들의 보편적인 행위를 표시하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며 또 이 나라의 광범한 지역에 걸친 세균과 화학무기의 사용은 전체인민 또는 인민들의 일부를 절멸하려는 기도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고려하면서 미군은 1948년의 대량 학살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제노싸이드죄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조사단은 이러한 결론들에 립각하여 세계법정에 출정시키지 않으면 안될 이상의 범죄들에 대한 책임자들을 지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사단은 미국정부와 미군의 최고사령부 지도자들의 완전한 승인과 계획 없이는 이 대부분의 범죄들이 감행되였을 수 없다는 것을 주저없이 말한다.

그러므로 본조사단은 이 사람들과 이들의 범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전선의 모든 지휘관들과 국제법에 위반되는 명령을 수락하고 집행한 모든 개별적 병사들을 고발한다.

우리는 이 결론들을 가지고 국제 민주법률가 협회가 우리들에게 부과된 과업을 완수하였다.

우리가 조선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폭로된 만행이 우리의 가슴을 공포와 락담으로 충만케 하였다는 것을 우리의 체험을 통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려행전에 일부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것과 같이 이 보고서에 확정된 무서운 사실들을 접수하는데 곤난을 느끼게 될 사람들이 많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률가들로서 또한 보통 남녀로소의 명예를 가지고 폭로된 사실들의 진실성을 엄숙히 맹세하는 바이다.

우리는 각각 다른 나라들에서 왔으며 공통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공통적인 정치적 세계관 내지 공통된 언어까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량심적으로 또 법률가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전적으로 고려에 넣으면서 우리의 과업을 수행하기에 노력하였다. 우리의 노력의 산물인 본보고서는 전원일치로 작성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범죄와 범죄자들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전률과 증오를 느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세계가 법률의 지배를 준수하여 어떠한 강국이나 강자도 그들의 범죄의 결과를 과하지 못하게 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다.

정의는 승리할 것이며 또 정의를 고수하려면 세계는 평화를 고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보고가 세계 평화를 위한 투쟁에 그리고 특히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으며 급속히 평화를 달성하여야 할 조선을 위하여 이바지 될 것을 희망한다.

우리는 조선에서 발생한것을 하나의 고립적인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전세계를 위태롭게하며 휩쓸어 넣을 수 있는 실제전쟁의 발전에 있어서의 한개의 단계로서 취급되여야 한다는 우리의 확신을 표시하면서 보고를 끝마친다.

세균무기와 같은 비 인도적 무기의 사용은 소위 문명 국가들의 행동에 있어서 모든 남녀와 아동을 위협하는 새로운 만행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여야 할 것이다.

그들자신과 그들의 아동들의 평화로운 생활과 안전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교훈을 리해하여야 될 것이다. 평화는 인민의 재산이며 인민의 적극적 투쟁에 의하여 유지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영어로 작성되였으며 1952년 3월 31일 북경에서 조사단원이 서명하였다.

부란드와이네르 박사

에르 • 가발리에리쟈크 • 가스타   마르크 • 짜키에   커 • 버 • 넨

엠 • 에르 • 웨레ㄴ쓰   레 페르마 • 도드리케스 • 데 • 보리토   와시레브쓰까야

부 록

보고서 속에서 언급한 문건 및 중요증인들의 목록

제 2 장 세 균 전

(1) 보고　(2) 악트 1호　(3) 악트 2호　(4) 사진 8호 및 9호
(5) 김두완　(6) 리양린　(7) 안교태　(8) 김일선
(9) 라동숙　(10) 오충근　(11) 김용찬　(12) 김진순　(13) 최무석

제 3 장 화 학 전

(1) 남포시 인민위원회 보건과장의 보고　(2) 김주화 의사
(3) 김주화 의사　(4) 김주화 의사
(5) 김주화 의사 및 기타 9명　(6) 김원선 의사
(7) 류차진 의사와 오준형 의사　(8) 최동규 외 2명
(9) 최정문 외 2명　(10) 남포시의 폭격지역 지도
(11) 보건성 과학위원회가 파견한 조사단의 보고
(12) 안영화 사진　(13) 양춘옥 사진
(14) 한상옥 의사　(15) 조히동 의사
(16) 안영화 병력서　(17) 양춘옥 병력서
(18) 리국범 의사　(19) 황혜남 의사
(20) 조엡분 의사　(21) 김윤광 의사
(22) 리강철 의사　(23) 최석복 의사
(24) 유옥녀　(25) 김청자
(26) 강경옥　(27) 유국열
(28) 리용춘　(29) 한명동
(30) 박경순　(31) 리옥녀

(32) 강원도 원산 의사회 회장 리장태가 제공한 보고
(33) 원산 중앙병원 여러 의사들의 보고

제 4 장 학살 살해 기타 만행

(1) 변윤규
(2) 김만석
(3) 오태신
(4) 허필순
(5) 김현춘
(6) 최계현
(7) 김선주
(8) 박정히
(9) 최승실
(10) 오춘동
(11) 문종성
(12) 최인화
(13) 오엡분
(14) 김양실
(15) 유준수
(16) 최 명
(17) 리성봉
(18) 정치언
(19) 김성춘
(20) 전득우
(21) 서기호
(22) 한보부
(23) 김태순
(24) 최윤정
(25) 김게월
(26) 김용선
(27) 오봉년
(28) 최순옥
(29) 구성진
(30) 최기숙
(31) 김늘석
(32) 우말재
(33) 박용녀
(34) 리갑비
(35) 김상현
(36) 최순실
(37) 김현춘
(38) 유준수
(39) 안득실
(40) 최기옥
(41) 김영숙
(42) 계길려
(43) 차유석
(44) 강진현
(45) 리선실
(46) 최윤정
(47) 김게월
(48) 배진겸
(49) 차덕근
(50) 리윤숙
(51) 방명덕
(52) 리 씨

제 5 장 일반주민에 대한 공습

(1) 1950년 8월 18일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명령 제5호
(2) 조선인민군 부참모장의 성명서
(3) 최석환
(4) 최태진
(5) 리삼화
(6) 변린서

제 6 장 기타 전쟁 범죄

(3) 국제 민주 법률가 협회 조사단 부란드와이네르 의 성명 발표

『국제 민주 법률가 협회 조사단은 이미 미군이 조선 및 중국 동북에 세균을 산포한 죄행을 조사할 임무를 완수하였다. 우리들이 여기서 성명할 것은 우리 조사단의 임무가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실을 조사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조사단은 조선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선에서 미국 군대가 세균 곤충을 산포하고 있는 것은 조선 인민군 및 평화적 주민에 대하여 한개의 엄중한 죄행으로 되였다. 이 죄행은 1907년 륙전 법규 및 관례적 조문에 관한 헤그 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1925년 제네바 협정에서 거듭 서술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세균 무기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을 역시 위반한 것이다.

2. 미국 군대가 조선의 평화적 인민에 대하여 독까스탄 및 화학 무기를 사용한 것은 미군이 계획적, 의식적으로 1907년 헤그 협정 륙전 법규 및 관례적 조문 제23조 (가) 항, (마) 항의 죄행을 범한 것이다.

3. 미군이 그 점령구에서 평민 혹은 개인에 대하여 공판 없이 많은 부녀, 아동을 포함하여 집체적으로 도살을 감행한 것은 곧 1907년 헤그 협정 제46조를 위반하는 죄행이다.

4. 미군 부대 및 리승만군이 그들 점령 지구 인민들을 임의로 체포, 감금, 학대한 것은 역시 1907년 헤그 협정 조항을 유린한 것이다.

5. 미군 부대가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등 방비가 없는 도시를 폭격하며 비군사적 목표에 무차별적 폭격을 감행하는 것은 전쟁 법규를 유린하는 행위이였으며, 더우기 이에 대한 헤그 협정을 유린하는 것이다.

6. 미군은 교회, 미술관과 학교와 력사적 유물 및 병원 같은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도 대규모적 파괴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독특한 표식을 갖고 있으며, 군사적 목표가 아니다. 미군 부대는 헤그 협정 제27조를 유린한 것이다.

7. 보통 비군사적 공공 건물에 대하여 고의로 불지르고 폭파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헤그 협정 제55조의 유린이다.

8. 미군 부대가 인민의 량식, 재산을 략탈하며, 또는 하등의 보상 없이 징수한 것은 미군이 헤그 협정 제47조 및 52조를 유린한 것이다.

9. 전쟁 포로에 대하여 도살 행위를 감행한 것은 미국 군대가 1929년 및 1949년의 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10. 미국 군대가 력사적 가치 있는 예술 작품 및 개인 재산을 략탈한 것은 역시 그들이 헤그 협정 제47조를 유린한 것이다.』

조사단은 이상 진술한 사실들이 뉴름베르그 국제 군사법규 제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전쟁 죄행이 구성된다고 인정한다. 그는 이렇게 지적한다음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조사단은 그러한 죄를 범한 자들을 반드시 세계 법정 앞에 끌어 내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본 조사단은 이러한 사람들을 고발하며, 동시에 전쟁 마당에서 이러한 죄행에 직접 책임진 장교 및 국제법을 위반한 자들을 고발한다. 우리들은 각국에서 왔다. 종교, 신앙이 같지 않으며, 정치적 견해가 같지 않으며, 언어도 같지 않다. 우리들은 량심적으로 법률가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므로 우리들의 전력을 우리들의 임무 완수에 다하였다. 우리들의 희망은 이것이 세계 평화를 쟁취하는 데 공헌하며, 특히 이것이 조선에 대하여 공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조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

(4) 미군의 세균무기 사용을 규탄하여 내외 기자단 공동 성명서

정전 담판을 모든 면에서 추진하여 온 우리 기자단은 미국인이 세균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비난을 듣자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 두 그루빠의 조사단을 조직하였다. 우리 그루빠들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전선과 후방 특히 서부 조선과 평양 지구를 조사하였다.

상세한 조사 보고는 소속 신문들에 보내였으나 이러한 사건들의 력사적 중요성과 비난의 중대성에 비추어 세계 여론에 호소하기 위하여 우리의 결론들을 내 놓는 것이 역시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광범한 여러 지구를 방문하고 수백명의 인민들, 병사들, 시민들, 세균학자들, 의사들, 의료 일군들 및 각급 보건 기관 인사들과의 담화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첫째, 미군은 북조선의 군대와 주민을 반대하여 그러나 특히 주민을 반대하여 각종 형태의 대 규모적인 세균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이 무기는 정부와 인민 간의 밀접한 협동에 의하여 대중의 사회 의식과 훈련 및 용기에 의하여 봉쇄될 수 있으며, 또한 봉쇄되고 있다. 이는 패배를 당하고 있으며, 전염병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군의 행동을 립증하는 증거는 결정적이다. 우리는 미군이 전염성의 독균을 보균시킨 각종의 곤충들을 비행기에서 투하하였으며, 특별한 포탄으로 발사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용된 곤충의 대부분은 조선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것이며, 기타는 이 시기에는 보통 나오지 않는 재래 형태의 곤충이다.

파리, 벼룩, 모기, 거미가 가장 흔히 투하된 곤충이다. 그러나 이, 하루살이, 빈대 기타 곤충들도 사용되였다. 또한 세균을 넣은 육류, 물고기, 헌겊, 짚오래기 등도 투하되였다. 사용된 세균은 가지 각색이다. 가장 흔히 사용한 것은 페스트와 코레라균이다 기타 재귀열, 티브스 균들이다 조선의 과거 력사에서는 페스트가 발생한 일이 없으며, 1946년 남조선에서 코레라가 발생한 이외에는 60년래 조선에는 코레라가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진행 중에 한 부락의 모든 성년 남녀들로부터 미군 비행기가 통과한 후에 나타난 곤충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종류의 것이라는 증거를 수집하였다. 이 곤충들에는 세균이 보균되였었다. 곤충을 투하할 때에는 의례이 선전 삐라를 투하하며 전선에서는 선전탄을 발사한다. 이 실례로 평양시 중구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남문리 2구 6반에 사는 68세의 한산국 로인과 6세와 2세의 두 손자는 그 지구에 대한 소독이 실시되기 전에 코레라로 사망하였다.

곤충들은 대체로 밤이나 혹은 흐린 날 아주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투하된다.

용기들 중에는 3월 5일 평양시 중구역에 투하한 것과 같은 종이 봉투, 2월 27일 곤동에 투하한 것과 같은 선전 삐라, 폭탄, 진흙 용기 들이 있으며, 어떤 때는 개성 부근의 작은 마을 축동에서와 같이 특별 구조의 비행기로부터 직접 투하된다.

곤충을 투하하는 데 있어서 특히 코레라균을 묻인 곤충은 하천, 개울, 연못, 우물에 또는 그 근방에 투하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것 같다. 이러한 실례는 2월 27일 평양시에서 20키로메터 떨어져 있으며, 평양시에 음료수를 공급하는 대동강변의 소노리에서 볼 수 있었다.

투하된 곤충의 일부는 추위로 죽는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전히 생존하며, 특히 혹한에도 살 수 있도록 배양된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곤충이 소각된 10일 후에도 얼음 위에서 살고 있는 파리들을 직접 목격하였다. 우리는 투하된 후 수 시간 동안 날아 다닐 수 있는 다른 파리들을 보았다.

광범한 여러 지구의 증인들은 그들이 발견한 곤충들의 습성들을 똑 같이 설명하고 있다. 례컨대 처음 수시간 동안 파리들은 보통 의식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 후에는 지상에서 약 1메터 고도로 날기 시작한다. 또 다시 몇 시간이 지난 후에는 2메터의 고도까지 날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퍼지기 시작한다.

확실히 미군은 전염병 발생을 자연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따뜻하여 가는 기후와 같은 요소들을 타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증거를 음페하기 위하여 밤과 흐린 날에 독충을 투하하면서 정상적인 선전 무기를 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교활한 무기인 것이다.

미국인은 희생자들이 자기 방위를 위하여 증거물들을 없애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타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피 행동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수만명의 증인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생기지 않으며, 알려지지 않은 실험소 내의 곤충과 세균의 표본들이 있으며, 완전히 최종적으로 론증할 수 있는 대량적인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언제나 사실을 취급하여 온 우리 기자들은 애치슨과 릿치웨이의 말보다 증거와 우리 자신의 눈과 귀를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군의 세균 공격을 목격했을 뿐 아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대하고 성과적인 투쟁들도 목격하고 있다.

이전과 같이 미국인들은 조선과 중국 인민의 력량을 완전히 과소평가하였다. 전체 인민과 군대는 이 새로운 위협에 대하여 동원되고 있다.

전체 방역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북조선의 모든 지역은 청소되였으며, 방역 위원회는 간단 없이 모든 지역을 감시하고 있다.

북조선에 있는 모든 남녀 로소는 이 새 무기를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에 대처할 것인가를 알고 있으며, 인민과 정부의 모든 방역 력량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원되고 있다. 미 공군은 이 나라를 폐허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세계 력사에서 다른 어떠한 나라에서도 없던 것이다.

조선 인민의 생활 형편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러나 온갖 곤난한 조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사람 같이 궐기하여 이새로운 형태의 공격에 대항하고 있으며, 어려운 조전에도 불구하고 전염 병균들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것은 전쟁을 반대하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에서 실로 력사적이며 국제적인 중요성을 띤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이상이 세균 공격을 받은 주요 지점들을 수주일 동안에 걸쳐 조사한 후 얻은 간단한 결론이다.

담판의 조속한 종결을 세계 여론이 요구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행하여진 이 공격은 조선에서 전쟁을 계속하며, 또한 확대하기 위한 최후 발악의 시도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무력으로 중국에 침입하는 데 실패한 미국은 이번에는 중국에 세균을 퍼뜨림으로써 아세아 인민들을 굴복시키려 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기타 아세아 인민들을 놀래게하려 들고 있다.

그들은 또한 조선 정전 담판이 끝나기 전에 이 실험을 진행할 것을 욕망하였다.

우리 기자 중에는 와르샤와의 파괴를 본 사람도 있고, 또한 히로시마에서 미국이 대량적 테로를 쓴 데 대하여 보도한 사람도 있고, 파괴된 부다페스트에서 산 사람도 있으며, 또한 일본의 중국 점령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나치스 공군으로부터 런던을 방어하는 데 참가한 사람도 있으며, 미 공군이 조선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있다.

우리는 전세계의 량심에 대하여 모든 인민을 파멸시키는 씨를 내포하고 있는 인류를 반대하는 이와 같은 무서운 범죄가 정지될 것을 요구하며, 책임 있는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할 것을 호소한다.

(5) 조선과 중국에서의 세균전 사실에 대한 국제 과학 조사단의 조사보고

목 차

머 릿 말

1952년 초부터 조선과 중국에서 일어난 비정상적 성질을 띤 현상은 량국 인민들과 정부들로 하여금 조선과 중국이 세균 무기 사용의 대상물로 되였다는 성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전세계 인민들은 각종 방법으로써 이러한 전쟁 방법에 대하여 비난과 공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비난들의 엄중성은 어떤 사람이든지 묵과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현장에서 사실들을 연구하기 위한 국제 과학 조사단이 조직된 원인이다.

모든 선입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였고 자기들의 책임감을 의식하는 과학

자들로써 구성된 본조사단은 가장 엄격한 과학적 방법을 리용하여 최대 한도의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 방법을 진행하였다.

조사단이 실시한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얻은 결론을 다음 보고서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8개국어로써 사업이 진행되였다.

그러므로 문체에 있어서의 착오를 찾으려 할 필요는 없다.

세계 각 국어로 번역되기 쉬운 간명한 말로써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조사단의 조직과 사업

1952년 2월 22일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박헌영 외무상과 3월 8일에 중화 인민 공화국 주은래 외교부장은 미 합중국이 감행한 세균전을 반대하는 정식 항의를 제출하였다.

1952년 2월 25일, 중국 인민 세계 평화 옹호 위원회 곽말약 위원장은 세계 평화 리사회에 호소를 제출하였다.

1952년 3월 29일, 오슬로에서 열린 세계 평화 리사회 뷰로회의 석상에서 곽말약씨와 그와 동행한 중국 대표들과 조선 대표 리기영씨는 뷰로 위원들과 각국 인민 대표들에게 이 문제에 관한 자세한 보고를 제출하였다.

곽말약은 조선과 중국의 립장으로 볼때, 국제 적십자 위원회는 현장에서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적 영향으로 부터 충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그 후에 유•엔의 한 기관인 세계 보건 기구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견해가 제기되였다.

그러나 량국 정부는 공소를 제기한 근거로 되는 제반 사실들을 직접 조사하기 위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과학자들로써 구성된 국제 조사단을 중국과 조선에 초청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 과학자들은 평화 옹호 운동과 관련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인도주의 사상에 대한 그들의 충실성으로써 알려져 있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 인민과 중국 인민들이 제기한 공소를 토의하고 뷰로는 이러한 성질의 국제 조사단 결성에 관한 결정을 만장 일치로 채택하였다.

오슬로회의 직후에 구라파, 남아메리카 및 인도의 학자 중에서 가능한 대로 이 문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다수의 학자들의 동의를 얻을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예비적 초청을 결정한 것이 알려지자 오슬로 대회 후 구라파에 남아 있었으며 조사단 조직의 전권을 맡은 중국 과학원 현대 물리학 연구소장이며 중국 인민 세계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인 전삼강 박사는 중국 과학원 원장이며 중국 인민 세계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장인 곽말약 박사의 이름으로써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사단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도의 성원에 도달하였고 그리하여 그들은 6월 중순에 중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국제 과학 조사단 위원들은 6월 21일부터 6월 28일 사이에 북경에 도착하였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중국 과학원과 중국 인민 세계 평화 옹호 위원회 대표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위원회 성원은 다음과 같다.

안드레인 안드레아 박사 (스웨덴) 스톡홀름시 병원 관리국 중앙 림상 시험소 소장

말레르 쟝 교수 (불란서) 농학 기사, 국립 그리니온 농업 연구소 동물 생리학 실험소 소장, 전 운라 가축 전문가, 이태리 및 서반아 가축 학회 후보 회원

니드햄 죠세프 박사 (영국) 황실 학회 회원, 켐 부릿치 종합 대학 월랍던씨 생물 화학 강좌 강사, 전 중경 영국 대사관 참사 (과학 참사), 전 유네스코 자연 과학부 부장

올리보 올리베로 박사 (이태리) 볼론 종합 대학 의학부 해부학 교수, 전 투린종합 대학 일반 생물학 강사,

페쏘아 사무엘 베 박사 (브라질) 싼파울로 종합 대학 기생충학교수, 전 싼파울로주 위생국장, 레씨푸 및 파라이바 종합 대학 의학부 명예 교수

쥬꼬브 웨레즈니꼬브 박사 (쏘련) 세균학 교수, 쏘련 의학 아까데미야 부원장, 전 하바롭쓰크 일본 세균 전범자 재판 수석 의학 감정가

적지 않은 저명한 과학자들이 중국에 도착할 그들의 계획을 실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조사단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였지만 조사단에의 최종 참가 기일을 7월 15일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은 로마 종합 대학 미생물학 연구소 조교수 그라씨오시 프랑코 박사 (이태리)를 환영하였다.

그는 조사단이 심양으로부터 돌아오기 전 8월 6일에 북경에 도착하였다. 그가 조사단의 초기 사업에 참가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그는 옵써버로 임명되였으며 이 자격으로서 몇가지 문제의 분석에 있어서 귀중한 기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삼강 박사 (중국) 가 이 사업에 참가하였다.

중국 과학원 현대 물리학 연구소 소장인 그는 곽말약 박사를 대리하여 구라파로부터 북경까지 조사단과 동반하였다.

그는 조사단의 일치한 초청을 받아 표결권 없이 조사단의 토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련 인원으로서 중국 정부로부터 파견되였다.

조사단은 다음과 같은 인원도 포함하였다.

꼬발스끼 느 아씨 (쥬꼬브 웨레즈니꼬브 박사의 통역 겸 비서)

페쏘아 에스 비 녀사 (페쏘아 박사의 통역 겸 비서)

국제 조사단은 접대 위원회의 환대를 받았으며 그의 방조를 얻어서 사업하였다.

접대 위원회 성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리덕선 녀사 (중국 적십자회 회장, 세계 평화 리사회 위원)
부위원장 료승지씨 (세계 평화 리사회 위원)
하성 의사 (중국 의학회 명예 리사장)
서기장 궁내천 의사 (상해 의과 대학 학장)
부서기장 계소화 의사 (중국 의학회 서기)
전문가 련락 인원
종혜란 박사 (북경시 인민 병원 원장, 중국 협화 의과 대학 내과 림상 교수)
오재동 박사 (남경 종합 대학 의학부 병리학 교수)
방강 교수 (중앙 위생 연구소 미생물과 부연구원)
주홍복 박사 (중국 과학원 곤충 연구실 부주임)
고정 수원
엄인영 박사 (북경 대학 의학부 산부인과 부교수)
양사달 박사 (상해 진단 대학 의학부 위생학 교수 및 학부장)

접대 위원회 대부분의 위원은 위험성과 곤난성을 무릅쓰고 조사단이 가는 곳 마다 동행하였으며 조사단의 사업을 훌륭히 보장하였다. 접대 위원회 위원 중의 몇 사람은 많은 다른 중국 과학 전문가들 및 의사들과 같이 항상 립회자로서 조사단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혹은 필요한 설명도 제공하였다.

조사단은 이러한 전체 동료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그들의 깊은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공적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조사단의 회의 토의 절차에 관하여서는 전체 위원들은 순번으로 의장이 되여 회의를 집행하였다. 조사단은 말떼르씨를 조사단 과학 비서로 선거하였다.

조사단의 제1차 회의는 북경에서 6월 23일 소집되였다.

조사단은 중화 인민 공화국 중앙 인민 정부 (북경) 와 동북 인민 정부 (심양) 의 위생부장들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보건상, 그리고 연구되는 문제와 관련되여 활동한 모든 전문가들과 밀접히 접촉하여 자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상술한 분들 이외에 그들의 관할 하에 있는 전체 자료를 조사단에 제출하기 위하여 자기 로력을 아끼지 않은 중국 동북 인민 정부 위생부 왕빈 부장과 백히청 부부장에게 감사를 표시한다.

조사단은 또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리병남 보건상과 로진환 부상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들이 각종 곤난과 공습의 부단한 위험속에 있어서도 침착하게 자기 사업을 진행한 데 대하여 감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단은 려행 중에 만난 모든 조선의 세균학자들과 기타 조선 전문가들이 자기 조국에 무한한 헌신성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하여 감탄을 표시하는 바이다. 조사단은 자기 임무를 완수하다가 희생된 조선의 우수한 3명의 세균학자들에게 성의를 표한다.

조사단은 역시 조선 방역대에 협조를 주기 위하여 파견된 중국의 우수한 전문가

전문귀 박사, 위의 박사 및 하기 박사들의 희생적인 사업에 대하여 성의를 표한다.

그들은 평화롭고 안락한 자기들의 실험실을 떠나 세균 방어전의 최전선에서 조선 동료들과 같이 모든 곤난성과 위험성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단 회의는 여러가지 성격을 띠고 진행되였다. 때로는 위원들의 비공개 회의에서 과학문제들을 몇시간씩 토의하였으며 때로는 중국과학 전문가들의 참석하에서 진행되였다.

어떤 때에는 큰 회의실에서 회의가 진행되였으며 여기서 위원들은 각종 사회층에 속하는 수 많은 증인들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증인들중에는 체포된 간첩 (부록 참조) 들과 포로된 4명의 비행사 (부록 참조) 도 있다. 어떤 때에는 2—3명으로 구성되는 특별 분과 위원회에 개별적 문제를 중국 동료들과 같이 연구하여 조사단에 보고할 것이 위임되였다.

북경, 심양 및 평양의 실험실에서 귀중한 날을 보냈다. 여기에서 중국 학자와 조선 학자들은 그들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상세히 소개하여 주었다.

필요한 때는 위원들은 북경과 심양에 있는 우수한 도서관들을 리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부록의 대부분은 중국과 조선의 전문가들이 제공한 자료로써 구성된다. 이 자료들의 분석 결과는 다음 부분들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들은 개개의 례를 죄다 든 것이 아니며 수다한 자료들 중에서 취한 일부분의 례인것은 물론이다. 여기에 제시된 례들의 대부분은 조선 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중국 자료들에 기초하였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조선 전문가들이 매우 곤난한 조건에서 사업하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조사단이 조선에서 짧은기간 사업하게 되였으며 게다가 이 시기는 극히 곤난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조사단은 금년 초에 발표된 쁘라그 문건들의 기본으로 되는 주요한 과학 자료들을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이 문건들을 조사하여 몇가지 해명하여야 하였으며 오해를 해명하여야 하였으며 후에 시정되였지만 잘못된 규정들을 밝혀야 하였으며 또한 번역상 오류등을 시정하여야 하였다. 이 방향에서 많은 사업을 하였으며 그 결과들은 수 많은 부록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인바 조사단은 본질에 있어서 기왕의 조사단들이 쁘라그에서 발표한 보고의 기본 조항들을 재확인하는 전반적 결론에 도달하였다.

조사단이 려행한 주요한 곳들은 다음과 같다.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조사단은 북경에서 사업의 전반적 륜곽과 조건들을 연구하고 심양으로 출발하였다. 심양에서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사업하였다. 그 다음 접대 위원회 위원들의 동반으로 압록강을 건너 북조선에로 떠났다. 북조선에서는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평양에서 수차 회의 (공습으로 중단된 때도 있었으나) 를 가졌다. 북쪽으로 돌아오다가 조사단은 포로된 비행사들의 진술을 2일간 듣고 8월 6일, 국경을 넘어 중국 동북으로 돌아왔다. 금번 조사 사업의 려행은 기술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게 조직되였었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 보다 전에 단시일 간의 조사단의 려행은 7월 15일과 16일에 비행기, 기차 및 자동차로써 치치하르와 라하를 거쳐 실시되였다.

이 려행 시기에 조사단은 김남 지방에 있는 농촌들을 방문하였는데 거기에는 그 이전에 페스트에 감염된 쥐가 투하되였던 것이다. (부록 참조) 이 촌락은 내몽고와의 접경인 흑룡강성에 있다. 기타의 정식적 려행은 제2차적 의의를 가진 것들이였다.

본 조사단과 류사한 것을 조직하는 온갖 경우에 있어서 불가피한 번역에 관련된 곤난성을 특기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단원들의 언어는 같지 않은 7개 국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들은 불란서어를 알고있었기 때문에 불란서어를 사업상 용어로 결정하였다. 로어, 영어 및 이태리어는 곧 불란서어로 번역되였다. 많은 중국 학자들은 영어와 불란서어를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사업상 큰 도움이 되였다. 그러나 회의시에는 기록을 고려하여 그들은 중국어로 말하고 이것을 곧 불란서어, 로어 및 영어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불란서어 통역은 양사달 박사와 정기천씨가 하고로어 통역은 진술박사가 하였다. 영어 통역은 엄인영 박사가 하였다. 오항홍 박사는 조사단 사업의 후기에 있어서 그의 어학적 재능으로써 조사단에 많은 방조를 주었다. 조사단 중의 한 위원은 중국어로 말할 수 있었으며 리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증인 질문시, 또는 담화시에 유리하였다. 그리고 그는 역시 중국어로 글을 쓸수 있었고 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문헌과 문건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조사단의 또한 사람은 로어와 영어를 량통할 수 있었다.

중국 학자들 중에서 조선어를 아는 사람은 근소하였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조건이 아주 불리하였다. 그러나 조사단은 조선어를 불란서어, 영어, 중국어로 자유로이 통역하는 우수한 외국어통 옥인섭 박사의 방조를 얻을 수 있었으며 기타 조중 통역들의 방조를 얻을 수 있었다.

중국어를 어떤 구라파어로 번역한 것은 동시에 곧 직접 조선어로 부터 로어로 번역된 것과 대조되였다.

때때로 의사를 통하는 수단으로서 일본어가 리용되였다.

필기된 기록들은 자주 호상 대조되였기 때문에 본질적인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여기에 첨가하여 어떤 회의의 경과는 이것을 록음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후의 참조에 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단이 중국, 조선의 전문가 또는 증인들의 진술을 완전히 리해할 수 없다는 어떠한 비난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다.

조사단원들의 서명은 서명한 사람들의 경력과 그 전문 과학에 대한 것을 증명하여 주고있다. 그들의 광범한 경험은 면밀하고 광범한 토론을 통하여 종합되였다.

매개 단원들은 한개의 과학적 방법의 지식과 리해가 충분히 요구되는 사업에 동등한 기여를 하였으며 또 문제가 그들의 전문 지식과 어느 정도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방면에 익숙한 단원들의 비판적인 해설을 다른 단원들이 신임하였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사실에 있어서 공동 로작으로 되는 것이다.

위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하며 이 외에 조사단은 중국과 조선의 문헌들에 의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사단은 중국과 조선의 의학자 및 기타 과학자들의 권위와 량심을 의심할 원인은 없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소한 경각성도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조사단은 사건 연구에 피로를 느끼지 않고 열심히 연구하였으며 가능한 것은 모두 직접 조사단이 사실들을 탐사하는 방향으로 힘을 다하였다. 조사단원들은 항상 정치적, 륜리적 및 감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엄정한 태도를 취하였다. 매 위원들은 랭정하며 객관적이 되려고 노력하였다. 수백명의 증인들의 진술은 그들 의심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하였으며 합치되였으며 그리고 독립적이였다.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기록에 있어서 조선과 중국의 문건의 말 문구를 인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반대로 위원들이 직접 실시한 실험, 검사, 질문 등등은 매번 개별적으로 기록되였다. 인용한 문건 및 주석들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여기에 발표되는 본 문건의 이름이 나타난 중국과 조선의 전체 학자들에 관한 자료는 리력란에 수록되고 있다.

문 건

단원들이 처음으로 회합하였을때 위원들에게는 중화 인민 공화국 중앙 인민 정부가 발표하였고 그 후 쁘라그에 있는 세계 평화 리사회와 각국에 있는 중국의 공식 통신사가 구라파 각국에 보급시킨 문건들 밖에 없었다.

조선 보건성의 제1 보고 (SIA—1)는 1952년 1월 및 2월에 일어난 사건만을 취급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자료들은 국제 민주 법률가 협회 조사단 보고서 (SIA—4)에 다시 취급되였는데 동 보고는 조선에서 페스트가 발생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또한 국제적 인사들이 직접 본 조사 결과들이 첨부되여 있었다. 두개의 가장 상세한 보고는 조선과 중국 동북에서 3월중에 조사를 실시한 중국 미제 세균 전범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였다.

이 두 보고 중에서 중요한 것은『미제 세균 전범 조사단』조선 분단의 보고였다. 이 보고는 북경에서 4월달에 출판되였다. 전문이 NCNA—85에 발표되였다. (부록 참조) 이 문건은 간략화되여 SIA—13에서 발표되였다.

중국 조사단 동북 분단의 보고도 역시 북경에서 출판되였으며 그 개요는 SIA—3에서 발표되였다. 이 보고는 가장 완전한 곤충학적 보도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 조사단의 보고와 동일한 내용의 보고가 국제 민주 법률가 협회 조사단 보고에 기록되였으며 이것도 북경에서 출판되였다. 이것은 SIA—8로써 전문이 발표되였는바 엄격히 말하면 여기에 론술된 곤충학적 자료에는 하등의 과학적 의의가 첨가되지 않았다.

세계 평화 리사회 서기국 고문인 몇 사람의 구라파 학자들이 실시한 특별 보고는 사진에 의하여 곤충학적 립증을 확인하였는데 이 보고는 SIA—2에 제시되였으

며 이것은 조선 자료와 중국 동북 자료를 모두 포함하였다.

4명의 중국 학자들이 작성한 또 하나의 특별 보고는 SIA—12에 제시된 바와 같은 동일한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문건들을 연구하려는 사람들은 상술한 순서에 따라 고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제 민주 법률가 협회 조사단원들이 4월 중순에 구라파에 돌아갔을때, 타이프로 찍은 부본들이 단원들에 의하여 휴대될 수 있도록 많이 준비되였는바 특히 그 중에는 10개의 중요한 안건들이 들어 있었으며 그 당시는 아직도 충분히 분석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안건 자료의 편집 번호는 00001—00010이며 우리들은 이것을 4령 (COOO) 안건이라고 부른다.

나머지 문건들은 개인적 성질과 법률적 성질이 농후하다 할지라도 결코 과학적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SIA—6과 SIA—10에 수집되였는바 일부는 이미 다른 데서 언급한 안건 례를 들면 (COCOS) 안건에 관련되여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전쟁 포로 및 간첩들의 각종 증언은 SIA—7에 수록되였다. 이와 동시에 많은 수량의 문건들에는 포로된 미국 비행사들의 상세한 증언들이 포함되여 있다. (SIA—14, 15, 16, 17, 18)

세계 평화 리사회는 5월 경에 이 증언들을 사진판 문건으로 발표하였다.

발표된 문건의 요약은 이미 SIA—5에 수록되였다.

문건들의 부호는 다음과 같다.

쁘라그 발표 문건—SIA

신화사 통신—NCNA

국제 과학 조사단 문건

중국 관계—ISCC

조선 관계—ISCK

제2차 세계 대전중 일본 군대가 세균전을 감행한 데 관한 자료

동 아세아의 세균 무기 사용에 관한 조사는 일본인이 제2차 세계 대전 시에 있어서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러한 의심을 주지 않는다

조사단은 이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단원 중의 한사람이 하바롭쓰크 공판시에 수석 전문가이였으며 또 다른 한 단원은 이 사건이 진행되던 당시 중국에서 공식으로 직책을 가지고 있던 극소수의 구라파 과학자 중의 한 사람이 였기 때문이다.

1944년, 그는 그의 직책상 중국 군의국이 수집한 자료들에 관하여 자기 본국에 보고하여야 하였다.

처음에 그는 이 자료에 대하여 극히 회의하는 태도로써 대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일본인들이 페스트에 감염된 벼룩을 수개 지역에 투하하였으며 그 결과 본래 전염병 만연 구역이 아니나 페스트의 만연 조건이 충분히 존재하는 지역에 비교적 대량의 선페스트 환자를 발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여 주는 것 같다.

정상적 조건 하에서 선페스트가 극히 국한된 지역에 (례를 들면 복건성) 지방병적으로 류행하여 이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중국 위생부 문서고에서 1941년 호남성 상덕현에 일본인들이 인공적으로 페스트를 전파시킨 데 관련된 문건을 찾아 내여 조사단에 제출하였다. (부록)

이 문건은 력사적 흥미를 끌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정식 문건에 의하면 일본이 감행한 세균 공격은 11개소의 현시에 달하였다

절강성에 4개

하북성에 2개

하남성에 2개

산서성, 호남성, 산동성에 각각 1개이다.

현재 중국인들은 1940—1944년간에 인공적으로 전파시킨 페스트에 의하여 사망된 수를 약 7백명으로 계산하고 있다.

중국 군의국이 1940년 중경대사관에 본 문건 10부를 배부한 것은 알려진 것이다.

1946년 1월에 유명한 메르크의 보고에 의하면 1941년부터 아메리카에서는 세균전에 대한 광범한 준비가 개시되였다.

이것들은 우연한 사실들의 합치로서는 도저이 설명되지 못할 것이다.

조사단이 조선에서 사업하는 기간에 상덕 사건에 대한 비망록을 기록한 우수한 중국의 페스트학자를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조사단은 그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일본이 세균 무기를 사용한 데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국민당 정부는 이에 대하여 추궁하지 못하였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그의 결론은 하바롭쓰크 공판에서의 피고들의 고백으로써 완전히 확증되였다.

『세균 무기 제조 및 그의 사용에 책임이 있는 전 일본 군인 공판에 관한 자료』 (모쓰크바 1950년) 의 발표는 일본 세균학자 이시이 시로 (유감하게도 본인은 피고석에 없었다.) 의 지도 하에 진행한 실제 공작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전 세계에 제공하였다.

코레라, 장티브스, 페스트등의 배양액을 단번에 수백 키로그람씩 생산하기 위하여 세균 대량 생산 기술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의심할 바 없이 판명되였다.

그리고 역시 극히 간단한 기술을 사용하여 대량의 쥐 및 벼룩을 번식시켰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후자 (벼룩) 만이 산포되였다.

여러 증인들은 일본인들이 전염병 산포 방법을 감독하기 위하여 중국에 있는 각 일본 기지에 려행한 정확한 시일을 말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비밀 특설 부대 (례를 들면 731부대) 실험실, 실험적 성격을 가진 제조공장, 그리고 감옥등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감옥에서 그들은 비인간적으로 잔인하게 중국 및 쏘련의 애국자들을 동물 실험 대신에 사용하였던 것이다.

자기 사업 과정에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 기록됨) 조사단은 이시이 시로를 위하여 하르빈 특별 공장에서 제조한 토기로 만든 몇개의 세균탄 표본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는 생물학적 무기의 원조로써, 특수적으로는 곤충무기 산포로써 전세계를 제패하려는 자기들의 야망을 언제나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대련을 떠나기 전에 일본인들은 우선 대학과 각 학부의 도서관으로부터 세균전에 관련된 일체의 문건들을 소각하였다.

1952년 초에 조선과 중국 동북에서 세균전이 감행되였다는 주장이 일어나기 전에 신문들은 이시이 시로가 2차에 걸쳐 계속 남조선을 방문하였으며 3월에 또 다시 남조선을 방문하였다고 보도하였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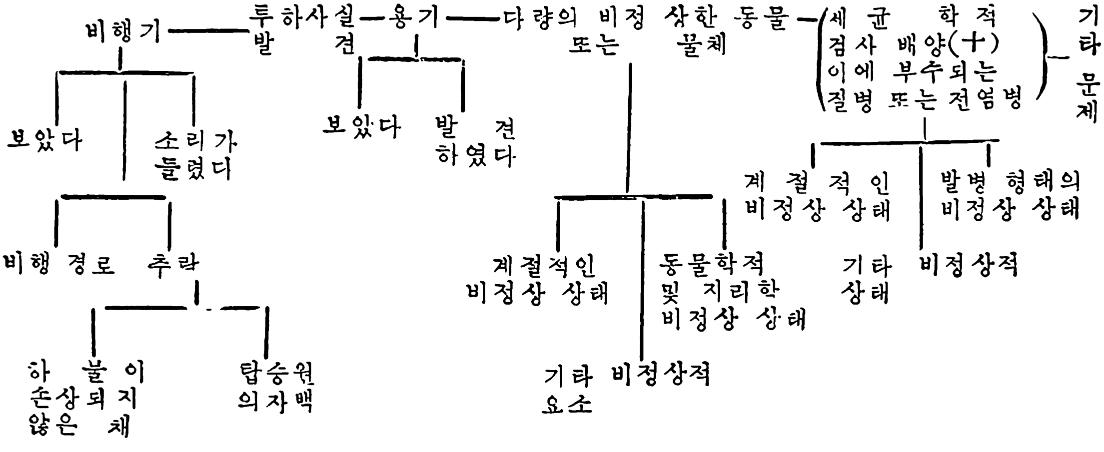
일본 점령 당국이 그의 활동을 조장하였는가 어떠한가, 또한 미 극동군 사령부가 순전히 일본식 방법만을 리용하였는가 어떠한가는 조사단원들의 기억으로 부터 사라지지 않는 문제이다.

조사단의 사건 분석 방법

생물학적 무기의 특성에 의하여 그의 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

이 사실을 완전히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비행기가 적재한 생물학적 물체를 상하지 않은채 착륙되여야 하며 그의 탑승원들은 즉시 심문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많은 리유로써 극히 드문 일이다.



따라서 한 방법을 안출하여 많은 사실들을 호상 련결시켜 이것을 도식화하여 한개의 증거있는 문건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찰과 사업을 위하여 우선 한개의 격식이 필요한바 이것은 매개의 특별한 사실을 연구함에 있어서 한개의 기준으로서 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리상적 정형 하에서 매개 도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구비하고 있다.

자연 이러한 격식이 구비되기는 대단히 곤난하며 또는 전혀 구비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들은 거의 완전하며 이로부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의 활동을 호상 련결시켜 넉넉히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단은 그 리상적인 격식에서 설명적인 성격을 거의 완전히 구비한 사실의 집체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돌리였다.

많은 격식들이 엉킨 결과 나온 사실들의 전면적 집체가 연구될 때에는 전반적 정세가 명백하여 진다.

쁘라그 문건의 곤충학적 자료

자기 사업을 북경에서 시작한 조사단 앞에 제기된 첫 과업 중의 하나는 쁘라그 문건 작성의 기초로된 과학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이였는바 이 사업의 첫 걸음은 즉 립증사업에 책임을 지고 있던 중국 과학원과 기타 기관들의 중국 과학자들과 함께 곤충학적 증거의 일람표를 만드는 것이였다.

조사단은 그들의 재간이 높은데 대하여는 하등의 의심도 가지지 않았다. (부록 참조) 그 밖에 그들은 많은 도서관의 편리를 구비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각 기관간의 신속한 대차 제도가 실시되고 있었으며 가장 잘 정리된 곤충 표본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실제적인 극복할 수 없었던 난관은 즉 이미 반세기 동안의 사업을 거쳐 왔으나 많은 종류의 곤충의 계통적, 체계적 분류가 아직도 완전히 명료하여 지지 않았던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 들어온 곤충들이 모두 그대로 확정적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사단은 일부 경우에 있어서 일부 곤충들이 현재 대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서 적어도 전연 기록되지 않았던 사실에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국 비행기가 비행한 후 중국 전문가에게 보내 와서 그것이 어떤 곤충에 속하는 것인가를 감정받은 후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곤충의 전형이라고 인정된 것은 일람표로 작성되였다. (부록)

그 중에는 9종의 쌍지류 (6종의 파리, 3종의 모기) 1종의 플레코프테라, 1종의 솔렙볼라, 1종의 아프하닙테라, 3종의 직지류, 2종의 거미, 아라크노이뎃드, 앞으로 론술될 한개의 갑충을 포함한 합계 18종의 곤충을 포함하고 있다.

동 문건이 구라파에서 준 본래의 인상의 하나는 일부 새로운 곤충들이였는바

이것은 종에 속할뿐만 아니라 또한 류에도 속하는 것이며 아세아 대륙의 관계 지역들에서 종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곤충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확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개의 례 중에서 이 점에 관하여 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이 있었다.

수집된 많은 무리로부터 루차 립증된 힐레미아 종류들은 중국 동북에서 보통 볼 수 있는 네개의 종류, 그리고 중국 각지에서 종전에 기록된 15개의 종류의 어느하나와도 전연 다르다는 것이 증명되였다. 그러나 그 류는 약 6백종을 포함하고 있는바 그들 모두의 진정한 소속 부문은 아직도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 (부록 참조) 동일하게 발견된 쉬파리 (헬로미자, 모데스타, 메이겐) 는 중국에서 종전 기록되였던 이 류의 단일한 종과 확실히 동일하지 않았다. (부록 참조)

실제상 동일한 관찰이 모기 (스르트클라더스) 에게도 적용된다. 이러한 동물학적, 지리학적 차이는 모든 증거를 심의함에 있어서 적절히 중요시된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비정상성은 동물학적 지리학적 면 보다 생태학적 면에서 더욱 특수하였다.

여러가지 종류의 곤충들이 그 지역에서 보기드문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하를 불문하고 1년의 첫 3개월 중에 화북과 동북, 그리고 조선에서 땅에 아직도 눈이 덮여있을 때에 그것이 대량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은 지극히 기이한 일이다. 조사단은 극히 용이하게 이러한 곤충의 대군을 보았으며 또한 이 곤충들은 각계의 많은 보통 남녀 인민들에 의하여 될수록 속히 보는 즉시로 소멸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18종의 곤충가운데서 12종이 계절상의 비정상적 현상을 뵈여 주었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은 1년에 6개주일 내지 14개 주일 더 일찌기 대량적으로 또는 집체적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경험과 유능한 곤충학자들의 저작에 의한다면 그것들은 보다 늦게 나타 났어야할 것이였다. 그것들이 나타난 것은 평균 9주일, 즉 2개월 이상이나 앞섰다.

여기에 흥미를 끄는 몇가지 점이 있다. 수만개의 집파리와 동일한 파리를 수집한다는 것은 대단히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눈벼룩 또는 탄미충 (이소토마 네이기쥐나, 보르네르) 과 같은 그렇게 작은 (2미리 내외) 곤충은 막대한 수로 밀집하고 있어야만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다. 될 수 있는한 측정된 밀집도는 일람표에 제시하고 있다.

SIA/12 에 수록된 중국의 곤충 학자의 한사람이 실시한 관찰에 의한다면 섭씨 령하 10도에서 나타난 일부 힐레미아의 집체는 대부분 산란할 상태에 있었다는바 이것은 그들의 기원에 대한 의문을 더욱 깊게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이한 것은 벌귀뚜라미 (그릴루 스테수타세수스) 였는데 그의 생활력은 1951년에 북경신문에 상세히 게재되였던 것이다.

이종류의 많은 성충들이 조선에 린접한 중국 동북 (만주) 료동성 관진부근에서 3월에 나타났는 데 그 시기로 본다면 동북보다 온도가 더 높은 북경에서조차 산란기를 제외하고는 어떤 성충도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가지 종류의 곤충들의 무리가 겨울에 나타나는 개별적 또는 산재하는 실례들을 곤충학적 서적에서 볼수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원인이 순전히 자연적이라면 이러한 현상이 그렇게 많은 종류의 곤충에 관하여 단번에 일시에 발생할 수있다고는 도저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조사단은 중국 동북 (만주) 과 조선에서 지난 겨울의 기후 조건들이 실로 정상적이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국 및 조선인들이 비정상적인 현상을 미국 비행기들의 통과와 련관시킨것은 하등놀라운 일이아니니 미국비행기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세균들이 나온 비폭발물체들을 투하하는 것을 증인들이 보았던 것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목격자들과 회견하고 그들이 선량하며 대단히 믿을만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들이 아래에서 볼수있는 바와 같이 보통 또는 극히 기이한 형태의 용기들이 발견되여 연구되였다. 유감하게도 구라파에서 온 일부 문건 (4렬안전과 같은) 에는 미국 비행기들이 통과한 긴요한 언급들이 포함되여 있지 않았으나 조사단은 이 중요한 점을 명백히 할 수 있었다. (부록 참조)

또 하나의 론의는 많은 종류의 곤충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실제상 변경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설사 이것이 비정상적인 기후조건에 기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부 기타의 자연적 요소가 작용하여 모든 곤충의 출현을 그 정도만큼 체계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것의 실험은 다행히도 대단히 용이하였다.

그것은 다만 정상적인 출현의 순서대로 각종곤충을 라렬하여 그 다음 동일한 도표에 그 비정상적인 순서대로 그려넣는 것이였다. 만일 균일하게 작용하는 자연적 요소가 작용하였다면 이 두개의 곡선 또는 직선들은 평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림 (부록 참조) 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렇게되지 않았다. 비정상적인 출현의 순서는 어떠한 인공적인 요소가 간섭하였음을 보여주리만큼 그렇게 차이가 많았다.

조사단이 자기사업을 시작하기전에 각국에 있는 가설은 나팜탄 폭격이 악명높이 진행되고 있었으니만큼 이것이 땅의 열도를 국부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였다. 이러한 효과는 각종 곤충들의 정상적인 생명순환을 파괴하여 와해시켜 그들의 출현을 그들의 적당한 시기보다 수주일 또는 수개월까지 이르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단은 33개 주요사변들 (그의 일부는 부록 일람표에 제시되여 있음) 을 포함한 수많은 곤충군이 주지하는바와 같이 나팜탄이 투하되지 않은 지역인 중국 동북에서 나타난 사실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위에 말한 모든 것은 SIA 와 이에 병행하는 문건들에 언급된 곤충종류들에 적용된다.

개미, 말파리와 같은 보통의 이름으로 거기에 언급된 몇가지 종류는 중국 곤충학자들에 의하여 확증될 수 있었으며 여기에는 과학자가 아닌 목격자들에 의하여 사용된 용어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을 것이다.

나중에 조사단은 콜레오프테론 (딱정벌레) 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검증하였다.

이것은 제 차례에 가서 취급될 것이다. 세균에 감염된 곤충들의 이런 또는 저런 경우에 있어서 부록들에 수립된 자료는 세균 산포지역과 그 질병 발생지역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리용될 수 있다.

여기에 련관된 것은 또한 곤충을 박멸하기 위하여 중국과 조선에서 취하여지는 조치들과 (부록 참조) 수시로 수집된 정상적인 곤충의 표본들이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산포된 곤충에 관한 의학적 주석

다음 절에서 독자는 비 전문가들에게는 아마도 귀에 익지않은 곤충 및 거미등의 이름을 읽게 될 것이다.

다음은 그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자료 인바 이것은 부록에 채록된 순서대로 배렬되여 있다.

가장 흔히 투하된 곤충종류는 검은 파리 (히레미이아족) 이다.

이 종류의 파리는 북 아메리카에 특히 흔히 분포되여 있는 것이며 그의 수는 5백종 이상에 달하며 그중 많은 종류가 인간주택에 들어온다.

이 파리는 인분속에서 성장하므로 자연적으로 장질환의 매개에 커다란 역할을 논다. 검은 파리중 많은

종류는 유충기에 땅속에서 월동하며 보통 5월까지는 대량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자연 조건하에 이 파리들은 각종 형태의 식물성 병균에 감염될 수 있다. (페지 및 부록참조)

똥파리 (히레미자족, 텔로미지다애족) 는 퇴분 덩어리에 흔히 군집한다.

그것은 수십종에 달하며 그중 대다수는 사람 빨쥐 적은 포유동물 및 새의 배설물에서 유충시기뿐만 아니라 성충기에도 생활한다. 이 파리의 몇종은 인간의 주택에 자주 오며 음식물을 더럽히며 병균에 의한 인간질병의 기계적 매개물로 된다.

집파리 (무스카 도메스치카) 및 그의 남방형 (무스카 비치나) 은 항상 반드시 인간과 함께 살며 인간질병의 매개자로서 인정되고 있다. 병균의 60종 이상이 이 집파리에서 발견되고 있다. 큰집파리 (무스카 스타브란스) 도 역시 사람곁에서 살며 인간질환의 매개체로서 인정되여 있다. 이상 기록한 전체곤충은 쌍지류 곤충에 속한다. 플레코프테라는 돌파리의 일종인 네모우라로서 대표되여 있다.

그들은 시냇가와 소 하천에서 번식하며 그들의 유충은 물안에있는 미생물을 먹고산다.

성충들은 보통 자기의 성장지에서 멀리 날아가지 않는다.

사람과의 접촉은 물과 식물을 통하여 생긴다.

날개없는 원시적 곤충인 콜렘볼라는 이 소토마족 종에 의하여 대표되여 있다.

그것은 부패과정에 있는 식물 혹토가 많은 습지 및 야채뿌리에서 성장한다.

어떤 종류는 흐르지 않는 수면에서 번식한다.

자연 조건하에서 인간에 기생하는 사람벼룩 (풀렉스 이리탄스) 이 페스트의 엄중한 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립증되였다. (블라크 에트발타차트) 어떻게 이것이 세균전에 리용되였는가를 알수있을 것이다.

딱장벌레 프트누스 프티는 35—40종에 달하는 류에 속하여 그의 대다수는 동일한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일부는 인간의 주택 부근에서 생활한다. 상기 종류는 만장 인간주택 외양간 풀데미 및 정미소 도서관 공장에서 가장 빈번히 발견된다.

딱장벌레는 곡식알, 곡류, 목화씨, 썩어진 빵이나 비스켓트, 밀가루, 볏짚, 모피, 유단, 피혁등을 먹고 산다.

그리고 이 물건들에 산란한다.

한 세대의 성장과정은 3—4개월 걸리며 따라서 1년에 3대가 산생될 수 있다.

성충은 5년간 생활할 수 있다. 이 딱장벌레는 구라파 아세아 및 북미에 널리 분포되여 있다.

자연적 상태에서 이러한 딱장벌레로부터 독성이 맹렬한 탄저간균이 분리되였다. (부록 참조)

거미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리코시다에 족에 속하는 리코사종 및 파렌틀라종이다.

그들은 식육류이며 모기, 파리, 개미 및 곤충들을 먹고 살고 있는바 이 곤충들의 일부는 인간질병을 매개한다.

이러한 거미가 사람을 공격할 때 병리적 현상은 상처의 독소로 말미암아 일어날뿐만 아니라 또한 병원균이 동시에 주입될수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 거미들의 분비물도 또한 병원균을 보유할 수 있다.

그들의 생명은 대단히 길며 수년간에 달한다.

성충은 아무것도 먹지않고 2년동안 생활할 수 있으며 또 수개월동안 물을 먹지 않고 살수있다.

그들은 또한 어느정도 서리에 견딜수 있다.

과학적 서적에는 곤충들과 거미들을 대규모로 인공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방법들이 기술되여 있다.

이문제에 관한 가장 완전한 보고는 『무척추동물 사육방법』이라는 표제밑에 미국 곤충학자들이 준비한 전집 (1937년 뉴욕발간) 에서 얻을 것이다.

상술한 문건에서 알수있는 바와같이 산포된 일부 곤충들이 질병의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편 기타 곤충들은 이러한 작용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으로서 교과서들에 기술되여 있다.

히레미이아 네로미자는 자주 인간 가옥에 드나든다.

한편 콜렘블리드 이소토마종과 같은 기타 곤충들은 인간과의 접촉이 매우 드물다. 따라서 얼핏 보기에는 이러한 절족곤충들은 인간질병 전파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는 것같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소위 매개체의 특수성은 커다란 범위뿐만 아니라 또한 아직도 명백히 되지 않은 매개체 기생자간의 관계의 일정한 면을 고려에 넣어야만 한다.

이리하여 가금 기생곤충 데르마니쑤스 갈리나에와 사람과의 관계는 특수하고 협소히 규정된 조건들에서만 가능하다.

1944년 전까지는 뇌염 병원체의 전파와 보유에 있어서 이 외부기생물이 노는 중요한 역할에 관하여는 하등 알려지지 않았다.

그때까지는 만약 어떤 사람이 뇌염의 전염병을 인공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하여 데르마니쑤스를 리용하였다면 어리석은 일로 보였을 것이다.

사람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종류들이 필연적으로 야생의 종류들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질병을 매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으로서 접수될수있다.

즉 많은 실례들가운데서 우리들은 모기 아에데스 스카폴라리스와 하에마고구스 스페가에지니를 들수있다. 실험적인 조건하에서 이두종류는 황열병을 전파시킨다.

이모기들의 전자 즉 아에데스 스카폴라리스는 사람과의 접촉이 극히 가까우며 삼림지대에 있는 인간 주택에 자주 드나든다. 그러나 후자 즉 하에마고구스 스페가에지는 절대로 인간주택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모기는 황열병의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놀지않으나 야생의 모기는 매개체로서 잘 알려져 있다.

이 소토마에 관하여 말한다면 각종의 가설들이 설정될 수 있으나 여기에 있어서 우리들은 이 가설들이 하등알지못하는 실험들에 관한 억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ㄱ) 이소토마보다 하등 포유동물의 감염→외부 기생충 (벼룩 개선충등) →인간의 감염

(ㄴ) 이소토마→식물 또는 물의오염→인간의 감염

(ㄷ) 이소토마 그 내부의 병균체의 번식→이소토마 선천적 질병→다하등 포유동물의 감염→외부 기생체→인간의 감염

(ㄹ) 이소토마→식물김염 많은 기타 가설들도 또한 돌파리 넷모우라에도 적용된다.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자세히 말하기 곤난한 기타의 가능성들이 아마도 존재할 것이다.

매개체로서의 반 긴파리의 역할을 리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특히 인공적인 연구소 조건들이 감염률의 증대와 병균독성의 증대를 허용할때 특히 그러하다.

더욱 중요한 한가지 점을 강조할 가치가 있다.한개의 종류가 이지역에서는 야생적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사람과 같이 생활할수 있다. 한 실례로서 우리들은 케루테스지아류에 속하는 아노펠린 모기들을 인용할수있다. 이 모기들은 남아메리카 위도 24도 이북에서 인간과 동거하는 습성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말라리아전파에서 하등의 역할도 놀지않고 있다. 그러나 이와반대로 그 이남에서 그들은

인간과 동거하는 것을 매우 즐기기때문에 질병전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놓고 있다.

끝으로 아노펠린 모기들에 의한 말라리아병 벼룩에 의한 흑사병 및 진득에 의한 리켓차병 기타기생적 및 세균적 질병의 매개체로서의 절족동물의 역할을 확정적으로 규정할수 있기까지는 장시일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되여 있는 사실이다. 질병매개자의 전파에서 절족동물이 노는 역할은 계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기한 종류의 곤충 적게 알려지거나 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병균매개체들이 사용되였으리라는 것과 또한 이 비정상적인 병균 매개체의 박멸방법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세균전의 조건에서는 새로운 생물학적 관계가 발생하는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또 이 문제들의 연구가 비록 많은 시간과 로력을 요한다 할지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명백하다.

식물 병리학적 자료

앞서 문헌에서 미국비행기가 식물체들을 포함한 갑을 투하하는데 대하여 이미 다소 언급하였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갑들은 1,000피트 높이에서 파열되여 넓은 지역에 식굴의 잎 또는 기타 부분을 산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3월 20일 조선 정주에서 (NSNA/85.9페지 SIA/13.4 페지)와 중국동북 및 북조선의 기타 10개이상의 장소에서도 발생되였다.

어느 한 경우에서는 물체가 투하되는 것을 영국 종군기자가 친히 관찰하였다. (SIA/2페지)

조사단원들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중국식물병리학자 및 식물학자들과 함께 식물학적 및 세균학적 감정에 관하여 토의할 수 가 있었다. (부록)

콩대 및 콩깍지는 세르소스포라아소짐 (하라) 즉 세르소스포리나크치 (마츠모도 및 도모야스) 에 감염되여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였다.

이 균은 조선과 중국에도 투하된 식물 기생물이며 콩에 대하여 심대한 침해와 손실을 줄수 있는 것이였다.

여기에서 론의되는 다른 사건들에서와 같이 병원체들은 식물의 조직체 내부에서 발견되였으며 이는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까지도 감염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앞의 단편들중 어떤것들은 글로메렐라스프 또는 그의 무성기 솔레로트리쿰에 감염되여 있었다.

종전 실험에서 증명된 것과같이 병원체의 기생범위는 매우 넓은 것이며 사과 배 및 면화들을 손상한다.

보통면화 탄저병 (글로메렐라 고시피) 은 다만 면화 및 그의 동족 식물들만을 손상한다.

그러나 사과 고부병균 (글로메렐라 신굴타 스도네페) S§S) 은 30종 이상의

식물을 침해하지만 면화는 침해하지 않는다.

이두종의 병균은 중국에서 이미 알려져있는것이다. 그러나 발견된 균은 형태학적으로 보아 그들과는 구별되며 또한 더 광범한 기생범위를 가지고있다.

식물에 의하여 질병을 전파시킨 세째번 사건은 조사단이 자기사업을 시작한후인 6월에 료동성 남방 수암부근에서 발생하였다.

이 지방들에는 사과 및 배등 과실을 부패 (원형 반점으로)하게하며 이 나무들이 궤양과 고갈을 일으키는 균 (마크로포바 쿠와쓰카이하라) 으로써 감염된 복숭아잎 (자연기생이 아닌) 들이 발견되였다.

분리한 균은 전염성이 강한 것이였다. 상기한 3개 사건들에 있어서 식물체가 들어있는 갑을 투하한데 대하여서는 이를 목격한 증인이 있으며 그들의 상세한 진술이있다.

조사단의 주의를 끈『식물병리학적 전쟁』다음 사건은 중국 동북 료동성 안동 부근 소가보자촌 상공에서 진행되였는바 이곳에는 미국 비행기들이 자주 침입하였는데 한번은 비행기가 침입한직후 여러곳에 투하된 옥수수알들이 발견되였다. 또한 이 옥수수알들은 미국과 구라파에서 콩류식물들의 해독자로서 유명한 데사포라균에 감염되여 있다는것이 발견되였다.

그러나 이때에 발견된 식물병원체는 중국에서 전연 본일이 없는것이였다.

잎들이 때때로 파렬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대(식물탄저병의 경우)에서는 그 학명에 대한 정확한 감명을 할수가 없었다.

첫째 번 사건에서는 콩 (글리시네막스) 에 그리고 세째번 사건에는 복숭아잎 (프루누스페르시사) 에 네째번 사건에서는 옥수수 (제아마우스) 에 속하였다.

다른것들은 대개 쿠에르스 스프(가닥나무) 및 소르굼 불가레 (수수)종들이였다.

이들중에 2개사건은 특별히 흥미가 있다. (부록참조)

북조선 대덕산에서도 락엽수 (쿠에르수스알리에나 르비리페스 나카이) 잎으로 감염된 많은 잎이 투하된것이 발견되였다.

이나무는 38선 이남지역에만 엄격히 국한되여 분포되고있는 것이다.

중국 동북해룡현에는 5월 30일 남조선에만 자라고 중국동북에는 전혀 알려져있지않는 나무—린데라 글라우사로써 감염된 다른나무 잎이 투하되였다.

식물뿐만아니라 사람에게도 질병을 매개하기위하여 곤충을 사용한데 대하여 특기하여야 하겠다.

과리 힐레비아스프 (상기부록참조) 는 배 및 사과나무 에르위니아 사로로로라의『휘발성화상』의 매개체이며 옥수수 피토모나스 스테와르티의 세균성 침식 및 야채 에르위니아아르토부라의 연한 부패를 일으키는 매개체였다는것이 알려졌다.

이 세가지병은 다 세균성질환이다.

이들은 카베즈 포미잉감의 곰팡성의 매개체로 된다. 무세이나 스타불라스 (상기부록참조) 는 배나무와 사과나무의『휘발성 화상』의 매개체로 된다는것이 또한 잘 알려져있다.

중국 식물병리학자들은 산포된 곤충과 잎들에서 많은 세균들을 분리하였으며 그 연구를 계속하고있다.

일방적으로 식물에 의한 질병의 전파는 조선 및 중국동북 (만주) 에서 감행되고 있는 생물학적 전쟁에서 일정한 역할을 놀고있다는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조 선 사 건 (페스트)

제2차 세계대전 기간중 일본인들이 용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분사식 방법으로 페스트균에 감염된 벼룩을 대량적으로 산포함으로써 페스트를 포함한 세균무기를 사용한 방법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있다.

1952년초부터 북조선의 개별적 지점들에 페스트가 발생하였다.

이사건들은 언제나 대량적인 벼룩의 돌발적인 출현과 그에 앞선 미국비행기의 래습과 밀접한 련관성을 가지고 일어났다.

이러한 7개사건들 중에서 최초에 발생된 사건을 보고 SIA—1에 언급된바와같이 2월 11일에 발생되였다.

나머지 6개사건에 있어서는 이미 벼룩들이 페스트균에 감염되였다는것이 의심할 바없이 판명되였다.

보고 SIA—4에는 2월 18일 미국비행기가 안주 주변에 벼룩을 투하하였다는것을 보도하고있다.

세균학적 실험에 의하여 이 벼룩들을 페스트균 파스테렐라 페스티스가 감염되였다는것이 판명되였다.

2월 25일 발람리에는 페스트가 만연되였다.

조사단이 입수한 보도에 의하면 최근 5백년간 조선에는 페스트류행이 없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페스트의 류행구역은 약 4백 50키로메터나 떨어진 중국 동북지방과 1천 5백키로메터나 떨어진 중국 화남지방의 복건성이다.

북조선에서 정상적으로 페스트가 발생할 시기보다도 3개월이나 더빠른 시기이다.

출현된 벼룩은 자연조건 하에서 보통페스트균의 매개자인 쥐 벼룩이 아니라 사람벼룩 (풀렉스 이리탄스) 이였다.

중국에서의 조사자료 (부록참조) 및 기타 자료들에 의하여 이미 우리가 알고있는바와같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인들이 사용한 벼룩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벼룩이였다.

그러나 조선에서 조사단은 다음과같은 두개의 특별한 사건을 연구하였다. (부록참조)

제 1 례

3월말경 미국비행기가 강서군 한부락의 상공을 선회하였는데 이튿날 한 농민이 물독의 물표면에 대량의 벼룩이 떠 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이와같이 투하된 벼룩에 바로 그농민은 물렸을것으로 생각된다.

왜 그러냐하면 그후 며칠이 지나 그는 선페스트로 사망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전문가와 중국전문가들이 실시한 병리학적 및 세균학적 검사에 의하여 판명되였다.

이 벼룩들이 페스트균에 감염되여있다는것도 판명되였다.

조사단원들은 조선과 중국의 학자들이 환자에게서 분리한 균주를 검사하고 이 균주는 확실히 파스테렐라 페스티스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병리해부 표본과 조직학적 표본도 검사하였다.

활발한 위생방역 사업으로써 이곳에서는 새로운 발병이 방지되였다.

제 2 례

두명의 중국인민지원군 중위는 회양군의 어느산 언덕에서 대량의 벼룩뭉치를 발견하였다.

그벼룩들의 분포상태는 그벼룩들이 동북방으로 다소 느린 속도로 투하된 용기에 의하여 산포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는 아무러한 용기의 흔적도 없었다.

이 중국인민 지원군들은 검은 뭉치로 땅을 덮고 있으며 자기들의 바지의 하단에까지 물어오르는 대량의 벼룩뭉치에 대단히 놀랬다.

그들은 즉시로 부대에 돌아가 동무들의 방조를 받아서 솔가지를 모아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그일대를 소독하였다.

벼룩은 소탕되였다.

이공작중에 중국인민 지원군들은 방독 대책들을 갖추었다. (부록참조) 제때에 실시한 벼룩박멸 대책에 의하여 대량의 벼룩들은 그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조 중학자들의 세균학적 실험에 의하여 이벼룩들은 확실히 페스트에 감염되였다는것이 판명되였으며 그벼룩이 사람벼룩이였다는 것도 판명되였다.

그후 조사단원들은 직접 이 군관들과 질의응답을 실시하였다.

이 벼룩들은 사람벼룩 (풀렉시리탄스) 이였다는 것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

풀렉시리탄스의 생태학에 의하면 이와같이 대량의 집벼룩이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다는것은 전연 불가능한 일이다.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산 언덕에서 동시에 수만마리의 벼룩이 발견되여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써 설명되겠는가?

벼룩의 이러한 대량적 출현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더우기 벼룩이 발견된날 새벽 4시경에 이 장소에서 머지않는 곳에 주둔하고 있던 지원군들은 미국 비행기가 이곳 상공을 선회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사실은 벼룩의 출현과 직접적 련관을 가지는 것이다.

분석에서 명료한 바와같이 상술한 조건들에서는 풀렉시리탄스를 포함한 페스트 발생이 류행병학적 련쇄의 몇개 고리가 결여되고있다.

정상적으로는 페스트는 처음에 설치동물간에 류행되고 풀렉시리탄스가 감염된

다음에 사람들간에 전파되는것이 상례이다.

다만 이러한 후라야만 사람 벼룩은 사람들을 감염시킬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이와 류사한 기타사실들에 근거하여 조사단은 미국공군이 이와 류사한 방법 또는—만일 이 말이 정당치않다면—제2차 세계대전시에 일본인이 사용한 바와같은 방법으로 페스트를 조선에 전파하였다는 이외에 다른 결론에 도달할수는 없었다.

이 사건들을 연구할때 조사단은 평양에서 1941년에 작성한 보고의 저자인 우수한 중국의 페스트 학자의 방조를 받았다. (부록참조)

이 중국 페스트 학자는 그가 일본인들이 감행한 세균범죄를 세계에 공포할것을 국민당 정부에 제의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제의는 접수되지 않았었다. 그는 그의 제의가 접수되지 않은것은 어느정도 미국의 방해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조선에서 사용된 페스트균의 독력이 강하다는것에 대하여 조사단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페스트균에 감염된 벼룩의 투하는 전염병을 광범히 류행시킬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다른 방법도 이에 사용될수 있는것이며 지금 우리는 다른 방법도 역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알고있다.

감 남 사 건 (페스트)

조사단은 페스트에 감염되였으며 리병된 들쥐가 갑자기 대량적으로 나타나게된 사건들을 상세히 조사하게 되였다.

흑룡강성 감남현 감남시 4개부락 주민들이 1952년 4월 5일 아침 대량적인 들쥐와 같은 동물을 발견하였다.

이도시는 중국 동북 흑룡강성의 서쪽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것은 내몽고와 린접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전날밤 상기 농촌주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상공에 뜨고있는 비행기 소리를 들었으며 중국 항공감시대는 동비행기가 압록강을 22시에 넘은후 감남현 상공을 4월 3일 22시 30분경에 통과하였으며 사명을 끝마친듯이 침입한 코스를 따라 돌아갔다는 것을 말하였다 (부록참조)

비행기는 쌍발기 F 82형이였다는것이 확증되였다.

아침에 농촌주민들은 지붕과 마당 그리고 침대위에 까지도 거의 죽은 들쥐 및 죽은 들쥐를 대량적으로 발견하였다.

주택부근 5×15Km의 지면에서 수집되였거나 박멸된 들쥐의 총수는 717마리에 달하였다 (부록참조)

여기에도 커다란 계절적 차이가 있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종류의 설치 동물들은

이 지방에서 1개월후 까지도 나타나지 않으며 또 이렇게 대량적 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부록참조)

설치동물들이 발견된 장소에도 차이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런종류의 들쥐는 보통지역에는 나타나지 않는 까닭이다.

동물의 종류에 대하여서도 차이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지방 주민들은 그런종류의 동물을 일찌기 본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종류의 설치동물은 미크로투르종에 속하는것으로 판명되였으며' 형태학적으로 보아 이는 미크로투르 프레노 크바미우르 그레갈리르 그레갈리르에 류사하다. 이 종류는 1941년 도꾸다가 중국 동북 (만주) 감남 서북 구역에서 발견하였으며 또한 다른 저자들에 의하여 더 서쪽 지방에서 발견되였다.

중국학자들은 분류학적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동물은 중국동북의 (페스트) 류행구역에서 페스트 (파스테우렐라 파스티스) 를 보유하고있는 3종의 설치동물들중의 하나도 아니라는것을 또한 특기할 필요가 있다. 동부락들 및 심양 (봉천) 시에서 조사단이 시행한 증거의 분석은 이 동물을 집합시키는데 있어서 고양이들이 어느정도의 역할을 놀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와같이 들쥐들이 벌써 병에 걸렸으며 고양이들이 그들을 발견하기전에 벌써 사경에 있었다는것이 명백하여졌다.

이들중에 어떤것들은 고양이의 모든 활동과는 관계없는 환경하에서 죽었다.

감남구역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페스트도 알지못하여 만약 거리와 장해물에 주의를 돌린다면 거리상 관계와 장해물이 많은 결과 가까운 류행구역으로부터 페스트에 걸린 들쥐들이 이와같이 이동하였다고는 볼수없다는 충분한 리유가 있다.

더우기 기절적으로 보아 류행구역 설치동물들 중에서 페스트가 발생된것은 적어도 한달이나 더 빠른것이다.

세균학적 실험을 위하여 이 들쥐의 단 한마리가 보존되였다.

그러나 이검사의 결과는 강력한 병원성을 가진 페스트균이 존재하였다는것을 말하여주고 있다.

만약 그들이 전부 병에 걸렸거나 또는 거의 죽었다는 사실에 또한 주의를 돌린다면 이에서 다른쥐들도 역시 페스트에 감염되였다는 것을 결론지울수 있다.

이러한 증거는 중국학자들과 같이 공작한 조사단의 권위있는 전문위원이 실시한 실험으로써 확증되였으며 국립심양 (봉천) 의 의학대학 세균학 실험실에서 모든 조사단 위원들에게 명백히 보여주었다

상술한 증거들중에는 어떤 용기 또는 „폭탄" 도 발견되지 못하였다는 한개의 중요한 결여가 있다.

그러나 1952년1월 일본 잡지 『마이니찌』에 기록된 사실 즉 그속에 담겨진 감염된 쥐들을 방출한후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않고 자체로 타버리는 견고한 종이로된 용기와 락하산이 있다. (부록참조) 는 사실에 비추어 상술한 결여는 위에서

들은 많은 증거들을 부정하지는 못할것이다.

다른 일본 출판물 (1952년 8월 고와신붕) 의 보도는『이시이 시로』와같이 공작한『오가와』가 지도하는 연구소가 일본에 있으며 이 연구소에서는 설치동물이 대량적으로 배양되고 있다는것을 폭로하고있다.

이외에 조사단은 심양에서 10명의 농민들의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보충해야 하겠다.

조사단은 이 농민들과 기타 많은 농민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였다.

다른 조사단은 또한 지방위생 방역기관에서 일하고있는 방역학자 설치 동물들에 관한 특별연구에 대하여 책임있는 동물학자 및 들쥐에서 페스트균을 분리한 세균학자들의 진술들을 청취하였다.

조사단은 비정상적 들쥐를 발견한 후 곧 예방 대책을 실시하고 사건이 발생한곳에서 이날 정오에 이르기까지 고양이 및 개를 굉장한 속도로 전부 박멸 함으로써 주민들이 페스트로부터 구제될수 있었다고 인정한다.

중국 동북지역에서 실시된 대책들 중에서 주택구역내에서 벼룩을 소탕하는 실지 방법중의 하나를 특기할 필요가있다.

실내의 모든 기구를 내여 놓은후 온돌 및 흙방바닥에 짚을 깔고 이에 불을 지른다. 이로 말미암아 페스트에 감염된 벼룩은 사람에게 병균을 전염시킬 수 없게 된다.

이렇게하여 조사단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짓게 되였다.

즉 페스트에 감염된 많은 들쥐가 감남시에 1952년 4월 4일부터 5일에 이르는 밤에 비행기에 의하여 감남지역에 투하된것이다.

이 비행기 래습의 소리는 이 지방 주민들이 들었다.

이 비행기는 미국 쌍발 야간전투기 F 82형으로 판명되였다.

관 전 사 건 (탄저병)

조사단이 상세히 연구한 사건중의 하나는 꽃파리 안로미이드 플라이스 및 거미가 비 정상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나타나게 된것이다. (부록참조)

압록강 부근에 있는 료동성 관전현에서는 1952년 3월 12일 12시 30분에 주민들이 그들의 상공을 통과하는 미국 전투기 8기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행기의 침입은 당시 거의 매일같이 감행되였으며 극히 평범한 일이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쉽사리 그 미국 비행기를 식별할수 있었다.

중국 항공 감시대는 그 비행기들이 F 86이라는 것을 판정하였으며 그의 비행방향을 확인하였다.

그 비행기들중 하나로부터 광택있는 원주형 물체가 투하되는것이 확인되였다. 그러한 일이 있은후 즉시 그리고 또 그후 여러날 지방 주민들과 인민학교 생도들은 그 물체의 수색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꽃파리 (안토미이드플라이스) 와 거미를 발견하였다. 그후 9일만에 한 생도는 물체가 땅에 떨어질때에 생긴 작은 구멍과 그 주변에서 용기의 파편들을 발견하였다.

그 장소는 강으로 둘러싸인 작은 섬에 있는 옥수수 밭이였다.

당시에 이강의 바닥은 건조되여있었다. 락하된 "폭탄"의 파편은 대부분은 금속이였으며 그의 파편들은 엷고 구멍이 많으며 처음에는 판정하기 어려운 석회성 물질로써 구성되여 있었다.

그것은 그후에 분석되였으며 감정되였는바 이에 관하여서는 여기서 언급치 않겠다. (폐지 참조) 2일후 이장소에 2명의 권위있는 곤충학자가 래도하였다. 그들은 이미 4일전부터 이 지점에 린접한 지점에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많은 파리들을 수집하였으며 더운 물로써 눈을 녹이면서 가능한한 용기의 많은 파편들을 수집하였다. 벌판 밭 이랑에는 눈이 남아있었다는 것으로 곤충이 그가 떨어진 지점 부근에 일주일 이상이나 머물어 있을수 있었다는것이 설명되였다.

그것은 또한 그 지점에 많은 날짐승의 털이 있었다는 사실로도 설명된다. 파리는 낮은 온도로 말미암아 잘 움직이지 못하였으며 파리의 날개는 눈이 있는 관계상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였던것이다. 그 계절에 그러한 곤충과 거미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며 또한 이런 종류의 생물은 그때까지 그 지방에서 발견된 일이 없었던 것이였다.

중국학자들이 진행한 세균학적 실험은 발견된 곤충과 거미 및 날개털들이 탄저병 바칠루스 안트라시스를 일으키는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다는것을 명백히 감정하였다. (부록참조)

이러한 병균이 거미의 체내외에서 발견되였다는 사실은 극히 정상적이 아닌 현상이였다. 날개털에서 이런 세균들을 발견한다는 일이 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중국 동북 및 북부지방에서 닥치는대로 채취된 날개털에 의하여 중국과학자들이 진행한 세균학적 실험은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결과를 나타내였다.

이러한 날개털들은 곤충의 포장으로서 용기속에 들어있었던 것이라고 인정될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탄저병으로 감염된 날개털만이 투하된 사실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이것이 투하된 결과 발병된 탄저병 환자는 없었다.

상술한 사실들에 비추어 조사단은 탄저병으로 감염된 곤충들 및 거미들이 1952년 3월 12일 최소한 1기의 미국 비행기에 의하여 그리고 최소한 1개의 용기에 넣어 료동성 관전에 투하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료동 및 료서사건 (폐형탄저병)

조사단은 압록강을 건너 날아왔다가 도로 돌아간 미국 비행기들이 여러가지 물

체들을 투하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하였다. (부록참조) 투하된후 즉시로 그 지방에 사는 목격자들이 그것들을 찾으러 갔지만 투하가 예기된 장소에서는 화물 용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가지 곤충과 물건들 특히 다량의 딱장벌레 (곡식알을 해하며 곡물 창고나 그와 비슷한 곳에 사는 프티누스) 그리고 또한 다량의 새깃들이 발견되였다.

어떤 경우에는 다량의 집파리 (무스카비시나) 들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때는 흙이 아직 눈으로 덮였을 때이며 이 곤충들을 위해서는 정상적이 아닌 시기였다. 또 딱장벌레들의 출현이 그 시기적으로보아 정상적이기는 하나 백주에 개방된 곳에 그들이 대량적으로 존재함은 생태학적으로 보아 매우 특수적인 현상이다.

중국 세균학자들은 그들이 탄저병간균으로써 감염된 세가지 대상물 즉 딱장벌레 집파리 새깃을 발견하였다는것을 조사단에게 보고하였다.

여러가지 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발견한 분리된 간균들의 균주가 발효 발응이 전혀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비 정상적인 현상이다.

24인의 목격자들에 대한 상세한 심문이 실시되였는데 그중 일부는 투하되는 물체를 보았다.

중국 항공 감시대의 일지에 의하면 침입한 비행기의 대다수가 한대의 B—26형 폭격기를 제외하고서는 F—86형 전투기였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

한 경우에는 연기를 뿜으면서 담백질이 타는 불쾌한 냄새를 내면서 지상 약 10 메터 높이에서 파렬된 큰 붉은 물병같은 것이 투하된 것을 몇 사람이 목격하였다. (용기에 관한 조항 참조) 또 어떤 경우에는 투하가 예측된 장소에서 화물 용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날개털들이 점차적으로 3각형으로 펴져 지상을 덮으면서 바로 이 장소로부터 천천이 바람에 흩어졌다는 데 대한 귀중한 증거를 얻었다.

이 례로서 용기의 특징은 거의 전혀 그 흔적을 남기지 않은 그리고 관전에서 발견된 계란 접질형의 자동 폭발 용기를 몹시 련상케 한다.

페형 탄저병 및 출혈성 탄저 뇌막염을 병발하는 탄저병의 리병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연구 자료는 료동 및 료서성의 기타 지역들에서의 비행기 용기 생물체 및 세균학적 검사 결과들에 관한 보고를 보충하여 준다.

발병 사건이 있었는데 철도 종업원, 3륜차부, 가정 부인, 녀교원, 농민등 5명은 전부 사망되였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속도로 급격히 리병되였으며 병리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조직학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뵈여 주었다.

조사단은 사망자들 중의 아무도 탄저병에 리환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경우에 있어서는 딱장벌레로써 사망되고 기타의 두 경우에서는 파리와 우모로써 사망된 것이 명백하였다.

조사단은 중국 과학자들이 행한 진단과 그들이 뵈여 준 증거물에 대하여 만족하

였다. 증인들의 진술 (부록 참조) 은 제출한 문건 (부록참조) 들의 결여점들을 보충하고 있다는 것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증인들에 의하면 희생자 5명중 4명은 곤충 및 우모 수집 사업에 참가하였었는데 그들은 이 사업에 동원된 대부분 사람들이 취한 방역 대책을 등한시하였다. 즉 그들은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고무 장갑 또는 빈셋트 없이 곤충 또는 우모를 만졌다.

조사단은 중국 학자들이 주의를 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돌렸다 즉 딱장벌레의 프티누스는 수다한 부서지기 쉬운 히좐성 잔털로써 전신에 덮여 있기 때문에 세균 산포에 더욱 편리하게 한다.

위의 례가 탄저병균에 감염된 물체에 의하여 일으켜진 치명적인 발병의 유일한 례라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상술한 5개의 사건과 그와 관련된 병리 해부학적 자료들은 다만 한개의 실례로서 인용되고 있다. 이 례들의 의의는 동 지역에서 과거에는 이 병이 극히 희유하였다는 것을 고려함이 없이는 충분히 평가할 수 없다.

통계학적 자료는 (부록) 과거에 전형적인 농포성 피부 탄저병의 례가 중국에는 극히 드문 것이였다는 것을 뵈여 준다.

그 뿐 아니라 출혈성 뇌막염을 초래하는 폐형 탄저병은 전혀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다.

탄저병을 세균전에 사용하는 것은 곤난한 것이라는 보고를 문헌에서 볼 수 있다. 세균전에 대한 어면 『리론가들』의 눈에는 탄저병의 병원균은 우점도 있고 단점도 있게 뵈여진다. 단점으로 되는 것은 탄저병이 사람으로부터 사람에로의 전염이 쉽지 않으며 따라서 류행을 일으키기 곤난한 것에 있다.

다른 한편 여러 가지 동물들은 손쉽게 감염된다. 이 균은 외계 조건에 대하여 극히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며 넓은 지역을 오랜 시간 감염시킬 수 있다. 여기에 더 첨가할 것은 그 병의 특성이다.

상술한 희생자들은 전부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였으며 심한 허약을 동반한 급격한 발병 직전까지 비교적 정상 상태에 있었으며 발병후 48시간 이내에 사망되였다.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는 탄저병의 비정상성은 미 합중국에서 실시된 세균전 준비 사업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1946—1947년에 캄프데트릭크에서의 검사에 관한 보도가 과학 출판물에 발표되였을 때 이곳에서는 병독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될 수 있는 탄저 균주를 인공 배양기에서 얻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부록 참조) 상기한 증거와 자신들의 직접적인 검사, 그리고 의사 및 사망자의 친척을 포함한 수다한 증인들과의 질문들에 근거하여 상기 중국의 2개 성내의 많은 지역에 탄저병균에 감염된 각종 생물이 투하되였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출혈성 뇌막염을 일으키는 치명적 질병인 폐형 탄저병을 일으켰다는 결론에 조사단은

도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여하한 의심도 할 수 없는 증인들의 진술은 미국 비행사가 병균에 감염된 물체들을 실지 투하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 비행기의 래습은 지금까지 이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출혈 현상을 동반하는 폐형 탄저병의 수많은 치명적인 례들을 초래하였다.

대동 사건 (코레라)

북조선 보건상의 초청에 의하여 조사단이 큰 주의를 돌린 사건 중의 하나는 1952년 5월에 어떤 농촌에서 일어난 비참한 코레라 발생의 례이다. 마치 비행사가 무엇을 발견하려고 하듯이 약 1시간 동안 선회한 일이 있은 밤이 지난 그 이튿날 이른 아침, 한 농촌 부녀가 산언덕에서 나물을 캐다가 짚 뭉치를 발견하였는데 그 속에는 조개가 들어 있었다. 그는 이것을 집에 가져와 자기 남편하고 같이 날로 먹었다. 그날 저녁때 그들은 위독하게 발병하여 그 다음 날 저녁 때에 둘이 다 사망하였다.

의학적 증거들이 보여 준 바에 의하면 이들의 사망 원인은 확실히 코레라 때문이였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부록 참조) 그 후 방역대들은 그 산언덕에서 조개가 들어있는 다른 짚뭉치들을 발견하였다. 조 중 전문가들이 실시한 세균 검사에서 이 조개들은 코레라균에 감염되였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부록 참조)

만일 균에 감염된 바다의 조개가 산언덕에서 발견되였다는 비정상성을 도외시하더라도 전염병학적인 중요한 비정상성이 남아 있게 된다.

제기된 통계적 자료들은 어느 때든지 코레라가 조선에서 류행병으로 만연한 적이 없다는 것을 조사단으로 하여금 명확히 확인하게 하였다.

최근 40년간의 코레라 발생은 언제나 항구 도시를 통하여 병이 침입하는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는 반대로 코레라의 근원지와는 떨어진 농촌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1세기 동안을 걸쳐서 5월 달에 코레라가 발생한 일은 다만 1회뿐이고 8월 이전에 발생한 례도 매우 드물다. 메레트릭스 메레트릭스 종에 속하는 발견된 조개에 대하여 몇가지 특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 전쟁 초부터 이와 같은 조개는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2. 조개를 싼 짚뭉치는 보통 그들이 시장에 나타나는 시기보다 1개월 빠르게 산언덕에서 발견되였다.
3. 조선에서는 판매할 때에 이 조개를 짚에다 싸는 법이 없다.
4. 조개를 투하할 때 땅에다 심하게 부닥쳤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개 껍질이 깨졌기 때문이다.

많은 해변 농촌과 항구 도시들에 음료수를 공급하고 있는 급수소로부터 4백메터이내의 거리, 그리고 저수지들로부터 1키로메터의 거리에서 이 감염된 조개들

이 발견되였다는 것을 알고 조사단은 대단히 전률하였다.

조개가 발견되기 전날 밤에 급수소와 린접된 려과소는 이를 파괴할 목적으로 많은 소형 폭탄을 사용한 미국 비행기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였다. 그러나 그들은 급수 장치는 파괴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

서로 일치되는 당지 농촌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부록 참고) 조개가 나타난 제2차 폭격을 한날 밤의 천기는 어두웠으며 바람이 불었다. 이리하여 물의 반사면을 찾기 위하여 비행기가 계속 선회하였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코레라균은 높은 식염 농도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유기체이다.

일본 문전에 의하면 해산 연체동물은 비부리오를 발육시키는 데 좋은 배양기로 리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조개는 담수를 만나면 껍질을 닫아 버리며 또한 그럼으로써 죽는 기간이 연장된다. 이러한 동안에 그 내부에서 코레라 비부리오도 번식할 수 있다. 이러한 조개가 사망된 후 세균들은 그 담수 중에서 약 1개월간 살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조사단은 다음과 같은 정확하고 유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즉 미국 공군은 2차의 공습에서

1. 대동에 있는 수도 저수지의 급수소를 상하지 않게 려과소를 파괴하였다. (5월 14일에서 15일에 이르는 밤)

2. 급수 저수지를 오염시킴으로써 코레라 류행을 일으키려고 기도하였다. (5월 15일에서 16일에 이르는 밤)

이 젊은 소박한 부부는 전쟁의 유린과 빈궁으로 인하여 세균을 매개하려고 의도하는 이 조개를 부주의하게 먹고 드디여 죽어 버린 것이다.

이 사건은 코레라의 인공적 매개자인 파리가 발견된 곳에서의 기타 상술한 다른 례들과 관련시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용기 또는 폭탄의 종류

폭발물이 적게 들어 있거나 또는 전연 들어 있지 않는 용기 또는 폭탄 (만약에 이 술어를 세균 무기에 사용할 수 있다면) 의 종류를 볼 시기가 왔다.

상이한 시기, 상이한 장소에서, 특히 심양 및 평양 부근에서 조사단은 보균 곤충을 수송 산포하기 위한 많은 용기들을 세밀히 조사할 가능성을 얻었다. 이와 같이 하여 조사단원들은 쁘라그 문전에서 진술된 바를 검토하여 이에 발표되지 않은 구조까지 자세히 연구할 가능성을 얻게 되였다. 후에 명백하게 될 것이지만 조사단의 과업은 각종원인으로 인하여 용이한 것이 아니였다. 우선 용기 중에서 어떤 것은 자동 파괴 장치를 가진 것이 있었다. 그것들은 땅에 닿은 후 깨져서 작은파편으로 되여 버리든가 혹은 내용물이 빠져 나온 후 저절로 타버리는 장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쁘라그 문전이나 조사단에 제출된 증거물에도 정확

치 못한 점들이 있었다. 그것은 증인들이 용기가 투하된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그들이 이 용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할 수가 없었다. 또 그들이 그 잔해를 발견하였다 할지라도 요구되는 방향에서 상세히 그를 기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관련되고 있다.

포로된 비행사들도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이러한 지식이 실제 활동에서 그들에게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행사 (퀸 아슈포르크) 가 출석한 강의 시간에 (폐지 및 부록 참조) 이 폭탄들이 실험 도중에 있기는 하였으나 그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명확히 지적되였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행사들의 진술은 흥미를 끌기는 하였지만 이 문제에 관하여 일반적 지식을 줄 뿐이였다.

이러한 관계로 이 조항에서 언급되여 있는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는 보류 조건을 달 필요가 있다. 별써 이 조항의 설명이 길다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하여 조사단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상대적 불완전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폭탄의 형태 및 장치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며 또 어떤 경우에 폭탄이 투하되였는가를 항상 판정할 수 있다. 동시에 주의하여야 할것은 보균 물체가 때로는 직접목적한 대상물에 투하되였다는 점이다.

편리상 우리는 용기없이 산포하는 방법으로 부터 진술을 시작하여 자동 파괴 용기로써 끝마치여야 할 것이다. 보조적 장치, 특수성이 적은 장치는 락하산의 유무를 불구하고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1. 분 무 법

NCNA—85, 4폐지 미제 세균전 조사단 조선 분단 조사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에 의하면 2월 11일, 중국 지원군 전사 리친샨 은 철원에서 미국 비행기가 3백 메터의 상공에서 곤충을 산포하는 것을 보았다. 공습이 있은 사실과 대량의 곤충이 나타나는 사실을 련관시켜 보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곤충들은 10×6키로메터의 타원형을 이룬 지역의 눈 위에서 발견되였다. 우리는 이 사실과 네 사람의 미국 비행사의 증언을 련관시킬 필요가 있다. 즉 그들에 대한 5회의 개별적 강의에서는 산포 방법이 가능하며 또 장차 리용되리라는 것이 이야기 되였던 것이다.

증언 중의 1개소에는 (오닐, 부록 참조) 비행기에 있는 장치의 도면이 들어 있다. 다른 비행사 (니스, 부록 참조)가 진술한 바에 의하면 그는 6월에 산포가 시작되리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첫 증인은 산포가 적어도 2월 18일부터 시작되였다고 말한만큼 중국 지원군 전사의 증언에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산포될 수 있는 곤충에 관하여 말한다면 모기와 같은 유약한 곤충은 사용할 수 없으나 벼룩은 완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 세균 비루스 및 독소는 아에로졸 또는 안개 모양으로 산포할 수도 있

을 것이다.

2. 폭발하지 않는 물체와 종이 봉지

몇 가지의 쁘라그 문건들에서는 각색 종이봉지에서 곤충들이 기여 나왔다고 기록되여 있다. 2월 11일 철원에서 중국 인민 지원군 전사들은 미국 비행기 3대가 폭발하지 않는 물건을 투하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그것은 길이 20센치메터, 직경10 센치메터의 황색 원주형 종이곽이라는 것이 판명되였다. (SIA—1.6.페지 SIA—4.5 페지)또한 곤충이 들어 있는 10×10×3CM의 립방체의 회색 종이봉지도 발견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3월 4일에는 백색 종이곽이 평양에 투하되였고 (NCNA—85.6페지) 3월 10일에는 갈색 종이곽이 창도 (NCNA—85.6페지)에 투하되였다.

포로된 비행사들 (이노크 윌슨, 퀸 아슈포르크, 페지 참조) 이들은 두 강의에서는 감염된 곤충을 포장하기 위하여 종이가 사용된다는 것이 이야기되였다. 어떤 곤충들은 종이갑에 넣어 직접 투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종이갑들은 투하시에 벌려지는 선전 삐라를 뿌리는 폭탄에 의하여 산포된것이 확실하다.

3. 시한탄 장치가 있는 공중폭과 선전 삐라탄

이 용기는 조선과 중국에서 세균전에 관하여 발표되는 보도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기의 하나이다.

조 중 량국 정부가 수집한 용기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이 용기이다.

조사단원들은 이 폭탄의 많은 표본을 보았다. 이 폭탄의 크기는 보통의 250키로그람 폭탄과 동일하나 그 무게는 75키로그람에 불과하며 따라서 손으로 비행기에 실을 수 있다. (부록 참조) 폭탄의 두부는 원추형이며 그 끝에 시한 폭발장치가 있다. 두부에 그다지 크지 않은 공간이 있고 그 밑에 원주형의 탄피가 달려 있는데 이 탄피는 3개의 격벽으로써 분리된 4개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 탄피는 세로 구분되여 있고 문을 만들어 문고리를 달아 필요한 때에 열려져 안에 있는 물건이 나오도록 되여 있다. 맨 마지막 끝은 다시 좁아져 원추형의 공간으로 되여 네 갈래로 나뉘운 안전 장치가 달려 있다. 그 밑에는 상당히 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탄이 천천히 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락하산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본 조사단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자료는 수집하지 못하였다. 광포한 자료에 기재되여 있는 폭탄의 크기 (NCNA—85, SIA—13, ISCC—4 및 기타) 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조사단이 본 견본들과 포로된 비행사들의 기록은 폭탄의 크기에 있어 일치되는바 그것은 대략 직경 0.4메터이다. 강철로 만든 폐는 두께가 3 미리메터이며 4개의 공간의 전 용적은 72릿터이다.

시한 파렬 장치의 길이는 3인치를 약간 넘는다. 기입되여 있는 문구는 "삐라용 폭탄——500폰드——M105로트 (LOT) ——시 간 (파렬기) ——공간" 이다

포로된 비행사의 기록에 의하면 (부록 참조) 문은 약 30——40메터의 지상에서

열려 직경 약 100메터의 면적에 내용물이 흩어진다고 한다.

3월 26일에 미국 비행기가 녕원 상공을 선회하다가 급강하하여 2개의 폭탄을 투하한 것을 목격한 군인의 기록 (부록 참조) 은 증인들의 증언의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이 두 폭탄은 투하되자 각각 두 조각으로 분렬되여 대량의 곤충이 길이 약 200메터, 너비 100메터의 지면에 나타났다. 곤충이 가장 많이 산포된 곳은 탄흔 (깊이 21센치메터) 부근인바 이곳에는 매 평방메터 당 100마리의 곤충이 있었다. (NCN A—85. 5페지)

조사단은 대부분이 농민인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를 가지였는데 그들은 료동성 장백현에서 3월 27일 및 31일에 비행기로부터의 투탄이 있은 이후 3개의 폐탄과 그 주위에 있는 다수의 곤충을 발견하였다. (ISCC—4, SIA—10)

평양에서 본 조사단은 수집된 용기들을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표를 작성하였다.

호수	시 일	시 간	장소	도	비 고
208	2월26일	야 간	평원	평안남도	파리. —4°
209	2월28일	새 벽	금화	강 원 도	파리. 면적300×300피트—3°
205	2월28일	오후8시	평원	평안남도	파리
210	3월1일	아 침	신천	황 해 도	원형의 지역에 파리가 있었음, 폭탄이 투하된 장소의 중심2,700평방 피트×—1°
201	3월5일	야 반	문천	강 원 도	파리, 600×300 피트, 파리의 동작은 민활치 못하였음
207	3월10일	오전4시	성천	평안남도	원형의 지역에 파리가 있었음, 폭탄이 투하된 장소의 중심 직경 150피트, 가장 파리가 많은 곳에서는 매 평방야드에 20——30마리
204	3월21일	야 간	문천	강 원 도	파리
206	3월26일	오전9시	녕원	평안남도	원형의 지역에 파리가 있었음, 폭탄이 투하된 장소의 중심, 면적 100평방야드

이와 같은 종류의 용기들은 4명의 포로 비행사들이 청취한 9회의 강의에서 다소 자세히 설명되였다. 이 비행사들은 조사단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비행기에 싣고 와서 투하한 세균 폭탄이 이와 같은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하였다. (부록 참조)

세계 각국의 출판물에서 삐라탄 사용에 관하여 공개적인 론쟁이 전개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미군 화학부장이 공식적으로 성명한 바에 의하면 이 용기들은 완전히 미생물을 산포할 수 있게끔 되여 있는 것이다. (SIA—9, P, 1; NCNA—85, P'5 ISCC—4)

4. 프로페라가 달린 공중 파렬 삐라탄

이 용기는 상기한 탄의 변태이다. 탄두의 신관에 조그마한 프로페라가 달려있으며 일정한 회수 프로페라가 돌면 탄이 폭발하도록 되여 있다.

이러한 종류의 폭탄이 사용되였다는 진술은 거의 없었으며 조사단은 그것이 사용되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포로된 비행사들 (오닐—마크 라프린, 아래 참조) 이 청취한 한 강의에는 이러한 폭탄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5. 프로페라로 열리게 된 문이 있는 삐라탄

이것은 상기한 두 종류의 폭탄과 외형이 흡사하나 탄두에 프로페라가 달려 있어서 그것이 일정한 회수 회전하면 폭탄에 세로 달려 있는 몇개의 문이 열리고 뒤이여 봉지가 바람에 날리게 된다. 이 용기도 역시 쁘라그 문건에 기재되여 있지 않으며 또 본 조사단도 그의 존재 또는 사용에 관한 직접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폭탄도 역시 포로된 비행사들 (퀸 아슈포로크) 에 의하여 청취된 한 강의에서 설명되였었다.

6. 타격을 받은 후에 열리게 된 문 또는 벽이 있는 삐라탄

이 형의 폭탄에 있어서는 타격을 받아 진동한 후에야 전류를 보내는 축전지가 있어 이에 의하여 움직이는 장치 때문에 폭탄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든가 여러개의 문이 열리든가 한다.

교질성 물질로 된 간격이 터지면 산이 나와서 금속판에 도달하여 전기를 일으킨다.

이와 같은 종류의 탄에 대하여서도 쁘라그 문건에서 지적 되지 않았으며 존재에 대하여 의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폭탄이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품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폭탄은 포로된 비행사들 (퀸 아슈포르크, 페지 참조) 이 받은 강의 중에서 설명되였다.

이 설명에 의하면 이와 같은 탄은 락하산으로 장치되여야 하며 또 완전히 가능

하며 그리고 이는 강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바로 이런 용기가 락하산의 도움을 받아 감염된 곤충을 산포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오닐 마크 라푸린, 니스홀레만, 니스마크 라푸린) 포로된 비행사 중의 한사람 (부록) 은 자기에게 제공된 락하산이 달린 용기의 스케취를 하였다.

7. 명주 락하산이 달린 지통 혹은 경지통

조사단이 본 락하산이 달린 용기의 유일한 형태는 조명탄에 리용되는 용기와 흡사하다.

이것은 경지통이며 벽의 두터이는 약1센치메터, 길이 약 36센치메터, 직경13센치메터이다.

이 탄에는 〃USC5—1—1—1952년LOT—100—F—6〃라고 씌여 있다.

여기에 달려 있는 락하산의 직경은 70센치메터에 불과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NCNA—85.5페지) 이것은 조명탄용 보통락하산의 30분의1에 불과하며 탄이 지면에 닿을때 타격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지에는 불에 탄 자취가 없었다.

이는 조사단이 본 어느 견본에 있어서도 동일하였다.

재미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용기 중의 하나가 모기 투하에 사용되였다고 추측되는 점이다 (강동 3월 26일NCNA—85, SIA—13) 두말할 것 없이 오르토클라더우스나 모기 같은 유약한 곤충들은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서만 지상에 도달할수 있는 것이다.

8. 종이 락하산이 달린 (자동식으로 파괴되는) 종이 용기

조사단은 이와 같은 재미있는 형의 용기를 보지 못하였으며 포로된 비행사들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기는 1952년 1월에 〃마이니찌〃 신문에 게재된 소좌 사가기의 론설에서 극히 자세하게 설명되여 있다. (부록)

이 기록에 의하면 종이 용기는 질긴 종이로 제조되며 모래 주머니를 넣는 몇개의 간이 있으며 뢰관이 있다.

이 뢰관은 필요한 시간에 명주 또는 종이로 만든 락하산이나 종이 용기 자체를 태워 버리기 위한 것이다.

사가기의 설명에 의하면 용기는 지면에 닿자 곧 열려져 생물체 (페스트 감염된 쥐) 가 쉽게 나오게 되여 그 후 얼마 있다가 연소되여 아무러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모든 기구는 용기의 내용물이 10메터 지상에서 나온후 바람에 날리여 다른 곳에 가서 연소되도록 할 수 있다.

사가기가 페스트에 감염된 쥐의 산포를 위한 이러한 용기의 사용을, 특히 지적하고 있는 사실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할지라도 감남에서 이 용기들

이 사용되였다고 추측할 근거를 준다.

종이 용기를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쥐가 지통을 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행할 기간 적어도 쥐를 반 마비 상태에 두어야 할것이다.

조사단이 이를 지적하는 리유는 이와 같은 용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주의를 돌리기 위하여서이다.

9. 도기제 폭탄형 용기

제2차 세계 대전시에 일본 세균전 기관은 "자기" (사실에 있어서는 도기)로 만든, 적어도 두가지 규격의 폭탄형 용기를 하르뻰 근방의 공장에서 제조하였다.

조사단은 이러한 탄 (큰 것은 길이 약 80센치메터, 작은 것은 50센치메터)을 심양에서 검사하였다.

상기한 사가기의 론설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아직도 일본에서는 이러한 용기를 세균용으로 사용할 것이 권고되고 있지만 조사단은 1952년에 조선 또는 중국에서 이것이 사용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용기는 상기한 모든 용기 중에서 가장 완전한 용기인 『계란형』 용기——즉 지상에 떨어지자 작은 파편으로 분해되여 발견하기 곤난하게 되는 용기——의 전신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10. 계란 껍질형 용기

3월 21일, 료동성 관전시외에서는 어떤 석회질 물질로 제조된 용기의 파편 200개 이상과 굽어진 표면에 금속축이 달려있는 접씨같은 금속판이 발견되였다.

그 당시의 환경은 (ISCC—3, 부록 참조) 이것이 3월 12일에 미국 비행기에 의하여 투하된 용기의 파편이라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용기는 탄저병균으로 감염된 검은 파리, 거미, 새털을 산포하는데 사용되였다고 추측할 근거가 있다.

금속으로 만든 부분 및 석회질의 파편들은 중국 과학원 현대물리 연구소 및 응용 물리 연구소에서 충분히 분석되였는바 그목적은 그의 원형을 복구하는 데 있었다. (부록 참조)

이와 같이 하여 상하지 않은 본래의 용기는 원통형이였으며 적어도 그의 한쪽 끝은 원형이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였다. 용기의 전체 길이는 40센치메터 이상이고 금속 축의 길이는 28센치메터이다. (그림 참조)

금속 완곡판의 곡률 반경은 21.5센치메터이고 직경은17.4센치메터이다.

석회질부의 반경은 14센치메터이고 석회질의 벽의 두께는 2미리메터이다. 용기 전체의 외면은 알미늄색으로 채색되였다.

렌트겐 검시에 의하면 벽의 재료는 주로 탄산 칼숨으로 구성되였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그리고 특히 칼숨으로 구성된 부분도 분광 검사 (스펙트르 그라프)에서 약간량의 마그네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화학적 검사에서는 조형질을 띠게 하기 위하여 유기 물질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 확증되였다. 본 경우에 있어서 이와같이 부서지기 쉬운 용기가 비행기에서 투하된 후에 당하여야 할 압력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아직 의문이다. 관전 사건 (ISCC--3) 은 이미 부분적으로 발표되였고 (SIA—3,2페지 및 SIA—8,6페지) 조사단은 보존되여 있는 석회질의 파편을 검사할 가능성을 가졌다. 그러나 이것이 조사단이 본 유일한 것은 아니다.즉 례를 들면 6월 6일, 벽동 부근에 곤충이 산포될 때에 축구뽈 보다 약 2배나 큰 은색의 공이 천천이 락하하는 것이 관찰되였다. (부록 참조) 이 외에도 북정자 사건 (ISCC—3, SIA—6. 1페지) 의 증인의 한사람은 미국 비행기가 투하한 번쩍거리는 물건을 보았다. 이 때에 탄저병균이 묻은 새털도 발견되였다.기타 자료들 (즉 례를 들면 SIA—10, 1페지) 도 역시 확신을 가지고는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종류에 소속시킬 수 있다.

조사단은 틀림 없이 미국 사람들이 압록강 량측 강변에 3월 및 6월에 이와 같은 용기를 투하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

11. 기타 용기

이상 렬거한 이외에 다른 몇가지 용기가 사용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 남아 있다. 특히 설치류를 투하하기 위하여 철사로 만든 원통 (NCNA—85, 5페지) 과 나무통 (NCNA—85, 6페지) 이 사용되였다. 만약에 이러한 용기들이 사실상 높은 곳으로부터 투하되였다면 어떠한 락하산이 리용되였을 것이다.

그러나 대동군에서 발견된 코레라균을 보유한 연체 동물은 짚에 싸서 직접 비행기로 투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부록 참조) 수류탄같이 생긴 용기에 대하여서도 언급되여 있다. (NCNA—85, 6페지) (SIA—13) 조사단은 이와 같은 용기를 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조사단원들은 평양 지구에서 곤충 산포에 사용된 투명한 록색 용기의 파편을 볼 가능성을 가지였는데 이 용기는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포탄처럼 사용되였었다. (NCNA—85, 5페지, 6페지, SIA—13) 세균 전쟁에서의 포의 리용에 관하여는 포로 비행사들 (이노크—윌손 및 오닐—윌리암스, 페지 참조) 이들은 강의에서 적어도 두번은 언급되였다.

조사단은 실지에 있어서 사가기가 서술한 방법, 즉 가스간그렌 또는 파상풍 병원균을 포함하는 제라찡 류산탄을 뿌리는 방법을 사용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질병 만연 방법 이외에 파라티브스균이 묻은 솜이 발견되였다는 것을 부언한다. (DHMS, CPVF의 보도)

12. 지상에 투하된 생물체의 지상에서의 분포 정형

쁘라그에서 출판된 문건을 연구하면 보통 전혀 상하지 않은 삐타『탄』 파편을 중심으로 주위에 원형으로 곤충이 산포되여 있다고 증인들 전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여진다. 이것은 아마 용기가 열린 장소 주위에 곤충이 비교적 원형으로

산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조사단은 지상에 투하된 물체가 널려져 있는 두가지 흥미있는 례를 알았다.

한 경우에 있어서는 (ISCC—5, 부록) 세털이 투하된 장소로부터 천천히 날아가서 길이 $\frac{1}{2}$키로메터, 넓이 $\frac{1}{4}$키로메터의 삼각형의 지면에 펴지였다.

삼각형은 점차적으로 길어지고 넓어졌다. 비록 용기나 또 그 파편을 입수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경우에 있어서 폭탄이 전적으로 『계란껍질』 형태였을 것이다.

조그마한 언덕에서 많은 량의 사람의 벼룩이 발견된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곤충은 타원형으로 30×10메터의 지면에 덮였는 데 그것은 대략 타원형의 초점의 하나에 큰 밀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사람벼룩들이 어떠한 용기에 넣어서 투하되였다고 판단할수 있게 하는바 그 용기는 타원형이 징축 주위를 운동하는 락하산을 가진 용기일 수도 있다.

체포된 간첩들의 증언

전쟁 개시 후 세균전의 효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전달시킬 목적으로 간첩들이 북조선에 파견되였다는 것을 조선 당국은 조사단에 통고하였다.

그 중 많은 간첩들은 체포되였는데 그들의 진술에 의하여 미국의 정보 기관의 조직과 그들에게 부과된 임무들을 알게 되였다.

수명의 간첩들——례를 들면 중국인과 조선인——에 관한 구체적 자료는 이미 SIA—7에 발표되였다.

조사단은 평양에서 그들중의 한 간첩 (부록) 과 장시간 담화할 기회를 가졌다.

자기 학업도 전부 마치지 못한 이 청년은 1945년에 남조선 정부 『청년단』 에 가입하였다가 미군이 퇴각할 때 그들과 같이 딸아갔던 것이다.

북조선에 대한 그의 반감의 중요 동기는 정치적 신념보다도 좁은 개인적 리해관계에 있은 것이 분명하다.

그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미국 보조 정보 기관에 가입하였다.

그는 1951년 12월부터 1952년 3월까지 서울에 있는 『K, L, O』 라는 조직에서 그가 받은 정치, 군사, 위생 훈련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부록)

그는 그곳에서 필요한 정보 수집에 대한 기술을 배웠다.

이 시기는 세균전이 진행되고 있던 기간이다.

2월 초순 경에 그는 성질을 모르는 무수한 주사를 맞았다.

그는 출발 직전까지는 어떠한 외국 군대 장교와도 접촉한 일이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 지시는 통역을 통하여 미군 소좌로부터 받았다.

지시 가운데는 일정한 그의 활동 지역이 밝혀 있었고 미국 사람들이 알려고 하는 질병 (티브스, 페스트, 코레라, 뇌염, 적리 및 천연두) 에 대하여 상세히 써 있었다.

그는 북조선이 숫자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가능하다면 보건 관계, 기타 정부 기관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또는 필요하다면 훔쳐서라도 이를 입수할 데 대한 지시를 받았다.

그는 또한 자기가 먹는 것에 대하여 극히 주의하고 곤충 전파지점은 밤에 통과하지 말며 끓이지않은 물을 먹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다.

그는 북조선에서는 질병이 만연하고 있으나 그가 주사를 맞았으므로 별일이 없으리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3월 29일에 북조선에 넘어와서 5월 20일 그가 체포되기까지 그와 함께 온 무전사와 같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기피하였는데 그것은 공범자들을 감추려고 한 데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뵈였다.

그는 북조선의 보건 관계자들과 별로 접촉은 가지지 못하였으며 미군 본부에 거의 아무러한 정보도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북조선에 불법 침입하기까지 세균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어떠한 암시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그는 다만 북조선에는 여러 가지 전염병이 류행하고 있다는 말과 남조선 군대는 『가장 근대적 과학 무기를 사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였다.

그는 공시문을 읽고서 비로소 세균전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조사단은 그의 표정과 그의 임무 및 지시에 관한 증언으로 보아 상술한 것들이 사실이며 그가 육체적 내지 정신적 압박을 받지는 않았으리라는 전원 일치한 견해를 가지게 되였다.

더 첨부하여 말한다면 그는 금전을 사랑하는 사람같이 뵈였다.

조사단은 전선 넘어에로 전염병에 관한 간첩들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였다.

조사단은 간첩의 임무가 세균전의 효과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미군의 유죄를 립증하는 축적된 다량의 증빙 자료에 새로운 사실을 첨가하는 것이다.

공군 포로의 진술

1952년 1월 13일, 조선 안주 상공에서 미 공군 비—26폭격기 1대가 격추되었다.

항공사 케이•엘•이노크 중위와 조종사 존퀸중위는 5월 5일, 그들이 과거에 세균전에 참가한 사실을 고백하는 장문의 성명들을 북경을 통하여 전세계에 광포하였다.

상술한 바 문건들은 SIA—14와 15에 수록되어 있으며 원고의 사진판들과 함께 쁘라그에서 발행된 소책자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 해당부분은 여기에도 부록에 재수록되여 있다. 문건 SIA—17과 18도 참조를 요한다. 그러나 거기에 수록된 후기의 담화들은 기술적 과학적 증거물에 대하여 새로운 것은 제기하고 있지 않다.

이 항공사들의 주요 선언들 가운데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째로 그들은 일본과 조선에서 세균전의 방법에 관한 비밀 강의를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는 것이다.

이 강의는 청강자들에게 커다란 충동을 주었다.

그에게 강요된 강의는 극비의 정보를 내용으로 한 것이며 배양된 균을 직접 또는 분무으로 산포하며 또 곤충의 힘을 빌어 질병을 전파하며 (기계적 전파, 혹은 생물학적 전파) 용기에 넣어서 락하산으로 투하하는 쥐; 유독성 식물을 사용하며 그리고 세균탄에 관하여 해설하는 것이였다. 여러 가지 용기들과 그리고 폭탄에 관하여도 말로 또는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이것들을 투하하는데 있어서의 정확한 고도와 항공 속도에 관하여 설명이 있었다 퀸중위가 참석한 강의 가운데서 특히 의미 심장한 발언들을 듣는다면

(가) 『질병을 전파시키는데 있어서는 거의 어떠한 세균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나) 『쥐도 투하할 수 있으나 이는 필요치 않을 것이다.』

(다) 뇌염도 리용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노크와 퀸은 세균전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고 내부적으로는 극도로 꺼리면서 이러한 비행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특별한 폭탄들은 여러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비행사들이 그것을 너무 가까이 검사하지 못하도록 특별 감시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한 보고에서는 여러가지 용기들을 투하하는데 가장 적당한 각종형의 비행기에 관한 설명이 들어 있었다.

두 항공사가 개인적으로 아는 바에 의하면 수 많은 그들의 동료들도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후기의 담화를 통하여 세균전에 관하여 훈련을 받은 공군 인원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나타났다. (SIA—17)

비행 지시를 받을때 이노크 중위는 『세균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퀸중위는 『불발탄』 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되였었다. 그러나 그들은 비행 결과에 관하여 보고할때는 다 같이 (불발탄) 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되였었다.

이들의 고백이 서구라파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으려고 하지않은 자들은 결국 2명의 청년 밖에는 이를 승인하여 나서지 않았다는 것과 이러한 사실이 실제에 있어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과 전체 진술이 날조라는 것을 떠들어대면서 이고백들이 육체적 내지 정신적 압박에

의하여 입수된 것이라는 듯이 말하여 이 사실을 말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퀸중위의 담화 가운데의 전후 당착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SIA—16)

이러한 환경 하에서 조사단은 이상에 언급된 2명의 장교 뿐만 아니라 더 한층 구체적이며 긴 설명 (부록)을 들려 준 에프•비•오닐 중위와 폴 니스 중위의 두 사람을 조선에서 만나게 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이 4명의 미군 비행사들을 통하여 조사단은 미군인 생활면의 한개의 좋은 단면을 보게 되였다. 즉 한사람은 두뇌가 명석한 전기 기사이며 한사람은 중산 계급의 실업가이며 한사람은 화학 연구자이며 또 한사람은 농가 출신의 신체가 튼튼한 강철 로동자이다.

조사단은 자유로 담화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이상 4명과 잠시간의 회화를 할 기회를 가졌었다.

조사단원들은 전원 일치하여 이전쟁 포로들이 선언서를 발표하도록 어떠한 육체적 내지 정신적 강압도 받지 않았다는 견해를 갖게 되였다.

이러한 선언들은 그들을 포로한 중국인과 조선인의 우의와 친절을 오래 동안 경험한 끝에 자기 정부의 군사 기밀을 공개함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가책보다도 전 인류와 인민들에 대한 자기들의 의무가 더 한층 크다는 것을 자각한 나머지 그들 자신의 자유 의사로 발표한 것이다.

회담의 대부분은 비행사들과 조사단원 간의 문답 형식으로 진행되였다. 매개 비행사는 담화에 앞서 그가 서면에서 진술한 바와 근사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의 량심이 가져온 신념을 엄숙히 확언하였다. 증인들의 성명 (ISCK—4와 5) 들과 담화의 골자를 포함한 이들에 대한 견해는 부록에 재수록되여있으므로 이들에 관하여 여기서 이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성명서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1951년 말과 1952년 초에 미 공군 내부에서 어떠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아래와 같은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1951년 6월, 니스, 미국에서 로리의 강의에 참석

이 보고는 적이 세균전을 실시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 것이다.

8월 25일, 이노크, 일본에서 위르손의 강의에 참석

미국은 세균전에 관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적은 이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었다.

10월, 이노크, 조선에서 부라우닝의 강의에 참석

성명 내용 이상과 동일

12월 1일, 오닐, 미국에서 윌리암스의 강의에 참석

세균전 실시 의도에 관한 태도에 대하여 언명은 없다.

12월, 이노크, 조선에서 부라우닝의 강의에 참석

성명 내용은 10월과 동일

12월 18일, 퀸, 조선에서 아쉬포크의 강의에 참석 적이 세균전을 실시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였다.

1952년 1월 3일, 퀸, 제1차 세균탄 투하

그는 『불발탄』으로 명령 받았다.

그러나 다른 조건들로 보아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1월 6일, 이노크, 제1차 세균탄 투하

그는 『세균탄』이라고 명령을 받았으며 『불발탄』이라고 보고하게 되였었다

1월 22일, 오닐, 조선에서 마크타플린의 강의에 참석

세균전이 결정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2월 15일, 오닐, 제1차 세균탄 투하

그는 『세균탄』이라고 명령을 받았으며 『공중 작렬』이라고 보고하기로 되여있었다.

2월 18일, 오닐, 특제 비행기로 부터의 분무 방법 사용에 관한 증거를 목격

2월 22일, 니스, 미국에서 홀맨의 강의에 참석

세균 무기 실시를 결정적으로 부인하였으나 미국이 세균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

3월 21일, 니스, 조선에서 마크라플린의 강의에 참석

세균전이 1월 1일 이래 시작되고 있다고 결정적으로 말함

미국 정부는 될 수 있는 한 이를 계속 부인할 것이라고 언명

3월 27일, 니스 제1차 세균탄 투하

『고사포 파괴탄』이라고 명령 받았으나 『임무의 결과 미확인』이라고 보고하기로 됨

상기 사실들로 보아 북조선 및 중국 인민에 대하여 세균전을 개시할 데 대한 명령이 1951년 말에 전달되였으리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항공사들은 심중한 학습 강의로써 사전에 그 임무에 대한 준비가 되였다. 그리고 조선에 그들이 실지 도착할 때까지 1952년 1월 이후에도 그들이 무엇을 할 예정인가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 기지에서 세균전은 한개의 리론적이며 순전히 방위적인 문제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조선 기지에서 비행사들은 그들이 도착하기 수주일 내지 수개월 전에 세균전이 이미 시작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놀랬던 것이다.

전반적 명령이 개성 정전 담판기간 중에 내렸다는 사실을 비행사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밖에 비행사들로부터 별도로 청취한 증언 중에도 몇가지 주목을 끌 점들이 포함되여있다.

그들이 포로의 사살 금지와 같은 공인된 관습과 전쟁 수행 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도 받은 기억이 없으며 미군의 군대 수첩가운데서 이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본 일이 없으며 더우기 일부 국가들에 있어서 일정한 전쟁 형태가 금지되여 있다는 사

을 들어 본 일이 없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였다.

그런데 증인들의 증언은 세균탄을 투하할 데 대한 명령이 그들의 동료들의 사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일치되여 있었다.

북조선 인민들이 실륙에로 무자비하게 몰려 나온 데 대하여 벌써부터 염증을 느끼게 된 그들 중의 허다한 자들은 이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이였다. (부록)

증인들이 체포된 후에 있어서 일단 항복한 자를 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선인과 중국인의 친절한 대우를 받았을때, 그들이 감정의 격변을 일으켰다는 것은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있는 바이다.

담화를 한 장교들은 그들의 사용한 각종 용기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 같이 뵈였다.

이는 분명히 그들이 조종사와 항공사였기 때문에 전투 장교라면 알수있는 정보를 받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 물질의 원천에 대하여 다만 상상 밖에는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 중의 일부가 이는 일본에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게 된 것은 의미 심장하다.

요컨대 본 조사단은 광범한 담화와 직접 인간적인 접촉을 통하여 그 진실성을 접수하고 조사단 앞에 증거를 제출한 장교들의 공정성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이며 건강하게 뵈였다 그들은 자연스러운 어조로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꺼리끼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뵈였다.

본 조사단은 다시 한번 비행사들의 어떠한 육체적 내지 정신적 압박을 받은 일이 없으며 그들은 중국의 인도주의의 고귀한 전통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신념을 표명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본 조사단은 비행사들의 증언을 진실한 것으로 접수하였는바 이는 실로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이미 전방에서 수집된 어디까지나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증거를 더욱 보충하는 것이였다.

신 중국의 위생

조사단은 현재 중국 인민의 위생상태와 위생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조치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철저한 것이다. 중국인민이 극히 불만족스러운 위생 조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관념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지배적인 조건들을 표면적으로 일견함으로써, 그리고 보건에 관한 정부의 지시를 실천함에 있어서 중국 인민들이 표시하고 있는 열성만으로도 이러한 관념을 일소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최근 수년간에 달성된 비상한 발전을 뵈여 주기 위하여 몇가지 숫자를 들 수 있다.

1951년에 중국 동북에 3천 5백만 마리의 쥐를 박멸하였으며

1952년 봄에는 1천만 마리의 쥐를 박멸하였는데 이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류례없는 쥐에 대한 전쟁이다.

전염병 매개자로 될 수 있는 파리와 기타 곤충들을 박멸하는 투쟁은 전 각지에 보급되였으며 북경은 파리와 모기를 거의 볼수 없는 도시로 되였다 해방 전에는 종두사업은 적게 실시되였으며 효과도 적었다 1년간에 (1946년) 종두를 받은 사람의 수는 최대 7백 3O만을 초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해방후 3년간에 종두받은 사람의 수가 3억7백만명에 달하였다 이 결과 천연두는 거의 완전히 근절되였다.

조사원들의 재 교육으로 파상풍 때문에 영아 사망률은 1951년에 1949년에 비하여 3분의 1로 저하되였다 이 기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영아 및 산모의 사망률은 절반으로 감소되였다.

전통적으로 한방의 방법에 따르는 허다한 개업 의사들이 위대한 보건 운동에 보조원으로 동원되였으며 그들은 그들이 유용한 역할을 놀수 있는 근대 의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받을 용의가 있다는 것을 립증하였다 북경 및 기타 큰 도시에서는 뇌염 병독의 원천이며 기타 많은 전염병의 매개자로 간주되였던 주인 없는 개들이 완전히 일소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왁찐 혈정 생물 실험소의 기구와 생산 능력에 있어서도 거대한 발전이 있었다

조사단은 이에 관한 북경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그 능률과 고도의 생산력 및 탁월한 과학적 연구 능력에 감명을 받았다 보건 운동은 다만 북경이나 또는 소수의 기타 『모범』 도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확실한 소식통이 언명한 바에 의하면 이는 중국 대륙의 방방곡곡에 까지 침투되고 있다 조사단 전원은 흑룡강성 이북 및 내몽고 변강의 벽지들을 위시한 동북 려행 중에 자신이 이를 볼 기회를 가졌다. 조사단원들은 깨끗한 농촌에 다대한 감명을 받았다.

해방후 중국에서는 다른 어느곳에서도 종래에 보지 못한 대규모의 보건 교육 운동이 전개되였다 그들이 거둔 성과는 남녀 로소를 불문하고 전체 주민의 진심으로부터의 협력이 없이는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쌓인 쓰레기를 일소하며 마당과 묵은 터를 깨긋이 청소하고 창에 그물을 치고 각종 해충과 투쟁하며 구충제 및 왁찐을 생산하는 등의 전반적 보건 수준을 부단히, 그리고 급속히 제고시키는 모든 가능한 대책을 잘 고안하여 정상적으로 철저히 집행하였다.

군중 대회, 포스터, 화보, 벽보, 출판물, 연극, 영화 등의 모든 가능한 교육 방법으로 기본 교육이 실시되였다.

중국 농민 대중은 세균전이나 또는 세균전의 위협에 당면하였을 때 어떠한 행동을 취하여야 할 것인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조금이라도 혼란을 일으킴이 없이 이를 집행하였다.

조사단은 전국 각지로부터 온 허다한 증인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중앙정부 및 각 행정구 인민 정부 위생부의 지도하에 공중에서 투하한 용기에서 나온 모든 것을 수집 박멸하기 위하여 그들의 논 밭과 도로를 물샐틈 없이 살피고 있는 수 많은

보통 인민들의 질서정연한 행동을 엿볼 수 있었다.

오늘날 중국에서의 위생상 발전은 세계 보진 기구가 련달아 막연히 강조하고 있는 것과 대차 없는 조치들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음을 뵈여 주고 있다.

만일 중국 정부가 각계 각층의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누릴 수 없었다면 그와 같은 단기간의 커다란 진전은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농민들과 공장 로동자들과 학자들 및 종교 단체들은 정부의 의도에 찬성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던 것이다.

개 론

쁘라그 문건에서 종합된 사실 뿐만 아니라 6, 7, 8월에 조사단의 심의를 위하여 제출된 사실들도 역시 도표에 의하여 종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가장 명백한 일련의 사실들은 도표 (부록) 에 렬거되였다.

매 사건에는 문건 번호, 일자, 장소 및 환경들이 기록되였으며 또한 비행기 통과의 인정 여부, 어떠한 물체의 락하를 목격한 여부, 용기의 발견 여부, 곤충 또는 기타 생물체들이 비 정상적으로 집결된 장소의 발견 여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생물들의 밀도까지도 기록되였다.

다음으로는 곤충학적 및 동물학적 감성, 세균학적 실험의 결과들, 그리고 전염병학적 고찰등을 기록하였다 도표에는 이미 알려진 사건들중 극히 적은 부분만이 수록되였다는 것은 리해되여야할 것이다.

이 종합표는 병균으로 감염된 생물체의 출현이 반드시 인간의 발병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뵈여 준다.

이는 감염된 도시 및 농촌의 주민들이 공중으로부터 산포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비 정상적 생물들과 물체들을 수색하여 소멸한 속도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이다.

도표가 뵈여 주는 바와 같이 이러한 대책들은 너무나 효과적으로 진행되였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세균학적 분석을 위한 표본까지도 남겨지지 않았다.

기타 례에 있어서는 실험을 진행한 병균의 형태에 따라 세균학적 분석은 음성반응을 가져왔다.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지난 1년 동안에 중국 동북에 대한 비행기 침입 회수가 수없이 많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폭발물에 의한 폭격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월 29일부터 3월 21일간에 미국 비행기들은 료동, 료소, 길림, 송강 및 흑룡강성 등 (SIA—3) 70개 현에 걸친 중국 동북 지방 (만주) 에 175회에 걸쳐 955기가 침입하였다 기타 숫자들도 역시 렬거되였는바 (NCNA—85 ; SIA—3) 최근 중국 상공 침입행위는 감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가되고 있다 례를 들면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의 8일간 미국 비행기는 79회에 걸쳐 398기나 중국 상공에 래습하였다.

중국 동북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지역적 분포도 역시 흥미 있는 것이다 4월 말에 이르기까지 잘 연구된 례에만 근거하여도 사건의 최다수 (18 건) 는 조선과 가장

길게 국경을 접하는 료동성에서 발생되였다 그곳에는 사건들이 철도 및 대도로에 매우 린접한 지역들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가장 편벽한 흑룡강성에서 발생된 8건의 사건들에서도 볼 수 있었다 치치하르와 하르빈 북방에 한쪽이 백마일 이상이나 되는 큰 "S" 형으로 굴곡된 철도가 있는데 8건의 사건들은 모두 이 철도선 주변에서 발생되였다. 종전에 발표된 문건들은 한편으로는 감염된 곤충과 환자 발생의 경우를 련관시키면서 세균학적 및 전염병학적 설명을 한 것이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곤충과 비행기의 통과를 련결시키면서 증거를 렬거한 것이였다.

그 문건들에 수록된 자료들 중에는 개별적 경우에 있어서 불완전한 것이 있었다. 그러므로 중국 및 조선 과학자들과의 합동 하에 본 조사단은 상술한 사건들, 즉 회양, 김남, 관전, 료동, 료서, 대동 등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관하여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모든 조사에 의하여 비행기, 매개물 및 인간의 발병 사건 간에 련관성이 있다는 것은 론쟁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서두에는 사건 분석 방법이 설명되였다. 다음으로 가장 완전히 분석된 사건들로부터 나온 자료들을 종합표로써 례거할 필요가 생기게 되였다.

자료들을 이와 같이 대조할 때 조직적 계획이 명백히 들어나게 된다. 비행기들은 언제나 볼수 있었으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때로는 비행기의 코스를 알아 볼수도 있었다.

포로된 비행사의 언명은 후에 보충적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다음으로 도표에는 용기의 락하, 사용된 매개물과 그의 형태, 세균학적 실험 및 그에 따르는 림상 병례 등에 관한 필요한 자료가 기재되였다.

이 모든 사실들과 관련하여 본 조사단은 많은 보통 중국 주민들의 말을 청취하고 그들에게 질문하였다. 본 조사단 성원은 증인들이 정직하며 충실하며 그들의 증언이 정직하며 명백하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전문적 문제에 들어가서 본 조사단은 페스트가 그것이 아직도 류행하고 있는 중국 동북 (만주) 으로부터 교통으로 인하여 조선에 전파되였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인에 의하여 제거된다.

즉 …첫째로, 페스트가 새로 발생한 조선내의 지역과 상술한 류행 지역 사이에 있는 지역들에는 한번도 페스트가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로, 페스트 발생에 있어서 커다란 계절적 차이가 있었다. (부록 참조) 세째로, 페스트는 사람들 사이에서 류행되기 전 먼저 쥐들 사이에서 류행되는 것이 그 특징인데 조선내의 지역들에서는 죽은 쥐를 전혀 볼 수가 없었다. 네째로, 림상학적 결과는 때때로 비행기의 사전의 통과 및 매개물의 산포와 명백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인이나 북조선인은 처음부터 량국 국경에서 가장 엄격한 위생 방역 공작을 실시하였다.

전파된 질병중 몇가지는 사람 뿐만 아니라 가축에 대해서도 관계가 있는 질병, 즉 탄저병이였다. (NCNA—85, 부록) 전파된 어떠한 매개물에서부터 파스테렐라 물도시다 (셉티카) 의 존재가 확인된 때에 이 미생물은 실험실 동물들이 그것에 보통 감염되여 있는 고로 처음에는 의의가 없는것 같이 생각되였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축에 대한 무기로써 사용되였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였다. (부록 참조) 코레라 비브리온에 관해서 말한다면 상술한 상세히 조사된 례(대동)에서는 연체 동물로부터 발견되였으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곤충 특히 파리들로 부터도 발견되였다. (부록)

이는 살모넬라 티포사 및 에스 파라티포사 시겔라 디센테리알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병균들은 이때까지 그와 류사한 질병이 발생된 일이 없는 지역에서 출현한 파리에서 발견되였다.

이것은 닥치는 대로 수집된 보통 파리의 내부 또는 표면에 병균이 존재할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조선에서 적대 행위가 발생되기 여러해 전에 간행된 중국 의학 문헌들은 이에 관한 연구사업 결과들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대조를 정확하게 수행하였다. (부록)

이 문헌들은 질병이 류행하지 않은 시기에는 보통 파리는 티브스 혹은 파라티브스 또는 코레라 비브리온 등 병균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부록이 금년에 심양(봉천)에서 실시한 일련의 류사한 연구사업에 관한 더욱 명백한 자료를 첨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곤충이 세균을 보유하는 데 대한 연구사업에 있어서 수학적 조사 방법을 리용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특별 부록 (　　) 에서 해설된다.

이미 쁘라그 및 기타 문건에서 론술된 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곤충 매개물이 논 역할에 관하여 언급하여야 하겠다. 부록 (　　)

중 하나는 투하된 곤충의 동물학적 감정을 취급하였다.

또 하나의 부록 (　　) 은 세균전에 관련된 의료적 곤충학에 관한 문제들을 일반적으로 연구함에 있어서 독자들을 방조할 것이다.

(도표는444페지후면에계속)

비행자 (ISCK-4, 5 부록 CC, DD)	+ + +	+	+	+	+	+		
배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코레라) ISCK—1	+		+		+ + + +	+	+ + +	
안산 (중화인민공화국 페스트) ISCC—6	+			+			+ + + +	

	안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페스트 SIA—1,4	초음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페스트 SIA — 1	감남 (중화인민공화국) 페스트 ISCC—2	강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페스트 ISCK—2	회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페스트 ISCK—3	관전 (중화인민공화국) 탄저병 ISCC—3	료동 (중화인민공화국) 폐형탄저병 ISCC—5	벽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록 S	장백 (중화인민공화국) ISCC—4
비행기 : 보았다 소리를 들었다 비행 항로 탑승원을 심문하였다	+	+	+ +	+	+	+ +	+ + + + + +	+	+
루하 : 루하 물체를 보았다		+				+	+ + +	+	+ + +
용기 : 발 견		+				+			+ + +
분무 : 의심된다				+					
동물 또는 기타 매개체 비정상성 : 고도한 밀도 계절적 지리적 종별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물 또는 기타 매개체 : 세균 검사 :	+	+	+	+	+	+	+		
추후 발생된 인간의 병례 비정상성 : 계절적 지리적 질병 종류	+ + +			+ + +			+ + + +		
매개체의 질병 비정상성 : 계절적 지리적 질병 종류적			+ + + +						

먼저번 보고에는 일련의 문제들, 특히 조선에서 발생된 사건들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평양에 체재중 본 조사단은 보건상 리 박사에게 일련의 질문을 제출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답을 제때에 접수하였다 (부록) 그리하여 몇개의 번역상 오류가 발견되였다 첫번째의 조선어 보고(SIA—1)에서 사용된 『진드기』라는 말은 사실에 있어서는 트롬비쿨라 아카무시라는 붉은 벌레를 의미하는 것이였다.

또한 동일한 문건에 언급되였던 짹쥐에 기생하는 파리 닉테리비데에 관하여서는 본 조사단은 권위있는 조선 당국자들로부터 이 곤충들이 세균 전쟁과 관련되여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통고 받았다 그러나 살모넬라 및 시겔라에 감염된 죽은 물고기가 여러번 산기슭에서 발견되였다는 언명을 확인하게 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항상 음료수 수원지에 가까운데서 발생되였다는 것이 강조되였다.

이것은 본 조사단에 의하여 주밀하게 연구된 대동 사건 (폐지 및 부록)을 상기시키는바 거기에는 코레라를 전파시키는 목적이 명백히 드러났던 것이다 특히 서방 과학자들의 흥미를 끌게하였으며 본 조사단과도 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제는 비행기가 지나간 후 리오필화된 담백양 물질이 발견되였다는 사실이였다. (NCNA—85) 개별적 군락으로 발견된 이 물질은 근기가 있었으며 눈 위에 놓여 있을때에 수분을 흡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였다.

화학적 분석은 그가 담백 분해물질—푸로테오제 페프톤 및 폴리페프티드로써 구성되여 있다는 것을 뵈여 주었다.

세균학자들은 이 물질로부터 만닛트 분해성 적리균을 분리할 수 있었다. 본 조사단이 조선에서 사업하던 시기에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단은 조선 기관들의 보고서들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조사단은 이 물질은 투하된, 동결된, 그리고 건조된 세균 자체의 배양 물질이라는 데 귀결하는 가설이 완전히 사실 같다고 생각하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보건상 자신도 이 가설에 동의하였다 외계 온도가 극히 낮은 조건 하에서 곤충을 산포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조사단은 이와 같은 단정을 내릴 만큼 준비되여 있지 않았지마는 그 증거로서 포로된 비행사가 특히 랭기에 대한 저항력을 가진 곤충들의 생산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는 것을 지적한다.

전항에 있어서는 (폐지) 비행기로부터 산포되였던 18종의 곤충들과 거미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세균학적 실험에 의하여 그 중 9종이 병균을 보균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였다 나머지에 관해서 조사단은 그들이 완전히 균에 감염되여 있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다 아무도 무엇이 나타날지를 모르며 더우기 인공적으로 선택된 세균 및 병독을 조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문제로부터 병균을 분리해 낸다는 것이 곤난한 것이다 가능성들을 다 리용한다는 것은 곤난한 일이다 세균전에 관한 미국 문헌에는 조선에서 실제로 있었던 것과 비하여

몇개의 모순이 있다 이 저작 중에 서술되여 있는 단정들은 본 조사단의 관찰과는 합치되지는 않는다 어떤 중요한 경우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견해가 낡은 것이라고 하는 것 같다 페스트는 전형적 실례이나 10년전 르즈베리씨는 전쟁 목적을 위하여 페스트를 효과적으로 만연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전파자의 지역에까지 만연될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만 만연 시켜야 한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언명하였다.

조선에서 실시한 본 조사단의 사업은 데트리크 병영의 종전 사업 지도자였던 이로련한 세균학자의 의견과는 반대로 전선에 가까운 곳에서의 여러번에 걸친 페스트전과 기도를 폭로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의 의견 차이는 외견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에 소독 기술은 거대하게 발전되였다 즉 한편으로는 각종 혼합물 형태로 결합된 새롭고 강력한 살충제가 고안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살충제를 대량적으로 단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분사식으로 산포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제작되였다 이 기계는 제2차 세계 대전 기간에 발전된 연막 장치에 의하여 고안된 것이다 실제 경험을 통하여 곤충 매개물에 의하여 발생된 질병을 그지방으로 부터 소멸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였다.

최근 발표된 보도는 조선에 있는 미국 군대가 이러한 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며 장차 적대 행동이 발생될 경우에 있어 평범한 수단, 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세를 타개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계의 중요성이 큰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문헌과 현장에서 발견된 사실간의 표면상의 모순을 일소한다 이는 역시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곤충에 의하여 발생되는 기타 모든 질환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는 것이며 곤충 매개체의 사용에 있어 조선에서 발견된 일반적 경향을 설명하는 것을 돕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인증된 실례는 전형적인 것인바 우리들은 세균전의 가능성을 이때까지 자연적 조건 하에서 관찰된 것만으로 국한할 수는 없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실천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은 표면상 모순을 제거하여 준다 조선에서 미군측이 곤충 매개물을 거의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문헌에서 볼 수 있는 보류 조항들을 부당한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일한 리유로 말미암아 조사단은 세균 병독 및 독소들을 분무 방식으로 산포하는 것이 세균 전쟁의 유일한 효과적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과 의견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의 경험 (폐지 참조) 은 현재 새로운 수준에서 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사단이 조사한 사건들 중의 하나, 즉 중국 동북 (만주) 의 심양시 (봉천) 및 료동성 안산 등 도시들에서 발생된 류행성 뇌염 (뇌염—SIA—3, 8, 000 10) 은 병독이 이 분무 방식에 의하여 산포되였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본 조사단은 이 문제에 관하여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질병과 공급과의 일정한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증거는 사실상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완전한 문건을 부록 (ISSC—6)에 삽입하였다.

본 조사단은 세균 무기에 의하여 사망된 중국 및 조선 주민의 총수에 관한 구체적 숫자, 전반적 리병률, 또는 사망률은 발표할 수 없다. 그것은 또한 이 사건들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를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발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전문가적 의견을 말하여 달라고 본 조사단이 초청된 그러한 사건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조사단이 확인한 사실들, 특히 극히 비 정상적인 환경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지점들과 류행지점들에서 사망되였으며 그것이 미국 공군활동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하는 데 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발생하였으며 또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 사건들을 경고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인민들은 이러한 형태의 전쟁의 잠세력과 그의 막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결 론

1952년 初부터 조선과 중국동북에서 발생된 극히 비정상적인 성격을 띤 현상들은 이 두나라의 인민들과 정부들로 하여금 미국 군대가 세균전을 감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게하였다.

세균전에 관계된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조직된 국제 과학 조사단은 2개월 이상 현지에서 수행한 사업을 총결하였다.

조사단은 많은 사실에 접하였으며 그 사실중 몇개는 호상 련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였다. 바로 이 사실들에 본 조사단은 자기 주의를 집중시켰다. 본 조사단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조선 및 중국의 인민은 바로 세균 무기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 세균 무기는 미군 부대들이 각종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한 것인바 그중 몇개는 제二차 세계 대전시 일본 군대가 사용한 것과 같은 방법을 발전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단은 론리적인 계단을 밟아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 조사단은 증거 앞에 머리를 숙이여야 하였으며 세계 인민측으로 부터 전반적인 규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비인간적 방법이 사용되였다는 것을 확증하여야 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세계를 전쟁으로 부터 옹호하며 과학의 발견들을 인류의 학살을 위하여 리용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6) 미군 비행기들이 곤충을 산포한데 관한 자료

1. 총 론

(1) 미군 비행기들이 곤충을 산포한 증거

1952년 2월 29일부터 미국 군용 비행기들은 중국 동북지구에 수많은 종류의 곤충들을 련속적으로 광범히 산포하였다. 3월 6일 미군비행기들이 곤충을 산포한 지역은 산동성 청도에 까지 확대되였다.

이와같은 곤충들의 발견정형, 이 발견과 미군비행기들의 침범과의 련관성 및 곤충학상의 많은 비정상적 현상은 그 곤충들이 결코 그곳에서 자연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미군 비행기들이 산포한 것임을 의심할바 없이 단언케한다.'

미군비행기들이 곤충을 산포한데 대한 증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1) 항공정형과의 련관

그 곤충들은 모두 미군 비행기들의 침입활동이 있은 후 발견되였다.

례를들면 3월 4일 오전에 미군 비행기 3대가 관전현 석라자촌에 침입하였다.

이날 오후 동 촌 주민은 촌락에서 떨어져있는 눈위에서 대량의 귀뚜라미(그릴루스 헤스타세우스 왈케르)를 발견하였다. 3월 7일새벽 미군 비행기 1대는 무순一심양간 상공에 침입하여 행동하였다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심양 고가자 오리대교 지대에서 많은 검은파리를 발견하였다. 3월 20일 오후 8시경 미군 비행기 1대는 장백현 일대의 상공에 침입하여 행동하였다. 무현 수개촌의 주민들은 다음날 아침 촌락 내와 밖에서 네개의 간을 가진 세개의 탄각을 발견하였다. 이 네개의 간으로 구분된 세개의 탄각 부근에서는 또한 흑색탄미충,파리, 모기 (오토콜 라류스종) 벼룩,귀뚜라미 (그릴루스 헤스타세우스 왈케르) 및 거미들을 발견하였다. 3월 6일 저녁 9시 미군 비행기들은 청도시에 침입하였다.

다음날 동시 산동두 해안일대에서 많은 검은 파리와 거미 (타렌툴라)를 발견하였다.

(2) 목격자의 립증

그 곤충들의 발견은 미군 비행기의 활동과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어떤 지방에서는 주민들이 공중으로 부터 일종의 물체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것이 떨어진 곳에서 곤충들을 발견하였다 례를 들면 3월 6일 오후 안동시 동간자 주민 단문영 두공주는 미군 비행기 4대가 상공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10분이 지나서 눈같이 날아 내려오는 검은 파리,모기(오토클듀스종) 및 거미들을 발견하였다. 3월 12일 관전현의 상인 한영빈은 미군 비행기가 세균탄을 투하하는 것을 보았으며 다음날부터 세균탄이 떨어진 동현 소재지 동문밖에서 많은 검은 파리와

거미 (타렌툴라) 를 발견하였다.

(3) 발견 장소의 비정상성

많은 곤충들은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발견되였다. 례를들면 흑색 탄미충은 습기있는 곳에 있어야한다 그러나 3월 4일 무순 경마장의 지상 6메터되는 곳에있는 세멘트로된 관중석 위에서 그리고 이곳 가까이 있는 약 12메터 높이의 세멘트로 만든 둥근루각 위에서 이 벌레들을 대량으로 발견하였다. 벼룩은 기생체에 또는 기생체의 사는것과 그 부근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순, 관전등 지역에서는 미군비행기가 침입하여 비행한 후 얼음과 눈위에서 벼룩을 발견하였다.

(4) 출현하는 계절의 비정상성

그 곤충들의 출현 계절이 대부분 비 정상적이다. 례를들면 메뚜기 (쿠스타미그라토리아린) 는 알로써 과동하고 성충은 가을에 알을 낳은후 죽어버리며 알은 다음해 4, 5월경에 부화한다. 그러나 금년 3월 15일밤 미군비행기의 침입이 있은후 심양시내에 세멘트바닥의 아직 녹지않은 눈위에서 많은 메뚜기를 발견하였다.

집파리는 동북지구에서 언제나 5월에 이르러 비로소 집밖에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들은 2월 17일 사평시 삼합촌에서 집파리를 다량으로 발견하였다.

(5) 나타나는 수량의 비정상성

나타나는 계절이 부자연하며 나타나는 장소가 부자연한 외에 나타나는 곤충들의 수량이 많은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들은 어떤 곤충들은 보다 일찌기 부화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수는 많을수없는 것이다. 례를들면 번데기로 과동하는 파리가 우연이 일찌기 발생할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한 장소에 대량적으로 나타날 수 없으며 또한 평소에는 있지않던 그런 곳에서 나타날수 없는 것이다.

례를들면 심양 고가자에서 발견한 검은 파리는 수만마리에 달하였으며 사평에서는 집파리가 한무리가 6,7천마리나 되였다.

더우기 특이한 것은 관전의 눈위에서 귀뚜라미 (그릴루스 테스타세우스 왈케르) 가 1만마리나 발견된 것이다. 우리들은 귀뚜라미 (그릴루스테스 타세우스 왈케르) 의 생활습성을 알고있다.

이 귀뚜라미는 그러한 계절에 나타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량적으로 한곳에 있을수 없으며 더우기 눈위에 나타날수없다. 이 벌레의 습성은 엄폐된 장소를 즐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곤충들이 대량 나타날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계절에 비정상적 장소에 나타나는 사실이 주목하여야 할 사실임을 알수있다.

(6) 군집의 비정상성

생활습성이 근사한 곤충들은 자연 정형하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나타날수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뒤섞이여 나타날수없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의 미군비행기 침입 지역에서 발견된 곤충들은 습성이 다른 여러가지 벌레들이 한곳에 서로 혼합되여 있었다.

례를들면 관전에서 발견된 흑색탄미충 가운데는 벼룩들이 섞이여 있었다. 장백

에서 발견된 네개의 간을 가진 련각의 부근에는 모기 (오로클라듀스종) 귀뚜라미 (그릴루스 테스타세우스 왈케르) 들이 한곳에 섞이여 있었다.

심양, 마도만 일대에서는 록색 파리를 발견한 그곳에서 메뚜기 (로쿠스타 미그라토리야 린) 을 발견하였다.

(7) 지리적 분포의 비정상성

위에서 언급한 곤충들의 발견 지점들은 미군 비행기들이 침입하여 행동한 지역이며 주로 교통선 지대였다.

그리고 동일한 위도의 동일한 지리적 조건하에 있는 기타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그러한 발견이 없었다. 더우기 주목을 끄는것은 곤충을 발견한 그 범위와 회수들이 미군 비행기들의 침입 범위와 회수에 정비례하고 있는 점이다. 례를들면 미군 비행기들의 침입이 가장 빈번하고 그 행동 범위가 가장 넓은 지역은 압록강 북안의 료동성이였으며 그 다음이 흑룡강성이였는바 곤충도 료동성에서 발견한것이 가장 많았으며 그 범위도 가장 광대하였고 그 다음이 흑룡강성이였다 이 두지역의 중간에 놓인 지대들 (북위 약 44도로부터 47도) 에서는 하르빈을 제외하고 그러한 발견이 없었다. 이러한정형은 곤충들의 자연적 분포상태와 전혀 판이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많은 사실들에 대하여는 그 곤충들이야말로 바로 미군 비행기들이 산포한 것이라는 오직 한가지의 해석만을 할수있을 뿐이다.

그러나 구라파 지역에서는 이와같은 곤충출현 계절의 비정사성에 대하여 두가지 론의를 내세우고 있다 론의의 하나는 나팜탄의 부단한 투하는 국부적 지점의 지온을 높임으로써 각종 곤충들의 정상적 생활사를 혼란케 만들어 보다 일찌기 출현하도록 하였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론의의 또 하나는 곤충들의 이와같은 비 정상적인 출현은 비정상적 정형에 기인한것이 아니라 다른 자연적 요인들이 작용하여 이와같이 보다 일찌기 출현하는 현상의 발생을 촉진하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론의에 대하여 우리들은 쉽게 해명을 줄수 있다고 인정한다. 첫째로 중국 동북에는 나팜탄이 투하된 사실이 없다. 둘째로 그 곤충들이 보다 일찌기 출현하는 사실은 계절면에서만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타나는 수량과 장소등의 면에서도 모두 비정상적인 것이다 세째로 이 두가지 론의에 언급된 요인들이 작용할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동북과 같이 곤충들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곳에서 왜 비교적으로 극소수의 종류에 한하여서만 그 작용을 받았겠는가? 우리들은 곤충들이 동일한 작용을 받으면서도 그 영향이 종류 또는 개별적 곤충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광대한 지역(례를들면 동북)의 곤충군에 대하여 만약 상술한 두가지 요인이 작용을 줄수 있었다면 결코 극소수의 종류에 한하여 영향이 미치였을 수 없는것이다 검은파리 (헬레미이아) 를 례로 들어서 본다면 동북에서 항상 보게되는것은 에취 • 풀라투라메이겐 • 에취안티콰메이겐과에취•필리피가 빌레네우베이며 이러한 종류는 언제나 4, 5월경에 나타나는바 왜 그중한종류도 보다 일찌기 나타나지 않았는가? 또한항상 볼수있는 다른파리를 례로들어서 본다면 작은 집파리 종류 (파니아종) 는 언제나 4월에 나타나며 작은 집파리 종류 (오

피라종)는 사르코파가종의 파리와 더부러 언제나 5월에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 동일한 영향하에서 그것들이 보다 일찌기 나타나는 사실은 발생되지 않았다.

(2) 미군 비행기들이 곤충을 산포한 범위와 종류

미군 비행기들이 곤충을 산포한 지역은 광대하다. 동북지구에서 북쪽 나허극산으로 부터 남쪽 장하 북현에 이르기까지 동쪽 장백 안동으로부터 서쪽 부신 금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국비행기들이 침입한 후 돌연이 곤충들을 발견하였다. 이 지역은 전조선의 면적보다도 더 넓은 것이다. 이밖에 미군비행기들은 산동성 청도에서도 곤충들을 산포하였다.

그 곤충들의 종류는 매우 많으며 그 성질도 매우 복잡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1) 집파리 (무스카 비치나막과르트)
(2) 큰 집파리 (무스키나 스타불란스 팔넨)
(3) 검은 파리 (헬레미이아종)
(4) 록색파리 (루칠리아 세리가타 메이겐)
(5) 똥파리 (헬로미자 모데스타 메이겐)
(6) 모기 (오토클라듀스종)
(7) 모기 (쿨렉스 피피엔스 변종 팔레느스코켈레트)
(8) 고려표범다리모기 (아에데스코레이쿠스 에드와즈)
(9) 사람벼룩 (풀렉스 이리탄스 린)
(10) 표본충 (푸리누스풀린)
(11) 메뚜기 (아크리둥종)
(12) 메뚜기 (로쿠스타, 미그라토리아린)
(13) 귀뚜라미 (그릴루스, 테스타세우스 왈케르)
(14) 흑색탄미충 (이소로마, 네기르비르)
(15) 거미 (타레툴라종)

일반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그 곤충들의 성질은 매우 복잡하며 그중에는 의학 및 곤충학 서적에서 널리 알려진 집 파리, 록색파리들이 있으며 농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해충들인 메뚜기, 귀뚜라미 (그릴루스 테스타세우스 왈케르) 들이 있으며 동시에 과거 경제적 중요성이 그리 대단치 않은 종류들 똥파리, 흑색 탄미충도 있다.

2. 각 론

(1) 집 파 리 (무스카 비치나 마콰르트)

(1) 발 견 정 형

1952년 3월 14일밤 10시경 미군 비행기는 사평시 일대 상공에서 행동하였다. 3월

17일 오후 동시 제1구 잡합촌 주민 왕유재는 촌락밖에 있는 삼도림 모래터 위에서 대량의 집파리를 발견하였다. 다음날 구정부는 주민들을 동원하여 그것을 6, 7천마리 박멸하였다.

(2) 감 정

학명, 무스카 비시나 막콰르트 쌍지류 집파리과

감정자 진요정 중국 의과대학 교수, 풍란빈 중국 의과대학 강사

무스카 비시나와 엠•도메스티카는 근사하다. 중흉배판에 뚜렷한 검은줄기가 있다. 숫커의 이마는 복안의 4분의 1내지 3분의 1이며 복부배판은 동황색이고 중앙부에 하나의 검고 넓은 줄이 있다. 암커의 이마의 넓이는 복안보다 약간 좁다. 그 배의 특징은 숫커에 근사하고 다만 제1, 제2 및 제3배판은 동황색이 더욱 진하며 회황색빛갈이 있다. 그는 엠•도메스 티카와 다만 이마가 넓은데서 그리고 외생식기의 형태로써 구분된다.

(3) 생활 습성

매우 널리 분포되여 있다. 중국, 조선, 일본, 이란, 인도, 지중해지역, 애급, 호주 및 아메리카주 등에 있다.

하와이에서는 더우기 보편적으로 있다. (에씨그 1942)

그의 생활습성은 엠•도메스티카와 매우 흡사하다. 배설물, 쓰레기, 퇴비 및 부패한 유기물 속에서 번식한다. 산동성 제남에서는 6월부터 10월까지에 번식한다. (맹과 윈필드 1943에이) 1년에 여러세대를 거치는바 지방의 기후에 따라 다르다.

산동성 제남에서 7, 8월경에 한세대의 기간은 약 10일이다. (맹과 윈필드 1943씨) 이러한 집파리는 중국 북부에서 번데기로 과동한다. (풍 1951) 성충은 보통 인가에 들어간다.

(4) 토 론

중국 북부에서 성충은 5월에 나타난다.

맹경화와 윈필드가 연구 (1941삐) 한바에 의하면 산동성 제남에서 성충은 5월에 비로소 나타난다. 그들은 일년을 통하여 인가에 들어간 모든 파리들을 수집하여 분석한바 있는데 1, 831마리의 파리들 중에서 이 집파리가 그중 9. 7%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4월까지의 사이에는 한마리의 집파리 표본도 발견할수 없었다. 풍란주는 (1951) 북경에서 이와 비슷한 관찰을 실행한 결과 그 파리가 번데기로서 과동하여 스팀이 없는 가옥에서 성충들은 겨울에 전부 죽어버린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과동한 번데기는 다음해 5월초에 성충으로된다 엠•도메스티카는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충도 늦은 봄에 이르러•나타난다고 기록되여 있다. 례를 들면 일본의 센다이에서는 성충이 5월에 비로소 나타난다. (호리 1949) 기타 함 스미스는 (1916) 영국 켐부릿지에서 관찰하였는바 역시 이와 류사한 결과를 얻었다. 동북지구의 기온은 산동성 제남보다 낮다 1952년 3월 사평 지구의평균 온도는 섭씨 령하 1.4도였다. 이 집파리는 상술한 많은 보고들에 의하면 가장 일찌기 나타난다

하여도 5월로 될 것이다. 그러나 1952년 3월 17일 사명의 들판에서 대량의 집파리를 발견하였다. 이는 확실히 비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며 미군 비행기의 행동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산포된 집파리에서는 탄저간균을 발견하였다.

참고 문헌 (생략)

(2) 큰 집 파 리 (무스키나 스타뿔란스 팔렌)

(1) 발 견 정 형

안동, 관전, 심양등 지구에서 미군비행기들의 침입이 있은 후 큰집파리를 발견하였다. 례를들면 1952년 3월 4일 미군 비행기 6대는 관전현 상공에 침입하여 행동하였다. 동현 제3 려주민 리윤지는 남문밖에서 눈위에 큰 집파리, 벼룩, 흑색탄미충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2) 감 정

학명, 무스기나 스타뿔란스 팔렌짱지류 집파리과

감정자 진세양 중국과학원 곤충연구실 주임 륙보린 북경농업대학 곤충학과 부교수

외형은 집파리와 근사하다. 그러나 충체는 비교적 크며 거칠고 길이는 7—9.5 미리메터이다. 촉각에는 털이있으며 위 아래는 강모가 있다. 가슴은 회색이며 중흉배판에는 세로 네개의 검은 줄이 있다. 날개의 세로있는 네째줄기는 약간 위로 굽어서 세로있는 세째줄기에는 만곡을 이루고 있다.

다리는 가늘고 홍종색이며 후소 순판 끝도 등황색이다. 북부는 거의 전부가 검고 일부는 회색이며 얼룩이를 이루고 있다.

(3) 생 활 습 성

큰집파리는 거의 세계각지에 분포되여 있다. 중국에도 이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것은 인분 및 부패한 소똥을 포함한 부패한 유기물과 배설물속에 산란한다.

성충은 인가 소외양간등에 들어간다.

중국북부에서는 주로 번데기로서 과동한다. 성충으로 변생하는것은 4월이다.

(풍1951) 금년에 우리들은 북경부근에서 조사하였는바 4월중순에 이르도록 여전히 번데기로 있었다.

일본의 센다이에서는 이 파리들이 4월달경에 나타난다. (호리 1949) 안도다마이 (1936) 가 1933년부터 1935년에 걸쳐 일본 경도에서 관찰한바에 의하면 더욱 늦게 5월에 비로소 나타난다.

(4) 토론

큰 집파리는 자연 조건하에서 중국 동북 지구에서는 가장 일찌기 나타난 때라도 성충이 4월말에 비로소 나타난다. 그러나 이번 심양, 안동, 관전등에서는 3월초에 미군 비행기의 침입이 있은후 집밖에서 들판 위에 이 파리들이 대량있는 것

을 발견하였다. 이는 확실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산포된 큰 집파리들에 대하여 세균 검사를 진행한 결과 장티브스균을 발견하였다.

참고문언 (성략)

(3) 검은 파리 (힐레미이아종)

(1) 발 견 정 형

안동 심양 관전 청도등에서 미군 비행기들이 침입한 후부터 대량의 검은 파리를 발견하였다.

례를들면 1952년 3월 6일 오후 3시경 안동시 동간자 제5구 구공소직원 단문영 두공주는 미군 비행기 4대가 남쪽으로 비행하는 것을 보았으며 10분후에 공중으로 부터 무슨 물체가 눈나리는 것 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것이 떨어진 곳에서 '검은 파리 모기 (웃토클라 듀스) 및 거미를 발견하였다. 군중을 동원하여 검사한 결과 부근의 산들과 옥상에서 이러한 곤충들과 거미를 발견하였다.

3월 7일 미군 비행기 1대는 심양—무순간의 상공에서 행동하였다. 심양 고가자역 로동자들은 철도선을 검사할 때 오리대교에서 대량의 검은 파리들을 발견하였다.

또한 3월 12일 관전의 상인 하영빈은 미군 비행기가 세균탄을 투하하는 것을 발견 하였으며 다음날부터 동문밖에서 루하토 부근지구에 돌연이 많은 검은 파리와 거미 (타렌툴라종) 들이 있는것을 발견하였다.

(2) 감 정

학명 힐레미이아 (코르토필라) 종 쌍지류 꽃파리과

감정자 진세양 중국 과학원 곤충연구실 주임, 륙보린 북경농업대학 곤충학과 부교수

심양, 안동, 관전 및 청도등에서 발견한 검은 파리는 모두 동일한 종류로서 힐레미이아종에 속하는 것이였다.

이 종에는 많은 종류를 포함하고 있다. 례를들면 세구이는 1937년에 559종을 렬거하였다. 중국에 기록된 이종의 곤충도 15종류이다. (세구이 1937 우—1940)

(1) 에취 • 앙구스티씨마 (스타엔) 지베트
(2) 에취 • 안티과 메이겐 하북 내몽고 동북
(3) 에취 • 비세토사 (스타인) 지베트
(4) 에취 • 데프레싸 (스타인) 지베트
(5) 에취 • 페모랄리스 (스타인) 지베트
(6) 에취 • 풀로라리스 팔렌 (스타인) 섬서동북
(7) 에취 • 그라칠리스 (스타인) 지베트
(8) 에취 • 라티계나 (스타인) 지베트
(9) 에취 • 롱기로스 트리스 (스타인) 지베트
(10) 에취 • 니그리바시스 (스타인) 지베트

(11) 에취•팔리피가빌 내몽고 동북
(12) 에취•프라투라 (메이겐) 하북 내몽고 동북
(13) 에취◦스피니코스타 (스타인) 지베트
(14) 에취◦수브칠리크루라 세구이상해
(15) 에취•티베타나 쉬나불 및 지즈지베트

이번 발견한 이 검은 파리는 아직도 그것이 어느 종류에 속하는가를 감정하지 못하였으나 상술한 15종류와는 다른 것이다.

이종의 파리들에는 몇가지 중요한 농작물의 해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히 중국 동북지구에서는 벌써 이에 주의를 돌렸다. (가 또 1939, 1949) 그러나 이 종류는 포함되지 않았다.

체장 5—6미리메터 날개 길이;5,5—6,5미리메터,충체는 검고 털이 많으나 전흉측과 후흉측에는 털이 없다. 중흉 면봉 앞 가운데는 강모한 쌍이 있다. 잔등 가운데는 강모 두쌍이있다. 배의 측면의 강모는 1 대2 이다. 가운데 다리 경절 앞뒤 속밖알에는 각각 강모가 있다. 머리에는 회색가루가 있으며 가슴과 배에는 종회색 가루가 있다. 중흉면에는 진한 종문이 세줄기 있다.가운데 줄은 비교적 넓으며 복부중간에도 진한 종문 한줄기가 있고 숫커의 복안은 서로 근접하고 암커의 이마는 비교적 넓으며 눈 넓이는 거의 2배이다. 촉각에는 털이 거의 없으며 배는 납작하다. 그 끝과 밑은 좁다.

날개는 투명하고 밑은 빛이 진하며 둔맥은 날개에 가까운 부분이 극히 뚜렷하지 못하다.

(3) 생 활 습 성

이 검은 파리의 생활습성은 종명을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알수없다. 종의 파리는 많은 종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습성의 변화도 큰것이다.

유충은 썩은 식물을 먹는 성질과 또 을먹는 성질 또는 잡식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기생하고 있는 것은 극히 보기 드문것이다. 썩은 식물을 먹는 성질을 가진것은 경제작물에 해를 끼치는바 례를들면 엔•브라씨카에 엔•풀라투라 등이 그러하다.

성충은 꽃과 풀 또는 나무잎에 사는바 그 유충의 번식장소에서도 자주 보게된다. 이검은 파리들이 자연조건에서 출현 하는 계절은 아직 알수 없으나 기타 일반적인 대표적 출현계절로서 다음의 례를 참고로 들수있다.

1. 에취•안티콰 조선에서 성충은 4월중 하순에 처음 출현한다. 그러나 5월에 이르러 그것이 많아지고 있다.

(요피오 다미오 1940) 영국에서는 스미스 (1922) 의 보고에 의하면 비록 때로는 특수한 개별적인 벌레는 겨울에 성충으로 되지만 일반적으로 5월에 나타나며 6월에 들 판에서 많은 성충들을 볼수있다.

2. 에취•브라씨카에 중국에는 그 기록이 없다. 영국에서는 5월의 제2주말에 비로소 성충으로 된다. 1926년에는 가장 일찌기 나타난 것이 5월 14일이다.

(스미스 1927) 미국 시카고에서는 5월에 성충으로 된다. (매트칼프 및 플린트 1951) 시카고 지구는 생물 갱태 지리학상 중국 안동성 제남 일대에 해당하는바 중국 동북 보다 기온이 높다.

3. 에취, 프라드라 우리들의 관찰에 의하면 중국 북부에서 성충은 항상 5월경에 나타난다. 그러나 극 소수는 4월 중순 하순에 성충으로 된다. 메트칼프와 플린트 (1951) 의 관찰에 의하면 미국 일이노이주 중부가 위치한 위도지구에서 성충은 5월 초에 나타난다.

4. 에취, 필리피가 중국 동북지구에서 성충은 5, 6월경에 나타난다. (가 또 1939, 1949)

(4) 토 론

상술한 자료에서 우리들은 이 종류의 파리가 나타나는 계절은 늦은 봄이며 특히 중국 동북지구에서는 이미 판명된 이 종류의 파리가 자연조건하에서 출현하는 계절이 4, 5월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월초에 동북의 심양 관전 안동등 많은 지방에서는 미군 비행기가 침입한 후 부터 추운 기온속에 눈위에서 이겸은 파리를 대량 발견하였다. 안동에서는 미군 비행기가 이를 산포하는것을 본 사람도있다. 조선에서도 이와같은 사실이 있는바 1월 28일에 이러한 파리를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파리는 추운 기온속에 눈위에서 대량 발견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북부가 중국 동북 료동성과 지리적으로 접근되였으나 그의 최초출현 시기가 1개월이 넘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의심할 것 없이 비 정상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산포된 검은 파리들에서는 탄조간균을 발견하였다.

참고문헌 (성략)

4. 록 색 파 리 (루칠리아 세리카타 메이겐)

(1) 발 견 정 형

1952년 3월 15일 오후 9시40분경 심양시 공안부 경위대 손가훈과 남시구 소방대 장리표는 미군비행기가 동시를 침입한 후 각이한 지점에서 동시에 마로만 남쪽 일대상공으로 부터 반사하는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뒤이여 동북인민정부 무역부 숙사 및 그 부근과 눈이 아직 녹지않은 세멘트로 만든 운동장에서 많은 록색 파리를 발견하였다. 대량의 록색파리를 발견함과 동시에 큰 집파리, 메뚜기 아크리듐종 메뚜기등의 곤충을 발견하였다.

(2) 감 정

학명, 루칠리아 세리카타 메이겐 쌍지류 푸른 파리과

감정자 풍란주 중국협화 의학원 기생물학과 교수,

조진성 북경대학 의학원 기생물학과 부교수

체색은 황록색이며 금속광채가 있고 날개 및 비늘은 황색이며 복부 복판에는 긴 털이 없다. 촉각은 끝까지 털이 있으며 흉부배면에는 세쌍의 강모가 있다.

(3) 생 활 습 성

구라파, 북아메리카주, 호주, 일본, 중국에 그 기록이 있다. 이런 파리는 썩은 동물 속에서 례를 들면 썩은 육류 짐승의 시체등에서 살고있으며 또한 닭과 돼지의 똥 속에서 유충을 발견한다. 생활의 전 과정은 화씨 80도 (섭씨 26도) 정도에서 약 12일간이다.

성충은 맑고 따뜻한 일기에 썩은 물체가 많이 섞인 쓰레기에 무리를 지여 볕기를 즐긴다. 때로는 여러가지 식물의 꽃과 잎에서 볼수있으며 인가에도 들어간다. 그리고 번데기로서 과도한다.

(4) 토 론

그라함 스미스(1916)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영국 켐부릿지에서 록색파리종의 성충은 5월초에 나타난다. 또한 호리(1949)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종류의 파리가 일본 센다이 지방에서 출현하는 시기는 4월부터 10월이다 중국북부에서는 례를 들면 북경에서 이 파리는 매년 5월에 나타나며 6,7월에 가장 많은 것이다.

동북지구의 기후는 북경보다 춥다 그런데 3월에 채 녹지 않은 눈이 쌓인 세멘트로 만든운동장에서 돌연이 대량의 이러한파리를 발견한것은 확실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참고 문헌 (생략)

(5) 똥파리 (헬로미자 모데스타메이겐)

(1) 발 견 정 형

즈브암, 금주, 안동, 무순, 관전, 치치하르 등지에서 미국 비행기가 침입한 후부터 매우 많은 똥 파리들을 발견하였다.

례를들면 1952년 3월 4일에 미국 비행기 1대가 금주 상공에 침입하여 행동하였다. 3월 5일부터 동시 범가돈, 라다돈 등지 주민 임찬의·악경림등은 동 지구에서 전후하여 대량의 똥파리를 발견하였으며 동시에 또한 모기 (오르 토클라듀스종) 와 거미등도 발견하였다.

(2) 감 정

학명, 헬로미자 모데스타 메이겐 쌍지류 일승과

감정자, 진세양 중국과학원 곤충 연구실 주임,

지륙보림 북경 농업대학 곤충학과 부교수

충체는 작고 빛은 검으며 전체 회색가루로 덮이여있다.

체장은 3-4미리메터이며 두부는 홍종색 또는 황종색을 이루고 있으며 다리는 검은 빛에다 약간의 붉은빛을 띠고있다. 후정종은 안으로 향하고 구종은 두쌍이다.

전연맥의 가시는 발달되여 있다. 하나 또는 두개의 종휴측모가 있으며 복부측면에 하나의 강모가 있다. 복부는 달걀형이며 제8복절 배판은 붉은 빛을 가지고 있다.

(3) 생 활 습 성

구라파, 독일, 웽그리야, 이태리 등지에 분포되여 있으며 중국에는 아직 그 기록이 없다.

그의 생활 력사는 아직 상세히 연구되지 않았다. 이 종류의 파리는 배설물과 썩은 유기물중 생장한다. 구명속에 대단히 많이 살고 있으며 민가와 창문에도 붙는다.

우리들의 조사에 의하면 북경에서는 금년 4월에 이와같은 종류의 파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첫 여름에 이르러 비로소 많아진다.

(4) 토 론

동북의 기온은 북경보다 낮다 이런 종류의 파리는 동북에서 북경보다 늦게 나타나야 하며 더우기 눈위에 대량 나타날 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금주, 무순, 관전 등 미군비행기가 침입한 지구에서 기온이 낮은 곳에 또는 얼음과 눈위에 이런 종류의 대량의 파리가 발견된 것은 확실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세균검사는 이 파리들이 파라티브스균을 보유하고 있다는것을 발견하였다.

(6) 모 기 (오르토클라듀스종)

(1) 발 견 정 형

금주, 안동, 관전, 장백등 지구에 미군비행기가 침입한 후부터 모기 (오르토클라듀스종)를 발견하였다. 례를들면 1952년 3월 4일 미군비행기 1대가 금주 상공에 침입하여 활동하였는바 3월 5일부터 동시 범가돈, 라라돈 등지의 주민 임찬의, 악경림 등은 동 지구에서 전후하여 대량의 모기 (오르토클라듀스종) 을 발견하였다. 동시에 똥파리, 거미들도 발견되였다. 1952년 3월 6일 오후 3시경 안동시 동간자 제5구 공소 직원 단문영. 두공주는 미군비행기 4대가 남쪽으로 비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약 10분 후에 눈같이 내려오는 물체를 발견하였다. 그것이 떨어진 곳에서는 모기 (오르토클라듀스종) 파리 (힐레미이아종)거미등을 발견하였다.군중을 동원하여 검사한 결과 부근 산들과 옥상에서 이런 종류의 벌레를 발견하였다.

3월 26일 저녁 8시경에 미국 비행기 1대가 장백일대 상공에 침입하여 활동하였다. 동현 가재수촌 주민들은 27일부터 계속하여 촌락 내외에서 네개의 간을 가진 세개의 탄각을 발견하였다. 이 네개의 간을 가진 세개의 탄각이 떨어진 부근에서 대량의 모기 (오르토클라듀스종)를 발견하였으며 발견된 곤충들 중에는 또한 귀뚜라미 (그릴르스 페스타세우스 월케르) 거미등도 있었다.

(2) 감 정

학명, 오르토클라듀스종, 쌍지류 오르토클라듀스종 모기과

감정자 류숭락 북경농업대학 곤충학과 교수 겸 동과 주임

이번 안동 등지에서 발견된 모기 (오르토클라듀스종) 는 오르토클라듀스종의 1종인바 종명은 아직 연구 중에 있다.이 족종의 오르토클라듀스종 모기는 중국대륙에 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초보적 통계에 의하면 오직 그 일종이 하북성과 평원성에 있는데 그의 유충은 맥류작물에 해를 준다. 그러나 그것은 상술한 종류와는 전혀 다르다. 이 모기 (오르토클라듀스종)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충체는 흑갈색이며 숫컷는 체장 3.4—4.8 미리메터이고 암컷는 체장 3.1—4.0미리메

히이다.

숫커의 촉각은 열네개의 마디를 가지고 있으며 암커의 촉각은 여섯마디이다. 복안은 털이 없으며 턱수염은 네 마디이며 알개의 막에는 작은 가지가 있다. 경맥 2+3은 경맥 4+5와 분리되였다. 정자는 날개 기슭 련접부에서 제1경맥에 가까우며 주맥치는 경내 황맥의 뒤에 있다. 중주황맥은 없고 제2주맥의 후반부는 약간 굽어져 있으며 그끝은 약간 안으로 굽어져서 날개 기슭과 련접하지 않고 있다. 전맥은 주맥차를 지나서 뻗치고 있으며 지변 기슭에는 털이 있다. 앞다리의 제1부절은 경절보다 짧고 가운데다리 경절에 뒷발톱은 있으나 절은 없다. 뒷 다리 경절에는 두개의 뒷발톱이 있었으며 안에있는 것은 길고 밖에있는것은 짧으며 절이 있다. 가운데 다리와 뒷 다리의 제1 제2부절에는 각각 하나의 작은 뒷 발톱이 있으며 제4부절은 제5부절보다 길다. 제9절 배판에는 매끄러운 엉덩이 가시가 있다. 외 생식기 기편밖알 기슭에는 긴털이 있고 안기슭에는 엽견이 있으며 그끝은 무디게 둥굴고 안기슭 종심점앞에 있다. 단편은 모양이 가늘고 긴 표주박 같으며 말단 근처에는 짧고 무딘 가시가 있다.

(3) 생 활 습 성

이 모기 (오르토클라듀스종) 의 유충은 주로 흐르는 물과 고인 물에 살며 그 소수는 륙상에 산다. 그러나 습기있는 흙을 택하여 산다. 어떤 상충은 3월의 령도이하의 기온속에 나타나서 눈위에 활동할수도 있다. (례를들면 오르트클 라듀스 너비움 기페르, 오•니보수스키 페르등)오르토클라듀스의 유충이 세균을 먹고 성장함은 이미 문헌에 보는것이지만 1946년에 이르기 까지 이 모기 (오르토클라듀스종) 에 천연세균 감염률은 아직 측정되지 않았다.

다만 키로노무스 종의 유충은 브린리와 슈타인 하우스 량씨의 실험 결과에 인공적으로 세균 (세라티아 마크레센 스비지오)를 김염시킬 수 있으며 이 세균이 기생주의 변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그 성충에 의하여 전파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4) 토 론

안동, 관전, 금주, 장백 등지에서 오르토클라듀스종 모기는 모두 미군비행기가 침입한 후 발견되였다. 그중 어떤 지방에서는 자연조건 때문에 그 모기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례를 들면 관전진 장전진 사평 가천의 사방에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건조한 모래 언덕 위에 돌연이 다량 출현하였다. 그와반대로 그것이 생장하고 번식하는데 적합한 허다한 장소와 또한 대량의 오르토클라듀스종 모기가 발견된 지구와 린접한 곳 즉 례를 들면 관전의 앙목천 안동의 하미탕과 같은 지구에는 도리여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더우기 기이한 것은 그것이 여러지방에 습성이 전혀 절대로 다른 벌레들—귀뚜라미 (그릴루스 테스타세우수 왈게르) 거미들과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 나타난 것이다. 심지어 장백에서 발견된 네개의 간으로된 탄각의 부근에서도 여러가지가 섞이여 출현하였다. 산포된 오르토클라듀스종 모기에서는 장티브스균이 발견되였다.

(7) 모기 (쿨렉스 피피엔스변종 팔렌스 코킬렛트)

(1) 발견 정형

1952년 3월 15일 오후 9시 40분경 심양시 공안부 경위내 손가훈과 남시구 소방대 장티표는 미군 비행기가 동 시를 침입한 후 마로만 일대상공에서 번쩍이는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각이한 장소에서 동시에 보았다.

뒤를이여 동북인민정부 무역부 숙사와 그부근의 운동장과 베란다위에 대량의 숫커 암커의 쿨렌스 피피엔스 변종 팔렌스 코킬렛트가 발견되였다. 쿠렉스 피피엔스 변종 팔렌스 코킬렛트와 동시에 또한 메뚜기 아쿠리줌종 메뚜기 록색파리 및 큰 집파리도 발견되였다.

(2) 감 정

학명, 쿠렉스 피피엔스 변종 팔렌스 코킬렛트

쌍지류 모기과

감정자 진용정 중국 의과대학 교수

이는 중형 황종색 모기종에 속하며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숫커 생식기의 음엽 측엽의 복각은 넓은 편상을 이루며 충체 중앙은 거칠고 모가 없다 복부 제10 마디 복판 측지는 좁고 짧다. 입과 다리의 부절에는 흰 떠가 없다.복절배판부에는 회백색 좁은 띠가 있다.다리관절과 경절에는 줄무늬가 없다.

(3) 생활 습성

이 종류는 동 아프리카, 미국의 캘포니아주, 일본, 조선과 중국등지에 분포되여있다. 중국 북부에서 그것은 물이 고인 용기와 하수도 도랑 늪등 더러운 물이 고인곳에 번식하며 또 간혹 논에서도 번식한다.

성충은 주택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야간에 특히 활약하며 주간에는 어두운 곳에 숨어있다. 사람의 피를 빨아 먹으며 인간에 해를 주는 해충이다.

이 종류는 북경에서는 5월에 출현하여 6, 7, 8월에 가장 많으며 10월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감소된다.겨울이 되면 숫커는 모두 죽어 버리고 암커는 습기가 있는 어둡고 따뜻한 방안에서 과동한다.

(4) 토 론

이 쿠렉스 피피엔스 변종 팔렌스 코킬렛트는 3월 15일밤 밖에서 발견되였다. 당시의 기온은 섭씨 령하 10도였는데 이런 정형하에서는 이 피피엔스 변종 팔렌스 코킬렛트가 출현할수없는 것이다. 또한 쿠렉스 변종 피피엔스 코킬렛트는 암커만 과동하는데 이번에 발견한 것은 숫커와 암커가 섞이여 있었다.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모기와 벌레들이 이 곳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생략)

(8) 고려표범다리 모기 (아에데스 크레이쿠스 에드와르즈)

(1) 발견 정형

1952년 3월 15일 21시 미군 비행기는 철령일대 상공을 침입하였다. 19일 철령역

로동자 오봉지는 정거장 부근에서 대량의 고려표범다리 모기와 모기 (오르토클라듀스종)를 발견하였다.

(2) 감 정

학명, 아에데스 크레이크스 에드와르즈

쌍지류 모기과

감정자 진요정 중국 의과대학 교수, 장종보 대련 위생 연구소 모기 파리연구실 주임

고려표범다리 모기는 일종의 중형의 흑색 모기인데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둥이는 가늘고 긴데 앞다리의 마디보다 더 길다. 웃커의 아래턱 털은 입술보다 약간 짧다. 중흉배판에는 황색줄 무늬가 있고 중앙에 있는 하나의 새로된 줄기가 가장 넓으며 소순판 앞에서 교차한다. 이 줄무늬의 량쪽에 각각 줄무늬 두개가 있는바 제일 밖에 있는것은 활모양을 이루고있다. 뒷다리의 앞 부절 네개의 밑에는 흰떠가 있다.

(3) 생활 습성

일본과 조선등지에 분포되여 있는데 중국에도 그 기록이 있다.

그의 유충은 인간근처의 고인 물이나 화분, 물통등에서 생장한다. 물이 고인 바윗짬이나 작은 늪, 도랑등도 이 모기의 번식 장소이다.

성충은 야간에 사람의피와 개의 피를 빨아먹는데 때로는 주간에 이를 행하는 수도 있다. 중국의 북방에서 그는 알로서 과동한다. 조선에서도 이에대한 관찰이 있었다.

그의 알은 극한과 건조한 악 조건하에서도 죽지않는다. 그러나 성충, 유충, 번데기등은 겨울이 되면 모두 죽어 버린다.

(4) 토 론

고려표범다리 모기는 자연적 조건하에서 알로서 과동한다. 심양에서 성충은 5월 하순에 비로소 나타난다. 그러므로 3월 19일 미군비행기가 침입한후 철령에서 발견된 이 종류의 모기는 확실히 자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참고문헌(생략)

(9) 사람 벼룩 (풀렉스 이리탄스린)

(1) 발견정형

무순 관전등지에서 미군비행기가 침입한 후 들판과 눈위에 벼룩, 똥파리, 모기 (오르토클라듀스종) 등 곤충이 발견되였다. 례를들면 1952년 3월 2일 미군비행기는 12회에 걸쳐 무순 산동 등지의 상공에 침입하였다. 이날 경보가 있은 후 무순시 대구촌 주민 리숙고는 리인촌으로 가던 도중에 눈위에 많은 벼룩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날 무순지구의 평균 기온은 섭씨 령하 6.2도였다.

(2) 감 정

학명 풀렉스 이리탄스린 벼룩류 벼룩과.

감정자 풍란주 중국협화 의학원 기생물학과 교수.

조신성 북경대학 의학원 기생물학과 부교수.

사람벼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충체는 진한 종려색이며 눈이있다. 협소와 전흉소가 없다. 수염의 길이는 앞다리 기절의 절반이며 눈밑에 강모 두개가 렬을 지여있고 뒤 머리기슴에는 세개의 강모가 있다. 뒷다리 관절안쪽으로 한줄의 작은 가시가 있다.

뒷다리 제5부절은 제2부절보다 길다.

(3) 생활 습성

사람벼룩은 세계 각지에 분포되여 있으며 중국에도 그 기록이 있다. 성충은 온혈동물 (사람, 고양이, 개, 쥐등을 포함)들의 몸에 림시적으로 기생하는 곤충인데 암컷 숫컷가 모두 피를 빨아 먹는다.

그리고 수시로 자리를 이동하며 그 동물의 이동에 따라 전파된다.

성충의 수명은 상당히 길다 실험기록에 (바코트 1941) 의하면 화씨 40—50도의 약간 따뜻하고 습기있는 공기속에서 벼룩을 양육한다면 513일을 살수있다.

(4) 토 론

사람벼룩은 온혈동물의 육체 또는 온혈동물이 거처하는 부근에 있어야한다.

무순 관전등지에서는 미군비행기가 침입한후 돌연이 들판 얼음과 눈위에서 발견되였다. 이는 확실히 미군비행기가 산포한 것이다.

참고문헌 (성략)

(10) 표본충 (프티누스 푸르린)

1. 발견 정형

1952년 3월 20일, 미군 비행기 두대가 료양 지구에 침입하였으며 동 현 북쪽 교창촌 주민들은 공중으로부터 진공 수통과 같은 크기의 붉은 물체가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뒤이여 동 촌락밖에서 담벽과 들판 등에 대량의 표본충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동구와 접근한 안산시 지구에서도 동일한 것이 발견되였다.

2. 감 정

학명 프티누스 푸르린 초지류 표본충과

감정자 류승락, 북경 농업대학 곤충학과 교수 겸 과주임

룩보린, 북경 농업대학 곤충학과 부교수

표본충은 일종의 소형 갑충이다. 암컷과 수컷의 형태는 같지않다. 수컷의 체장은 약 3.4——4.4 미리메터로서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촉각은 길다. 암컷은 타원형이며 촉각은 짧다. 그의 중요한 특징은 전흉 배판이 중앙의 량 측에 있고 황갈색의 무데기 털이 있는 점이다. 날개집에는 반점이 세로 줄을 이루고 있으며 갈색의 가는 털이 있다. 날개집 밑과 끝 근처에는 각각 흰털로 된 반점이 하나씩

있다.

3. 생활 습성

표본충은 세계 각지에 분포되여 있다. 근개륙 (1951) 과 관치화 (1952) 의 보고에 의하면 중국에도 이미 그 기록이 있다. 이런 종류의 갑충은 창고를 손상하는 벌레인데 그의 생활 습성은 근개북 (1951), 리봉손 (1952), 코톤 (1947), 하이후스트 및 부리텐 (1942), 쉐파드 (1947) 등의 보고에 의하면 자연 조건하에서 창고, 식량창고, 제분공장, 또는 기타 동식물 생산품의 제조소와 저장소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저장한 량곡, 밀가루 및 피혁 등에 해를 끼친다. 표본충 또한 이름난 박물과 해충으로서 특히 마른 동물과 식물의 표본에 해를 끼친다. (크람 1925, 파톤 및 에반스(1931) 이 종류의 곤충은 매년 1세대 내지 3세대씩 번식하나 기온에 따라 다르다.

중국에서는 보통 유충으로 피동하는바 때로는 소수의 성충이 과동하는 례도 있다. 한 세대의 기간은 약 3개월 반인데 성충은 야간에 활동하고 낮에는 숨어 있으며 죽은 모양하기를 즐기는 습성이 있다.

4. 토 론

이번 료양, 안산 등지에서 발견된 표본충의 정형과 이 곤충들의 자연 조건하에서 이러한 생활 습성과 비교하여 본 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점에 주목하게 된다.

1. 표본충 발생의 장소는 창고—특히 식량, 밀가루 및 피혁 등을 저장한 창고나 이런 물품들을 집적한 지점이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료양, 안산 일대에서 발견된 표본충은 창고 부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가밖에 있었으며 옥외의 지면과 옥외 담벽 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들판에도 있었는바 이는 결코 자연적 현상이 아니다.

2. 문헌들에는 표본충이 모두 밤에 활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여 있다. 그러나 료양지구에서 우리들은 이 벌레가 주간에 나타날 수 없는 들판에 낮에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다. 이 점은 그의 정상적 습성과 부합되지 않는다.

3. 표본충이 발견된 지점을 조사한 결과 거기에는 식량, 피혁, 기타를 저장한 창고는 없었으며 그곳 주민 가옥에도 표본충이 대량 발생할 만한 곳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자연 조건하에 그렇게 대량의 표본충들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

4. 3월 20일, 료양 북교창촌에서 돌연히 대량의 표본충을 발견한 후 료양 부근 지구에서 이런 곤충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 즉 식량창고등에서 표본충이 자연히 발생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더 정확히 알기 위하여 료양과 심양 부근지구의 상술한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한바 있었다.

그 결과 이런 곤충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료양 등지에서 발견한 대량의 표본충은 자연 현상이 아닐 뿐만아니라 부근 지구로부터 이동해 간 것이나, 분산해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용이하

게 단언할 수 있다.

상술한 네 가지 점으로 보아 우리들은 자연 조건하에 표본충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실지로 표본충이 없었으며 반대로 자연 조건하에서 이 곤충이 발생할 수 없는 장소에서, 례를 들면 료양의 북교창촌과 같은 곳에서 미군 비행기가 침입한 후 돌연히 대량의 표본충이 발견되였다는 것을 똑똑히 알수 있었다.

곤충학적 견지에서 보아 이는 매우 기이한 일이다.

세균 검사의 결과 그 벌레들이 탄저간균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참고 문헌 (생략)

(11) 메뚜기 (아크리듐종)

1. 발견 정형

1952년 3월 15일 오후 9시 40분경 심양시 공안부 경위대 손가훈과 남시구 소방대장 괴표는 미군 비행기가 침입한 후 각이한 지점에서 동시에 마료만 이남 일대 상공에서 번쩍이는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동북 인민 정부 무역부는 이날 저녁 이 보고를 받고 즉시 조사를 진행하였는바 무역부 숙사 세멘트 바닥에서, 그리고 2층 베란다와 그 부근 도로 위에서 메뚜기 아크리듐종을 발견하였다.

메뚜기 아크리듐종과 함께 또한 로쿠스타 미그라토리아린 메뚜기, 록색 파리, 큰집파리 등의 곤충을 발견하였다.

2. 감 정

학명 메뚜기 아크리듐종 직지류 메뚜기과

감정자 진요정, 중국 의과 대학교수

충체는 작다. 체장은 약 6.8미리메터이며 넓이 2.4미리메터이다. 머리는 아래로 숙여 있고 머리의 상부는 눈보다 대개 넓으며 두 눈사이에 약간 돌출하고 있다.

촉각은 머리보다 길며 12—14개의 마디를 가지고 있다. 전배판은 특히 발달하여 있고 뒤로 뻗쳐진 등줄기는 뒷다리 관절의 거의 끝에까지 이르고 있다.

뒷다리 관절은 특히 발달하여 그 길이는 경절의 길이와 거의 같으며 갈색 반점이 있다.

경절은 가늘고 길며 가시가 있고 끝에 네개의 뒷발톱이 있다.

충체 전부가 회갈색이며 전흉 배판에 소수의 검은 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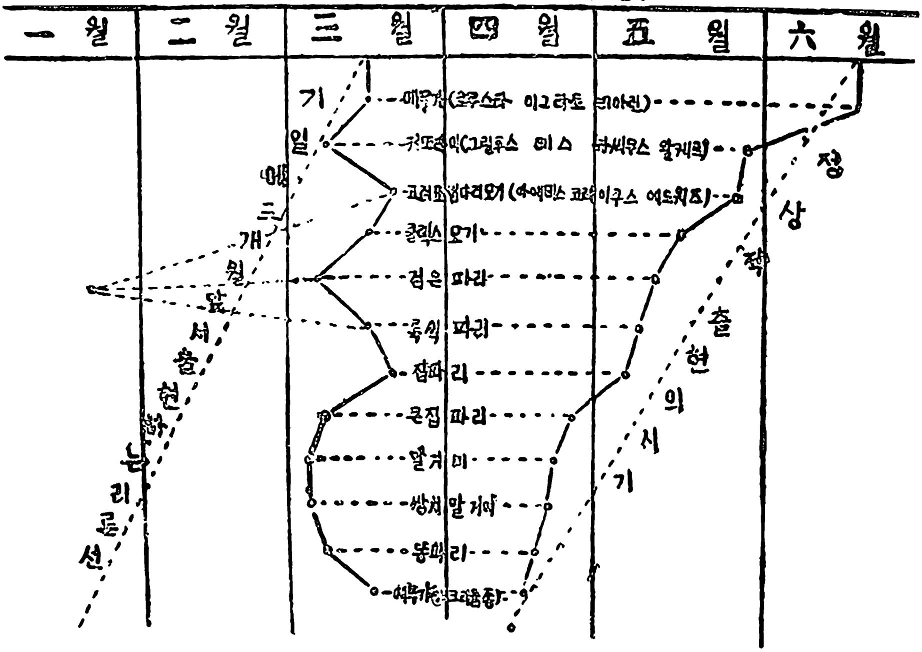
3. 생활 습성

이러한 종류의 곤충은 자연 조건 하에서 엄폐된 곳에 살며 성충과 로숙된 유충이 겨울을 지낸다.

만일 동기, 온실에서 기른다면 계속 활동할수 있다.

그들의 월동 장소는 엄폐된 초원지, 관목, 또는 잡초 줄기 및 락엽이 쌓인 곳이다.

곤충들의 비정상적 출현시기에 대한 도표



북경에서는 4월 중에 성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란소 속에 있는 알은 상당한 시일을 거쳐 비로소 성숙되며 교미, 산란을 경과하여 사망한다.

유충의 성장은 뜨며 5차 내지 6차에 걸쳐 탈피한 후 성충으로 된다.

4. 토 론

이러한 곤충은 자연 조건 하에서 심양에서는 4월 중순, 또는 하순에 비로소 나타난다.

이번에는 3월 15일 밤, 기온이 섭씨 령하 10도의 조건 하에서 미국 비행기가 침범한 후 돌연히 그들이 나타날 수 없는 장소, 즉 동북 인민정부 무역부 숙사 2층 베란다 위에서, 그리고 도로나 쎄멘트 바닥위에서, 또한 부근 지역에서 나타났으며 메뚜기 로쿠스타 미그라토리아린, 록색 파리, 큰집파리 등이 그들과 함께 동시에 발견되였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미국 비행기가 침입할 동안 활동한 사실을 련결시켜 볼때 이 곤충들과 메뚜기 로쿠스타 미그라토리아린, 록색파리, 큰집파리 등은 모두 미국 비행기가 산포한 것임을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성략)

(12) 메뚜기 (로쿠스타 미그라토리아린)

1. 발견 정형

1952년 3월 15일 오후 9시 40분경 심양시 공안구 경위대 손가훈과 남시구 소방

대장 괴표는 미국 비행기가 동시에 침입한 이후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마료만 이남 일대의 상공에서 번쩍이는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뒤이여 동북 인민 정부 무역부 숙사 쎄멘트 베란다와 그 부근 지역 일대에서 메뚜기 로쿠스타 미그라토리아린을 발견하였다.

이 메뚜기들과 더부러 동시에 큰집파리, 목색파리 및 아크리듐종 메뚜기들이 발견되였다.

2. 감 정

학명 로쿠스타 미그라토리아린 직지류 메뚜기과

감정자 진세양, 중국 과학원 곤충 연구실 주임

륙보린, 북경 농업 대학 곤충 학과 부교수

이 메뚜기의 수컷은 평균 체장이 40—50미리, 날개 길이는 42–54미리, 암컷 체장은 42—55미리, 날개 길이는 46–56미리이다.

수컷과 암컷 성충은 전체가 황갈색 내지 갈색이며 대악은 흑색이며 전흉 배면 중앙부에는 뚜렷한 종일선이 있으며 량 쪽에는 흑색의 종조문이 각각 하나씩 있고 촉각은 가늘고 길며 모두 26절로 되여 있는바 기절과 경절은 짧고 크며 중간 각절은 가늘고 길며 말절은 짧다.

면부는 옆에서 볼때 거의 수직 (90도) 이다.

전흉 전연은 평직하며 후연은 원각을 뵈여 준다.

앞 날개는 좁고 길며 복단에서 나온 부분은 몹시 길며 평균 복부의 5분의 2이상 더 길다.

날개 위에는 갈색의 작은 반점이 치밀하게 박혀있다.

뒷날개는 막질이며 폭이 넓고 투명하고 담황색이다.

뒷다리 경절에는 가시가 있으며 대다수가 담갈색이고 소수가 연분홍 빛을 띠고 있다.

퇴절은 앞 날개에 비하여 절반이나 더 짧다.

3. 생활 습성

메뚜기 (로쿠스타 미그라토리아린) 는 중국 화북 각지에서 일반적으로 매년 2세대를 거친다. 늦은 가을에 기온이 높을 때 소남, 절강 등지에서는 제 3세대의 새끼 메뚜기가 발생한다. 그러나 추위의 제한을 받고 메뚜기 (로쿠스타 미그라토리아린) 로 되지 못하고 죽는다. 보통 조건 하에서 월동한 메뚜기 알은 4, 5월에 부화하는바 이것이 제 1대 새끼 메뚜기로서 여름 메뚜기라고 부른다.

또 다시 약 40일을 경과하여 날개가 생겨 메뚜기 (로쿠스타 미그라토리아린) 로 된다. 그 시기는 약 6월 중순, 또는 하순으로부터 7월 상순에 이른다. 날개가 생긴 후 15일 경에 산란을 시작한다. 알은 2, 3주일을 경과하여 부화하는바 이것이 제 2대 새끼 메뚜기로서 가을 메뚜기라고 부른다. 그 시기는 약 7월 중순이다.

이 기간의 새끼 메뚜기는 8월 중순으로부터 9월 상순에 이르는 기간에 메뚜기 (로쿠스타 미그라토리아린) 로 변한다.

1. 2주일 후 산란하며 산란한 후 얼마 오래지 않아 성충들은 모두 죽는다. 성충이 낳은 알덩어리는 흙속에서 월동한다.

메뚜기 (로쿠스타 미그라토리아린) 는 중국의 비교적으로 큰 강 유역의 황무지, 평원 지대의 못들, 또는 갈대와 잡초가 번생한 해안 지대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양자강 이남 (북위 28도 이북) 에서는 강우량이 지나치게 많은 제한 (1, 000미리)을 받고 북경에서는 진황도 이북에서 기온이 낮은 제한 (동기 평균 온도 섭씨 령하 4도이하, 평균 최저 기온 섭씨 령하 10도 이하) 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자강 이남과 진황도 이북에는 메뚜기 (로쿠스타 미그라토리아린) 가 나타난 기록이 없다. 다만 7, 8, 9월 이내에 잡초 우거진 곳에서 소수의 산재한 형황을 볼수 있다.

4. 토 론

메뚜기는 중국에서 중요한 농업 해충의 하나이다. 그 발생 및 발생지구에 대하여는 이미 30여년에 걸쳐 조사 연구가 진행되였다. 우리들의 조사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종류의 메뚜기 (로쿠스타 미그라토리아린, 엘파시스 그레가리아) 는 자연 조건 하에서 심양 지구에서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분산하여 살고 있는 형황 (파시스 솔리타리아) 은 밭이랑 사이, 또는 잡초 위에서 7,8,9월 경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온도가 섭씨 령하 10도나 될 시기에 시가지 구역내에 있는 항상 깨끗이 청소되여 있는 베란다 위에 나타난다는 것은 전연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 곤충은 미국 비행기가 침입한 그날 저녁에 나타났으며 또한 사람이 공중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 곤충의 출현이 미국 비행기의 침입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참고 문헌 (성략)

(13) 귀뚜라미 (그릴루스 테스타세우스 왈케르)

1. 발견 정형

1952년 3월 4일 오전 10시 미국 비행기 3대가 관전 제6구 홍석 라자촌에 침입하였다.

동촌 제 1 완전 소학교 교원 우기월과 동교학생 백보규 등은 그날 오후 4시경 학교로부터 약 1리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강변에 도달하였을때 이 강의 오른쪽 강기슭위에서 귀뚜라미와 비슷한 많은 곤충을 발견하였으며 나무꼬치로 몇놈을 일으켜 자세히 관찰하였다.

그들은 이미 죽은것 같이 뵈였으나 다리는 아직도 움직이였다.

산포 면적은 약2천 평방메터이며 매 평방메터 내에는 10개 내지 20개가 산포되여 있었다.

즉시 구사무소에 보고한 결과 구간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감정을 거쳐 귀뚜라미 (그릴루스 테스타세우스 왈케르) 라는 것이 판명되였다.

안동 기상대 기록에 의하면 그날 안동의 평균 기온은 섭씨 령하 7.2도였다.

3월 26일 저녁, 미국 비행기 1대는 장백현 일대 상공에서 행동하고 있었다. 동현 가재수촌 주민들은 27일부터 련속적으로 동 촌락 내외에서 네개의 간을 가진 세개의 탄각을 발견하였는데 이세개의 탄각이 있는 부근에서 귀뚜라미와 모기 등의 곤충이 발견되였다.

귀뚜라미는 감정을 거쳐 그릴루스 떼스타세우스 왈케르라는 것이 판명되였다.

2. 감 정

학명 그릴루스 떼스타세우스 왈케르 직지루 귀뚜라미과

감정자 주홍복, 중국 과학원 곤충연구실 부주임

이러한 종류의 귀뚜라미 (그릴루스 떼스타세우스 왈케르) 는 중국과 일본의 기록 가운데서 기왕에 흔히 그릴루스 미드라투스 부르메이스떼르로서 잘못 인정되였었다. 모도기 도꾸이찌의 보고 (1936) 에 의하면 그릴루스 미트라투스는 오직 대만에만 있으며 그 수도 매우 적다. 중국과 일본의 귀뚜라미 (그릴루스 떼스타세우스 왈케르) 는 그릴루스 떼스타세우스로서 기록되여 있다. 량자는 주로 중흉 복판 후연의 형상으로 구별되는바 전자는 일직선이며 후자는 그 중앙부에 3각형의 함입이 있다.

수컷의 체장은 18.9—22.4미리메터 암컷의 체장은 20.6—24.25미리메터 이다.

촉각은 213—219절이다.

체색은 배면이 갈색이며 유광이 있고 복면이 비교적으로 연하다.

두정은 흑색이며 복안 안 기슭과 머리와 두 뺨은 황갈색이다. 전흉 배판은 흑갈색이며 두개의 반월형 무늬가 있고 앞날개는 연한 갈색이고 광채가 있다.

뒷날개는 황갈색이며 첨단의 종습은 배 끝에 로출하며 그 생김이 꼬리털과 같다. 중흉 복판 후연은 안으로 움푹 들어갔다. 뒷다리는 갈색이고 강대하며 후경에는 여섯쌍의 가시가 있고 강대하며 뒷발톱 6매가 있다. 부절은 3절이며 중절은 짧고 작으며 기절은 매우 길고 가시가 있고 끝에는 뒷발톱 한쌍이 있는바 내거는 비교적으로 길고 외거도 역시 중부절과 길이가 거의 같다. 산란관은 갈색이며 약간 구부러져 있다. 꼬리털은 갈색이다.

3. 생활 습성

주홍복의 연구 보고 (1951) 에 의하면 귀뚜라미 (그릴루스 떼스타세우스 왈케르) 는 매년 1세대 발생하며 알로서 월동하며 4월말에 부화를 시작한다. 그러나 산란 지점이 같지 않으며 어떤 것은 은폐된 지방에서 실시되므로 알의 부화는 더욱 늦어지며 5월 하순까지 이른다. 유충은 도합 6령이며 20—25일을 경과하여 성충으로 변한다. 10월 상순에 교미한 후 암컷은 흙속에 산란하고 월동한다. 10월 중순에서 하순에 이르는 동안 일기가 점차 추워짐에 따라 성충은 늙어 죽는다.

자연 조건하에 성충은 5월 중순, 또는 하순에 날개가 생긴 후 10월 중순경에 산란한다. 산란 후 1—8일까지 평균 3.7일 (34마리의 평균수) 로 죽는다.

그 중 수컷과 암컷의 량 성충의 수명은 현저히 구별되지 않는다. 성충의 수명은

141—151일이며 평균 145.3일 (열 마리의 평균) 이다. 그러나 인공으로 따뜻한 상자(섭씨 31도) 에서 기른 성충은 1950년 2월23일부터 25일간에 날개가 생긴것이 역시 9월말에 이르러 죽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10월초의 온도는 성충사망의 주요 원인을 결정한다.

4. 토 론

상술한 연구 자료에 의거하여 귀뚜라미 (그릴루스 떼스타세우스 왈케르)는 알로서 월동하며 성충은 제일 일러서 5월 중에 날개가 생기며 10월 초에 죽는다. 이에 비추어 성충 약 1만 마리가 3월 중에 면적 약 2천 평방메터에 달하는 눈이 쌓인 지면에서 발견되였다는 것은 완전히 비정상적이다.

참고 문헌 (생략)

(14) 흑색 탄미충 (이소토마 네기쉬나 베르네르)

(1) 발견 정형

미군 비행기들이 29일부터 전후하여 관전 무순 심양 신빈 등 지구에 침입한 후 즉시 이 지구들에서 대량의 흑색 탄미충이 발견되였다.

례를 들면

1. 무순광물국 목 장의 황덕공과 경성림은 3월 4일 경마장의 지상으로부터 6메터 높이의 쎄멘트로 된 관중석과 또한 12메터의 높이를 가진 쎄멘트로 만든 둥근 전물상과 주택외부의 창문에서 대단히 많은 흑색 탄미충을 발견하였다.

2. 심양 구점 구의 거주민 뉴광의는 3월 3일 촌락 전면의 눈이 덮인 지면과 또한 얼음위에서 대량의 흑색 탄미충을 발견하였다. 산포면적은 길이 약 1키로반 넓이 약 반키로이며 매 평방키로의 밀도는 약 6.70마리였다.

3. 청원현 우편국 직원 당옥영은 3월 4일 신빈현 제7구만 전자에서 선로를 검사하고 돌아올때 동구 대번구촌 송목령 고개위에서와 고개 밑에서 또 도로 위에서 그리고 발두령 얼음위에서 대량의 흑색 탄미충을 발견하였는바 면적은 남북 길이 약 250메터 넓이 약 200백메터였다.

(2) 감 정

학명 이소토마 네기쉬나 베르네르 탄미류 각 죠충과

감정자 마세준 중국 과학원 곤충 연구실 부연구원

체장은 2미리메터이고 체구에는 자흑색소가 균일하게 박혀있다. 다리와 조약기 말단은 회백이 색고 촉각은 머리에 비하여 길다. (비례 4:5.6) 매절의 길이의 비례는 (13 :20 19: 28) 이고 제3절 감각기는 두개의 약간 완곡된 원주와 한줄로 우므러진 홈이 있다.

제4절의 정끝에는 한개의 구상 감각기 및 3, 4개의 완곡된 감각모가 있다. 두부 량쪽에는 각각 8개의 눈이 있다.촉각후기관은 너그러운 타원형이며 안면에 가체위 질쑤록 2.5배크다. 다리 발톱은 약간 곧으며 한개의 각치를 가지고 있다. 각체절의 비례는 (2.7 : 2.6) (1.4 : 2.1 : 2.8 : 2.5 : 1.4 : 1.0) 이다. 흉절과

생식절은 용이하게 구별된다. 조약기는 제5분절부에 붙어 있으며 이것을 다 펴면 복판에 도달할 수 있다. 그 기절배복면에는 각각 많은 짧은 털이 있다. 경절은 기절에 비하여 2—2.3 분지 1 배 더 길며 가늘고 길고 약간 완곡되여 있다. 배면에는 치상륜문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륜문은 말단에 있는 끝마디로부터 1.5배 떨어진 곳에서 없어진다. 끝마디는 후각욱치보다 약간 짧고 네개의 이가 있는바 정치가 가장 크다. 대정치는 약간 짧고 제3,4 치는 서로 상대하고 있으며 보체에는 4개의 소치가 있고 코르프스에는 8개내지 10개의 복모가 있다.

(3) 생활 습성

이소토마 네기시나의 분포 지구는 매우 넓다. 구라파 아세아 및 일본 등지에 모두 그 기록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기록이 아직도 없다.

성충은 사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으며 11일부터 그다음해 2월에 이르기까지 그수가 가장 많다. 활동범위는 주로 저습한 지구 삼림 또는 하류및 호소지대 그리고 간혹 썩은나무 또는 썩은 유기물이 쌓인곳 그리고 그 부근 토양중에서도 발견할수 있으며 아울러 채집할때 보통 이소토마 비올리세아와 함께있다. 성질은 강렬한 빛을 두려워하며 추위에 견딜수 있고 음습한 곳을 좋아하며 건조한 곳을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에 강기슭 얼음위에나 또는 눈이 쌓인 저지에서 때로 나타난다. 실험실내에서 상대 습도가 60%일 때는 생존할 수 없다.

(4) 토 론

미국 비행기가 침입한 이후 그들이 침입한 항공선을 따라 무순 심양 신빈등지에서 나타날수 없는 장소에 대량적으로 밀집한 흑색 탄미충이 나타났다. 례를 들면 무순경마장의 지상으로 부터 6메터 높이의 관중석과 또한 그 부근 목장의 세멘트로 만든 둥근건물 옥상과 주택의 창문에서 모두 발견되였다. 국내외 학자가 이 곤충 및 그 동족의 생태와 습성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자연 조건하에서 이러한 장소는 이 곤충이 대량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이다. 조선에서 사람들은 이 곤충들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또한 이것들이 많은 전사들의 신체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이 곤충들의 출현이 미국 비행기 침입활동의 결과이라는 것을 설명하여 준다.

참고 문헌 (성략)

(15) 거 미 (타렌툴 라종)

(1) 발견 정형

미국 비행기가 1952년 2월 29일에 련속적으로 안동, 관전, 본계, 청도등에 침입한 이후 그 지구들에서는 돌연히 대량의 거미들이 발견되였다. 례를 들면 1, 안동시 군구위생소 왕옥생은 3월 3일 동시 진강산공원 써름터 렬사 탑주위와 부근 지구의 얼음과 눈위에서 돌연히 대량의 거미를 발견하였는데 산포면적은 5천평방키로메터 매평방메터의 산포밀도는 많은 곳에서는 20여마리였다.

2. 본계, 대곡, 공로관촌의 주민 조광신은 3월 4일 동촌 서하연의 눈이 쌓인 지

면과 얼음 위에서 대량의 거미와 파리, 모기등이 서로 섞여 대량으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날 기록된 기온은 최고 온도가 섭씨 령하 2도 최저온도가 섭씨 령하 19도 평균 섭씨 령하 9.9도이였다.

3. 관전의 잡화 상인 한영무는 3월 12일 미국 비행기가 세균탄을 투하하는 것을 목격한 이후 13, 14, 15일에 동현 동문의 로하투 부근지구에서 거미와 검은 파리를 극히 대량으로 발견하였다.

(2) 감 정

학명 타렌 풀라종 거미류 타렌 풀라종 거미과

감정자 왕봉진 천진군의대학 교수 쌍치 타렌 풀라족 거미는 널리 분포되여 있으며 중국에도 이러한 종류의 거미에 관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번 발견된 거미는 모두 어린 시기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명을 감정하기에 곤난하다.

그의 온 몸은 회종색이며 두 흉부배면에는 두개의 검고 넓은 줄이 세로 그려있으며 중앙부에는 또한 단속적인 검은 줄이 세로 그려있다.

눈의 배렬은 4, 2, 2 세줄이다. 검지 아래 기슴에는 두개의 이를 가지고 있다. 다리는 갈색이고 불규칙적인 검은 무늬가 있으며 부절은 세개의 발톱을 가지고 있다. 제3발톱만이 몇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 복배에도 두개의 세 무늬가 있다.

그러나 가늘고 좁고 굽어져 있으며 두 흉부의 그것이 뚜렷한 것과 달라 두개의 세로 무늬사이에는 또한 연한 자형의 가는 무늬가 있다.

(3) 생활 습성

이 종류의 거미는 대다수가 5,6월 혹은 9, 10월에 산란하며 어린 거미는 거미줄을 타고 먼곳에 산포될 수 있다.

동기에 소수의 어린거미들이 바람이 잔잔하고 날세가 따뜻할 때는 간혹 지면에 나타난다. 그러나 보통은 락엽밑에나 돌밑 또는 동혈 혹은 잡초속에 숨어있으며 특히 엄동설한에는 외부에 나가 활동하지 않는다.

(4) 토 론

이런 종류의 거미는 자연 조건 하에서 숨어 외부에 나가지 않으며 결코 대량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상술한 바이다. 그러나 이번 안동 본계 관전등 지구에서 미국 비행기가 침입한 이후 뒤이여 눈이 덮인 지면 또는 얼음위에서 타렌 툴라종 거미를 대량적으로 발견하였다.

그 당시의 기온은 아직도 섭씨 령도 이하이였으며 자연 발생의 가능성은 전연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거미의 대량적인 비정상적 출현은 미국 비행기가 침입한 이후 돌연히 발생하였다. 따라서 그것들이 미국 비행기에 의하여 산포된 것임을 의심할바 없이 긍정된다.

세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타렌 툴라종 거미는 탄저간균과 출혈성 패혈증 파세간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였다.

(편집자주)

1. 본 부록은 중문판에 의거한것임

2. 중국 심양 할빈지구의 온도표 및 미군 비행기의 곤충산포지도는 성략함

(7) 미군 비행기가 조선 북부 및 중국 동북에 세균을 보유하는 식물체를 투하한데 관한 보고

목 차

1. 미군 비행기가 조선 북부에서 대두자 반병균을 보유하는 콩줄기와 콩깍지를 투하한데 대하여

1952년 3월 20일 오후 1시 중국 인민 지원군 ○○부대 부정치 지도원 손지견은 조선 평안북도 정주군 고안면 연풍리에서 미군 쎄이버 젯트기 4대를 보았으며 또한 한무리의 검은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동 물체는 지상 약 300메터에서 즉시 퍼져 점차 콩줄기와 콩깍지 그리고 나무 잎등을 산산히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산포된 면적은 넓이가 약 2백메터 길이가 약 5백메터이였으며 평균매 평방메터중 콩줄기 및 콩깍지 2내지 3매, 나무잎 15내지 16매가 있었다.

이 콩줄기와 콩깍지는 1952년 4월10일 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실에 보내여왔다.

(북경 농업 대학)

(1) 표본 관찰—콩깍지에는 검은 반점이 있었다. 반점의 모양은 불규칙적이였으며 직경은 0.3 내지 1미리메터였다.

(2) 현미경 관찰—반점이 있는 콩깍지의 적은 조각을 물에 넣어 1분간 끓여보면 콩깍지의 조직이 만문하게 되여 웃껍질은 떨어지기 쉽게 된다. 반점이 있는 곳에서 찢어낸 웃껍질을 유산분속에 넣어 고정시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웃껍질에는 많은 분생포자 경총이 있다. 그러나 분생포자는 극히 적다. 분생포자 경총은 자좌위에 생긴다. 자좌는 흑갈색이며 직경 50—60미리이다. 분생포자경은 종려색이고 웃끝의 빛은 비교적으로 연하고 수직으로 서 있으며 갈라져 있지않고 2—4개의 간격이 있다. 웃끝은 약간 좁아지고 극히 뚜렷한 포자흔적이 있다. 70•1404－5—5.5미리메터이다. 분생자는 색채가 없으며 긴줄형태 또는 장봉형(막대형태)을 이루고 있다. 간격이 있고 72－180×3—4.5미리메터 균사는 종색내지 종갈색이고 끝은 항

상 무색이고 간격이 있으며 때로는 물규칙적이고 웃겹질 세포중에 만연하며 심지어는 총소모 세포중에 침입하고 있다.

(3) 병균의 분리

1952년 4월 24일 콩깍지위의 균체를 마명서 배양기 속에 옮기였다. 균종은 즉시 균체로 부터 긴게 나왔다. 초기에는 백색이고 후에는 점차 변색하여 종색 내지 종갈색으로 변하였다. 배양기 중에는 표준의 분세포자는 생기지 않는다. 균체를 진을 10% 포함한 마명서 양채의 배양기중에 옮긴다면 균사는 언제나 회백색으로 되여있다.

(4) 치병력 시험

발아한 콩종자의 접종…1952년 5월 12일 우선 균종을 배양접씨 가운데 옮겨놓았는바 그 성장이 량호하였다.

매개의 배양접씨 가운데 이미 표면을 소독한 콩종자 네개를 넣었다.

5일이 지난후 그 종자의 겁질과 균사가 접촉하는 곳에는 적은 검은 얼럭이가 발생하였다. 콩이 바로 발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생긴 어린뿌리와 균사의 접촉처는 역시 침해를 당하였다. 일부의 유근이 균사와 접촉하지 않는 곳은 그대로 건전성을 유지하였다.

5월 19일에 또다시 관찰을 실시하였을 때 종자 겁질은 이미 대부분이 흑갈색으로 변하였으며 자엽위에도 역시 흑갈색의 병반이 생겼다.

수차 이것을 반복한 결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재분리를 실시한 결과 원형의 병균을 얻었다.

콩유묘의 균에 감염된 흙속에서의 접종…5월 26일 3각병속에서 10일간 배양한 4개의 순균종에 4백그람의 소독사를 첨가하여 이를 혼합분쇄하고 이 혼합물을 4개로 나누어 매개의 혼합물을 소독사가 있는 화분속에 넣었다.

4개의 화분을 이러한 방법으로 접종하고 이밖에 소독사가 있는 두개의 화분에는 접종을 하지 않고 그들을 대비하였다.

병반이 없는 콩종자를 1천분의 1의 승홍수로 소독한 일분후에 소독수로 네번 소독하고 준비가 잘된 6개의 화분에 심으되 매개 화분에 네알씩 심었다.

6월 12일에는 최후에 한번 관찰기록을 작성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콩유묘가 자반병균 (체르코스포라소지나 하라) 이 침투된 흙속에서 병에 걸리는 률은 아래와 같다.

	접종토양				비접종 토양	
화분호수	1	2	3	4	5	6
심은종자수	4	4	4	4	4	4
발아종자수	2	3	3	3	2	4
리병 묘수	2	3	3	3	0	0

이 결과는 병균이 침투한 토양에 접종한 콩 유묘가 전부 리병한 사실을 뚜렷이 보여 준다. 자경의 밑과 근부 및 자엽에는 갈색 얼룩이 생긴다. 접종치 않은 토양 속에 심은 유묘는 모두 병에 걸린 징조가 없다.

(5) 병균의 감정

형태학적 및 병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종류의 병균은 체르 코스 포라 소지나 하라로써 감정되였다. 이 병균은 콩에 해독을 주는 것이다.

이 병균은 콩의 잎, 줄기, 콩깍지 및 종자에서 과동하며 아울러 이로 부터 전과한다.

2. 미군 비행기가 조선 북부에서 식물 탄저병균을 보유하는 잎사귀를 투하한데 대하여

1952년 2월 28일 오전 11시 중국 인민 지원군 무요근은 조선 개성 동쪽 대덕산에서 미군 비행기 2대가 5개의 둥근 물체를 투하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바 이는 점차 퍼져 대량의 잎사귀들이 산포되여 약 1평방키로메터에 락하되였다. 매 평방메터에는 평균 잎사귀 하나내지 세개가 있었으며 입사귀는 토황색이였다.

(1) 표본 관찰

잎사귀 표본은 1952년 4월 10일 본 연구반에 의하여 더욱 연구되였다. 잎사귀는 파쇄된 까닭에 그 학명을 감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잎사귀는 사과, 배, 또는 목화나무잎이 아니였고 이 잎사귀의 뒷면에는 검은 적은 점들로써 차있었다.

(2) 치병진균의 분리 배양

잎사귀를 적게 쌀아 1천분의 1의 승홍수로 소독한 3분후 균이 없는 물로 세번 씻고 마령서탕 양채평 관기중에 넣었다. 5분후 매개의 잎사귀 조각 조직에는 균사가 길게 나왔다.

그중 몇개의 균총은 분생자와 분생 포자를 내였다. 그 형태로 보아 이것이 일종의 식물 탄저 병균이라는 것이 증명되였다.

(3) 치병력 시험

ㄱ. 면포 접종

1952년 4월 16일 소독한 목화씨를 균에 감염되지 않은채 발아시켰다. 병에 걸리지 않은 유묘를 집어 마령서 배양기를 가진 큰 시험관 또는 배양 접씨 가운데 넣은 다음 병균을 배양기 속에 넣었다. 4일후 목화묘의 자경 및 근부는 완전히 침해를 받았으며 근부는 썩고 자경위에는 갈색의 병반이 생겼고 자엽 위에도 역시 진한 갈색의 반점이 생겼다. 이러한 병상은 면화 탄지병과 극히 근사한 것이였다.

재분리를 거쳐 병균 원형을 얻었다.

1952년 4월 20일 6개의 화분중에 살균한 토양을 넣고 인공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병균을 4개의 화분 가운데 넣었으며 이밖에 두개의 화분에는 접종하지 않고 그것들을 대비하였다. 6개 화분의 매개에는 건전한 목화묘 세포기씩을 심었는바 심은

4일후 병균을 넣은 화분의 목화묘 12포기 가운데서 9포기가 발병하였다. 2주일 이후 그밖에 두포기도 역시 동일한 병상을 내였다. 그러나 대비용 목화묘는 모두 건전하였다. 재분리를 거쳐 병균 원형을 얻었다.

ㄴ. 면령 접종

1952년 7월 18일 면화 유령 5개에 탄저 병균을 접종하고 그 밖에 2개의 동일한 품종의 면령에는 접종하지 않고 대비용으로 하였다.

접종전에 알콜로 면령의 표면을 소독한 후 살균 주사기로 면령종 피부의 몇곳에 병균 포자현 부액을 소량 (0.1미리릿트르) 주사하였다. 대비용에는 다만 살균한 물을 주사하였다. 접종과 대비용 면령은 그 주위의 습도를 3일간 유지한다.

7월 22일에는 접종한 곳에 이미 흑갈색의 조그마한 둥근 반점이 발생한 것이 보이였으며 대비용은 상처가 이미 아물어졌다. 8월 9일 병반은 더욱 확장되여 직경 2미리메터에 달하고 중앙부는 움푹 들어가 있고 가루는 붉은 색이고 가슴은 갈사색이였다.

ㄷ. 사과 및 배의 접종

1952년 4월 26일 사과와 배를 알콜로 소독한 후 이 병균을 다음과 같이 접종하였다.

(1) 병균을 실과 껍질속에 접입하였다.

(2) 병균을 주입하지 않은 실과 표면에 이 병균을 붙였다. 껍질속에 접종한 과실표면에는 3일 이후 수짐 상태의 갈색 병반이 발생하였다.

5월 3일부터 접종하여 8일이 지난 이후 병반 위에는 뒤를 이여 분생자좌와 자닏각이 자라나왔으며 재 분리를 거쳐 병균 원형을 얻었다.

병에 걸린 실과의 병상과 사과 고부병의 병상은 극히 비슷하며 갈색의 물에 제친 상태의 반점이 발생하였으며 아울러 동심문을 형성하였다.

분생 자좌위에는 육색의 까분 까분한 분생 자균이 생겼는바 이는 목화 및 사과 탄저 병균의 특징으로 되는 것이다. 접촉법을 통하여 균사를 사과 및 배의 표면에 접종하는데도 성공하였으며 2주일 후 역시 동일한 병상이 발생하였다.

ㄹ. 사과 및 배나무 가지에 대한 접종

7월 18일 사과와 배나무 묘목 가지에 대한 접종 실험을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사과 나무 3주 및 배나무 6주 (동방배 3주, 서방 배 3주) 의 새가지 위에서 매주에 각각 0.1그람의 포자액을 주입하였고 대비용에는 동량의 살균한 물을 주입하였다.

접종과 대조용 가지는 모두 그 주위의 습도를 3일간 유지하였다. 접종 후 20일에 주사를 거친 모든 사과나무 빛 배나무 새가지에서 파렬괴양 병반이 발생하였는바 크기는 0.4—0.8 센치메터였다. 대비용 가지에는 다만 주사침 자리가 있었을뿐이였다.

(4) 병균의 형태

분생자는 강모가 있는 검은 분자좌 속에서 생긴다. 강모는 굳고 곧으며 단생이며 갈색 내지 종갈색이며 간격이 있고 45－60×3－4미리메터이다. 분생자군은 점질있고 육색이다. 분생자는 장원형이고 때로는 약간 굽어있고 무색이다. 1내지 2개의 유구가 있고 12 17.53.5×6.3미리메터이다. 분생자는 물방울 속에서 극히 용이하게 발아하며 발아시에는 1내지 수개의 간격이 생기며 매개의 틈에는 한개의 아관이 길게 나오며 그 전단에는 흑갈색의 압력포 1매가 있다.

자낭 각은 대단히 많이 발생하며 흑갈색이고 준 원형이며 총생 또는 단생이고 직경 80—250미리메터이다. 자낭은 곤봉형이며 무색이고 8개의 포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항상 두줄로 배렬되며 44－72×8－12미리메터이다. 자낭 포자는 무색이며 약간 신형을 이루고 있으며 단세포이며 1개의 유구가 있다. 12－22×4－6미리메터

(5) 병균의 감정

형태와 병치력의 연구에 의거하면 이러한 종류의 병균은 1종의 탄저 병균 (글로메렐라종) 이며 그의 무성 세대는 콜레토트리츔이다. 그의 기생 범위는 매우 광범하며 배, 사과 및 목화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탄저 병균은 목화의 탄저 병균 (글로메렐라고시피— (사우스) 이더지) 및 사과의 탄저 병균 (글로메렐라싱굴라타 (스토운만) 에스 에트 에스) 과 형태시 기생 범위에서 모두 동일치 않은 점이 있다.

3. 미군 비행기가 중국 동북에서 배 및 사과 륜문병균을 보유하는 복숭아 잎을 산포한데 대하여

1952년 7월 10일 오전 11시 수암현 생산촌의 농민 마수린은 생산촌 치안구에서 미군 비행기 1대가 서남쪽으로 부터 동북으로 향하여 비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즉시 대량의 나무 잎이 공중으로 부터 밭에 떨어져 면적 약 1만 평방메터의 지면에 산포된 것을 발견하였다.

평균 매 3평방 메터에는 나무잎 1매가 있었다. 이러한 나무잎 표본은 7월 26일에 본 연구 실험실에서 송부되였다.

(1) 나무잎 표본의 감정

미국 비행기가 투하한 이러한 나무잎 표본은 류진악 교수 림용 박사 및 전문가 왕가임에 의하여 복숭아 나무잎 (프루누스 페르시카지 브에트주스) 로써 감정되였다.

(2) 표본 관찰

나무잎 표본은 종갈색을 이루고 있으며 소수의 병반이 있다. 이 표본을 습기가 보존되는 접씨속에 둔 결과 6일 후에는 대량의 검은 점점이 생겼다. 이것이 즉 병균의 분생 자각이다.

(3) 치병진 균의 분리

1952년 8월 1일 조직 배양법을 사용하여 마령서 양채 평판 배양기에서 분리시켜

48시간을 경과한 후 매개 조각의 조직은 모두 동일한 균락을 나타내였다. 균사의 생장은 극히 빠르며 처음에는 백색을 이루고 나중에는 회색으로 변하여 아울러 람색을 띠였다.

병균은 배양기에서 8일간을 경과한 다음 즉시 대량의 분생자각을 나타내였다.

(4) 치병력 시험

(1) 배 및 사과의 접종

1952년 8월 4일 배와 사과를 알콜로 표면을 소독한 다음 이 병균으로 다음과 같이 접종하였다.

방법 1…실과 껍질을 직경 약 3센치메터의 반 원형으로 베여 입구를 만들고 병균을 보유하는 조그만한 배양기로써 껍질속에 접종하였다.

방법 2…과피위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균을 보유하는 배양기를 상처 위에 접종하였다.

방법 3…방법 2와 같으나 다만 어떠한 상처도 내지 않았다.

배의 접종은 다만 제2 및 제3의 두가지 방법을 채용하였다. 접종한지 48시간 후에 실과위에 발생한 병반의 대소를 기록한다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접 종 방 법	병반대소(접종 48시간후 6개 접종의 평균수)	
	접 종	대 조
사 과		
방 법 1	23×25 미리메터	0
방 법 2	28×29 미리메터	0
방 법 3	7× 5미리메터	0
배		
방 법 2	67×67 미리메터	0
방 법 3	45×50 미리메터	0

상술한 각종의 접종방법은 모두 성공하였는바 이는 분리에서 얻은 병균이 강렬한 치병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접종후 얻은 병상은 다음과 같다.

최초에 발생한 갈색 원형병반의 확대는 극히 빠르며 약간의 병반은 극히 뚜렷한 륜문을 가지고 있다. 병균은 실과내부에 깊이 들어가 조직을 만문히 하고 썩이였다. 배는 접종한 4일후에 전부 썩었다. 사과는 접종한 8일후 역시 동일한 결과를 내였으며 재분리를 거쳐 동일한 병균을 얻었다.

(2) 사과나무 가지의 접종

8월 4일에 1년생의 사과나무묘 4주를 취하여 2주를 접종하고 2주를 대비용으로 하였다. 접종방법은 다음과 같다.

접종부분을 우선 알콜로 소독하고 묘목의 새싹과 엽병위에 작은 구멍을 뚫고

병균을 보유하는 배양기의 작은 덩어리를 상처위에 접종하였다. 그 다음에는 파라핀지로 이를 쌌다.

즉시 파라핀지 속에 살균수를 주입하여 젖게하고 대비용에는 접종하지않은 이외에 기타를 모두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접종한 48시간 후에 한나무의 끝은 죽어버렸다. 96시간후에 다른 한 나무도 역시 죽었다. 접종 부분에는 진한 갈색의 궤양이 생겼다.

대비용 묘목은 그 건전성을 유지하였다.

이상과 같은 접종시험은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하였다.

ㄱ. 이 병균은 배와 사과에 대하여 강렬한 침해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병반의 발전과 실과의 부패는 모두 극히 빠르다.

ㄴ. 이 병균은 자기자신 능히 건전한 실과 껍질속으로 침입하여 실과를 썩게 한다.

ㄷ. 병균은 능히 그 자신 새 싹과 나무가지에 생긴 상처로부터 침입하여 사과나무가지로 하여금 궤양을 일으키게하며 또한 말라죽게 한다.

(5) 병균의 형태……접종한 6일 후 사과병반의 중앙부에는 많은 분생자각이 생겼다. 분생자각은 분산하여 실과껍질밖으로 절반 뻗쳐나오며 틈이 생긴다. 그 형태는 계란형 또는 타원형이며 색이다. 그는 260—420×200－260미리메터이다.

분생포자는 빛갈이 없고 격막이 없으며 장원형 내지 북집형이다. 그는 20—25×4.0－6.5미리메터이다. 균사는 처음에 백색을 이루고 그 다음 회갈색을 이룬다. 마령서 양채배양기 위에서 대량의 분생자각이 산생한다.

(6) 병균의 감정…이 병균은 형태 및 병리학상의 연구를 거쳐 마크로포바 쿠와추카이하라로서 감정되였다. 이러한 종류의 병균은 능히 배와 사과에 해독을 주며 엄중한 부란병상 륜문을 산생하며 역시 사과나무가지를 침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써 엄중한 궤양을 초래하며 아울러 나무를 말라죽게 한다.

이것은 이러한 종류의 병균이 과수원에 대하여 엄중한 위험성을 가지는 것임을 충분히 증명한다. 미군 비행기가 이러한 종류의 과수를 엄중히 위태롭게 하는 그런 병균이 보유된 나무잎을 대량적으로 투하하여 중국 동북의 농업생산을 해치려고 시도한 것은 매우 명백하다。

4. 미군 비행기가 곤충 및 기타 물체를 산포한 중국 동북 지구에서 흑분균을 보유하는 옥수수를 발견한데 대하여

1952년 3월 19일 안동 오용 배구 손가보자의 농민 부인 (37세) 은 강변에서 약간의 옥수수알을 발견하고 즉시 이를 수집하여 그 일부를 검사실험하기 위하여 보내왔으며 그 나머지는 즉시 불살라 버렸다.

(1) 표본 관찰

옥수수알에는 검은 포반이 있다. 포반의 뒷면에는 검은 가루비슷한 것이 있었다.

(2) 현미경 관찰

옥수수에 있는 검은 포반은 흑분병균의 포자들의 덩어리였다. 포자 덩어리는 흑갈색이였다. 포자구는 준 원구형이며 분산시키기 용이하지 않으며 직경 14—30미리메터이고 3개 내지 20개의 후원포자를 포함하고 있다. 후원포자는 진한 갈색이며 반원형이고 때로는 불규칙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접촉면은 편편하고 매끈하며 외부로 향한 1면은 원구형을 이루고 혹과같이 두드러나온 것이였다. 직경은 8—14미리메터이다.

(3) 발아 시험

포자는 매우 강한 발아력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온도에서 24시간 후에 즉시 물방울 속에서 발아한다. 매개의 후원포자는 하나의 원균사를 산출하며 원균사 윗끝에는 하나의 작은 포자가 산생한다.

(4) 병균의 감정

병균의 형태에 의하면 이 병균은 흑분병균 (티카포라종) 의 1종이며 이것은 중국에서 종래에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병균의 한 종류인 테카포파 더포르만스들은 구라파 및 미주에서 두작과물을 해쳤던 것이다.

감 정 자

내방란—북경농업대학 식물 병리연구소 소장
심기익—북경 농업대학 식물 병리학 교수
구유범—북경 농업대학 식물 병리학 부교수
등숙군—심양 농학원 식물 병리학 교수 겸 부원장
주가식—북경 농업대학 식물 병리학 교수 겸 학과주임
황 하—중국 과학원 식물 분류 연구소 후보 연구원
리기린—북경 농업대학 식물 병리학 조교수

(8) 미국 비행기가 조선 북부 및 중국 동북부에 대하여 조선 남부에서 특산되는 두가지 종류의 나무잎을 투하한데 관한 보고

미군 비행기가 조선북부 및 중국 동북부 지역내에서 산포한 식물 재료 가운데서 우리들은 산후초 및 조선홍병청강 참나무를 발견하였다. 이 두 종류의 식물은 다만 조선남부에만 분포되여 있는바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산 후 초 (린네라 클라우카 비엘)

(1) 투하된 정형

1952년 5월 3일 중국 동북 료동성 해룡현 제6구 련산촌에서 주민 리준귀는 미군 비행기 4대가 북으로 부터 남으로 향하여 비행하고 대량의 나무잎을 투하하는 것을 보았다.

(2) 나무잎의 감정

투하된 이러한 나무잎은 주로 보통 참나무(퀘르쿠스 덴타타툰브큐롱 골ー카피슈 및 그 변종등등)의 잎사귀이다. 그러나 그중에서 우리들은 하나의 산후초 나무잎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예장나무과 식물나무 잎의 특점은 다음과 같다.

나무잎 조각은 타원형이며 끝은 대개 약간 굽어있고 결은 약간 광채가 있으며 옆편은 짧고 소맥은 그물과 같고 측맥은 옆편의 기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마른 잎사귀의 안쪽은 털이 약간 있거나 또는 거의 없다. 이 점으로부터 이 식물이 조선의 변종에 속한다는 것이 증명되였다.

(3) 산후초의 분초

이러한 종류의 조선변형에 예장나무과 식물은 조선 38선 이남에 분포되였다. 38선에는 다만 서해안의 몇개 지방에 이러한 종류의 식물이 분포되여 있다. 그러나 중국 동북부의 전 지역내에서 종래 이러한 나무잎이 발견되지 않았다. 조선 이외에서는 일본과 중국남부같은 곳에 이러한 종류가 분포되여 있으나 이 조선변종은 조선남부에 특유한 것이다.

2. 조선 홍병청강 참나무 (퀘르쿠스 알리에나 비엘변종 루브리페스 나카이

(1) 투하된 정형

1952년 2월 28일 오전 11시 북조선 개풍 대덕산 지방에서 인민지원군 무요군은 미군 비행기 2대가 대량의 나무잎을 투하하는것을 보았으며 이 나무잎은 1평방키로에 달하는 면적에 산포되였다. 우리들이 받은 이번 산포된 한 조각의 나무잎의 기본부분의 단편은 북경대학 장경술 교수가 몸소 조선북부에서 가져온 것이다.

(2) 나무잎의 감정

우리들은 이 나무잎의 단편을 상세히 관찰한 후 조선홍병청강 참나무로서 감정하였는바 이러한 락엽은 참나무이다. 이 종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ㄱ. 엽병의 길이 1내지 2센치메터 상면은 편편하며 밑에 가까이 갈수록 홈을 가지고 있다. 색은 붉고 건조한 이후에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

ㄴ. 엽편의 기본부분 전연은 보통 량편이 약간 같지않으며 상면에는 빛이 있고 아래에는 회백색을 띠운 짧고 주밀한 솜털이 있다.

ㄷ. 중맥은 잎사귀 량면에서 같은 높이를 가지고 두드려져있다. 입사귀 아래의 솜털 입사귀량면에서 균일한 높이를 가지고 두드려져있는 중맥과 엽병 중맥, 측맥의 색채등을 볼때 이러한 종류의 조선 변종과 청강 참나무(궤로크스 알리에나 비엘)의 기타 변종과 변형은 모두 뚜렷한 구별을 가지고 있다. 중국 과학원은 일본제국대학이 보내온 완전히 정비된 조선락엽표본(1900년 8월 30일에 이 무치이마가 조선 운한에서 수집)을 보존하고 있는바 이 조선표본과 우리들의 단편 표본을 비교하여 볼때에 감정공작의 결과가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3) 조선 홍병 청강의 분포 이러한 조선특산 식물은 남방 식물의 성질을 띠고 있으며 그의 분포는 다만 38선이남(전북, 충남, 경기도)에 국한되여 있다. 그러나 조선 북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술한 두 항목의 사실은 다시금 이러한 식물자료가 미군 비행기로 산포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감 정 자

전승수—중국 과학원 식물 분류 연구소 소장
호선숙—중국 과학원 식물 분류 연구소 연구원
림 용—동상
유덕준—동상
오정익—중국 과학원 식물 분류 연구소 부소장
왕발찬—중국 과학원 식물분류 연구소 연구원
당 진—동상
왕가임—중국 과학원 식물분류 연구소 부연구원
류진악—동북 농학부 식물 조사연구소 소장

(9) 국제 과학 조사단 단원들과 미 공군 세균전 포로들과의 담화

미 공군 세균전 포로 컨네트 이노크와의 문답

이노크는 먼저 조사단 단원들에게 그의 성명과 원적을 말하였다.

그는 일본 이와꾸니와 조선 군산에서 세균전에 관한 강의를 받았다고 말하였으며 또한 구체적으로 강사 웰손이 강의 중에서 세균전 작전의 각종 방법을 강의하였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는 그가 1월 7일 황주에서, 1월 11일 중화에서 세균탄을 투하하는데 참가한 경괴를 상세히 진술하였다.

그가 조사단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그가 이미 4월 7일 공술한 바와 완전히 일치하였다.

그의 자유 진술이 끝난후 그는 국제 과학 조사단 단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상세히 대답하였다.

올리보 올리베로 (이태리) 는 『당신은 어떠한 형태의 전쟁 방식을 금지할데 관한 국제적 법규에 대하여 배운 일이 있는가?』 라고 질문하였다.

이노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배운 일은 없다. 우리는 다만 일부 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규정을 배웠을 뿐이며 이것에 대하여서도 역시 배운 것이 많지 않다.』

다음에 쥬끄브 웨레즈니끄브 (쏘련), 안드레엔 안드레아 (스웨덴) 는 이노크에게 그와 그의 동료가 세균전을 진행한데 대한 감상이 어떤가? 라고 물었다.

이노크는 이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확실히 우리가 세균전을 진행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북조선에 와서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의 무서운 타격이다. 이는 우연히 발생한 것 같이 보인다. 우리가 두번째 임무를 집행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아주 놀래게 한 것은 우리가 바로 진행한 세균전이 우연히 진행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비밀 엄수의 규정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대대 내에서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아메이스 대위 (이노크와 한 비행기에 탑승한 비행사) 는 이러한 사정을 매우 불안해 하였다. 그가 이미 적지 않은 보수의 임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집에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였으나 세균전을 집행한 사실은 그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아메이스 대위는 정규 장교이다. 그는 이미 그의 국가에 헌신하였다. 이러한 세균전에 참가한 것은 그로하여금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케 하였다.

그는 현재 그의 생명을 이러한 일에 바친다는 것이 그의 착오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였다.』

올리보는 이노크에게 그가 강의 혹은 명령을 받을 때 세균전 실험 혹은 대규모적 세균전을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는가? 라고 물었다. 이노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세균전 실험을 하든가 또는 실제로 세균전을 진행한다든가에 관하여 듣지 못하였다. 우리는 실제로 이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다만 실험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가히 추측하여 판단할 수 있었다.』

뒤이여 이노크는 말헤르칭 (불란서)의 질문에 대하여 그의 경력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후 나의 고향인 양스톤의 한 강철공장에서 일하였다.

1943년에 공군에 참가하였다. 나는 45개월간 복무하고 21차의 임무를 맡았는데 그 중 16차는 중국에서 비24형 비행기를 조종하였으며 기타 5차는 오끼나와에서 맡았다. 나는 1947년 초에 퇴역된 후 다시 강철 공장에 돌아가 일하였다. 돈을 벌어서 계속 대학에 다니기 위하여 나는 한 여름 동안 2개 공장에서 일하여야만 하였다.

나는 2년간 전기 공정과를 마친 후 1949년 2월에 양스톤의 전력 공장에서 일하였으며 밤에는 야간학교에서 공부하였다.

1951년 9월에 나는 징발되여 현역 군인으로 일본 이와꾸니에로 왔다.』

니드햄 죠세프는 그에게 『당신은 중국에 있을 때에 어떠한 감상을 가졌으며 중국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가』 라고 물었다.

이에 대답하여 이노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과거 운남 륙량에 주재한 일이 있는데 그곳 주민은 매우 선량하였다. 그들은 비행장 활주로를 수리하였다. 그들은 아무러한 도구도 없었으나 그들이 완성한 것은 거대한 공사이였다. 내가 포로되였을 때에 나는 즉시로 로역 혹은 총살, 학대 등을 당하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내가 무기를 바친 후 그들은 나와 악수를 하였으며 나에게 담배를 주었으며 나에게 아무런 가해도 하지 않을 데 대하여 보증하였다. 나는 그 당시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 사람들이 곧 내가 륙량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같은 사람이며 그와 같이 친절하며 선량한 것은 적어도 나로 하여금 마음을 놓게 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 사람과 중국 인민지원군은 확실히 나에게 좋은 대우를 해 주고 있다.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형제와 같다.

사람으로 하여금 매우 감동케 하며 큰 도움을 준다고 반드시 말하여야 되겠다. 그러나 나에게 인상이 가장 깊은 것은 나 개인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그칠뿐 아니라는 점이다. 좀 더 시야를 넓혀 본다면 그것은 비교적 중요한 것이 아니며 이 국가 자체에 대한 인식 여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된다. 나는 아이파스탄이 쓴 "중국의 완성되지 못한 혁명"이라는 저서와 발크나가 쓴 "신 중국은 벗인가 또는 적인가?" 라는 저서 및 허다한 중국에 관한 소책자와 잡시를 읽었다. 이러한 책들은 모두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케 하였다. 중국의 전변은 근본적 전변이며 매우 좋은 방향으로 전변하고 있다.』

이노크는 말레르 창이 제출한 군사 명령 준수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중요치 않은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사소한 일이다. 그러나 만일 세균전과 같은 일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시 나 개인의 타산은 나의 비행 임무는 반드시 세균탄을 투하하는 데 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임무를 완수한 후에는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질문이 끝나기 전에 이노크는 조사단 단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세균전에 참가하였으며 실제상 반인민적이며 가히 저주할, 증오할 죄행에 참가한 신분으로서 여러분 앞에 왔다. 나는 이미 전세계 평화를 애호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증스러운 전쟁을 진행한 미치광이들을 위하여 복무하였다.

미국 정부의 소수 고급 관원들은 이러한 대규모적 학살을 발동하고 나로 하여금 나의 량심과 의지를 위반케하며 이러한 죄행들을 범하게 하였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추악한 일을 하였다.

나는 세균과 곤충을 북조선의 무고한 인민들의 머리위에 퍼부었다. 나는 이러한 대 도살을 발동한 그러한 미치광이들을 규탄한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정의감이 있다.

나는 증인이 되여 이러한 세균전을 발동한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나는 나의 증언을 견지하여 이렇게 처참하고 비인도적인 전쟁에 대하여 정의적인 투쟁을 하며 평화와 인도를 위하여 투쟁하겠다. 나는 이곳에 앉아 있는 단원들에게, 특히 미국 인민에게 호소하며 미국 인민으로 하여금 당신들의 말을 듣게 하도록 하여 주기를 요망한다. 미국 인민들이 이 무서운 진상과 인도에 도전하는 무서운 범죄를 알게 될 때에 그들은 일치단결하여 이러한 일을 감행하는 그러한 분자들을 타도할 것이다. 나는 여러분의 이러한 평화를 위한 정의적이며 숭고한 투쟁에 경의를 표한다.』

미 공군 세균전 포로
존 퀸과의 문답

존퀸은 먼저 조사단 단원들에게 그가 들은 세균전과 원자탄에 관한 강의의 정형과 그가 1월 4일, 평양에서와 1월 11일, 군우리에서 세균탄을 투하한 경과에 대하여 간단히 진술하였다. 그는 조사단 단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세균전에 참가한 것은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였다. 만일 당시에 내가 정의감이 있었더라면 내가 한사람의 병사라 할지라도 그런 세균탄의 휴대를 거절하였을 것이다.』

이여 그는 세균탄을 투하한 이후의 감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당시 나는 세균탄을 투하하러 가지 않으면 아니될 것을 용이하게 간파하였다. 그러나 나는 만약 어느날 이러한 세균탄이 나의 가정에 떨어질 때에는 그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하는 것도 생각하였다.

세균탄이 이미 주민들 주택 지역에 떨어진 것도 나는 알았다. 나는 조선 인민을 미워하지 않으며 중국 인민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주민을 살해하는 것을 싫어하며 무방비 지대에 살며 무엇 때문에 전쟁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을 싫어 한다.

과학이 비록 발달되였으나 전쟁 이후의 질병의 만연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곤난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은 질병의 류행을 방지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질병의 류행을 촉진하는 데 쓰고 있다. 내가 이러한 일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한 이미 참가한 데 대하여서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또한 현재에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목전의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즉 내가 세균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하여야 할 역할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놀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원하고 있다.』 그는 니드갬쇼세프 (영국) 가 제출한 용기와 세균탄 구조에 관한 질문들에 대답하였다. 이 대답은 그가 4월 13일에 말한 공술 중에 제기된 정형과 완전히 부합되였다. 퀸은 올리보 올리베로 (이태리) 가 제출한 그의 사상 전변 과정에 관한 질문들에 대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세균전 임무를 접수할 때에 마음 속으로 세균전에 대하여 반감을 가졌다. 그러나 진정한 전변은 참으로 중국 지원군의 인자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것이다. 나는 정치와 경제를 학습할 기회를 가지게 되였다. 이 전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도 가지지 못하였다.

나는 전쟁의 발생 원인을 모른다. 나는 전쟁이 닥쳐온 것을 알았다. 나는 미국이 영원히 옳은 줄만 믿었다. 이전에 나는 미국에 개인의 리익을 위하여 세균전과 같은 일을 발동시킬 사람이 있을 줄은 믿지 않았다.』

퀸은 쥬꼬브 웨레즈니꼬브 (쏘련) 가 제출한 그의 동료들의 세균 전쟁에 대한 반영 여하에 관한 질문들에 대답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세균전은 그 당시에 가장 비밀적인 것으로 심지어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까지도 론의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나의 방안의 사람들과 말한 일이 있다. 나와 한방에 있는 7명 중 4명은 세균전에 참가하였으므로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은 1월 13일 내가 격추 당할 때까지의 사실이다.

그들의 반영은 나의 반영과 완전히 동일하다. 이 사건은 돌연히 우리의 머리 위에 닥쳐 왔다. 우리들은 정의감을 일으켜 명령의 집행을 거절할 기회가 있기도 전에 부지부식간에 이에 참가하게 되였다.』 퀸은 국제 과학 조사단원들이 제출한 여러 질문에 대답한 후 동 조사단원들에게 말 몇마디 할 것을 요구하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보통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미국 인민의 고귀한 전통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국기의 붉은 줄을 과거 미국인들의 피로 물들인 데 대하여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국기, 내가 충성을 바치던 국기는 바로 진흙탕에 버림을 당하고 있다. 이는 내가 세균 전쟁에 참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기를 진흙탕에 내던지게 하였다. 나는 그의 영예를 더럽히였고 그를 위하여 생명을 희생한 사람들의 영예를 더럽히였다. 오늘 나는 사람들을 도와 진흙탕으로부터 그것을 건져 내야 하겠다. 나는 미국 인민들에게 국기를 높이 들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일부 사람들, 즉 세균 전쟁에 책임져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 국기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하겠다.

나는 일개 병사이나 나도 사람이다. 나에게는 사상이 있고 감정도 있다. 나는 일개병사로서 과거 세균전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나는 한개 보통사람으로서 세균전을 미워하며 또한 그에 대하여 응당히 책임져야 할 사람이므로 미워한다. 만일 그들을 제지하지 않는다면, 또한 세균전을 비법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늘은 비록 다만 조선에서 감행되고 있으나 래일은 세계의 기타 지방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우리들의 가정이 세균전의 목표로 될 수도 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의 감정은 매우 흥분되여 있다.

나는 우리들이 지금 이러한 기괴한 세균전은 비법적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매우 커다란 공헌이 있으리라고 인정한다.

미국 인민들은 그들의 국가에 세균전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 정황을 안 후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균전에 대하여 응당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반대할 것이다.』

퀸은 끝으로 조사단의 단원들에게 미국 인민을 도와서 사실을 명백히 하여 주기를 간절히 요구하였다.

쇼세프는 끝으로 조사단원들을 대표하여 퀸의 절실하고 성실한 증언과 우호협조의 태도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미 공군 세균전 포로

플로이드 오닐과의 문답

언제 어디서 세균탄을 투하하였는가 하는 안드레엔안드레아 (스웨덴)의 질문에 대하여 오닐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금년 2월 15일에 세균탄 투하 임무를 받았다. 이것은 나의 최초이며 또한 최후의 세균탄 투하 임무이였다.

우리의 목표는 북조선 시변리였다. 나의 비행기를 포함한 4대의 비행기들은 각각 2개의 세균탄을 적재하였다. 우리는 그 속에 어떠한 종류의 세균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었으나 우리가 이날에 투하한 폭탄들이 세균탄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오닐은 1952년 3월 4일에 포로되였다. 이날 오전 9시 15분 경 북조선 신막 서방 약 10마일 지점에서 철도 차단 임무를 수행중 그의 비행기는 고사포의 명중탄에 의하여 격추되였다.

『나의 비행기가 논에 불시 착륙하자 마자 나는 중국 인민 지원군 부대에 의하여 포로되였다.』고 미국세균 범죄자는 말하였다.

세균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일이 있는가 라는 안드레엔의 두번째 질문에 대한 오닐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나는 세균전에 관한 강의에 두번 참석하였다.

처음 강의는 1951년 12월 1일, 미국 아리조나주에 있는 류크 공군 기지에서 받았다. 여기에서는 약 70명의 학생들이 출석하였는데 전부 폭격술 훈련을 받는 학생들이였다. 이중 약 40명은 에프 84중대, 나머지 30명은 에프 51중대 대원들이였다.

두번째 강의는 조선 주둔 제18 전투 폭격기 련대의 전방기지 케이—46에서 1952년 2월 22일에 받았다.

약 2시간에 걸친 동 강의는 제1차 강의와 비교한다면 훨씬 상세한 것이였다. 이 두번째 강의에서 나는 세균전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남 칼로리나주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였다는 오닐은 이 강의들의 내용에 관하여 계속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처음에 받은 강의에서는 세균전에 관하여 다소 추상적으로 설명되였다. 여기서는 세균 무기가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전연 언급되지 않았다. 강사는 강의에 앞서 이 강의가 비밀에 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강사는 세균이 포탄 또는 항공기의 폭탄에 의하여 산포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 2개의 방법이 가지고 있는 우 결점들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즉 그는 포의

사격 거리는 제한되고 있지만 항공기는 적 후방 깊이 침입하여 세균탄을 투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나는 이 강의에서 미국 당국이 수 많은 과학자들을 동원하여 특수한 형태의 세균과 곤충들을 배양하는 연구 사업을 추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세균들은 풍토 순화법에 의하여 추위에 견디여 낼 수 있게 훈련된다고 강사는 말하였다. 강사는 또한 어떠한 추위에도 견디여 낼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곤충들도 배양되고 있다고 부언하였다.

1차 강의를 담당한 강사의 이름은 윌리엄스 소좌였는바 그는 이 강의를 하기위하여 특별히 워싱톤에서 류크 공군 기지에 온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추위에 견디여 낼수 있는 곤충 및 세균을 배양하는 연구 사업이 미국 메어리랜드에 있는 애버단 특별 실험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 미군 화학군단과 륙군 군수품부는 아비딘에 대연구소들을 가지고 있다 한다.

조선의 케이-46기지에서 내가 받은 두번째 강의는 금년 1월 22일에 행하여졌는바 이것은 윌리엄스 소좌의 강의보다 훨씬 상세한 것이였다. 이번 강사는 제18 전투 폭격기 련대의 정보과에 있는 맥라플린 대위였다.

다른 세명의 공군 장교와 나는 련대 작전부 훈시실에서 세균전에 관한 그의 상세한 강의를 받았다.

맥라플린 대위는 강의 벽두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주의하였다. 즉 우리의 보통 전투 임무는 비밀에 속하지만 비행사들인 우리들은 서로 이에 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그가 우리에게 강의하려는 것은 극비에 속하는 것이며 강의의 내용에 관하여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여러번 강조하였다.

맥라플린 대위의 말에 의하면 현재 미 공군은 대체로 분류하여 두 종류의 세균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하나는 공중 작렬식 세균탄인데 이 폭탄은 공중에서 터진다. 이 종류의 폭탄은 곤충 산포에는 사용되지 않고 세균 전파에만 사용된다.

두번째 종류의 세균탄은 락하산이 달린 폭탄이다. 이것은 락하산에 의하여 지상에 투하된다. 이폭탄으로부터 세균을 보유한 곤충들이 산포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맥라플린 대위는 우리가 소속되여 있던 제18 전투 폭격기 련대가 공중 작렬탄에 속하는 세균탄만으로 세균 전파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명하였다.

세균만이 들어 있는 공중작렬식 폭탄은 보통 500폰드 폭탄과 흡사한 형태이다. 이 폭탄의 길이는 약 3피드, 직경 약 1.5피드인데 중량은 150폰드 내지 200폰드이며 보통 500폰드 폭탄보다 훨씬 가볍다. 이러한 종류의 폭탄의 탄피의 두께는 불과 4분의 1인치이다. 폭탄은 지상 약 50 내지 100피드 상공에서 터진다.

다음으로 우리 강사는 세균을 보유한 곤충을 투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락하산

식폭탄을 설명하였다.

락하산을 단 세균탄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중 하나는 한 종류의 곤충만을 담은 폭탄이다. 이 폭탄 선단에는 특수 장치가 있는바 이 장치는 폭탄이 지면에 접촉하자마자 두개로 열려 곤충들을 밖으로 분산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 락하산을 단 폭탄의 규격은 길이 5피드, 직경 1.5피드, 탄피 두께 4분의 1인치 중량은 150 내지 200폰드이며 역시 모양은 보통 500폰드 폭탄과 동일하다. 이 장치의 주요부분은 폭탄 선단에 있는 한개 스윗치이다. 이 스윗치는 축전지 및 자그마한 교류 전기 모터와 련결되여 있다. 폭탄이 지면에 부딪치면 이 스윗치는 모터를 돌리게끔 되여 있다. 이 모터가 세균탄을 두쪽으로 분해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 한 종류의 락하산식 세균탄에는 여러종류의 곤충들을 담을 수 있다. 맥라플린 대위는 자기의 강의에서 이 한개의 폭탄 안에 모기, 개미, 파리, 하루살이 등 곤충을 동시에 넣는다고 설명하었다. 이 폭탄의 규격도 역시 보통 500 폰드 폭탄과 다름이 없다.

이 폭탄 내부는 보르종이에 의하여 4개의 부분으로 나뉘여져 있다. 이것은 일례를 들자면 개미들이 다른 곤충들을 해치는 등의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오널은 강사가 설명한 또 하나의 방법 즉 곤충을 분무식으로 산포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곤충을 산포하는 장치는 항공기의 미부에 달려 있다. 보통 조종사의 바로 뒤에는 휘발유 탕크가 있는데 곤충 산포용 장치를 항공기에 장비할 때에는 이 휘발유 탕크를 떼고 그 자리에 곤충 산포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탕크형의 이 산포기 안에 있는 곤충들은 파이프를 통하여 산포된다. 이 곤충 산포용 탕크는 높이 3피드, 넓이 2피드이다. 이 탕크의 수용 능력은 곤충이면 7천 마리, 세균이 배양된 배양체라면 100폰드이다.

세균을 효과적으로 산포하기 위하여 탕크의 파이프 끝에는 분무관이 달려 있다. 이 세균 산포기는 조종사에 의하여 직접 사용된다. 강사는 곤충을 산포할 때에는 항공시속 200마일, 고도 1,000피드에서 행하여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세균 산포는 동일한 고도에서 시속약 3백 50마일의 속도에서 행하여야 한다.

맥라플린은 세균 또는 세균을 보유한 곤충을 산포할 수 있는 비행기가 케이—46기지에 4대 있었다고 말하였다.』

『세균탄은 어디서 제조되며 어떠한 방법으로 수송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널은 맥라플린 대위가 강의하는 과정에서 세균탄들은 매 2주일마다 비행기에 의하여 조선으로 수송된다고 말한 일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는 또한 케이—46기지에 도착한 세균탄과 세균이 든 용기들은 지하 창고에 둔다고 부언하였다. 『당신이 금년 2월 15일에 투하한 세균탄들은 어떠한 종류의 것인가?』 라는 니드햄 죠세프 (영국) 의 질문에 대한 오널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나는 2개의 세균탄을 비행기의 앞 날개에 장치하였다. 그 모양과 규격에는 내

가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나 세균탄에 칠한 뼁끼 색갈만은 보통 폭탄과는 상이한 것이였다.

세균탄의 색갈은 흑색이였으나 보통 폭탄들은 검은 색이다.』

말테르 쟝 (불란서) 이 계속하여 『당신이 증언한 날은 6월 18일이며 포로된 날짜는 3월 4일이다。 당신의 증언이 이렇게 늦어진 리유는 어디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오닐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3월 4일에 포로되였다. 그러나 포로수용소에 도착한 것은 4월 20일이였다. 심문자들이 모두 분주하였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심문은 5월 말경에야 시작되였다.

처음 나는 내가 한 일을 고백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량심이 나로 하여금 내가 범한 무서운 죄악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오닐은 중국 인민 지원군 당국의 관대 정책에 감사의 뜻을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포로 수용소 당국은 우리 포로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돌리고 있다. 또한 수용소 직원들은 자기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무릅쓰고 포로들에 대한 공급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심문을 받는 동안 나는 그야말로 인도적인 취급을 받았다. 나는 하등의 모욕도 받은 일이 없다. 고문은 절대로 받지 않았다.』 국제 과학 조사단의 미공군 포로 플로이드 비오닐과의 문답은 이것으로 끝났다.

오닐은 조사단 단원 일동에게 꼭 하지 않으면 안될 말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조사단에게 자기에게 발언할 기회를 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오닐은 천인공노할 세균전에 참가한 한 사람으로서 국제 과학 조사단에 가장 긴급한 호소를 제시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당신들이 조사한 것을 인민들에게 공포할 것이다. 인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세균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인민들에게 알려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영국과 브라질 대표들에게 특별히 호소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는 나의 조국인 미국과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왜 나는 미국 인민에게 직접 나의 관심을 돌리는가? 나는 나의 조국인 미국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의 신문과 라디오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뉴스를 취급하는가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사실을 외곡한다. 미국의 일반 인민들은 조선과 중국에서 세균전이 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균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흉악한 무기에 의하여 살해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세균전 감행을 결정하였고 이것을 시작한 것은 바로 미국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인민은 이것을 모른다. 왜냐 하면 정부는 인민이 이것을 아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한 후 내 아들이 나에게 조선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고 물을 때에 나는 그에게 내가 조선 사람들에게 세균탄을 퍼부었으며 조선에 주검과 파괴를 가져다 주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나의 가족을 대할 낯이 없다. 내 가족들에게 내가 무서운 범죄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있겠는가 나의 신경은 말로서는 표현하기 어렵다. 전세계 수백만 인민들의 생명은 위협을 받고 있다. 세균전은 1개국의 인민에 대하여 감행되는 한개의 국부적인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반대하는 것이다.

전체 인류가 세균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전세계 인민들이 이것을 반대하여 궐기하지 않는 한 세균전은 방지될 수 없다.

당신들은 세균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당신은 나의 증언을 청취하였다. 당신들은 세균전이 지금 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의 증언을 리용할 것을 나는 당신들에게 탄원한다. 세균전에 관한 사실을 최대한으로 빨리 모든 사람에게 알려 줄 것을 나는 충심으로 부탁한다.

나의 목소리는 너무도 작다. 나는 당신들에게만 말할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당신들을 통하여 나의 목소리는 전세계 방방곡곡에 전달될 것이다.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특히 나의 조국인 미국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달라!

그들은 이 사실만 알게되면 세균전의 공포와 위협을 반대하여 일제히 궐기할 것이다.』

미 공군 세균전 포로
폴 알 니스와의 문답

니스는 세균전에 가담하게된 경로에 대한 포로 수용소장 왕 장군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1946년, 하사관으로서 공군에 입대하여 1949년 7월 1일에 비행사 훈련과정을 졸업하였다. 그 후 나는 1952년 1월 30일, 조선 전선으로 전임하라는 지시를 받을때까지 알라바 마주에 있는 크레그 공군 기지에서 강사로서 근무하였다. 1952년 3월 20일에 조선 케이—46기지에 도착하였다.

세균 무기에 관한 나의 경험은1951년6월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다른 나라들이 계획하고 있는 세균무기에 관하여서라고 제목한 로리대위의 강연을 들었다. 로리는 다른 나라들에서 세균무기가 제조되고 있는데 이 무기의 설제 사용 방법은 여러가지 있다고 말하였다.

즉 폭탄에 의한 투하 또는 밀정에 의한 전파 및 포사격시 포탄 속에 넣어서 사격하는 방법들인 것이다.

그때 그는 1952년에 세균전에 관한 강연회가 많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내가 세균전에 관한 강연을 들은 것은 1952년 2월 21일, 스톤맨 공군

기지에서였다.

그때 나는 훌맨 대위로부터 강의를 받았다. 이강의의 주되는 목적은 미국이 세균전을 감행한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있었다. 그때 조선 정부는 미국이 세균전을 감행하고 있다고 성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훌맨대위는 우리도 세균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세균 폭탄 또는 동물들을 넣은 락하산식 세균탄 및 밀정들을 시켜서 전파시키는 방법들에 의하여 세균전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만일 미군이 세균 무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이 알게 된다면 반드시 시끄럽게 될 것이니까 우리들의 의무는 이런 사실이 절대로 없다고 부정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내가 조선에 도착한 다음날인 3월 21일에 우리들은 정보 장교 맥라플린 대위의 방에서 강의를 들었다. 이때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오던 바와는 정반대의 강의를 하였다. 즉 제18전투 폭격기 련대는 1952년 1월 1일부터 세균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균 무기는 세균폭탄과 락하산식 세균탄의 두가지 종류라 하였다.

세균폭탄에는 티브스 말라리야 및 선페스트 등의 세균이 들어 있고 락하산식 세균탄에는 쥐, 이 및 파리등 곤충들이 들어있다고 말하였다.

우리들은 이 세균탄을 『돗드』탄이라고 부른다. 다음으로 그는 세균탄을 취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였으며 끝으로 미국 정부가 세균무기 사용에 대하여 사실을 부정하는만큼 끝까지 비밀을 엄수하라고 말하였다.』

니스는 그가 실제로 세균전을 감행한 정형에 대한 왕 장군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보통 폭격을 위하여 출발할때에는 대개 출발 2시간 전에 폭탄을 비행기에 장치하는데 세균탄 만은 출발 15분전에 비행기에 실려진다. 내가 실지로 목격한바에 의하면 500폰드 짜리 보통 폭탄은 두 사람으로써는 도저히 들어서 비행기에 적재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 폭탄은 500폰드 짜리 폭탄과 동일한 체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두사람으로 간단하게 들어 올려 비행기에 적재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들은 항상 10,000피드의 고도를 유지하여 비행하였으며 목표에 가까워져서는 7,000내지 8,000피드의 고도로 내려와서 세균폭탄을 투하하였다.

이 폭탄은 지상 100피드 쯤에서 파렬하는데 이속에서 쏟아지는 세균은 100야드의 주위에 산포되는 것이다. 락하산식 세균탄도 동일한 방식으로 투하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국비에 속하는 것이므로 루설되여서는 안된다고 루차 주의가 환기되였다.

만일 이 비밀을 루설하는 자가 있다면 국법에 의하여 처벌 받기로 되여 있다. 따라서 모든 비행사들은 서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동료들과도 이 사실에 대하여서는 말을 하지않고 있다. 나는 1952년 3월 27일, 처음으로 세균 폭탄을 싣고 비행하였다.

목적지는 사리원 남방 약 10마일 지점인 어떤 조그마한 언덕이였다. 목적지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아침 8시였다. 고도를 6,000 피드로 낮추고 8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그 다음 고도를 높여서 9시에 케이—46 기지로 귀환하였다. 다른 폭격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폭격 후 특별히 목욕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목욕을 하고 나니 몸은 깨끗해 졌으나 이러한 범죄를 감행한 나의 마음은 조금도 깨끗해지지 않았다. 이때 이미 나는 다른 동료들도 세균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였지만 그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알수 없었다. 그 후에 들은바에 의하면 4월 5일에 커리 중위, 쟈센 중위 및 랜돌 중위가 신안주 남방 5마일 지점에 세균 무기를 투하하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 중대장인 크레인이 4월 15일에 평양 동방 5마일 되는 지점에 두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다는 것도 알았다.

5월 21일에는 윌리엄스중위가 군 우리에 8개의 세균탄을 투하하고 도라왔다는 것을 들었다. 내가 들은 바는 이것 뿐이 였으나 세균무기 사용이 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있다.』

세균전에 참가한 비행사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세균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았는가라는 조사단원 올리보(이태리)의 질문에 대하여 니스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나는 티브스 및 말라리야의 예방 주사를 맞았고 미국을 떠나기 전에 페스트 예방 주사를 3차나 맞았으며 스톤맨 병영에 있었을 때 세번 예방주사를 맞았다.

하나는 티브스 주사인데 기타 두가지는 무슨 예방 주사인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와 그의 관측이 정확한 것이냐고 말레르쟝(불란서)이 질문하였을 때 니스는 절대로 정확한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다음으로 세균 무기를 사용하고 돌아온 비행사들이 술을 많이 마시느냐 하는 말레르 쟝의 질문에 대하여 니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일반적으로 비행사들은 술을 많이 마신다. 그들은 호기심에서 전쟁하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술밖에 마실 것이 없다』

비행사들어 자기들은 현재 부정의의 전쟁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제2차 세계 대전과 동일한 정의의 전쟁에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말레르 쟝의 질문에 대하여 니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미국비행사들의 절대 다수는 이번 전쟁과 제2차 세계 대전을 마치 낮과 밤처럼 구별이 확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절실한 필요에 한하여서만 행동하고 있다.

나는 전에 비행사들이 의식적으로 자기 목표를 향하여 공격을 가하지 않는 일이 많다는 말을 들었으며 나 자신 그렇게 한 일이 많다. 미국 비행사들은 1백회만 출격하면 귀국할 수 있게 되여있기 때문에 어쨌든 출격 수효만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공군에 입대하였는가를 의심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 점도 극히 간단하다. 이것은 나의 경우를 례로 들어 보아 명확한 것이다.

1946년 5월까지 나는 해군에 복무하고 있다가 제대되였는데 제대 후에 만족할 만한 직업을 얻지못하고 더구나 학력과 재주가 없는 나로서는 발전할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공군에 입대하고 말았다. 이렇게 직업이 없어서 입대한 자들이 전투에 있어서 열성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인 것이다.

미국 비행사들의 마음은 현재 전쟁에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바삐 1백회의 출격을 끝마치고 돌아가는 데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러한 감정이 이전쟁을 부정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난 감정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테르 쟝이 질문한데 대하여 니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이 전쟁을 부정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감행하고 있는 전쟁 방법이 부정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팜탄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주택 지대만을 폭격한다든가 하는 점으로 보아서도 그러하다. 조선 주택들이 군사 목표가 아니라는 것은 뻔한 일이다.

누구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개성 정전 담판은 또 하나의 엄중한 문제인 것이다.

만일 미국 정부가 진실로 정전 담판을 성공시키려 한다면 어째서 정전 담판을 중단하고 있는가? 무엇때문에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무엇때문에 량편 인민들을 계속하여 죽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와 같은 불필요한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가? 더구나 무엇때문에 세균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들은 미국의 정책이 조선을 공산주의로부터 구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떠들고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조선 인민을 구출한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대량 살륙이든가 파시스트적인 박해 방법을 그들에게 적용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이러한 감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나 감히 입밖에 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이 직접 전투에도 영향을 끼칠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당신이 세균 무기 사용에 관하여 증언을 한 이래 이 증언을 한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당신의 가족에게 대하여 어떠한 박해가 가해지리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니스는 아래와 같이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나도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나도 충분히 고려한 나머지에 대답한 것이다.

나는 나의 인간으로서의 성실감을 가지고 증언하였다. 만일 미국 당국이 나의 처나 부모나, 또는 나의 친척들에게 어떠한 형태로써 박해를 가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들이 세균 무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나는 미국 인민들을 신뢰하고 있다. 즉 나와 같은 보통 미국인들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들은 나의 가족이나 나의 처에 대한 어떠한 박해도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미국 인민들은 나를 전적으로 지지하여 줄 것을 확신한다.』

끝으로 무슨 할 말이 없느냐는 니드햄 죠세프 (영국) 의 질문에 대하여 니스는 조사단의 사업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하면서 확고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대표 제씨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왜냐 하면 나는 지금까지 이 사실을 주로 미국 인민들에게, 또는 전세계의 인민들에게 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세균 무기 사용의 만행은 보통 미국 인민들이나 기타 나라 인민들의 생활에 관하여는 전연 고려도하고 있지 않는 극 소수 미국 사람들이 미국인의 이름으로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파시즘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싸웠으며 이 전쟁에서 형제한 사람을 잃었다.

나는 새 세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세균전은 세계 제패를 꿈꾸고 있는 자들에 의하여 감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장차 새 세계 대전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새 세계 전쟁은 재발되기 전에 방지되여야 한다.

나는 이곳에 온 조사단원들이 전쟁을 방지하는 데 크게 공헌할 줄로 믿는 바이며 내가 진술한 짧은 증언과 내가 제공한 얼마 안되는 증거로써 미국인의 이름으로 내가 감행한 범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 주리라고 확신한다.

나는 나의 아내와 나의 어린것들이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라나기를 희망한다.

나는 나의 아들들이 또 다시 앞으로 전쟁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5) 부 록

38연선 무장충돌 조사결과에 관한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위원회 보 고 서

38연선 군사충돌사건을 조사할 목적으로 구성된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위원회는 38연선에서의 현지목격과 피해인민들과의 문답과 현지실증 및 기타 재료들을 심중히 조사연구한 결과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남조선 괴뢰정부는 38연선 무장충돌사건을 계획적으로 도발하며 북조선 지역에로 자기군대와 경찰대들의 침입을 조직하여 평화적인민들을 학살하며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며 그들을 38이남으로 랍치하여 가며 그들을 략탈하며 촌락들을 파괴하는 등 만행을 감행하면서 38연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인민들의 정상적 생활을 파란시키고 있다.

이리함으로써 리승만 도배들은 마치 북방으로 부터 위협이 닥쳐온다는 허위선전을 전파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대중에게 부담되는 거액의 군비지출과 인민을 진압하며침략적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리승만 반인민적 반동제도에 필요한 수10만의 군대를 준비하는 것을 변명하기 위하여 우리조국에 불안하고 긴장한 정세를 조성하려고 노력한다.

리승만도배들과 미제국주의자들에게는 남조선을 예속시키며 미국의 식민지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남조선에서의 미국의 군사 정치 경제적 대책들을 용이히 실현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환경이 역시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남조선 괴뢰정부는 미 식민지략탈자들과 그들의 남조선 주구들이 남조선을 통치한 결과에 남조선 인민들이 처하고있는 비참한 처지로부터 남조선 인민대중의 주의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며 전체우리 조선인민이 요구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운동을 방해하며 민주 단체들과 전체 민주 인사들을 반대하는 류혈적 경찰탄압제도와 테로제도를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군사적 소란을 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38연선에서 남조선괴뢰정부 군대들과 경찰대들이 감행하고있는 충돌과 폭행은 우리 조선에 국내전쟁을 도발시키려는 목적을 가진것이다. 이에있어서 리승만도배들은 북미합중국의 원조하에서 군사적 모험방법으로 전조선에 자기의 정권을 수립하려고 기도하고있다. 리승만도배들은 조선인민의 의사를 롱락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전조선 지역을 통하여 민주주의적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예견한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제의는 리승만 도배들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 그것은 리승만 도배들이 외국의 간섭이 없이 실시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가 그들에게 패배를 가져올것이며 그들의 정권을 박탈하게 될것을 잘 알고 있는 때문이다.

리승만도배들은 군사적모험방법을 채택하고있다. 그들은 군사적방법 즉 북조선을 침범하는 방법으로 조선통일을 실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성명하고있다. 실례로 1949년 1월 21일에 기자단과의 담화에서 리승만은 진술하기를 그는 자기 『정부』 군대가 북으로 전진하도록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1949년 2월 7일에는 리승만의 남조선 소위 『국회』 에서 연설하기를 만일 그가 『유•엔조선위원단』의 방조하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북조선을 병합시키지 못한다면 그의 군대가 『반드시 북조선으로 진군하여야 된다』 고 하였다.

남조선 리승만괴뢰군 전참모총장 채병덕은 신년사에서 남조선괴뢰정부군대의과업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신년도에 실지적 행동으로 미회복지를 회복하여 조국강토를 통일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1948년 12월 31일 합동통신) 리승만 괴뢰정부의 소위 국방장관 신성모는 1949년 7월 17일 대한청년단 인천 부단훈련시범대회에 참석하여 북조선진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국군은 대통령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으며 어느때라도 명령만 있으면 이북의 평양 원산까지라도 1일내에 완전 점령할 자신과 실력이 있다.』

(1949년 7월 18일 합동통신)

이상에 렬거한 남조선 괴뢰정부 두목들의 성명은 리승만도배들이 한줌도 못되는 조국반역자들과 미제의 주구들의 정권인 자기들의 정권을 전체 조선인민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우리조국에 동족상쟁을 도발하려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여준다. 이목적을 위하여 리승만도배들은 38연선에서 무장적충돌사건을 도발하고있으며 38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인민들을 학살하는 괒쇼강도배들을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로 파견하고 있다.

조국통일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반인민적 태도를 취하고있는 리승만도배들의 배후에는 조선내정에 파렴치하게 로골적으로 계속 간섭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서있다. 북미합중국 정부는 남조선 괴뢰정부의 군대를 준비시키며 무장시키고 있다. 그것은 북미합중국정부가 조선을 미제국주의 자들에게 예속시키는 흉책에서 남조선 괴뢰정부 군대를 대포밥으로 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까닭이다.

북미합중국정부는 리승만 제도에주는 군사적원조와 기타원조로서 수천만딸라를 허비하고있다. 북미합중국 정부는 이러한 원조가 이 반인민적 제도를 확고히 하며 미국사람들로 하여금 남조선에서 주인노릇을 할수 있게 하며 남조선을 략탈하며 조선인민을 모욕할 수 있게 하리라고 믿고있다.

미국인군사고문들은 리승만괴뢰군대가 도발하는 38선 충돌사건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9월 16일에 의거입북한 전 남조선괴뢰정부군 제1사단 제11련대 제2대대 제6중대 본부 소속 배용식의 진술에서 알려진바와 같이 38선에서 제11련대의 전투를 련대고문으로있는 1명의 미군대위와 3명의 미군중위가 지휘하였다.

『주한 미국대사』 무쵸와 미 군사고문단 단장 로버쓰등은 북조선지역을 진공하는 남조선 괴뢰군대를 빈번히 직접 시찰하였다.

이미 짐작한바와 같이 『유•엔 조선위원단』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과 리승만 괴뢰정부의 반인민적 정책을 엄호하기 위하여 리용되였으며 부분적으로는 동족상쟁의 내란을 도발하는 리승만 괴뢰정부의 매국적 행위에 리용되였다.

미국사람들은 세번이나 위원단 위원들의 38연선 시찰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위원단은 충돌사건 도발자들을 폭로하지 않기만 한것이 아니라 사실 정체를 연구하려고도 하지않았다.

위원단은 충돌이 불피코 일어나리라는 허위 성명으로만 국한하고 리승만정부에 군사적 원조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지었다.

자기의 미국상전들의 지지를 받는 리승만정부는 의기양양하여 되는대로 행동하게되였으며 그군대와 경찰들의 38선 충돌도발은 우리조선에서 평화를 파탄시키며 조선인민의 거대한 희생을 발생시키는 계속 그치지않는 현상으로 되였다.

남조선 괴뢰정부 도배들은 북조선 38경비초소와 촌락들을 불의에 습격하여 평화적 주민들을 략탈학살하며 촌락들을파괴하며 주민들을 남조선으로 랍치하여 가고있다. 이러한 침입사건은 『유•엔조선위원단』이 서울에들어온 이후에 일층 심하여졌다. 1949년 1월부터 1949년 9월까지의 기간에 황해도 벽성 연백 지역으로부터 강원도 양양지역에 이르는 38연선이북 전지역에 대한 침입회수는 432회에 달하였으며 침입한 리승만 괴뢰정부의 군대와 경찰대의 총인원수는 4만9천여명에 달한다. 이 기간동안에 북조선의 13개군 45개면 136개리가 10여차이상씩의 무장습격을 당하였다. 이외에도 71회의 비행기 침습과 41회의 함대습격을 당하였다.

이습격사건들 중에서 몇가지의 사실들을 다음에 렬거한다.

11월 20일에 남조선 괴뢰정부 군대 약 100여명은 춘천시로부터 38연선 강원도 양구군서면 추전리에 도착하여 경찰들과 합하여 1월 20일 21시 10분부터 22시까지 38이남 662.6고지로부터 38이북지역에 향하여 중기 경기 카—빙총으로 사격하였다.

21일 6시40분에 사격을 계속하여 얼마간 정지하였다가 다시시작하여 22일 1시30분까지 계속하였다.

이 기간동안에 북조선지역으로 2,200발 이상을 사격하였다.

1월 22일에 사격을 중지한 즉시 이군대의 부대들은 북조선 지역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공화국 경비대에 의하여 격퇴되였다.

1월 22일 4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 상술한 남조선 괴뢰정부군대는 북조선지역을 향하여 1,500여발을 발사하였으며 16시 50분에는 38이북양구군 서면 대곡리일대에 인화탄을 발사하였다. 이 결과에 산화가 일어나고 그화진으로 리 인민 위원회와

현물세 창고가 소실되였다.

25일에 남조선 괴뢰정부 군대의 이 부대는300명을 증원하여 38이북 지역으로 30메-터까지 침입하였으나 공화국 경비대에 의하여 격퇴되였다.

2. 2월 2일에는 남조선 괴뢰 정부군 해안경비장이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해안에 침입하여 박격포 기관총등으로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를 폭격하였다.

3. 2월 2일 18시30분에 공화국경비대는 38이북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에 침입한 남조선경찰대를 퇴각케 하였던바 그뒤를이어 강원도 강릉군에 주둔하였던 남조선괴뢰정부군 제10련대와 강릉과 주문진 경찰서의 경찰대 합1,300여명을 동원하여 38이남 명지리 대치리 잔교리에 배치하여 2월 3일 2시부터 중기관총과 경기관총의 엄호하에서 이북지역을 침공하기 시작하였다.

2월 3일 2시 상술한 제10련대의 2개분대는 38이북 25메터까지 침입하였다. 그러나 공화국 경비대에 의하여 격퇴되였다.

동일 2시 30분에 남조선 괴뢰정부군대는 또다시 박격포로 발사하기 시작하였으며 7시30분에는 약300여명의 남조선 괴뢰정부군이 38이북지역에 있는 고산봉을 진공하기 시작하여 15시 30분에 그를 점령하였다. 2월 4일 공화국경비대는 고산봉에서 전투로써 적들을 격퇴하였다.

4. 2월 19일 6시에 38이남 황해도벽성군 가천면 하란천리에 있던 경찰대 150여명이 38이북지역을 향하여 사격하였다.

13시 30분에 그들은 기병대의 원호하에서 공화국 경비대를 후퇴시키고 38이북 고촌에 침입하였다. 경찰대들은 고촌에서 38호의 농가를 소각하고 12호의 농가에 화재를 입히였다.

2월 20일에 공화국 경비대는 적들을 38이남으로 격퇴시켰다.

5. 5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에 걸쳐 남조선 괴뢰정부군대와 경찰대 약4,200여명은 38이북 황해도 장풍군령남면송악산 지역을 점령할 목적으로 여러번 침습하였다

5월 4일 5시 30분에 남조선 괴뢰정부군 제11련대의 2개중대350명과 교도대120여명은 포사격의 엄호하에서 송악산을 침습하기 시작하였다.

공화국 경비대는 부득이 퇴각하게 되였다. 남조선군대는 292.1고지를 점령하고 종일토록 북조선지역을 향하여 사격하였다.저녁에 이르러 남조선 군대는 동 고지에서 격퇴되였다.

5월 5일에 남조선군 2,600여명은 38이남 비둘기 고개와 신간지서 지역으로 부터 이북을 향하여 다시돌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돌격은 공화국 경비대에 의하여 역시 격퇴되였다. 5월 6일 남조선 괴뢰정부군 3,300여명은 포사격의 엄호하에서 송악산 북부를 아무 성과도 없이 공격하였다.

5월 7일에 남조선 괴뢰정부는 4,200여명은 송악산 북부를 정면으로 돌격하면서 빙고동 방면으로 부터 측면공격을 동시에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돌격도 역시 격퇴되였다.

6. 5월 17일 6시에 38이남 황해도 백천에 주둔하였던 제11련대 제2대대 제7중대

는 38이북황해도 연백군 운산면 비봉산 공화국 경비대의 감시초를 점령할 목적으로 박격포 사격의 엄호하에서 불의의 침습을 시작하였다.

감시초소에있던 공화국 경비분대는 전투결과 림시 퇴각하였다가 다시 반공격을 개시하여 13시 30분에 비봉산을 탈환하였다.

5월18일 5시 30분에 응원병을 받은 상술한 제7중대는 황해도 연백군 운산면 앙천리 일대를 침습하기 시작하였다.

5월 19일 남조선 괴뢰정부군은 양청리 치악산일대에 침입하였으나 즉시 공화국 경비대에 격퇴되였다.

동일 적들은 38이북 운산면 식포리에 포사격을 감행하였다. 이 포사격의 결과에 8호의 농가가 소각되였으며 9명의 농민이 부상되고 1명의 유아가 사살되였다.

5월 20일 10시에 적들은 포사격의 엄호하에서 비봉산일대를 다시 침습하였으나 역시 격퇴되였다.

7. 남조선 괴뢰정부 군사령부는 북조선 황해도 벽성군 가천면일대에 전략상고지를 점령하며 가천면과 교정면간의 련락을 끊을목적으로 제1사단 제12련대와 제13련대의 제2대대와 수색대대를 집중시켰다.

5월 20일에 적군 약80 여명은 황해도 가천면 삼괴리에 침입하여 공화국 경비대의 감시초를 향하여 경기관총과 보총으로 800여발을 발사하였다.

이지역에 침습한 적군을 격퇴시키자 38이남 벽성군가천면 장현리 유성동 염불장 청룡동 일대에 주둔하였던 남조선 괴뢰정부군은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38이북지역을 향하여 20,000여발의 박격포 중경기관총 보총사격을 감행하였다. 이들은 5월 27일에 38이북을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전투의 결과에 격퇴되였다.

6월 5일에는 박격포와 중 경기관총 기타 무기들로 무장한 적군 약 1개대대가 황해도 벽성군 월록면 안형리와 룡정리에 침입하였다.

6월 7일새벽에 남조선괴뢰정부군 제1사단 훈련대대와 제12련대의 제1대대 제2대대 제3대대 등 약4개대대가 황해도 38이남 옹진방면으로부터 38이북지역에 불의에 침범하여 112고지와 129고지를 점령하고 황해도 벽성군 가천면 화총동과 대거면 오천리 봉산동에 침입하였다.

5월 29일 6시 15분에 적군비행기 3대가 38이북 상공에 침입하여 황해도 벽성군 가천면 화천동지역에 폭탄을 던졌다.

8. 7월초에 적군 제8사단 제10련대 제1대대 제2대대 제3대대와 소위 계림특무부대는 38이북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고산봉을 점령하고 양양군을 공격할 명령을받았다.

7월 3일 17시에 제10련대 제1대대는 포사격의 엄호하에서 38이남 서림리로부터 양양군서면 영덕리 공수전리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며 7월 6일 5시에는 고산봉을 정면 공격을 시작하였다.

7월 6일에 공화국 경비대는 반 공격전을 개시하여 영덕리 공수전리에 침입한 적군를 격퇴시켰으며 고산봉으로 침입하던 적군을 또한 격퇴시켰다.

9. 남조선 괴뢰정부군 제18련대의 제2대대와 제3대대는 7월 19일에 38이북 황해도 벽성군 대거면 상직동 일대에 침입하여 유리한 진지를 점령할목적으로 121.7고지를 불의에 습격하고 이 고지에 있는 촌락을 점령하였다.

루차의 전투가 있은후 공화국 경비대는 8월 4일에 적군을 그들이 탈취한 진지로부터 구축하였다.

10. 7월 22일 23일에 남조선 괴뢰정부군 사령부는 제11련대의 제1, 제2, 제3 대대와 제17련대의 1개 대대와 포병대대를 만수산미륵당 송악산 475고지와 155.6고지에 집중시켰다.

7월 24일 23시에 제11련대장은 각 대대장에게 38이북 송악산 488.2고지와 령남면삼거리 및 령남면 일대를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하였다.

공격은 25일 3시 25분에 시작하였다, 6시 20분에 적군은 488.2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공화국 경비대의 반공격에 의하여 적들은 거대한 손실을 당하고 격퇴되였는바 이 전투는 련 3일간 계속되였다.

11. 8월 18일 8시에 남조선 괴뢰정부 해군함정 6척이 38이북 몽금포에 침입하여 몽금포 시가지를 사격한 후 공화국경비선 1척을 랍치하여 갔다.

12. 9월 5일 2시에 황해도 백령도에 정박하여있던 남조선괴뢰정부군 경비선 2척은 38이북 월내도에 침입하여 인민학교 교장과 교원1명과 그의 가족3명과 자위대장 부인과 민청위원장과 녀맹위원장과 주민3명 합11명을 이남으로 랍치하여 갔으며 6두의 축우와 4척의 어선과 기타 가장 지물들을 략탈하여 갔다.

13. 9월 12일에 남조선 괴뢰정부군은 38이북 해주시 근방에 있는 룡당포 세멘트공장에 박격포 사격을 가하여 공장로동자 2명을 부상시키였다.

사격은 15시로부터 16시 10분까지 계속되였다.

14. 9월 27일 21시 30분에 적군 1개부대는 38이북 황해도 벽성군 교정면 중선포에 상륙하여 1명의 주민을 사살하고 8명의 주민과 그들의 재산을 랍치 략탈하여 갔다.

38이북 지역에 대한 이러한 략탈적 침공은 본 조사위원회가 38연선 지대에서 현지 조사사업을 진행하는 시기에도 있었다.

실례로 조사위원들이 강원도 린제군 남면 대흥리를 조사하는 동안에 남조선괴뢰정부군 총합 3,000여명이 1949년 8월 6일부터 근 1주일동안에 걸쳐 이 지대를 종종 습격하는 것을 목도하였다.

리승만 괴뢰정부는 자기 군대와 경찰대들이 감행하는 충돌도발사건과 침습에만 국한하는 것이아니라 북조선 민주건설을 파괴하고 민심을교란시킬목적으로 특수부대라는 명목하에서 특별훈련을 받은 파괴단과 탐정들과 테로단들을 조직하여 이북지역으로 파견하고 있다. 이러한 파괴테로단들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대하여 테로를 감행하는 팟쇼단체인 대한청년단 민보단 서북청년단등 극악한 반동단체회원들로 모집되였다. 이 팟쇼단체의 기간은 지주들과 리승만 괴뢰자들의 관리들과 이전 친일경찰들과 친일장교 및 그들의 자식들로 구성되였다.

이 특무부대들은 중요한 산업기업소들과 철도들을 파괴하며 인민정권 기관들과 정당사회단체 지도자들을 암살하며 테로를 감행하며 음료수들에 독약을 뿌리는등 방법으로써 민심을 교란케하며 인민군대와 북조선 경제에 대한 비밀재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북지역에 파견되였다.

이 특무 부대들은 강원도 양양군 린제군 화천군 일대와 황해도 일대에 침입하였다.

실례로 1949년 7월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경비대는 강원도 양양군에 침입하여 『호림부대』 제5대대 제6대대라는 명칭하에서 활동한 150여명으로 구성된 2개의 파괴 테로단을 발견하여 박멸하였다.

이 『호림부대』의 기간은 남조선 괴뢰정부군대 특무대원들을 양성하는 경기도 수원 수색학교에서 상당한 시일의 훈련을 받았다.

『호림부대』 제5대대장 백의곤의 일기에는 상기 수색학교에서 받은 지시문이 기록되여 있었다.

『…정치대에서는 무기 탄환 식량 피복 기타 필수품 확보에 주력할것……』

『일면 파괴 타면 습격 타부에 방화 혼란기를 리용 습격…하는등 제반수단을 다할것……』『처단은 일체 자비심을 내포시키지 말고 랭정한 태도로 일관시킬것……』

『될수있는한 이북군관의 행동을 가장하며 민중으로 하여금 반공사상을 격화시킬것』 『호림부대』의 강도들은 양양군과 린제군에서 38명의 주민을 포악하게 학살하였다.

『호림부대』의 파괴적 행동의 결과로 인민경제에 140여만원의 손해를 주었다.

9월 11일 평양에서 진행된 이 강도들에 대한 공개재판 행정은 이 강도배들이 리승만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조직되였으며 활동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북지역에대한 남조선 괴뢰정부의 군대와 경찰대들의 강도적 진공은 략탈과 건물들의 파괴와 폭행과 이북지역 인민들에대한 랍치와 대중적 학살들과 병행되였다.

1949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이르는 기간에 남조선 괴뢰정부군대와 경찰대들의 만행에 의하여 북조선지역에서 살해된 인민수효는 121명이며 부상당한자는 87명이며 랍치당한자는 1,340명이다.

이 기간동안에 방화로 말미암아 503호의 민가가 소각되였으며 포사격의 결과에 56호가 파괴되였다.

침습을 당한 촌락들에서는 많은 수의 가축들과 식료품과 의복들과 가산도구를 략탈당하였다.

축우만하여도 303두를 략탈당하였으며 돼지 기타의 가축들을 2,518두나 략탈당하였다.

남조선 괴뢰정부의 군대들과 경찰대들이 이북인민들에게 대하여 감행한 폭행 학살 랍치 략탈들과 촌락들의 방화와 파괴에 관한 실례들은 다음과 같다.

1. 이북 주민들에게 대한 폭행과 학살

6월 7일 밤중에 련천군 전곡면 고능리에 침입한 남조선 괴뢰정부군은 민청책임자

림규현의 집을 습격하고 만삭된 그부인 리금자의 목을 구두발길로 밟아 움작도 못하게 하여놓고 림규현을 끌어내여 전신을 총장으로 란자하여놓고 그아우 림규호를 랍치하여 갔다.

(증 제 127호 사진 130) 양구군 남면 명곡리 부락에서는 7월 4일 적군 4명이 침입하여 그동리 농맹위원장 박상기 (32세) 를 붙들어놓고 20여발의 집중사격으로 그를 즉사케 하였다. (증제 68호)

6월 30일 양양군 서면 내현리에 침입한 적군 『계림공작대』 30여명은 8명의 가족이 잠들고 있는 농가에 수류탄을 던져 폭파시켰다. (증제 247호) 강원도 린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에 거주하는 정창화 (38세)의 부인 전윤산 (34세) 은 7월 3일 적군 『호림부대』 에게 식량을 략탈당하고 취사로동을 강요당하였는데 그가 온순치 않다는 것과 자위대 분대장으로 있는 그 남편의 행방을 대여주지 않는다는 리유로 총으로 란사하고 칼로써 전신을 찌르고 그것을 칼로 도려내 죽이였다.

(증제 164호 사진 64) 같은 동리 인민학교선생 리태욱 (22세) 은 7월 3일 소위 『호림부대』에 랍치당하여 린제군 서하면 대곡리에서 7월 5일에 피살되였다. 『호림부대』 는 리태욱의 머리를 총대로 때려부시고 칼로 눈알을 뽑고 얼굴살을 도려내였다.

피살자의부인 최산옥이 남편의 시체를 찾으려 갔으나 안면모형으로는 도저이 분별할수없었고 피묻은 그의 의복으로 겨우 남편의 시체를 구분하여냈다. (증제 157호)

7월 12일 철원군 이동면 노곡리 랑유동에 침입한 적군은 농민 박원식 (37세) 의 집에서 네살먹은 어린아이와 그어머니가 잠들고있는 방문을열고 수류탄을 던져 어린아이를 즉사케하고 그어머니를 중상케하였다. (증제 66호) 강원도 양양군강현면 하복리농민이며 자위대원인 김기수 (28세) 는 7월 6일 아침 강현면 상복리에서 자위대 련락도중에 소위 『호림부대』 에게 살해되였는데 『호림부대』 는 김기수의 배를 갈라 창자를 헤쳐놓고 오른편팔을 찢어놓고 총으로 불을 란사하여 죽였다。 (증제 140호 사진 56)

5월 27일에 황해도 벽성군 교정면 랑암리 최청동에 침입한 100여명의 남조선 괴뢰군은 소총 기관총 박격포등을 란사하고 살인 방화 략탈 파괴구타 랍치등을 감행한후 최청동 농민과 송현리농민들 18명을 구렁텅에 몰아놓고 일제이 사격을 가하여 10여명을 즉사케 하였다. 그중에는 60세되는 할머니와 3세되는 어린이도 있었다. (증제 20호)

연백군 괘궁면 구암리에서는 3월 12일 백주에 4명의 남조선 괴뢰군이 침입하여 변상철농민의 상여를 메고가다가 쉬고있는 농민들에게 란사하여 5명을 사살하고 6명을 중상케하고 망인의 손자 변화식 소년을 돌아서라고 하고는 4발을 쏘아 죽였으며 죽어쓰러진 모든 시체들을 뒤번져보고 차고 때렸다. (증제 33호 사진 34, 37, 42) 3월26일 연백군 운산면 양청리에서는 적군과 경찰대들이 교과서를 가지려가는 인민학교 어린생도 림순복 (15세) 최인순 (16세)에 대하여 카—빙총과 기관총사격을 가하여 림순복을 절명케하였다. (증제 37호 사진 42)

6월 7일 벽성군 가천면 강현리에 침입한 남조선 괴뢰군은 임신한 농민녀성 리기선 (32세) 을 아무 리유도 없이 쏘아죽이였다. (증제 1호 사진 10—17 20—22 28—31)

6월 8일 련천군 미산면 삼화리 농촌에 침입한 남조선괴뢰군은 73세되는 로인과 16세되는 손자를 일시에 총살하였다. (증제 73호)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에 침입한 적군은 오명환농민 (48세) 의 로모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집안에 가두어넣고 불을 질렀다. (증제 228호)

양양군현북면 중광정리에 침입한 남조선 괴뢰정부군은 김종구농민의 집에 불을 질려놓고 뛰여나오는 김종구의 아들 김대천을 쏘아쓰러뜨린 다음 다시 그 머리에 두방의 총을 쏘아 즉사시켰다. (증제 132호 사진 10549—51)

남조선 괴뢰정부군대와 경찰대는 38이남지역으로부터 보총과 박격포로 38이북지역을 계속 사격하였다.

본 조사위원단이 조사위원회의 조사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강원도 린제군 한지대만 하여도 8월 8일 하루에 800여발의 포탄이 떨어졌다.

적들의 사격결과에 38연선이북 촌락의 허다한 남녀주민들이 혹은 전원작업중 혹은 강가에서 세탁중 혹은 물길려가는 도중에 사살되였다.

련천군 창수면 금주동 농민 리용구 (69세) 는 7월 1일 자기의 논에서 물을 대고 있던중 38이남 지역으로부터 오는 총탄으로 가슴에 관통 총상을 받고 논바닥에서 절명하였다. (증제 130호)

린제군 남면 관대리 리숙자 (21세) 는 8월 4일 자기밭에서 밭갈이하다가 적군의 총탄에 맞아 즉사하였으며 (증제 146호) 양양군 손양면부소치리 리영봉 (32세) 농민은 자기 논에서 김을 매다가 경찰대의 총에 맞아 중상당하여 입원하였다가 절명되였다. (증제 137호)

5월 29일에는 벽성군 가천면 38이북 5키로지점에 괴뢰정부군의 비행기가 침입하여 자기밭에서 제초하는 농촌녀성들에게 사격을 가하였다. (증제 13호)

황해도 벽성군 대거면 태평리농민 리근영 (36세) 은 7월 1일 태평리 앞들에서 작업중 적군의 박격포탄에 맞아 즉사하였다. (증제 23호 사진 23)

남조선 괴뢰정부군과 경찰대들의 이러한 계속적인 사격과 침습의 결과로 38접경이북지대들에는 파종도 이앙도 못하고 전연 페농된 전답의 면적이 적지않으며 파종만하여놓고 제초도 중경도 못한 면적과 성숙한 대맥 소맥 감자등 농작물을 밭에 버려둔채로 수확못한 면적도 또한 적지않다.

양구군 서면 38선접경만 하여도 전연 페경된 면적이 50여정보이며 련천군 38접경만 하여도 적군의 침습에 의하여 수확 불능한것이 256정보이다.

2. 이북주민들을 남조선으로 랍치

리승만 괴뢰정부의 군대와 경찰대들은 38접경 이북농촌에 침입하여 무고한 농민들과 부녀자들과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강제적으로 랍치하여가고 있다.

1949년 1월부터 9월까지 랍치당한 총 인원수는 1,340명인바 그중에서 945명이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돌아온 주민들의 다수는 죽음을 무릅쓰고 포로에서 도망하여 돌아온 사람들이다. 어떤 주민들은 아이들이나 부인들을 인지로 빼앗기고 돌아왔다.

포로에서 돌아온 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괴뢰정부 군대들이 랍치하여간 농민들은 남조선 경찰서들에서 야수적 고문과 모욕을 당하고 있다.

야수적 고문으로 강요되는 심문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 동리의 간부일군들의 성명경비대배치 정형 자위대원의 구성원들을 비롯하여『어떻게 통일된다더냐?』『이남의 정치가 좋으냐? 이북의 정치가 좋으냐?』등이였다.

만일 고문을 당하는 주민들이 고문을 이기지 못하여 그들의 요구하는 재료를 제공하기로 약속한다면 그들에게 탐정의 임무를 주어서 북조선으로 파견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무성당국은 일부 주민들이 특별한 탐정의 임무를 맡고 포로에서 석방되였다는 사실들을 알게되였다.

리승만 괴뢰정부군 사령부는 38이북지역에서 민심을 소란케 하며 이북지역에 자기의 탐정들을 잠복시킬 목적으로 평화적 인민들에게 대한 강도적 랍치방법을 점점 더 광범히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몇가지 실례를 렬거하면 다음과 같다.

6월 18일 자기의 밭에서 보리를 거두다가 남조선 괴뢰정부군에게 랍치되였던 련천군 미산면 삼화리 농민 손종혼에 대하여 이남접경지서와 문산경찰서에서는『너에게서 조국통일선언서 한장만 나왔어도 10년징역이다』라고 하면서 무수한 매를 치고 구두발로 무릎을 짓밟고 수차에 결쳐 전기고문을 하였다. (증제 126호) 7월 16일 빨래하다가 적군 5명에게 랍치당한 련천군 창수면금주동 김옥수 (35세) 조호남 (32세) 은 이남경찰지서에서 자기동리의 간부들의 이름과 경비대정형에 대하여 문초를 받았고『통일은 어떻게 한다더냐?』하는 질문에 대하여『평화적으로 한다드라』고 대답하였기때문에 실신지경에 이르도록 란타당하였다. (증제 130호)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음진동 농민 김정택 (33세) 을 랍치한 남조선 괴뢰군들은 4일간에 5회에 결쳐 그를 란타하고 쇠줄로 아래다리를 매여놓고 장대를 다리사이에 넣고 좌우로 짓밟는등 고문을 거듭하였다 (증제 60호)

7월 27일에 적군『화랑공작대』8명은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부락에 침입하여 카―빙총으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박춘서 (53세) 농민을 포박하고 박춘서 가족4명과 서봉군과 그의딸 서인순 김종필 이외 여러 농민들을 랍치하여 38이남 용수목 분주소 정목지서 춘천서등으로 끌고 다니면서 고문을 거듭하다가 다시 용수목 38선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김춘섭 박완복 박춘서등 세농민을 총으로 얼굴을 때려부시고 날창으로 가슴을 찔러 죽였다. (증제 118호 사진 121)

1월 8일 린제군 린제면 귀둔리에 침입한 괴뢰정부군과 경찰대 9명은 김영추 농민의 집을 습격하여 그동리청년 리종한을 사살하고 룡철종 (21세) 리병호 (40세) 외 5명을 랍치하여갔다. 룡철종과 리병호는 춘천서까지 끌려갔었는데 놈들은 룡철종을 죽여 그 시체를 태워서 그 재를 리병호에게 주면서『너희들 빨갱이의 운명은 모두 이

와같이 될 것을 동리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였다 (증제 147호)

6월 20일밤 황해도 연백군 화성면 산전리에 침입한 남조선괴뢰군은 곤하게 잠들고 있는 김기손(41세) 농민의 집을 습격하고 김기손과 그의 자부 신금순(20세)을 발가벗겨서 38이남으로 랍치하여다가 갖은 고문을 다한 후 6월 30일 38선접경까지 끌고와서 총살하였다. (증제 34호)

양구군 서면 대곡리 명오지에 침입한 경찰대는 젖먹이 어린아이를 업은 세 부인을 랍치하여다가 이남 경찰지서에서 심문을 거듭한 후 그날밤 『서울서왔다는 제일 높은자』(랍치당하였던 부인의 말)는 세부인을 지서한방에 몰아넣고 총을 재워놓고서 두녀자를 강간하였다. (증제 71호)

5월27일황해도벽성군 교정면 송현리에 침입한 남조선괴뢰군은 방화 파괴 략탈을 자행한후 131명의 농민 남녀로유를 랍치하여 략탈한 식량과 의류와 가구를 38이남으로 운반시켰다. (증제 7호)

5월7일 철원군 이동면 노곡리에서는 리내의 전체 농가58호의 주민 312명을 동일한 방법으로 모조리 랍치하여갔다. (증제 76호)

7월28일 련천군 청산면 정동에 침입한 남조선괴뢰군은 그 부락농민 80명중 72명을 랍치하였고 동군 미산면 삼화리에서는 198명을 일제이 랍치하여갔다.

(증제 126호 73호) 이외에도 남조선 괴뢰군들은 련천군 전곡면 사기점 (증제 127호)

청산면 대선리 아장동 (증제 128호)

철원군 영중면 양문리 능내동 (증제 129호)

화천군 강동면 간척리 영웅동등에서도 집단적으로 전 부락농민들을 자기들이 략탈한 식량 의류 가재도구를 지워서 랍치하여간 사실이 있다. (증제 75호)

3. 북조선 촌락들에 대한 방화 파괴

2월 15일 양양군 서면 추천리에 침입한 남조선 괴뢰정부군대는 리인민위원회와 쌓놓은가마니 6,175매를 전소시킨후 이부락에 침입하여 닥치는대로 농민들의 가옥을 전소시켰으며 추곡리 2구에 침입한 자들은 농가의 집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방화하였다. (증제 102호)

2월 19일 황해도 벽성군 교정면 남천리에 침입한 남조선 괴뢰정부 경찰대들은 전부락을 략탈한다음 필립에 불을 다려가지고 다니면서 전농가를 전소시켰다. (증제 8호)

3월 23일 화천군 사북면 고성리에 침입한 남조선군대와 테로단들은 전 부락 23호중 21호에 방화하였고 나머지2호는 재목을 사용하기 위하여 헐어갔다.(증제 117호)

5월 27일 벽성군 교정면 송현리에 침입한 남조선 괴뢰정부 군대와 경찰대는 전농가 93호중 86호를 전소시켰으며 나머지 집들은 연기에 싸여 이 강도배들이 발견하지 못한 까닭에 소각되지 않았다.

동일 벽성군 가천면 정형리 2구에서는 41호중 40호를 전소시켰다. (증제 7호)

5월 6일과 7일에 적군 약 600명은 철원군 영중면 영평리 천변동 량문리 일대에 침

입하여 소총 경기 중기 및 박격포사격을 가하여 방화와 파괴를 자행하였다. (증제 98호)

7월 6일 새벽에 양구군 현북면 중광정리와 하광정리에 침입한 250여명의 남조선 괴뢰정부군대는 박격포로 부락을 포격하고 하광정리의 현물세 창고를 파괴하였다. (증제 179호)

6월 30일 밤 11시에 괴뢰군 20여명이 양양군 서면수리 민주선전실을 습격하여 총을 란사하여 강습중의 농민 3명을 사살하고 수류탄을 던져 파괴하였다. (증133호 제135호 사진 54,59) 련천군 전곡면 고능리 (증제 127호 사진 130) 철원군 이동면 연곡리(증제 121호) 화천군 사 북면 가일리 (증제 114호) 등도처에서 남조선괴뢰군대는 민주선전실을 방화전소하였다.

7월 2일 남조선괴뢰군대는 양구군 서면추곡리 2구인민학교분교에 대하여 14발의 박격포를 발사하여 파괴하였고 7월 3일밤 양양군 현북면에 침입한 40여명의 적군은 해방후 농민들의 힘으로 건설된 도리인민학교를 파괴하였다. (증제 122호) 양양군 서면 영덕리 인민학교를 비롯하여 (증제 263호 사진 106 108 114) 린제군 린제면진동리 (증제 150호) 린제군 북면 용대리 (증제157호) 양구군 남면수덕리 (증제 124호) 등 도처에서 학교를 파괴하였다.

남조선 경찰대들은 5월중에 철원군 영중면 영명리에 침입하여 량차에 걸쳐 농사보 (洑) 를 파괴하여 이앙을 방해하였다. (증제 93호 94호)

남조선 괴뢰군대와 경찰대들은 이북산림 특히 38연선 산림들을 빈번히 방화하였다.

이들은 1월 9일부터 강원도 련천군 청산면 배기리뒷산에 전후 7차에걸쳐 방화하여 온 산을 전소시켰다. 남조선괴뢰군대는 타오르는 화염뒤에 숨어서 불고며 출동한 청산면민들에게 대하여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증제 128호)

남조선 괴뢰군대는 강원도 화천군 사북면 원명지의 산림과 동면 고정리 용화산을 4월 12일부터 4월말에 이르는 동안 전후 4차에 걸쳐 방화하여 온 산을 전소하였다. (증제 114호)

이러한 방화결과에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280여정보 황해도 벽성군에서는 300여정보의 산림이 손실되였다.

4. 북조선 주민들에 대한 략탈 이북 지역에 대한 남조선 괴뢰군대와 경찰대들의 강도적 침입은 보통 평화적 주민들을 략탈하는 일과 병행되였다.

본 조사 위원회는 이러한 략탈들에 대한 몇가지 실례들로만 국한하려고 한다.

5월 7일 철원군 이동면 연곡리에 침입한 300여명의 남조선 괴뢰 군대는 학살과 방화와 랍치를 함부로 하는 한편 이미 준비하였던 『트럭』 1대와 마차 10대 수십명의 테로단으로써 전 동리 농민들의 식량 의복 기타 전재 가재도구들을 실어간 사실이 있다.

남조선 괴뢰 군대는 집집마다 수색하여 벼 298가마니 백미 좁쌀 콩 팥 수수 모밀 746두의 식량과 바지 171점 저고리 248점 치마 22점 두루마기 56점 적삼 122점

붕의 의류와 사기그릇 354점 기타 가구를 략탈하여 갔다. (증제 121호)

5월 27일 38이남 가천 지서와 『국민학교』에 전투 참모부를 둔 남조선 괴뢰 군대 제 12련대와 경찰대는 기마병과 『민보단』 30여명을 벽성군 가천면 한현리 삼괴리 장현리에 침입시켜 식량 의류 대량의 가구 등을 략탈하여 38 이남으로 실어 갔으며 동일 벽성군 교정면 송현리에 침입한 100여명의 남조선 괴뢰 군대와 테로단『대동 청년단』은 전체 농가들에 방화한 후 식량 가구 농기구 축우등을 모조리 략탈하여 가지고 랍치한 농민 131명에 지워서 이를 운반하여 갔고 6월 7일에 또 다시 삼괴리에 침입하여 전농가 78호중 70호에서 모조리 쌀을 략탈하여 갔다. (증제 7호) 7월 30일 양양군 서면 영덕리에 침입한 적군들은 가구를 하나도 남김 없이 략탈하여 갔다.

5월 7일 철원군 이동인 장암리 유진명 농민의 집에 침입한 남조선 괴뢰 군대는 유진명의 늙은 어머니를 발길로 차 던지고 집을 포위 사격한 후 방에 들어가서 농짝을 파괴하고 은가락지 은비녀등 귀중품과 돈을 강탈하여 간 사실이 있다. (증제 89호)

7월 30일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는 길가는 박상옥이 신고 있는 운동화를 강탈하여 갔다. (증제 183호) 철원군 영중면 능대동에서는 11정보 이상의 보리와 밀을 베여 갔고 600여접의 마눌을 캐어 갔다. (증제 77호)

7월 5일 린제군 서화면 서화리 큰골에 침입한 『호림부대』는 전 농민을 리만수 농민의 집에 감금하고 전 동리에서 식량을 략탈하고 농민들이 양봉하는 10여통의 꿀을 퍼먹고 나서는 꿀통은 산산히 파괴하여 버렸다. (증제 267호)

5월 7일 철원군 이동면 연곡리에 침입한 남조선 괴뢰군대는 한동리에서 30여두의 축우를 략탈하였으며 (증제 88호)

7월 3일 양양군 서면 영덕리에 침입한 적군은 하루동안 한동리에서 16두의 축우를 강탈하여 갔다. (증제 184 186 187 260 185 261 241 사진 114)

남조선 리승만 괴뢰 정부의 군대들과 경찰대들이 38 이북지역에 감행하는 계속 부절한 침입과 테로와 략탈과 방화로 말미암아 38연선 많은 농민들은 자기의 전토와 주택을 림시로 버리고 후방으로 이주하게 되였다.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3개군만 하여도 집을 버리고 후퇴한 농가가 398호이며 농민 수효는 1,993명에 달한다.

남북조선의 제정당 사회단체들로 결성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 위원회는 남조선 리승만 괴뢰 정부 군대 경찰대 테로단들이 감행한 상술한 온갖 만행적 사실들을 전 사회에 공개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인정하는 동시에 남조선 괴뢰 정부 군대들과 경찰대들이 계속적으로 감행하는 38 이북지역에 대한 강도적 침습과 주민들에게 대한 략탈과 폭행과 야수적 학살에 대하여 무한한 격분과 분노를 표한다.

이러한 야수적 폭행에 대한 전체 책임은 반 인민적 리승만 도배들과 그의 미국 상전들과 추동자들에게 있다.

2. 소위『국방군·호림부대』의 악질도배들에게 인민의 심판

지난 7월 3일 내무성보도로써 이미 알려진바와같이 남조선 리승만괴뢰정부의 소위『국방군』참모총장 채병덕의 직접조직밑에 중요공장 기업소 및 교통선의 파괴와 정권기관 정당사회단체의 중요간부암살 및 방화 살인 산독 민심 교란 군사비밀탐지등의 지령을 받고 이북지역에 잠입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살해하는등 갖은만행을 감행하다가 공화국경비대와 지방인민들의 애국적활동에 의하여 섬멸된 소위『호림부대』제5대대 및 제6대대 150명중 포로된자 44명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으로 전기만행을 감행한 소위『호림부대』제6대대 특무과장인 전월성 특무과원 리한기 동조석풍 제5대대 소속원 고찬선 동 김인환등 5명에대한 최고재판소 형사부의 공개재판은 11일 오전 10시부터 특별법정인 평양모란봉극장에서 재판장 박경호씨 참심원 박정현 허희숙량씨를 성원으로한 재판소와 검사 안병진씨 변호인 한인수 최풍히량씨 립회서기 박규용씨의 참가아래 엄숙하게 개정되였다.

이날 원쑤들의 천인공노할 만행과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방해하며 동족상쟁을 기도하는 리승만괴뢰도당에대하여 극도의 증오를 느끼는 평양시민들 학생 군인등 수천명은 이 공판을 방청하고자 공판정에 운집하여 법정은 초만원을 이루었으며 다수 시민들은 법정밖에까지 차고넘쳤다.

정각 10시에 미국군복을 입은 피소자들은 전월성 리한기 조석풍 고찬선 김인환의 순서로 입정하여 피고석에 착석하였는데 방청석에서는 일제히 이들살인마들에게불길같은 증오의 눈초리를 총집중하고 있었다.

이윽고 재판장 변호인 검사 립회서기가 각각 재판석에 착석하였다.

만장 총기립한가운데 재판장의 엄숙한 개정선언이 있은후 피소자 5명에대한 주소 성명의 구두확인이 있었는데 피소자 전월성 (34) 은 서울시중구 충무로2가 100번지에 거주하는 무직자이고 리한기 (25) 는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197번지에 거주하여 일정한 직업없이 방탕생활을 하던자이며 조석풍 (26) 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75번지에 거주하여『대한로청』에 가담한 테로분자이고 고찬선 (25) 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19번지에 거주하여 테로단인『대한청년단』원이며 김인환 (25) 은 서울시 마포구대흥동 47번지에 거주하면서 서북청년단에서 애국인민들을 학살하던 테로분자이라는것이 확인되였다.

증인으로서는 소환에 의하여 출정한『호림부대』제6대대 소속원으로 예심중에있는 김관수 (25) 동 조동식 (19) 외에 검사의 추가 신청에의하여『호림부대』에 랍치되여 직접 피해를 받은 강원도 린제군 북면농민 김문규 권영택 강원도 린제군 속초면 농민 박성식등 3씨가 출정하게 되였다.

재판은 이상 증인 5명의 서약이 있은다음 피소자들의 재판원 구성에 대한 승인 여부 확인이 있었는바 피소자 전원이 구성된 재판소로부터 재판을 받을것을 승인하였다.

이어 조선최고재판소에서 제출한 기소장을 약30분간에걸쳐 럽회서기가 랑독하였다. 기소장은 소위 『호림부대』의 숨길수없는 죄악적 행위를 여지없이 적발폭로하였다.

이전률할만한 비 인간적 만행들이 늙은 살인마 리승만의 졸도인 소위 『국방군』 참모총장 채병덕이 직접 조직지도하였다는것이 드러날때 방청인들은 손끌만한 용서라도 줄수없다는 민족적 적개심에 불타올랐다.

각개 피소자들은 기소사실에 대하여 그전부를 승인하였다.

이어 피소자들에대한 개별적인 사실심리에 들어갔는데 기소리유와 사실심리를 통한 피소자들의 자백에의하여 소위 『호림부대』의 만행과 개별적 피소자들의 범죄사실은 더욱 똑똑히 만천하에 폭로되였다.

소위 『국방군』 참모총장 채병덕의 죄악적 음모 탄로

기소사실과 범인들의 자백에 의하여 탄로된 「소위 『국방군』 참모총장 채병덕의 죄악적 음모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무장폭동 정권기관 정당사회단체 요인 암살 및 국가시설의 파괴 방화 산독 민심소란 군사기밀 탐지등을 실현하는 한편 마치 공화국인민군대 내부에서 군인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킨듯이 대내 대외적으로 허위선전하기위한 것이였다는것이 판명되였다.」

「채병덕은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직계부하인 소위 『국방군』 륙군 정보국장 소위 백성렵 동 륙군 정보국 제5과장 한왕룡등과 모의(謀議)하고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무장테로 분자인 소위 김현주 백의끈 (공화국경비대에 의하여 섬멸당하였음)을 직위와 물질로 유혹매수하고 이어 놈들의 경찰기관 대한로청 서북청년회 대한청년단 민보단 사조련맹등 악질테로단들을 발동시켜 소위 『국방군』륙군정보국 정브원 또는 군수품 공장등 군속으로 국방군 2등상사급 이상의 대우를 한다는 기만적 수단과 위협으로써 일푼의 민족적 량심조차없는 불량분자 거리에 방황하는 무직업자 90여명을 모집하여 학살과 테로의 특무공작원을 양성하는 경기도 수원수색학교에서 1949년 6월중순까지 10여일간 단기군사훈련을 주는 한편 더욱 인원을 확장하기위하여 계속적으로 무뢰배와 심지어 거지생활을하여 연명하고있는 불구자인 조동식 (증인으로 공판정에 출정) 같은 자들까지 기만과 위협으로 60여명을 더 보충하였던것이다. 이렇게 모집 훈련시킨 150여명에 대하여 이미 1948년부터 일제시 경관 서북청년회 계렬 반동악질 테로배를 규합한 특별공작대인 소위 『호림부대』에 편입시키고 채병덕은 1949년 6월18일 전기 한왕룡을 호림부대 총지휘관으로 겸무케하여 이 잔인 무도한 무장역도들을 공화국북반부에 잠입시키기위하여 이남 강원도횡성에 집결케한후 일본제 99식 장총과 각개인에게 탄환 120발 및 수류탄 3개씩으로 무장시키는한편 인민군대 내부에서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듯이 허위적선전을 할 목적으로 미리부터 위조하여 두었던 공화국 보안대의 복장으로써 그들의 대원들을 가장케하고 그위에 미국식 군용작업복을 착용케하였다.

또한 그들은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으로 38이북 지역에 와서는 『호림부대』의 명칭을 바꾸어 『조선민족혁명군』이라는 명칭을 쓰게 하였던것이다.

이리하여 1949년 6월20일 이남 강원도횡성에서 대대편성을하고 제5대대장에 백의곤 제6대대장에 김현주를 임명하고 각개 대원들에게 장비시킨 무기외에 특수무기로써 제5대대에는 경기관총1정 지뢰폭탄 수10개 폭발약 및 독약과 권총2정 전선절단기 2개 제6대대에는 지뢰폭탄 수10개 다이나마이트 약간 권총 및 전선절단기 2개등 미국제 무기와 군용품을 주는동시에 남조선괴뢰정부가 공화국북반부의 경제를 교란시킬목적으로 위조한 북조선중앙은행권 위조지폐 50만원과 천막30여매 또는 38이북의 군사전략지도를 2개대대에 각각 배포하고 또는 38이북에 잠입하여 만행한데대한 증거와 또는 간첩자료수집용으로 카메라 2개씩을 주었던것이다.

또한 제5대대에는 직접 국방군 보도원인 소위 주소위 (공화국경비대에게 섬멸된자)를 보도반 책임자로 배치한후 6월25일에는 제5 제6대대전원을 38선 접경에 집결시킨후 륙군정보국 제5과장 한왕룡은 어제부터 38이북에 침입할것을 고하고 이에 공포심을 느끼는 대원들을 위협하기위하여 『대대장의 명령을 불 복종하는자에게는 총살하라』라고한 채병덕의 지령을 전달하고 량대대는 김현주 백의곤의 지휘아래 6월27일 운무가 가득낀 기회를 리용하여 38선을 넘어 6월28일에는 강원도 양양군서면 오색리에 잠입하게 하였던것이다.

천인공노할 반역도배 『호림부대』의 잔학한 만행

재판장의 심문에의하여 범인들이 자백하는 만행의 가지가지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최후발악하는 리승만매국도당들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였다.

실로 『호림부대』는 사람으로서는 차마 볼수없는 만행을 서슴치않고 감행하였으며 무고한 농민들 심지어 부녀자 어린이들까지 무차별 총살하며 평화스러운 북반부 농촌을 방화략탈하며 온갖 악귀적행동을 감행하였던것이다.

이제 살인마들이 두개그루빠로 나누어 감행한 범죄사실을 본다면 소위 『호림부대』 제5대대는 소위 백의곤의 지휘하에 공화국북반부 양양군 강현면 속초면 토성리의 험악한 설악산에 잠복하면서 1949년 7월3일에는 양양군 강현면삽봉리 부락을 습격하여 부락자위대원 1명을 총살하고 무고한 인민 14명을 랍치하였으며 7월8일에는 양양군 토성면 신성봉에서 청년 2명과 11세와 13세의 소년2명을 랍치하여 총살하였고 7월3일에는 양양군강현면 삽봉리 부락 리인민위원회를 불의에 습격하여 공문서 일체를 략탈하여 불살랐고 동군 속초면 신흥사부근에서 공회당을 습격방화하고 7월2일에는 양양군강현면 하재동 부근에서 민가를 습격하여 농우 2두와 쌀20여두를 략탈 7월3일에는 동면 삽봉리부락농가를 습격하여 백미 3가마니를 략탈하고 동일 신흥사부근에서 농우 1두와 7월8일에는 고성군 간성면 장진리에서 농가를 습격하여 백미 10여두와 가마2개와 농우4두를 략탈하였다.

한편 제6대대는 소외 (訴外) 김현주의 지휘하에 린제군북면 서하면 고지 설악산

중에 잠복하면서 7월3일에는 린제군 북면 백담사부근에서 청년2명을 체포 총살하고 또 동일중으로 농가를 습격하고 녀맹원1명을 체포하여 총으로 살해하였고 또한 동일 백담사부근에서 북면인민학교 교원 리태옥외 10명의 인민과 백담 녀성동맹위원장 리종춘의 부부를 랍치하여 7월5일에는 리종춘의 남편인 지석주를 죽이고 리종춘은 대대장 김현주가 끌고 다니면서 강제로 수욕을 채웠고 7월6일에는 전기랍치한 교원 리태옥을 총살하였다.

또한 7월3일에는 북면 백담리 부락민청사무실을 습격방화하였고 동일 북면 가평리 부락을 습격하여 가평리 진료소 약품 및 의료기구 전부와 소비조합상점을 습격하여 귀중품등 시가 52간9천여원분을 략탈하는동시에 소비조합 및 림산작업소와 민가6호에 방화전소케 하였으며 가평으로 통하는 전화선을 절단하였으며 또 콩크리―트로 가설한 당장교를 폭파하였으며 7월2일밤에는 린제군 북면 백담리 북면에서 농우1두 7월3일에는 백담사에서 정양하는 병자들의 쌀 대두 두말을 강탈하고 7월4일에는 동면 남교리부락에서 매봉산에 이르는 구간에서 농가를 습격하여 감자를 략탈하고 7월5일에는 서하면 열화리부락 농가를 습격하여 농민들이 저장한 식량과 농우1두를 모조리 략탈하였던 것이다.

이상과같은 만행에 의하여 현지인민들이 입은 피해는 살해28명 랍치50명 농우7두 건물7동 식량 50여두 청밀 30초롱 기타약품 상품 생활필수품등 56,367전이 략탈 또는 소실되였다. 놈들은 이와같은 살인략탈행위를 감행하면서도 그 략탈방법과 살해방법에 있어서 실로 형언할수없는 악마적 행위를 감행하였다. 범인들의 자백과 증인의 진술과 증거품 및 그들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에 의하여 몇가지의 실례를 들면 부인 김윤선 (33세)은 부락자위대 책임자인 남편의 거처를 고백치않는다하여 칼로 젖 (유방) 을 베고 눈알을 뺀다음 총살하였고 인민학교 교원 리태옥 (23세남) 을 총살한후에 일본도로 목을베고 그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였으며 리옥자 (32세녀) 를 식량을 주지않는다는 리유로 즉석에서 총살하였고 김봉진(29세 남)은 불붙는집에 몰아넣고 총살하였으며 심지어 11세되는 김동록과 13세되는 김부현 등 어린 소년들까지 저희들의 행동을 류설할 위험이 있다하여 총살하였다. 또한 놈들은 략탈한 식량 또는 무기탄약등을 지워가지고 다니기위하여 랍치한 김응령 (41세 남) 등 15명의 농민을 최후섬멸을 당하는 자리에서 1시에 총살하였다.

피소자들 5명이 감행한 범죄사실

피소자들의 개별적 사실 심리과정에서 본인들의 자백과 증인들의 증언 및 증거물들에 의하여 판명된 이상과같은 범죄사실에서 피소자 5명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것이 공판진행과정에서 명백히 폭로되였다. 피소자 전월성은 서울에서 방랑하는 무뢰한으로서 1949년 5월하순경부터 6월중순까지에 걸쳐 38이북에 무장도당들을 잠입시킬 필요한 준비로서 무기제작을 하는 김현주와 결탁하여 이에 적극 협력하였고 『호림부대』 에서는 제6대대의 특무과장으로서 전기한 만행에 직접 참가하여

주동역할을 하는 한편 특무파원들을 발동시켜 대내에서 그들의 이른바 『불순분자』 적발에 활동하였으며 백담사부근 로상에서 청년2명을 체포하여 리한기와 소외 리윤철에게 명령하여 총살케하였으며 동일 백담리 부락민청사무실을 습격하였을때 랍치한 민청원 1명을 피소자 리한기에게 명령하여 총살시켰고 백담사부근 농가를 습격하여 체포하였던 녀맹원 1명을 피소자 조석풍에게 명령하여 총살케하였으며 백담사부근에서 인민학교 교원 리태옥외 10여명과 리종춘부부를 랍치하여 피소자 리한기에게 명령하여 전기 리태옥을 살해케하였다. 피소자 리한기는 전월성의 지시에 의하여 백담사부근에서 전기 소외 리윤철과 함께 청년2명을 총살하였고 백담사민청사무실습격당시 체포한 민청원1명을 총살하였고 전기 리태옥을 직접총살하였다.

피소자 조석풍은 『호림부대』의 만행에 적극 참가하였을 뿐만아니라 전월성의 지시에 의하여 백담사부근 농가를 습격하여 전기녀맹원1명을 직접총살하였다. 피소자 고찬선은 『호림부대』 입대전에 대한청년단에 가담하여 5•10단선을 위시하여 8•15 3주년에 이르는동안에 서울에서 직접 자기손으로 민애청원20여명을 체포하였을 뿐만아니라 『호림부대』 에 참가한후 38이북 화채봉부근 강련면삼봉리부락에서 부락자위대원 1명을 총살하였고 무고한 주민 6명을 총살하고 농우 식량들을 략탈하고 농민40여명을 랍치하는 만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소자 김인환은 서북청년회에 가입하여 1947년 3월까지 종로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전후 8회에 결쳐 10여명의 민주애국 청년을 검거투옥하였고 『호림부대』에서는 제5대대의 2중대2소대 제2분대장으로 전기만행에 적극가담하였고 공화국경비대에게 포위당하자 남조선으로 도주하기 위하여 로인을 무기로 위협하여 길안내자로 내세우고 도망가면서 민가에 침입하여 농우1두를 강탈하여 도식하였다.

이상과같은 사실들은 특히 그들에게 직접랍치되여 갖은 만행을 당한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은 그들의 가증 잔악한 죄상을 여실히 실증하였다.

검사의 준렬한 론고

전후 약8시간에 결쳐 개별적 사실 심리가 끝난후 오후6시에 검사 안병진씨가 피소자 5명에 대한 론고를 진술하였다.

론고에서 안병진검사는 본건공판은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리승만을 위시하여 망국적 괴뢰도당들이 반인민적 흉계로서 동족상쟁을 꾀하며 국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내전도발의 만행의 하나임을 실증하게 되는것이라고 전제한다음 검사는 남조선 반동도배들의 매족적 본질을 폭로하면서 리범석의 조직파견한 지난 1월19일 해주테로방화단 사건등을 회상시키였다.

또한 본건범행의 본질은 미제국주의자에게 조국을 팔고 민족분렬을 기도하며 내란을 조작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까지 인민학살을 감행함으로써 괴뢰정권을 지속시키려는 리승만도당의 반인민적 반역행위임을 론증하고 피소자들은 가장 포악한 인민의 원수로서 엄중히 처단함으로써만 인민의 요구에 상부할것이라고 하여 피소자 각개

인들에 대한 전기한 바와같은 범죄사실을 렬거하고 북조선 사법국 재판소 검찰소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 제20조에 의한 반동죄(무장폭동 테로 후방교란등의 범죄)를 구 성하므로 피소자 전월성이하 피고 5명 전부에게 각각 사형을 구형하고 그에 소속한 전재산 몰수를 요구하였다.

검사의 론고는 50분간에 걸쳐 진행되였다.

살인귀들의 최후진술

검사의 론고가 끝난다음 피소자들의 범행에 대한 변호인들의 변호가 시작되였다.

최풍히 변호인은 피소자 전월성 동 리한기 동 조석풍 한인수 변호인은 피소자 고찬선 동 김인환의 변호를 담당하였다.

변호인들은 피소자들의 만행이 반인민적 반민족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만 동정을 바랄뿐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피소자들의 범행은 어느것을 보아도 조선인민의 용서와 동정을 받기에는 너무나 죄악적이며 비인간적이고 반민족적인것이였다.

변호가 끝난다음 피소자들의 최후진술이 있었다. 만장 긴장한 주목가운데 피소자들은 리승만도당의 모략에 기만당한것을 통분히 여긴다고하며 울음섞인 목소리로 생명만 구원해줄것을 애원하여 그들의 정체를 숨기여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모든 행동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놈들인가를 천하에 고백하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였다.

인민의 심판 나리다

피소자들의 최후진술이 끝나고 20분동안 휴계한후 오후 8시 드디어 재판장으로부터 판결문 랑독이 있었다.

만장 총 기립한 가운데 재판장은 본전 범행의 일체 사실을 지적하고 본전 범행은 북조선 사법국 재판소 검찰소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 제20조에 의한 반동죄(무장폭동 테로 후방교란등의 범죄)를 구성함으로써

피소자	전월성	사형
동	리한기	사형
동	조석풍	사형
동	고찬선	사형
동	김인환	사형

을 각각 선고하였다.

끝으로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특사를 청원할 수 있음을 통고하였다.

조선에서의 미국침략자들의 만행에 관한 문헌집

一九五四년 四월 一일 인쇄
一九五四년 四월 二일 발행

(값 四〇九원)

발행소 평양특별시 조선로동당출판사

인쇄소 평양특별시 로동신문출판인쇄소

ㄱ—30092 발행부수 6,000부